

2022-2 상명 에세이경진대회

2022학년도 제2학기

상명 에세이경진대회

수상작 모음집

2022

<학술적 에세이>

1. (대상) 대한민국 대학 서열화의 문제점과 해소방안	1
2. (최우수상) 온라인 선물 발전에 따른 선물 트렌드의 변화 분석	34
3. (최우수상) 대학 내 언어폭력 실태와 해결방안	52
4. (우수상) 물의 pH가 켈그라스 생장에 미치는 영향	61
5. (우수상)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의 패션	74
6. (우수상) 한국인들의 아파트 선호 현상에 대한 분석	84
7. (우수상) 상명대학교 인공지능 챗봇 ‘로보어드바이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발전 방안 연구	101
8. (우수상) SNS중독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해결방안	116
9. (우수상) 영어 간판 증가에 대한 인식 및 문제점 탐구	126
10. (우수상)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 문제점 및 해결방안 연구	143
11. (우수상) 웹툰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연구	157
12. (우수상) 역사 왜곡 사례 분석을 통한 올바른 역사 인식을 위한 방안 연구	175
13. (우수상) 교사 브이로그에 대한 인식과 개선 방안	192
14. (우수상) 학생들의 Edu-tech 인식 조사를 통한 활용 방안 모색	207
15. (우수상) <아이 웨이웨이: 인간미래>의 사회적 가치 평가	222
16. (우수상) 제로슈가 식품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발전 방안	235
17. (우수상) 현대인의 눈 건강을 위협하는 안구건조증의 발병 원인과 예방 및 대응방안	247
18. (우수상) 상명대학교 공용 와이파이 장애 현황과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263

<비평적 에세이>

1. (대상) 제약에서 벗어난 가장 솔직한 사랑의 형태	272
2. (최우수상) 무정하고, 무정한	275
3. (최우수상) 수상할 것 없는 셋의 하루	279
4. (우수상) 짓밟힌 청춘의 굴레	282
5. (우수상) 세상을 변화시킬 생존 기계들	285
6. (우수상) 적어도 뒤통수는 선택받았다	289
7. (우수상) 뒤통소: 이방인의 이면	292
8. (우수상) 우리는 유전자의 지배를 받는가	294

대한민국 대학 서열화의 문제점과 해소방안

영어교육과 안성*

목차

1. 서론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 1.2. 연구 방법
 2. 대학 서열화의 현황
 - 2.1. 대학 서열화의 개념
 - 2.2. 대학 서열화의 원인과 서열 결정 요소
 - 2.3. 사람들의 대학 서열화 인식
 3. 대학 서열화의 문제점
 - 3.1. 학습에서의 외부의 과도한 개입
 - 3.2. 대학교 존재 목적의 쇠퇴
 - 3.3. 학력을 향한 지나친 집착
 4. 미래의 대학 서열화 해소 방안
 - 4.1. 해외의 대학 체계 분석
 - 4.2. 대학 서열화 해소 노력 사례
 - 4.3. 대학 서열화 해소를 위한 주안점과 대학 체계
 5. 결론
- 참고 문헌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학생들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는다.¹⁾ 그 이후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대한민국 교육체계의 최종 단계이자 목표인 대학 입학 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자신이 목표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고 다른 이들과 경쟁하게 하는 대학 입시가 우리나라가 현재 직면한 교육 문제 중 가장 심각하다. 예를 들어, 학생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고작 몇 문제 차이로 다른 대학에 진학하게 되어 사회로부터 받는 인정의 정도가 확연히 다르다. 대학 입시의 성공 여부는 학생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닌 우리나라 사회가 판단한다. 이와 동시에 학생이 특정 대학을 목표로 하는 이유 또한 사회가 암묵적으로 만들어 낸 기준에 근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학생들이 대학 진학의 진정한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획일화된 목표만 가지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대학 서열화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하던 대학 서열화를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시대를 거듭할수록 대학 진학을 향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대학 입시 과정에 수많은 변수가 생겨나 옳지 못한 방법으로 개입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불공정함을 낳는다. 대학 서열화라는 개념이 단순히 교육적인 측면에서 뿐만이 아닌 사회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대학 서열화가 학습에서의 경쟁을 유도해 전체적인 교육수준을 점점 증가시키고, 각 대학이 대학 간의 경쟁에서 발전방안을 모색한다는 관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의 속을 들여다보면 문제점이 존재한다. 과도한 경쟁 속에서 육체적 그리고 심적으로 고통받는 학생들과 교육의 본질이 쇠퇴하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대학 서열화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더 많다고 추측하고 있다.

대학 서열화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대학 서열화를 더욱 심층적이고 다각화된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학 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문은 현재 대학 서열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대학 서열화의 개념과 원인에 대해 알아보고, 대학 서열화의 문제점을 분석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학 서열화에 대한 관점을 넓히기 위해 대학교수와 고등학교 교사, 그리고 상명대학교 재학생을 상대로 인식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학 서열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하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구축해야 할 대학 체계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우리나라 교육을 돌아보고, 학생이 학습에서의 본질을 되찾고, 우리나라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1.2. 연구 방법

연구 중 사람들의 대학 서열화 인식을 조사할 때는 직접 설문 조사지와 질문지를 만들어 통계를 낼 예정이다. 위 조사는 현직 대학교 교수와 고등학교 교사로 구성된 교육 제공자와 상명대학교 재학생들로 구성된 교육 대상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총 대학교 교수와 고등학교 교사 각각 한 분씩과 상명대학교 재학생 80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글 폼 양식을 통해 2022.11.10.부터 2022.11.14까지 총 5일간 실시한다. 또한 설문조사 문항은 부록에 제시한다. 위 설문조사 이외에 대학 서열화의 개념, 원인, 문제점을 비롯해 해외의 대학 체계를 분석하는 부분은 이와 관련된 논문과 보도되는 기사나 미디어를 활용하며 자료를 수집하려고 한다.

2. 대학 서열화의 현황

2.1. 대학 서열화의 개념

¹⁾ 법률용어사전, “의무교육”,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657796&cid=42131&categoryId=42131>>

2.1.1. 대학 서열화의 정의

대학 서열화는 “특정 기준에 근거하여 대학별 위계가 정해지고 그 질서가 굳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²⁾ 이는 정부에서 정확하고 상세한 기준을 제시해 그에 근거하는 것이 아닌 사람들이 대학의 좋고 나쁨을 따지다가 암묵적으로 정해진 서열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사회에 만연한 학벌주의로 학벌을 구분 짓기 위한 줄 세우기이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우리나라 대학 서열에 대해 묻는다면, 우리는 대부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의 순서로 대학을 나열한다. 이처럼 우리는 서열을 구분하는 기준도 모르는 대학 서열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다. <그림 1>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대학 서열화에 따른 대학의 서열은 정확한 기준에 근거하여 책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2021 중앙일보 대학평가

2021 중앙일보 대학평가 종합평가					
순위	대학명	점수	순위	대학명	점수
1	서울대	232	21	세종대	136
2	연세대(서울)	220	21	전남대	136
3	한양대(서울)	207	23	국민대	134
4	성균관대	204	24	인천대	132
5	고려대(서울)	199	25	숙명여대	130
6	이화여대	167	26	충남대	126
7	경희대	166	27	가천대	122
8	중앙대	164	27	송실대	122
9	동국대(서울)	162	29	제주대	117
10	한양대(ERICA)	160	29	충북대	117
11	건국대(서울)	159	31	홍익대	115
11	서울시립대	159	32	광운대	113
11	아주대	159	33	단국대	110
14	서강대	157	34	부경대	109
15	부산대	147	34	울산대	109
15	인하대	147	36	강원대	107
17	서울과학기술대	146	37	순천향대	104
18	한국외국어대	145	38	경상국립대	102
19	경북대	143	39	경기대	101
20	전북대	137	39	영남대	101

※동순위는 가나다순. 종합평가는 인문·사회·자연과학·공학 등 4개 계열 이상을 갖춘 종합 4년제 44개 대학 대상 (포스텍·KAIST 등은 계열평가 대상)

The JoongAng

<그림 1> 2021 중앙일보 대학평가

<그림 1>은 중앙일보가 2021년에 진행한 대학평가 순위를 나타낸다. 위 평가는 교수 연구, 교육 여건, 학생 교육 노력 및 성과, 평판도 총 4개의 부문으로 구성된 기준으로 진행되었다.³⁾ 이는 대학 서열화로 굳혀진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대학의 서열이 객관적이고 신뢰도가 높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말한다.

2.1.2. 대학 서열화 관련 용어

2) 오호영, 대학 서열과 노동시장 성과 - 지방대생 임금차별을 중심으로 -, 勞動經濟論集, Vol.30 No.2, 한국노동경제학회, 2007, pp. 88.

3) 남윤서,이후연,함민정, '논문의 힘' 연세대 4위→2위...동국대 처음 '톱10' 올랐다 [2021대학평가], 중앙일보, 2011. 11. 10.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22495>>

우리나라 사회에 대학 서열화가 팽배해지면서 기존에 없던 용어들이 많이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학 서열화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본 주제와 관련된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알아야 한다.

<표 1> 대학 서열화 관련 용어 정리 표^{4) 5)}

국립대 / 사립대	나라가 설립하여 직접 관리 및 운영하는 대학을 뜻하는 용어 / 개인이 설립하여 경영하는 대학을 뜻하는 용어
지방대	서울 이외의 지역에 있는 대학을 뜻하는 용어
인서울	서울에 있는 4년제 종합대학을 뜻하는 용어
지거국	지방 거점 국립대의 줄임말
지잡대	지방 잡 대학의 줄임말로 수준이 낮은 대학이라는 비하의 목적이 담긴 용어
일반대 / 전문대	전문대를 제외한 일반적인 4년제 대학을 뜻하는 용어 / 전문적인 이론과 기술을 가르치는 대학을 뜻하는 용어
4년제 / 3년제 / 2년제	n년의 정규 교육과정을 가지는 대학을 뜻하는 용어
서연고 / 서포카 / 서성한 / 중경외시 / 건동홍 등..	대학 서열들을 줄인 용어들로 차례대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뜻하는 용어 / 서울대, 포스텍, 카이스트를 뜻하는 용어 /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를 뜻하는 용어 / 중앙대, 경희대, 외대, 서울시립대를 뜻하는 용어 /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를 뜻하는 용어
의치한약수	의과 대학, 치과 대학, 한의 대학, 약학 대학, 수의 대학의 줄임말
분교	이름이 동일한 대학을 다른 지역에 새로이 개교한 대학을 뜻하는 용어
이원화 캠퍼스	본교와 같은 학교로 위치만 분리되어 다른 지역에 있는 대학을 뜻하는 용어
올려치기 / 내려치기	고평가하다를 뜻하는 용어 / 저평가하다를 뜻하는 용어
홀리	홀리건에서 파생되었으며 특정 대학을 과도하게 추앙하는 사람을 뜻하는 용어
갓반고 / ㅈ반고	입시 실적이 좋은 일반계 고등학교를 뜻하는 용어 / 수준이 낮다고 여겨지는 일반계 고등학교를 뜻하는 용어
n수	2번째는 재수, 3번째부터 3수, 4번째는 4수 이렇게 대학 입시를 몇 차례 치렀는지 알 수 있는 용어
반수	대학교에 재학하다가 다시 대학 입시에 도전하는 행위를 뜻하는 용어
실수 / 허수	실제로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적이 좋은 사람을 뜻하는 용어 / 실제로는 공부를 하지 않고 성적이 나쁜 사람을 뜻하는 용어

⁴⁾ <https://terms.naver.com>

⁵⁾ <https://cafe.naver.com/suhui/25199424>

대학 서열화와 관련된 용어를 몇 가지 선별하여 그 용어와 그에 따른 정의를 <표 1>로 정리하였다. 대부분의 신조어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생겨났다. 앞으로 인터넷과 같은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더 많은 신조어가 생겨날 가능성이 높다. 그때 우리는 그 중 특히 특정 대학을 비하하거나 좋지 못한 의도가 담긴 용어가 생겨나는 것에 항상 경계하고 주의해야 한다.

2.2. 대학 서열화의 원인과 서열 결정 요소

2.2.1. 대학 서열화의 원인

대학 서열화는 나라에서 제시한 기준으로 규정되지 않고, 사람들에 의해 암묵적으로 정해진 서열이다. 우리는 이러한 서열에 의문을 가지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 서열 내에서 더 위쪽에 있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가를 고민한다. 이때 우리는 도대체 왜 대학 서열화가 일어나고 어떤 이유로 벗어나지 못하는가에 의구심을 가져야 한다.

첫 번째, 과도한 경쟁을 유도하는 현재 우리나라의 입시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의 최종 목적지는 대학 진학이라 할 만큼 대학 진학 이전까지의 교육이 지나치게 대학 입시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본래 ‘경쟁’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뜻을 내포하는 단어가 아니다. 그러나 이 대학 서열화때문에 학습에서의 경쟁이 점점 학생에게 부담되어가고 의무로 느끼게끔 한다. 경쟁의 진정한 목적인 학습 동기 유발과 전체적인 교육 수준 증대가 대학 서열화 탓에 한층 멀어지고 있다. 학생은 그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 권장하는 학습 시간을 뛰어넘어 학생 본인이 고통을 느낄 만큼의 학습을 이어간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에 대한 보상을 얻고자 자신이 목표로 설정하는 대학을 더 높은 대학에 관심을 두게 되고 다른 학생들도 이러한 과정을 겪는다. 학생이 학습을 통해 얻은 생각 그리고 얻기까지의 과정 자체로 의미가 있는데, 좋은 대학의 합격 여부로 자신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입시 제도는 잘못되었다. 이후 학습에서의 경쟁은 대학 서열 내에서의 경쟁으로 이어져 대학 서열화는 더욱 굳어진다.

두 번째, 교육 수요의 서울/수도권 집중화는 오히려 대학 서열화를 견고하게 한다. 우리가 현재 대학의 서열을 떠올려보면, 상위권에 속한 대부분 대학이 모두 서울권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향한 학생들의 관심은 증가하다 못해 너무 지나친 정도에 이르렀다. 실제로 지난 3년간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하려는 경향은 심화되고 있다. 이전에는 지역 출신 학생이 지역 대학을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최근 들어 그 비율을 수도권 대학을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앞서가고 있다. 강원도 내 수험생을 예시로 들자면, 2020, 2021학년도에는 강원, 서울 순으로 진학을 희망하였다. 그러나 2022학년도에는 서울, 강원 순으로 진학 희망 비율이 나타난다.⁶⁾ 이를 통해 학생들의 수도권 대학 진학 희망 비율 높아지는 과정에서 교육의 지역 편중화는 대학 서열화를 유지할 가능성을 높인다.

세 번째, 사회 분위기의 큰 부분을 맡는 학벌주의는 대학 서열화를 조장한다. 우리나라 사회 속에서 학벌주의는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깊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학벌주의를 과소평가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에서 흔히 학벌을 따진다. 한 사람의 출신 대학은 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어버리고 있다. 대학 서열 상위에 있는 대학 출신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호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고, 그 반대의 경우라면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진다. 또한 수차례 끊이지 않는 학력 위조 사례가 뉴스와 기사를 뜨겁게 달구는 것은 우리나라가 학벌을 얼마나 중시하는지를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학벌은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한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공정채용정책 현장실태 조사 및 정책이슈 분석’ 보고서를 보면, ‘블라인드 채용’

⁶⁾ 우연철, 지역 인재 수도권 이탈 현상, 어떤 경향 보였나, 쿠키뉴스, 2022. 06. 16.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202160035>>

이 도입된 이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이 8%에서 5.3%로 줄었으며 비수도권 대학 출신 비율은 43.7%에서 53.1%로 늘어났다.⁷⁾ 이는 우리 생활 속에 학벌주의가 벗어나는 데에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대학 서열화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이다.

2.2.2. 대학 서열화의 서열 결정 요소

우리는 대학 서열화가 일어나는 이유 그리고 그에 대한 원인을 알아본 후 대학 서열화의 내부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현재 대학 서열은 교수 연구, 교육 여건, 학생 교육 노력 및 성과, 평판도 등과 같이 객관적이고 규정된 기준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이때 우리는 어떤 요소들이 대학의 서열을 결정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가져야 한다.

첫 번째, 교통편은 대학 서열에 큰 영향을 미친다. 교통이 편리하고 도심 접근성이 높은 곳에 있는 대학은 대부분 서열의 위쪽에 있다. 그리고 교통편이 좋다는 말은 주변 인프라 편의시설이 발달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활하기 좋은 환경에서 대학을 재학할 수 있는 점은 큰 장점이다. 실제로 교통편이 대학 서열에 큰 변동을 일으킨 사례가 있다. 70년대에는 우리나라 75%의 사람이 지방에 거주하고 있어서 지금과 대비되게 지방대학이 강세였다. 이후 80년대에 서울 인구가 증가하고 지하철 2호선이 개통함에 따라, 지하철 2호선 주변의 대학의 위상이 크게 상승하였다.⁸⁾ 이와 같이 교통편의 발달은 대학 서열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그림 2> 상명대학교 에브리타임 글

<그림 2>는 상명대학교 에브리타임⁹⁾ 에서 대학 서열에서의 교통편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그림 2>에서 보이는 글의 작성자는 본교의 교통편이 좋아진다면 본교의 이미지가 더욱 좋아져 대학 서열 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한다. 현재 본교는 학교 주변에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이 3호선 내 경복궁역, 홍제역이라 할 만큼 가까운 지하철역이 없어 교통편이 열악하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신분당선

⁷⁾ 김청연, '명문대 '일류대학'...서열화하는 '슬픈' 표현들, 한겨레, 2021. 12. 14. <<https://m.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23112.html>>

⁸⁾ 대입성공의 지름길, [옛날대학순위] 대학순위 변천사 대학서열 이렇게 변해왔어요 [학생부종합전형], 대치 최고의 입시전문 블로그, 2014.12.28. <<https://m.blog.naver.com/univsj/220222443276>>

⁹⁾ 편리한 시간표 제작, 대학교 커뮤니티, 대학 관련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제작된 온라인 서비스를 말한다

강남~신사구간 개통 보도자료를 통해 상명대 역 개설을 언급하였다.¹⁰⁾ 이렇게 작성자의 글처럼 국토교통부의 계획이 정부의 승인을 얻어낸다면 본교의 큰 장점이 된다.

두 번째, 대학의 자본과 지원 정도에 따라 대학 서열이 좌지우지된다. 대학 서열 내에서 대학들은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 학생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좋은 교육은 대학이 학생에게 투입하는 교육비를 통해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다. 실제로 서울대는 연마다 학생 1인당 투입하는 교육비가 평균 4800만원대, 연세대와 고려대는 평균 2700만원대, 중앙대와 경희대 등은 평균 1500만원대이다.¹¹⁾ 대학 서열 내에서 위쪽은 대부분 사립대로 이루어져 있다. 사립대는 개인이 운영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지원 및 투자가 타 사립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때 대형기업이 대학을 인수하는 등의 상황이 벌어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90년대에 아주대학교는 (주)대우가 인수하고 성균관대는 삼성이 인수함으로써 두 대학의 위상이 크게 올라가 서열 내에 큰 이동이 일어났다. 성균관대는 삼성 덕분에 올라간 위치를 유지하고 있지만, 아주대는 1999년 대우그룹의 부도와 해체로 인하여 서열이 크게 내려갔다. 이렇게 대학의 자본과 지원 정도로 대학 서열은 큰 변화를 겪는다.

세 번째, 온라인 커뮤니티는 대학 서열화를 만들어낸 장본인으로서 대학 서열에 대해 알가알부한다. 대학 서열화 자체가 사람들의 생각들이 모여 만들어진 하나의 문화이기 때문에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의견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위에서 말한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은 재학생 인증 제도를 통해 본교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대학 서열화에 불을 지피는 글이 적다. 그러나 인증 제도가 없고 대학생이 아니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특정 대학을 비하하거나 자신이 생각하는 주관적인 대학 서열을 주장하고 강요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표 1>에서 설명한 '홀리'가 이들을 지칭한다. 이들 중 대부분은 학벌주의가 만연한 우리나라 사회를 잘 이용한다. 특정 대학에 대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거나 기존의 대학 서열을 의도적으로 바꾸려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와 왜곡된 사실을 커뮤니티에 게시하면서 그것이 온라인상에서 일파만파 퍼지게 하려는 의도 또한 존재한다. 이렇게 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대학 서열을 확정 짓기 위함이 아닌, 대학 서열을 주제로 바람직하지 못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온라인 커뮤니티가 대학 서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2.3. 사람들의 대학 서열화 인식

2.3.1. 상명대학교 대학생의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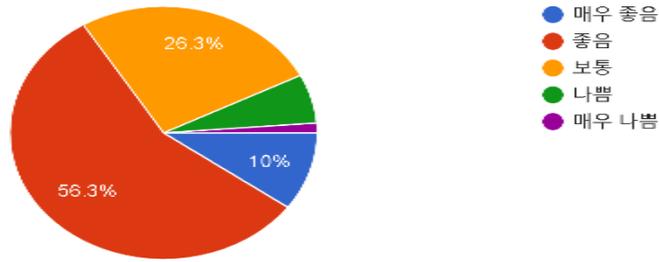
기존에 있던 자료와 통계들 이외에도 현재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통해 본교 학생들의 본교 만족도와 가정된 상황에서의 선택 그리고 대학 서열화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위 설문조사는 구글 폼 양식을 이용해 직접 문항을 만들어 2022.11.10.부터 2022.11.14까지 총 5일간 실시하였으며 총 80명의 학우가 참여하였다.

¹⁰⁾ 박기홍, "신분당선역 여기 생긴데"... 예타 통과도 전에 들썩들썩, 2022.05.31.
<https://reali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2/05/31/2022053100501.html>

¹¹⁾ 이범, 대학 서열은 돈의 서열이다, 경향신문, 2021.09.02.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109020300045>>

3. 현재 재학하는 상명대학교 생활(인적 관계, 학교 시설 등)에 만족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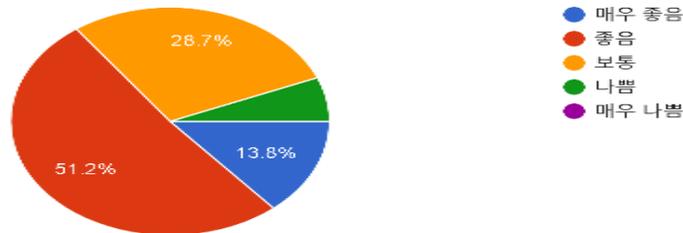
응답 80개



<그림 3> 본교 대학 생활 만족도

4. 현재 재학하는 상명대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수준(교수의 수업방식, 학교의 커리큘럼)에 만족하십니까?

응답 8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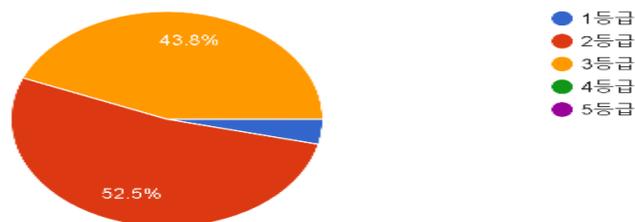


<그림 4> 본교 교육 수준만족도

<그림 3>과 <그림 4>는 본교 학생들이 지금까지 재학하면서 본교에 대한 자신의 만족도를 나타낸다. <그림 3>은 총 66.3%의 학생이 본교에서의 생활에 만족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림 4>는 총 65%의 학생이 본교가 제공하는 교육에 만족하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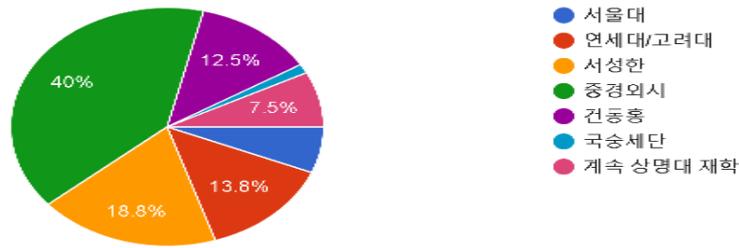
5. 현재 다니는 대학교의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모든 대학을 범위로 여기며 솔직히 응해주세요!!)

응답 80개



<그림 5> 본교의 수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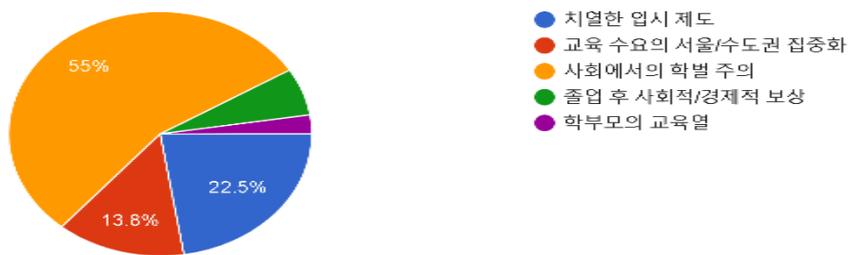
6. 어느 대학의 입학이 보장되어야 다시 한 번 대학 입시에 도전할 수 있습니까? (단, 현재 본인은 20살 & 상명대 입학 보장)
 응답 80개



<그림 6> 재수 시 입학 대학 하한선

또한 <그림 5>은 52.5%의 학생이 본교가 우리나라 내에서 2등급¹²⁾에 속하고 43.8%가 3등급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 본교에 재학하면서 크게 열등감을 느낄 경우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림 6>을 통해 대학 서열화가 학생들의 머릿속에 깊게 자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들에게 위와 같은 상황¹³⁾을 가정하였을 때, 7.5%의 학생이 계속 상명대에 재학하고 무려 92.5%의 학생이 1년이라는 시간을 대학 입시에 다시 소모하여 더 좋은 대학에 도전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를 통해 조금이라도 더 높은 서열에 있는 대학에 재학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봤을 때, ‘삶에서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 ‘취업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순으로 이어졌다.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 만족감을 드러냄에도, 더 높은 서열의 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욕구가 존재한다는 것은 대학 서열화가 생각보다 심각함을 보여준다.

10. 대학 서열화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응답 8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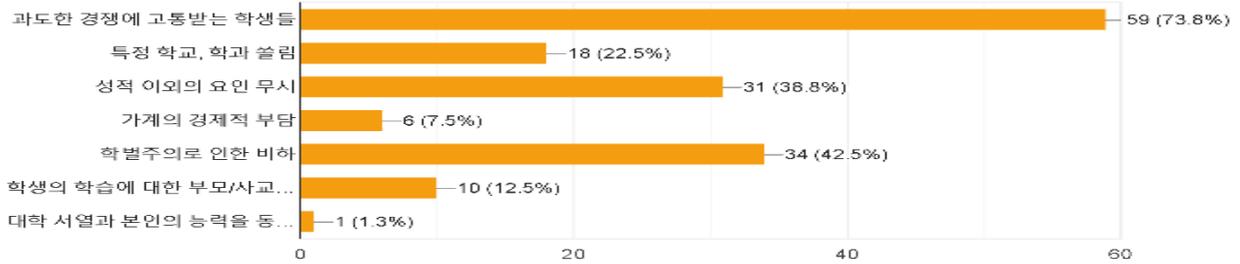


<그림 7> 대학 서열화의 원인

¹²⁾ 설문 조사 내에서 2등급은 상위 20~40%를 뜻한다

¹³⁾ 설문 조사 응시자는 현재 20살이고 상명대 입학이 보장된 상태이다

11. 대학 서열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최대 2개까지만 선택해주세요!!)
 응답 80개



<그림 8> 대학 서열화의 문제점

<그림 7>은 본교 학생들이 생각하는 대학 서열화의 원인을 보여준다. 절반이 넘는 55%의 학생이 사회에서의 학벌주의가 대학 서열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한다. 이는 대학에 진학하여 본교 내 학생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 학생과도 인적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사회에 만연한 학벌주의를 몸소 느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22.5%가 선택한 치열한 입시 제도가 뒤따른다. 그리고 모두 최근에 대학 입시를 겪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대학 서열화에 대한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이라 예상된다. 그리고 <그림 8>은 본교 학생들이 생각하는 대학 서열화의 문제점을 보여준다. 총 59명이 선택한 ‘과도한 경쟁에 고통받는 학생들’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떠올랐고 그 뒤는 34명이 선택한 ‘학벌주의로 인한 비하’가 이어갔다.¹⁴⁾ 이는 서열화의 원인과 문제점은 관련이 깊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회에서의 학벌주의가 심해지자 사람들에게 학벌이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되어 비하가 생기게 된다. 그리고 치열한 입시제도로 인하여 학생들이 과도한 경쟁에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된다.

2.3.2. 상명대학교 교수님 & 현직 고등학교 교사의 인식

우리는 직접 교육계에 있으며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을 가르치거나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 제공자의 의견을 통해 대학 서열화에 대한 관점을 넓혀야 한다.

대학생을 상대로 교육을 제공하고 여러 대학교에 교수로 재임하면서 대학 서열화를 몸소 느끼는 대학교 교수의 목소리를 들어보아야 한다. 현재 상명대학교에 재직하는 한 교수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우리나라 대학 입시 제도를 형평성을 갖추지 않은 불완전한 존재라고 말하였다. 학생과 학부모가 입시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대학 서열화의 원인을 학벌주의 사회와 등급을 나누려는 기본적인 욕구라 하였다. 이 때문에 학생들이 사회와 주변의 인정을 얻기 위해 좋은 대학에 가려 노력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대학 서열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학의 존재 이유라고 말하며 대학이 과정이 아닌 목적이 되어버렸다고 하였다. 또한 자신이 교수직을 맡으며 대학마다 연구 환경과 연구 지원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주로 서열 내 위쪽에 있는 대학이 좋은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본교에 재임하는 현재, 본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더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중도 탈락을 하는 경우를 보며 대학 서열화를 경험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대학 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졸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대학 입학이 치열한 경쟁 끝에 얻을 수 있는 반면, 졸업은 그에 비해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졸업요건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이렇게 대학 교수의 의견을 통해, 대학교라는 교육기관을 다시 되돌아보았다.

대학 입시과정에서 고등학생과 같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고등학교 교사의 목소리도 들어볼 필요성이 있다. 현재 제주제일고등학교에 재직하는 한 교사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먼저 우리나라

¹⁴⁾ 위 문항은 선택지를 최대 2개 고를 수 있는 문항임에도 응답자 수가 총 80명이라는 사실은 변치 않기 때문에 명수로 표기하였다

대학 입시 제도에 대한 생각을 물어본 질문에는 경쟁을 부추기는 대학과 학생들을 줄 세우는 불안정한 도구라고 답하였다. 그리고 대학 서열화의 가장 큰 원인은 사회에서의 학벌주의 및 학부모의 교육열이라고 말하였다. 현재 교사직을 맡으면서 접하였던 경험을 이야기해주었다. 학생들은 대학을 지원할 때, 이전 선배들의 결과와 선생님의 경험담을 통해 선택지를 만든다. 이는 선택지를 만들 때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여 결국 부모님의 의견이 지배적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학부모의 욕심이 담긴 의견이 학생의 대학 입시에 반영되다 보니 이는 자연스레 대학 서열화로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대학 서열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고등학생의 정신건강을 향한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말하였다. 학생 스스로 무엇에 관심 있는지와는 상관없이, 특정 대학 또는 학과 중심으로 서열화가 이루어졌다고 말한다.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 중 한 명이 자신의 내신 성적과 비교과 실적에 비해 관심있는 대학의 입시 결과가 낮아 고민하는 사례를 들었다. 마지막으로 대학 서열화 해소에 가장 필요한 점은 대학이 학문적 지식을 쌓고 탐구 방법, 사고의 틀을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렇게 현직 고등학교 교사의 목소리를 통해, 자신이 교사를 맡으면서 겪었던 경험들과 함께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때문에 대학 서열화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3. 대학 서열화의 문제점

3.1. 학습에서의 외부의 과도한 개입

3.1.1. 부모의 개입

학생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응원해주는 사람은 바로 부모이다. 학생이 힘들 때 가장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사람 또한 부모이다. 그러나 대학 서열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모의 개입은 오히려 학생의 학습에 방해되는 요소로 전락하고 있다. 자기 자식이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학부모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를 자신이 이루어 내지 못하였던 것에 대한 보상 심리로 바라보는 시각 또한 존재한다.

이렇게 도가 지나친 학부모의 개입은 최근 들어 시작하는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교육 수준이 향상하면서 교육과정이 심화되고 있다. 그러면서 어린 나이 때부터 학습에서의 과도한 경쟁을 겪는 경우가 발생한다. 대학 입시와는 다소 거리가 멀다고 느껴지는 초등학교에서부터 학부모의 교육열이 드러난다. 실제로, 한 학부모는 초등학교 교사에게 새벽 2시경에 협박성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교사-학생 사이의 학습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¹⁵⁾ 교사가 자기 자식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되는 행동을 할 경우, 교사를 범죄자 취급하며 교권을 침해하며 교사의 사생활 또한 침해하고 있다. 자기 자식의 좋은 대학 입학만을 바라보며 마땅히 해야 할 도리들을 저버리는 이러한 학부모의 모습은 대학 서열화로 인하여 높아져만 가는 학부모의 교육열을 의미한다.

부모의 개입은 대학 입시 과정에서 극에 달한다.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사회적 지위가 자기 자식의 대학 입시에서 무기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부모의 경제적 능력은 학생에게 도움되는 학습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기반이 된다. 학생이 관심 있어 하는 학습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거나 좋은 수준의 교육을 학생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 경제적 능력에서의 차이는 학습에서의 불공평을 일으켜 학

¹⁵⁾ 황기현, “편법으로 아이 조지면 저도 선생님을...” 새벽 2시 학부모가 보낸 충격 문자, 2022. 11. 01.
<<https://www.dailian.co.kr/news/view/1168816/>>

습이 기득권층에게만 유리하다는 항의를 낳는다.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사례가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조사로는, 소득 상위 10% 이내 부모의 자녀가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 즉 대학 서열 내 높은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소득 하위 10% 이하 부모의 자녀보다 30배 이상 높다.¹⁶⁾ 부모의 경제력은 학생이 대학 입시라는 경쟁에서 동등한 출발선에 위치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닌 다른 학생보다 앞에 있게 만드는 부정 출발의 원인이 되어가고 있다. 또한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사교육 정도도 크게 작용한다.



<그림 9>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현황

<그림 9>는 가구의 소득계층과 사교육비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소득계층이 높아짐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의 정도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대학 서열화로 대학 입시가 더욱 치열해지면서 사교육이 학생의 대학 입시를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에 따라 각 가계는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적지 않은 부담을 지게 된다. 대학 서열 내 높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학생들의 경쟁에서의 사교육은 앞서 나갈 수 있는 윤희제 역할을 한다. 실제로 당시 년도 기준 성적 상위 10% 이내 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가 성적 하위 20% 학생보다 약 2배가량 높다.¹⁷⁾ 이렇게 부모의 경제력은 학생이 학습하는 데에 기여의 수준을 넘어 조종의 수준으로 향하고 있다.

부모의 사회적 지위는 대학 입시 내에서의 암시장을 형성하며 대학 서열 내 높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옳지 않은 지름길을 제시한다. 우리나라 대학입시전형 중 하나인 수시전형에 학생부종합전형이 존재한다. 이는 학생의 내신 성적으로만 학생을 평가하지 않고 학생의 전반적인 학교생활이 담긴 학생부와 함께 평가한다. 위 전형의 취지만 보면, 더할 나위 없이 공평해 보이지만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개입하기 아주 쉽다는 허점이 존재한다. 실제로 서울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서울대 지원자의 최근 5년간 평균 합격률은 약 15%이지만, 서울대 교수 자녀의 합격률은 약 25%에 달하였다.¹⁸⁾ 반면 서울대 정시전형은 큰 차이가 없었다. 이를 통해 학생부 종합전형의 투명성이 의심받는 가장 큰 이유는 부모의 사회적 지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학습에 개입되는 순간, 학생은 학습 과정에서 나쁜 습관을 지닌다. 학생은 대학 서열 내 높은 대학에 가기 위해 다른 학생들과 경쟁을 펼치다가 자신이 뒤처지고 목표한 대학의 기준에 모자란다고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다. 그때 자기 스스로 공부 방식을 개선하거나 시간을 더 투자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부모에 의지하게 된다. 이는 대학 서열화가 학생의 목표를 강요하게 되어 학생 자신이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부모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려는 행위이다. 이

¹⁶⁾ [사설] 부모 재력따라 대학진학 30배 차이난다니, 매일경제, 2012. 11. 06.
<<https://www.mk.co.kr/news/editorial/5335854>>

¹⁷⁾ 김수현, 코로나 학력 격차 현실화하나...소득계층별 사교육비 5배 차이, 연합뉴스, 2021. 03. 09.
<<https://www.yna.co.kr/view/AKR20210309076200530>>

¹⁸⁾ 황인성, [단독] 서울대 교수 자녀면 더 쉬운 '수시' 전형?...'부모 찬스' 때문인가, 쿠키뉴스, 2022. 10. 16.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210160050>>

렇게 부모의 사회적 지위는 학생의 학습에서 멀어져야 하는 하나의 요소이다.

3.1.2. 사교육의 개입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다른 경쟁자와는 차별화되는 것은 필수적이다. 모두가 받는 공교육만으로는 좋은 대학에 가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사교육이 경쟁에서 차이를 낼 수 있는 가장 쉬운 예시이다. 현재 대학 서열화로 과열된 대학 입시에서 사교육은 충분조건이 아닌 필수조건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교육 관계자의 개입은 학생을 도와주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학생의 학습에 도움을 주고자 제공하는 사교육은 학생이 받는 고통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먼저 많은 학부모에게 주목받고 있는 영어 유치원이 있다.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영어 유치원에 보내려는 가장 큰 이유는 영어라는 언어에 좀 더 일찍 친숙하게 하기 위함이다. 나중에 영어를 학습할 때 좀 더 수월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기 때문이다. 영어는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 입시에서도 필수적인 존재이다. 그러나 이러한 학부모의 취지와는 다르게 아이들에게 영어 유치원은 마냥 긍정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일단 영어 유치원은 말 그대로 유치원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원생의 연령층은 5~7세이다. 모국어인 한국어를 숙달하기도 전에 외국어 중 하나인 영어를 학습한다는 점은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으며 이는 제대로 된 학습으로 이어지기 힘들다. 그리고 심한 경우, 영어 자체에 거부감을 유발한다. 교육 제공자로부터의 인정과 칭찬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다른 친구와의 비교, 내용에 대한 어색함 등으로 자신감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대학 서열화로 인한 학부모의 조기 영어교육에 대한 강요는 학생의 학습을 오히려 퇴보하게 만든다.

그리고 현재 수많은 사교육 중 가장 접근성이 쉽고 필수적인 인터넷 강의가 있다. 유명 강사들의 강의를 직접 학원에 가서 수강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인터넷 강의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으며 학습할 수 있다는 점, 실제 강의보다 저렴하여 저소득층 가구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점 등이 있다. 그러나 인터넷 강의는 학생의 학습에 필요 이상으로 개입한다. 우선, 인터넷 강의는 학생이 스스로 필요성을 느껴서 수강하는 것이 아닌 그저 다른 경쟁자들에 따라가는 경우가 있다. 남들이 다 하는 것을 안 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전반적인 학습에 악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인터넷 강의는 학생의 자율성을 억제한다. 인터넷 강의에서 제공하는 주차 별 학습 그리고 그에 알맞은 과제 등을 부여함으로써 학생은 자신의 공부 계획 및 일정을 수립한다. 이러한 방식에 적응하여 학생 스스로 학습을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인터넷 강의는 사교육의 하나의 종류로서 학생의 학습에서 절대적인 존재가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단지 인터넷 강의를 학습 도우미로 인식 해야 한다. 이렇게 대학 서열화로 인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선택한 인터넷 강의는 학생이 학습에 점점 멀어지게 만든다.



<그림 10> 드라마 <SKY 캐슬> 속 입시 코디네이터

<그림 10>은 2018년에 방영된 우리나라 교육의 이면을 드러냈던 드라마 <SKY 캐슬>에 나온 입시 코디네이터¹⁹⁾를 보여준다. 드라마에서 보여준 코디네이터의 파격적인 말과 행동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현실성을 의심하였다. 왜냐하면, 담당 학생에게 벽에 특정한 그림을 걸라고 조언하거나 교우관계와 이성 관계에 대해 참견하는 등 정도가 지나친 지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²⁰⁾ 드라마라는 매체에 의해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더라도 대부분 사실과 가깝다. 이렇게 입시 컨설턴트는 학생이 목표한 즉 대학 서열 내 높은 대학에 진학시키는 것만 바라보고 그 학생의 일상생활을 제어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의 삶에서 학습만이 고려 요소가 되어버려 학습의 본질을 잃어버린다. 또한 만약 학생이 목표를 성취하지 못하였을 때 얻는 상실감은 나중에 사회의 일원이 되어서도 이어진다. 이렇게 대학 서열화로 관심을 갖게 된 입시 학원은 우리 삶을 조종하며 우리를 꼭두각시로 만드는 무서운 존재이다.

3.2. 대학교 존재 목적의 쇠퇴

3.2.1. 특정 학교/학과 쏠림 현상

우리나라 교육의 최종 목적지는 대학교라고 할 만큼 대학 입시는 학생에게 무겁게 느껴진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학교를 왜 다녀야 하느냐는 근본적인 의문을 가진다. 이는 대학의 설립 목적을 통해 알 수 있다. 대학이 존재하는 이유는 학생들에게 어느 학문에 대한 이론 및 실용적인 지식을 학습할 기회와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다.²¹⁾ 이를 고려하여 학생들은 자신이 진학할 수 있는 대학 범위 내에서 자신이 관심 있거나 잘하는 것을 중심으로 어느 대학에 지원할지 정해야 한다. 그러나 대학 서열화는 학생들의 대학 지원 선택지의 폭을 좁히고 있다. 예를 들어, 학생이 지원을 고민하는 A 대학교와 B 대학교가 있다. A 대학교는 학생이 진심으로 원하고 앞으로의 진로와 밀접하게 관련된 교육을 제공할 수 있고, B 대학교는 대학 서열 내에서 A 대학교보다 높은 서열에 있지만, 학생이 별로 관심 있어 하지 않는 내용의 교육을 제공한다고 가정한다. 본래의 대학교 취지에 근거하면, 당연히 학생은 A 대학교에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대학 서열화가 만들어낸 사회에서의 학벌주의로 인하여 B 대학교에 지원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대한민국 통계청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는 336개의 대학이 있다.²²⁾ 대학마다 수십 개의 학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즉 수천 개의 학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학생들의 다양한 관심사를 충족시켜 줄 수많은 학과가 존재하지만, 학생들은 대학 서열화의 영향을 받아 갈수록 특정 학과를 목표로 하여 학습하는 경우가 있다. 최상위권 학생들의 무분별한 의대 지원을 예시로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목표학과를 설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신의 관심사이다. 그러나 딱히 의료직에 관심을 갖지 않더라도 의사라는 직업의 장점, 사회로부터 받는 인정 등 대학 서열화가 부추기는 결과를 얻기 위해 의대에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심지어 대학 서열 내 최상위 계층인 서울대학교 학생들도 의약대에 진학하기 위해 자퇴를 하는 경우가 벌어진다.

¹⁹⁾ 드라마에서는 입시 코디네이터로 표현하지만, 현실에서 입시 컨설턴트와 같은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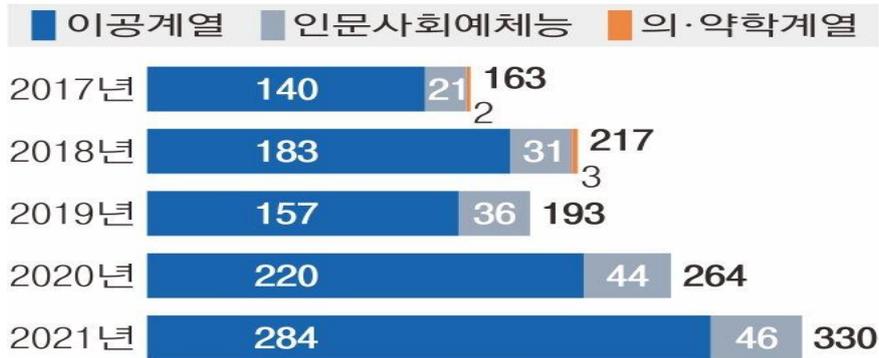
²⁰⁾ 김소희, [이코노미조선] “학생의 꿈을 설계한다”...‘입시 컨설턴트’의 A to Z, 조선일보, 2019. 01. 19.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18/2019011801910.html>

²¹⁾ 강지윤, 대학(大學)의 존재의 이유와 대학교육(大學教育)의 목적, 데일리이코노믹헬스신문, 2022. 03. 14.
<<https://www.newdailyhealth.co.kr/news/629614>>

²²⁾ 대학교 수 (시도/시/군/구), 통계청, 2022. 09. 17.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1181>

최근 5년간 서울대 자퇴생 현황 (단위: 명)



〈자료: 서울대,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그림 11> 최근 5년간 서울대 자퇴생 현황

<그림 11>은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본교 의약대 또는 다른 대학교의 의약대에 진학하기 위해 자퇴하는 정도를 보여준다. 2021년 당시 서울대 입학생 3,153명 중 약 10%의 학생이 자퇴를 한 사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²³⁾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입시의 과정과 결과가 점점 특색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대학 서열화는 학생들에게 특정 학교 또는 학과에만 관심을 갖게 하여 학생 스스로 주체적인 학습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자신 스스로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인지하지 못하여 이후 자신의 삶을 설계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낀다. 특정 학교 또는 학과만을 목표로 정해 학습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경쟁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대학 서열화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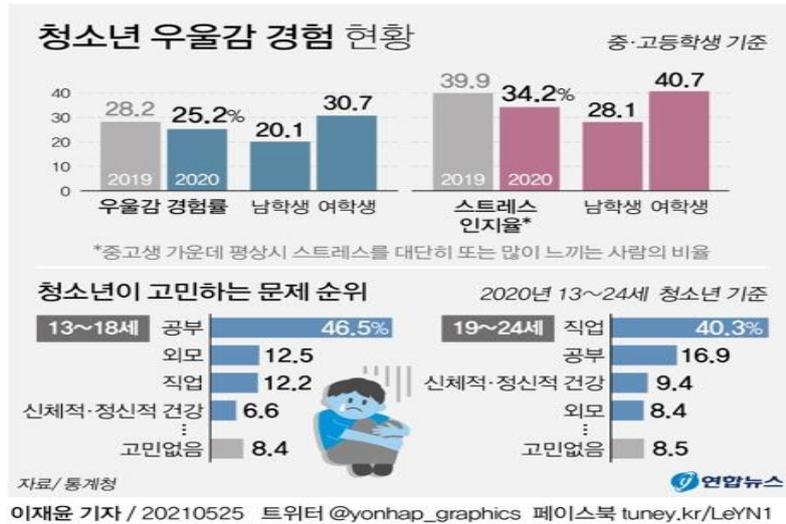
3.2.2. 성적 이외의 요인 무시

대학에 다니는 또 다른 목적 중 사회의 구성원으로 거듭나기 위함이 있다. 올바른 사회 구성원이 되는 데에 물론 지식이 필요하지만, 도덕성과 인간관계 등 다른 중요한 요소 또한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는 대학 서열화가 조장하는 과열된 입시 경쟁에서 성적만을 중요하게 여겨 이에 소홀하다. 몇몇 학생들은 옳지 못한 방법으로 경쟁에서 앞서거나 내면의 상처로 인하여 삶을 바라보는 시야가 좁아진다. 먼저 위에서 말한 옳지 못한 방법은 시험 성적에 눈이 멀어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르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우리에게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으로 많이 알려진 하나의 사건이 있다.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현 모 씨는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총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자신과 같은 학교에 다닌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 주었다.²⁴⁾ 자신의 노력이 아닌 부당한 방법으로 높은 점수를 받음으로써 성적은 올라가지만, 자신의 인격적 성장은 오히려 퇴보한다.

또한 학생들은 경쟁하는 과정에서 내면의 상처를 얻게 되어 허망함과 상실감을 느낀다. 경쟁에서 뒤처지는 순간 느껴지는 열등감 그리고 남들이 자신으로부터 느끼는 우월감은 내적 고통으로 이어진다.

²³⁾ 곽소영, [단독] 서울대 자퇴 330명은 어디로 갔을까, 서울신문, 2022. 09. 21.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921001009&wlog_tag3>

²⁴⁾ 남빛하늘, ‘그것이 알고싶다’ 숙명여자 쌍둥이 사건이란?... 딸들에게 시험문제 유출한 교무부장, 뉴스웍스, 2019. 06. 30. <<https://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2416>>



<그림 12> 청소년 우울감 경험 현황

<그림 12>는 중,고등학생들이 대학 서열화로 인한 과도한 경쟁에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를 보여준다. 2021년 우리나라의 중,고등학생의 46.5%가 공부를 가장 큰 고민으로 골랐다.²⁵⁾ 학습 자체에 대한 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성적 스트레스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관심사를 찾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에 할애할 시간을 학습에 몰두하고 만다. 이러한 생활방식을 통해 학생이 우울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낸 학습의 결과가 만족하지 못할 시 따라오는 회의감은 인간의 상품화를 유발한다. 성적이 다소 낮아 목표하였던 대학에 도달하지 못하고 사회로부터 인정 대신 눈초리를 받는 자신을 보며 자존감은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대학 서열화는 오직 성적만을 바라보게 하며 학생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나는 데에 장애물과 같은 역할을 한다.

3.3. 학력을 향한 지나친 집착

3.3.1. 학생 인권 침해

대학 서열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우리나라 사회의 학벌주의는 대학 서열화의 심각한 문제점이기도 하다. 기존의 학벌주의는 대학 진학 여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전에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이 대학에 진학하며 그 안에서의 학벌주의가 피어나고 있다. 서울 또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 진학 여부와 대학 서열 내 상위 10개의 대학 진학 여부 등에 따라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다. 이 과정에서 고통받고 점점 작아지는 대상은 바로 학생들이다. 자신만의 생각과 관심사로 대학 진학을 원하기보다 위와 같은 학벌주의가 설정한 목표의 대학 진학을 위해 경쟁에 참여한다. 이 경쟁에서 학생의 인권은 침해되고 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종류에는 영재학교, 과학고와 외국어고가 속한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 등이 있다.

²⁵⁾ 광민서, [2021청소년] 중고생 4명 중 1명 우울감 경험...사망원인 1위는 9년째 '자살', 연합뉴스, 2021. 05. 25. <<https://www.yna.co.kr/view/AKR20210525082000002>>

여기서 특목고와 자사고는 내신 성적이 매우 뛰어나야 입학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을 자랑하는 고등학교이다. 이 때문에 위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대학입시에 유리하고 실제로 더 좋은 결과를 얻는다. 그래서 많은 학생이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하여 특목고와 자율고에 입학하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우리는 특목고와 자율고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과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반드시 학생들을 대학 서열 내 위쪽의 대학에 진학시켜야 한다는 의무를 지닌 위 고등학교는 부담을 느껴 학생들을 혹독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된다.

유형구분	연도별	학교수	권리구제 건수	고교당 건수	인권침해 유형별							
					체벌	언어 폭력	차별	자치 활동	학생 생활	교육 활동	징계	기타
일반고	2016	186	67	0.36	11	12	3	0	14	5	11	11
	2017	188	42	0.22	8	4	0	0	11	9	8	2
자사고	2016	23	22	0.96	7	6	1	0	2	3	1	2
	2017	23	30	1.3	6	2	0	0	6	2	0	14
특목고	2016	21	8	0.38	0	4	1	1	2	0	0	0
	2017	21	17	0.81	2	4	0	0	7	0	0	4
특성화고	2016	70	40	0.57	10	7	0	1	12	1	4	5
	2017	70	21	0.3	2	6	0	1	7	3	2	0
자공고	2016	18	4	0.22	3	0	0	0	0	0	0	1
	2017	18	2	0.11	1	0	0	0	0	0	1	0
계	2016	318	141	0.44	31	29	5	2	30	9	16	19
	2017	320	112	0.35	19	16	0	1	31	14	11	20

<그림 13> 서울시 고교 유형별 학생인권교육센터 권리구제 현황

<그림 13>은 자사고와 특목고가 고교 수에 비해 학생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인권침해 유형들을 보면 체벌, 언어폭력, 차별 등이 있다. 학교의 기대치에 학생이 미치지 못할 때 체벌이 이루어지고 학생들에게 긴장감과 강박감을 주는 언어폭력 또한 일어나고 있어 심각하다. 이러한 상황에 오염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히 요즘 들어 더욱 성행하는 언어폭력이 자사고와 특목고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²⁶⁾ 이와 같이 대학 서열화에 의해 특목고 또는 자사고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

교사가 특정 학생에게만 관심을 주고 이외의 학생들에게는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본 글 3.1.1에서 언급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중심으로 학생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 생활기록부를 평가하기 때문에 이를 작성하는 담임교사와 각 과목교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위 교사들이 마주해야 할 학생생활기록부의 수는 수십 개 또는 수백 개기 때문에 모든 학생에게 똑같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기 힘들다. 그러므로 본교의 좋은 대학 입시 결과를 낳기 위해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우선으로 학생생활기록부를 담당하기 시작한다. 바로 이 과정에서 상위권 학생들을 제외한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되고 있다.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평등’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학 서열화로 인하여 우선 기준을 학생의 학습 태도가 아닌 성적이 책정한 것의 결과이다. 실제로 내신이 1등급인 한 학생과 2등급인 다른 학생이 있을 때, 교사가 기술한 내용은 똑같지만 내신 성적이 더 높은 친구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추가로 기술하는 이른바 학생부 몰아주기가 벌어진다.²⁷⁾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좋은 학습 태도를 보인 학생들은 억울한 현실에 부딪혀 학습 동기가 줄어들게 된다. 또한 내신 성적이 좋은 아이들은 좋은 학습 태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습관을 기르게 된다. 이렇게 대학 서열화에 의

²⁶⁾ 손현경, 자사고·특목고 학생 인권침해, 일반고보다 많다, 조선에듀, 2017. 10. 19.
http://edu.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19/2017101902578.html

²⁷⁾ 이해정, 학생부 몰아주기 “1등급만 챙겨라”, EBS 뉴스, 2017. 05. 22.
<https://news.ebs.co.kr/ebsnews/allView/10680503/N>

해 낮아지는 교사들의 윤리의식은 학생 인권침해로 이어진다.

3.3.2. 학벌주의로 생기는 비하

우리나라에 팽배한 학벌주의는 사람들이 서로 물어뜯게 하는 상황을 만든다. 그 과정에서 서로의 학벌을 건드리며 수많은 비하를 주고받는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학벌과 관련된 질문이 우선시 되는 것이 좋은 예시이다. 만약 상대방이 대학에 재학하지 않았거나 대학 서열 내 낮은 대학에 재학하였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다음 질문과 대하는 태도 등 많은 것이 달라진다. 이렇게 대학 서열화는 학벌주의를 조장하여 대인관계에 수많은 마찰을 야기한다. 이러한 마찰을 떠올릴 때 우리는 흔히 낮은 학벌에 대한 비하를 떠올릴 수 있다. 그러나 높은 학벌로 생긴 기대감에 대한 실망 또한 학벌주의가 야기한 비하이다.

먼저, 낮은 학벌에 대한 비하는 일상생활에서 우리도 모르게 사용하고 있다. 스스로는 비하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유튜브에서 수학 강의를 제공하는 한 유명 수학 강사는 생방송 중 시청자가 작성한 댓글의 답변을 하다가 학벌과 관련된 비하 표현을 사용하였다. 당시 시청자가 달았던 댓글은 “가형 7등급=나형 1등급”이었다. 당시 대학수학능력평가지험에는 수학이 가형과 나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형의 응시자는 대부분 이과 학생들이고 나형의 응시자는 대부분 문과 학생들이었다. 그래서 저 댓글에는 가형 학생들이 나형 학생들을 무시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 그때 수학 강사는 7등급 받은 학생은 공부를 안 한 것이며 용접이나 배워야 한다는 망언을 저질렀다.²⁸ 당시 이 발언은 굉장한 질타를 받았다. 왜냐하면, 공연한 자리에서 성적이 낮은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용접공이라는 직업군에 대한 비하도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 생활 곳곳에서 낮은 학벌에 대한 비하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높은 학벌에 대한 비하는 우리가 이를 비하라고 여기지 않고 특정 사람이 마땅히 견뎌야 할 책임이라고 생각할 때 일어난다. 흔히 우리가 우리보다 학벌이 뛰어난 사람을 마주할 때,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기대를 한다. 이 기대는 상대방이 어떤 실수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큰 실망감으로 바뀐다. 또한 이를 비하가 아닌 당연한 반응이라고 여기는 것이 큰 문제이다. 실제로 우리는 한 사람을 향해 높은 학벌에 대한 무수한 비하를 표한 적이 있다. 최근 가요계에 큰 충격을 안긴 가수이자 작곡가인 유희열의 표절 의혹이 그 예시이다.²⁹ 그는 수많은 명곡을 만들어내고, 예능을 포함한 방송에서도 술한 활약을 펼치는 등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준 연예인이었다. 그러나 그가 표절하였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그에 대한 시선은 차가워졌고 많은 사람이 그를 향해 등을 돌렸다. 그때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한 사실이 있다. 바로 그의 학벌을 갖고 도가 지나친 비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는 서울대 작곡과를 졸업하였다. 근데 사람들이 이 점을 악용하여 서울대 출신이 표절을 하느냐는 등 다소 억지스러운 비하를 표하고 있었다. 그가 표절하였다는 사실에 국한하여 비하하는 것이 아닌 다소 연관성이 떨어지는 그의 서울대 졸업 이력을 갖고와 비하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 역시 우리의 서울대 작곡과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뀔므로 인하여 생기는 비하이다. 이렇게 대학 서열화는 높은 학벌에 대한 비하를 당연하게 여기도록 하는 인식을 강요한다.

4. 미래의 대학 서열화 해소 방안

²⁸ 김태현, ‘용접공 비하’ 유명 강사, 이렇게 맘놓고 비난해도 될까, 오마이뉴스, 2020. 01. 16.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04454>

²⁹ 김서윤, ‘서울대 작곡가’ 출신 유희열에 붙여온 ‘표절 의혹’ ...흔들리는 명성, 텐아시아, 2022. 06.16.
<<https://tenasia.hankyung.com/topic/article/2022061523374>>

4.1. 해외의 대학 체계 분석

4.1.1. 미국의 대학 체계

대학 서열화를 해소할 수 있는 우리나라 대학 체계의 방향성을 고안하기 전에 외국의 대학 체계를 분석하여 시각을 넓힐 필요가 있다. 그 중 먼저 미국의 대학 체계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세계 3대 대학 평가 기관으로 인정받는 Quacquarelli Symonds (QS), Academic Ranking of World Universities (ARWU), Times Higher Education (THE)에서 발표한 2022 대학 순위를 보면 이유를 알 수 있다. 각 기관에서 제시한 순위표 상위 10개의 학교에 공통으로 절반 이상이 미국에 있는 대학교이다.³⁰⁾³¹⁾³²⁾ 이처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학교를 여럿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 어떠한 대학 입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어떠한 대학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알아봄으로써 위에서 언급한 대학 서열화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해야 한다.

미국의 대학 입시 제도 특징 중 우리나라가 참고해야 할 특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미국은 다양한 입시전형을 통해 학생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대학마다 입시 전형을 통일하지 않고 다양한 대입제도를 주관하여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한다.³³⁾ 이렇게 다양한 대입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학생의 성적만이 아니라 비교과 실적을 아주 높게 평가한다. 미국은 학생을 평가할 때, GPA³⁴⁾와 더불어 교내 학생활동, 지역사회 봉사활동, 논문, 교사 추천서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는 학업 성취도에 그치지 않고 정말로 이 학생이 특정 학과에 관한 관심과 능력이 충분한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또한 대학마다 책정하는 평가요소가 다른 점은 대학 서열화의 가장 큰 문제점인 과도한 경쟁을 억제할 수 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학습 과정에서 모두가 동시에 같은 목적지를 향해 경주를 펼친다. 치열한 경쟁 끝에 경주가 끝나면, 학생들을 줄 세워서 각각 순위를 부여한다. 미국은 이와 다르게 출발선은 같아 하더라도 목적지가 다르다는 점에서, 학생이 자신을 되돌아보며 진정한 학습을 이어갈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평가요소를 책정하는 점은 학생의 학습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A 학생이 GPA가 3.5이고 B 학생이 3.2라고 해서 A 학생이 그렇게 유리하다고 보기 힘들고 다른 이외의 평가요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아무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이렇게 미국의 대학 입시 평가 기준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종합점수제이다.

³⁰⁾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2022, QS TOPUNIVERSITIES, 2021. 06. 08.

<<https://www.topuniversities.com/university-rankings/world-university-rankings/2022>>

³¹⁾ 2022 Academic Ranking of World Universities, SHANGHAI RANKING,

<<https://www.shanghairanking.com/rankings/arwu/2022.html>>, 2022. 11. 18.

³²⁾ World University Rankings 2022, Times Higher Education, <World University Rankings 2022 | Times Higher Education (THE)>, 2022. 11. 18.

³³⁾ 이하은, 뜨거운 감자 입시 ····선진국의 대입제도는?, 한국대학신문, 2018. 04. 29.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88466>>

³⁴⁾ 미국 대학 입시 제도에서의 내신 성적을 뜻하는 용어로 0~4의 범위를 가진다

학생부종합(상명인재전형)

모집단위		최초합격자			최종등록자		
		최고	평균	최저	최고	평균	최저
인문콘텐츠학부	역사콘텐츠전공	2.54	3.00	3.68	2.90	3.21	3.62
	지적재산권전공	3.03	3.22	3.34	3.03	3.21	3.34
	문헌정보학전공	2.44	2.67	2.97	2.44	2.73	3.05
SW융합학부	한일문화콘텐츠전공	2.89	3.35	3.95	3.00	3.32	3.89
공간환경학부		2.05	3.14	3.66	2.09	3.34	4.16
행정학부		2.72	3.11	3.71	2.79	3.18	3.71
가족복지학과		2.43	3.12	3.83	2.99	3.59	4.74
경제금융학부		2.77	3.20	4.25	2.65	3.55	4.25
경영학부		2.42	3.00	3.38	2.59	3.12	3.62
글로벌경영학과		2.69	3.36	3.86	3.09	3.48	3.91
국어교육과		1.88	2.51	3.02	2.50	2.76	3.02
영어교육과		1.37	2.77	3.79	2.11	2.82	3.60
교육학과		1.61	2.50	2.94	2.66	2.86	3.14
수학교육과		1.91	2.34	2.72	2.36	2.59	2.95
지능·데이터융합학부	휴먼지능정보공학전공	2.79	3.32	3.74	3.16	3.64	4.44
	핀테크전공 빅데이터융합전공 스마트생산전공	2.68	3.10	3.53	2.68	3.26	3.83
SW융합학부	컴퓨터과학전공	2.25	2.97	3.48	2.73	3.26	3.85
	전기공학전공	2.29	3.18	3.57	2.85	3.36	3.61
	지능IoT융합전공	2.34	3.12	3.79	2.37	3.31	3.95
	게임전공	2.68	3.01	3.44	2.68	3.32	4.06
생명화학공학부	생명공학전공	2.05	2.82	3.34	2.05	2.93	3.78
	화학에너지공학전공	2.52	2.94	3.50	2.59	3.03	3.57
	화학신소재전공	2.38	2.73	3.14	2.60	3.11	3.53
외식외류학부	식품영양학전공	1.37	2.24	3.01	1.37	2.44	3.99
	외류학전공	2.29	2.76	3.00	2.29	2.95	3.46
SW융합학부	애니메이션전공	2.80	3.25	3.76	2.64	3.18	4.41
스포츠융합학부	스포츠건강관리전공	2.68	3.10	3.57	2.82	3.41	3.86
미술학부	조형예술전공	2.29	2.93	3.68	1.77	3.09	3.78
	생활예술전공	2.32	2.86	3.47	2.61	3.21	3.55

<그림 14> 2022학년도 상명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수시 등급

<그림 14>가 보여주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대학 입시 평가 기준은 커트라인제이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내신 성적만이 아니라 학교생활기록부도 평가한다고 하지만, 표에 나온 것과 같이 내신 성적 구간이 형성된다. 이는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사와 흥미를 느끼는 대학교에 지원조차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된다. 이렇게 미국이 다양한 입시 전형을 주관하고 대학마다 평가를 차별화하려고 노력하는 점은 우리나라가 본받아야 할 점 중 하나이다.

미국의 대학 체계와 각 구성요소의 특징을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미국의 대학 체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University이다. 이는 우리나라 4년제 종합대학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다시 Public과 Private로 나뉜다. 먼저 Public, 즉 공립대학교는 미국 내 각 주에서 세금과 예산으로 운영하는 대학교이다. 일반적으로 해당 주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입학 우선권을 주며 학비 또한 저렴하다고 한다. 전체적인 학생 수가 많고, 캠퍼스의 크기도 아주 넓다. 그리고 인종, 성별, 국적 등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가 있다. 나머지 Private, 즉 사립대학교는 전체적인 학생 수가 적고, 학비가 다소 비싸다. 일반적으로 학력 수준이 되게 높아서 입학 경쟁률이 아주 높다.

두 번째는 Liberal Art College이다. 인문학 및 순수 과학 분야의 교육을 중심으로 다루는 대학이다. 문/이과 복수전공이 가능하고 전과를 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등 전공 선택이 다른 대학교에 비해 아주 유연하다. 그리고 학생당 교수진 수가 매우 적어 학생과 교수 사이의 유대관계가 깊다.

마지막으로는 Community College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전문대학교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2년제 대학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학비가 저렴하다. 그리고 많은 학생이 이 Community College에서 열심히 학점을 쌓아 위에서 언급한 University로 편입 후 해당 대학에서 졸업한다.

미국의 대학 입시 제도와 대학 체계를 분석한 후 우리나라 대학 체계에 적용하면 좋을 점을 추려내 이후에 제시할 대학 서열화 해소방안에 녹여낼 필요가 있다. 미국의 대학 입시 제도가 학생 본인의 삶을 설계하는 과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목표에 맞게 대학에 진학하는 데 실마리를 주는 대학 체계를 보며 우리나라 대학 체계 또한 학생에 주안점을 두는 방향으로 구축해야 한다.

4.1.2. 독일의 대학 체계

우리나라 학생들은 다른 경쟁자들을 제치고 더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 학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목표를 이루는 학생들은 극히 일부이고 나머지 학생들은 그 과정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는다. 이렇게 학생들에게 고통을 주는 우리나라 교육과는 달리 독일의 교육은 학생이 스스로 생각하게끔 유도한다. 독일은 학생들이 갖는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한다. 독일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은 ‘잘 살기 위한 것’이다.³⁵⁾ 반드시 좋은 대학에 진학하여 좋은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경쟁에서 1등을 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자기 위치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한다는 것에 가치를 둔다. 사람들이 교육을 이와 같은 관점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독일의 교육과정과 대학 체계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을 넓힐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독일의 대학 입시 제도 특징 중 우리나라가 참고해야 할 특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독일은 교육에서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 대학 서열화가 극심한 우리나라와 달리 대학 간의 서열이 크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독일은 오히려 대학교 진학 이전의 교육과정을 세분화하여 학생이 사회 구성원이 되기까지의 길을 만든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상급학교인 김나지움(Gymnasium), 레알슐레(Realschule), 하우트슐레(Hauptschule) 중 한 곳을 선택하게 된다. 먼저 김나지움은 주로 대학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이 선택한다. 레알슐레는 대학 졸업 자격이 필요하지 않은 사무직 또는 행정직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이 선택한다. 이때 레알슐레에서 학업을 이어나가 김나지움으로 편입하는 경우가 있다. 하우트슐레는 먼저 직업을 가져야 하거나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이 선택한다. 이렇게 중·고등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주면 직업군에 대한 건강한 사회적 인식을 가질 수 있다. 독일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한 한국 여성은 독일에서는 실업학교를 졸업하고 목수라는 직업을 가져도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과 임금이나 삶의 질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하였다.³⁶⁾ 이렇게 대학 서열화를 조장하지 않고도 교육에 참여하고 여전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교육제도를 우리나라는 본받을 필요가 있다.

독일의 대학 체계와 각 구성요소의 특징을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독일의 대학 체계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종합대학인 Universität이다. 우리나라의 일반 대학교와 같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다르게 일반적으로 3년제로 운영되며 학비는 국립대가 대부분이라 저렴하다. 수업은 학문과 이론을 중심을 다룬다. 두 번째는 응용학문대학인 Fachhochschule이다. 수업에서 Universität에 비해 더 실용적이고 복합적인 내용을 다룬다. 그래서 입학하기 전에 6개월~1년 정도의 실습 기간을 가진다. 우리나라의 전문대학교를 떠올릴 수 있지만, 독일에서는 대학 간의 등급 차이가 없어서 같다고 할 수 없다. 세 번째는 공과대학인 Technische Universität이다. 수업에서 자연 과학과 공학 분야를 주로 다룬다. 자동차와 기계 관련 산업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독일에서 이 공과대학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네 번째는 음악대학인 Musikhochschule이다. 종합대학의 음악 전공에서는 주로 이론을 배운다면 이 음악대학에서는 악기 연주, 성악, 작곡 등 주로 실기가 중심이 된다. 마지막은 예술대학인 Kunstakademie이다. 음악대학과 비슷하게 주로 실기가 중심이 된다.

독일의 교육제도와 대학 체계를 분석한 후 교육의 관점을 기존보다 한층 더 넓혔다. 다수와의 경쟁보다는 자신에서의 경쟁을 유도하여 반드시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떨쳐내게 하는 독일의 교육제도는 인상적이다. 또한 수준이 아닌 주제와 분야를 기준으로 대학을 구분한다는 점에서 대학 서열화를 고집하는 우리나라가 본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독일이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대학

³⁵⁾ 이유진,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독일 교육, 한겨레, 2014. 05. 30.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독일 교육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hani.co.kr)>

³⁶⁾ 전민희, “대입 올인? 독일 목수는 대기업엔 안 부럽다”, 중앙일보, 2019. 12. 03.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365255#home>>

체계를 구축할 방향성을 고민해봐야 한다.

4.2. 대학 서열화 해소 노력 사례 및 한계점

4.2.1. 대학 서열화 해소 노력 사례

대학 서열화의 심각성은 우리나라 정부 또한 잘 인지하고 있다. 이는 대선에서 후보들이 교육에 관련된 공약을 발표할 때 주로 대학 서열화 해소 방안을 다룬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실제로 제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현재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게 각 학과의 특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안철수 후보는 학제 자체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³⁷⁾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현재 가장 심각한 교육 문제인 대학 서열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대학 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제안해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대학 서열화의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전에 이를 먼저 알아보아야 한다. 지금까지 건의된 정책들 대부분은 ‘대학 네트워크’를 이용한다. 대학 서열화의 근본적인 원인인 대학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대학 체계 안에서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학 네트워크’와 관련된 정책 몇 가지를 살펴보았다.

첫 번째는 2017년 제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주장한 국공립대 공동학위제이다. 그 당시에는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였지만, 최근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정책을 구체화하면서 관심을 받고 있다. 국공립대 공동학위제란 국공립대를 연합하여 교육과정은 물론 공동 선발, 공동 학위를 도입하는 제도이다.³⁸⁾ 이 정책의 목표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전국에 10개의 서울대를 만들자”이다. 우리나라 지역 9개 거점국립대학이 ‘통합국립대학’을 구축하여 서울대학교와 학문적 교류를 한다. 통일국립대학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소속 학생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강의를 수강하면 이를 학점을 이수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이 과정을 점차 확대하면 공동학위제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통일국립대학을 구축함으로써 각 거점국립대학의 높아진 교육과 연구의 질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는 자연스럽게 거점국립대학 간 선의의 경쟁으로 이어진다. 통합국립대학 내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각 지방적 특색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등 우리의 목표 중 하나였던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다.

두 번째는 기존의 입시 제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대학입학보장제이다. 대학입학보장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대학 입학 자격을 부여하여 대학 교육을 받게 하는 제도이다.³⁹⁾ 대학교라는 기관이 대학 서열화를 부추기는 경쟁과 선발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닌 교육에 주안점을 교육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정책이다. 우선 정책이 시행되는 데의 요건을 충족한 대학을 선정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한 후, 공동입시를 실시하여 학생들을 선발한다. 이때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은 보장하지만, 학년 진급 기준을 한층 어렵게 설정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진학할 대학은 추첨으로 배정한다. 이 과정이 확대되고 지속되면 대학 간의 격차는 좁혀지고 대학은 학생에게 제공할 교육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이는 학생들에게 대학 서열화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제공한다. 자신이 진학할 대학이 사회에서 어떻게 비추어질지 고민하지 않고, 자신이 진심으로 배우거나 하고 싶은 학습을 바라보며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우리나라 대학 체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지역거점국립대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³⁷⁾ 김지은, 서열화 해소 방안 묻자...윤석열 “대학 서열은 강요한 것 아냐, 우리 사회 반영”, 한겨레, 2022. 02. 17.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31562.html>>

³⁸⁾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 번역] 대학 서열화를 해소할 가장 빠른 길! (by 정책 언니 채송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19. 06. 31. <<https://blog.naver.com/noworry21/221553143430>>

³⁹⁾ 현선, [사진] 모두를 위한 입시 제도, 대학입학 보장제, 뉴스앤조이, 2017. 03. 22. <<https://www.newsno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9765>>

이를 중심으로 하나의 대학을 구축하려고 한다. 또한 대학입시제도의 공정성과 대학의 취지를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대학 서열화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기존에 정부가 대학 서열화 문제에 접근하였던 방식을 알아보며 더욱 발전된 대학 서열화 해소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4.2.2. 대학 서열화 해소 노력의 한계점

우리나라 정부와 교육청 등이 제안한 정책이 담은 내용은 대학 서열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효과적이다. 그러나 정책의 실현 가능성 그리고 실현해냈을 때의 실효성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위에서 언급한 2가지 정책이 가지는 한계점을 분석하여 이후 제시할 대학 서열화 해소 방안이 적용해야 한다.

국공립대 공동학위제를 시행한다면, 9개 지역거점국립대학을 졸업한 모든 학생이 같은 공동학위를 받게 하여 위 대학의 위상이 올라감과 동시에 서울대학교와의 격차를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서울대를 뒤따르는 연세대, 고려대 등의 사립대의 행보에 유의해야 한다. 국공립대 사이의 격차는 줄일 수 있어도 사립대를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서울대의 지위가 연세대 또는 고려대 등으로 바뀌어 대학의 서열이 재배치될 뿐, 원래 목표하였던 대학 서열화 해소에는 기여하기 힘들다는 말이다. 국공립대학교와 사립대에 미치는 정부의 영향은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가 사립대학을 관리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전체적인 국가 대학 수준이 낮아지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 대학 서열에서 최상위에 있는 서울대는 실제로 본문 4.1.1에서 언급한 Quacquarelli Symonds (QS)와 같은 세계 대학 순위를 다루는 조사에 의하면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⁴⁰⁾ 또한 사립대인 고려대학교와 지역거점국립대인 경북대 또한 국내 대학 내 높은 순위를 차지한다. 이때 하나의 통합국립대학을 구축하여 학생들이 뒤섞이면, 학생들의 수준 차이를 감당하기 힘들고 위 학교들의 경쟁력 또한 약화된다. 이렇게 국공립대 공동학위제의 취지만 보고 시행하기에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뒤따르게 된다.

대학입학보장제를 시행한다면, 각 대학이 학생에게 최선의 교육을 제공할 환경을 갖추 수 있게 되며 학생 또한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본연의 학습을 하는 계기가 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학 측의 동의는 필수적이다. 대학 입장에서는 자기 대학에 진학하여 수준 높은 연구와 학습을 할 수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 싶어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자 수에 비해 정원이 적다 보면, 추첨을 진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이 발생하게 되는데, 만약 지원자 내에서 성적이 높은 편에 속하는 학생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렇게 되면 대학 입장에서는 성적이 뛰어난 학생이 자기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가능성의 두려움을 느껴 이 제도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희망 학부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못한 경쟁이 발생한다. 대학 서열화의 가장 큰 문제점인 과도한 경쟁 유발이 이어진다는 말이다. 인기 있는 특정 학부에 진학하기 위해 학생들 사이에 일어나는 경쟁은 대학 서열 내 더 높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펼치는 경쟁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내용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만 관심을 가져 이후에 일어나는 문제점에 소홀해지면 안 된다.

두 정책에는 수많은 문제점과 한계점이 뒤따른다. 위에서 말한 각 정책이 가지는 문제점 이외에도 공통으로 실현하는 데에 막대한 예산이 든다는 문제점 또한 존재한다. 이렇게 우리는 어느 한 문제에 대한 해소 방안을 제시할 때 그 정책이 가진 효과만이 아니라 문제점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위 문제점과 한계점들을 분석함으로써 더 나은 대학 서열화 해소 방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므로 기존에 제시되었던 해소 방안의 한계점을 앞으로 제시할 대학 서열화를 해소할 수 있는 대학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 적용할 계획이다.

⁴⁰⁾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2022, QS TOPUNIVERSITIES, 2021. 06. 08.
<<https://www.topuniversities.com/university-rankings/world-university-rankings/2022>>

4.3. 대학 서열화 해소를 위한 주안점과 대학 체계

4.3.1. 대학 서열화 해소의 주안점

대학 서열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위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전략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때 본문에서 분석한 대학 서열화의 원인과 문제점을 기반으로 하여 대학 서열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어디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지 정해야 한다. 기존에 논의되었던 정책의 한계점이 되풀이되지 않고, 새로운 문제점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항상 유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후 제시할 대학 서열화 해소를 위해 중심으로 생각해야 할 점 3가지를 설정해보았다.

첫 번째로 대학 서열을 구성하는 각 대학 간의 차이를 줄여야 한다. 그 중 하나가 대학의 종류에 따른 차이이다. 앞에서 언급한 국공립대 공동학위제의 한계점을 통해서도 아직 우리나라는 국립대와 사립대 사이의 격차가 존재한다. 먼저 국립대는 저렴한 등록비와 대학 내 체계와 구조가 잘 구축되어 있지만, 대학 개혁이 어렵고 학과 구조조정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사립대는 타 대학과는 차별점을 두어 학생들의 선택지를 늘릴 수 있지만, 유지 및 지원이 불안정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두 종류의 대학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특징을 유지함과 동시에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또한 국립대 안에서 지방거점국립대와 아닌 대학의 차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단순히 지방거점국립대학이 국립대 서열 내에서 높은 서열을 차지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대학의 거점 위치에 따른 차이도 적지 않다. 서울 및 수도권에 있는 대학과 다른 지방에 있는 대학 사이의 격차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서울 및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 좋은 교내 시설과 교수진을 보유하고 대학 주변 인프라가 잘 되어 있다는 점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인정하고 지방대의 성장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지방대가 자신만의 개성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관심을 받는 대학으로 발돋움한다면, 학생들이 대학을 바라보는 관점을 넓힐 수 있다. 학생들이 자신이 하고 싶고 관심 있어 하는 내용의 학습을 제공할 수 있는 대학의 수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대학들 간의 차이는 대학 사이의 소통 그리고 관계 개선이 활성화가 해소할 수 있다. 강의 교과목 등 학점 제도를 교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으로 대학들 사이에 간담회를 개최해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고 대학 서열화와 같은 교육 문제를 두고 이야기를 나누는 등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가 독일에서 학생들이 더 높은 대학을 가기 위해 학습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하고 싶은 학습을 하기 위해 그에 해당하는 대학을 진학하는 점을 본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각 대학 간의 차이를 줄이는 것은 필수적이다.

두 번째로는 대학과 관련된 제도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 먼저 대학 입학 제도의 변화는 필수적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 입학제도는 학생들에게 과도한 경쟁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매년 공정성 논란이 일어나며 투명성을 의심받는다.

대학 입시 제도 개편 주요 내용

	2021학년도	2022	2023	2024
학생부 비교과영역 축소	기재금지사항 검증 강화	학생부 기재항목 축소 (소논문 기재 금지, 수상경력 대입 제공 제한, 자율동아리 기재 제한 등)		정규교육과정 외 비교과활동 대입 반영 폐지
고교 교원 책무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부 신고센터 운영 (2020년 3월부터) • 교과세특 기재표준안 보급 (2020년 3월부터)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기재금지사항 검증 강화 및 불이익 조치 철저	자기소개서 개선 (문항·글자 수 축소) 교사추천서 폐지		자기소개서 폐지
학종 운영 투명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교정보 블라인드 확대 (면접 → 서류+면접) • 고교프로파일 전면 폐지 • 평가기준 공개 양식 개발 및 대입정보공개 강화 • 외부공공사정관의 평가 참여 등 			
학종 운영 전문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학사정관 수 등 정보공시, 입학사정관 공통교육과정 개발 • 입학사정관 교육시간 강화 : 신입, 경력 모두 40시간 			
정시 수능위주전형 확대		16개 대학* 수능 40% 이상 (2022학년도 조기달성유도)		16개 대학* 수능 40% 이상
사회통합전형 도입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통합전형 법적 근거 마련 •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지원과 연계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 10% 이상 의무화 및 지역균형 선발 10% 이상 권고) 		
특기자전형· 논술위주전형 폐지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폐지 유도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자료/ 교육부

김영은 기자 / 20191128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ey.kr/LeYN1

<그림 15> 대학 입시 제도 개편 주요 내용

<그림 15>은 우리나라의 대학 입시제도는 년마다 크고 작은 변화를 겪는 것을 보여준다. 교육부는 학생부 비교과영역을 축소하고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이는 특정 대학이 아닌 우리나라 모든 대학을 고려하여 개편한 통합적인 입시 제도이기 때문에 구체적이지 못하고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렇게 교육부 차원에서 모든 대학에 공통으로 입시 제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는 본래 목표했던 공정성 강화를 이뤄내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교육부가 제공하는 대학 입시 제도를 기본 틀로 여감과 동시에 대학마다 차별점을 두어야 한다. 현재 대부분 대학에서는 인재상을 설정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동의대는 더불어 숲을 이루는 콜라보 인재, 상명대는 올바른 품성과 성실함을 통해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 등 대학마다 각기 다른 인재상을 가지고 있다.⁴¹⁾ 그러나 각 대학의 평가 기준에는 큰 차이가 없다. 단순히 높은 내신 성적, 활동 내용이 많은 생활기록부 등을 요구하기 보다는 정말 인재상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선발기준을 단순히 수치화하지 않아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게 하는 점을 본받아 학생들에게 있어 더 많은 대학 입학 선택지와 가능성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대학에서의 졸업 요건을 현재보다 어렵게 해야 한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 얻어내는 입학 자격에 비하여 졸업은 다소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 해당 전공에 대한 관심사가 높은 학생들이 입학하여 나중에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졸업해야 한다. 이후 사회에 진출해서도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거듭나는 데에 대학이 도와주어야 한다. 이렇게 어려워진 졸업 요건에 충족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대학 강의를 더 열심히 수강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이렇게 대학과 관련된 제도를 개혁함으로써 대학 서열화의 가장 큰 원인인 과도한 경쟁을 억제할 수 있고 대학 서열화를 주도하는 사회 인식을 고칠 기회를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학생의 학습에 미치는 대학 서열화 영향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대학교의 존재 목적이 학생에게 학습의 기회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대학 서열화의 해소 목적 또한 이와 같다. 그래서 대학 서열화가 학생의 학습에 주는 영향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먼저 사회에 만연한 학벌주의로 만들어진 시선으로 인하여 대학 입학 과정에서 과도한 경쟁이 유발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 학생들

41) 열정스토리, 대학별인재상 총정리, 열정스토리, 2020. 03. 02.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uraedu&logNo=221832835135>>

의 경쟁을 통하여 우리나라 전체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오히려 학생에게 가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 모든 대학과 학부에는 정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경쟁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그러나 그 경쟁을 최소화하여 최대한 많은 학생이 자신이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학생들의 학습 동기가 저해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경쟁의 순기능 중 하나인 학습 동기 유발이 경쟁과 함께 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대학 진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우리나라 전체적인 대학 체계에 혼란을 줄 수 있다. 이 두 가지 사이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경쟁의 정도를 찾아내기는 거의 불가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과도한 경쟁을 방지함과 동시에 학생들의 학습을 멈추지 않게 하는 장치를 고안한다면 이를 어느 정도 실현할 수 있다. 미국과 독일의 대학 체계에서 가장 강조하는 요소인 학생에게 미치는 대학의 영향을 참고하며 대학 서열화를 해소할 방안을 찾는 데에 '학생'이라는 대상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

4.3.2. 대학 서열화 해소를 위한 대학 체계

대학 서열화를 해소하는 데에 기여하는 대학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대학의 설립 목적 그리고 대학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명심해야 한다. 위 주안점을 중심으로 대학 서열화 해소 방안을 제시하여 대학 서열화를 비롯한 우리나라 교육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먼저 국립대와 사립대의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두 대학의 역할을 다르게 하여 사람들이 서열에서의 높고 낮음을 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부산대, 충남대와 같은 지방거점국립대의 존재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각 지방에 하나씩 있는 지방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같은 지역 내 다른 국립대와 사립대들이 세분화된 역할을 맡아야 한다. 부산 지역을 예로 들자면, 지방거점국립대인 부산대를 중심으로 부경대와 같은 국립대가 있고 동아대, 동의대와 같은 사립대가 존재한다. 이때 부산대가 현재 개설된 학과들을 고르게 지원하여 부산 지역 내 학과들의 집합체 역할을 맡고 부경대, 동아대, 동의대는 그 학과 중 일부만 개설하여 특정 학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A 학과에 진학하고 싶은 학생은 더는 대학 선택에 대학 서열을 고려하지 않고 A 학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면 된다. 이때 지방마다 A 학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대학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대학들 사이에서 새로운 서열이 발생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새로운 장점이 생기는 좋은 계기가 된다. 우선 A 학과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타 지역에 있기보다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기를 희망한다. 또한 이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일원이 될 가능성이 높고 A 학과를 담당하는 대학은 위치한 지역적 특징을 이용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점은 이 방안에서 서울대를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서울권에 있는 고려대, 중앙대 등의 수준이 높고 구조가 잘 잡힌 사립대학은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역보다 반발이 거셀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의 교육수준에서 서울권에 있는 사립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위와 같은 변화를 피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

국립대와 사립대의 역할을 분담하여 사립대 존속에 기여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의 발전도 이룩하는 방안을 실현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재정 지원이다. 현재 정부는 충원율이 지속해서 감소하는 지방대를 대신하여 입시에서의 경쟁이 더 치열한 수도권 대학에 재정 지원의 무게를 싣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정부도 지방대로 시선을 돌려 위 방안을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최근 3년간 중앙부처 대학 재정지원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2018	2019	2020
수도권	전체	지원총액	24,963	26,765	27,527
		1교당 지원액	146	157	161
	교육부	지원총액	8,849	10,322	11,638
		1교당 지원액	52	60	68
	교육부 외	지원총액	16,114	16,443	15,889
		1교당 지원액	94	96	93
지방	전체	지원총액	28,625	31,989	31,841
		1교당 지원액 (수도권 대비)	116(-30)	130(-27)	130(-31)
	교육부	지원총액	12,649	15,001	17,587
		1교당 지원액 (수도권 대비)	51(-1)	61(+1)	72(+4)
	교육부 외	지원총액	15,976	16,988	14,254
		1교당 지원액 (수도권 대비)	65(-29)	69(-27)	58(-35)

* 교육부 제출자료 재구성

* 학자금지원, 국·공립대경상운영비, 간접지원 제외

<그림 16> 최근 3년간 중앙부처 대학 재정지원 현황

<그림 16>은 정부의 재정지원에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⁴²⁾ 교육부의 지원 정도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교육부 외 중앙부처 지원에서 지방대가 수도권 대학에 비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국립대와 다르게 학생들의 등록금이 전체 예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사립대로서 운영하는 데에 부담을 느끼게 된다. 이와 같은 정부의 재정지원이 지속된다면, 위의 방안을 실현하는 과정에 큰 차질이 생긴다. 각 지방의 사립대는 넉넉지 못한 지원을 받아 특정 학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되며, 기존의 대학 서열화가 굳어지는 것을 눈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된다. 또한 정부는 각 지방의 상황을 상세히 분석하여 지원 정도를 설정해야 한다. A 지역과 B 지역의 상황이 다르더라도 지원 정도가 너무 다르게 된다면, 특정 학과를 담당하는 대학에 진학하기를 원하는 한 학생은 그 대학들 사이에 서열이 발생해버려 혼란을 겪는다. 이렇게 위 방안에 재정지원 정도가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므로 정부는 대학 재정지원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국립대와 사립대의 역할을 다르게 하여 기존에 대학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위 방안은 실현하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대학 사이에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이 방안의 진전에 크게 기여한다. 그러므로 각 지역 내 있는 대학 사이에 정기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그곳에서 대학마다 자기 대학의 현 상황을 보고하고 이야기함으로써 위 방안을 구체화하고 진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또한 각 지방거점국립대가 거점 지역의 의견을 모아 대표로 입장을 정리한 후, 다른 지방거점국립대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를 통해 대학 서열이 살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⁴²⁾ 이명아, 학생은 줄고, 지원은 적고... 생존 위기에 놓인 지방대, 대학지성 In&Out, 2022. 10. 04.
<<https://www.uni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72>>

우리나라 대학 체계가 구축하는 과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때 각 논의하는 자리에서 무슨 내용을 다룰지 고민해야 한다. 먼저 지역 내 간담회에서는 각 대학이 정부의 재정지원과 등록금을 포함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사용했는지를 보고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립대에서는 특히 비리와 같은 재정적 논란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후 자기 대학들이 담당하는 특정 과목의 커리큘럼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 방향성을 올바르게 정립할 수 있도록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대학 서열화를 해소하는 위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의견을 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을 재빠르게 해결하고 새로운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지역 외 간담회에서는 새로운 대학 서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기 지역에서 특정 학과를 어떻게 지원하고 운영하고 있는지를 보고해야 한다. 해당 학과의 교육과정 그리고 각 대학이 추구하는 방향성이 크게 다르면 그 대학들 사이에서 서열이 발생하여 대학 서열화를 해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학 그리고 지역 간의 의사소통이 활발하고 의견교환이 쉽게 이루어지면 대학 서열화 해소의 속도가 빨라진다.

전체적인 틀이 맞춰진 후에는 대학을 운영하는 데에 필수적인 제도를 개혁하는 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제도를 크게 입시 제도, 교육과정, 졸업 제도 총 3가지로 나누었다. 위 방안의 기존의 입시 제도를 적용한다면, 각 대학의 역할을 다르게 한 이유가 사라지며 다시 대학 서열화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 대학이 몇 개의 특정 학과만 운영하기에 교육과정이 기존보다 더 세분화되고 명확하게 조직될 수 있기에 변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졸업 제도를 한층 짜임새 있게 구성하여 대학의 졸업이 입학만큼이나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을 우리나라 교육에 심어야 한다.

현재의 입시 제도를 구성하는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이라는 기초를 유지하되,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수시 전형의 경우, 학생부 교과전형의 비율을 축소해야 한다. 학생의 내신 성적이 주요 평가 기준이 되는 학생부 교과전형의 존재는 학생들이 학습에서 성적 이외의 요소를 등한시하게 하는 주범이다. 대학을 진학하는 과정에서 내신 성적이 가장 우선으로 평가받는 요소임은 부정할 수 없지만,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앞으로 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로 거듭나기 위해 위 전형을 축소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축소된 학생부 교과전형의 비율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월되어야 한다. 그러나 학생부 종합전형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학생의 성적이 수치화되는 것과 달리 학생부 종합전형은 입학사정관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혜 또는 비리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대학마다 평가기준을 공고히 함과 동시에 평가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여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대학마다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기준에서의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각 지방거점국립대는 다양한 역량을 갖추고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채택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대학들은 자기들이 주관하는 특정 학과에 관련된 활동에 참여한 경력이 많고 그와 관련된 학문적 관심이 깊은 학생을 선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와 같은 입시 제도가 실현된다면, 학생들은 일찍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대학 진학의 진정한 목적을 갖고 고등학교 학습에 임할 수 있다. 또한 대학 서열화를 유발하는 입시 제도 속의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후 정시 전형의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구성하는 과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현재의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과목과 같이 국어, 수학, 영어과목도 그 안에서 다시 나뉘는 과목들이 존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경영학과를 담당하는 A 대학의 정시 전형 평가 기준은 수학과목 성적의 비율이 타 과목보다 높아야 하고, 사회탐구 과목 중에서 경제를 필수적으로 응시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의 전체적인 학과 이해도가 높아지게 되고 이후 교육과정을 더 세분화하여 편성할 수 있다. 그러나 각 학과에 적합한 선택과목을 개설하고 채택하는 과정에서 대학마다의 의견이 다르고, 선택과목에 대한 거부감이 학과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져 학생들이 대학 진학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처럼 정시 전형에서의 변화는 항상 조심해야 한다. 학생의 학습에서의 부모와 사교육의 개입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견제할 수 있는 대항마로서, 학생이 고등학교 학습에 소홀하게 하는 주범으로서 정시 전형에 대한 시선은 극과 극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루빨리 두 관점의 타협점을 찾아 정시 전형이 올바른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처럼 대학 진학의 첫걸음이 되는 입시 제도는 대학 서열화를 해소하는 데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학생들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입시 제도가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며 학생들이 대학 진학에 갖춰야 할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입

시 제도를 고안해야 한다.

위와 같은 입시 제도를 통하여 특정 학과에 이해도가 높고 학문적 호기심을 증명한 학생들을 상대로 어떠한 교육과정을 조직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지역마다 A 학과를 담당하는 대학들의 의사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해당 대학들 사이에 어느 정도 틀을 정한 후, 세부적인 내용에만 차이를 가져야 한다. 이때 학년을 구분하여 교육과정을 조직하는 방식이 학생이 학습하고 삶을 설계하는 과정에 기여한다. 1학년에는 학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배경지식을 중심으로 강의를 구성하고, 학생 스스로 학과에 대해 가지는 관점에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2,3학년에는 1학년에 비해 한층 깊고 학문적인 내용의 강의를 구성하고, 학생들이 학과와 관련된 분야에 자신의 진로를 접목하여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 4학년에는 학생들이 실제로 사회에 나가 지금까지 대학에서 배웠던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실전형 강의를 구성하고, 학생들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모두 한 번씩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이와 같은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의 노력이다. 각 대학은 학생이 자신에게 최적화된 교육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강의의 선택지를 늘려야 한다. 이를 통해 대학 서열화를 조장하는 우리나라 사회에 만연한 학벌주의를 타파할 수 있다. 학생들은 스스로 높은 서열의 대학을 졸업하기 위해서가 아닌, 대학에서 어떻게 학습해야 할지를 자신의 삶과 연관 지어 고민함으로써 대학 서열화를 해소하는 데에 크게 기여한다. 대학이 학생에게 최고의 강의를 제공하기 위해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이 학생 스스로 학습의 노력으로 이어져 우리나라 대학 서열화 해소의 가속화를 이루어 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대학 졸업 제도를 개혁하여 학생의 학습 동기를 유발함과 동시에 대학 서열화로 인하여 생기는 학벌과 관련된 비하를 없애야 한다. 학기 등록, 졸업학점 및 성적, 졸업논문 등으로 구성된 현재의 졸업제도를 더욱 어렵고 구체화된 평가요소로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또 다른 경쟁을 유발하지 않도록 절대평가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학에서 책정한 요구치를 충족한 학생들 모두에게 졸업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때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기 위해 교육과정에 열과 성을 다하여 참여하고 이를 자신이 사회에 진출하였을 때와 접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평가요소를 고민해야 한다. 먼저 졸업시험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은 교육과정 내에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강의들의 수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단순히 지필고사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학생들이 사회에서 이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방식의 시험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단순히 대학 강의에서 제공하는 수업을 '이수'하는 것이 아닌 '이해'와 '습득'에 중점을 둘 수 있어 대학 서열화로 인하여 사라진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본질을 되찾을 수 있다. 그리고 졸업논문을 통하여 학생 스스로 몸 담았던 대학 생활에 대한 총평과 더불어 대학에서 배웠던 내용 중 자신의 진로와 관련되도록 주제를 선정하여 논문을 집필하게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대학생활을 되돌아봄으로써 삶에서의 학벌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할 기회를 가진다. 이는 대학 서열화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인 학벌주의를 완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 이렇게 강화된 대학의 졸업 제도는 대학 서열화 문제를 해소할 때 필수적인 사람들의 인식 변화를 꾀할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5. 결론

나날이 높아지는 교육에 관한 관심은 우리나라 전체의 교육수준을 높이는 길을 여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그 관심은 욕심으로 이어져 다양한 교육 문제를 낳았다. 그 중 가장 심각한 대학 서열화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위 문제는 학생의 학습에 부모의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 그리고 사교육이 지나치게 개입하게 한다. 또한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수단으로 여겨 대학교의 설립 목적과 학습의 본질이 사라지게 한다. 이 결과, 사회에 학벌주의가 퍼지면서 학생의 인권이 침해되고 사람들 사이에서 비하들이 오고 갑니다. 이렇게 수많은 문제점을 일으키는 대학 서열화 문제점을 완전히 해결하는 것은 불

가능할 수 있지만,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를 느껴 다른 나라의 대학 체계와 기존에 제안 또는 시행되었던 정책들을 분석하였다. 이후 구체적인 대학 체계를 제시하여 대학 서열화 해소 방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 또한 기존의 정부가 제안하거나 시행했던 정책들과 같이 한계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새로운 관점에서 대학 서열화 문제를 바라보고 원인과 문제점을 상세히 분석하여 해소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러한 과정이 지속해서 이어지고 더 많은 사람이 대학 서열화 문제 해소에 관심을 가지고 힘을 쓴다면, 불가능하게만 보였던 문제 해결이 현실이 될 수 있다. 또한 위 방안이 우리나라의 또 다른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새로운 해결책이 제시될 수 있는 시발점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루빨리 해결이 시급한 대학 서열화 문제에 우리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이 학습의 본질을 갖고 대학에 진학하여 사회의 인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고 문헌

- 강지윤, 대학(大學)의 존재의 이유와 대학교육(大學教育)의 목적, 데일리이코노믹헬스신문, 2022. 03. 14. <
<https://www.newdailyhealth.co.kr/news/629614>>
- 곽민서, [2021청소년] 중고생 4명 중 1명 우울감 경험...사망원인 1위는 9년째 '자살', 연합뉴스, 2021. 05. 25. <
<https://www.yna.co.kr/view/AKR20210525082000002>>
- 곽소영, [단독] 서울대 자퇴 330명은 어디로 갔을까, 서울신문, 2022. 09. 21.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921001009&wlog_tag3>
- 김민성, 박진우, [팩트체크] '현실판 SKY 캐슬' 월 50억도 '땡기는' 대치동 쓰앵님들, 한경 뉴스레빗, 2019. 03. 05. <
<http://newslabit.hankyung.com/article/201902273250G>>
- 김서윤, '서울대 작곡가' 출신 유희열에 붙여온 '표절 의혹' ...흔들리는 명성, 텐아시아, 2022. 06.16.
 <<https://tenasia.hankyung.com/topic/article/2022061523374>>
- 김소희, [이코노미조선] "학생의 꿈을 설계한다"...'입시 컨설턴트'의 A to Z, 조선일보, 2019. 01. 19.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18/2019011801910.html>
- 김수현, 코로나 학력 격차 현실화하나...소득계층별 사교육비 5배 차이, 연합뉴스, 2021. 03. 09.
 <<https://www.yna.co.kr/view/AKR20210309076200530>>
- 김영은, [그래픽] 대학 입시 제도 개편 주요 내용, 연합뉴스, 2019. 11. 28.
 <<https://www.yna.co.kr/view/GYH20191128000300044>>
- 김청연, '명문대' '일류대학'...서열화하는 '슬픈' 표현들, 한겨레, 2021. 12.. 14.
 <<https://m.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23112.html>>
- 김태현, '용접공 비하' 유명 강사, 이렇게 맘놓고 비난해도 될까, 오마이뉴스, 2020. 01. 16.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04454>
- 남빛하늘, '그것이 알고싶다' 숙명여자 쌍둥이 사건이란?... 딸들에게 시험문제 유출한 교무부장, 뉴스웍스, 2019. 06. 30. <
<https://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2416>>
- 남윤서아후연합민정, '논문의 힘' 연세대 4위→2위...동국대 처음 '톱10' 올랐다 [2021대학평가], 중앙일보, 2011. 11. 10.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22495>>
- 대입성공의 지름길, [옛날대학순위] 대학순위 변천사 대학서열 이렇게 변해왔어요 [학생부종합전형], 대치

최고의 입시전문 블로그, 2014. 12.28. <<https://m.blog.naver.com/univsj/220222443276>>

대학교 수 (시도/시/군/구), 통계청, 2022. 09. 17.
<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1181>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의 상명대, 에브리타임 상명대 서울캠, 2022. 06. 27.
<<https://everytime.kr/370450/v/258190673>>

박기홍, "신분당선 역 여기 생긴대!"...에타 통과도 전에 들썩들썩, 2022. 05. 31.
<https://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2/05/31/2022053100501.html>

법률용어사전, “의무교육”,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657796&cid=42131&categoryId=4213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 번역] 대학 서열화를 해소할 가장 빠른 길! (by 정책 언니 채송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19. 06. 31. <<https://blog.naver.com/noworry21/221553143430>>

[사설] 부모 재력따라 대학진학 30배 차이난다니, 매일경제, 2012. 11. 06.
<<https://www.mk.co.kr/news/editorial/5335854>>

센슨의공간, 독일의 학교 시스템 및 교육제도, SENSON'S SPACE, 2022. 08. 24.
<<https://blog.naver.com/space4624/222850692490>>

손현경, 자사고 ○특목고 학생 인권침해, 일반고보다 많다, 조선에듀, 2017. 10. 19.
<http://edu.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19/2017101902578.html>

열정스토리, 대학별인재상 총정리, 열정스토리, 2020. 03. 02.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uraedu&logNo=221832835135>>

오호영, 대학 서열과 노동시장 성과 - 지방대생 임금차별을 중심으로 -, 勞動經濟論集, Vol.30 No.2, 한국노동경제학회, 2007, pp. 88.

우연철, 지역 인재 수도권 이탈 현상, 어떤 경향 보였나, 쿠키뉴스, 2022. 06. 16.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202160035>>

유학의 정석, 01. 나만의 대학 리스트 만들기(1)-미국 대학 종류, 대학 검색 사이트, 유학의 정석, 2021. 01. 28. <<https://allaboutyouhak.tistory.com/4>>

이명아, 학생은 줄고, 지원은 적고... 생존 위기에 놓인 지방대, 대학지성 In&Out , 2022. 10. 04.
<<https://www.uni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72>>

이범, 대학 서열은 돈의 서열이다, 경향신문, 2021. 09. 02.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109020300045>>

이유진,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독일 교육, 한겨레, 2014. 05. 30.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독일 교육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hani.co.kr)>

이혜정, 학생부 몰아주지 ○○”1등급만 챙겨라”, EBS 뉴스, 2017. 05. 22.
<<https://news.ebs.co.kr/ebsnews/allView/10680503/N>>

전민희, “대입 올인? 독일 목수는 대기업맨 안 부럽다”, 중앙일보, 2019. 12. 03.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365255#home>>

팝코니, 상명대학교 수시등급 Ver. 2022학년도, 팝코니의 입시성공 프로젝트, 2022. 06. 29.

<https://m.blog.naver.com/sac_star/222793316168>

현선, [사진] 모두를 위한 입시 제도, 대학입학 보장제, 뉴스앤조이, 2017. 03. 22.

<<https://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9765>>

황기현, “편법으로 아이 조지면 저도 선생님을…” 새벽 2시 학부모가 보낸 충격 문자, 2022. 11. 01.

<<https://www.dailian.co.kr/news/view/1168816/>>

황인성, [단독] 서울대 교수 자녀면 더 쉬운 ‘수시’ 전형?...’부모 찬스’ 때문인가, 쿠키뉴스, 2022. 10. 16.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210160050>>

ILT 캠프, 미국유학 준비: 미국대학 종류부터 알아보기, 영어를 너무 좋아하는 영블리, 2021. 10. 15.

<<https://blog.naver.com/iltcamplove/222537776679>>

YOUTH, 독일유학: 독일 대학 5가지 종류/유형, 오늘 유학을 시작해, 오늘, 유학을 시작해, 2019. 09. 01.

<<https://blog.naver.com/saranginc/221635563134>>

참고 사이트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

네이버 카페 수만휘 <https://cafe.naver.com/suhui/25199424>

부록

메일로 주고 받았던 인터뷰에서의 대학교 교수 상대 인터뷰 문항

1. 우리나라 대학 입시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 학생들이 왜 좋은 대학에 가려 한다고(심지어 반수/재수 등을 하며) 생각하시나요?
3. 대학 서열화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4. 대학 서열화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5. 교수직을 맡으면서 각각 대학마다의 차이점에는 어떤 것이 있으시나요?
6. 교수직을 맡으면서 접한 대학 서열화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으시나요?
7. 대학 서열화를 해소하는 데에 대학 체계가 갖추어야 하는 가장 필요한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메일로 주고 받았던 인터뷰에서의 고등학교 교수 상대 인터뷰 문항

1. 우리나라 대학 입시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 학생들이 왜 좋은 대학에 가려 한다고(심지어 반수/재수 등을 하며) 생각하시나요?
2. 우리나라 대학 서열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 대학 서열화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4. 대학 서열화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6. 교사직을 맡으면서 접한 대학 서열화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으시나요?
7. 대학 서열화를 해소하는 데에 대학 체계가 갖추어야 하는 가장 필요한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상명대학교 재학생 상대 설문조사 문항

https://docs.google.com/forms/d/1uvBEGnlpVlvItLPglpUEOBXI98YAL_Hh6gwISkwthw0/edit

온라인 선물 발전에 따른 선물 트렌드의 변화 분석 - 카카오 선물하기를 중심으로 -

생활예술학과 고유*

목차	
1. 서론	
1.1. 연구 목적	
1.2. 연구 방법	
2. 선물 증여 방식 변화의 현황과 배경	
2.1. 선물 증여 방식 변화의 현황	
2.2. 선물 증여 방식 변화의 배경	
3. 선물 증여 방식 변화의 인식 분석 결과	
4. 선물 증여 방식 변화의 인식 결과가 시사하는 점	
4.1. 기업	
4.2. 소비자	
5. 결론	
참고 문헌	

1. 서론

1.1. 연구 목적

온라인 시대로 변모하면서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 바뀌고 있다. 이는 선물 주고받는 상황에서도 영향을 끼쳤다. 온라인 시대로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의 시장이 확대되며 이전에는 실물로 주고받던 선물이 이제는 온라인에서 더 간편하게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다. 모바일 상품권은 휴대폰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발급해 본인이 사용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여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현금이나 카드 대신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모바일 상품권에는 지정된 교환처에서 제품을 교환하는 제품 교환권, 교환처에서 지정된 금액을 현금처럼 사용하는 금액형 상품권, 수령자가 주소를 입력하면 배송되는 배송 상품, 지정된 교환처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서비스 교환권 등 다양한 유형의 상품권이 존재한다. 이처럼 다양한 상품권의 존재와 간단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바탕으로 모바일 상품권이 성장해오게 되었다.

온라인 선물이 대중화됨에 따라 선물 트렌드도 바뀌고 있다. 이전에는 무조건 만나서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대표적이었다. 하지만 만나서 주는 방식에는 일부 어려움이 존재했다.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는, 배송으로 보내주기도 하였는데 이를 위해서는 선물을 받을 사람의 주소를 알아야 했다. 주소를 알기 위해서는 전화를 해서 물어보아야 했는데 주소를 물어보는 이유를 알려줘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해서 곤란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온라인 선물의 등장 이후에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만나기 어려운 상황일 때에도 편하게 스마트폰으로 상대의 연락처 또는 카카오톡 친구 추가만 되어 있더라도 선물을 쉽게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왔으며, 굳이 만나서 주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은 상황을 만들게 되었다. 이처럼 온라인 선물은 선물 트렌드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고, 앞으로의 트렌드에서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려 한다.

1.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선물의 발전으로 변화한 선물 문화 트렌드를 분석해보려고 한다.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선물 증여 방식의 변화에 따른 사람들의 인식을 알아보고, 인식 결과가 시사하는 점에 대해 기업과 소비자로 나누어 살펴보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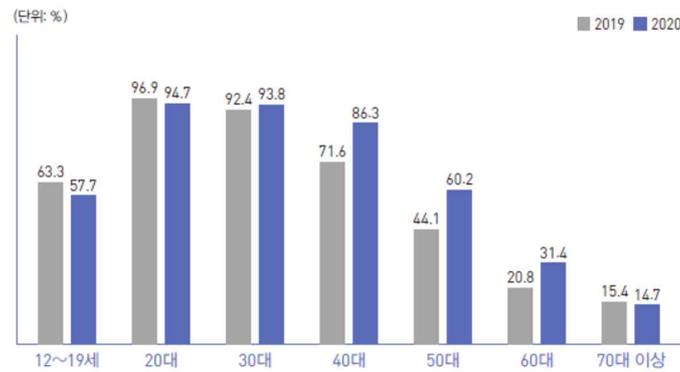
선물 증여 방식이 변화된 현황을 보여주기 위해,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를 참고해 온라인 커머스에 대한 이용률을 비교함으로써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선물로의 인식 변화를 소개하려고 한다. 또한, 외부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사람들의 온라인 선물하기 사용과 선물 의향을 알아볼 것이다. 선물 증여 방식 변화의 배경에서는 카카오의 등장과 성장을 알아보기 위해 카카오 공식 사이트와 모바일 상품권 이용 실태조사 보고서를 참조하였다. 선물 증여 방식 변화의 인식 분석 결과에서는 현재 사람들의 선물 트렌드 변화에 따른 온라인과 오프라인 선물 증여 방식의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11월 21일부터 11월 23일까지로 총 3일간 진행되었으며 총 57명이 응답하였다. 자세한 설문조사의 항목은 부록에 첨부하였다. 선물 증여 방식 변화의 인식 결과가 시사하는 점에서는 주요 사업자별 선물하기 서비스 현황을 통해 카카오 선물하기를 이은 다른 기업들의 온라인 선물하기 서비스 시작에 대해 알아보고, 선물 가격대에 대한 부분은 직접 카카오 선물하기를 보며 조사를 하였다.

2. 선물 증여 방식의 변화와 현황과 배경

2.1. 선물 증여 방식 변화의 현황

온라인 선물의 등장 전, 즉 모바일 상품권이 크게 대두하지 않았을 때의 선물 문화는 다음과 같다. 이 당시의 선물이라 하면 직접 만나서 전해주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었다. 모바일 상품권이라는 서비스가 대중화되지 않았던 시기에는 직접 만나 전해주거나 따로 배송으로 보내주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달해줄 수단이 그리 많지 않았다. 만나서 전해주기 위해서는 선물을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이 무조건 시간을 맞춰야 했고, 거리가 먼 경우에는 오랜 시간을 이동해 전해주어야 했다. 만약 피치 못할 사정으로 만나서 선물을 전달해주지 못할 때에는 배송을 이용해야 했는데, 이것 또한 만나서 전해주는 것만큼 어려움이 있었다. 배송을 보내기 위해서는 주소가 필요했고, 가족과 같은 깊은 사이여서 주소를 아는 경우가 아니었다면 무조건 주소를 직접 물어봐야 했다. 주소를 알기 위해서는 선물을 받는 사람에게 전화해서 물어보아야 했는데, 이때 주소를 물어보는 이유도 알려주어야 할 경우가 있었기에 선물을 보내주는 사람의 처지에서는 곤란한 점이 많았다. 또한, 대면으로 전해주는 게 보편적이었으므로 이 당시에는 얼굴을 직접 보지 않고 주는 선물은 인식이 좋지 않았다.

<표 1> 2020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의 온라인 커머스 이용률 비교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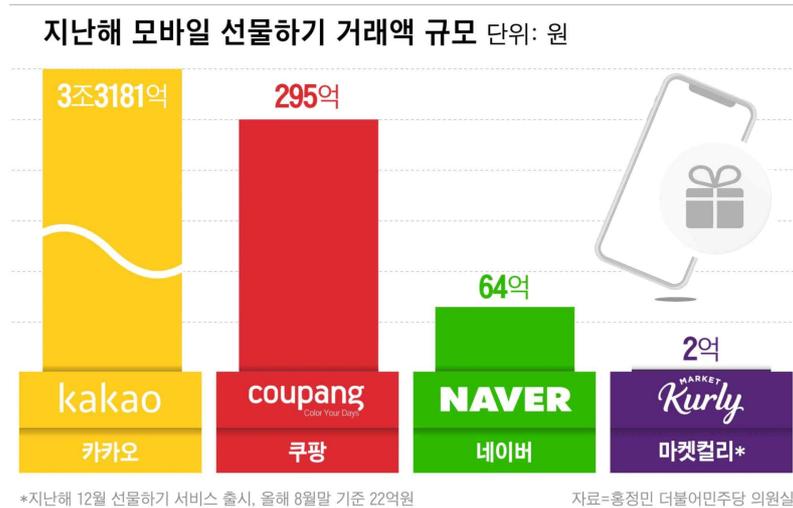
직접 얼굴을 보고 전해주어야 한다는 보편적인 인식을 바꾼 것이 바로 온라인 선물의 등장이다. 나이가 있는 어르신, 얼굴을 직접 보고 선물을 전달해줘야 예의라고 생각했던 시대에 살아오신 분들은 직접 얼굴을 보고 전달해주지 않는 방식을 ‘성의 없다’ 또는 ‘무례하다’라고 인식하기도 한다. 이러한 인식으로 중장년층에서는 카카오톡 선물하기가 많이 쓰이지 않을 것 같지만, 최근 5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 선물하기의 거래액이 74%나 늘어났다고 카카오톡이 직접 조사 결과를 밝혔다. 또한, 2021년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0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 따른 <표 1>과 함께 보자면, 중장년층의 온라인 커머스 이용률이 다른 나이에 비해 큰 증가를 했다. 코로나에 따른 비대면의 확산으로 점점 중장년층에서도 온라인 선물하기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선물의 도입으로 비대면으로 선물을 전달해주는 방식이 널리 퍼졌고, 이는 중장년층의 인식까지 바꾸게 되었다.



<그림 1> e-쿠폰 선물 방식에 대한 인식 평가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trendmonitor.co.kr)에서 ‘모바일쿠폰(e-쿠폰)’을 인지하고 있는 전국 만 19~59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쿠폰(e-쿠폰)’ 서비스 이용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 모바일 쿠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에 따르면,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사용 의향이

88.5%로 나타났고 모바일 상품권 선물 의향은 86.8%로 나타났다. ‘e-쿠폰으로 누군가에게 간편하게 선물을 할 수 있어 편리하다’가 9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언제 어디서나 선물을 쉽게 보낼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이 가진 간편함이라는 큰 장점이 사용자들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e-쿠폰 덕분에 선물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적어진 편이다’가 70.5%로 조사된 것을 통해, 모바일 쿠폰의 사용이 이전의 선물 문화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내고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프라인 선물에서 온라인 선물로의 변화를 통해 선물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다. 문화는 선물의 종류와 형태를 바꾸며, 이로 통해 새로운 트렌드로 나아가기도 한다.



<그림 2> 모바일 선물하기 거래액 규모

그렇다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는 무엇일까? <그림 2>에 따르면, 카카오 선물하기는 온라인 선물하기 서비스를 시작한 다른 플랫폼 중 가장 많은 거래액을 보이며 온라인 선물하기의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 선물하기는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간편하게 선물을 보낼 수 있다는 장점과 선물 문화의 부담감을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성장해왔다. 카카오 선물하기는 생일, 합격 축하, 아플 때, 힘들어 보일 때 등 많은 상황에서 스마트폰 하나만으로 간편하게 선물을 주고받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생일이 카카오톡에 뜨게 되어있기 때문에 생일만 되면 여러 사람에게 선물을 받기도 하고, 위시리스트를 통해 선물을 받는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함으로써 받는 사람은 만족스럽고 주는 사람은 선물을 고르기 편하게 해준다. 또한, 카카오 선물하기에는 선물을 주는 용도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 선물하기를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선물을 구매할 수도 있고, 직접 선물을 전달해주고 싶은 경우 나에게 선물하기로 미리 받은 다음 직접 전달해줄 수도 있다. 이처럼 온라인 선물을 주도하는 카카오 선물하기는 많은 시도를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1) 가격 부담 없고, 편리한 ‘모바일쿠폰’, 형식과 외형에 치우친 ‘선물문화’를 바꿀까?, 트렌드모니터, 2019.06.05., <<https://www.trendmonitor.co.kr/tmweb/trend/allTrend/detail.do?bldx=1789&code=0201&trendType=CKO&prevMonth=¤tPage=1>>



<그림 3> 카카오 선물하기의 카테고리 목록

<그림 3>은 카카오 선물하기가 사용자들이 수많은 선물 속 자신이 필요로 하는 선물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카테고리를 나눈 것이다. ‘생일’이나 ‘건강/회복’ 카테고리가 가장 보편적이지만 최근에는 카카오 선물하기의 시장 확대와 다양한 시도로 새롭고 독특한 카테고리가 생겨나고 있다. ‘쓸모없는 선물’이나 ‘명품 선물’과 같은 카테고리이다. ‘쓸모없는 선물’에는 실용적이지는 않지만, 이색적이고 기발한 선물들이 있다. 최근 MZ세대(1980년대 초~ 2000년대 초반 출생) 사이에서 쓸모없는 선물을 주고받는 게 유행했다. 카카오커머스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최근 인터넷에서 MZ세대를 중심으로 ‘가장 쓸모없어 보이는 것을 선물하는 문화가 있다는 걸 알아챘고, MZ세대 공략을 위해 새로이 카테고리화했다.”MZ세대의 수요를 파악한 카카오가 선물하기에 이 카테고리를 추가한 것이다. ‘명품 선물’을 추가한 이유도 명품 구매를 즐기는 MZ세대를 겨냥한 것이다. 구찌, 프라다, 몽블랑, 발렌티노, 생로랑, 버버리, 샤넬, 로라메르시에 등 총 100개의 브랜드를 입점시킴으로써 시장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이 오프라인 선물에서 온라인 선물로의 변화는 새로운 선물 문화를 이끌어나가고 있으며,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선물 증여 방식 변화의 현황을 조사해봄으로써 현재의 선물 문화가 어떤지 알아보았다. 이후에는 이처럼 선물 증여 방식이 변화하게 된 배경에 대해 알아볼 예정이다.

2.2. 선물 증여 방식 변화의 배경

직접 만나서 주고받는 오프라인의 선물 방식에서 온라인 선물로 넘어오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온라인 선물로의 변화는 지금까지 지속해서 성장해온 카카오 선물하기라는 카카오의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오프라인 선물과 다르게 온라인 선물이 새롭게 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을 카카오 선물하기를 중심으로 알아보려 한다.

카카오의 홈페이지에는 ‘선물하기의 시작’이라는 카카오 선물하기의 히스토리가 있다. 이 히스토리에는 카카오 선물하기의 시작과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담겨있다. 카카오 선물하기는 ‘채팅창에서 고마운 감정을 더 잘 전할 방법은 뭘까?’라는 발상에서 시작되었다. ‘상품’이 아닌 ‘선물’과 ‘감정의 전달’을 앞세운 것이다. 이렇게 시작한 카카오 선물하기는 이용자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사소한 불편들을 없애나갔다. 그중 하나가 바로 유효기간 개편이다. 이전에는 유효기간 안에 쿠폰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환불받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사용 기간 연장도 단 한 번만 할 수 있었기에 불편함이 있었지만, 카카오는 2014년 7월 1일에 ‘공급자 편의의 환불-유효기간 연장 정책’을 수정했다. 이용자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유효기간을 넘겨도 환불이 가능하게, 특에서 버튼을 단 한 번만 눌러도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유효기간도 제한을 두지 않게 수정한 것이다. 이처럼 단순한 거래의 목적이 아닌, 이용자들의 마음을 생각하고 또한 마음과 감정의 전달에 치중한 카카오 선물하기의 서비스는 다른 모바일 상품권들과의 차별성을 가지게

되었고 독보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

<표 2> 5년간 (2011년~2016년) 모바일 상품권 매출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상반기	합 계
카카오 판매액	-	-	-	142,990 (57.73%)	426,503 (83%)	281,023 (85%)	850,516
SK 플래닛 판매액	25,800	73,900	98,100	74,600 (30.11%)	63,247 (12%)	35,928 (11%)	371,575
KT 엠하우스 판매액	34,602	32,001	65,603	30,046 (12.13%)	26,358 (5%)	15,073 (4%)	203,683
LGU+ 판매액	920	2,514	778	62 (0.02%)	-	-	4,274
계	61,322	108,415	164,481	247,698	516,108	332,024	1,430,048

※ 카카오(선물하기) : '14.7월 사업개시, LGU+(기프트유) : '14.5월 사업종료(판매중단)

카카오 선물하기의 성장은 다음과 같은 모바일 상품권 이용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증명할 수 있다. <표 2>에 나온 2011년~ 2016년의 5년간 모바일 상품권 매출 현황에 따르면, 2014년의 매출에서 SK플래닛은 약 74억, KT엠하우스는 약 30억, LGU+는 약 30억의 매출이 나왔다. 하지만 카카오에서는 2등을 기록하고 있는 SK플래닛의 약 74억이라는 매출보다 2배 많은 약 142억이라는 매출을 올리며 모바일 상품권 시장에서 가파르게 성장해오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²⁾

<표 3>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모바일 상품권 매출 현황 합계



<표 3>는 <표 2>의 내용에서 5년간의 총매출을 비교하게 쉽게 세로 막대 그래프로 변환한 것이다. 표 2를 보면 카카오의 모바일 상품권 매출은 2014년 7월에 사업을 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850억이라는 높은 매출액의 합계를 보인다. 이는 두 번째로 가장 높은 매출인 SK플래닛의 약 370억이라는 수치와 비교

2) 김태훈, 모바일 상품권 이용 실태조사, 한국소비자원, 2016, 5쪽.

해 본다면 확연히 높은 매출임을 알 수 있다.³⁾

<표4> 필수 표시사항 실태

표시사항 규정	카카오 (선물하기)	SK플래닛 (기프트콘)	KT엠하우스 (기프트쇼)	원큐브마케팅 (기프팅)	CJ E&M (쿠투)
발행자	○	○	○	X	X
구매가격	○	X	○	X	○
유효기간	○	○	○	○	○
사용조건	○	○	○	○	△ (수량 미표시)
사용가능가맹점	○	○	○	○	○
환불조건및방법	○	○	○	○	○
지급보증	○	○	○	X	○
전화번호	○	○	X	○	○

<표 4>의 필수 표시 실태를 보면 다른 모바일 상품권들과 다르게 카카오 선물하기는 유일하게 표시를 잘 지키고 있다. 발행자, 구매 가격, 유효기간, 사용 조건, 사용 가능 가맹점, 환불 조건 및 방법, 지급 보증, 전화번호와 같은 표준 약관의 필수 표시 사항은 모바일 상품권에도 기재되어야 한다. 카카오 선물하기는 필수 표시사항을 잘 지키고 있는 것에 비해 다른 경쟁사들인 SK플래닛과 KT엠하우스, 원큐브마케팅, CJ E&M은 표시가 미흡했다. 이러한 이유로 카카오 선물하기는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 밑바탕을 잘 쌓아 올렸으며 카카오톡이라는 메신저와의 연동성을 활용해 소비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질 수 있게 되었다. 카카오 선물하기는 이와 같은 배경으로 모바일 상품권의 시대를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주도해나가고 있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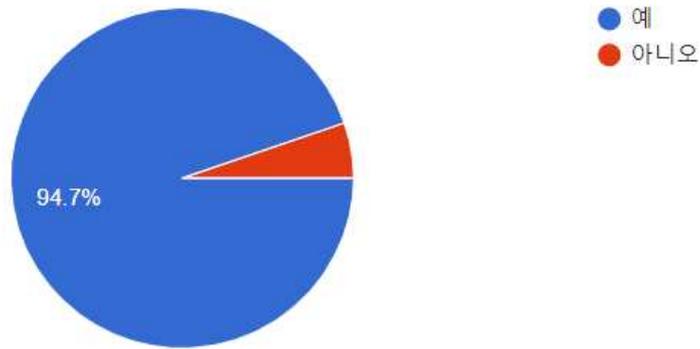
위와 같은 카카오 선물하기의 등장과 지속적인 성장으로 오프라인에서만 선물을 주고받던 문화에 변동이 생기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선물은 만나서 실물로 주고받는 것이 일상적이었지만 온라인 선물이 대중화되고 난 후부터는 모바일 상품권으로 주고받는 일이 이상한 일이 아니게 되었다. 또한, 코로나19의 유행으로 대면을 자제하고 비대면을 추진하는 영향 때문에 선물 문화도 비대면화된 것을 시대적 배경으로 들 수 있다.

3. 선물 증여 방식 변화의 인식 분석 결과

이 연구에서는 온라인 선물 시장의 발전을 통해 변화하는 사회 속 사람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선물 증여 방식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알아볼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하였고 총 57명이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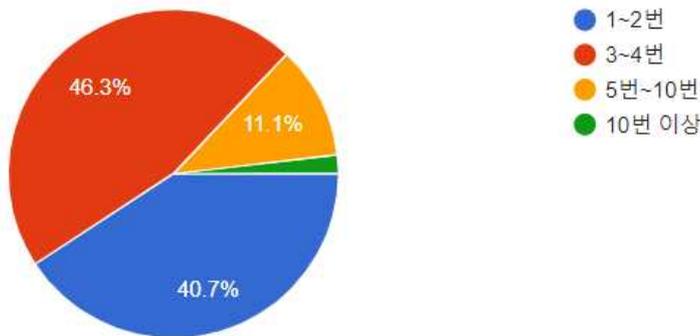
오프라인과 온라인 선물 증여 방식의 경험을 먼저 조사해보았다. 오프라인(대면, 만나서) 선물을 주고받은 적이 있는지 조사한 문항에는 다음과 같은 응답 결과가 나왔다.

3) 위의 글, 5쪽.
4) 위의 글, 1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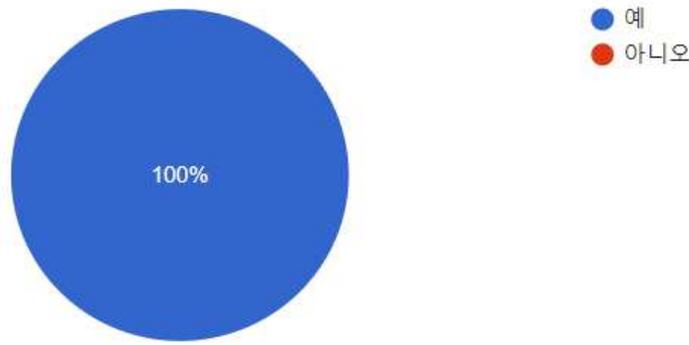
<그림4> 오프라인(대면, 만나서) 선물을 주고받은 적이 있나요?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선물을 주고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54명으로 94.7%에 해당했고,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선물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3명으로 5.3%에 해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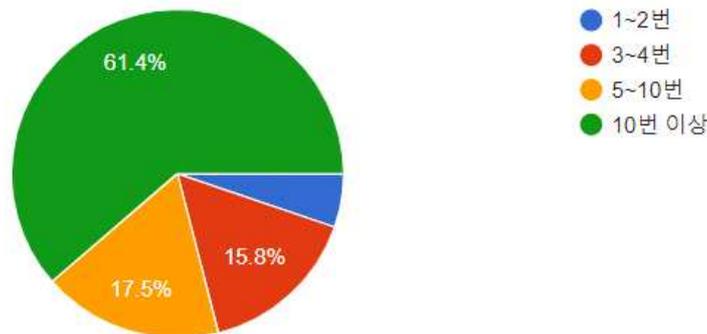
<그림5> 오프라인 선물을 최근 1년간 몇 번이나 주고받았나요?

오프라인 선물을 최근 1년 동안 몇 번이나 주고받았는지도 조사해보았다. 위의 자료와 같이 '3~4번 주고받았다'가 46.3%(25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은 '1~2번 주고받았다'가 40.7%(22명)로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5~10번 주고받았다'는 11.1%(6명), '10번 이상 주고받았다'는 1.9%(1명)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최근 1년 동안의 오프라인 선물 주고받기 횟수를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본 결과, 1~2번과 3~4번의 결과가 40%대로 비슷한 것에 비해 5번~10번과 10번 이상은 11.1%와 1.9%로 미비한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오프라인 선물을 1년에 1~4번 주고받는 것이 일상적이고 5번 주고받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6> 온라인(카카오 선물하기, 기프티콘)으로 선물을 주고받은 적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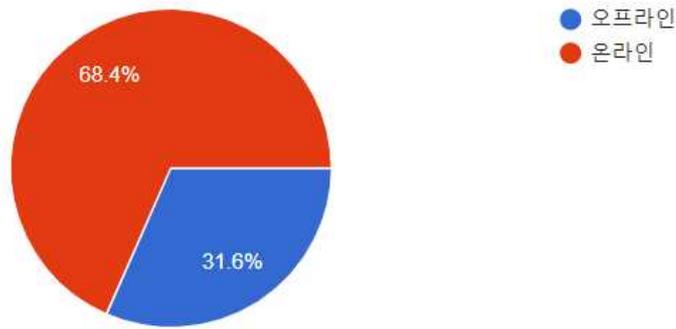
<그림 6>은 온라인으로 선물을 주고받은 적이 있는지 묻는 문항으로 ‘예’에 응답한 사람이 100%(57명)가 나왔다. 앞서 나왔던 오프라인 선물을 주고받은 적이 있는지 묻는 문항에서는 5.3%(3명)의 사람이 ‘오프라인 선물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라고 답했다. 오프라인 선물을 주고받은 적은 없지만, 온라인 선물은 주고받은 적이 있다는 뜻으로, 오프라인 선물 대신 온라인 선물이 널리 쓰이고 있다는 의미로 분석할 수 있다.



<그림 7> 온라인 선물을 최근 1년 동안 몇 번이나 주고받았나요?

온라인 선물을 최근 1년 동안 몇 번이나 주고받았는지도 조사해보았다. 온라인 선물은 오프라인 선물과 다르게 ‘10번 이상 주고받았다’가 61.4%(35명), ‘5~10번 주고받았다’가 17.5%(10명), ‘3~4번 주고받았다’가 15.8%(9명), 그리고 ‘1~2번 주고받았다’가 5.3%(3명)로 집계되었다. 가장 많이 주고받은 10번 이상이 절반을 넘게 차지했고 1~2번 주고받은 사람이 제일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선물에서는 1~2번 또는 3~4번 주고받는 사람이 많은 것에 비해 온라인 선물에서 1년에 10번 이상 주고받는다고 응답한 사람의 수가 절반을 넘고 1~2번 주고받는 사람의 수가 적은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결과는 현재 사람들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선물을 주고받는 횟수가 더 많다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지금부터는 온라인 선물을 주고받는 횟수가 더 많다는 결과가 실제 사람들의 오프라인과 온라인 선물 선호도에도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온라인 선물을 주고받는 횟수가 많으므로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선물을 주고받는 것을 진정 선호한다고 추론할 수 있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람들의 오프라인과 온라인 선물의 선호도를 선물을 줄 때와 받을 때 두 가지의 상황으로 나누어 살펴보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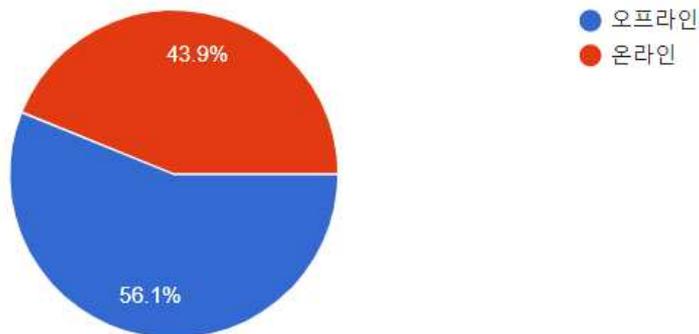


<그림 8> 선물을 줄 때, 오프라인과 온라인 선물 중 무엇을 더 선호하시나요?

<그림 8>에는 선물을 줄 때 사람들의 어떤 선물 증여방식을 더 선호하는지가 나와 있다. 온라인으로 선물을 주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은 68.4%(39명), 오프라인으로 선물을 주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은 31.6%(18명)로 나타났다. 따라서 선물을 줄 때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으로 선물을 주는 것을 많이 선호한다는 결과를 알 수 있다.

선물을 줄 때 온라인으로 선물을 주는 것을 더 선호하는 이유는 온라인 선물을 주는 것을 더 선호하는 사람 39명 중에서 중복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조사했으며, ‘주는 방식이 간편해서’라는 이유가 87.2%(34명)로 제일 많이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줄 수 있어서’가 76.9%(30명), ‘상품 품목이 다양해서’가 38.5%(15명), ‘온라인으로만 줄 수 있는 선물이라서(ex. 음료, 케이크 교환권, 금액권 등)’가 25.6%(10명), ‘비대면을 선호해서’가 12.8%(5명)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기타에는 ‘만나기 귀찮아서’가 2.6%(1명)로 집계되었다.

선물을 줄 때 오프라인으로 선물을 주는 것을 더 선호하는 이유는 오프라인 선물을 주는 것을 더 선호하는 사람 18명 중에서 중복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조사했으며, ‘마음이 더 잘 전해지는 것 같아서’라는 이유가 94.4%(17명)로 제일 많이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만나서 주고 싶어서’가 55.6%(10명), ‘오프라인으로만 줄 수 있는 선물이라서(ex.손 편지)’가 38.9%(7명), 그리고 기타에는 ‘직접 반응을 볼 수 있어서’는 5.6%(1명), ‘받는 사람의 기분과 마음, 생각을 진심으로 알 수 있어서’는 5.6%(1명)가 집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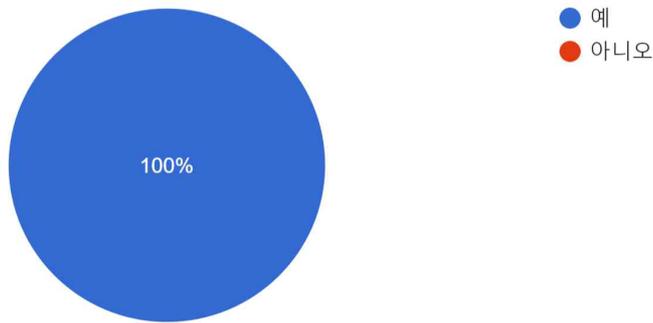
<그림 9> 선물을 받을 때, 오프라인과 온라인 선물 중 무엇을 더 선호하시나요?

그렇다면 선물을 받을 때는 어떨까? 선물을 줄 때와는 다른 결과를 보일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선물을 받을 때의 오프라인과 온라인 선물 중 어떤 것을 더 선호하는지의 조사 결과를 <그림 9>로 나타내었다. 선물을 줄 때 온라인으로 선물하는 것을 더 많이 선호했던 것과는 달리, 56.1%(32명)의 사람들이 오프라

인으로 선물을 받는 것을 선호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온라인 선물을 더 선호하는 사람들이 선물을 줄 때는 68.4%(39명)이었지만 선물을 받을 때는 43.9%(25명)로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선물을 받을 때에는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을 조금 더 선호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선물을 받을 때 오프라인으로 선물을 주는 것을 더 선호하는 이유는 오프라인 선물을 주는 것을 더 선호하는 사람 31명 중에서 중복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조사했으며, ‘마음이 더 잘 전해져서’라는 이유가 80.6%(25명)로 제일 많이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사람과의 만남이 좋아서’가 74.2%(23명), ‘온라인으로 선물을 주는 것은 성의 없어 보여서’가 6.5%(2명)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기타에는 ‘기프트콘 쓰기 귀찮아서’가 3.2%(1명), ‘더 감동적이어서’가 9.6%(3명)로 집계되었다.

선물을 받을 때 온라인으로 선물을 주는 것을 더 선호하는 이유는 온라인 선물을 주는 것을 더 선호하는 사람 25명 중에서 중복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조사했으며, ‘쓰고 싶을 때 언제든지 쓸 수 있어서’라는 이유가 80%(20명)로 제일 많이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받을 수 있어서’가 64%(16명), ‘쓰는 방식이 간편해서’가 60%(15명), ‘환불 방식이 간편해서’와 ‘비대면을 선호해서’가 16%(4명)로 같게 나왔다. 그리고 기타에는 ‘오프라인 선물은 집까지 들고가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소 버거울 때가 있어서’가 4%(1명)로 집계되었다.



<그림 10> 카카오 선물하기를 사용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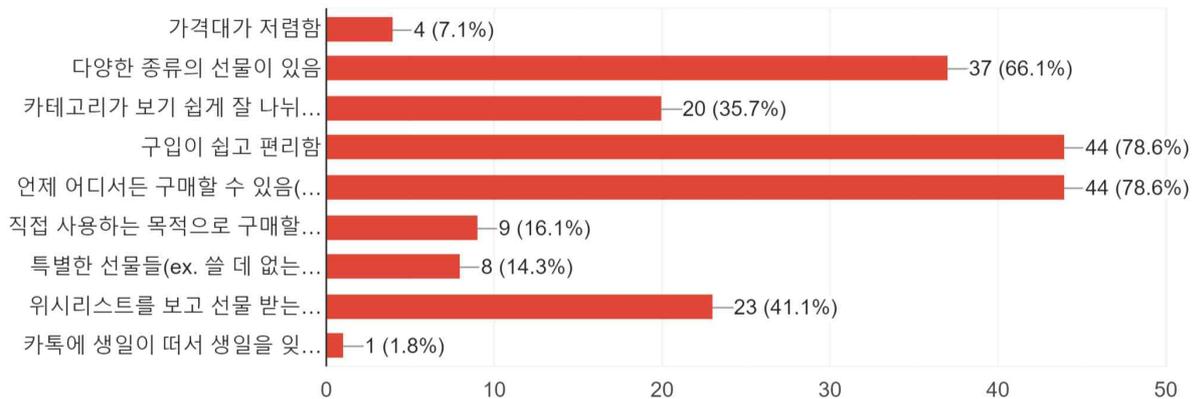
온라인 상품권 시장에서 카카오 선물하기의 실제 사용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카카오 선물하기를 사용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해보았다. 57명의 응답자 중 모두 카카오 선물하기를 사용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를 통해 카카오 선물하기가 실제로 많이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림 11> 카카오 선물하기에서 선호하는 선물 종류를 선택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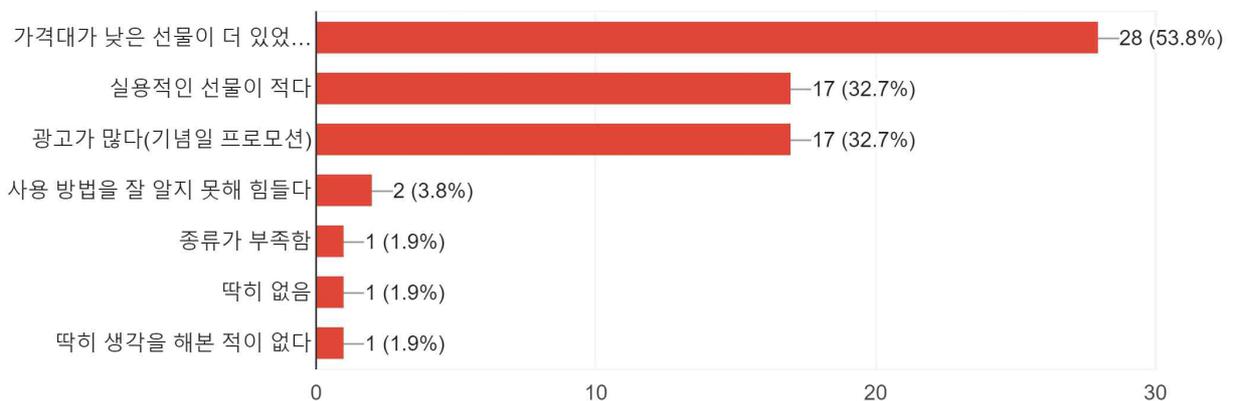
카카오 선물하기는 선물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지정된 교환처에서 제품을 교환하는 제품 교환권, 지정된 금액을 교환처에서 현금처럼 사용하는 금액형 상품권, 수령자가 주소를 입력하면 배송되는 배송 상품, 지정된 교환처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교환권이 있다. 카카오 선물하기에서 선호하는 선물 종류를 조사해 본 결과, 배송 상품이 49.1%(27명), 제품 교환권이 30.9%(17명), 금액형 상품권이 16.4%(9명), 서비스 교환권이 3.6%(2명)로 집계되었다. 수령자가 주소를 입력하면 배송되는 배송 상품이 가장 선호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배송 상품은 선물을 보내는 사람이 선물을 받는 사람의 주소를 몰라도 보내줄 수 있다. 선물을 받는 사람이 직접 주소를 입력할 수 있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점으로 배송 상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5> 카카오 선물하기에서 좋았던 점을 선택해주세요(중복 선택 가능)



카카오 선물하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현황을 알기 위해 ‘카카오 선물하기에서 좋았던 점을 선택해주세요’라는 항목으로 조사를 해보았다. 조사는 중복할 수 있게 설정해두었다. ‘구입이 쉽고 편리함’과 ‘언제 어디서든 구매할 수 있음(시간과 공간에 제약X)’이 78.6%(44명)로 같게 가장 많이 집계되었다. 그다음으로 ‘다양한 종류의 선물이 있음’이 66.1%(37명), ‘위시리스트를 보고 선물 받는 사람의 취향을 알 수 있음’이 41.1%(23명), ‘직접 사용하는 목적으로 구매할 수 있음(나에게 선물하기)’이 16.1%(9명), ‘특별한 선물들(ex. 쓸모없는 선물, 명품 선물)을 할 수 있음’, ‘가격대가 저렴함’이 7.1%(4명), 그리고 기타에는 ‘카톡에 생일이 떠서 생일을 잊지 않고 당일날 챙겨줄 수 있음’이 1.8%(1명)로 집계되었다.

<표6> 카카오 선물하기에서 불편하거나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점을 선택해주세요(중복 선택 가능)



그다음으로는 ‘카카오 선물하기에서 불편하거나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점을 선택해주세요’라는 항목으로 조사를 해보았다. 조사는 중복할 수 있게 설정해두었다. ‘가격대가 낮은 선물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가 53.8%(28명)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는 ‘실용적인 선물이 적다’와 ‘광고가 많다(기념일 프로모션)’이 32.7%(17명)로 같게 집계되었다. ‘사용 방법을 잘 알지 못해 힘들다’는 3.8%(2명), 그리고 기타에서는 ‘종류가 부족함’은 1.9%(1명), ‘딱히 없음’은 3.8%(2명)로 집계되었다.

4. 선물 증여 방식 변화의 인식 결과가 시사하는 점

4.1. 기업

선물 증여 방식 변화에 따른 사람들의 인식 결과가 시사하는 점을 기업에 초점을 맞춰서 알아보려 한다. 위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선물을 최근 1년 동안 10번 이상 주고받은 사람이 61.4%(35명)가 나올 정도로 온라인으로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일상화되어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오프라인으로 주고받던 이전의 선물 문화를 대체하게 된 온라인 선물은 현재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고, 선물 트렌드를 새롭게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은 선물 증여 방식 변화에 따른 인식 결과에 따라 새롭게 나아갈 트렌드의 방향을 정해야 한다.

주요 사업자별 선물하기 서비스 현황

					
	카카오	쿠팡	11번가	롯데온	마켓컬리
서비스 시작	2010년 12월	2020년 4월	2020년 9월	2021년 9월	
특징	카카오톡 메신저 기반 접근성	로켓배송 통한 빠른배송	해외직구 상품도 선물하기 가능	대신 장보고 선물하기 가능	

그래픽: 이지혜 디자인가자

<그림 12> 주요 사업자별 선물하기 서비스 현황

카카오 선물하기는 위 설문조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57명)이 사용해본 경험이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선물하기 서비스이다. 카카오 선물하기의 성장에 이어 다른 기업에서도 온라인 선물하기 서비스를 새롭게 내세우기 시작했다. <그림 12>⁵⁾를 보면, 카카오, 쿠팡, 11번가, 롯데온, 마켓컬리 등 다양한 기업들이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15년에는 ‘네이버 선물하기’ 서비스가 시작되었고, 2020년에는 쿠팡에서 ‘로켓선물하기’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또한, 배달 서비스 업체인 ‘배달의 민족’이나 백화점 온라인몰 ‘더현대닷컴’, 심지어는 은행과 보험 업계에서도 보험 상품이나 주식을 선물 대상으로 제공할 정도로 많은 플랫폼이 선물하기 업계에 뛰어들고 있다. ‘네이버 선물하기’는 모바일 앱 메인 상단에 선물함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쇼핑 탭으로 가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최소화했다. 이에 따라 접근하기가 쉬워졌고 이는 성장에도 도움을 주었다. 2021년 5월 기준 하루 평균 거래액이 2021년 4월과 비교했을 때 130%, 전년 동월 대비 1600% 증가했다. 쿠팡의 ‘로켓선물하기’는 수령인이 배송지를 입력하면 배송해주는 서비스인데, 로켓배송 상품은 다음 날, 로켓프레시 상품은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배송된다. 이전의 선

5) 임찬영, 카카오 ‘선물하기’에 도전장 내민 기업들, 차별화 성공할까, 머니투데이, 2021.09.23.,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92313531545894>>

물하기 서비스에서는 누릴 수 없었던 새벽 배송도 지원했다. 생일 전날 ‘로켓선물하기’로 생일 케이크와 생화 꽃다발을 선물하면 생일에 오전 7시까지 배송을 받을 수 있다. 롯데온이나 마켓컬리에서는 대신 장보고 선물하기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를 내세웠다. 이처럼 기업들의 차별화된 서비스들이 선물을 주고받는 일을 더욱 간편하고 빠르게 바꾸어가고 있다.

앞에서는 온라인 선물하기를 대표할 수 있는 큰 성장을 이룬 카카오 선물하기를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해보았다. 카카오 선물하기의 장단점 분석을 통해 앞으로의 온라인 선물하기 시장의 방향성 설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카카오 선물하기에서 좋았던 점이 ‘구입이 쉽고 편리함’과 ‘언제 어디서든 구매할 수 있음(시간과 공간의 제약X)’이 높게 나온 것을 보아 온라인 선물하기의 장점은 편리함과 간편함으로 추려볼 수 있다. 카카오 선물하기의 개선할 점에는 가격대가 낮은 선물이 부족하고 실용적인 선물이 없으며 기념일 프로모션과 같은 광고가 많다는 것이 있었다.

카카오 선물하기는 ‘가벼운 선물’이라는 카테고리에서 ‘예산은 가볍게, 감동은 무겁게’라는 문구를 사용하며 누구나 부담 없이 선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직접 조사해본 결과 ‘가벼운 선물’의 카테고리에서는 가장 가격이 낮은 선물이 4,000원이었으며 가장 높은 선물은 69,900원까지 있었다. 1만 원 미만의 선물들은 총 50개가 존재했으며, 이 중에서 4,000원에서 5,000원 사이의 선물이 3개, 5,000원에서 8,000원 사이의 선물이 8개, 8,000원에서 9,900원 사이의 선물이 39개가 있었다. 8,000원 사이에서 9,900원 사이의 선물에는 39개 중 26개가 9,900원 선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가벼운 선물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갔지만, 만원 미만의 선물 50개 중 26개를 차지하는 9,900원짜리 선물로 소비자들을 이끌고 있었던 것이다. 카카오 선물하기의 다른 카테고리들에 들어가 보아도 대부분 높은 가격대를 이루고 있다. 카카오 선물하기에 존재하는 선물들이 모두 가격대가 높은 선물들이 아님에도 카테고리에는 가격대가 낮은 선물보다 높은 선물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낮추고 더 큰 소비를 하도록 이끈다. 이 부분에서는 가격대가 낮은 선물을 카테고리에 더 추가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폭넓게 구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2. 소비자

온라인 선물하기 서비스의 성장으로 많은 사람은 오프라인 선물 방식에서 온라인 선물 방식으로 넘어오고 있다. 하지만 설문조사에서 선물을 줄 때 온라인으로 주는 것을 많이 선호하는 것에 비해 선물을 받을 때에는 오프라인을 더 선호하는 결과가 나왔다. 선물을 줄 때는 더 간편하게 선물을 줄 수 있는 온라인 선물 방식을 선호하고 있지만, 선물을 받을 때에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선물의 가장 중요한 점은 서로 주고받는 마음인데 이러한 부분이 온라인에서는 아직 오프라인으로 직접 주는 상황보다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선물하기에서는 마음을 주고받는 선물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메시지 카드를 이용해 선물을 보내는 사람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선물하기 서비스의 개선에도 직접 만나서 정을 나누는 선물 문화는 온라인에서 대체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오프라인으로 주고받는 선물이 서로의 반응을 직접 볼 수 있고 마음이 더 잘 전해지기 때문에 선물을 받을 때에는 오프라인으로 받는 것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비자들은 카카오 선물하기 서비스의 카테고리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선물을 더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카테고리는 기업이 구성함으로써 모든 상품이 등록되어있는 것도 아니고 특정 상품의 홍보를 위한 의도적인 설정도 들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소비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편리함이라는 장점으로 온라인 선물하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선물이라는 큰 틀에 갇혀 소비에 무감각해질 수도 있다. 소비자들은 온라인 선물하기의 장점을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이면에도 집중하여 합리적인 소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5. 결론

오프라인 선물 방식에서 온라인 선물 방식으로의 변화로 바뀌게 된 선물 트렌드의 현황을 확인하였다. 이전에는 온라인 서비스가 갖춰져 있지 않았으므로 만나서 주고받아야 하는 오프라인 선물 방식이 주로 쓰였다. 이후, 온라인 시대로의 변화와 발전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도입하게 되었고 온라인 선물 방식이 널리 쓰이게 되었다. 바뀐 선물 증여 방식을 통해 선물의 트렌드도 많이 변화하게 되었다. 이전에는 생일이나 기념일, 특별한 날에만 선물을 주로 주고받았지만, 온라인 선물하기의 가장 큰 이점인 편리성으로 언제 어디서나 선물을 줄 수 있게 되었다.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에게 선물을 자주 주고받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온라인 선물하기의 성장으로 카카오 선물하기의 특별한 카테고리인 ‘쓸모없는 선물’이나 ‘명품 선물’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선물 증여 방식의 변화 현황은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일어났다. 온라인 선물하기로의 변화는 카카오 선물하기를 중심으로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카카오 선물하기는 상품보다 선물을 주는 감정의 전달에 초점을 맞추며 사업을 시작했고, 사용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사소한 불편들을 없애나갔다. 이로 인해 카카오 선물하기는 압도적인 매출을 내며 성장할 수 있었고, 성장한 카카오 선물하기는 온라인 선물하기 서비스를 더욱 확장시켜 나가게 되었다.

변화한 선물 증여 방식에 따른 사람들의 인식 결과를 알기 위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최근 1년 동안 오프라인 선물을 주고받은 사람보다 온라인 선물을 주고받은 사람이 더 많았다. 오프라인 선물보다 온라인 선물로 주고받는 방식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선물을 줄 때 선호하는 것은 편리하게 선물을 줄 수 있는 온라인 선물이지만, 선물을 받을 때 선호하는 것은 오프라인 선물이었다. 감정을 주고받는 선물이라는 특성이 오프라인에서 더 크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만나서 직접 선물을 받고 싶은 마음이 나타난 것이다.

선물 증여 방식에 따른 인식 결과가 시사하는 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카카오 선물하기를 이어 다른 기업들도 온라인 선물하기 서비스를 많이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의 경쟁 속에서 온라인 선물하기 서비스는 더욱 성장할 것이며, 더 간편해지고 많은 독특한 방법들이 생겨날 것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기업이 상품들을 걸러서 소비자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이다. 기업의 선물하기 서비스는 카테고리의 구성에 따라 소비자들이 접하게 되는 상품들이 달라지므로 소비자들의 가격대의 선택권을 더 폭넓게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는 온라인 선물하기 서비스에서 무분별한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보고 있는 선물 카테고리의 항목을 잘 검토하고 더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참고 문헌

- 가격 부담 없고, 편리한 ‘모바일쿠폰’, 형식과 외형에 치우친 ‘선물문화’를 바꿀까?, 트렌드 모니터, 2019.06.05., <<https://www.trendmonitor.co.kr/tmweb/trend/allTrend/detail.do?bIdx=1789&code=0201&trendType=CKOREA&prevMonth=¤tPage=1>>
- 김태훈, 모바일 상품권 이용 실태조사, 한국소비자원, 2016, 5쪽.
- 비즈북씨, 2022년 폭발하는 기술/시장 트렌드 ‘펜트업’#1 4050과 쿼터머스, 네이버 블로그, 2021.9.28., <https://blog.naver.com/biz_books/222519695880>
- 선물하기의 시작, kakao, 2010.12., <<https://www.kacaocorp.com/page/detail/5216>>
- 이신혜, 카카오 등 선물하기 거래액 年 3.3조... 수수료 30% ‘깜깜이’ 수익창출, 조선일보, 2022.10.1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846655>>
- 오한빈, 2020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주요지표 인포그래픽 및 심층분석 보고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3.16, <<https://www.msit.go.kr/publicinfo/view.do?sCode=user&mPid=62&mId=63&publicSeqNo=406&publicListSeqNo=8&formMode=R&referKey=406,8>>

이재은, '요즘 애들'의 소확행... '쓸모 없는 선물' 뭐길래, 머니투데이, 2020.12.23.,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22309055285467>>

임찬영, 카카오 '선물하기'에 도전장 내민 기업들, 차별화 성공할까, 머니투데이, 2021.09.23.,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92313531545894>>

장민주, MZ세대 온라인 선물하기 열풍... 비대면이 일상생활화 한다, THCHWORLD, 2022.5.16.,

<<https://www.epn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192>>

카카오 선물하기, <https://gift.kakao.com/home?input_channel_id=2644>

부록

1. 오프라인으로 선물을 주고 받은 적이 있나요?

예 (1-1번으로)

아니오 (2번으로)

1-1. 최근 1년 동안 몇 번이나 주고받으셨나요?

1~2번

3~4번

5~10번

10번 이상

2. 온라인으로 선물을 주고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ex. 카카오 선물하기)

예 (2-1번으로)

아니오 (3번으로)

2-1. 최근 1년 동안 몇 번이나 주고받으셨나요?

1~2번

3~4번

5~10번

10번 이상

3. 선물을 줄 때, 오프라인과 온라인 선물 중 무엇을 더 선호하시나요?

오프라인 (3-1로 이동)

온라인 (3-2로 이동)

3-1. 오프라인 선물로 주는 것을 더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복 선택 가능)

마음이 더 잘 전해지는 것 같아서

주는 방식이 간편해서

상품 품목이 다양해서

오프라인으로만 줄 수 있는 선물이라서(ex.손편지)

만나서 주고 싶어서

기타

3-2. 온라인 선물로 주는 것을 더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복 선택 가능)

마음이 더 잘 전해지는 것 같아서

주는 방식이 간편해서

상품 품목이 다양해서

온라인으로만 줄 수 있는 선물이라서(ex. 음료, 케이크 교환권, 잔액권 등)

비대면을 선호해서

시간과 공간에 상관 없이 언제든지 줄 수 있어서

기타

4. 선물을 받을 때, 오프라인과 온라인 선물 중 무엇을 더 선호하시나요?

오프라인 (4-1로 이동)

온라인 (4-2로 이동)

4-1. 오프라인 선물로 받는 것을 더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복 선택 가능)

마음이 더 잘 전해져서

온라인으로 선물을 주는 것은 성의가 없어 보여서

사람과의 만남이 좋아서

기타

4-2. 온라인 선물로 받는 것을 더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복 선택 가능)

마음이 더 잘 전해져서

쓰는 방식이 간편해서

쓰고싶을 때 언제든지 쓸 수 있어서

비대면을 선호해서

시간과 공간에 상관 없이 언제든지 받을 수 있어서

환불 방식이 간편해서

기타

5. 카카오 선물하기를 사용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5-1로 이동)

아니요 (설문 종료)

5-1. 카카오 선물하기 사용에서 좋았던 점을 선택해주세요.

(중복 선택 가능)

가격대가 저렴해서

다양한 종류의 선물이 있어서

카테고리가 보기 쉽게 잘 나뉘어 있어서

구입이 쉽고 편리해서

언제 어디서든 구매할 수 있어서(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다)

직접 사용하는 목적으로 구매할 수 있어서

기타

5-2. 카카오 선물하기에서 선호하는 선물 종류를 선택해주세요.(줄 때와 받을 때 모두 포함)

제품 교환권

금액형 상품권

배송 상품

서비스 교환권

6. 카카오 선물하기 사용에서 불편하거나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을 선택해주세요.

가격대가 낮은 선물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실용적인 선물이 적다

광고가 많다(기념일 프로모션)

사용 방법을 잘 알지 못해 힘들다

기타

대학 내 언어폭력 실태와 해결 방안

국어교육과 김소*

목차

1. 서론
 2. 언어폭력의 정의와 사회 전반의 언어폭력 실태
 3. 대학 내 언어폭력의 인식과 실태
 - 3.1. 대학 내 언어폭력의 인식
 - 3.2. 대학 내 언어폭력 실태
 4. 초중고교, 대학, 직장 내 언어폭력 양상과 대처 방법 비교
 5. 해결 방안
 - 5.1.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해결 방안
 - 5.2.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해결 방안
 6. 결론
- 참고 문헌

1. 서론

언어폭력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중·고등학교에서는 언어폭력을 포함하는 더 큰 범주인 학교폭력이라는 문제가 오래전부터 꾸준히 이슈가 되어 왔고, 사람들의 머릿속에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게 되었다. 그러한 학교폭력의 범주 아래에 있는 언어폭력을 행하는 학생에게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거나, 심할 때는 그에 응당한 처벌을 하기도 하는 등 그에 맞는 해결 방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사회적으로 이행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일인지 대학 내 언어폭력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크게 화두가 된 적이 없다. 화두는커녕 기사에 언급된 것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대학 내 언어폭력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공론화가 된 적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대학 내에서도 언어폭력이 발생함에도 중·고등학교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함에도 그 목적이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대학 내 언어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실태를 조사하고, 이렇게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내 언어폭력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언어폭력에 관련한 선행 연구를 진행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 실제 대학 내에서 언어폭력이 일어나고 있는지, 언어폭력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이 어떠한지 알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대학 내 언어폭력의 인식과 실태 같은 경우, 선행 연구 자료를 참고하는 것보다 2022년 현재, 우리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대학생들의 인식과 실태를 직접 조사하는 것이 실제적인 자료가 될 것이며 연구 결과가 유의미하게 도출되는 데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언어폭력의 정의와 사회 전반의 언어폭력 실태

언어폭력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말로써 온갖 음담패설을 늘어놓거나 욕설, 헐박 따위를 하는 일¹⁾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일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언어폭력은 사전적 정의가 나타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그래서 일상에서 꽤 사소한 문제로 여겨지는 언어폭력은 사소하게 여겨지는 만큼 더 자주 쉽게 발생하고 있다.

언어폭력은 성별, 세대별 할 것 없이 여러 상황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 가장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사례는 초중고교의 학교폭력 내 언어폭력이다. 13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연구정보원 유레카 통계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지난 4~5월 설문한 '2022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의 학생 6만7312명이 참여했다. (중략)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48.7%로 가장 많고 집단 따돌림(15.5%), 신체 폭행(11.5%), 사이버폭력(7.7%), 스토킹(3.3%), 성 관련 피해(2.7%) 순으로 나타났다.²⁾ 이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초중고교는 언어폭력을 포함하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려 다양한 방안을 실행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학교폭력, 특히 언어폭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언어폭력은 초중고교에서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취업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1,008명을 상대로 조사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직장인 68%가 직장 상사 등으로부터 폭언을 들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대답했다. 회사 내 수직적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언어폭력으로 국내의 많은 직장인들이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다. 하지만 취업난 속에 얻은 직장을 잃을까 피해자들은 문제를 해결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³⁾ 이렇듯 직장 내 언어폭력도 심각한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직접 말로 하는 언어폭력뿐만 아니라 SNS를 사용한 언어폭력의 발생률도 증가하고 있다. 사례로 여성 기자들을 대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인터넷을 이용해 언어폭력을 행하여 그 피해를 받은 여성 기자들이 고통을 받았다는 기사가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명의 여성기자는 한 명도 빠짐없이 자신 그리고 그 주변에서 여성기자에 대한 온라인 괴롭힘, 언어폭력을 경험했다. 그들이 겪는 괴롭힘은 1. 악성 댓글, 이메일 등으로 받는 혐오성·성희롱성 메시지 2. 온라인상 개인 신상 및 얼굴 공개 및 박제, 조리돌림 3. 오프라인 공격 등이 있었다. '강간하겠다' '네 가족들을 성폭행할 것이다' '칼로 찔러 죽이겠다'. 20명의 한국 여성기자들이 언어폭력의 가해자들에게 실제로 받은 메시지들이다.⁴⁾

위의 사례들만 봐도 우리 사회에서 언어폭력을 얼마나 쉽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언어폭력의 사전적 정의만 보고 '에이 이게 무슨 욕설이야. 내가 하는 이 정도 말쑤은 언어폭력은 아니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다. 겨우 작은 말 한마디로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까지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다. 언어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이 가볍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 수준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3. 대학 내 언어폭력의 인식과 실태

대학 내 언어폭력에 대해서 현재 대학생의 언어폭력 인식과 실태를 알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전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175명의 대학생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대학생 중 여성의 비율은 66.9%, 남성의 비율은 33.1%로, 여성의 비율이 더 높았다. 또한, 이번 연도에 대학교에 입

1) 국립국어원, 언어폭력,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460759&searchKeywordTo=3, 2022.11.18.

2) 김도우, <전북 초중고생 1.9% “학교폭력 당해”...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순>, 더팩트 뉴스, 2022.09.13.
<http://news.tf.co.kr/read/national/1964674.htm>

3) 이세호, <직장 내 고용 약자들, 언어폭력에 ‘속수무책’>, CIVICNEWS(시빅뉴스), 2015.09.11.
<http://www.civic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20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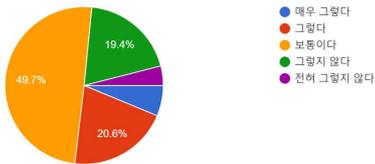
4) 이정연, <여성기자 향한 언어폭력을 ‘놀이’라고 생각합니까?>, 한겨레, 2022.04.15.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9157.html

학한 22학번의 비율이 36.6%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는 다양한 연령대의 학번으로 구성되었다.

3.1. 대학 내 언어폭력의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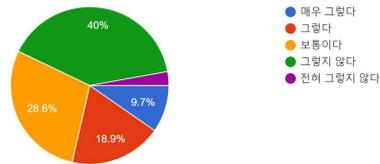
대학 내 언어폭력의 인식에 관련된 설문조사는 총 두 문항을 제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3. 대학교 내 언어 폭력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175개



<그림 1> 대학 내 언어폭력의 심각성

4. 우리 사회가 대학교 내 언어 폭력 문제에 대해 얼마나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175개



<그림 2> 대학 내 언어폭력에 대한 사회의 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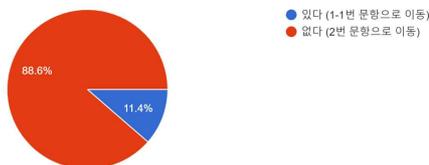
먼저 <그림 1>을 보면, 대학 내 언어폭력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보통이다’가 49.7%로 답변 중 거의 절반을 차지하였고,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가 각각 20.6%, 19.4%로 그 뒤를 이었다. 이를 보면 대학 내 언어폭력이 존재하고 있고 이를 대학생들도 인지하고 있으나 큰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학생들이 대다수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대학 내 언어폭력에 대해서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약 20%나 될 만큼 대학 내에서도 언어폭력이 심각한 수준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2>에서는 우리 사회가 대학 내 언어폭력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을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답변이 무려 40%로 대학생들이 사회는 대학 내 언어폭력에 대한 관심도가 낮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두 문항을 통해 대학생들이 대학 내 언어폭력의 존재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심각성은 그다지 높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사회의 관심도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대학 내 언어폭력을 심각한 문제로 여기지 않음을 볼 수 있었다.

3.2. 대학 내 언어폭력의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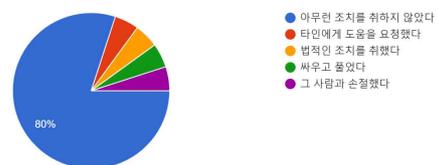
대학 내 언어폭력의 실태에 관련된 설문조사는 직간접 경험을 모두 묻는 문항으로, 총 네 문항을 제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1. 대학교 내에서 언어 폭력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응답 175개



<그림 3> 대학 내 언어폭력 직접 경험 여부

1-3. 있다면 이러한 언어 폭력 문제에 어떻게 대처했나요?
응답 2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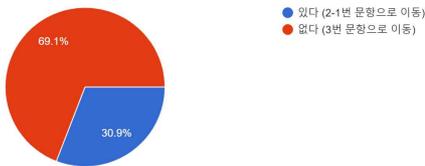
<그림 4> 직접 경험한 학생의 언어폭력 대처 방법

<그림 3>을 보면 대학 내에서 언어폭력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 11.4%의 학생만이 있다고 답하였고, 학생 대부분은 언어폭력을 직접 경험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언어폭력을 직접적으로 당한 학생이 소수라고 해도 175명 중 직접 경험한 학생이 있다는 것 자체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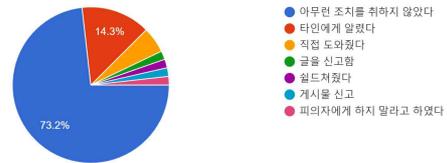
할 경우, 언어폭력을 직접 경험했다는 학생이 지금의 결과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소수의 학생만이 직접 경험했다고 해서 그 결과를 무시해선 안 되는 것이며 오히려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했다.

<그림 4>는 대학교 내에서 언어폭력을 직접 경험한 학생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였는지를 묻는 설문이다. 언어폭력을 직접 경험한 학생 중 무려 80%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위의 언어폭력 인식을 조사하는 설문에서 학생들이 언어폭력을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있고 사회도 이러한 언어폭력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실태로까지 영향을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밖에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법적인 조치를 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처는 20%로 적은 비율로 나타났다.

2. 대학교 내에서 타인이 언어 폭력을 하거나 당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응답 175개



2-3. 있다면 이러한 언어 폭력 문제에 어떻게 대처했나요?
응답 56개



<그림 5> 타인이 언어폭력 당한 것 목격 여부 <그림 6> 타인이 언어폭력 당할 때 본 학생의 대처 방법

<그림 5>는 타인이 대학 내에서 언어폭력을 당한 것을 목격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이다. 질문에 '있다'라고 답한 사람의 비율은 30.9%로 위의 <그림 3> 그래프에서 본인이 언어폭력을 당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보다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교 내에서 언어폭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6>에서는 그러한 언어폭력을 본 학생이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을 제시하였다. 역시나 <그림 4>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를 통해 본인이 겪었던 타인이 겪는 것을 보았든 여전히 대처는 미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초중고교, 대학, 직장 내 언어폭력 양상과 대처 방법 비교

앞서, 2. 언어폭력의 정의와 사회 전반의 언어폭력 실태에서 알아본 초중고 내 언어폭력 발생 사례와 직장인이 겪는 언어폭력 사례, 그리고 위와 같이 설문조사를 통해 직접 조사한 대학 내 언어폭력 실태를 놓고 이를 각 유형의 양상과 대처 방법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먼저, 초중고 내 언어폭력은 대부분 학교폭력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학교폭력이 발생하였을 경우 교사는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상담하며, 가해 학생에게는 최대한 이 학생을 교화시키는 데에 중점을 둔다. 이런 면에서 바로 사법 조치를 하기보다는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해결하려는 학교의 역할이 드러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의 사안이 심각하거나 담임교사의 가해 학생 교화로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학교폭력 전담 기구에 사건이 넘겨지는데 사안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사안접수 → 피·가해 분리의사 확인 → 교육지원청 보고 → 사안조사 및 관련 학생 면담 → 피·가해 관련 학생 학부모 면담 → 전담기구 심의 → 교육지원청 보고(자체종결 또는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이관) →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의 생활기록부 기록 및 이행'으로 요약된다.⁵⁾ 이렇게 학교폭력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학교폭력이 발생하였을 때의 매뉴얼이 정해져 있고, 그에 따라 대처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5) 권혜정·이선영, “학교폭력 전담기구 사안처리 절차의 문제점 고찰 및 대안적 접근.” 법과인권교육연구 15(2), 2022, 140.

대학생의 경우, 위의 설문조사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학 내에서도 언어폭력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초중고에서의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것만큼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기에 초중고에서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대학 내에서는 필수적이지도 않으며, 이러한 언어폭력이 발생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폭력 처리 전담 기관이 설치되어 있지도 않다. 대신 전국적으로 권고에 따라 인권센터가 대학 내에 설치되어 있으나 인권센터가 운영되는 목적은 폭력 전담 기관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다음의 내용으로 알 수 있다. 1990년에 들어서 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교육부에서는 그에 맞춰 대학에 행정지침을 하달하여 각 대학에서는 실정에 따라 학칙이나 내부 규정을 마련과 함께 성고충상담기구가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이를 기점으로 대학별로 ‘성고충상담실’, ‘양성평등상담실’ 등으로 명명되어 운영되며 성고충에 대한 사건을 처리하는 기구로서 대학 내에 정착하기 시작하였다. 2010년 이후 사회적으로 인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대학에서도 내부적으로 인권 관련 사건이 이슈화 되면서 인권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본격적인 인권기구에 설치를 확대한 시점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6년도에 발의한 ‘대학원생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로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인권을 보호를 강조하며 대학에서 인권기구의 설치에 대한 국가적인 권고를 하였다.⁶⁾ 이렇듯 대학에서는 언어폭력의 발생 건수가 적은 만큼 대처도 미비하게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발생 건수가 적다고 해서 대학 내 언어폭력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칠 수는 없는 문제다. 따라서 확실한 대처 매뉴얼이 정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한번 더 굳히게 되었다.

직장인이 겪는 언어폭력의 경우 양상이 다양했다. 직장 상사에게 폭언을 듣는 것과 같이 수직적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언어폭력, 직장 내 따돌림의 발생으로 한 사원에게 가해지는 집단적인 언어폭력, 또는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에서 따라오는 부작용 사례도 있는데 바로 직접적인 신상이 노출되는 기자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겪는 악성 댓글이 달리는 것과 같은 언어폭력 등이 있었다. 이러한 직장 내에서 겪는 언어폭력의 경우 가해자가 상사라는 이유만으로 부하 직원이 그저 참기만 하거나 힘들게 얻은 직장을 잃을까 하는 생각에 신고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악성 댓글 같은 경우는 고소라는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지만 한두 번은 넘어가거나 고소 엄두를 내지 못하는 사람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혐의로 고소가 가능하더라도 기자 개인이 소송에 나서는 데 부담이 크다. 하지만 이메일·댓글 같은 언어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기자에게 회사 차원의 지원은 미흡하다. ‘기자라면 그런 것쯤은 참아야 한다’는 문화가 여전한 탓에 기자들은 고통을 혼자 삭여야 할 때가 많다.⁷⁾ 이렇듯 직장인의 언어폭력 피해 사례는 다양하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그에 반해 대처는 미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초중고교와 대학, 그리고 직장까지 여러 곳에서 다 다른 양상으로 언어폭력이 일어나고 있었다. 초중고교는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미성숙으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폭력과 더불어 언어폭력의 양상이 짙어졌지만, 그에 따른 대처가 대체로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학 내 언어폭력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언행에 책임져야 하는 나이임을 인지했다는 것이 초중고교보다 대학 내 언어폭력의 감소세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대학은 초중고교와 같이 한 반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다양한 사람과 만나는 특성과 한 친구와 짝 붙어있거나 피해자와 가해자가 학교에서 어쩔 수 없이 마주쳐야 하는 상황 자체가 적다는 특성이 있는데, 이도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대학에 입학해서는 스스로 해야 하는 것들에 적응하는 본인의 일에 더욱 신경을 쓰면서 언어폭력이 초중고교보다는 줄어들고 가시화가 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직장 내 언어폭력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고 일상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에 따른 피해자 본인의 대처나, 사회적인 대처가 미비하여 피해를 막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 오혜성, “대학 내 인권센터의 역할과 개선에 관한 연구.” 융합과 통섭 5(1), 2022, 92.

7) 김달아, <기자 향한 악성 댓글·이메일… 언론사 차원의 강력대처 필요>, 한국기자협회, 2022.12.01.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49751>

5. 해결 방안

5.1.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해결 방안

언어폭력은 개개인의 의식 수준을 높이는 것을 통해 해소될 수 있다. 결국 언어폭력은 개인의 잘못된 언행이 문제가 되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 차원에서 언어폭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국가에서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한다는 것은 언어폭력을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일상에서 쉽게 쓰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방증한 것이다. 그러므로 언어폭력을 본질적인 방향으로 해결하려면 언어폭력에 대한 개개인의 인식을 일깨우는 것부터가 시작일 것이다. 개개인은 말을 하기 전에 단 한 번만이라도 고민해보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내가 지금 이런 말을 꼭 해야 할까?’, ‘내가 이 말을 내뱉음으로써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아닐까?’ 단순한 질문이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이러한 질문을 머릿속으로 한 번이라도 되뇌면 본인의 말을 숙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고 이는 언어폭력을 줄이는 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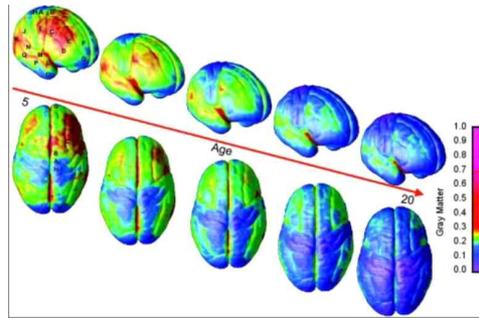
또한, 작고 사소한 언어폭력이라도 순간에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본인이 피해를 겪든 타인이 피해를 받는 상황이든 간에 가해자에게 이것은 명백한 언어폭력이며 이런 언행들을 그대로 두었을 때 더 큰 언어폭력이 발생하고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야 한다. 대학 내에서의 언어폭력을 해결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진행되어야 할 것은 언어폭력에 대한 개인의 관심이며 그만큼 중요한 것은 그 관심을 바탕으로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실행력이다. 언어폭력이 발생했을 때 사회적인 처벌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변에서 언어폭력을 행한 사람에게 비판이 가해진다면 대학 내 언어폭력이 사회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가 되기 전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기 전에, 인간의 윤리 의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될 것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정착하기 전에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언어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고 스스로 올바른 판단을 하고 비판도 할 수 있다면 인간의 윤리 의식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며 이러한 변화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에 밑거름이 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5.2.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해결 방안

모든 문제가 개인의 노력만으로 완벽히 해결되었다면 사회적인 규제는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사회는 구성원들의 합의에 따라 정해진 법이 있고, 우리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법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사람에게서는 자유의 권리가 있지만, 그것이 언어폭력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것이라면 통제함으로써 사회의 질서를 유지한다. 개개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만은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차원의 해결 방안은 그런 부분에서 등장하는 해결 방안이다. 언어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해결 방안은 총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 번째, 언어폭력 예방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다. 초중고교에서는 언어폭력을 포함하는 개념인 학교폭력에 대해서 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초중고교에서는 그만큼 학교폭력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고 그 심각성을 개인이든, 사회적으로든 인식하고 있어서 교육을 꾸준히 시행해오고 있지만, 대학교에서는 언어폭력에 대해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않고 있다. 또한 초중고교와 다르게 대학교에서부터는 학생들을 ‘아직 성장하고 있는 미성숙한 아이’라는 타이틀을 떼고 모든 걸 스스로 할 수 있는 완전한 성인으로 바라본다.



<그림 7> 청소년기 뇌 발달

하지만 겨우 고등학생에서 한두 살을 더 먹은 것뿐인 대학생이 갑자기 완전히 성숙해질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사람의 뇌는 20대 초중반까지도 계속 성장하고 있고 대학생이 되어서도 여전히 미성숙한 채로 자라고 있다. 학생에서 대학생이라는 말만 바뀐 것뿐이지 여전히 미성숙하므로 언어폭력이 여전히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심각성을 인지하지 않고 있거나 대학생은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사회 분위기와 같은 이유로 대학에서는 언어폭력 예방 교육을 따로 시행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위에서 직접 실시한 설문조사와 뇌의 발달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학생의 뇌도 미성숙하고 그로 인해 학생들이 잘못된 행동을 저지를 수 있으므로 대학에서도 언어폭력 예방 교육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은 교육에서부터 시작되므로 교육이 가장 먼저 해결의 방법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대학마다 실시되고 있는 법정 의무교육인 폭력 예방 통합교육처럼 그저 영상을 이수하는 것에 그치는 형태가 아닌 학생들이 참여하고 스스로 언어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는 실제적인 언어폭력 예방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대학에서 최소 일 년에 한 번은 꼭 언어폭력을 중심 내용으로 하는 실제적인 언어폭력 예방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방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언어폭력에 대하여 일깨워주고 언어폭력이 대학 내에서도 일상적으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그리고 언어폭력이 발생하면 확실하게 대처해야 함을 알려주어야 한다.

두 번째, 대학 내에 언어폭력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알리는 방안이다. 학생들이 언어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은 초중고교처럼 학교 내에 학교폭력자치기관이 있거나 우리 반을 담당하고 책임지는 담임선생님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학교에는 과마다 여러 교수님이 계시고 교수님과 학과 관련 이야기나 고민은 나눌 수 있지만, 그 어떤 사소한 문제든 간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담임선생님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고, 폭력 전담 기관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학생 중 본인이 언어폭력을 경험하거나 타인이 언어폭력을 행하는 것을 목격한다고 해도 말할 곳이 마땅치 않거나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서 그러한 상황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 언어폭력의 해결률을 높이는 방법은 대학 내에도 폭력 전담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다. 설치한 후에는 학생들에게 대학 내에 폭력 전담 기구가 설치되었으니 작은 폭력이라도 이곳에 말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일괄적으로 알려주면 학생들도 인지하고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생들 입장에서 폭력에 관련된 일이 발생했을 때 대학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안심할 수가 있게 된다.

부가적으로 국가의 권고에 따라 대학 내에 존재하는 인권센터의 역할이 이러한 언어폭력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언어폭력은 인권센터가 처리할 수 있는 범위에서 벗어나는 문제이다. 이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인권센터의 설치 목적을 보면 알 수 있다. 인권센터가 이전에는 '성 고충상담실', '양성평등상담실'로 불리어 왔고 단순 대학 내 폭력을 해결하는 기관이 아니라 성희롱, 성폭행 등과 같은 성 관련 폭력 경험을 상담해주고 그러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곳임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인권센터가 이러한 목적을 지닌 기관이라는 것은 명백하나, 폭력에 관련된 문제까지 다룰 수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의문에는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는데, 인권기구가 고충업무를 담당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차별행위나 인권침해에서 확대 해석된 일상의 불편함까지 업무영역으로 담당하

고 있어 고충사건 처리의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못한 문제가 존재한다. 이러한 포괄적 인권의 범위는 실무 영역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인권침해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여 사건의 접수와 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 혼선을 가질 수 있어 대학의 인권기구가 담당해야할 인권침해의 범위를 명확화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⁸⁾ 앞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현재 대학 내 인권센터가 인격권, 학습권, 근로권 침해 등 고충 사건까지 업무영역으로 다루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인권센터가 원래 설치 목적에 맞게 성폭력 등의 문제를 다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데 다른 업무까지 여러 영역의 문제 해결을 맡게 되면 본 업무인 성 관련 문제 해결을 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도가 떨어질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성폭력 등의 문제와 다른 고충 사건 처리 간에 혼선을 빚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인권센터가 대학 내 각종 폭력이나 인권 문제에 모두 관여할 수는 없으며 인권센터의 업무영역에 대한 범위를 정확히 해야 할 것이라는 비판받고 있다. 이처럼 교내 인권센터가 해결의 방안이 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언어폭력과 같은 교내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폭력 전담 기구의 설치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대학 내에서 캠페인을 시행하는 것이다. 캠퍼스 내에 학생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중심 길목에서 캠페인을 시행하면 많은 학생에게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일상에서의 언어폭력을 인식하게 해줄 수 있다. 자칫 캠페인은 예방 교육을 시행하거나 폭력 기관을 설치하는 것에 비해 폭력 예방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길 수 있다. 보통 캠페인은 과나 단과대를 대표하는 학생회와 같은 자치 기구가 담당하는 경향이 있는데, 캠페인 같은 경우 직접 팸플릿을 제작하고 그 팸플릿을 들고 서 있으면서 더욱 캠페인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인식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학생회 부원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닌 일반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캠페인을 진행한다면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 자체로 많은 학생에게 폭력에 대해 인지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캠페인이라는 것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지우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

6. 결론

언어폭력은 일상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초중고교에서는 알맞은 대처를 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 내에서는 언어폭력에 대한 인식도, 제대로 된 대처도 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알맞은 대처를 강구해야 함을 느꼈다. 선행 연구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실제로 대학 내에서 언어폭력은 발생하고 있으며 그에 맞는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그러므로 대학 내 언어폭력 문제에 더는 손 놓고 지켜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먼저 개인적으로는 언어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는 것이 우선이며 언어폭력 발생 상황에서 작은 영향이더라도 언어폭력을 하는 학생에게 그것은 잘못된 것임을 말하는 등의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사회적으로는 시기를 놓치지 않는 적절한 언어폭력 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대학 내에도 폭력 전담 기구를 설치하여 교내 폭력 문제를 중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적극적인 캠페인을 통해 언어폭력의 심각성을 교내 학생들에게 알려야 한다. 이러한 두 차원의 해결 방안을 통해 언어폭력 문제에 알맞은 조치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대학은 고등학교에서 사회로 나가는 중간 지점 즉, 사회인이 되어가는 과도기를 겪는 곳이다. 대학이 작은 사회로 여겨지는 만큼 자칫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언어폭력 문제에도 확실히 대처하여 사회에 나갈 학생들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또한 언어폭력의 발생 빈도보다 중요한 것은 발생했다는 사실 그 자체이다. 얼마나 심각하게,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에 따라 대처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발생했다면 더 큰 구조적인 문제가 되지 않도록 대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아직 대학 내 언어폭력의 가시화가 되지 않았고 이렇다 할 심각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 오른 일이 없어서 사회가 해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지만, 대학 내 언어폭력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고 이 문제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 있다. 따라서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대학 내 언어폭력 해결을 위한 연구는 계

8) 오혜성, 앞의 논문, 104.

속 필요해 보인다.

참고 문헌

권혜정·이선영, “학교폭력 전담기구 사안처리 절차의 문제점 고찰 및 대안적 접근.” 법과인권교육연구 15(2), 2022.

오혜성, “대학 내 인권센터의 역할과 개선에 관한 연구.” 융합과 통섭 5(1), 2022.

국립국어원, 언어폭력, 표준국어대사전, 검색일 2022.11.18.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460759&searchKeywordTo=3

김달아, <기자 향한 악성 댓글·이메일… 언론사 차원의 강력대처 필요>, 한국기자협회, 2022.12.01.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49751>

김도우, <전북 초중고생 1.9% “학교폭력 당해”…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순>, 더팩트 뉴스, 2022.09.13.

<http://news.tf.co.kr/read/national/1964674.htm>

이세호, <직장 내 고용 약자들, 언어폭력에 ‘속수무책’>, CIVICNEWS(시빅뉴스), 2015.09.11.

<http://www.civic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9>

이정연, <여성기자 향한 언어폭력을 ‘놀이’라고 생각합니까?>, 한겨레, 2022.04.15.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9157.html

물의 pH가 캣그라스 생장에 미치는 영향

생명공학과 김민*

목차

I. 서론

1. 연구 동기
2. 이론적 배경
 - 2.1. 캣그라스
 - 2.2. 고양이들이 캣그라스를 섭취하는 이유
 - 1) 헤어볼
 - 2) 그루밍
 - 2.3. 수도 이온 농도[pH]

II. 본론

1. 실험의 목적 및 가설
2. 탐구방법
3. 실험과정
 - 3.1 실험 준비물
 - 1). 캣닐 재배방법
 - 2) 밀, 귀리 재배방법
 - 3) 캣닐 재배 시 주의 사항
 - 4) 밀, 귀리 재배 시 주의 사항

III. 탐구 결과와 비교

1. 탐구 결과
2. 탐구 결과 비교

IV. 결론

참고문헌

I. 서론

1. 연구 동기

집에서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고양이가 토하려는 행동을 보고 놀란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고양이들이라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헤어볼을 배출하기 위한 행동이다. 고양이는 하루 10-15% 이상의 시간을 그루밍하는 데 보낸다. 그루밍을 하게 되면 빠진 털이나 먼지 등을 먹게 되는데 대부분 변으로 배출되지만, 배출되지 못한 상당량의 이물질이 위장에 쌓이게 된다. 이런 것들이 뭉친 것을 헤어볼이라고 하고 토하는 행동을 통해 배출하는 것이다.

이런 헤어볼을 고양이가 쉽게 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섬유질이 풍부해 헤어볼 구토를 잘하게 해주는 캣그라스가 필요하다. 캣그라스는 곡식류의 풀들의 어린 순을 부르는 구어체 이름이다. 이 연구는 물의 pH를 조절하여 캣그라스가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pH를 찾아보는 것이 목적이다.

2. 이론적 배경

2.1. 캣그라스

캣그라스 종류에는 귀리 싹, 밀 싹, 캣닢 등이 있다. 많은 고양이들이 이런 싹들을 먹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다양한 곳에서 판매하고 있고, 쉽게 구매할 수 있다. 모든 고양이들이 이 캣그라스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캣그라스의 효과 덕분에 많은 수의 고양이들에게 캣그라스의 섭취를 권유하고 있다. 캣그라스 중 하나인 고양이들의 마약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캣닢의 학명은 *nepeta cataria*이다. *cataria*(개박하)라는 이름은 라틴어에서 왔고 정확한 뜻은 '고양이의'라는 의미이다. 향기 나는 허브 종류로 민트과에 속하며 박하 맛과 레몬 맛이 나는 풀로 유럽과 아시아가 원산지이다. 오랫동안 고양이와 동물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약 50%의 고양이만 캣닢에 반응하는데, 반응했을 때는 턱, 볼, 몸 등의 부위를 문지르거나 핥기, 캣닢을 씹거나 냄새를 맡고, 꼬리를 쭉아 빙글빙글 돌기 등의 행동을 보인다. 효과는 10분 정도 지속되며 한번 반응을 하게 되면 한 시간 이상 정도는 면역이 생기게 된다. 이런 현상은 캣닢의 잎, 줄기, 씨앗에 포함되어있는 네페탈락톤이라는 휘발성 오일에 함유되어 있는 화학물질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2.2. 고양이들이 캣그라스를 섭취하는 이유

고양이가 캣그라스를 먹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고양이가 왜 캣그라스를 섭취하는가에 대한 몇 가지 주장이 있다.

첫 번째로 몇몇 사람들은 영양학적 이유에서 고양이가 캣그라스를 섭취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캣그라스에는 높은 섬유질과 비타민 B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고양이가 헤어볼을 소화 시키고 혹은 토해내기 위해 캣그라스를 먹는다는 주장도 있다. 고양이는 그루밍을 많이 한다. 그러다 보면 고양이의 장 속에 털이 쌓이게 되고, 이 털이 뭉치면 헤어볼이 된다. 헤어볼이 장 속에 쌓이면 건강상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므로 캣그라스를 섭취하게 해 헤어볼을 소화시키거나 토할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세 번째는 백합이나 토란과 식물 같은 고양이에게 위험할 수 있는 집안의 화초들로부터 고양이의 주의를 돌릴 수 있다.

1) 헤어볼

다시 쓰는 고양이 사전에서는 "헤어볼(Hairball)은 말 그대로 고양이의 털이 뭉쳐져 있는 덩어리를 뜻한다. 고양이는 스스로 몸단장을 열심히 하는 동물이며, 자신의 몸을 핥으면서 털을 가꾸는 '그루밍(Grooming)'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일반적으로 사람과 함께 사는 집고양이는 하루의 활동 시간 중 절

반가량을 그루밍을 하는 데 소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고양이는 상당히 많은 양의 털을 삼키게 된다.“라고 하였다. 다행히도 고양이가 삼킨 털들은 대부분 사료나 간식과 마찬가지로 소화기관을 통과해 변과 함께 배설되지만, 털의 일부는 소화기관 안에 남아 축적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고양이의 몸속에 남아 있던 털들이 조금씩 덩어리의 형태로 뭉쳐진 것을 통칭하여 헤어볼 혹은 모구라고 부른다. 고양이의 몸속에 헤어볼이 뭉치면 일반적으로 고양이는 구토를 통해 배출하기도 한다. 하지만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은 헤어볼은 종종 고양이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만약 이를 정상적으로 배출하지 못할 경우, 변비를 일으키거나 고양이의 식욕이 떨어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소화기관에 헤어볼이 남아있을 경우, 위 점막을 자극하거나 소화 장애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심각해지면 헤어볼이 장을 막아 장폐색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2) 그루밍

그루밍은 고양이가 털에 묻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행동이다. 까끌까끌한 혀에 침을 묻혀 몸을 닦는 것뿐만 아니라 앞발·이빨·발톱으로 몸을 정갈하게 하는 것을 총칭한다. 얼굴처럼 혀가 닿지 않는 부위의 경우에는 침을 묻힌 앞발을 볼·이마에 대고 원을 그리듯 등글게 움직이면서 그루밍을 한다. 작은 앞니로는 털과 발톱을 다듬고, 발톱은 목덜미와 귀에 있는 큰 이물질을 긁어낼 때 사용한다.

고양이가 깔끔한 동물로 알려져 있는 것은 그루밍을 하는 영향이 크다. 고양이 침에는 세정작용을 하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그루밍은 위생관리에 도움이 되며 그루밍할 때 털 위에 바른 침은 체온을 조절해주는 효과도 있다. 더울 때는 침이 열을 식혀주고, 추울 때는 털 주위의 침이 몸을 감싸 보온효과를 낸다. 그루밍은 혈액순환을 돕고, 햇볕 아래서의 그루밍은 비타민D 생산을 도와 몸의 면역력을 증진시킨다.

2.3. 수소이온농도[pH]

수소이온농도[pH, 이하 ‘pH’]는 물의 산성이나 알칼리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서 수소 이온 농도의 지수이다. H^+ 농도와 OH^- 농도가 동일하면 중성이고, H^+ 가 많으면 산성, OH^- 쪽이 많으면 알칼리성이 된다. 따라서 $[H^+]$ 의 값이 정해지면 $[OH^-]$ 의 값은 자동으로 정해지며, 액성의 판정이나 산성, 알칼리성의 강도는 $[H^+]$ 의 값만 알면 된다. 용액 1L 속에 존재하는 수소 이온의 몰수를 의미하며, $[H^+]$ 로 쓴다. 수소 이온이 많아질수록 용액은 산성에 가까워지며, 폐수처리를 할 경우나 중화·응집 등 화학적 처리를 할 때 중요한 구실을 한다.

순수한 물일 경우 1기압 25°C에서 수소 이온의 농도가 약 $10^{-7}M$ (몰농도)이며, 이를 기준으로 산성도를 측정할 수 있다. 하지만 수소 이온의 실제 몰수는 이처럼 매우 작은 값이므로 표현하기가 불편하다. 따라서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 수소이온량의 역수에 상용로그를 취한 값을 수소이온농도지수 pH로 사용한다. 즉, $\log_{10}(1/[H^+]) = \log_{10}(1/10^{-7}) = 7$ 인 중성의 순수한 물을 기준으로 하여, pH가 7보다 작은 용액은 산성, pH가 7보다 큰 용액은 알칼리성 또는 염기성이라 한다. 그리고 수소이온농도가 높을수록 pH는 낮다. 수용액 속에서 물 분자의 일부는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으로 이온화된다. 이때 같은 수의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생성되거나 사라지므로 수소이온농도 $[H^+]$ 와 수산화 이온의 농도 $[OH^-]$ 의 합은 용액의 액성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 (핵심일반화학, 2020:494).

이러한 pH는 식물의 생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염화칼슘과 친환경 제설제가 식물의 생장에 미치는 영향(2010)에 따르면 “겨울철 도로 위에 내리는 눈을 제거하기 위해 현재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제설제는 염화나트륨($NaCl$)과 염화칼슘($CaCl_2$)과 같은 염화물 계 제설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설제는 염소이온(Cl^-)을 다량으로 포함하고 있어 대량 살포시 심각한 부식 현상과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염화물이 물속에 녹아 강이나 호수에 흘러 들어가면 수중 생태계의 파괴와 음용수의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염화물은 가로수나 도로변의 식물 생육에 영향을 미치고 육상균집의 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설제로 인한 염화물은 대기에서 분진의 형태로 식물과 직접 접촉하거나 토양에 녹아 들어가 식물의 뿌리로 흡수되어 생장에 영향을 미친다. 토양 속에 농축된 $CaCl_2$ 는 식물 뿌리와 접촉하여 전반적인 생장 장애,

가지 등과 같은 특정 부분의 고사 등을 유발하고, 심한 경우에는 식물 자체의 고사를 일으키기도 한다.”라고 하였다.

또한 반응성 질소화합물로 인한 토양 및 물 환경 생태계의 산성화 영향 및 대응방안(2016)에 따르면 “우리나라 토양은 화강암에서 유래되어 규산 함량이 높고 양이온 함량이 적어 척박하며 강우량이 증발량보다 많아 토양성분의 유실이 발생하여 토양이 산성을 띄며, 급격한 국가 발전에 따라 다양한 개발 사업이 추진되어 녹지면적의 감소, 생태계 훼손, 대기 산성 침적 등 국토의 자연환경 훼손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토양 고유의 pH 수준 이하로 토양의 pH가 낮아지는 토양 산성화는 산성비료의 시비, 물의 작용, 산성비와 공해물질의 유입, 식물의 양분흡수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pH는 식물뿐만 아니라 생태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II. 본론

1. 탐구의 목적 및 가설

목적: pH 농도가 심해질수록 식물의 생존 여부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강산성과 강염기성을 제외한 pH를 이용하여 이에 따른 캣그라스의 생존과 성장 반응을 분석하는 것을 실험의 목적으로 한다.

가설: 대부분의 농작물을 키울 때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pH 수치가 7이므로 캣그라스 또한 중성에서 식물의 생장이 가장 잘 일어날 것이며, pH가 7에서 멀어질수록 생장이 잘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2. 실험 방법

약산성인 pH 5.5 용액, 중성인 pH 7 용액, 약염기인 pH8.5 용액을 사용하여 탐구를 진행하였다. 약염기성은 NaOH (수산화나트륨)으로 약산성은 CH₃COOH (아세트산)으로 pH를 조절하였다.

또한 캣그라스의 성장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서 동일한 캣그라스 키트를 사용해 실험을 실시하였다. 총 3가지 종류(귀리 씨앗 135개, 밀 씨앗 300개, 캣닐 씨앗 130개)의 캣그라스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성장 정도는 싹의 개수, 귀리 식물의 길이, 발아율을 비교하여 파악할 것이다.

3. 실험 과정

3.1. 실험 준비물

- ① 캣그라스 키트(큰 화분, 작은 화분, 귀리 씨앗, 밀 씨앗, 캣닐 씨앗, 부직포, 무농약 배양토 100g),
- ② pH 5.5 용액, pH 7 용액, pH 8.5 용액



<그림 1> 실험 준비물

1) 캣닐 재배방법

1. 부직포 끈을 작은 화분 바닥의 일자 구멍에 끼워준다.
2. 배양토를 작은 화분에 5분의 4정도 채우고 살짝 힘주어 배양토를 눌러준다.
3. 작은 화분의 흙이 촉촉해지도록 종이컵 한 컵 분량의 물을 부어준다.
4. 씨앗이 겹치지 않도록 뿌린 후, 배양토로 살짝 덮어준다.
5. 작은 화분을 큰 화분에 넣고 분무기를 이용하여 물을 준다.
6. 작은 화분에 약 2cm 깊이로 물을 채운다.

2). 밀, 귀리 재배방법

1. 부직포 끈을 작은 화분 바닥의 일자 구멍에 끼워준다.
2. 배양토를 작은 화분에 5분의 4정도 채우고 살짝 힘주어 배양토를 눌러준다.
3. 씨앗이 겹치지 않도록 뿌린 후, 남아 있는 배양토로 살짝 덮어준다.
4. 작은 화분을 큰 화분에 넣고 종이컵 한 컵 분량의 물을 부어 준다.
5. 씨앗이 발아하기 전까지 큰 화분에 물을 채우지 말고 겉흙이 마르지 않도록 분무기로 물을 뿌려준다.
6. 싹이 올라오면 큰 화분에 약 2cm 정도 깊이로 물을 채워준다.

3) 켈넝 재배 시 주의사항

1. 켈넝 씨앗의 적정 발아 온도는 20-25도이다. 15도 이하에서는 발아가 늦어지거나 안 될 수도 있으며 습도가 높거나 통풍이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는 곰팡이가 생길 수 있다.
2. 씨앗을 심을 때 씨앗이 아주 작기 때문에 너무 깊게 심어지면 싹이 배양토를 뚫고 오기 힘들어진다.
 2. 큰 화분의 물이 작은 화분 위로 올라오지 않도록 주의한다. 습도가 너무 높아지면 발아하기 전에 씨앗이 썩을 수도 있다.
3. 씨앗이 발아한 후에는, 햇볕을 하루종일 쬐어 주는 것이 가장 좋다. 최소 하루에 5시간 이상은 쬐어 주어야 튼튼하게 자라며 물 주기는 물이 마르지 않도록 항상 채워주고 물이 오염되면 깨끗하게 세척한 후 깨끗한 물로 채워준다.

4) 밀, 귀리 재배 시 주의사항

1. 밀, 귀리 씨앗의 적정 발아 온도는 5-15도이다.
2. 습도가 높거나 통풍이 잘되지 않는 장소에서는 곰팡이가 생길 수 있어 습도가 높은 6-9월 사이에 씨앗을 심을 경우, 통풍이 잘 되고 습도가 높지 않은 장소에서 키워야 한다.
3. 물 주기는 겉흙이 마르지 않도록 분무기를 이용하여 뿌려준다. 밀, 귀리 씨앗은 발아 시 배양토에 약간의 수분만 있으면 발아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물을 줄 경우 곰팡이가 생기거나 씨앗이 썩을 수 있다.
4. 씨앗이 발아한 후 햇볕은 하루에 3-5시간 정도 쬐어주는 것이 좋으며 물주기는 큰 화분의 물이 마르지 않도록 항상 채워지고 물이 오염되었을 때는 깨끗하게 세척한 후 깨끗한 물로 채워준다.

Ⅲ. 탐구 결과와 비교

1. 탐구 결과

날짜	사진	켓그 라스 종류	염기성	중성	산성
1일차		켓늪	변화없음	변화없음	변화없음
		귀리	변화없음	변화없음	변화없음
		밀	변화없음	변화없음	변화없음

날짜	사진	켓그 라스 종류	염기성	중성	산성
2일차		켓늪	변화없음	변화없음	변화없음
		귀리	변화없음	변화없음	변화없음
		밀	변화없음	변화없음	변화없음

날짜	사진	켓그 라스 종류	염기성	중성	산성
3일차		켓늪	변화없음	변화없음	변화없음
		귀리	싹15개	17개	28
		밀	변화없음	1개	변화없음

날짜	사진	켓그 라스 종류	염기성	중성	산성
4일차		켓냘	변화없음	변화없음	변화없음
		귀리	싹110개 3cm	싹88개 3cm	싹91개 3m
		밀	1개	1개	1개

날짜	사진	켓그 라스 종류	염기성	중성	산성
5일차		켓냘	변화없음	변화없음	변화없음
		귀리	싹 110개 6.5cm	88 5.5cm	91 6cm
		밀	1개	1개	1개

날짜	사진	켓그 라스 종류	염기성	중성	산성
6일차		켓냘	변화없음	변화없음	변화없음
		귀리	싹 110개 10.5cm	88개 9.5cm	91개 10cm
		밀	4개	2개	2개

날짜	사진	켓그 라스 종류	염기성	중성	산성
7일차		켓냘	싹 6개	변화없음	변화없음
		귀리	싹 110개 14.5cm	88개 13cm	91개 14 cm
		밀	7개	3	2

날짜	사진	켓그 라스 종류	염기성	중성	산성
8일차		켓냘	싹 9개	싹 1개	변화없음
		귀리	싹 110개 18.5cm	88개 18cm	91개 18cm
		밀	10개	3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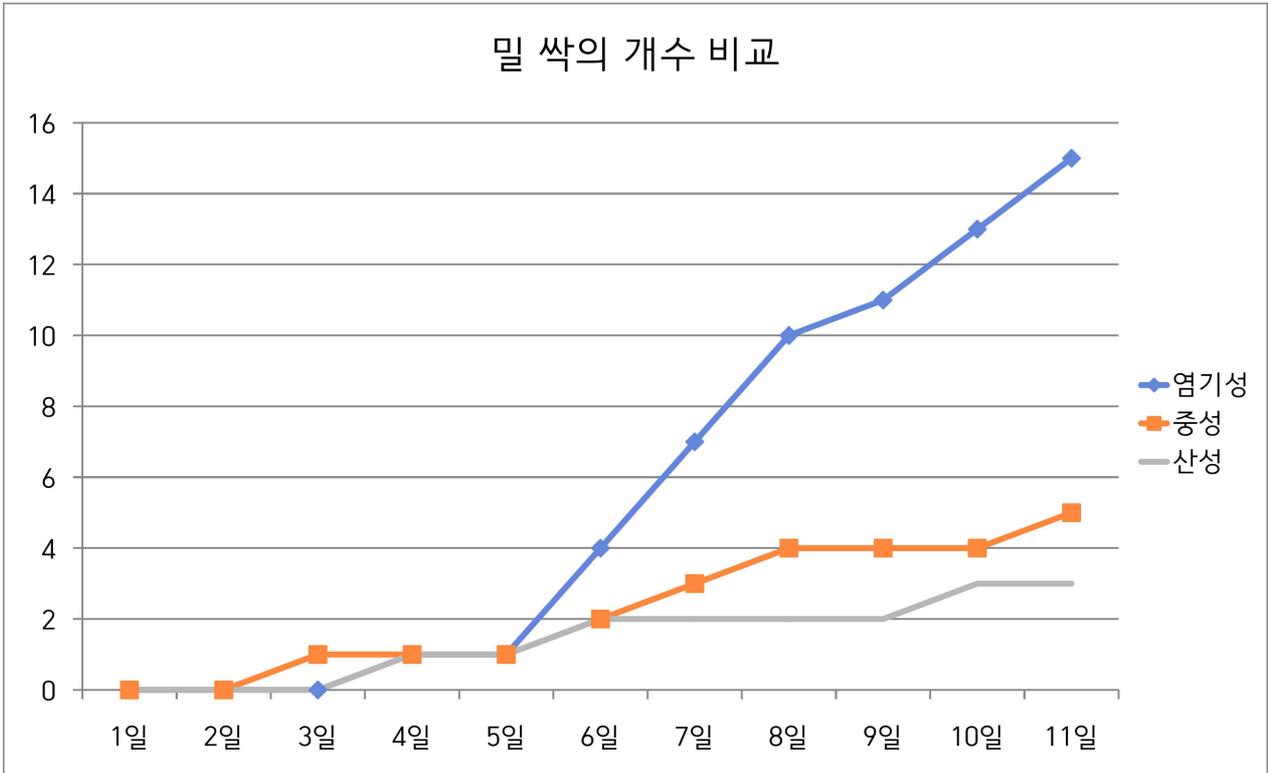
날짜	사진	켓그 라스 종류	염기성	중성	산성
9일차		켓냘	싹 11개	싹 1개	변화없음
		귀리	싹 110개 22.5cm	88개 22cm	91개 22cm
		밀	11개	4	2

날짜	사진	켓그 라스 종류	염기성	중성	산성
10일차		켓냘	싹 14개	싹2개	변화없음
		귀리	종료	종료	종료
		밀	13개	4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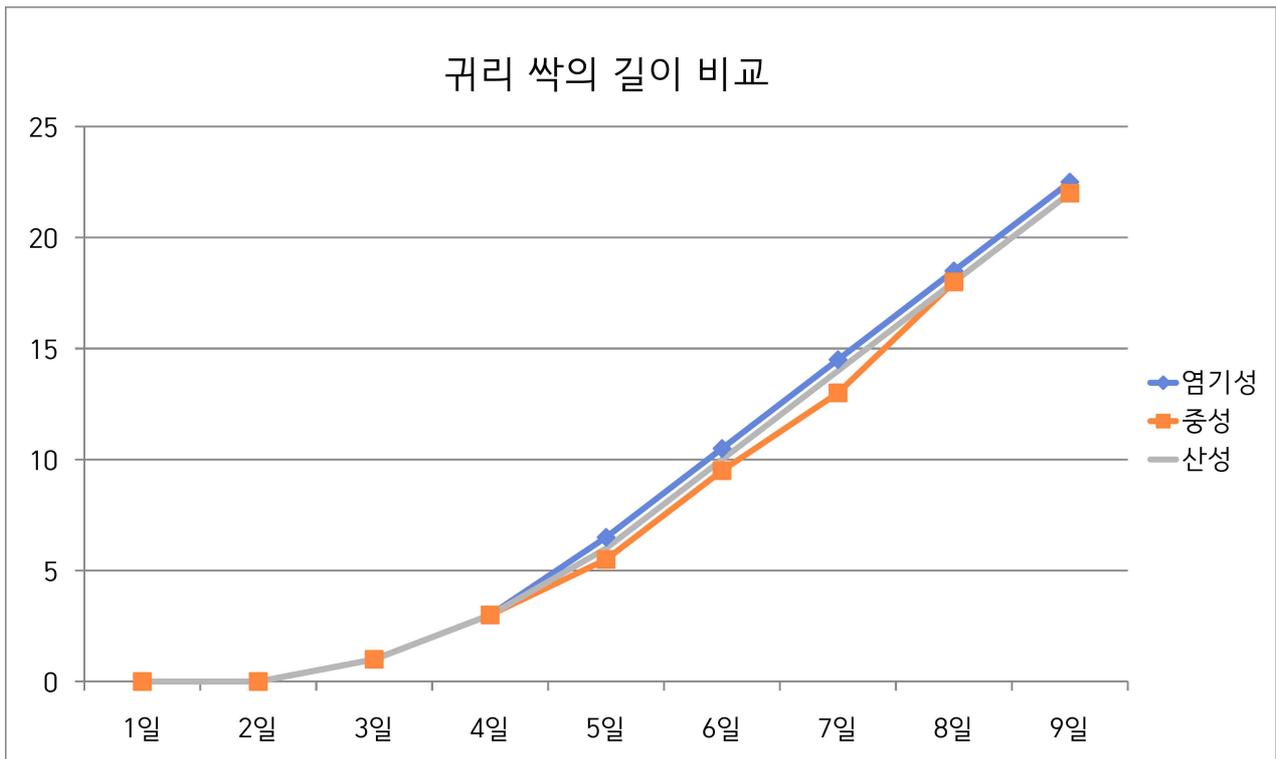
날짜	사진	켓그 라스 종류	염기성	중성	산성
11일차		켓냘	싹19개	싹3개	변화없음
		귀리	종료	종료	종료
		밀	15개	5	3

2. 탐구 결과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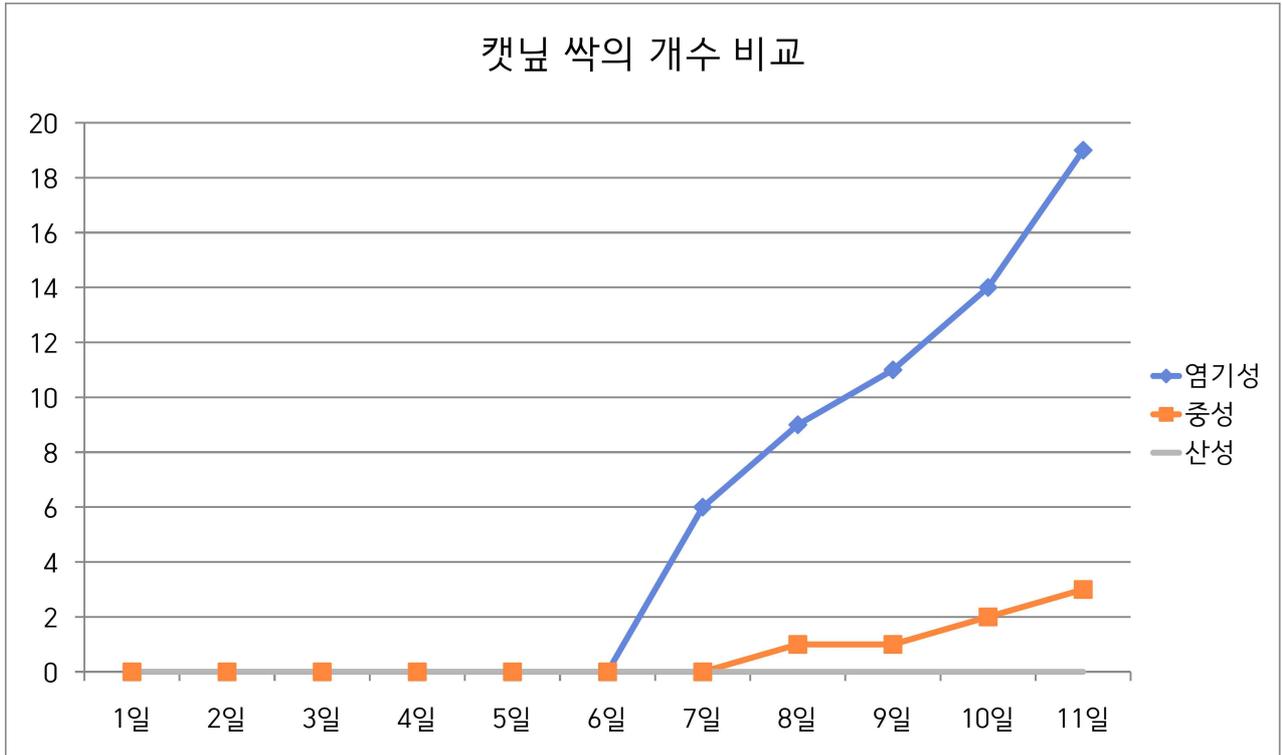
2.1. 밀 싹의 개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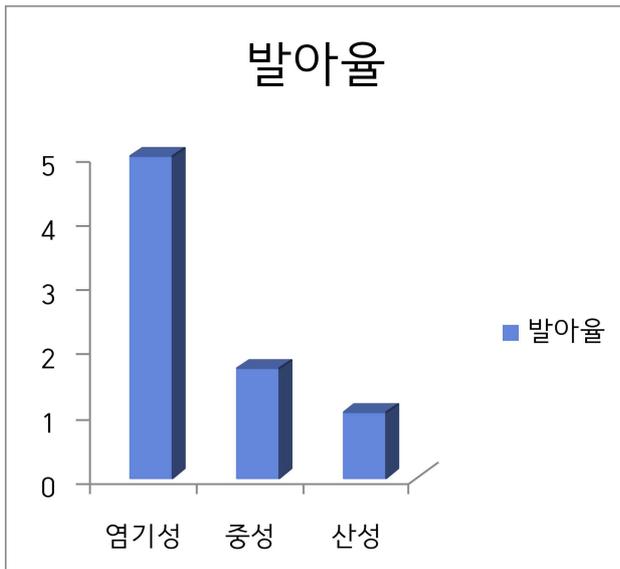
2.2. 귀리 싹의 길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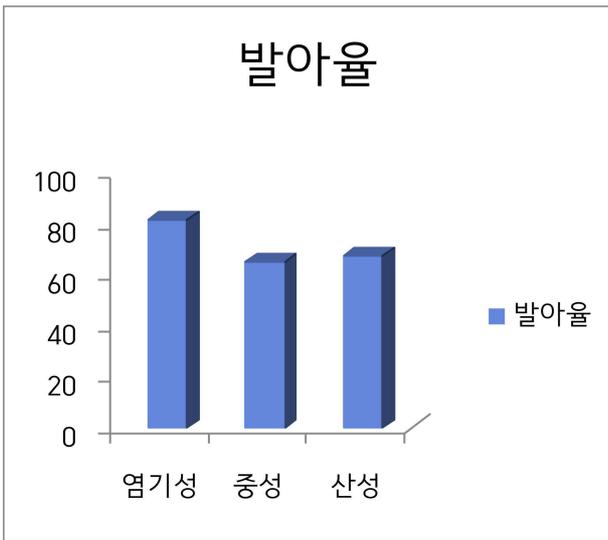
3. 캣닢 싹의 개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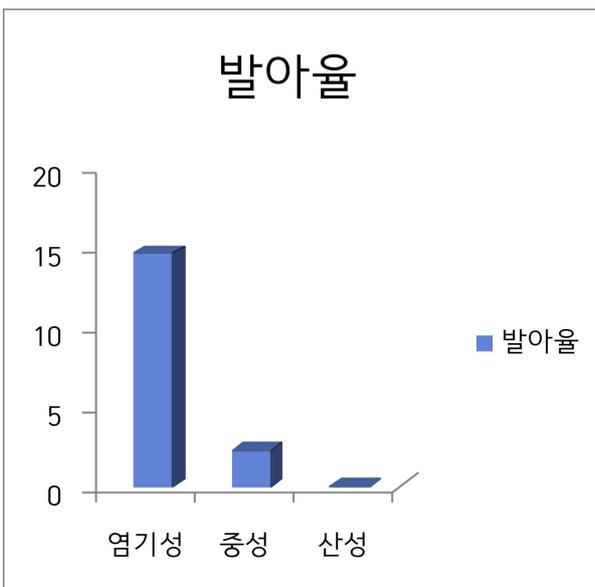
4. 밀 씨앗의 발아율



5 귀리 씨앗의 발아율



6. 캣닢 씨앗의 발아율



IV. 결론

본 실험 결과인 싹의 개수, 싹의 길이, 발아율 등의 지표를 비교하였을 때 밀 씨앗과 갯짚은 pH가 8.5인 물, 즉 약 염기성에서 갯그라스의 생장이 가장 잘 일어나는 것이 확인되었다. 가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수도물의 pH와 유사한 pH7의 생장이 다음으로 잘 일어나며 가장 생장이 느린 것은 pH5.5인 물, 즉 약산성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갯그라스를 키울 때 토양의 산성화가 매우 위험함을 알 수 있으며 흔히 사용되는 중성인 수도물에서 식물이 잘 자랄 것이라는 가설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물의 pH 조절을 통해 식물 성장 정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하지만 귀리 씨앗의 경우, 용액 간의 차이가 잘 나타나지 않았다. 모든 씨앗 중 귀리가 싹의 개수와 길이 발아율이 가장 높은 값으로 나타났다. 씨앗의 특성에서 차이가 나타났을 것이며 모든 조건을 똑같이 하기 위해 같은 장소에서 실험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각 씨앗에 따른 성장 최적 조건에 벗어나 있었을 것이므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났을 것이다. 또한 계절마다 온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실험에 많은 변수가 작용하여 오류가 발생하였으므로 추측된다. 계절 별 성장 변화를 다시 실험해본다면 조금 더 정확한 실험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실험과 유사하게 실용토양학(2015)에서는 pH에 따른 작물의 생장을 “산성토양에 대한 작물의 적응성”이라고 표현하고, 극히 강한 것으로 벼, 구리, 토란, 땅콩, 감자, 수박 등을, 가장 약한 것으로 알팔파, 자운영, 팥, 시금치, 부추, 양파 등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까지도 블루베리는 pH4.5가 가장 알맞고, 벼는 5.5, 상치, 시금치는 6.2 정도로 대부분의 식물들은 약산성~중성에서 가장 잘 자란다고 알려져있다. 반면 갯그라스는 산성에 약해 염기성에 잘 자라므로 보통의 식물들과는 차이가 있는 실험결과임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알아보았듯 실험결과를 더 넓게 적용해 다양한 식물 재배에서 이를 더 연구한다면 식물 재배에 가장 적합한 물과 토양의 pH를 활용하는 농업산업에 유익한 정보가 되리라 기대한다.

참고 문헌

존 맥머리 외 2명(2020), 핵심일반화학, 서울: 자유아카데미

신승숙 외 3명(2010), 염화칼슘과 친환경 제설제가 식물의 생장에 미치는 영향, 대한환경공학회지 32권 5호, 487-498쪽.

조영일 외 2명(2016), 반응성 질소화합물로 인한 토양 및 물 환경 생태계의 산성화 영향 및 대응방안, 생태와 환경 49권 1호, 1-10쪽.

김이열 외 3명(2015). 실용토양학, 서울: 더 북(The Book)

참고 사이트

다시 쓰는 고양이 사전. 고양이 헤어볼, 동그람이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743171&cid=59598&categoryId=59598>> 2022.11.1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의 패션: 패션소비자와 패션브랜드 중심으로

의류학과 김민*

목차	
1. 서론	
2. 패션소비자 관점	
2.1. 소비배경	
2.2. 소비품목	
2.3. 소비양상	
3. 패션브랜드 관점	
3.1. 정보공급	
3.2. 판매채널	
3.3. 생산양상	
4. 결론	
참고 문헌	

1. 서론

패션시스템의 정의는 일정 기간 내에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선택한 취미, 기호, 사고방식 및 행동방식이 전염되는 사회적 동조현상이다.¹⁾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실내 활동의 증가와 외부 활동의 감소, 다중이용시설의 이용과 다수의 모임 제한으로 인해 불필요한 패션 아이템에 대한 소비가 급격하게 위축되었다. 팬데믹 상황으로 패션 제품에 대한 수요가 낮아짐과 동시에 국가 간 이동 제한으로 물류 네트워크가 손상되면서 이는 곧 패션 업계에 큰 타격으로 이어졌다.²⁾ 패션은 당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선택한 사고방식 및 생활양식에 의해 크게 좌우되므로, 이와 같은 일상의 격변은 패션 시장의 패러다임의 총체적인 변화로 이어지게 된다.³⁾

팬데믹이 패션분야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패션소비자 혹은 패션브랜드, 한 측면에서만 서술된 연구가 주를 이루며, 패션브랜드와 패션소비자 양측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패션시스템의 필수조건은 패션을 만드는 것에 공헌하는 사견, 의복의 변화를 소개하고 제안하는 사람, 변화를 채택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패션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잡하게 서로 맞물려 있는 각 주체를 파악하고 이들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⁴⁾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해 패션소비자와 패션브랜드를 함께 연구 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의 목표는 팬데믹이라는 외부상황이 패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패션브랜드, 소비자 각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를 통해 패션브랜드와 소비자의 상호작용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질

1) 김성은·하지수, 현대 패션 트렌드 시스템의 변화 양상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의류학회지 42권4호, 한국의류학회, 2018, 709쪽.
 2) 최영현·이규혜, 팬데믹 상황에서의 패션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변화 분석 -코로나19 확산의 영향-, 복식문화연구 28권3호, 복식문화학회, 2020, 286쪽.
 3) 김성은·하지수, 앞의글, 710쪽.
 4) 위의 글, 709쪽.

문에 답하고자 한다. 첫째, 팬데믹 상황에서 소비자의 구매결정요인과 정보수용경로, 소비채널 등 소비배경은 어떠한 양상을 보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브랜드의 정보공급방식 중 패션쇼는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둘째, 팬데믹 상황에서 새롭게 나타난 패션품목 트렌드는 무엇이고, 브랜드의 판매채널은 어떠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가? 셋째, 팬데믹으로 인해 변화한 인식이 어떠한 소비 양상으로 나타나고, 이를 반영한 패션브랜드의 생산 방식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이다. 연구방법은 패션 영역에서 팬데믹 관련 논문과 학회지 및 구글과 유튜브, 각 브랜드 홈페이지 등을 조사하였다. 연구방법에서 설문조사, 데이터분석 같은 심도 있는 방식이 아닌, 자료조사가 주를 이룬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갖는다. 또한 소비자와 브랜드를 동일한 소주제로 비교하여 보다 유기적으로 관계를 파악하고자 했으나, 소비자와 브랜드의 소주제를 통일 했을 시,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 유사한 범주 내에서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나는 부분을 소주제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소비자와 브랜드 사이 상호작용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갖는다. 향후, 구체적 분석을 통해 소비자와 브랜드 변화양상과 상호작용을 조사한다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의 결과가 패션분야에 있어 소비자와 생산자인 브랜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패션소비자 관점

2.1. 소비배경

<표 1> 패션소비행동요인의 빈도분석⁵⁾

설문항목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코로나19 이후에는 가격 품질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구매하였다.	2(0.6)	4(1.1)	7(20.7)	273(76.3)	5(1.4)
코로나19 이후에는 아무리 사소한 물건을 사더라도 가격에 신경 쓰고 구매하였다.	1(0.3)	66(18.4)	15(4.2)	145(40.5)	131(36.6)
코로나19 이후에는 옷은 주로 세일기간을 이용해서 구매하였다.	1(0.3)	25(7.0)	54(15.1)	158(44.1)	120(33.5)
코로나19 이후에는 한번 구입경험이 있는 상표를 계속 구입하였다.	14(3.9)	52(14.5)	52(14.5)	164(45.8)	76(21.2)
코로나19 이후에는 유명상표의 옷을 입고 싶은 욕구가 증가하였다.	25(7.0)	70(19.6)	53(14.8)	113(31.6)	97(27.1)
코로나19 이후에는 해외 유명브랜드 제품은 가격이 비싸도 구입하고 싶은 마음이 증가하였다.	23(6.4)	71(19.8)	31(8.7)	150(41.9)	83(23.2)

팬데믹 상황에서 소비자의 구매결정요인과 정보수용경로, 소비채널 등 소비배경이 변화하였다. 코로나 19 이후 소비자는 패션 제품 구매 시 상징성과 실용성을 고려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코로나19 이후 소비자는 구매 시 합리적 가격과 브랜드 상징성을 우선시하고, 온라인으로 구매채널이 전환되면서 인터넷상의 정보를 비교하여 실속 있는 구매를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패션소비자의 특성을 알아본 선행연구에 따르면, 결과는 <표1>과 같다. “‘코로나19 이후에는 가격 품질 등을 고려

5) 조혜연·안은재,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의 사회적 변화요인에 따른 패션 소비자 행동 분석,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7 권4호,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021, 524쪽.

하여 신중하게 구매 하였다.’는 긍정의 응답인 ‘그렇다’ 273명(76.30%), ‘매우 그렇다’ 5명(1.4%)로 높게 나타났고, ‘코로나19 이후에는 아무리 사소한 물건을 사더라도 가격에 신경 쓰고 구매하였다.’는 긍정의 응답인 ‘그렇다’ 145명 (40.5%), ‘매우 그렇다’ 131명(36.6%)로 높게 나타났으며, ‘코로나19 이후에는 옷은 주로 세일기간을 이용해서 구매하였다.’는 긍정의 응답인 ‘그렇다’ 158명(44.1%), ‘매우 그렇다’ 120명(33.5%)로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에는 한번 구입경험이 있는 상표를 계속 구입 하였다.’는 긍정의 응답인 ‘그렇다’가 164(45.8%), ‘매우 그렇다’가 76(21.2%)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 이후에는 유명상표의 옷을 입고 싶은 욕구가 증가하였다.’는 긍정의 응답인 ‘그렇다’가 113(31.6%), ‘매우 그렇다’가 97(27.1%)로 나타났고, ‘코로나19 이후에는 해외 유명브랜드 제품은 가격이 비싸도 구입하고 싶은 마음이 증가하였다.’는 긍정의 응답인 ‘그렇다’가 150(41.9%), ‘매우 그렇다’가 83(23.2%)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코로나 19 이후 패션소비자동은 품질과 합리적 가격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꼭 필요로 하는 상품을 우선으로 소비하는 성향이 증가하고, 사회구성원이 인지하는 브랜드를 선택하는 소비행동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⁶⁾ 패션상품의 구매 정보 획득 채널은 과거의 구매경험과 인터넷 검색을 우선시하였으며, 구매채널은 온라인 및 모바일채널을 주로 이용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는 이유로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오프라인 채널 이용을 제한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⁷⁾ 이외에도 상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온라인에 있고, 구매 및 취소와 반품 등이 편리하고 가격이 저렴한 것 등이 쇼핑 채널의 온라인 전환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플랫폼의 신규 유입 고객수와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횟수가 크게 증가하여, 무신사, 에이블리와 지그재그의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수가 전년 대비 23%, 18%, 15% 가량 상승하였다.⁸⁾ 이는 이미 검증된 패션상품과 인터넷상의 상품정보 및 구매자 리뷰를 비교하여 실속 있는 구매를 지향하는 실용적 구매경향이 증가한 것으로 사료 할 수 있다.

2.2. 소비품목

소비자의 패션 품목에도 변화가 나타났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활동보다는 집이나 근처 마트, 공원 등 집 가까운 곳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면서 편안하면서도 가벼운 형태의 의복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⁹⁾ 코로나19로 인한 패션 경향은 재택근무 관련의복, 건강관련의복, 다목적기능의 의복으로 분류할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재택근무가 늘면서 재택근무를 위한 패션이 주목을 모았는데, 그 특징을 간추리면 먼저 상하의를 따로 입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는 상의는 셔츠나 재킷을 입고 하의는 잠옷과 같은 옷을 입는, 상하의가 분리된 의복 유형을 가리킨다. 온라인 강의와 재택근무가 일반화되면서 컴퓨터 모니터에 드러나는 상의의 수요가 크게 증가했는데, 실제로 한국의 한 여성 패션 쇼핑몰에서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의 검색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하의보다는 상의와 관련된 검색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¹⁰⁾ 코로나19 사태 이후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집에서 홀로 운동하는 홈트족이 증가하였다. 집에서 홀로 운동하는 홈트족들이 늘면서, 특히 애슬레저룩 시장이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였다.¹¹⁾ ‘애슬레저룩’이란 운동 기능성과 패션 감각이 가미된 캐주얼한 일상복 스타일로, 활용도 높은 아이템들로 구성되어 일상복과 운동복을 같이 매치해 입을 수 있는 실용성이 높은 스타일을 가리킨다.¹²⁾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은 국내 애슬레저 시장 규모가 2016년(1조5000억원)에서 2020년 3조원으로 2배가량 성장하였다고 발표했

6) 위의 글, 524쪽.

7) 정주은, 언택트(Untact) 문화의 확산에 따른 현대 패션의 변화,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22권2호, 한국패션디자인학회, 2022, 42쪽.

8) 조혜연·안은재, 앞의 글, 517쪽.

9) 강은미,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패션 인식 변화-2019 년과 2020 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7권1호,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021, 17쪽.

10) 빈삼·염혜정,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코로나19 시대의 “홈(home)” 트렌드와 패션, 복식 72권5호, 한국복식학회, 2022, 104쪽.

11) 안은재, 코로나 19, 팬데믹 현상에 따른 애슬레저패션 경향 및 소비자 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8권1호,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22, 241쪽.

12) 위의 글, 242쪽.

다.¹³⁾ 즉, 집과 일터, 집안일과 여가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생활패턴이 뒤섞이면서 집과 집 주변, 일과 여가, 휴식과 운동을 동일 공간에서 수행 가능한 코로나19 시대의 패션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 영향으로 다목적기능의 의복이 나타났다. “블라우스, 셔츠, 원피스와 같이 실용성이 높고 다양한 스타일을 쉽게 연출할 수 있는 아이템을 애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2020년 한 조사 결과에서 블라우스와 셔츠의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58% 크게 증가했으며, 집안과 밖에서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는 원피스의 2020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14% 증가한 것”이 그 예이다.¹⁴⁾ 2020년 3월을 기준으로 남녀 패션 카테고리 판매량을 파악한 결과, 여성은 레깅스, 트레이닝 팬츠, 카디건, 루즈핏 티셔츠의 판매가 증가하였고, 남성은 트레이닝복 세트, 캐주얼팬츠, 반팔티셔츠 등의 품목의 판매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¹⁵⁾ 일상복에서도 잘 차려입은 포멀룩보다 신경 쓰지 않은 듯 스타일리시한 패션이 각광 받고 있다. 하이힐 대신 스니커즈와 운동화를 신고, 불편한 셋업 수트보다는 원피스나 캐주얼 룩에 재킷을 매치하는 스타일링이 인기를 끌었다. 이처럼 코로나19 발생 이후, 애슬레저룩, 홈웨어, 일상복, 외출복 등은 소비자 인식에서 활용 범위가 확장되어 나타났다.

2.3. 소비양상

중고거래 시장의 성장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사회 경제 축소와 더불어 ‘집콕’이 불러온 집안 정리 붐 등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전반의 변화는 중고 시장의 확대를 촉진시켰다. 국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3월 기준 중고거래 앱 월간 순 이용자수는 전년 동기 대비 65.7% 급증했다.¹⁶⁾ 이전까지 패션 트렌드는 최신 유행을 반영한 상품을 저가에 구매해서 단기로 소비하는 패스트 패션이었다. 패션은 생산부터 유통, 소비, 폐기되는 과정에서 막대한 환경오염 발생시킨다. MZ세대는 팬데믹 이후 이런 소비방식에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미국 리서치 기관 글로벌데이터와 의류 재판매 플랫폼 스투드업이 조사한 ‘2021 재판매 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3명 중 1명은 지속가능한 의류를 구매하고 입는 것을 팬데믹 이전보다 신경 쓰게 됐다고 답했다.¹⁷⁾ 전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 개인은 자신의 행동이 결국 자신과 타인, 나아가 사회와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는 친환경적 소비행위로 이어진다.¹⁸⁾ 코로나 이전의 소비자 행동은 기업의 생산과 제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긍정 혹은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의 수동적 태도에 그쳤다면, 최근에는 과거 소비 행동을 돌아보고 직접 지속가능한 가치를 행동으로 옮기는, 보다 능동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속가능한 패션소비를 실천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로 중고 의류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중고제품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다른 사람이 착용하던 비위생적인 것, 유행에 뒤쳐진 것 등 부정적인 인식이 오래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패스트 패션 시장에 대한 반발, 환경에 대한 관심증가 등으로 인해 점점 지속가능한 가치추구에 대한 니즈가 높아짐에 따라 중고 거래에 대한 인식도 차츰 변해 왔다. 팬데믹 이후 중고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갖는 가치가 사회 공헌, 환경보호 등의 친사회적인 가치로 옮겨지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기존 중고거래는 3040 남성들이 IT기기를 중심으로 주도했다면, 최근 중고거래는 MZ세대, 그 중에서도 Z세대가 이끌고 있다.”¹⁹⁾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중고 의류(빈티지 의류)는 윤리적인 것을 넘어 최신의 유행, 개성의 표현으로까지 여겨지게 됐다. MZ세대는 독립적이고, 환경을 중시하며, 돈을 절

13) 위의 글, 241쪽.

14) 빈삼·염혜정, 앞의 글, 105쪽.

15) 최영현·이규혜, 앞의 글, 287쪽.

16) 김하빈·이하경,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중고 패션 소비 인식 변화, 한국의류산업학회지 24권1호, 한국의류산업학회, 2022, 66쪽.

17) 고래, 패션 플랫폼 스투드업, “MZ세대가 지구와 지갑을 동시에 잡는 비결? 우리가 알려줄게!”, 그리니엄 뉴스레터, 2022.06.08., <<https://greenium.kr>>

18) 김하빈·이하경, 앞의 글, 68쪽.

19) 이소진, 중고거래 트렌드 이끄는 MZ세대, 여성경제신문, 2021.10.04., <<https://www.woman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468>>

약하는 동시에 별로 싫어한다. MZ세대에게 중고거래는 매력적인 선택지다. MZ세대는 값비싼 새 옷을 사기보다 비슷한 가격의 이름 있는 브랜드의 중고 아이템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을 선택하기 시작했다.²⁰⁾ 리셀을 통해 수익도 낼 수 있다. 한정판 스니커즈를 비싼 값에 되파는 ‘슈테크’에서, 최근에는 ‘샤테크(샤넬+재테크)’ ‘롤테크(롤렉스+제테크)’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다. 또한 코로나 이전에는 중고 명품을 정상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함으로써 경제적 가치를 인식했다면, 코로나로 인해 명품의 사용빈도 감소로 그 효용 가치 지각이 줄어 중고시장에 판매자로 참여함으로써 제품의 경제적 효용을 새롭게 인식하고 있었다. 판매자로서의 경험은 그 빈도와 종류에 따라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3. 패션브랜드 관점

3.1. 정보공급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전 세계 패션위크는 연기나 취소되었고, 기존에 행해지던 오프라인 방식으로 패션쇼를 전개할 수 없게 되었다.²¹⁾ 이에 대응하기 위해 패션브랜드에서는 전통적 방식인 오프라인 패션쇼 대신 새로운 방식의 패션쇼를 적극적으로 채택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브랜드들은 패션 필름을 제작하거나 온라인 패션쇼를 선보였으며, 또 다른 일부 브랜드들은 게임이라는 장르를 활용하는 컬렉션을 공개하였다. 팬데믹 시대의 패션쇼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관람객들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였다. 패션 필름으로 제작된 패션쇼의 경우, 대부분이 브랜드들의 공식 홈페이지나 유튜브, 인스타그램, 트위터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공개되었다. 예를 들어, 로에베의 컬렉션 발표는 공식 인스타그램과 홈페이지를 통해 24시간 동안 라이브로 공개됐다.²²⁾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라이브 스트리밍을 활용해 패션쇼를 공개하는 경우, 시청자들은 실시간으로 패션쇼에 대한 소감과 의견을 공유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개 방식은 패션쇼가 브랜드들의 일방적인 컬렉션 소개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대중들도 쇼에 참여가 가능하다는 여지를 주었으며, 이는 소극적 수준이긴 하지만 관람객들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였다.” 패션 필름보다 관객들의 참여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 영역은 패션 게이미피케이션이다. “패션 게이미피케이션은 패션 산업과 게임 산업의 콜라보레이션 사례로, 패션 분야에 게임의 기법과 원리가 적용된 것을 의미한다. 패션 게이미피케이션은 게임 플레이어들이 게임을 즐기며 자연스럽게 패션 브랜드의 콘텐츠에 몰입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브랜드의 정보에 노출이 되도록 한다.”²³⁾ 특히, 게임 플레이어의 아바타가 있는 게임 개발사들과 협업한 경우, 인간 형태의 아바타가 패션 브랜드의 제품을 착용하고, 패션 프레젠테이션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면서 게임은 패션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는 패션쇼의 과정에서 관객들과 모델들의 역할에 변화를 주면서 관객들이 적극적으로 패션쇼에 개입하도록 만들어 준다. 이처럼 플레이어들, 즉 관객은 쇼의 일부가 되는 기회를 통해 유희적인 경험을 얻게 된다. 코로나19로 인해 등장하게 된 패션 게이미피케이션과 전통적인 패션쇼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을 든다면, 관객들은 플레이어들이 되어 패션쇼에 참여하고, 패션쇼를 만들어 가면서 쇼와 게임을 진행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발렌시아가는 2021 F/W의 컬렉션의 공개를 위해 게임 개발사인 스트림라인 미디어 그룹과 협업하여 게임 After World: The Age of Tomorrow를 제작하였다. 이 게임은 2031년을 배경으로 하는데, 게임 플레이어는 총 다섯 개의 구역을 화살표를 따라 이동하며 발렌시아가의 의상을 입고 있는 50명의 모델들과 마주치게 되고, 플레이어는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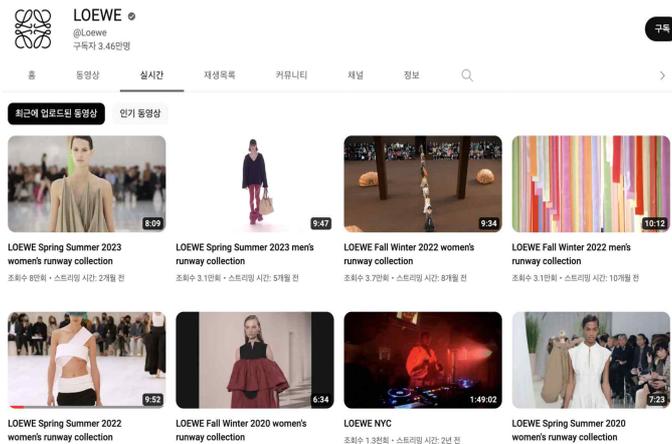
20) 이소진, 앞의 글

21) 심은희·김진영, 글로벌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언택트 패션 커뮤니케이션 연구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를 중심으로-,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21권1호, 한국패션디자인학회, 2021, 145쪽.

22) 김선영, 팬데믹 상황에 나타난 패션쇼 대체 유형과 시사점, 한국생활과학회지 30권3호, 한국생활과학회, 2021, 489쪽.

23) 강수정·전재훈, 팬데믹 시대의 패션쇼의 디지털화 -패션 필름과 패션 게이미피케이션을 중심으로-, 한국의류산업학회지 24권1호, 한국의류산업학회, 2022, 35쪽.

모델 들을 360도 각도에서 둘러볼 수가 있다.²⁴⁾ 팬데믹 상황은 기존 패션위크의 일정과 횟수, 운영방식에 대한 제고와 효율성에 대한 담론의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패션쇼 전개 방식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대중과 소통할 수 있고 더 풍부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림1> 로에베 유튜브 실시간 패션쇼 영상 목록²⁵⁾



<그림2> 발렌시아가 After World: The Age of Tomorrow²⁶⁾

3.2. 판매채널

팬데믹으로 인해 브랜드의 판매채널이 확대되었다. 코로나 이전의 소비자들은 온라인의 영역이 존재했지만, 여전히 오프라인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평가를 내리고 구매했었다. 왜냐하면, 럭셔리 패션브랜드는 고가의 제품의 구매 시 제공되는 다양한 마케팅 서비스를 고수하였으며 소비자 또한 고가의 제품을 눈으로 직접 보고 구매하는 것을 선호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 자연스럽게 소비자는 온라인 구매를 선호하게 되었고, 경험적인 대면 서비스만을 고집하던 럭셔리 패션브랜드에서도 디지털 전환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패션 브랜드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비대면 구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프라다와 에르메스, 펜디는 공식 온라인스토어를 활성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루이비통과 Gucci는 중국의 ‘라이브 방송’에 등장했다. 이것은 왕홍(중국 인플루언서)을 통해 신상품을 홍보하고 SNS채널을 통해서도 판매가 이루어

24) 위의 글, 35쪽.

25) 로에베, 로에베 유튜브 실시간 패션쇼 영상 목록, 로에베 공식 유튜브, <<https://www.youtube.com/@Loewe/streams>>

26) 발렌시아가, 발렌시아가 2021 F/W, 발렌시아가 공식홈페이지, <<https://videogame.balenciaga.com/ko/>>

어졌다.²⁷⁾ 코로나19 이후 패션 산업에서 온라인 서비스가 대두되었고, 최근에는 온라인 채널을 강화하기 위해 IT 관련 서비스의 중요도가 매우 커지고 있다. 기업들 또한 증가하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IT에 많은 투자를 할당하고 있다. 패션산업은 IT기술을 접목하여 실제경험과 유사한 가상경험을 제공하고 있는데, 가상제품, 온라인쇼룸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루이비통은 NBA와 콜라보레이션하여 Madison Square Garden을 360도로 재연한 가상 놀이터를 공개했고 이는 브랜드숍으로 이동하여 구매 가능하다.²⁸⁾ 디올은 상젤리제의 매장에서 직접 쇼핑하는 느낌을 주는 버추얼스토어를 오픈했다.²⁹⁾ 또한, 디올은 증강현실의 애니메이션 필터를 개발해 스냅챗에서 사용할 수 있는 B27 스니커즈의 6가지 변형 모델을 가상피팅 할 수 있다.³⁰⁾ 샤넬은 아이웨어와 뷰티 제품을 온라인 쇼핑 시 AR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가상으로 테스트해 볼 수 있게 하였다.³¹⁾ 이러한 리테일링 테크놀로지들은 소비자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케팅적 의의 이외에도 소비자의 구매 만족을 높이고 반품 및 교환율을 낮추어 기업의 재무에 직,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품과 교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제품의 일시적 품질 현상으로 인한 단기 매출 손실, 제품의 재입고와 재출고시 발생하는 물류비 및 인건비의 부담 등을 개선하여 기업의 효율을 높이고 이윤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³²⁾ AR과 VR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는 브랜드에 접근성을 높이고 인지도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온라인판매채널을 도입 및 강화하는 것은 단순히 기업이 수익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볼 수도 있으나 나아가 고객과 소통하고 소비자에게는 코로나 이전과 유사한 제한 없는 소비행위를 제공한다. 앞으로는 가상제품, 온라인쇼룸의 일부로 개인화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주축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림3> 루이비통 Madison Square Garden³³⁾

27) 홍성연·남미우, 팬데믹 시대의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지속가능경영 연구,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39권3호, 한국전시산업융합연구원, 2021, 529쪽.

28) 위의 글, 530쪽.

29) 위의 글, 530쪽.

30) 위의 글, 529쪽.

31) 심은희·김진영, 앞의 글, 148쪽.

32) 김지은, 온라인 패션 리테일링의 데이터 융합을 이용한 사이즈 추천 테크놀로지 서비스 품질이 지각된 가치를 매개로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39권2호, 한국전시산업융합연구원, 2021, 98쪽

33) 루이비통, LV X NBA 컬렉션, 루이비통 공식 홈페이지,

<<https://kr.louisvuitton.com/kor-kr/magazine/articles/mens-lvxnba-2020#>>



<그림4> 디올 스냅챗 가상피팅³⁴⁾

3.3. 생산양상

팬데믹 이후 브랜드의 친환경적 생산양상이 두드러졌다. 앞서 소비자의 중고거래 증가에서 살펴보았듯이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은 환경에 대한 의식을 고양시키고, 이는 소비자로 하여금 친환경적 소비를 불러일으킨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소비자의 54.3%가 “10% 이내 추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친환경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³⁵⁾ 이제 패션브랜드들은 제품뿐 아니라 제조 공정과 포장에서도 환경에 친화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즉, 소비자가 점점 더 환경 및 사회적 의식을 갖게 됨에 따라 패션기업이 책임감 있는 의류를 생산하는 것이 필수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패션브랜드에서도 이를 의식하고 친환경 소재와 포장 등을 도입하고 있다. 프라다는 친환경 기능성 소재와 재생 나일론을 이용한 컬렉션을 발표하였다. 또한, 지난 3년에 걸쳐 개발된 친환경 기능성 소재를 사용한 스포츠웨어 라인을 공개했다. 이 소재는 생산과정에서 방수 공정과 관련된 기타 유해 화학물의 사용을 피하고 재활용 폴리에스터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친환경 나일론 소재의 기성복 컬렉션을 공개했는데, 여기서 사용된 버려진 어망과 섬유 폐기물로 생산된 나일론은 70,000배럴의 오일을 절약 할 수 있다. 이 재생나일론은 실크 베틀에 직조되어 고급스러운 개버단이 되거나 피우마라고 불리는 가벼운 원단으로 제공되며 2021년에는 사용하는 나일론의 100%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³⁶⁾ 통상적으로 화학성분으로 의류 및 신발을 제작할 경우 동물을 대상으로 임상 테스트를 거친다. 하지만, 최근에는 동물 테스트를 거치지 않는 제조 공정을 도입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고, 친환경 소재 사용의 증가는 이러한 시도를 가능하게 한다. 패션브랜드의 친환경적 시도는 포장과정에서도 발견 할 수 있다. 구찌는 쇼핑백의 종이에 녹색 잉크의 사용을 줄이고 코팅이 없어 재활용 할 수 있게 만들었으며 손잡이는 100% 재활용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검은색 끈을 사용했다. 더스트백과 의류 커버는 재생된 면과 재활용 폴리에스테르를 혼합하여 만들어졌고 옷걸이는 재활용 폴리스티렌으로 만들어졌다.³⁷⁾ 펜디는 가방의 안감과 포장을 최신 셀룰로오스 기반 섬유로 교체하여 1차 산림에 해를 끼치지 않는 지속가능한 소재를 사용했다. 펜디는 가방의 안감과 포장을 최신 셀룰로오스 기반 섬유로 교체하여 1차 산림에 해를 끼치지 않는 지속가능한 소재를 사용했다.³⁸⁾ 소비자들 역시 더욱 똑똑해지고 윤리적 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빠르게 소비하는 패스트 패션에서 이제는 어떤 재료와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었는가로 소비자들의 관심이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를 사로잡기 위해서라도 기업들은 친환경 소재와 제조공법, 포장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적 지속가능성은 꾸준히 제기 되고 있는 환경오염 문제에서 벗어나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의도로 사료된다.

34) 유지연, 옷보다 더 중요? 인증샷 끌어온다, 구찌·디올의 ‘피팅룸’ 전략, 중앙일보, 2021.06.15.,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82222#home>>

35) 손광표·황원경, 소비자가 본 ESG와 친환경 소비 행동, 서울:KB금융그룹, 2021, 2쪽.

36) 홍성연·남미우, 위의 글, 526쪽.

37) 위의 글, 526쪽.

38) 위의 글, 526쪽.

4. 결론

과거에서도 그랬듯 인류는 전쟁과 전염병을 이겨 낼 때마다 새로운 변화의 국면을 맞이하였다. 코로나 19의 확산은 패션 소비자의 소비방식을 변화시키고 패션업계의 패러다임에 큰 변동을 일으켰다. 본 보고서는 팬데믹 상황에서 소비자와 브랜드에 나타난 전반적인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소비자와 브랜드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패션소비자 측면에서는 소비배경, 소비양상, 구매품목에서 변화가 발견되었다. 다른 사람과 대면하거나 집단적으로 향유하는 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관련 산업의 매출이 급감했고, 이는 소비자와 가게의 소득감소로 이어졌다. 소득의 감소는 소비자의 인식 및 구매채널에 변화를 가져왔다. 코로나19 이후 소비자는 구매 시 합리적 가격과 브랜드 상징성을 우선시하고, 온라인으로 구매채널이 전환되면서 인터넷상의 정보를 비교하여 실속 있는 구매를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인식이 변화함과 더불어, 코로나19 이후 두드러지는 소비양상으로 중고거래가 증가하였다. 또한, 팬데믹 상황에 적응하면서 집과 관련된 특정 패션 품목의 수요가 증가함을 발견 할 수 있었다.

패션브랜드 측면에서는 패션쇼, 생산양산, 판매채널에서 변화가 발견되었다. 팬데믹으로 인해 대면으로 선보이던 다양한 패션 홍보 방식들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패션계에서도 언택트 방식을 활용한 패션 커뮤니케이션이 급부상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윤리적 가치 등 제품 이외의 사회 문화적 가치를 활용한 이미지 마케팅을 확대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주된 패션상품의 구매방법이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매출을 낼 수 있는 판매채널로써 온라인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패션 브랜드는 소비심리위축과 매출감소 등 위기의 상황에서 디지털매체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언택트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선보이고 있다.

본 보고서의 결과를 토대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서 패션소비자에게 나타날 변화를 전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언택트 소비의 일상화에 따라 패션 소비자의 소비패턴이 주말과 같은 특정 요일에 오프라인 매장으로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요일과 장소의 구분이 없는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둘째, 팬데믹 상황에서 친환경적 소비경향이 나타났고 이는 지속가능한 패션소비 방법 중 하나인 중고패션의 거래율 증가로 확인할 수 있다. 윤리적 가치에 대한 의식이 고양됨에 따라 친환경 소비 경향은 중고거래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속가능한 패션소비 방법으로 확대될 것이다. 예를 들면 미니멀리즘, 비동물학대, 비건패션 등이 있다.

앞서 살펴본 패션소비자의 변화 예측을 토대로 패션브랜드에게 다음과 같이 제언할 수 있다. 첫째, 언택트 소비가 특정 상황에 집중되지 않고 일상화됨에 따라 디지털을 활용한 온라인 채널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도 VR, AR 등 고도의 디지털 기술이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제약 없는 소비생활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미래에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 편리한 소비생활을 보장할 뿐 아니라, 나아가 쌍방향 교류, MZ세대가 추구하는 개인화와 감정적 경험 등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채널을 강화한다면 더욱 경쟁력 있는 브랜드로 거듭날 것이라고 사료된다. 둘째, 소비자의 집 관련 패션 품목의 수요 증가, 친환경 제품에 대한 선호가 두드러졌다. 이를 반영해 홈웨어, 에슬레저룩 등과 같이 패션 트렌드를 반영한 패션 품목에 지속가능한 섬유소재를 사용한다면 브랜드 매출 신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참고 문헌

- 강수정·전재훈, 팬데믹 시대의 패션쇼의 디지털화 -패션 필름과 패션 게이미피케이션을 중심으로-, 한국의류산업학회지 24권1호, 한국의류산업학회, 2022, 29-41쪽.
- 강은미,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패션 인식 변화-2019 년과 2020 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7권1호,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021, 15-27쪽.
- 고래, 패션 플랫폼 스투드업, “MZ세대가 지구와 지갑을 동시에 잡는 비결? 우리가 알려줄게!”,

- 그리니엄 뉴스레터, 2022.06.08., <<https://greenium.kr>>
- 김선영, 팬데믹 상황에 나타난 패션쇼 대체 유형과 시사점, 한국생활과학회지 30권3호, 한국생활과학회, 2021, 485-499쪽.
- 김성은·하지수, 현대 패션 트렌드 시스템의 변화 양상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의류학회지 42권4호, 한국의류학회, 2018, 708-725.
- 김지은, 온라인 패션 리테일링의 데이터 융합을 이용한 사이즈 추천 테크놀로지 서비스 품질이 지각된 가치를 매개로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39권2호, 한국전시산업융합연구원, 2021, 95-111쪽
- 김하빈·이하경,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중고 패션 소비 인식 변화, 한국의류산업학회지 24권1호, 한국의류산업학회, 2022, 66-80쪽.
- 루이비통, LV X NBA 컬렉션, 루이비통 공식 홈페이지, <<https://kr.louisvuitton.com/kor-kr/magazine/articles/mens-lvxnba-2020#>>
- 로에베, 로에베 유튜브 실시간 패션쇼 영상 목록, 로에베 공식 유튜브, <<https://www.youtube.com/@Loewe/streams>>
- 발렌시아가, 발렌시아가 2021 F/W, 발렌시아가 공식 홈페이지, <<https://videogame.balenciaga.com/ko/>>
- 빈삼·염혜정,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코로나19 시대의 “홈(home)” 트렌드와 패션, 복식 72권5호, 한국복식학회, 2022, 92-108쪽.
- 손광표·황원경, 소비자가 본 ESG와 친환경 소비 행동, 서울:KB금융그룹, 2021, 1-37쪽.
- 심은희·김진영, 글로벌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언택트 패션 커뮤니케이션 연구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를 중심으로-,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21권1호, 한국패션디자인학회, 2021, 143-156쪽.
- 안은재, 코로나 19, 팬데믹 현상에 따른 애슬레저패션 경향 및 소비자 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8권1호,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22, 239-249쪽.
- 유지연, 옷보다 더 중요? 인증샷 끌어온다, 구찌·디올의 ‘피팅룸’ 전략, 중앙일보, 2021.06.15.,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82222#home>>
- 이소진, 중고거래 트렌드 이끄는 MZ세대, 여성경제신문, 2021.10.04., <<https://www.woman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468>>
- 정주은, 언택트(Untact) 문화의 확산에 따른 현대 패션의 변화,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22권2호, 한국패션디자인학회, 2022, 35-49쪽.
- 조혜연·안은재,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의 사회적 변화요인에 따른 패션 소비자 행동 분석,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7권4호,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021, 515-528쪽.
- 최영현·이규혜, 원마일웨어와 홈웨어에 대한 소비자 인식 변화: 코로나19 발생의 영향, 패션비즈니스 25권2호,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 2021, 110-126쪽.
- 최영현·이규혜, 팬데믹 상황에서의 패션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변화 분석 - 코로나19 확산의 영향 -, 복식문화연구 28권3호, 복식문화학회, 2020, 285-298쪽.
- 홍성연·남미우, 팬데믹 시대의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지속가능경영 연구,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39권3호, 한국전시산업융합연구원, 2021, 519-537쪽.

한국인들의 아파트 선호 현상에 대한 분석

지능IOT융합전공 김우*

목차	
1.	서론
2.	한국인들의 아파트 선호 현황과 원인
2.1.	한국인들의 아파트 선호 현황
2.2.	한국인들의 아파트 선호 원인
2.2.1	뛰어난 생활 인프라
2.2.2	매매의 용이성
2.2.3	프리미엄 브랜드 가치
3.	한국인들의 아파트 선호 현상에 대한 문제점
3.1.	사회적 차별 및 위화감 조성
3.2.	획일화된 사회 야기
3.3.	이웃 간의 갈등과 사생활 침해
4.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
4.1.	아파트 차별금지에 관한 법 제정
4.2.	획일화된 아파트 구조와 개인의 삶 탈피
4.3.	부실공사 단속 강화 및 아파트 배치의 변화
5.	결론
참고 문헌	

1. 서론

우리나라의 어느 곳을 돌아다녀도 빼곡하게 자리 잡은 아파트 단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70년대 이래 대규모로 서민들에게 공급되었던 아파트는 땅이 작고 인구가 밀집된 우리나라에게 최적의 주거 형태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지하철과 버스의 접근성이 좋아 출퇴근이 간편하고, 쓰레기 배출을 손쉽게 하거나 단지 내 각종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아파트는 점차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많은 아파트들이 지금도 지어지고 있다. 그렇게 이렇게 무분별하게 지어지는 아파트, 과연 문제는 없는 것인가? 전 국민이 집집마다 오밀조밀 살며 층간소음으로 서로 불화와 갈등을 겪고 있고, 일부 고급 아파트 주민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남용하여 임대아파트 주민이나 택배 기사들을 깔보고 무시하며 갑질을 일삼는다. 또 신축아파트는 닭장 같은 모습에 보기만 해도 답답하고 어지러움을 유발하거나, 해마다 끊이지 않는 부실공사로 인하여 입주주민들은 삶의 질이 떨어지는 고충을 겪고 있다. 이렇듯 아파트라는 공간이 야기하는 사회적 문제나 현상들은 지금도 우리 생활에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하여 일어난다면 사람들의 주거 환경은 위기에 처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우리나라의 아파트 문화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문제의식을 깨닫고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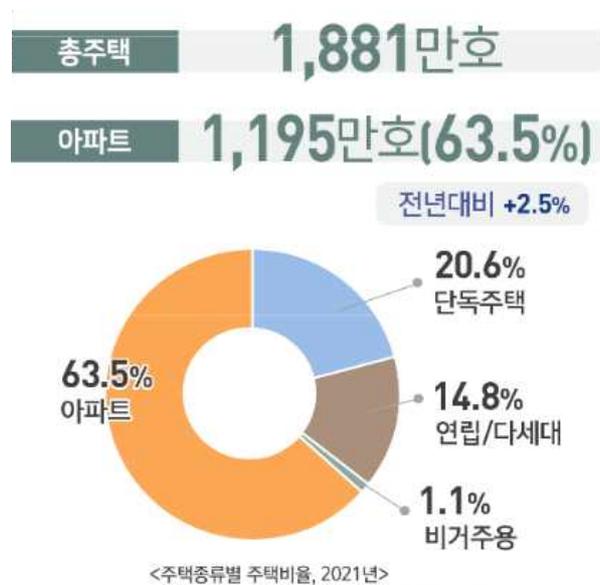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한국인들의 아파트 선호 현황에 대하여 그 원인을 파악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선호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점들을 정리한 후, 각각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고안하였다. 필요한 경우에는 사진 자료를 찾거나, 주어진 통계 데이터를 직접 엑셀로 분석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또한 마지막 파트에서는 여러 방면의 다각적인 접근을 통하여 대안을 모색하였다.

2. 한국인들의 아파트 선호 현황과 원인

2.1. 한국인들의 아파트 선호 현황

먼저 2021년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 수의 총합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을 알아보아 얼마나 많은 한국인들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지 알아본다. 다음 <그림 1>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1년 인구주택 총조사’ 중 ‘주택’ 부문만 추린 자료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총 주택 1,881만 호 대비 아파트는 1,195만 호로, 전체 주택의 무려 63.5%에 해당한다.¹⁾ 이는 과반이 훌쩍 넘는 수치로 한국에 매우 많은 아파트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더 많은 아파트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대규모 공급 확대로 점차 서울뿐만 아니라 광역시, 특별자치시와 같은 지방 도심에도 서서히 아파트가 밀집하게 된 것이 원인이다. 결국 아파트가 많아지게 된 현상도 사람들이 더 필요로 해서 벌어진 결과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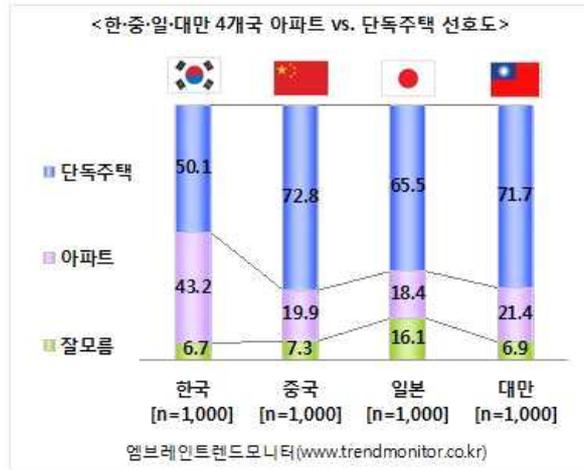


<그림 1> 2021년 주택종류별 주택비율²⁾

그 다음에는 한국과 외국 간의 아파트 선호도를 비교해본다. <그림 2>은 2011년 트렌드모니터가 발표한 한·중·일·대만 4개국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각 1,000명씩 총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거 형태 관련 설문조사 자료이다. 다음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의 아파트 선호 비율이 43.2%로 중국과 일본, 대만 국민들의 수치를 훨씬 웃도는 수치이다. 그에 비해 단독주택 선호도는 50.1%로 타국에 비해서 덜 선호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와 인접해 있는 주변 나라들과 비교해 봤을 때 다른 나라들은 전반적으로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은 것과는 달리, 한국은 유독 아파트를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원하게 되었을까?

1) 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등록센서스 방식>, 통계청, 2022, 2쪽.

2) 위의 자료, 1쪽



<그림 2> 한·중·일·대만 4개국의 아파트, 단독주택 선호도³⁾

2.2. 한국인들의 아파트 선호 원인

2.2.1 뛰어난 생활 인프라

새로운 아파트 단지나 오피스텔의 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광고에 무엇을 어필하는가? 아파트를 사려고 할 때, 가장 우선시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 그것은 분명 ‘역세권, 직주근접, 교육/문화/복지 시설, 학군’ 등 아파트 주변의 생활 인프라일 것이다. 아파트는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지하철역이나 상가, 쇼핑몰, 대형 마트, 공원 등 대규모 시설이 인접해 있다. (또는 대단지 아파트와 함께 역이나 아울렛 등이 새롭게 들어서는 경우도 많다.) 그러므로 당연히 대도시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나, 아이를 유치원이나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고, 그 외의 경우라도 여가 및 편의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선호한다. 이러한 현상은 서울 도심을 벗어난 경기도 외곽지역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보통 경기도는 신도시를 짓는 경우가 많은데, 경기도는 서울에 비해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상가나 가게가 밀집되지 않아서 이동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신도시는 대체로 지하철역에 근접하게 위치해 있으며, ‘역세권’, ‘도보 5분’ 등 지하철역까지 빠르게 갈 수 있다는 것을 내세운다. 뿐만 아니라 단지 내 상가를 넓게 지어 대형 마트나, 쇼핑몰, 음식점, 편의점 등을 대규모로 입점 시켜 접근성 높은 문화생활을 가능하게 한다.



<그림 3>4), <그림 4>5) 위례신도시 역세권 아파트와 스트리트형 상가

3) 한·중·일·대만 4개국 중 우리나라 국민이 ‘아파트’에 대한 욕망 가장 커, 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 <https://trendmonitor.co.kr/tmweb/trend/allTrend/detail.do?bIdx=609&code=0603&trendType=CGLOBAL>, 2022.10.14.

2.2.2 매매의 용이성

아파트를 선호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아파트가 사고 팔기 쉽기 때문이다. 아파트는 돈이 필요한 경우 매매 시장에 내놓으면 거래가 금방 이뤄지는데, 계약이 체결되면 우선 아파트 가격의 10%를 계약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금 자산 역할을 한다.⁶⁾ 여기에 우리나라 아파트의 구조적인 특징도 한몫을 하는데, 아파트는 모두 동일한 면적과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가격을 결정하기 쉬운 반면, 주택은 면적뿐만 아니라, 내부 구조, 층수, 채광, 마당 등 주택의 형태가 모두 제각기 달라 어떤 표준화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림 5>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1년간 전국에서 거래된 전체 주택과 아파트의 매매거래 신고 수를 조사한 표이고, <그림 6>는 이를 토대로 전체 주택 대비 아파트의 매매거래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래프를 보면 전체 주택 대비 아파트 매매 거래 비율은 모두 과반이 넘는 수치로, 1년 동안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 그 외의 주택을 모두 합산한 수치보다 아파트가 더 많이 거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아파트 거래가 더 편리하다는 것을 실제 사례로도 확인할 수 있다.

지역: 전국

연월	주택매매전체	
	주택매매	아파트매매
2022.09	32,403건	18,028건
2022.08	35,531건	19,516건
2022.07	39,600건	21,836건
2022.06	50,304건	28,147건
2022.05	63,200건	37,124건
2022.04	58,407건	35,679건
2022.03	53,461건	32,487건
2022.02	43,179건	26,232건
2022.01	41,709건	24,465건
2021.12	53,774건	30,484건
2021.11	67,159건	41,141건
2021.10	75,290건	48,796건
2021.09	81,631건	55,191건

전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택과 아파트의 매매거래 신고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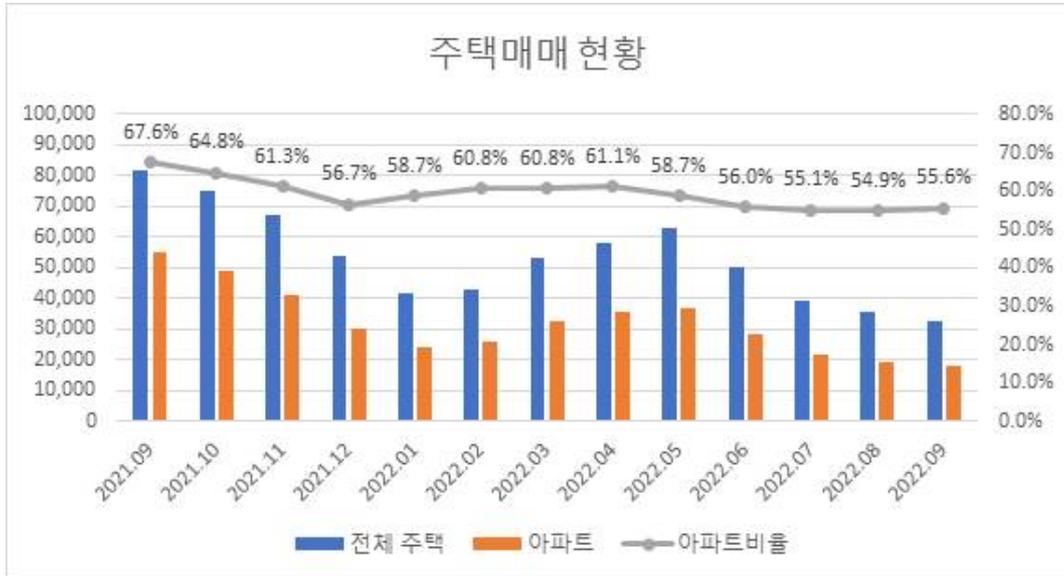
<그림 5> 전국 주택/아파트 매매거래 건수(2021.09 ~ 2022.09)⁷⁾

4) 온라인 뉴스팀, [Biz 특특] 위례신도시 新 랜드마크 '퍼스트푸르지오시티' 관심 후끈, 서울파이낸스, 2015.08.25., <https://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658>

5) 핫플레이스 위례신도시 트랜зит몰내 스트리트상가 '스칸디몰'분양, 한국경제TV, 2014.11.10.,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411100296&resource=>

6) 메이트박스,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아파트를 좋아할까?, 네이버 포스트, 2021.12.14.,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2940707&memberNo=2166510>

7)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거래현황, 부동산통계정보 R-ONE., 2022.06., <https://www.reb.or.kr/r-one/cm/cntnts/cntntsView.do?mi=10113&cntntsid=1409>



<그림 6> <그림 5>의 주택매매 현황표를 바탕으로 나타낸 그래프

2.2.3 프리미엄 브랜드 가치

건설사는 아파트를 단순히 짓고 분양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프리미엄 브랜드 가치를 아파트에 부여하고 있다. 아파트 광고는 대개 ‘럭셔리함’, ‘품격’, ‘프라이빗함’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요소들을 브랜드로 나타내어 사람들에게 이름과 로고를 각인시킨다. 사람들은 마치 명품 의류 브랜드를 고르듯이 아파트도 그 브랜드 가치를 따지며 선택하게 된다. 그리고 마치 명품 브랜드 아파트에 살면 자신도 특권 계층에 속한 것만 같은 환상을 가지며 이는 곧 그 아파트를 소유하고 싶다는 욕망으로 이어진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더욱 더 견고해진 프리미엄 브랜드의 가치로 인하여 아파트의 수요는 더욱 증가하고 이것이 곧 선호도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림 7> 여러 아파트 브랜드8)

8) 아이디어샤워, 아파트 브랜드 순위 선호도 TOP10, 티스토리, 2022. 2. 12., <https://ideashower.tistory.com/entry/%EC%95%84%ED%8C%8C%ED%8A%B8-%EB%B8%8C%EB%9E%9C%EB%93%9C-%EC%88%9C%EC%9C%84-%EC%84%A0%ED%98%B8%EB%8F%84-TOP10>

실제로 브랜드를 평가하는 ‘브랜드평판지수’는 여러 분야의 브랜드를 평가하는데, 그 중 아파트에 관한 브랜드도 해마다 2번에 걸쳐 순위를 매기고 있다. 소비자들은 집을 고를 때 이러한 브랜드 순위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2022년 08월 18일

순위	아파트 브랜드	기업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브랜드평판지수
1	힐스테이트	현대건설	834,820	788,208	1,249,844	1,438,740	4,311,613
2	푸르지오	대우건설	412,070	592,082	873,250	880,568	2,757,969
3	자이	GS건설	408,510	676,530	738,258	707,673	2,530,970
4	롯데캐슬	롯데건설	433,430	369,799	819,315	791,069	2,413,614
5	더샵	포스코건설	272,340	528,386	737,560	873,861	2,412,147
6	e편한세상	DL이앤씨	482,380	435,238	497,378	444,210	1,859,206
7	래미안	삼성물산	216,448	376,368	616,651	564,576	1,774,043
8	한화포레나	한화건설	218,139	220,825	470,211	405,718	1,314,893
9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42,169	273,396	374,597	358,009	1,248,170
10	우미린	우미건설	275,277	159,455	317,386	261,630	1,013,749
11	SK뷰	SK건설	100,748	222,737	292,686	355,068	971,238
12	더플래티넘	쌍용건설	103,240	125,152	322,869	338,358	889,618
13	호반베르디움	호반건설	199,538	122,886	256,806	279,279	858,510
14	위브	두산건설	165,718	220,074	245,514	203,351	834,657
15	서희스타힐스	서희건설	246,263	132,344	206,789	214,493	799,889
16	하늘채	코오롱글로벌	73,692	89,408	291,180	288,137	742,417
17	한라비발디	한라건설	175,864	106,451	237,295	217,275	736,884
18	코아루	한국토지신탁	54,468	55,426	275,140	234,444	619,478
19	센트레빌	동부건설	76,095	80,728	182,329	195,939	535,091
20	대시앙	태영건설	66,305	49,205	182,450	194,528	492,487
21	스위첸	KCC건설	64,792	92,754	153,505	161,884	472,935
22	동문굿모닝힐	동문건설	54,824	35,469	179,548	172,522	442,364
23	리슈빌	계룡건설	44,856	61,972	158,087	113,350	378,265
24	벽산블루밍	벽산건설	79,121	44,087	105,970	106,660	335,838

<그림 8> 아파트 브랜드평판 지수 현황 (2022년 08월 18일)⁹⁾

3. 한국인들의 아파트 선호 현상에 대한 문제점

3.1. 사회적 차별 및 위화감 조성

앞서 말한 프리미엄 아파트 브랜드 가치로 인하여 아파트라는 공간은 상류계층만이 향유할 수 있는 특권으로 인식된다. 유독 강남 아파트의 가치가 다른 지역의 아파트보다 높은 원인이기도 하다.¹⁰⁾ 프랑스 철학자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 1929~)는 ‘소비의 사회’에서 현대인의 소비의 목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풍요로운 현대사회에서 소비의 목적은 필요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있는 게 아니다. 모든 상품은 상징(위신, 성공, 행복, 상류신분, 풍요로움 등)을 가지고 있다. 소비의 진정한 목적은 상품이 가진 상징을 소비함으로써 남과 차별화하는데 있다.”

이 말인즉슨 소비는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상품이 가진 고급화된 가치가 주는 효용을 얻기 위하여 이뤄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가치는 나를 타인과 차별화하는데 이용된다.

아파트도 똑같이 단순히 거주 공간에서의 의미를 넘어서 자신의 지위와 경제력을 나타내는 데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강남이 있다. 8학군이라는 교육 메카, 대기업과 고층 빌딩이 들어서는 등 부자들의 도시로 널리 통용되며 그곳의 아파트도 강북이나 외곽 지역과 구분되는 어떠한 프리미엄적인 요소가 자연스럽게 자리하게 된 것이다. 머니투데이의 기사에 따르면, 서울은 인구 1천만 명이 살며 인구밀도가 높고 대면기회가 많기에 사회적 차별화의 욕구가 엄청나게 강한 지역이라고 한다. 엄청난 사회적 차별화

9) 한국기업평판연구소, [브랜드평판] 아파트 브랜드 2022년 8월 빅데이터 분석결과...1위 힐스테이트, 2위 푸르지오, 3위 자이, 브랜드평판지수, 2022.08.18., https://brikorea.com/bbs/board.php?bo_table=rep_1&wr_id=1668

10) 브라운스톤 외부필자, 왜 강남 아파트만 오를까, 머니투데이, 2005.05.02., <https://news.mt.co.kr/mtview.php?no=2005050207471957054>

욕구는 부자, 성공, 행복이란 상징을 가진 강남아파트에 대한 맹렬한 소비를 낳게 하고 이는 곧 너나 할 것 없이 강남아파트를 구매하려 하는 현상과 이어진다.¹¹⁾

이러한 현상과 더불어 사회적 소외 및 차별은 심화된다. 사람들은 모두 부자가 되려고 한다. 그리고 더 값비싼 상품을 소유하고 이를 타인에게 과시함으로써 자신이 잘났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싶어 한다. 이러한 풍조 속에 낙오되거나 뒤떨어진 자들에 대한 무시와 조소도 함께 발생한다. ‘자신이 사는 집이 곧 자신의 위치’를 나타낸다는 말도 있듯이,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고, 이는 곧 주거 형태에 따라 사람들의 계급을 결정하게 되는 새로운 형태의 신분제 현상을 야기한다. 건설사들도 이러한 현상을 부추기는데, 바로 민간임대와 일반분양 아파트를 구분지어 짓는 형태이다. 건설사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 일정 세대 수 이상 임대 분양 전용 아파트를 짓게 되는데, <그림 9>와 <그림 10>과 같이 이를 일반분양 단지와 떨어뜨려 놓고, 임대 주민은 단지 내 놀이터나 문화 시설 등을 이용하지 못하게 제한한다. 또한 임대 아파트는 낮은 층수로 인하여 채광이 들지 못하거나 내부 하자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임대와 일반 아파트를 한눈에 봐도 다른 건물처럼 외관 디자인을 구별하여 짓기 때문에 이러한 차별을 더욱 심화시킨다고 볼 수 있다.



<그림 9>, <그림 10> 개포동 H 아파트의 일반아파트와 임대아파트¹²⁾¹³⁾

그리고 이러한 차별은 비단 입주민뿐만 아니라 그 자녀에게도 따돌림과 상처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초등학교들 사이에서 유행한 ‘엘사(LH사는 거지)’, ‘임거(임대 사는 거지)’라는 신조어들은 어른들로 인하여 부추겨진 갈등과 차별, 혐오가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염된다는 현상을 보여준다. 서울신문의 기사에 따르면, 수도권 한 어린이 교육기관에서 일하는 임모(29) 씨는 “최근에 특정 아이를 같은 조에 넣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는 부모가 있었다”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아이가 임대아파트에 산다는 이유로 같은 조가 되기를 꺼렸던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어떤 한 부모는 임대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자녀가 버튼을 누르려 하자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야. 만지지 마”라고 말했다고 한다. 수위 차이가 있을 뿐 “그 아파트 사는 친구와는 어울리지 마라”고 주의를 주는 부모들은 적지 않았다고 한다.¹⁴⁾ 만약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이렇게 어른으로 자란 아이들은 또 다시 갈등과 사회적 차별을 부추기고 결국 이러한 현상이 계속해서 대물림될 것이다.

11) 위의 뉴스 기사

12) 김민중, 23개동 중 2개만 '땅딸막'...대놓고 임대동 티낸 개포 재건축, 중앙일보, 2019.08.09.,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546865#home>

13) 신연수, 강남 새 아파트가 월세 40만원...'행복주택' 이달 1278가구 공급, 한경 집코노미, 2021.07.04.,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70451551>

14) 윤연정 외 1명, “엄마, 임대 살면 거지야?” 아이에게 집이 놀림거리가 됐습니다, 서울신문, 2020.01.28.,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128006004>

3.2. 획일화된 사회 야기

‘공간을 만드는 것은 인간이지만, 그 공간은 다시 인간을 만든다.’ 이 말은 윈스턴 처칠이 영국 의회 내부 공간을 개조하는 데 반대하면서 내뱉은 유명한 말이다. 실제로 사람들이 어떤 공간을 생성하고 형성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생성되어진 공간은 사람들의 감정, 생각, 행동, 가치관, 더 나아가 삶을 좌지우지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면 콘서트에서는 현란한 조명, 큰 음악소리와 함께 열정과 활기를 느끼며 가슴이 벅차오르고 한껏 신이 나며, 카페에서는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와 함께 마음이 편안해지고 여유로워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의 도시 공간은 획일화 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당장 학교를 봐도 그렇다. ‘학교’하면 떠오르는 풍경은 획일화된 사각형 외관과 함께 안에는 긴 복도를 따라 교실들이 줄지어 나열되어 있는 모습이다. 청소년기 신체적 및 정신적 성장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학교가 교도소나 군대 막사를 연상하게 하는 공간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내부 구조도 마찬가지이다. 칠판 앞의 교탁을 뒤로 책상과 의자가 바둑판식으로 겹겹이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교사와 학생들 간의 상호 비대칭적 관계가 형성되고, 더 나아가 모두가 어울려 참여하는 활력 있는 수업이 아니라 그저 지식을 맹목적으로 습득하는 주입식 교육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과연 학생들이 창의성의 발현과 잠재력의 실현과 같은 자기계발을 이루어나갈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의 거주공간도 예외는 아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의 63.5%가 아파트에 살고 있다. 정말 많은 수치이다. 하지만 뻣뻣하게 늘어선 모습에 보기만 해도 답답함을 유발하는 아파트는 국민의 라이프스타일을 획일화시키는 대표적인 주범이다. 특히 요즘에는 용적률과 건폐율을 최대한으로 높여 더욱 촘촘하고 조밀하게 아파트를 짓고 있다. 일례로 ‘담장 아파트’로도 유명한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는 용적률 499%와 건폐율 23%의 압도적인 고밀도로 완공 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림 11>, <그림 12>) 이로 인하여 환기나 통풍이 잘 되지 않고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받는 등의 피해가 입주민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다. 또한 입주민들뿐만 아니라 근처 주민들 사이에서도 위압적인 담장 아파트로 주변 경관을 해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한다.¹⁵⁾



<그림 11>, <그림 12>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의 외관 모습¹⁶⁾

앞서 살펴본 학교와 아파트 등의 건축 방식은 우리나라 사회의 획일화와 관련이 있다. 한국 사람들은 획일화된 삶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똑같은 집에서 똑같은 시간에 학교나 직장을 가고, 똑같은 밥을 먹으며, 똑같은 수업을 받거나 근무를 하고, 똑같은 시간에 하교하고 퇴근하는 생활이 반복된다.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모두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야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틀과 기준에 어긋나거나 부합하지 않는 누군가

15) 왓해픈, 홍콩 아닙니다 수원입니다. 12억 신축 담장 아파트 논란, 네이버 포스트, 2021.05.11.,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1465561&memberNo=34948547>

16) 위의 뉴스 기사

는 집단 사회에서 철저히 배제되거나 외면받는다. 더 심하면 소외나 따돌림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학교에서는 남과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이나 괴롭힘이 자행되는 경우가 만연하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훗날 직장에 들어가서는 권위주의적이고 위압적인 상사의 갑질에 저항하다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평가에 불이익이 되는 고충을 겪는다. 이러한 전체주의적이고 획일화된 사고방식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정신과 뇌를 지배하여 우리가 그것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우리에게 ‘교사에게의 충실, 상사에게의 충실, 반 친구들이나 동료들 무리에게의 충실’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다양성은 결여되고, 차별과 혐오는 늘어난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앞서 살펴본 대로 아파트는 주거 공간으로써 획일화 문화를 야기하는 ‘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사람들은 태어나 자라오며 누구나 내 집 마련을 꿈꾼다. 이때 ‘번듯한 직장에 다니며 30평짜리 아파트를 마련하고 결혼해 아이들과 오순도순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는 획일화된 공동의 목표가 존재한다. 이 목표를 향한 경주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 사람들은 끊임없는 경쟁을 하게 된다. 타인을 자신과 계속 비교하며 자신이 얻거나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하여 열등감을 가지는 등 스트레스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또래 친구들은 이미 자기 아파트가 있는데 본인은 집 살 형편이 안 된다면 본인만 뒤처지는 것만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결국 자기 아파트를 가졌다고 해도 더 좋은 동네에 있거나 더 비싼 아파트를 열망하고 그것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 또 다른 불안감과 초조함을 겪게 될 것이다. 결국 이렇게 무한 경쟁 속에 휘말려 획일화된 삶의 방식을 고수하게 되고, 그렇게 자신만의 가치를 잃어 인생에 대한 허무함과 공허함만 남게 된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여파로 인한 저금리 현상 때문에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적이 있었다. 이 때 무주택자들 사이에서 주거 불안에 따른 ‘부동산 블루’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사회 초년생인 2030 세대에서 더욱 대두되었는데, 이는 계속되는 취업난과 물가 상승의 여파로 미래에 대한 불안을 겪는 와중에 이러한 사태까지 겹쳐 고통이 배가되는 것이다.¹⁷⁾ 이러한 아파트값 상승으로 인하여 상대적 격차와 그에 기인한 박탈감, 소외감을 느끼는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3.3. 이웃 간의 갈등과 사생활 침해

아파트는 옆집 또는 위아래 집의 소음이나 흡연, 먼지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 중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가장 심한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휴교나 재택근무 등으로 인하여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갈등 횟수가 급증하였다. <그림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5년간(2017년~2021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전화 및 온라인으로 상담하거나 접수 처리한 건수는 2017년 2만 2849건에서 2021년 4만 6596건으로 두 배 이상 뛰었고, 기간 동안 현장 소음측정을 나간 1864건 중 152건(8.2%)이 기준을 초과했다고 한다.¹⁸⁾ 또한 층간 소음이 이웃 간의 작은 갈등을 넘어 폭력이나 살인 등의 극단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데, 실제로 작년 11월에는 40대 A씨가 인천 남동구의 빌라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아래층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하였고,¹⁹⁾ 작년 9월에는 전남 여수에 사는 30대 B씨가 흉기를 휘둘러 위층 부부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²⁰⁾ 이렇듯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위험천만한 충돌이 최근에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17) 안선영, 집값 급등·상대적 박탈감...전국민이 '부동산 블루', 아주경제, 2020.12.03., <https://www.ajunews.com/view/20201203134504034>

18) 정세희, [현장에서] 이웃 간의 갈등 부르는 '층간소음', 아주경제, 2022.09.05., <https://www.ajunews.com/view/20220905080449148>

19) 위의 뉴스 기사

20) 김광현, 층간소음 분쟁, 5년새 2배... “시정조치 강제해 실효성 높여야”, 동아일보, 2022.06.30.,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20630/114213149/1>



<그림 13> 층간소음 신고 접수 추이²¹⁾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불법촬영을 통해 다른 주민의 사생활을 엿보는 일들이 만연히 일어나고 있다. 아파트는 각 동을 마주보는 형태로 위치해 있는데, 이를 노리고 밤에 드론 등을 통해서 건너편 집의 베란다를 불법촬영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실제로 지난 2019년 베란다가를 통해 여성이 샤워 후 나온 모습이나 속옷만 입고 자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사건이 있었는데, 3개월 동안 가해자는 3명의 피해자를 통해 총 17개의 영상을 촬영한 것이 밝혀졌다. 그리고 뉴스1이 작년 1~10월 서울의 지방법원 5곳이 내린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판결문 261건을 입수해 전수 분석한 결과, 대중교통과 숙박업소뿐 아니라 가장 안전하다는 거주조차 불법촬영 범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범행 장소 비율은 △지하철·버스 30%(79건) △모텔과 호텔 등 숙박업소 18%(48건) △주거지 16%(44건) 순이었는데, 주거지가 16%로 3등이나 되는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보아 주택 내에서 일어나는 불법촬영 범죄도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임을 알 수 있다.²²⁾ 문제는 단속을 강화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나 외부장소와는 달리 거주지를 향한 불법촬영은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범죄를 적발해도 처벌이 쉽지 않다. 서혜진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드론으로 집 안을 고의로 촬영하다 걸려도 피해자가 옷을 입고 있었다면 처벌이 쉽지 않아 증거수집의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고, 이은의 변호사(이은의 법률사무소)도 “지하철이나 화장실 불법 촬영보다 드론 불법촬영은 드론이 직접 떨어지지 않는 이상 적발하기 어렵다”며 “드론 촬영의 사생활 침해 등은 심각하지만 연속된 촬영물이다 보니 ‘고의성’ 입증에 어려워 처벌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²³⁾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거주지 불법촬영은 여타 공개적인 장소에서 일어나는 촬영보다 보다는 덜 중요한 것으로 다루어지고, 조속한 사건 해결이나 피해 구제가 이뤄지지 않아 관련 범죄율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여겨진다.

21) 위의 뉴스 기사

22) 뉴스1, ‘베란다 맞은편 여성 옷 갈아입네’...불법촬영, 내집도 안전하지 않다, 동아일보, 2021.12.13.,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1213/110752963/1>

23) 박현주, 아파트 노리는 ‘드론 몰카’는 늘지만 단속도 처벌도 어려워, 중앙일보, 2020.10.08.,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889487#home>



<그림 14> 드론을 통한 아파트 불법 촬영을 나타낸 만평²⁴⁾

위에서 언급한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이나 불법촬영과 같은 사생활 침해와 같은 현상은 비단 아파트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인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에서도 일어날 수 있긴 하다. 하지만 현재 아파트 거주 인구가 연립/다세대 주택보다 더 많고, 아파트의 인구 밀집도가 연립/다세대 주택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이들 또한 아파트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요한 문제점으로 간주하였다.

4.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4.1. 아파트 차별금지에 관한 법 제정

첫 번째로 사회적 차별을 부추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 왜 그런가? 자발적인 분위기에서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 예를 들면 건전한 이웃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는 등의 두루뭉술한 해법은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전혀 실행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느슨한 방법보다는 철저한 법 체계 속에 사람들을 구속하여 강제로라도 행동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서서히 차별 행위를 지양하게 되고 마침내 더 나은 사회로 진보해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러한 법을 개인보다는 기업이나 조직, 국가와 같은 공동체에 적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민간임대 아파트 차별을 막기 위해선 건설사들에게 ‘민간임대 차별금지법’을 적용하여 민간임대도 일반분양 아파트와 동일한 외관과 구조로 건축하며, 임대동을 따로 떨어뜨려 놓지 않게 해야 한다. 그래야 입주민들이 둘을 구분 짓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차별이나 무시를 일삼는 현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또는 새로운 형태의 아파트인 ‘소셜믹스’ 아파트를 통해서도 이를 해결할 수 있다. 소셜믹스 아파트는 분양과 임대의 구분이 없고 서로 섞여있는 형태의 아파트이다. 입주자 모집 전 전체 분양주택에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공공임대가 들어갈 곳을 선정하므로 같은 동, 같은 라인에 분양과 공공임대가 섞여 구별이 되지 않고, 건설사가 임대주택이 어디에 들어갈지 예측할 수 없게 되므로 마감재를 차별해 적용할 수도 없다.²⁵⁾ 이러한 방식으로 아파트를 짓는다면 민간임대 강제로 인해 건설사들에게 돌아가는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4) 윤일선, 드론으로 아파트 내부 불법 촬영한 남성 검거, 국민일보, 2020.10.07., <https://m.kmib.co.kr/view.asp?arcid=0015085514>

25) 박진호, 분양·임대 구분없는 '소셜믹스 아파트', 중소기업신문, 2021.05.25., <https://www.sme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290>



<그림 15> SH(서울도시주택공사)에서 선보인 소셜믹스 아파트 사례²⁶⁾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분양세대 뿐만 아니라 임대세대 주민들도 원활히 운영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아파트 내 단지시설을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입주민 차별금지법’을 시행하여야 한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반론도 존재한다. 일반세대의 월세가 평균 150만원이라 하면 임대세대는 3분의 1인 50만원 밖에 안하므로 집의 값어치가 다르기도 하고, 일반세대의 분양 대금이나 관리비로 아파트 커뮤니티도 꾸리는 건데 이를 임대세대와 동등하게 누리는 것은 일종의 역차별이라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서는 일반세대와 임대세대 간의 의견 조율이나 타협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어찌 되었든 궁극적으로는 임대세대 주민들에게 박탈감과 소외감을 야기하는 행동 양식이나 관습들은 근절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4.2. 획일화된 아파트 구조와 개인의 삶 탈피

두 번째로 ‘획일화’를 탈피하기 위한 두 가지 관점에서의 해결책을 알아보겠다. 먼저 획일화된 아파트를 탈피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일단 아파트의 구조를 변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데, 앞서 기존의 수직적인 고층 아파트가 준비해 있는 형태는 한눈에 봐도 답답함과 불편함을 초래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렇다면 아파트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관해선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아파트 단지’라고 하면 획일화된 형태의 고층건물들이 좁은 부지 안에 나란히 늘어서 있는 모습을 상상하게 되는데, 이러한 오랜 관념을 타파한 전혀 새로운 아파트 건물이 싱가포르에 위치해 있다. 인터레이스(Interlace)라는 이름의 이 아파트 건물은 독일인 건축가 올레 스킨(Ole Scheeren)이 설계한 것이다. 현대에 접어들어 주거지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 때 대안으로 등장한 아파트들은 좁은 부지 안에 최대한의 가구를 집중시킨다는 측면에서는 성공을 거두었으나, 이 과정에서 ‘공동 공간’을 희생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스킨은 새로운 형태의 건축물을 통해 이러한 ‘주택 부족 해결’과 ‘공동 공간 창출’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로 했다. 스킨과 동료들은 이를 위해 기존에 ‘탑’형태로 쌓여있는 아파트를 ‘장난감 블록’으로 대체한다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이들은 <그림 16>과 <그림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블록들을 다양한 각도로 엇갈리게 쌓음으로써 총 8개의 공원을 지닌 새로운 아파트 건축물을 창조해냈다. 각각의 공원은 서로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공원에는 정원이 꾸며져 있는가 하면 다른 공원에는 수영장이나 연못이 들어서 있다. 또한 단지 내 도로 주

26) 위의 뉴스 기사

변에는 대나무 숲, 바비큐 파티장, 운동기구 등을 배치해 주민들로 하여금 교류와 소통의 시간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도록 유도했다. 스텔렌은 이러한 건축 콘셉트가 “수직적 고립상태를 수평적 교류로 전환하고, 현대사회의 중요 문제 중 하나인 공동체 가치의 상실을 회복시킨다”고 설명했다.²⁷⁾ 이러한 해외 사례처럼 기존의 틀을 탈피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형태의 아파트를 설계한다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면서 주변 경관과 아파트의 조화를 이루는 등 문제점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6>, <그림 17> 싱가포르의 인터레이스(Interlace) 아파트 모습²⁸⁾

다음은 획일화된 삶을 탈피하기 위한 방안이다. 여기에는 보다 개인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로는 수시로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패션이나 유행어, 유행하는 드라마나 영화 등 트렌드에 항상 민감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공동체나 무리에 뒤처지거나 소외되지 않기 위해 이러한 유행에 편승하는 삶을 산다.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유독 강하게 작용한다. 그런데 이러한 유행과 같은 일들이 비단 ‘대중문화’에만 작용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사회 통념이나 가치관은 우리의 인생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이를 테면, 공부를 열심히 하여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대학교를 졸업하며, 좋은 직장에 들어가 경제생활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사회가 맞추어 놓은 틀에 맞춰 살아가며 우리 자신을 혹사시킨다. 청소년기에는 ‘입시 경쟁’, 대학생 시기에는 ‘학점 경쟁’, 졸업 후에는 ‘취업 경쟁’ 등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며 수많은 경쟁 앞에 좌절하거나 고통 받는다. 설령 이러한 경쟁 속에서 최종적인 승리를 쟁취한다고 해도,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는 걸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사회에 부합하는 행복의 기준은 결코 나의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결국 진정한 행복과 성취감을 얻지 못하고, 먼 훗날 그저 인생에 대한 공허함에 허탈함을 느끼기만 할 것이다. 우리는 남들의 시선과 평가보다는 우리 자신에게 더 관심을 기울이고 신경을 써야 한다. 그래야만 헛바퀴 돌듯 지루하고 기계적인 인생에서 벗어나 나 자신을 제대로 알고 내가 정말로 원하는 유의미한 성취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주거 관점에서 적용한다면 어떤 의미를 얻을 수 있을까? 앞서 설명한 대로 사람들은 모두 ‘내 집 마련’이라는 경쟁 속에 불가피하게 뛰어들게 되고, 더 좋은 집과 더 비싼 집만을 맹목적으로 쫓는 인생을

27) 방승언, 소통과 공존의 주거지...싱가포르 인터레이스 아파트 ‘올해의 건물’ 선정, 나우뉴스, 2015.11.15., <https://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1115601022>

28) 위의 뉴스 기사

살고 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정말 내 행복과 연관이 있을까?’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집은 아늑함과 편안함을 주며 삶의 여유를 느끼게 해야 한다. 집을 단순히 욕망을 충족시키는 재산이나 소유물의 의미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공간 안에서 존재하는 나의 감정, 생각, 행동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들을 되돌아보는 데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미국의 언론인인 시드니 J. 해리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행복은 장소가 아니라 방향이다.” 말 그대로 행복은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 나 자신이 추구하는 ‘방향’에 존재한다. 남들이 사는 삶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해 살 때 진정한 행복은 비로소 찾아올 것이다.

4.3. 부실공사 단속 강화 및 아파트 배치의 변화

세 번째로는 층간소음을 해소하고 단지 내 불법촬영을 근절하는 것에 대한 해결책이다. 먼저 층간소음 문제에 관해 살펴보겠다.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원인은 시공사의 부실공사 때문인 경우가 많다. 실제로 감사원이 2019년에 발표한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 실태’를 보면, 건설업체들의 부실시공 등 비양심적인 행태가 층간소음의 주된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전국 아파트 중 191가구의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측정했는데, 96%인 184가구가 사전에 인증 받은 것보다 성능이 떨어졌다. 민간업체가 건설한 아파트는 모두(100%) 성능이 떨어졌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건설한 아파트는 94%가 그랬다. 특히 114가구(60%)는 층간소음 차단 성능이 최소 기준에도 못 미쳤다. 이 역시 민간아파트(72%)가 공공아파트(53%) 보다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체들은 고품질의 자재로 사전 인증시험을 통과한 뒤 정작 시공 때는 품질이 떨어지는 자재로 공사를 하거나, 아예 품질 성적서를 조작해 인증서를 발급받는 경우도 있었다. 층간소음 측정을 시공 전에만 하고 준공 뒤에는 의무 사항이 아닌 허점을 악용한 것이다. 감사원은 “콘크리트로 덮어버리면 바닥 내부는 아무도 모른다는 인식이 건설 현장에 팽배했다”고 전했다.²⁹⁾ 이렇듯 층간소음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설사들의 부실시공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소음측정기 등을 통한 대대적인 조사를 통해 기준에 미달하는 아파트를 시공한 건설사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부실시공으로 인한 층간소음 피해를 받은 이들을 위한 구제 지원 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별도의 완충재나 방음벽 시공에 따른 비용 지원이 있을 수 있겠다. 개인이 층간소음과 부실시공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찾아내기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의 조속한 수사와 대처가 필요하다.³⁰⁾

개인적 차원에서는 이웃 간 서로 조심하고 층간소음을 예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쿵쿵쿵쿵 뛰어다니지 않고, 밤늦은 시간에 청소기를 돌리거나 피아노를 치는 등의 행동은 삼가는 것 등이 있다. 발소리를 줄이기 위해 슬리퍼를 신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29) 부실시공으로 층간소음 유발한 건설사 엄단해야, 한겨레, 2019.05.03.,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892580.html>

30) 위의 뉴스 기사



멀다가 함께하는 층간소음 줄이기!

우리 서로 배려해요



<그림 18>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층간소음 예절³¹⁾

다음으로 불법촬영 문제를 살펴보겠다. 단지 내 불법촬영을 막기 위해서는 동간 거리를 확보하고, 아파트를 마주보고 있는 형태로 배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에 관한 일례로, 마포구의 '자이2차' 아파트는 마주보는 동이 없는 남향위주 단지 설계로 채광과 조망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다. 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단지에 들어서는 6개 동을 수평 및 수직 방향으로 배치해 마주보는 동이 거의 없도록 설계했다”며 “넓은 동간 거리에다 마주보는 동이 없어 세대 간 프라이버시 침해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모든 동에서 쉽게 휴게시설과 커뮤니티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입주인 공용시설을 단지 중앙에 몰아서 배치하며 편의성까지 얻을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처럼 아파트 배치를 다르게 하여 사생활 침해를 막을 수 있다.



<그림 19>, <그림 20> 마포 '자이2차'의 배치도와 실제 모습³²⁾

아파트 단지를 '드론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아파트의 특성상 불법촬영은 드론을 이용하여 베란다를 촬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드론을 막으면 단지 내에서 일어나는 대다수의 불법촬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31) 국민대통합위원회, 아파트 생활예절, 작은실천이 큰보람으로 돌아온다!, 네이버 블로그, 2014.10.21.,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pcnc11&logNo=220157128865>

32) 김경수, 마포에 프라이버시를 먼저 생각한 아파트가 났다, 아시아경제, 2011.11.28., <https://cm.asiae.co.kr/article/2011112809462793048>

5. 결론

한국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MZ세대 사이에서의 ‘아파트 열풍’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MZ세대는 소위 ‘아파트 키즈’로, 부모가 마련한 아파트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근처 유치원, 학교, 학원을 가는 등 아파트 생활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집 근처에서 모든 일상을 편리하게 영위해오며 살아왔기 때문에 부동산은 곧 아파트로 통한다고 한다.³³⁾ 이와 더불어 1인 가구 증가 현상도 우리나라에 함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파트의 선호도는 높아질 것이고, 수요에 맞춰 낡은 거리와 마을은 더 많은 아파트로 채워질 것이다. 그러므로 미래에도 아파트는 우리 생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후손들을 위해서도 살기 좋은 아파트 환경과 아파트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늘어나는 아파트에 따른 사회적 문제점들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러한 문제점들을 현명하고 올바르게 대처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정부와 개인 모두 올바른 아파트 문화와 사회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1) 국민대통합위원회, 아파트 생활예절, 작은실천이 큰보람으로 돌아온다!, 네이버 블로그, 2014.10.21.,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pcnc11&logNo=220157128865>
 - 2) 김경수, 마포에 프라이버시를 먼저 생각한 아파트가 떴다, 아시아경제, 2011.11.28., <https://cm.asiae.co.kr/article/2011112809462793048>
 - 3) 김광현, 층간소음 분쟁, 5년새 2배… “시정조치 강제해 실효성 높여야”, 동아일보, 2022.06.30.,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20630/114213149/1>
 - 4) 김민중, 23개동 중 2개만 '땅딸막'…대놓고 임대동 티낸 개포 재건축, 중앙일보, 2019.08.09.,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546865#home>
 - 5) 김지섭, 전국으로 퍼진 MZ세대 ‘아파트 열풍’엔 이유가 있다, 한국일보, 2021.03.01.,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30116320005315>
 - 6) 뉴스1, ‘베란다 맞은편 여성 옷 갈아입네’…불법촬영, 내집도 안전하지 않다, 동아일보, 2021.12.13.,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1213/110752963/1>
 - 7) 메이트박스,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아파트를 좋아할까?, 네이버 포스트, 2021.12.14.,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2940707&memberNo=2166510>
 - 8) 박진호, 분양·임대 구분없는 '소셜믹스 아파트', 중소기업신문, 2021.05.25., <https://www.sme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290>
 - 9) 박현주, 아파트 노리는 ‘드론 몰카’는 늘지만 단속도 처벌도 어려워, 중앙일보, 2020.10.08.,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889487#home>
 - 10) 방승언, 소통과 공존의 주거지...싱가포르 인터레이스 아파트 ‘올해의 건물’ 선정, 나우뉴스, 2015.11.15., <https://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1115601022>
 - 11) 부실시공으로 층간소음 유발한 건설사 엄단해야, 한겨레, 2019.05.03.,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892580.html>
 - 12) 브라운스톤 외부필자, 왜 강남 아파트만 오를까, 머니투데이, 2005.05.02., <https://news.mt.co.kr/mtview.php?no=2005050207471957054>
 - 13) 신연수, 강남 새 아파트가 월세 40만원…'행복주택' 이달 1278가구 공급, 한경 집코노미, 2021.07.04.,
-
- 33) 김지섭, 전국으로 퍼진 MZ세대 ‘아파트 열풍’엔 이유가 있다, 한국일보, 2021.03.01.,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30116320005315>

-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70451551>
- 14) 아이디어샤워, 아파트 브랜드 순위 선호도 TOP10, 티스토리, 2022. 2. 12.,
<https://ideashower.tistory.com/entry/%EC%95%84%ED%8C%8C%ED%8A%B8-%EB%B8%8C%EB%9E%9C%EB%93%9C-%EC%88%9C%EC%9C%84-%EC%84%A0%ED%98%B8%EB%8F%84-TOP10>
- 15) 안선영, 집값 급등·상대적 박탈감…전국민이 '부동산 블루', 아주경제, 2020.12.03.,
<https://www.ajunews.com/view/20201203134504034>
- 16) 온라인 뉴스팀, [Biz 특특] 위례신도시 新 랜드마크 '퍼스트푸르지오시티' 관심 후끈, 서울파이낸스, 2015.08.25., <https://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658>
- 17) 왓헤픈, 홍콩 아닙니다 수원입니다. 12억 신축 담장 아파트 논란, 네이버 포스트, 2021.05.11.,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1465561&memberNo=34948547>
- 18) 윤연정 외 1명, “엄마, 임대 살면 거지야?” 아이에게 집이 놀림거리가 됐습니다, 서울신문, 2020.01.28.,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128006004>
- 19) 윤일선, 드론으로 아파트 내부 불법 촬영한 남성 검거, 국민일보, 2020.10.07.,
<https://m.kmib.co.kr/view.asp?arcid=0015085514>
- 20) 정세희, [현장에서] 이웃 간의 갈등 부르는 '층간소음', 아주경제, 2022.09.05.,
<https://www.ajunews.com/view/20220905080449148>
- 21) 통계청,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등록센서스 방식>, 통계청, 2022, 2쪽.
- 22) 한·중·일·대만 4개국 중 우리나라 국민이 '아파트'에 대한 욕망 가장 커, 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
<https://trendmonitor.co.kr/tmweb/trend/allTrend/detail.do?bidx=609&code=0603&trendType=CGLOBAL>, 2022.10.14.
- 23) 한국기업평판연구소, [브랜드평판] 아파트 브랜드 2022년 8월 빅데이터 분석결과...1위 힐스테이트, 2위 푸르지오, 3위 자이, 브랜드평판지수, 2022.08.18.,
https://brikorea.com/bbs/board.php?bo_table=rep_1&wr_id=1668
- 24)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거래현황, 부동산통계정보 R-ONE, 2022.06.,
<https://www.reb.or.kr/r-one/cm/cntnts/cntntsView.do?mi=10113&cntntsId=1409>
- 25) 핫플레이스 위례신도시 트랜짓몰내 스트리트상가 '스칸디몰'분양, 한국경제TV, 2014.11.10.,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411100296&resource=>

상명대학교 인공지능 챗봇 ‘로보어드바이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발전 방안 연구

: 타 대학의 인공지능 챗봇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영어교육과 김윤*

목차

1. 서론
 - 1.1. 연구 동기
 - 1.2. 연구 방법
 2. 이론적 배경(챗봇, Chatbot)
 3. 타 대학의 챗봇 서비스 분석
 - 3.1. 중앙대학교(찰리)
 - 3.2. 성균관대학교(킹고봇)
 - 3.3. 명지대학교(마루봇)
 4. 상명대 인공지능 챗봇 ‘로보어드바이저’ 분석 및 발전 방안 탐구
 - 4.1. 로보어드바이저 분석
 - 4.2. 발전 방안 탐구
 5. 결론
- 참고 문헌

1. 서론

1.1. 연구 동기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은 현대 과학 기술의 발전에서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이다.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학습 능력과 추론 능력, 지각 능력, 자연언어의 이해 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을 일컫는다.¹⁾ 인공지능은 우리 삶을 편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도구로 쓰이며,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이끌어가는 핵심 기술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의 핵심 키워드인 ‘챗봇(Chatbot)’도 이러한 인공지능의 한 형태이다. 문자 혹은 음성을 통해 마치 인간과 대화하듯이 작업을 수행하고 처리한다. 최근에는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이나 자연어처리(NLP) 등의 인공지능 기술이 함께 적용되어, IT, 교육, 금융과 같은 분야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계속해서 더 넓은 분야로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필자는 본교에 막 입학했을 당시 학사 안내와 수강 신청 관련 정보들이 쏟아져서 정보에 헤매었던 경험이 있다. 재학생뿐만 아니라 학교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 대학 홈페이지를 방문한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홈페이지를 처음 방문한 사람들에게는 본인에게 필요한 정보가 상세히 설명되어 있는 곳을 곧바로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때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가 바로 챗봇(Chatbot)이다. 챗봇은 한눈에 알아보기 쉬운 인

1) 네이버 지식백과, 인공지능.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81914&cid=42171&categoryId=58698>>, 2022. 11. 15. 검색.

터페이스와 필요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대화 기능을 갖추었기 때문에 사용자가 비교적 수월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현재 국내 여러 대학에서는 대학을 안내하는 챗봇 서비스를 구축하여 대학 홈페이지에 방문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에 반해 본교인 상명대학교의 챗봇 서비스는 재학생들에게 크게 알려져 있지 않다. 본교의 챗봇 서비스를 미리 알고 이용할 수 있었다면 번거롭지 않고 빠르게 정보를 찾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들었다. 상명대학교의 챗봇 서비스가 발전 및 활성화된다면 재학생뿐만 아니라 입학 예정자, 기타 외부인 모두에게 본교를 잘 안내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타 대학의 챗봇 서비스를 분석하여 이를 통해 상명대학교의 챗봇 서비스를 발전하는 방안을 살피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타 대학에서 제공하는 챗봇 서비스를 분석한다. 분석은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의 내용적 측면과 어떠한 기능이 있는지의 기능적 측면, 두 가지의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챗봇에 키워드를 직접 입력하여 찾을 수 있는 정보를 모두 조사하기엔 범위가 방대하므로, 챗봇이 제시하는 키워드를 위주로 제공되는 정보를 탐색한다. 이후, 개별적인 분석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한다. 이때 상명대학교 홈페이지의 '전체 메뉴'의 정보 분류를 참고하여 분석 내용의 정리 기준으로 삼았다. 타 대학의 챗봇 서비스 조사가 끝났으면, 같은 방식으로 상명대학교의 챗봇 서비스 '로보어드바이저'를 조사한다. 마찬가지로 조사한 내용을 정리한 다음, 앞에서 제시한 타 대학 챗봇 서비스의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상명대학교의 챗봇 서비스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원인을 탐구한다. 끝으로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음은 대상의 선정 기준이다. 가장 먼저, 현재 챗봇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내 대학이어야 하고, 국내 대학의 수가 많으므로 그중에서도 서울권 소재의 대학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또한 챗봇이 도입된 장소나 챗봇의 역할에 따라 제공하는 기능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비교 대상인 상명대학교와 같은 '학사정보 제공' 목적인 것을 대상으로 삼았다. 다만 일부 대학은 학사정보 안내와 입학 정보 안내 기능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제공하기 때문에, 이 기준에서는 입학처나 IT 상담용 챗봇만을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위와 같이 통합된 정보를 제공하는 챗봇의 경우, '학사정보 제공'과 비교적 연관성이 없는 기능은 '기타' 기능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챗봇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로그인이나 재학생 인증 절차가 필요한 곳 또한 정보를 조사할 수 없으므로 제외하였다.

위의 기준을 거쳐 선정된 대상은 중앙대학교의 '찰리', 성균관대학교의 '킹고봇', 명지대학교의 '마루봇'이다. 위 3개 대학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며, 각 대학 챗봇의 간단한 설명과 함께 챗봇 서비스의 구성과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를 조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챗봇, Chatb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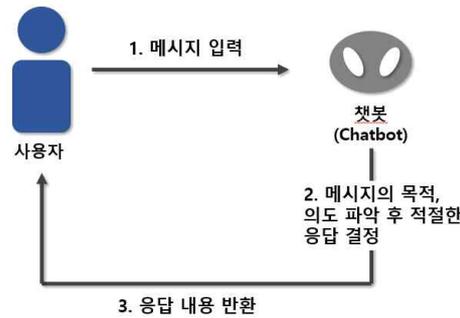
2.1. 챗봇의 정의

챗봇(Chatbot)은 채팅(chatting)과 로봇(robot) 두 단어가 결합한 합성어이다. 즉, 로봇의 인공지능을 대화형 인터페이스에 접목한 기술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대화형 시스템을 말한다.²⁾ 이를 더 쉽게 풀어보자면, 채팅을 통해 사람과 대화하는 로봇이라고도 할 수 있다.

사용자와의 대화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메시지를 이해하고 이에 따른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는 것이 챗봇의 기본 기능이다. 챗봇의 작동 단계는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사용자는 앱, 웹 사이트, 문자 메시지와 같은 채널 또는 전화 통화를 통해 챗봇에 메시지를 입력한다. 그다음, 챗봇은 메시지 내용을 수신하고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메시지의 목적을 결정하고 관련 의도를 식별하게 된다. 이후 적절한 응답을 결

2) 김성근·신민철·강주영, 챗봇 기술 소개 및 사례 분석, 정보와 통신 열린강좌 제35권 제2호(별책 8호), 한국통신학회, 2018, 21쪽.

정한 챗봇은 동일한 채널을 통해 사용자에게 응답 내용을 반환한다.³⁾ 이 과정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해서 진행된다.



<그림1> 챗봇의 작동 단계

챗봇의 기능은 사용자의 요구에 대해 분석하여 정해진 응답을 제공하는 간단한 작업으로 수행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인공지능 분야의 빅데이터, 머신러닝과 딥러닝(Dep Learning) 기술 등을 적용하여 사용자와의 복잡한 대화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최종적으로 지향해야 할 챗봇의 형태는 자연어⁴⁾를 인간과 비슷할 정도로 구사하여 사람과의 소통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인공지능의 한 분야인 자연어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 즉 컴퓨터를 이용해 사람의 자연어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기술⁵⁾을 적용한 텍스트 분석 기술 연구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챗봇의 유형은 크게 인공지능형과 시나리오형으로 나뉜다. 시나리오형은 미리 정해 놓은 단어에 따라 정해진 답을 내놓는 유형이고, 인공지능형 챗봇은 복잡한 질문에 응답할 수 있고 자기 학습도 가능한 것을 일컫는다.⁶⁾ 챗봇의 목적이나 대답을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 구조의 복잡한 정도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시나리오형과 같이 정해진 대답을 제공하는 형태의 챗봇은 비교적 단순한 형태이며, 인공지능형과 같이 사용자의 입력 정보를 분석하여 새로운 대답을 만들어내는 형태의 챗봇은 자연어의 분석, 이해, 생성 과정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훨씬 높은 복잡성을 가지고 있다.

2.2. 챗봇의 활용

사람을 대신해 챗봇이 사용되는 데에는 몇 가지 장점이 있다. 챗봇은 고객 응대, 정보 회신 등의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훨씬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빠른 일 처리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여러 분야로 챗봇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챗봇 시장은 크게 성장하게 되었다. 외국의 한 시장조사기관인 그랜드 뷰 리서치(Grand View Research)에 따르면, 글로벌 챗봇 시장의 규모는 2021년 5억 2570만 달러로 평가됐으며, 2022년부터 2030년까지 복합 연간 성장률(CAGR) 25.7%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챗봇 시장 확대의 원인 중 하나로는 ‘챗봇 운영이 가져오는 경제적 비용 절감’을 꼽았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가져오는 챗봇 기능의 혁신이 앞으로의 챗봇 시장 확대를 기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⁷⁾

3) Microsoft Azure, 챗봇이란 무엇인가요?,

<<https://powervirtualagents.microsoft.com/ko-kr/what-is-a-chatbot/>>, 2022. 11. 18.

4) 인간이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언어를 가리키는 말. (출처: TTA 정보통신용어사전)

5) TTA 정보통신용어사전, 자연어처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http://word.tta.or.kr/dictionary/dictionaryView.do?subject=%EC%9E%90%EC%97%B0%EC%96%B4+%EC%B2%98%EB%A6%AC>>, 2022. 11. 18.

6) 한경 경제용어사전, 챗봇,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https://dic.hankyung.com/economy/view/?seq=13232>>, 2022.12.10., 네이버 지식백과, 챗봇,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36264&cid=42107&categoryId=42107>>, 2022.12.10.에서 재인용.

7) Grand View Research, Chatbot Market Size, Share & Trends Analysis Report By End Use (Large Enterprises, Medium Enterprises), By Application, By Type, By Product Landscape, By Vertical, By

챗봇의 활용은 단순히 상대방과 대화를 주고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개인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거나 상품을 주문하고 조회하는 등의 업무로도 확장되었다. 위의 그랜드 뷰 리서치에서 언급한 것처럼 인공지능의 발달로 챗봇의 기능이 확장됨에 따라 다양한 업무로의 활용 가능성이 늘어났다.

<표1> 챗봇의 서비스 분야별 분류⁸⁾

서비스 분야		제공 내용
공통	고객상담	콜센터의 고객 상담 업무를 대체·보완하여 업무경감 및 비용 절감
	정보서비스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통해 개인 맞춤형 정보 제공
	마케팅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 홍보
쇼핑몰(상거래)		고객 상담, 상품의 주문, 조회 등을 처리
금융		상담 및 계좌 관련 업무 처리
의료		간단한 문진과 상담에 활용
법률		법률상담 제공
엔터테인먼트		문화예술 콘텐츠를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
교육		챗봇의 대화형 구조를 상호작용과 접목하여 어학 등 분야에서 활용

챗봇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챗봇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챗봇 도입은 분야를 가리지 않고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챗봇을 만드는 봇빌더(Bot Builder) 업체나 플랫폼 또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국내의 챗봇 플랫폼으로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CLOVA Chatbot), 카카오톡, 라인(LINE), 그리고 페이스북 메신저가 있다. 이와 같은 봇빌더 업체나 플랫폼을 이용하면 챗봇을 개발하기 위한 비용은 줄고, 쉽고 간단하게 제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 대학에서도 학사정보 안내 및 문의 사항 답변을 위한 챗봇을 도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⁹⁾ 학교는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챗봇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끊임없이 발전을 시도한다. 또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활성화되면서 원활한 학사 운영을 챗봇을 도입하기 시작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특히 대학에서는 수업 외에도 학적, 장학금, 유학, 취업, 기숙사 등 다양한 문의가 발생하기 때문에, 챗봇은 비대면 교육 서비스 시대의 스마트 캠퍼스 운영을 위한 필수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다.¹⁰⁾

3. 타 대학의 챗봇 서비스 분석

3.1. 중앙대학교(찰리)

Region, And Segment Forecasts, 2022 - 2030, 2022. 6. 8.,
<https://www.grandviewresearch.com/industry-analysis/chatbot-market>

8) 계보경·손정은·조희석, 챗봇(ChatBot) 활용 사례 및 이러닝 도입 전략,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8. 12. 10.,
<https://www.keris.or.kr/main/ad/pblcte/selectPblcteRMInfo.do?mi=1139&pblcteSeq=10912>, 11쪽의 표 재구성

9) 안성훈, 대학 학사운영의 효과적인 안내를 위한 챗봇 시스템 구축 방안 탐색, 창의정보문화연구 제8권 제3호, 한국 창의정보문화학회, 2022, 147쪽.

10) 권현수, 연세대·한양대 카카오톡 챗봇 도입 활발, 머니투데이, 2020. 9. 4.,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90316277498488>



<그림2> 중앙대학교 메인 홈페이지



<그림3>, <그림4> 찰리 이용 가이드와 홈 화면

중앙대학교는 2020년, 중앙대 다빈치 학습혁신원이 주관을 맡은 대화형 챗봇인 찰리(CHARLI)를 도입하였다. 대학 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해 인지 기반의 캠퍼스 생활을 돕는다는 취지로 개발됐다.¹¹⁾ 중앙대학교의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시스템인 e-Advisor와 레인보우 시스템, 포털과 연계되어 이용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 채널인 ‘중앙대학교 챗봇 찰리’를 사용하여도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 챗봇 ‘찰리’를 대상으로, 로그인이 필요 없는 기능만을 조사하였다.

<그림2>의 중앙대학교 메인 홈페이지에서 우측에 챗봇 서비스인 찰리를 이용할 수 있는 팝업 버튼이 마련되어 있다. 이를 누르면 찰리를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창이 생긴다. 창의 첫 모습은 <그림3>과 같이 나타난다. 찰리의 기능과 사용 방법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담은 가이드이다.

<그림4>은 가이드를 닫으면 보이는 찰리의 홈 화면이다. 자주 질문하는 정보를 간단한 그림과 함께 버튼형으로 제시하여 한눈에 정보를 알기 쉽게 하였다. 왼쪽 위에 표시된 KR은 기본으로 설정된 언어가 한국어임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를 누르면 EN(영어)과 CH(중국어)로도 바꿔 이용할 수 있어 다중언어를 지

11) 홍승표, 중앙대학교 대화형 챗봇 서비스 오픈. 대학혁신지원사업 일환, 잡포스트, 2020. 3. 19., <<https://www.job-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82>>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채팅으로 질문을 입력할 때, 입력한 단어가 들어간 추천 질문을 제시한다. 질문을 추천해주는 자동 완성 기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른쪽 위의 메뉴 아이콘을 누르면 총 3가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중 '그리팅 메시지 설정'은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고, '메뉴 위치'를 통해 메뉴를 화면의 좌측 또는 우측에 표시되게 바꿀 수 있다. 이는 부득이하게 한 손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때, 왼손이나 오른손 중에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쪽을 고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능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챗봇 테마' 기능은 챗봇 서비스의 전체적인 색상 테마를 변경하는 기능이다. 테마 종류는 파란색, 청록색에 가까운 녹색, 보라색, 빨간색의 4가지이다. 편의성과는 별개로, 일종의 커스터마이징을 통해 사용자의 개성을 존중하고 챗봇 이용의 자유도를 높인 기능으로 보인다.

홈 화면에서 제공되는 버튼형 정보, 즉 카테고리는 총 26가지이다. 그중에서 학식 메뉴, 학사일정, 증명서, 졸업, 장학금, 등록금, 학칙/규정, 시험 일정, 계절학기, 비대면 수업, 수강 신청, 입학 정보 등의 목록은 각 명칭에 걸맞은 학사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반면 교내연락처, 학점 조회, e-class, 강의평가, 레인보우, e-Advisor, 시간표 조회 등의 목록은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게 되어있다.

특수한 기능으로는 '날씨'와 '편의시설', '실시간 TOP 답변'이 있다. 우선 '날씨'기능은 중앙대학교의 캠퍼스(서울, 안성)가 위치한 지역의 당일 기상정보를 알려주는 기능이다. 기상청과 한국환경공단이 제공하는 자료를 기반으로 기온, 강수확률, 최저/최고 기온,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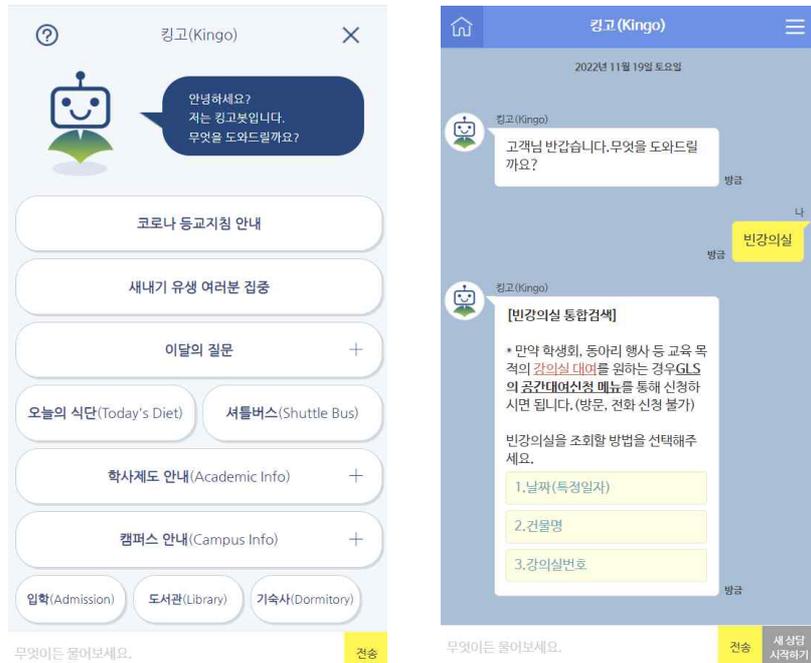
다음으로는 '편의시설' 기능이다. 프린트, 은행 등의 위치를 알려주는 편의시설 안내 서비스는 보편적인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곳에서의 편의시설 안내 기능은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우선 편의시설의 범위가 매우 넓어 용도에 따른 정보를 자세히 제공한다는 것이다. 복사실, 우체국, 은행 등의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여행사, 음식점, 제과점, 미용실, 대학교회, 꽃집, 구두수선소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사용자의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키워드를 선택하면 캠퍼스 내의 해당 편의시설의 이름, 위치, 전화번호, 영업시간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또, 방금 언급한 시설 외에도 '편의시설'에 포함하는 정보가 있다. 바로 '심장제세동기 위치'이다. 편의시설의 종류를 생각해보면 보편적인 편의점, 복사기, 은행 등을 떠올리기 쉽지만, 심장제세동기의 위치 역시 학생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정보이다. 만약 응급 상황을 마주했을 때, 심장제세동기를 가져와야 하지만 그것이 있는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 학생은 많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보를 챗봇의 기능에 포함한 것은 보편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응급 상황과 같은 조건도 고려하여, 챗봇에 필요한 내용을 구성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실시간 TOP 답변'은 앞에서 언급한 '날씨'나 '편의시설' 기능처럼 홈 화면에 아이콘과 네모난 버튼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아래쪽 질문 입력 칸 위에 나타나 있는 기능이다. 이는 챗봇에 접속한 시간을 기준으로, 이전의 약 2~4시간 동안 챗봇이 가장 많이 제공한 답변을 순서대로 보여준다. 해당 기능을 통해 챗봇을 이용한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많이 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3.2. 성균관대학교(킹고봇)



<그림5> 성균관대학교 메인 홈페이지



<그림6>, <그림7> 킹고봇의 홈 화면과 채팅창 화면

성균관대학교는 2019년, 학사 및 대학생활 관련 자동응답 챗봇 서비스인 ‘킹고봇(KingoBot)’을 도입하였다. 킹고봇의 이름은 성균관대학교의 상징인 은행나무(Ginko)에서 비롯된 킹고(Kingo)와 로봇(Robot) 두 단어가 합쳐져 만들어졌다. <그림3>을 보면 킹고봇의 이미지가 얼굴은 로봇, 몸통은 은행나무 잎으로 표현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5>에서 보이는 것처럼, 성균관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오른쪽 위에 바로 챗봇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킹고봇’ 버튼이 마련돼있다. 눌러서 실행하면 기존 홈페이지 창과는 다른, 킹고봇 서비스가 제공되는 새로운 창이 하나 더 생긴다. 실행된 창의 모습은 <그림6>과 같다. <그림6>이 킹고봇의 홈 화면이며, 화면에 보이는 버튼을 클릭하거나 맨 아래 입력 칸에 키워드를 입력해 전송하는 경우 <그림7>과 같은 채팅창 화면으로 넘어간다. 채팅창 화면에서 왼쪽 위의 집 모양 아이콘을 누르면 다시 홈 화면으로 돌아갈 수 있다.

킹고봇의 홈 화면에는 코로나 등교 지침 안내, 새내기 유생 여러분 집중, 이달의 질문, 오늘의 식단, 셔틀버스, 학사제도 안내, 캠퍼스 안내, 입학, 도서관, 기숙사라는 10가지의 카테고리로 정보가 분류되어있다. 이 중, ‘학사제도 안내’는 다시 22개의 하위 카테고리로 나누어지며, 학사과정, 학사일정, 수강 신청, 등록 및 휴·복학, 졸업제도, 교직이수, 증명서 발급 등의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학사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새내기 유생 여러분 집중’도 마찬가지로 학사정보를 안내하는 카테고리이다. 다만 ‘새내기’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정보의 대상을 신입생으로 설정하여 따로 만들어졌다. ‘학사제도 안내’와 비교하자면 학교 어플 안내, 신입생 수강 신청 FAQ, 건물/공간정보 안내, 새내기 대학 생활 안내서 등의 신입생에게 필요한 정보가 대체로 제공된다는 특징이 있다.

학사정보 외의 유형으로는, ‘오늘의 식단’은 교내 식당의 식단 정보 중심, ‘셔틀버스’는 셔틀버스 탑승 정보 중심, ‘캠퍼스 안내’는 건물과 편의시설 안내와 OT 서비스 중심, ‘입학’은 해당연도 모집 요강과 안내 사항 중심, ‘도서관’은 도서관 시설 및 자료 이용 중심, ‘기숙사’는 기숙사 신청과 입사/퇴사 관련 안내 사항 중심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의 기능으로는 ‘코로나 등교 지침 안내’와 ‘이달의 질문’이 있다. ‘코로나 등교지침 안내’는 코로나 19 증상이 발현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해야 할 지침 사항들을 안내한다. 안내 사항은 코로나19와 관련된 본인의 상황에 맞추어 정보가 제공된다. 첫째는 본인에 해당하는 경우와 동거인 및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로 나누어지며, 다음으로는 현재의 검사 결과, 격리 상황에 따른 경로를 2~4가지로 나누어 제시한다. 이를 통해 질병 유행 현황을 토대로 코로나19와 관련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는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여 정보를 반영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상황 유형을 고려하여 개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려 했다는 점을 특징으로 보았다.

또, '이달의 질문'은 시기별로 많이 물어보는 내용을 토대로 질문을 구성한 것이다. 이 글을 작성하는 현재는 12월로, 기말고사와 함께 한 학기 수업을 마무리 짓는 시기이다. 따라서 현재는 '강의평가', '성적공시', '성적 이의 신청'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여 학생들이 자주 물어보는 질문으로 하위 카테고리 구성되어있다. 이처럼 시기별로 정보의 구성을 달리하였다는 점을 통해 사용자의 입장을 중요하게 고려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3. 명지대학교(마루봇)



<그림8> 명지대학교 메인 홈페이지



<그림9>, <그림10> 마루봇 이용 가이드와 홈 화면

명지대학교는 2019년 'AI 기반 챗봇 학사지원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2021년 고도화 사업을 통해 비면 개인 맞춤형 학사지원 시스템(이하 '마루봇 시스템')으로 새롭게 선보였다. 마루봇 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명지대학교가 추진하고 있는 『Industry 4.0 MJU 혁신 행정 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2단계 사업으로

2019년 1단계 사업의 지식 범위인 대학 홈페이지의 개방형 정보 제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종합정보시스템, 학생역량통합개발시스템 등과 연계된 개인 로그인 기반의 맞춤형 학사정보를 제공한다.¹²⁾

마루봇은 명지대학교의 마스코트인 '마루'와 '로봇'을 합쳐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림8>, <그림10>에서 보이는 것 같이 마스코트 캐릭터를 활용하여 챗봇의 이미지를 제작하였다.

<그림8>의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버튼 중 명지대학교의 마스코트 '마루'가 그려진 버튼을 누르면 챗봇(마루봇)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림9>와 같이 챗봇을 이용하는 새 창에서는 가장 먼저 이용 안내 가이드를 제시한다. 마루봇에 있는 전반적인 기능, 그리고 통합 로그인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진다. 이때, 로그인 기반 챗봇을 사용하는 경우는 개인 정보 노출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주의하라는 안내 사항도 같이 제시된다.

홈 화면에서는 제공 정보를 간단한 아이콘이 그려진 버튼으로 나타내었다. 3.1.에서 다룬 중앙대학교의 챗봇 '찰리'와 유사한 구성 형식을 갖춘 것을 알 수 있다. 채팅의 가장 위쪽에는 'HOT'이라는 글자 옆으로 최근에 올라왔거나 중요도가 높은 것들 위주의 공지를 안내하고 있다. <그림10>에서 오른쪽 위의 메뉴 아이콘을 누르면 로그인을 할 수 있는 버튼과 킷 메뉴가 등장한다. 킷 메뉴는 가장 많이 이용하거나 찾는 정보인 학사일정, 학식메뉴, 부서 연락처, 도서관 이용의 4가지로 구성되어있다.

홈 화면에서 아이콘과 버튼으로 제공하는 정보의 유형은 총 36가지이다. 그중에서 시간표 검색, 도서관, 공지 사항, 학사일정, 장학금, 교내번호, 증명서, 학사 안내, 성적안내, 수강 신청 등의 유형은 위의 다른 유형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보편적인 학사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Myiweb, Myicap, e-class 등의 정보는 로그인이 필요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임을 알 수 있었다. 그 외에도 학자금, 열람실 이용, 도서 검색, 학교 식당 등의 기본적인 학사정보들이 대체로 구성되어있으나, 특징적인 기능으로는 기독교 대학이 진행하는 인성교육의 내용이 포함된 '채플 안내'와, 진로/취업 프로그램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특히 '프로그램' 기능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진로 취업 팀의 연락처 및 위치 안내뿐만 아니라 취업 상담 신청 방법, 공모전, 기업탐방, 박람회, 현장실습 프로그램, 채용정보, 취업 멘토링 등의 안내도 덧붙여 제공하여, 진로/취업에 관련된 정보가 상세하게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 중앙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명지대학교의 챗봇 시스템을 분석하였으며, 위의 분석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2> 대학의 챗봇이 제공하는 정보

12) 명지대학교, '챗봇(마루봇) 학사지원시스템' 2단계 서비스 오픈, 명지투데이, 2021. 6. 4., <<https://www.mju.ac.kr/mjukr/302/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p1a3IlMkYxNjYlMkY4MDM4MCUyRmFydGNsVmllldy5kbyUzRg%3D%3D>>

	공통으로 제공하는 정보	그 외	대학(챗봇명)
학사정보	수강 신청, 학적 변동, 교육 과정, 전공제도, 성적, 등록, 장학, 졸업, 계절수업, 시험 일정, 교내연락처, 공지 사항, IT서비스, 병역 안내	날씨 정보, 학칙/규정, 심장제세동기 위치 안내.	중앙대(찰리)
도서관	도서 대출·반납·예약, 도서관 운영 안내, 열람실 좌석 배정, 모바일 학생증	코로나19 관련 방역 안내	중앙대(찰리), 성균관대(킹고봇)
교내 식당	오늘의 메뉴, 식당 위치 안내	빈 강의실 찾기	성균관대(킹고봇)
캠퍼스	캠퍼스 맵, 건물 이름 및 위치		
셔틀버스	운영 요일 및 시간표, 정류장 안내	채플 안내	명지대(마루봇)
문서	각종 증명서 발급		
편의시설	인권센터, 학생상담, 각종 편의시설 위치 및 연락처		
기숙사	신청, 제출 서류, 입사/퇴사 안내, 기숙사 생활 정보		

종합적으로 분석해보았을 때, 학사정보, 도서관, 교내 식당, 캠퍼스, 셔틀버스, 문서양식, 편의시설, 기숙사 등의 정보는 모든 챗봇이 공통적으로 갖춘 내용이였다. 이와 같은 내용은 직접 키워드를 입력하여 찾을 수도 있지만 주로 홈 화면에 제시된 버튼을 누르면 미리 준비된 답변이 제공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학교생활에 꼭 필요하거나 하여 챗봇 구성에 필수적인 내용들임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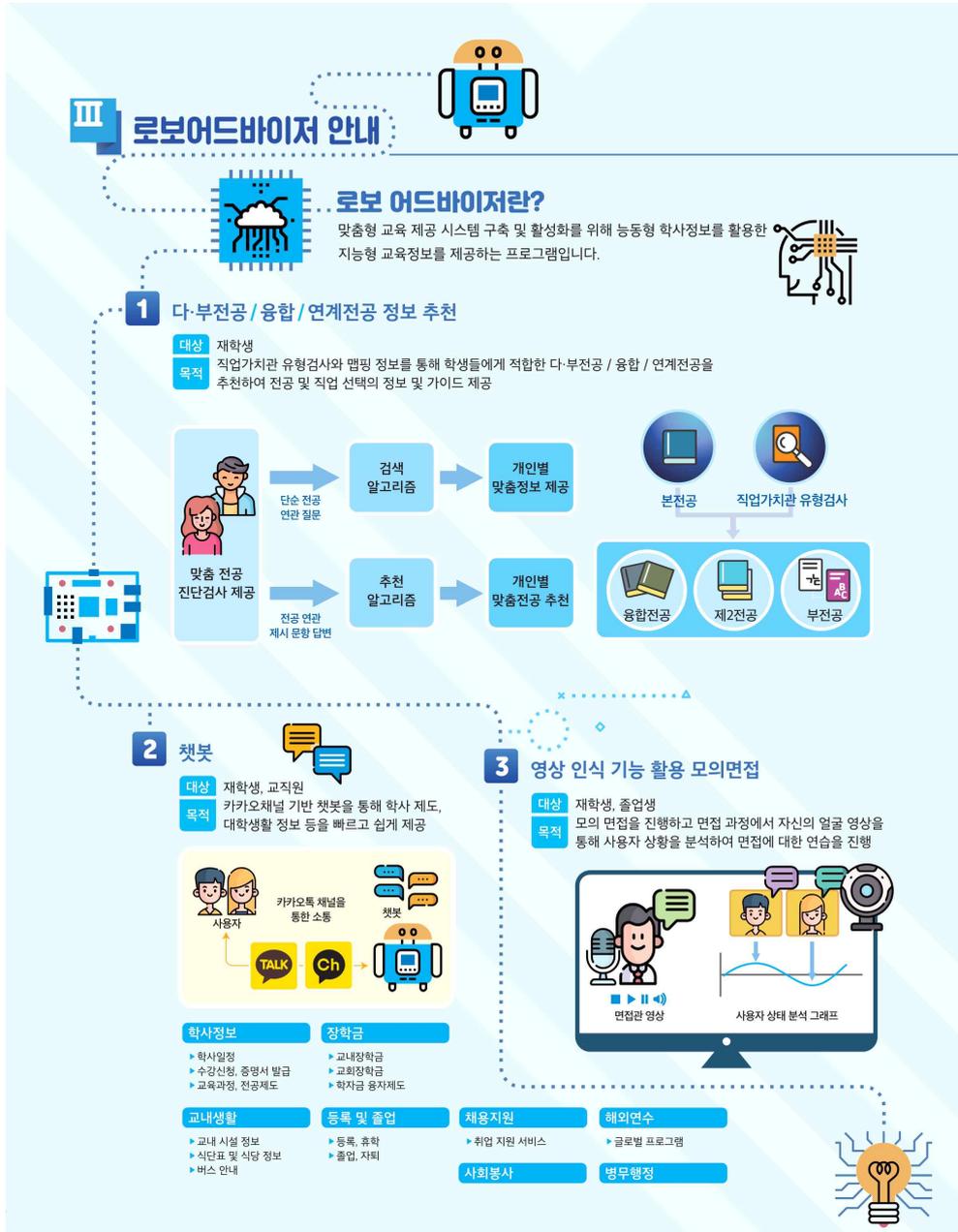
중앙대학교의 '찰리', 명지대학교의 '마루봇'과 같은 경우는 각 대학의 종합정보시스템, e-class 등과 연계된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일단 로그인 후에 챗봇을 이용하면, 시스템에 저장된 개인의 정보를 기반으로 학점을 분석하거나 시설을 예약하고 출결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더 많은 활용성 있는 기능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두홍 명지대 대학혁신지원사업운영팀장은 서비스 이용자의 니즈를 반영해 개발한 2단계 마루봇 시스템은 개인 맞춤형 학사정보의 실시간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향후 3단계 개발사업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행정 지원체계 선진화 모델을 완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¹³⁾ 결국 대학에 도입된 챗봇 서비스도 지향해야 할 목표는 개방형 정보 제공에서 개인의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상명대 인공지능 챗봇 '로보어드바이저' 분석 및 발전 방안 탐구

4.1. 로보어드바이저 분석

상명대학교에서는 지난 2021년 9월 이후로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개발 및 운영 중인 인공지능 챗봇 '로보어드바이저'의 사용에 대해 안내한 바가 있다. 로보어드바이저는 '로봇'과 '조언자(Advisor)'가 합쳐진 이름이다. 재학생들이 대학 생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하며, 전공 정보와 대학 생활 정보의 쉽고 빠른 제공, 그리고 모의 면접 기능을 갖추어 재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정보 시스템을 제공한다.¹⁴⁾

13) 명지대학교, 앞의 사이트.



<그림 11> 로보어드바이저 안내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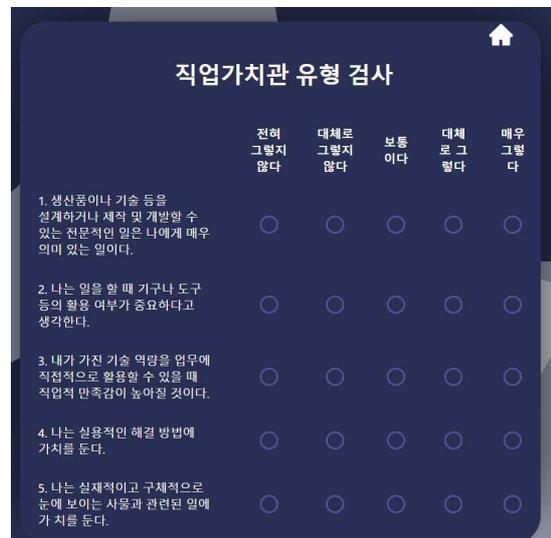
<그림 11>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로보어드바이저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다·부전공/융합/연계전공 정보 추천, 챗봇, 영상 인식 기능 활용 모의 면접)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챗봇이므로, 이후 분석은 카카오톡 채널로 만들어진 교내 정보 제공 인공지능 챗봇 ‘로보어드바이저’(테스트 버전이기 때문에 로보어드바이저T로 표기되었다.)을 대상으로 하였다.

14) 장선화, 지능형 교육정보 제공을 위한 로보어드바이저 운영, 상명대학교 통합공지, 2021. 10. 31., <<http://www.dailycc.net/news/articleView.html?idno=663834>>

15) 동진우, 로보어드바이저 운영 재안내, 상명대학교 통합공지, 2021. 9. 30., <<https://www.smu.ac.kr/lounge/notice/notice.do?mode=view&articleNo=720879>>



<그림12>, <그림13> 상명대학교 메인 홈페이지 기본(좌), 킷메뉴가 열렸을 때(우)



<그림14>, <그림15> 로보어드바이저의 홈 화면과 전공 추천 실행 화면

로보어드바이저 기능을 이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킷메뉴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그림 12>와 <그림 13>은 상명대학교 홈페이지이다. 두 그림의 차이점은 오른쪽 끝에 있는 '킷메뉴'가 닫혔는지 열렸는지로 다르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상명대학교 홈페이지를 검색해서 들어가면 <그림 12>와 같이 보인다. 이때 킷메뉴를 한번 클릭하여 열면, 로보어드바이저, 학술정보관, 웹진, 서식자료, 무선인터넷 장애 신고센터, 샘플 포털과 같은 기능을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여기서 로보어드바이저 메뉴를 누르면 바로 챗봇이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림 11>에서 소개했던 로보어드바이저의 세 가지 기능을 나타내는 안내 창이 생성된다. 이 중에서 챗봇 기능을 선택하면 챗봇을 실행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그림 12>와 <그림 13>에서 왼쪽 위, 상명대학교 로고 바로 옆에 쓰여진 '상명인' 메뉴를 클릭하여 들어가면 상명대학교 학사 정보 안내 및 이용을 위한 10개의 메뉴가 제공된다. 그중 하나가 '로보어드바이저'이다. 이를 누르면 첫 번째 방법과 마찬가지로 안내 창이 생성된다.

<그림 14>에서 로보어드바이저의 홈 화면을 살펴보면, 우선 크게 학사정보, 입학 및 졸업, 장학금, 로보어드바이저, 교내생활, 학생지원의 6가지 큰 분야로 나누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타 대학의 챗봇 분석에서 언급한 보편적인 학사정보에 관한 내용은 '학사정보', '입학 및 졸업', '장학금', '교내생활', '학생지원'이 해당하며, '로보어드바이저'(전공 추천)의 기능도 이에 유사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징적인 기능은 '로보어드바이저' 메뉴에 포함된 전공 추천 기능이다. 하위 분류는 '다(부)/연계/융합 전공 추천'과 '진학생 전공 추천'으로 나누어지며, <그림 15>에서 보이는 것처럼 직업 가치관 유형 검사를

통해 사용자에게 적절한 전공을 추천하며 관련된 정보를 안내한다. 추천된 전공 학과에 대한 설명, 전공에 맞는 SM-CDR 소개, 관련 홈페이지로의 연결 등의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직업 가치관 유형 검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전공별 직업 가치관 유형에 근거하였다는 안내만 나타나 있다는 점이 다소 부족하게 느껴졌다.

4.2. 발전 방안 탐구

타 대학의 챗봇 서비스를 분석한 내용과 상명대학교의 챗봇 서비스를 이용하며 분석한 내용을 비교한 것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활용도와 인지도가 낮은 원인을 찾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생각해보았다.

활용도가 낮은 원인은 두 가지로 생각해보았다. 첫째, 로보어드바이저가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가 넓지 않다. 챗봇이 상명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여도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많다. 챗봇의 도입 목적이 전공 정보와 대학 생활 정보의 빠른 제공임에도 불구하고, 대학 생활 정보를 챗봇만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찾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학사 일정, 수강 신청 안내, 입학 및 등록 안내와 같은 보편적인 정보는 챗봇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홈페이지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으므로, 챗봇을 이용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 어렵다.

둘째, 로보어드바이저의 접근성이 낮다. 챗봇을 이용하는 목적은 사용자가 정보를 빠르고 편하게 얻기 위함인데, 실제로 로보어드바이저를 이용하기까지의 과정은 오히려 이를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 이는 로보어드바이저가 카카오톡 채널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카카오톡 채널로 만들어진 챗봇은 사용하기 위해서 카카오톡이 우선 실행되어야 한다. 이때, 기기에 카카오톡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챗봇을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카카오톡은 대다수가 이용하는 메신저 앱이지만, 노트북과 PC와 같은 모든 기기에 깔려 있다고 전제할 순 없다. 또, 만약 카카오톡을 실행할 때, 보안을 위해 비밀번호나 패턴과 같은 암호를 설정한 경우라면 챗봇을 이용하기까지의 과정이 더 번거로워진다. 타 대학의 챗봇 서비스와 비교해보았을 때, 대체로 원래 있던 페이지에서, 챗봇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웹으로 바로 이동하게 한다. 따라서 카카오톡의 앱을 거쳐 실행되는 과정은 챗봇 실행 버튼을 눌러 챗봇을 실제로 이용하기까지 사이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고, 결국 사용자의 사용 의욕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로보어드바이저의 인지도가 낮은 원인으로도 접근성이 낮은 것을 꼽을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타 대학의 홈페이지에서는 챗봇 서비스를 글자 또는 작은 팝업으로 나타내어, 이를 클릭하면 바로 챗봇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로보어드바이저는 '상명인'과 'Quick menu(퀵메뉴)'라는 또 다른 메뉴 속에 숨겨져 있어서 바로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챗봇의 존재를 알기가 쉽지 않다.

덧붙여 로보어드바이저의 이름 또한 낮은 인지도의 원인이다. 챗봇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로보어드바이저'의 이름만 듣고 그 기능이 챗봇임을 유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챗봇 로보어드바이저'로 명시하거나 하여 그 기능을 이름에서부터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하여 제안할 발전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로보어드바이저의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한다. 학생 식당 안내, 편의시설 안내, 도서관 이용 안내, 기숙사 안내, 캠퍼스 소개 등의 정보도 기본으로 제공되는 정보에 포함한다면, 챗봇을 이용할 시에 관련된 정보를 한 번에 찾을 수 있으므로 이용도가 증가하고 챗봇의 도입 목적을 분명하게 달성한다. 또한 앞의 분석에서 제시한 것처럼, 이미 제공하고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도 제공되는 정보가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인다. 이를 위해서는 홈페이지의 메뉴 인터페이스를 수정하여 '로보어드바이저'라는 메뉴를 직접 구성하거나, 또 다르게는 카카오톡 플랫폼 외에 다른 플랫폼이나 봇 빌더를 사용하여 챗봇을 이용하기까지 과정을 단순하게 구성하도록 시도하는 방법이 있다.

셋째, 로보어드바이저에 독창적인 캐릭터를 부여한다. 타 대학의 경우, 챗봇마다 고유한 캐릭터를 부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중에는 '찰리'처럼 챗봇의 로봇의 면모를 강조한 예도 있고, '킹고봇' 같이 대

학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캐릭터를 창작하거나, '마루봇'과 같은 대학의 마스코트 캐릭터를 사용한 예도 있었다. 이처럼 챗봇에 캐릭터를 부여하여 이름, 모습과 말투 등에 변화를 주면, '대화형 챗봇'이라는 기능 또한 명시할 수 있으며, 사용자 인터페이스에도 활용하여 챗봇의 독창적인 특징을 얻고 학교의 이미지를 분명히 전달하고 홍보하는 효과까지 연계 되는 장점이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대학에 도입된 챗봇 서비스를 분석하여,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상명대학교 챗봇 로보어드바이저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챗봇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지만, 해당 개선점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방안은 제안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또, 연구 과정에서 이미 챗봇이 제시하고 있는 키워드만을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결과만 모아 분석했기 때문에, 실제 챗봇이 제공하는 넓은 정보 범위의 일부분만을 분석하는데 그쳤다.

단순히 키워드를 입력하고 해당 키워드에 대한 정해진 결과값을 출력하는 단계의 챗봇은, 자연어처리 기술과 딥러닝 기술을 적용하여 더 자유로운 대화가 가능한 다음 단계로 이미 나아가고 있다. 미래 챗봇 기술의 발전 가능성은 무한하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이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은 챗봇의 종류를 탐구하고, 발전된 종류의 챗봇을 도입하는 대학 챗봇 서비스에 대해 향후 고안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김성근·신민철·강주영, 챗봇 기술 소개 및 사례 분석, 정보와 통신 열린강좌 제35권 제2호(별책 8호), 한국통신학회, 2018, 21-28쪽.
- 안성훈, 대학 학사운영의 효과적인 안내를 위한 챗봇 시스템 구축 방안 탐색, 창의정보문화연구 제8권 제3호, 한국창의정보문화학회, 2022, 145-152쪽.
- 계보경·손정은·조희석, 챗봇(ChatBot) 활용 사례 및 이러닝 도입 전략,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8. 12. 10., <<https://www.keris.or.kr/main/ad/pblcte/selectPblcteRMInfo.do?mi=1139&pblcteSeq=10912>>
- 권현수, 연세대·한양대, 카카오톡 챗봇 도입 활발, 머니투데이, 2020. 9. 4.,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90316277498488>>
- 네이버 지식백과, 인공지능,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81914&cid=42171&categoryId=58698>>, 2022. 11. 15. 검색.
- 동진우, 로보어드바이저 운영 재안내, 상명대학교 통합공지, 2021. 9. 30., <<https://www.smu.ac.kr/lounge/notice/notice.do?mode=view&articleNo=720879>>
- 명지대학교, '챗봇(마루봇) 학사지원시스템' 2단계 서비스 오픈, 명지투데이, 2021. 6. 4., <<https://www.mju.ac.kr/mjukr/302/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p1a3IIMkYxNjYIMkY4MDM4MCUyRmFydGNsVmllldy5kbyUzRg%3D%3D>>
- 장선화, 지능형 교육정보 제공을 위한 로보어드바이저 운영, 상명대학교 통합공지, 2021. 10. 31., <<http://www.dailycc.net/news/articleView.html?idxno=663834>>
- 한경 경제용어사전, 챗봇,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https://dic.hankyung.com/economy/view/?seq=13232>>, 2022.12.10., 네이버 지식백과, 챗봇,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36264&cid=42107&categoryId=42107>>, 2022.12.10.에서 재인용.
- 홍승표, 중앙대학교 대화형 챗봇 서비스 오픈, 대학혁신지원사업 일환, 잡포스트, 2020. 3. 19., <<https://www.job-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82>>
- Microsoft Azure, 챗봇이란 무엇인가요?, <<https://powervirtualagents.microsoft.com/ko-kr/what-is-a-chatbot/>>, 2022. 11. 18. 검색
- TTA정보통신용어사전, 자연어처리, <<http://word.tta.or.kr/dictionary/dictionaryView.do?subject=%EC%9E%90%EC%97%B0%EC%96%B4+%EC%B2%98%EB%A6%AC>>, 2022. 11. 18. 검색

Grand View Research, Chatbot Market Size, Share & Trends Analysis Report By End Use (Large Enterprises, Medium Enterprises), By Application, By Type, By Product Landscape, By Vertical, By Region, And Segment Forecasts, 2022 - 2030, 2022. 6. 8., <<https://www.grandviewresearch.com/industry-analysis/chatbot-market>>

SNS중독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해결 방안_대학생을 중심으로

화학에너지공학과 김초*

목차

1. 서론
 2. SNS 중독의 개념과 현황
 3. SNS 중독의 문제점
 4. SNS 중독의 원인
 5. SNS 중독의 해결방안
 - 5.1. 개인의 노력
 - 5.2. 학교 및 정부의 노력
 6. 결론
- 참고 문헌

1. 서론

SNS란 특정한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망을 구축해 주는 온라인 서비스로¹, 기술과 스마트 기기가 발전하면서 SNS 이용률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조사한 ‘세대별 SNS 이용 현황’에 따르면 SNS 이용률은 2019년 47.7%, 2020년 52.4%, 2021년 55.1%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²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표한 ‘2018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만 6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 중 2017년부터 2018년 이내 SNS를 이용한 사람의 비율은 65.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SNS 이용 빈도 및 시간에 대해서는 만 6세 이상 SNS 이용자들의 주 평균 이용 빈도는 22회이고, 47.0%가 주 평균 20회 이상 SNS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³ 이렇듯 SNS는 현대 사회에서 일상적인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SNS 이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SNS 중독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SNS

¹이재현, 멀티미디어, 서울: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네이버 지식백과, SNS,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526243&cid=42171&categoryId=42180>>, 2022.11.14.에서 재인용

² 김윤화, 세대별 SNS 이용 현황,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2.06.15.,

<<https://www.kisdi.re.kr/report/view.do?key=m2101113025790&arrMasterId=4333447&masterId=4333447&artId=659156>>

³이해솔, 최영준, 허해녕, 2018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국문 최종 보고서, 한국인터넷진흥원, 2019.05.02.,

<https://www.kisa.or.kr/20503/form?postSeq=0011998&lang_type=KO#fnPostAttachDownload>

중 하나인 페이스북을 반대하는 단체인 ‘시크페이스북’의 조사에 따르면 2011년 페이스북 전체 사용자의 절반에 가까운 약 3억 5,000만명이 페이스북 중독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10개 나라의 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다수가 SNS와 단절되면 불안과 좌절, 고립감 등을 심각하게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⁴ 심지어 이제는 대표적 소셜미디어인 카카오토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앞 글자를 따서 습관처럼 타인의 소셜미디어를 보면서 우울함을 겪는 것을 뜻하는 ‘카페인 우울증’⁵이라는 단어가 생기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SNS 중독의 심각성을 깨닫고, 본 보고서에서는 대학생을 중심으로 하여 SNS 중독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2. SNS 중독의 개념과 현황

SNS가 일상화된 세상 속에서 SNS는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SNS는 많은 돈이나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사회적 인맥 형성 및 관리를 가능하게 해주며⁶, 인간의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와 사회적 지지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준다⁷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 때문에 SNS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SNS의 부정적인 영향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SNS 중독’이라는 용어가 나타나게 되었다. SNS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인식이 생긴 지 오래되지 않았고, 게다가 SNS의 역사 자체도 길지 않기 때문에 SNS 중독의 개념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SNS 중독을 충동 조절 장애 개념으로 볼 때, 인터넷 중독이나 스마트폰 중독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았다.⁸ 전문가들은 SNS 중독을 SNS에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한 결과 다른 사회적 활동이 위축되고 심리적 건강을 해치며 인간관계가 손상되는 현상⁹으로 보고 있으며, SNS 중독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¹⁰

이처럼 SNS를 많이 사용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일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지나쳐서 SNS 중독에 이르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다. 그로 인해 최근에는 SNS 중독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자료들도 제시되어 있다. 구체적인 문항은 다음과 같으며, 전문가들은 다음 문항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SNS 중독이라고 했다.¹¹

- ① SNS 사용에 대한 통제력이 약하다.
- ② SNS 상의 기능에 대한 강박적인 집착이 있다.
- ③ 사진을 올리거나 댓글을 쓰다가 중단되었을 때 머릿속에서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한다.
- ④ SNS가 실제로 자신의 생활에 해롭다고 인식하지만 하고 나면 시원하고 뭔가 즐거운 심리 상태가 된다.
- ⑤ SNS를 하는 행위에 대해 계속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어떤 효능이 있는지 스스로를 설득한다.

⁴오세욱, [SNS 세상은 지금] SNS 자주 쓸수록 지름신 온다, 매일경제, 2012.11.09.
<<https://www.mk.co.kr/news/business/5340364>>

⁵Pmg 지식엔진연구소, 카페인 우울증, 시사상식사전, <<http://www.pmg.co.kr>>, 네이버 지식백과, 카페인 우울증,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82636&cid=43667&categoryId=43667>>, 2022.11.14.에서 재인용

⁶ 손보영, 조효진, 대학생의 SNS 중독 양상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분석 및 영향요인 연구, 교육과학연구 제 52집 제 4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2021, 130쪽.

⁷ 김남희, 윤명숙, 성인의 SNS중독과 SNS피로감, 우울의 관계,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 46권 제 2호,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2018, 125쪽.

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6 한국미디어 패널조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6, 20쪽 <<https://www.kisdi.re.kr>>., 권예진, 김다빈, 서보경, 자아존중감 및 성인애착이 SNS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제 19권 제 1호, 한국콘텐츠학회, 2019, 48쪽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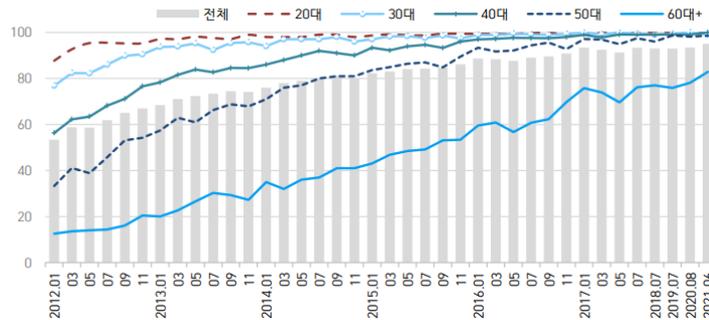
⁹ 손보영, 조효진, 앞의 글, 130쪽.

¹⁰ 정소영, 김종남, 대학생용 SNS중독경향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 19권 제 1호, 한국심리학회지, 2014, 147-166쪽., 권예진, 김다빈, 서보경, 자아존중감 및 성인애착이 SNS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제 19권 제 1호, 한국콘텐츠학회, 2019, 48쪽에서 재인용.

¹¹ 홍구표, 대학생의 SNS중독경향성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남보람, SNS 중독, 낮은 자존감을 의심하라(자가진단법), 국방과 기술 제 45호, 한국방위산업진흥회, 2017, 180-181쪽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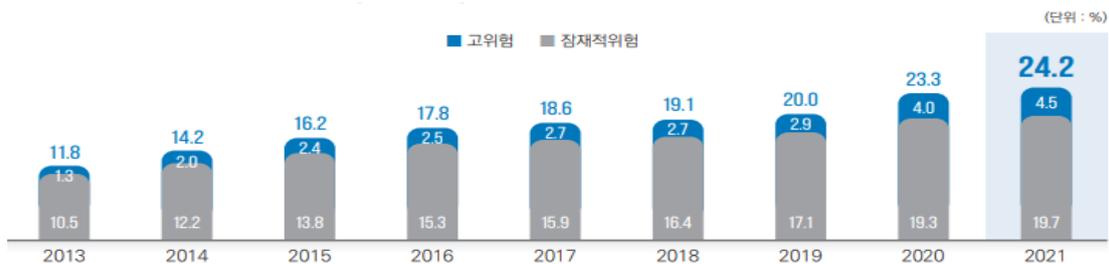
<사진 1. SNS 중독 자가진단 문항>¹²

이러한 SNS 중독에 이르게 된 것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그에 따라 스마트폰 사용률도 높아지고, 이로 인해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졌기 때문이다. 미국 시장조사기관인 퓨 리서치가 세계 27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보급률은 95%이며,¹³ “한국 갤럽이 2021년 6월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에게 현재 스마트폰 사용 여부를 묻은 결과 95%가 ‘사용한다’고 답했다. 우리나라 성인의 스마트폰 사용률은 2012년 1월 53%에서 그해 6월 60%, 2013년 2월 70%, 2014년 7월 80%, 2016년 하반기 90%를 돌파했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93%로 거의 변함없었다.”¹⁴



<사진2. 한국 갤럽에서 조사한 스마트폰 사용률 2012-2021: 연령별(%)>¹⁵

위에서 말했듯이 이러한 높은 스마트폰 사용량이 스마트폰에 대한 높은 의존으로 이어져서 SNS 중독에까지 이르고 있다. 2018년에 시장조사 전문 기업인 엠브레인 패널파워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디지털 기기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하다’라는 문항에 응답자의 82.2%가 동의했으며, ‘현대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SNS 활동이 꼭 필요하다.’라는 문항에는 응답자의 30.7%가 동의하며 SNS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보여줬다.¹⁶ 그뿐만 아니라 한국 지능 정보 사회 진흥원에 기재된 ‘2021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24.2%로 스마트폰 이용자 2020년 대비 0.9% 상승했으며,¹⁷ 사진 3의 파란색으로 표시된 고위험군을 보면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스마트폰 사용자 중 고위험군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¹² 위의 글 180-181쪽에서 재인용.

¹³ 고영태, 국민 95%가 스마트폰 사용...보급률 1위 국가는?, KBS NEWS, 2019.02.11.,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135732>>

¹⁴ 한국 갤럽, 2012-2021 스마트폰 사용률&브랜드, 스마트워치, 무선이어폰에 대한 조사, 한국갤럽조사연구소, 2021.06.03.,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2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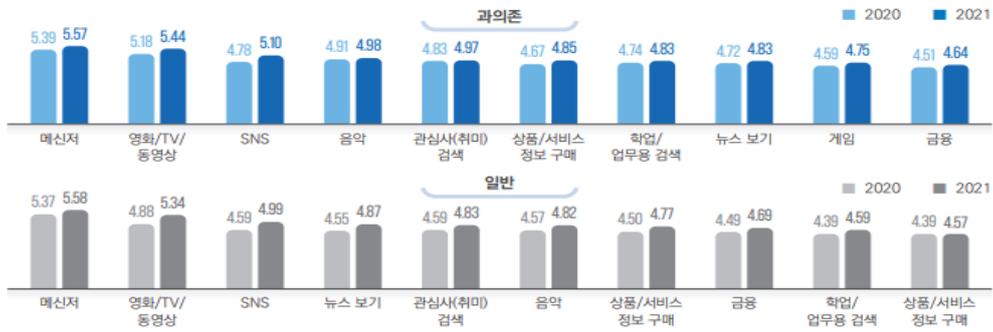
¹⁵ 위의 글

¹⁶ 김지민, 김혜선, ‘남의 계시글 보고 우울증 빠져’...SNS 중독, 심각한 우울증으로 변진다, 매거진한경, 2019.01.31., <<https://magazine.hankyung.com/job-joy/article/202102165157d>>

¹⁷ 유영선, 2021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03.24., 34쪽, <https://www.nia.or.kr/site/nia_kor/ex/bbs/View.do?cbldx=65914&bcldx=24288&parentSeq=24288>

<사진 3. 연도별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비율>¹⁸

또한 사진 4의 그래프를 보면 과의존 위험군과 일반 사용자군 모두 메신저, 영화/TV/동영상, SNS를 가장 많이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진 4. 과의존 및 일반 사용자군의 콘텐츠 이용 정도(7점 기준, 콘텐츠 이용자만 응답)>¹⁹

사진 3과 사진 4의 그래프를 통해 주로 모두 메신저, 영화/TV/동영상, SNS를 이용하는 고위험군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이에 따라 SNS 이용률도 증가하여 SNS 중독률 또한 증가했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 SNS 중독의 문제점

SNS 중독의 문제점으로는 크게 3가지가 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업무 및 학업적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경기도 D대학교 학생 2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대학생의 ‘중독 경향성’, 해야 할 일을 불필요하게 미루는 것을 말하는 ‘지연 행동’, 실패 결과에 대해 건설적인 태도로 반응하는 경향성을 말하는 ‘학업적 실패 내성’의 수준과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SNS 중독 경향성은 다소 높은 수준이며, 학업적 지연 행동은 낮은 수준, 학업적 실패 내성은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 SNS 중독 경향성이 높을수록 학업적 지연 행동은 높아졌고, 학업적 실패 내성은 낮아졌다. 이 결과는 SNS를 과다 사용할 경우 학업적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학교생활 적응이 어렵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SNS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²⁰ 또한 표 1은 128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직접 실시한 설문 조사의 질문 중 복수 응답이 가능한 ‘SNS 중독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102명이 ‘일상생활 지장/ 업무 및 학업 효율 저하’라고 응답했다.

<표 1. 직접 실시한 설문조사의 ‘SNS 중독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에 대한 응답>

질문: SNS 중독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응답	응답 수(명)	응답 수(명)/128(명) × 100	응답 수(명)/전체 응답 수(명) × 100
일상생활 지장/ 업무 및 학업 효율 저하	102	79.7%	39.2%
수면 장애 및 육체적 피로감 등	79	61.7%	30.4%
정신적 질환 발생(우울증 등)	28	21.9%	10.8%

¹⁸ 위의 글, 39쪽.

¹⁹ 위의 글, 39쪽.

²⁰ 송성숙, 함현진, 대학생의 SNS 중독경향성이 학업적 실패내성에 미치는 영향-학업적 지연행동의 매개효과, 사회융합연구 제5권 제3호, 대구과학대학교 국방안보연구소, 2021, 34쪽.

오프라인에서의 사회성 저하	27	21.1%	10.4%
가족 간의 대화 단절	22	17.2%	8.5%
기타	2	1.6%	0.8%

이를 통해 논문뿐만 아니라 대학생들 스스로도 SNS 중독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학업적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수면 장애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과의존 위험군은 일반 사용자군에 비해 SNS 이용 시간이 더 길고 수면 장애와 신체적 불편함을 겪기도 하며 이에 따른 삶의 만족도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²¹ 또한 미국 피츠버그 의학대학원 연구팀이 2014년 19~32세 사이의 청년 1,7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SNS를 이용하는 사람들 중 30%는 심각한 수준의 수면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해당 연구팀이 조사 결과를 통해 SNS 사용과 수면장애의 연관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 SNS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사람일수록 수면 장애의 위험이 크고 심한 경우 SNS 활동량이 가장 적은 사람보다 수면 장애 위험이 두 배로 높아지며, 주중에 규칙적으로 SNS를 이용하는 사람은 불규칙적으로 가끔 확인 하는 사람에 비해 수면 장애의 위험이 최대 세 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팀 총책임자 브라이언 프리맥 교수는 “사진을 올리거나 채팅을 하는 등의 행위는 사람의 인지 능력과 심리적 안정감을 각성시켜 잠을 방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²² 그뿐만 아니라 표 1에 따르면 128명 중 79명(61.7%)이 SNS 중독의 문제점으로 ‘수면 장애 및 육체적 피로감’을 선택하며,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대학생들도 이에 대해 동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SNS 중독의 세 번째 문제점은 우울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 지역에 소재한 4개의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SNS 중독 경향성과 우울의 정도에 대한 관계에 대해 박민정과 정미영은 “SNS 중독 경향성은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NS 중독 경향성이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²³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SNS 이용 시간의 증가는 사회적 고립을 의미하며 가족 및 친밀한 관계에 있던 사람들과의 교류를 감소시켜 외로움과 우울을 초래한다. SNS 이용자가 우울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피 방법으로 SNS를 사용함으로써 우울 증상이 발현될 수 있고, 이미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이용자는 더욱 시간을 SNS에 할애하여 증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²⁴ 이에 대해 2014년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 대학교 연구팀은 ‘페이스북을 오래 사용할수록 우울감을 쉽게 느끼고 자존감도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미국 미주리 과학기술 대학교 연구팀도 2015년 ‘소셜미디어에 많은 시간을 쓸수록 우울증을 앓을 확률이 높다’는 결과를 내놨다.²⁵

4. SNS 중독의 원인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하는 SNS 중독의 원인을 총 2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원인은 ‘다양한 콘텐츠 제공으로 인한 스마트폰 사용량 증가’이다. 사진 3과 사진 4의 그래프를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스마트폰을 통해 얻게 되는 다양한 정보나 콘텐츠로 인해 스마트폰 사용량이 증가하게 되고,

²¹ 정현민, 2018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19.03.28., <https://www.nia.or.kr/site/nia_kor/ex/bbs/View.do?cbldx=65914&bcldx=20876&parentSeq=20876>, 이선경, 김정규, 불안정성인애착과 SNS중독경향성의 관계 -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 정서·행동장애연구 제 35권 3호, 한국정서행동장애학회, 2019, 318쪽에서 재인용.

²² 김수민, “잡은 SNS사용 불면증 유발”, 매일경제, 2016.01.28., <<https://www.mk.co.kr/news/it/7201065>>

²³ 박민정, 정미영, 대학생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중독경향성과 우울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문제의 매개효과, 지역사회간호학회지 제 30권 1호,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 2019, 44쪽.

²⁴ 위의 글, 44쪽.

²⁵ 심지우, 나도 혹시, ‘카.페.인’ 우울증?, 조선일보, 2017.03.15.,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20/2017022001115.html>

스마트폰을 통해 SNS가 아닌 다른 콘텐츠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SNS까지 사용하게 되면서 스마트폰 사용량 증가에 따라 SNS 사용량도 같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용석 외 4명은 “디지털 기기가 주는 편리함과 다양한 콘텐츠(예: 게임, 도박, 쇼핑, 음란물 등)는 디지털 기기의 과다 사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였다.²⁶ 또한 앞에서 봤듯이 퓨 리서치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보급률은 95%이며,²⁷ 이러한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로 인해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인터넷 사용 및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접근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늘어나면서 SNS 사용 시간이 늘어나고 이러한 것이 SNS 중독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표 2는 대학생 128명을 대상으로 직접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복수 응답이 가능한 ‘SNS 중독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94명(73.4%)이 ‘다양한 콘텐츠 제공’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의 제공이 SNS 중독을 야기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직접 실시한 설문조사의 ‘SNS 중독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에 대한 응답>

질문: SNS 중독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응답	응답 수(명)	응답 수(명)/128(명) × 100	응답 수(명)/전체 응답 수(명) × 100
다양한 콘텐츠 제공	94	73.4%	38.7%
사회적 관계에 대한 욕구	60	46.9%	24.7%
관심과 사랑을 받고자 하는 욕구	36	28.1%	14.8%
유행에 뒤처진다는 두려움	22	17.2%	9.1%
과시욕구	20	15.6%	8.2%
기타	11	8.6%	4.5%

SNS 중독의 두 번째 원인은 ‘사회적 관계에 대한 욕구와 외로움’이다. 외로움은 친밀함의 결핍이나 사회적 관계의 결핍과 관련된 개념으로 SNS 중독의 원인으로 고려되는 요인 중 하나이다. 외로움은 개인의 사회적 관계가 잘 충족되지 않는 상태로, 전문가들은 SNS 사용자들이 현실에서 관계에 대한 욕구가 높지만 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경우에 SNS에 집착하고 중독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으며,²⁸ “대인관계 욕구에 대한 일반적인 표출 행동이 SNS 과몰입으로 이어질 수 있”²⁹다고 하였다. 즉,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수록 현실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불만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SNS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응답자 중 46.9%의 대학생들이 SNS 중독의 원인은 ‘사회적 관계에 대한 욕구’라고 응답하며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대학생들도 이에 대해 동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SNS 중독의 해결방안

5.1. 개인의 노력

SNS 중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SNS 이용률을 감소시켜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SNS 이용 시간을

²⁶ 김용석, 서영주, 윤선목, 이해진, 최은선, 한국어판 디지털 중독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보건사회연구 제 41권 제 3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4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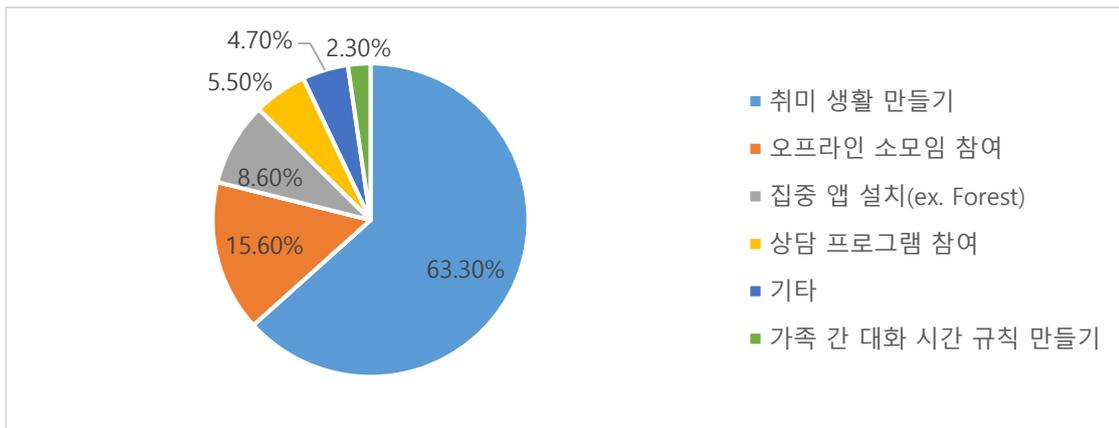
²⁷ 고영태, 국민 95%가 스마트폰 사용...보급률 1위 국가는?, KBS NEWS, 2019.02.11.,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135732>>

²⁸ 손보영, 조효진, 앞의 글, 132쪽.

²⁹ 이정화, 외로움이 SNS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성별에 따른 대인관계 지향성의 조절 효과,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20쪽.

인지하고 좋아요 수나 알람을 통제하는 등의 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다. SNS 이용 시간을 줄이기 위한 실험을 진행한 민윤기, 장치은 등은 SNS에 이용 시간을 증가시키는 변수로는 좋아요 수의 표시 여부, 푸시 알람 이용 여부, SNS 이용 시간 인지 여부를 설정하고,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20~30대 남자 12명, 여자 12명을 대상으로 3주간 관찰했다. 그 결과, 사용 시간을 직접 인지한 그룹이 247.06% 개선율을 보였고, 좋아요 수를 보이지 않게 통제된 그룹이 133.33%, 푸시 알람을 통제된 그룹이 120%의 개선율을 보였다.³⁰ 이를 통해 SNS 이용 시간 인지하고, 좋아요 수 및 알람을 통제하는 것이 SNS 사용 시간을 감소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NS 중독의 원인’에서 얘기했듯이 다양한 콘텐츠의 제공으로 인해 스마트폰의 사용량이 늘어나고 그 과정에서 SNS 이용 시간도 같이 증가하며 SNS 중독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를 해결하려면 SNS 이용 시간을 감소시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SNS 이용 시간과 관련된 스마트폰 사용량 자체도 줄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사용량에 영향을 주는 스마트폰 과의존을 해결해야 한다. 스마트폰 과의존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대체 여가 활동’을 하는 것이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10,000가구 내 만 3~69세 스마트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2021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이용자의 과의존 해소를 위한 개인의 해소 방안으로 응답자의 47.1%가 ‘대체 여가 활동의 활용’이라고 응답했으며,³¹ 아래의 그래프 1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직접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128명 중 63.3%의 응답자가 SNS 중독 해결 방법으로 ‘취미 생활 만들기’라고 응답했다. 스마트폰으로 사용하는 다양한 콘텐츠들이 주는 재미를 취미 생활이 주는 즐거움으로 대체한다면 스마트폰 과의존을 해소하며 스마트폰 사용량을 줄일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SNS 이용 시간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래프 1. 직접 실시한 설문조사의 ‘SNS 중독 해결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에 대한 응답>

5.2. 학교 및 정부의 노력

앞서 SNS 중독의 원인을 분석하면서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수록 현실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불만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SNS를 많이 사용하며, SNS 중독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대인 관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 및 정부 차원에서 대학 내 친구와의 관계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를 강화할 수 있는 집단 상담 및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 홍구표, 전해성이 서울을 포함한 3개 지역에서 3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친구의 지지가 대인 관계 문제를 낮춰주는 보호 요인으로써 작용했으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친구와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경험되는 사회적 지지가 대인 관계 문제를 낮추어 주는 완충 역할을 해 줄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³²

³⁰ 김형신, 민윤기, 반영환, 장치은, SNS 우울증 예방을 위한 인터랙션 연구: 좋아요, 푸시 알람, 시간 인지를 중심으로, 한국 HCI 학회 논문지 제 17권 제 3호, 한국HCI학회 논문지, 2022, 39-41쪽.

³¹ 유영선, 앞의 글, 114쪽.

³² 홍구표, 전해성, 대학생의 SNS중독경향성과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제 37권 제 1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56-57쪽.

따라서 집단상담 및 멘토링과 같은 친구와의 교류와 소통이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여 경쟁이 아닌 안전한 환경 속에서 신뢰와 친밀감 등의 서로 간의 지지를 기반으로 서로를 탐색하고 차이를 이해하고 수용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³³ 또한 다른 전문가들도 “교수자 및 동료 학습자와 다양한 지지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³⁴라고 하며 이와 같은 해결 방안에 동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외에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SNS 중독 성향의 설문지를 통한 조사 결과 자신이 중독 성향을 인지하지 못한 대학생들이 대부분”³⁵인 것을 보아 학교 및 정부 측에서는 SNS 중독 위험군 발굴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시스템도 제공해야 할 것이다.

6. 결론

SNS는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하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SNS를 과다 사용할 경우 사생활 노출, 시간 허비, 업무나 학업의 효율 저하, 부정적 감정 등이 발생하며 SNS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 SNS 중독은 학업적 상황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수면 장애 등의 신체적 불편함을 야기하며, 우울감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SNS 중독의 원인은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로 인해 스마트폰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접근도 증가하면서 스마트폰의 사용량이 증가한 것과 현실에서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의 충족 욕구와 외로움이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SNS 중독의 해결 방안은 개인의 노력과 학교 및 정부의 노력으로 나눌 수 있다. 개인의 차원에서는 SNS 이용 시간을 감소시키기 위해 SNS 이용 시간을 인지하거나, SNS의 좋아요 수를 보이지 않게 하거나, 푸시 알람을 통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에 그치지 않고 스마트폰 자체의 사용량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체 여가 활동을 활용하여 스마트폰의 재미를 다른 즐거움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학교 및 정부의 차원에서는 현실에서의 대인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집단상담 및 멘토링과 같은 친구와의 교류와 소통이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여 경쟁이 아닌 안전한 환경 속에서 신뢰와 친밀감 등의 서로 간의 지지를 기반으로 서로를 탐색하고 차이를 이해하고 수용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추가적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중독 성향을 인지하는 것을 돕기 위해 SNS 중독 위험군에 대한 발굴 프로그램 혹은 시스템도 제공해야 할 것이다.

SNS가 일상화된 시대에 살면서 다양한 SNS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는 중요한 소통 수단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SNS를 무작정 그만두는 것이 옳다고는 하지 못한다. 그러나 과도한 SNS 사용은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적절히 판단하여 SNS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이미 SNS 중독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면 무작정 SNS 이용을 중단하기보다는 본 보고서에서 제시했듯이 SNS 사용을 야기하는 요소들을 하나씩 통제하거나 새로운 취미 등의 대체재를 찾아 SNS 이용률을 낮추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의 프로그램이나 상담을 이용하여 SNS의 부정적 영향에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등 SNS를 건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 보고서는 기존의 선행 연구들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결과를 도출하지는 않았지만, 기존의 SNS 중독에 대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재분석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또한 개별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기존의 연구에서는 주로 언급되지 않았던 SNS 중독의 원인이나 해결 방안을 도출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후 본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새로운 연구를 진행하면 기존의 연구에서는 알 수 없었거나 중요시 여겨지지 않았던 내용들에 대해 알게 되는 등 학문적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문헌

강현욱, 대학생의 SNS중독성향과 사회적지지, 외로움, 건강지각, 대인관계의 관계와 신체활동을 통한 치료

³³ 위의 글, 57쪽.

³⁴ 송성숙, 함현진, 앞의 글, 34쪽

³⁵ 강현욱, 대학생의 SNS중독성향과 사회적지지, 외로움, 건강지각, 대인관계의 관계와 신체활동을 통한 치료 레크리에이션 적용, 한국체육과학회지 제 22권 제 1호, 한국체육과학회, 2013, 130쪽.

레크리에이션 적용, 한국체육과학회지 제 22권 제 1호, 한국체육과학회, 2013, 121-133쪽.

고영태, 국민 95%가 스마트폰 사용…보급률 1위 국가는?, KBS NEWS, 2019.02.11.,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135732>

권예진, 김다빈, 서보경, 자아존중감 및 성인애착이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제 19권 제 1호, 한국콘텐츠학회, 2019, 47-59쪽.

김남희, 윤명숙, 성인의 SNS중독과 SNS피로감, 우울의 관계,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 46권 제 2호,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2018, 120-149쪽.

김수민, "잡은 SNS사용 불면증 유발", 매일경제, 2016.01.28., <https://www.mk.co.kr/news/it/7201065>

김용석, 서영주, 윤선목, 이혜진, 최은선, 한국어판 디지털 중독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보건사회연구 제 41권 제 3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39-54쪽.

김윤화, 세대별 SNS 이용 현황,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2.06.15.,
<https://www.kisdi.re.kr/report/view.do?key=m2101113025790&arrMasterId=4333447&masterId=4333447&artId=659156>

김지민, 김혜선, '남의 게시물 보고 우울증 빠져'…SNS 중독, 심각한 우울증으로 변진다, 매거진한경, 2019.01.31., <https://magazine.hankyung.com/job-joy/article/202102165157d>

김형신, 민윤기, 반영환, 장치은, SNS 우울증 예방을 위한 인터랙션 연구: 좋아요, 푸시 알람, 시간 인지를 중심으로, 한국HCI 학회 논문지 제 17권 제 3호, 한국HCI학회 논문지, 2022, 37-42쪽.

남보람, SNS 중독, 낮은 자존감을 의심하라(자가진단법), 국방과 기술 제 455호, 한국방위산업진흥회, 2017, 180-181쪽.

네이버 지식백과, 소셜다이닝,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48805&cid=43667&categoryId=43667>,
 2022.11.14.

네이버 지식백과, 카페인 우울증,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82636&cid=43667&categoryId=43667>,
 2022.11.14.

네이버 지식백과, SNS,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526243&cid=42171&categoryId=42180>,
 2022.11.14.

박민정, 정미영, 대학생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중독경향성과 우울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문제의 매개효과, 지역사회간호학회지 제 30권 1호,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 2019, 38-46쪽.

송성숙, 함현진, 대학생의 SNS 중독경향성이 학업적 실패내성에 미치는 영향_학업적 지연행동의 매개효과, 사회융합연구 제5권 제3호, 대구과학대학교 국방안보연구소, 2021, 29-38쪽.

손보영, 조효진, 대학생의 SNS 중독 양상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분석 및 영향요인 연구, 교육과학연구 제 52집 제 4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2021, 129-151쪽.

심지우, 나도 흑시, '카.페.인' 우울증?, 조선일보, 2017.03.15.,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20/2017022001115.html

오세욱, [SNS 세상은 지금] SNS 자주 쓸수록 지름신 온다, 매일경제, 2012.11.09.,
<https://www.mk.co.kr/news/business/5340364>

유영선, 2021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03.24.,
https://www.nia.or.kr/site/nia_kor/ex/bbs/View.do?cbIdx=65914&bcIdx=24288&parentSeq=24288

이선경, 김정규, 불안정성인애착과 SNS중독경향성의 관계 -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 정서·행동장애연구 제

35권 3호, 한국정서행동장애학회, 2019, 317-334쪽.

이정화, 외로움이 SNS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성별에 따른 대인관계 지향성의 조절 효과,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이해솔, 최영준, 허해녕, 2018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국문 최종 보고서, 한국인터넷진흥원, 2019.05.02.,
<https://www.kisa.or.kr/20503/form?postSeq=0011998&lang_type=KO#fnPostAttachDownload>

한국 갤럽, 2012-2021 스마트폰 사용률&브랜드, 스마트워치, 무선이어폰에 대한 조사, 한국갤럽조사연구소, 2021.06.03.,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217>>

홍구표, 전해성, 대학생의 SNS중독경향성과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제 37권 제 1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34-67쪽.

영어 간판 증가에 대한 인식 및 문제점 연구 : 서울의 도시 간판 문화를 중심으로

영어교육과 김푸*

목차
1. 서론
1.1. 연구 목적 및 의의
1.2. 연구 방법
2. 현재 서울 상권 속 간판들의 양상
2.1. '강남대로'의 간판 속 텍스트의 유형
2.2. '어울마당로'의 간판 속 텍스트의 유형
2.3. '개포로'의 간판 속 텍스트의 유형
3. 영어 간판에 대한 인식
4. 영어 간판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1. 영어 간판과 현재 도시 간판의 문제점
4.2. 도시 간판 문화의 개선 방안 및 지향점
5. 결론
참고 문헌

1. 서론

1.1. 연구 목적 및 의의

한국의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문득 건물들의 간판이 눈에 들어오는 날이 있을 것이다. 간판이 없는 건물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러한 간판들은 현재 한국어 간판, 한국어와 타 언어가 섞인 간판, 영어로만 쓰인 간판 등 다양한 언어 방식의 옥외 광고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영어로만 구성된 간판들을 보면 뜻을 해석하기 쉬운 간판들도 있지만,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해석이 불가능하며 읽는 방법 또한

모르겠는 간판이 존재한다. 특히 영어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에게는 수많은 영어 간판이 그저 그림같이 읽을 수 없는 외국 간판처럼 다가온다.



<그림1>‘라브리크 서울’의 간판¹

<그림1>은 SNS에서 유명한 음식점인 ‘라브리크 서울’이다. 이와 같이 SNS ‘핫 플레이스’ 중 상당수가 한글 표기가 없는 영어 간판을 달아 놓았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오직 외국문자로만 표기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장 제12조에서는,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併記)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² 즉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가 아닌 경우 한글과 영어를 동시에 표기해야 하나, 그렇지 않은 간판들이 널려 있다. 또한 그런 간판들에 대한 이행 강제 및 처벌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간판 면적이 5m제곱 이하인 경우 지자체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법의 맹점을 이용해 한글 병기 없이 영어로만 써 놓은 간판들이 즐비하다. 따라서 점점 늘어나는 영어 간판으로 알 수 있는 이른바 한글간판 기피현상이 발생하는 현재 한국 사회에 대한 제대로 된 현상 파악 및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현재 서울 상권 속에 있는 간판들의 양상을 살펴보고, 그에 관한 사람들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 후, 영어

¹ 채교당, 강남맛집 | 라브리크 서울, 2022.10.12., https://blog.naver.com/kodaeng_chae/222898303934

²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3.8.

간판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과 지향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먼저 현재 서울 상권 속 간판들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강남대로’, ‘어울마당로’, ‘개포로’ 총 세 곳의 거리를 직접 방문하여 건물에 부착된 간판들의 사진을 스마트폰을 이용해 찍었다. 그 후 구체적인 이름을 ‘카오맵’ 등 지도 어플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하였으며, 영어로만 표기된 간판, 영어와 국어가 혼합되어 있는 간판, 국어로만 표기된 간판, 영어로 표기되어 있으며 한국어가 병기되어 있는 간판, 한국어 영어 외의 언어로 표기되어 있는 간판으로 유형을 분류해 표로 정리하였다.

그 후 영어 간판의 인식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관련 논문의 설문조사를 인용하고,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설문조사를 직접 실시하였다. ‘올리브영’, ‘GS25’, ‘스타벅스’ 세 브랜드에 관하여 영어로 쓰인 간판과 한국어로 쓰인 간판을 나열해 보여준 후, 둘 중 어느 언어로 된 간판을 선호하는지 각각 조사하였다. 비교적 간단한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참여도와 시각성을 높이기 위해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이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대 초중반의 지인 60여 명이 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이 후 설문조사 응답자 일부에게 인터뷰를 진행하여 의견을 얻었다.

2. 현재 서울 상권 속 간판들의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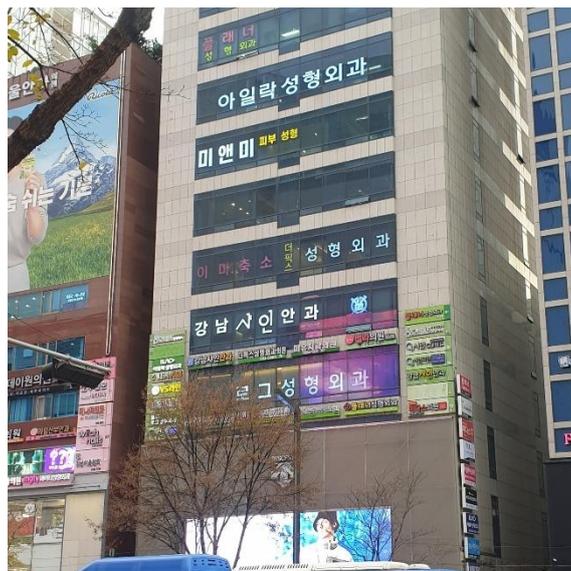
먼저 현재 서울 상권의 주요 거리 속 간판들의 양상을 살펴보겠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에 있는 강남대로, 어울마당로, 개포로 세 거리의 간판들을 분석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건물에 부착된 간판들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였다. 그 후 간판에 쓰인 언어 유형에 따라 분류해 표로 정리하였다.

2.1. ‘강남대로’의 간판 속 텍스트의 유형

유형	개수	비율
영어 표기만	29	22.1%
영어 국어 혼합	13	9.9%
국어 표기만	67	51.1%
영어 표기+한국어 병기	17	13%
기타 언어	5	3.8%
합계	131	100%

<표1>강남대로의 간판의 유형

먼저, 신논현역 6번 출구에 있는 남영빌딩을 기준으로 파고다타워까지 강남대로를 따라 있는 양쪽의 건물들에 있는 간판을 조사하여 <표1>과 같이 정리하였다. 총 131개의 간판 중, 67개의 간판이 국어로만 표기되어 있어 절반이 넘는 비율을 차지하지만, 일명 ‘성형 메카’ 강남역의 특성상 대부분의 간판이 성형외과의 간판이었다. 또한 ‘웰빙의원’, ‘원데이치과’, ‘쉬즈한의원’, ‘그린컴퓨터아카데미’, ‘리스펙성형외과의원’, ‘방탈출세븐클루스’ 등 한국어 표기가 맞지만 영어 발음 그대로를 한국어로 표기하여 이 간판들이 정말 한국어 표기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간판들이 많았다.



<그림2>성형외과로 가득 찬 유화빌딩의 간판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인 22.1%를 차지하는 유형은 현행법에 어긋나는 영어로만 표기된 간판이었다. 주

로' CGV', 'OLIVE YOUNG', 'DESCENT' 등 자주 접해보는 유명한 브랜드의 매장의 간판이 영어로만 표기된 경우가 많았다. 2022년 11월에 새롭게 리모델링한 올리브영의 간판과 건물 외관에는 한국어 표기를 찾아볼 수 없으며, 화면이 계속 바뀌는 건물 전광판에 한글 표기 '올리브영'이 간혹 아주 작게 나오곤 한다.



<그림3>'올리브영 강남타운점'의 외관

13% 비율을 드러낸 유형은 '영어표기+한국어 병기' 유형이다. 이 유형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장 제12조를 따르고 있는 간판인데, 주로 영어 표기가 한국어 표기보다 배 이상으로 커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한국어 표기가 어디 있는지 잘 알아채기 힘들다. <그림4>을 보면 커다란 영어 간판 아래에 한국어로 작게 '베스킨라빈스 휴게음식점'을 표기해 두었다.



<그림4> '베스킨라빈스 강남대로점'의 외관

영어와 한국어가 혼합되어 있는 간판으로는 'AAA유학', '강남W치과' 등 다양한 업종이 있으며, 기타 언어를 가진 간판 또한 'CHICOR', 'MUJI' 등 다양한 업종이 존재한다.

종합해 볼 때, 51%로 과반수가 넘는 '국어 표기만 있는 유형'이라도 영어 발음을 한국어로 표기해 두어 정말 한국어 간판인지 의문이 드는 간판이 많았으며, 특히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현행법을 어기는 '영어 표기만 있는 간판'은 22.1%로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현행법을 지키는 '영어 표기와 더불어 한국어 표기를 한 유형'은 13%로 '영어 표기만 있는 간판'보다 9.1%p만큼 더 적었다.

2.2. '어울마당로'의 간판 속 텍스트의 유형

유형	개수	비율
영어 표기만	20	28.6%
영어 국어 혼합	2	2.9%
국어 표기만	30	42.9%
영어 표기+한국어 병기	17	24.3%
기타 언어	1	1.4%
합계	70	100%

<표2> '어울림마당로'의 간판 유형

다음으로는 홍대입구역 부근에 있는 거리인 '어울마당로'에 있는 간판들을 조사하였다. 홍대입구관광안내소를 기준으로 '홍대패션거리'와 '홍대앞걸고싶은거리'를 지나는 어울마당로의 간판을 분류하였다.

앞선 '강남대로'와 마찬가지로 '국어로만 표기되어 있는 간판'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지만 42.9%로 줄어들었으며, '영어로만 표기된 간판'은 28.6%로 증가하였다. 또한 '어울마당로'는 '강남대로'와는 달리 '영어 국어 혼합 간판'의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지만, '영어 표기+한국어 병기' 간판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즉 영어가 들어간 간판의 비중이 과반수를 넘기는 결과를 낳았다.

'국어로만 표기되어 있는 간판'은 '영터리생고기', '역전우동', '뜻밖애 양꼬치' 등 음식점의 간판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이 중에서는 일명 '젊음의 랜드마크 홍대입구역'에 걸맞게 개성 있는 외관과 간판들이 보

였다.³



<그림5>'뚝딱에 양꼬치'의 외관 및 간판

'영어로만 표기된 간판'은 'Photo Signature', 'VINTAGE SALON', 'JAMES CHICAGO PIZZA', 'MUMU FILM' 등 다양한 업종의 간판들이었다. 이들 역시 특허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현행법을 어기게 된다.

'영어 표기+한글 병기 간판' 또한 'PhoMons', 'HOLLYS COFFEE', 'Devil Dice' 등 여러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역시 '강남대로'의 간판들과 마찬가지로 영어 표기보다 매우 작은 글씨로 한글 병기를 하였다.



<그림6>'BURGERRY 흥대'의 영어 간판

<그림7>'BURGERRY 흥대'의 한글 병기

2.3. '강남대로'의 간판 속 텍스트의 유형

³ 홍석동, [그 역에 가고 싶다] 젊음의 랜드마크 '홍대입구역', 2022.10.20., <https://www.etoday.co.kr/news/view/2183560>

마지막으로 ‘CAFE THE BELLA’를 기준으로 시작해 ‘개포지구대’까지 이어지는 ‘개포로’의 일부분의 간판들을 조사하여 간판의 유형을 <표3>과 같이 분류하였다.

유형	개수	비율
영어 표기만	15	13.8%
영어 국어 혼합	5	4.6%
국어 표기만	63	57.8%
영어 표기, 한국어 병기	25	22.9%
기타 언어	1	0.9%
합계	109	100%

<표3> ‘개포로’의 간판 유형

주로 주택가이며 작은 상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개포로’에서는 ‘국어로만 표기된 간판’이 세 곳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아직 영어 간판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던 옛날부터 계속 자리 잡고 있던 상점들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이다. 그럼에도 영어가 들어간 간판이 41.3%를 차지하고 있어 앞의 두 곳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주로 ‘영어로만 표기된 간판’은 ‘CAFE THE BELLA’, ‘MAGO’ 등 7년 안에 새로 생긴 상점들이며, ‘국어로만 표기된 간판’은 주로 7년 전에 자리 잡은 상점들이 대부분이었다. ‘영어로만 표기된 간판’과 ‘영어표기+한국어 병기’유형 간판이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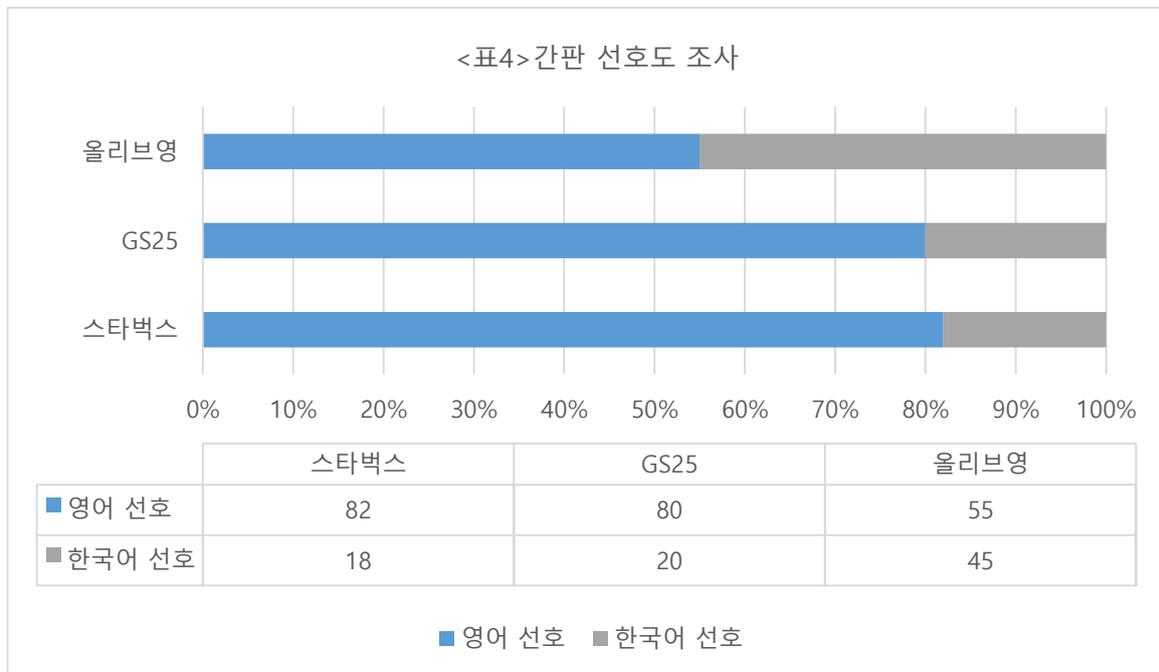
3. 영어 간판에 대한 인식

앞서 말했듯이 SNS ‘핫 플레이스’들은 영어 간판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중 상당수가 한글 표기가 없는 영어 간판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듯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영어 간판이 실제 마케팅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의문을 가지며, 영어 간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보았다.

먼저, 국내 영어 간판이 주변과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지, 바람직한 영어 간판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관해 조사한 설문조사 자료를 살펴보자. 국내의 영어간판 622개를 대상으로 ‘주변과의 조화 정도’, ‘해당 간판에 대한 선호 여부와 이유’ 등을 조사한 이 설문에서는 현재 국내의 영어 간판에 대해 그다지 좋은

반응을 얻지 못 했다. 업종별 영어 간판이 주변 환경이나 건물과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선 절반에 못 미치는 42%가 긍정적인 반응을, 19%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즉 절반 이상의 영어 간판이 주변과 조화로움을 조성하지 못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다. 응답자들은 바람직하지 못한 영어 간판에 대한 이유로 ‘개성이 없고 모호한 업종 표현’, ‘형태의 획일화와 미적 부조화’, ‘많은 글자수’ 등을 언급하였다. 개성이 없고 업종 구분이 모호하며, 형태와 미적으로도 조화롭지 못하다는 것이다.⁴

앞선 설문조사는 영어 간판의 주변과의 조화 정도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번에는 영어 간판에 대한 선호도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어 간판과 영어 간판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유명 외국 브랜드인 ‘스타벅스’, 유명 국내 브랜드인 ‘올리브영’과 ‘GS25’의 간판에 대해서, 한글 표기와 영문 표기로 된 간판을 나란히 두고 비교해 선호도를 조사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⁴ 이영화, 행위공동체 내의 언어·사회·문화: 국내외 사례를 통한 영어간판의 오류분석과 사회·문화적 양상,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6), 2019.

<표4>은 약 60여 명이 참여한 선호도 조사에서 영어 간판과 한국어 간판 중 어느 것을 선호했는지 정리해준다. ‘스타벅스’의 경우, 62명 중 ‘영어 간판 선호’가 82%(52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GS25’ 역시 64명 중 ‘영어 간판 선호’가 80%(51명)로 스타벅스와 마찬가지로 영어 간판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보인다. 반면, ‘올리브영’의 경우, 66명 중 ‘영어 간판 선호’는 55%(36명)으로 과반수를 넘겼지만 앞선 두 경우처럼 압도적인 비율을 지니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가 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선호도 조사에 사용된 사진과 함께 분석해보겠다.



<그림8>스타벅스 한글 간판⁵⁶

<그림9>스타벅스 영어 간판⁷⁸

<그림8>와 <그림9>을 통해 스타벅스 간판에 대한 선호도를 설문 조사 응답자에게 질문하여, 대다수의 응답자에게 영어 간판을 더 선호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개인 인터뷰를 통해 영어 간판을 선호한 이유에 대해 물어본 결과, ‘스타벅스’는 본래 해외 기업으로 영어 간판이 더 익숙하고 친숙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원래 영어인 ‘Starbucks’를 한국어 ‘스타벅스’로 번역해 써서 어색한 면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즉 브랜드의 친숙도를 중시했다는 것이다. 그 외에 글자의 크기 및 글씨체에 주목한 의견 또한 존재했다. <그림8>의 아래쪽 간판의 경우, 글씨체가 낡아 보이고 딱딱해 보여 브랜드의 이미지와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해 선호

⁵ 강남역치과, [강남역8번출구]일본치과의사Dr.요시노옥스치과방문기그두번째, 2011.4.2., <https://blog.naver.com/chulmbae/30105865145>

⁶ 오키나와갈매기, 스타벅스 한글간판 일호점? 인사동거리, 2012.6.6., <https://blog.naver.com/bgynoy1/90144782897>

⁷ 메이빈, 스타벅스 동두천DT점에서 드라이브 스루 이용하기, 2016.9.18, <https://blog.naver.com/maybin89/220814085689>

⁸ Camni80, 레드디어 영화관, 2012.8.12, <https://blog.naver.com/camni80/120166100591>

를 거의 얻지 못한 반면, <그림9>의 아래쪽 간판의 경우 ‘스타벅스’ 로고와 더불어 깔끔한 폰트를 사용하여 세련되고 멋진 느낌을 주어 더 호감이 간다고 답변했다. 반면 한국어 간판을 선호한 응답자 중 특히 <그림 8>에서 위쪽 사진의 간판을 선호한 응답자는 해당 간판의 필기체 같은 글씨체가 분위기 좋은 카페처럼 보이게 만들었다고 답했으며, 그 외 한국어 간판 선호 응답자들은 해외 브랜드 기업의 간판을 한국어로 번역해 한글에 대한 아름다움을 유발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통해 같은 언어의 간판임에도 글씨체의 크기 및 종류에 따라 선호도가 갈린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10>GS25의 한글간판과 영어간판⁹¹⁰

<그림10>을 통해 GS25의 한글간판과 영어간판의 선호도를 비교해보았는데, 국내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영어 간판 선호’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 역시 영어 간판에 대한 친숙도가 높았기 때문이며, 간판의 깔끔함 역시 선호도 결정에 큰 역할을 차지했다. 같은 브랜드임에도 지어진 연도와 주변 환경 및 건물의 오래된 정도에 따른 주변 미관이 달라 깔끔함의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그 점이 응답자에게 크게 작용하였다. 더불어 한글 간판의 한글 글씨체는 다소 기본 글꼴 같이 보여 딱딱한 느낌을 주어 선호를 얻지 못했다.

⁹ 룬재골, 여방(여름방학이라는 뜻 ♪), 2020.9.1., <https://blog.naver.com/xhwofbs311/222076767665>

¹⁰ 루피, 서촌데이트코스: 경복궁역 데이트 서촌 골목길 산책, 2015.6.23., <https://blog.naver.com/kerri90/220398922229>



<그림11>올리브영의 한글간판과 영어간판¹¹¹²

<그림11>를 통해 ‘올리브영’의 한글간판과 영어간판의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올리브영’은 비교적 한글 간판 선호도가 높은 편이었는데, 그 원인 역시 글씨체에 있었다. 영어 간판이 더욱 친숙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세 브랜드 중 ‘올리브영’만 한글간판을 선택한 응답자들이 존재했는데, 그들은 다른 두 브랜드와 달리 ‘올리브영’의 한글 간판의 글씨체가 글자사이의 간격이 좁아 아기자기하고, 네온등을 이용해 비교적 선명한 느낌을 주어 한글 간판을 더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글자 간의 간격 및 네온등 사용 여부 또한 응답자들의 선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호도 조사를 통해 사람들의 간판에 대한 인식은 단순히 간판의 언어로 선호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닌, 간판의 친숙도, 글씨체의 크기, 색상 및 간격, 종류, 네온등 사용 여부 등이 사람들의 인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영어 간판만을 내세운다고 해서 긍정적인 마케팅 효과를 볼 수 없으며, 주변 경관 및 간판 디자인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4. 영어 간판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4.1. 영어 간판과 현재 도시 간판의 문제점

¹¹ 강총이, 아인슈페너맛집 아키비스트&광화문나들이, 2020.2.10., <https://blog.naver.com/butterfly7s/221803459313>

¹² 메이, 마나의레모나습관! 레모나 먹고 레드벨벳 아이린 팬싸가자!, 2019.3.20., <https://blog.naver.com/v992800/221492817832>

앞서 국내의 영어 간판의 양상과 영어 간판에 대한 인식을 통해 알아본 내용을 토대로 영어 간판의 문제점을 두 가지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설명해보고자 한다.

첫째, 영어 간판은 ‘간판’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인 정보 습득에 어려움을 준다. 본디 간판이란 기관, 상점, 영업소 따위에서 이름이나 판매 상품, 업종 따위를 써서 사람들의 눈에 잘 띄이게 걸거나 붙이는 표지이다.¹³ 따라서 간판은 해당 영업소의 업종을 써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람들은 간판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는데, 영어 간판은 이러한 기능을 차단시킨다. 이는 당연하게도 간판으로 인한 해당 상점, 기관의 광고 효과를 발휘하지 못 하게 한다. 이에 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다.



<그림 12>에그드랍 한티역점의 외관¹⁴

<그림 12>은 대치동에 있는 ‘에그드랍’이다.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매장 벽면에는 영문 표기만 있으며 한글 표기는 찾아볼 수 없지만, ‘에그드랍’이라는 상표는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로 별도로 한글표기를 하지 않아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매장의 직원에 따르면, 간혹 연세가 있는 배달기사분들은 영어를 배우지 못해 매장을 찾지 못하고 길을 헤매서 시간을 지체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한다. 이러한 일은 실제 영어를 못 읽는 이들, 특히 노인층에서 빈번히 일어나며 한글 표기가 전혀 없어 매장이 어디인지조차 알지

¹³ “간판”, 표준국어대사전

¹⁴ 에그드랍 한티역점 업체사진, 네이버지도,
<https://map.naver.com/v5/entry/place/1699532769?c=14143666.3770595,4508642.7834516,13,0,0,0,dh&placePath=%2Fhome&entry=pl>

못해 답답함을 호소하는 일이 상당하다.¹⁵ 이러한 문제는 결국 간판의 주된 목적인 광고 효과에도 영향을 미쳐 매점의 매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문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외국어가 세련되었다는 인식이 존재해 무분별한 영어 간판 증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언어 자체만을 기준으로 영문 간판의 선호도는 한글 간판과 크게 다르지 않기에 영어 간판의 증가를 억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된다.

두번째로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가 문제가 된다. 앞선 설문조사에서 보았듯이, 절반 이상의 영어 간판이 주변과 조화로움을 조성하지 못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영어 간판이 증가하면서 한글로만 구성된 간판들을 지닌 거리들의 전통이 파괴된다. 서울의 북촌 한옥 마을의 경우, 서울시가 전통 한옥주거지로 조성 중이던 마을이지만, 한옥마을에 상업시설이 증가하면서 전통의 모습이 퇴색되고 있다.¹⁶ 현재는 북촌 한옥마을은 영어 간판을 가지고 있는 매장들이 많이 들어서 있다. 웨이팅이 길기로 유명한 ‘런던 베이글 뮤지엄’ 또한 이 곳에 위치해 있으며, 간판과 메뉴 모두 영어이다. 한국의 전통 한옥의 모습을 기대하며 온 관광객들에게 이러한 영어 간판들은 우리 고유 문화의 손실과 함께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로 이어져 실망감을 안겨준다.



<그림 14> ‘런던베이글뮤지엄 안국점’의 외관¹⁷

¹⁵ 김성호, 외국어 간판 달면 더 있어 보이나요? 한글 병기 노력조차 안해, 파이낸셜뉴스, 2020.10.8., <<https://www.fnnews.com/news/202010081753066626>>

¹⁶ 김호영, 서울 북촌, 한옥마을 맞아?, 매일경제, 2010.08.01., <https://www.mk.co.kr/news/culture/4754131>

¹⁷ 선실버, 안국역 런던 베이글 뮤지엄 웨이팅 없이 한 번 만에 성공!, 네이버 블로그, 2022.2.8., <https://blog.naver.com/hyeeun9617/222642135432>

4.2. 도시 간판 문화의 개선 방안 및 지향점

영어 간판이 즐비하는 현재 서울에서 도시 간판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 가장 첫번째로 고려해야 할 것은 관련 법률 강화 및 처벌 규제 확고이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장 제12조 처럼 구체적인 법률이 존재하지만 처벌 및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간판들은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두번째, 영어 간판을 한국어 간판으로 바꾸는 ‘선구자’로서의 존재가 필요하다. 개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모두를 바꾸기 힘들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선구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교정교열 전문가 정혜인씨는 공공기관인 전주시립도서관은 디자인 때문에 무분별한 외국어 간판을 계속해서 사용해 오고 있었다고 말했다. ‘전주 도서관의 역사’라고 표현하면 누구나 읽기 편한데 ‘Jeonju's library history’로, 보고문학, 기록문학을 모아 놓은 곳은 ‘르포르타주 및 기타’라고 써 놓아 일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덧붙여 설명하였고, 이에 대해 전주시립도서관 관계자는 조금씩 한국어로 바뀌가고 있다고 답했다.¹⁸ 이렇듯 영어 간판을 쓰고 있던 공공기관들이 모범이 되어 한국어 간판으로 바꾸는 것은 영어 간판이 늘어가고 있는 사회를 서서히 멈출 수 있는 발판이 된다.

마지막으로 한글 간판 디자인을 위한 공모전 및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주로 한글 간판을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은 글씨의 크기, 글씨체 등 디자인을 고려하지 않고 간판을 사용하며, 영어로 된 브랜드명을 사용하는 대기업들은 디자인에 자금을 투여해 공을 들여 질적인 차이가 발생한다.¹⁹ 비록 비용적인 면은 해결해 줄 수 없지만,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간판을 디자인할 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한글 간판을 위한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다. 그 예로 서울 종로구에서 개최한 ‘2022년 좋은 간판 공모전’이 있다. 참가 자격은 종로구 소재 점포주, 옥외광고업자, 광고디자이너 등이며 대상은 도시 경관을 향상시키는 한글 간판, 종로의 정체성을 돋보이게 하는 간판이다. 수상작은 구에서 제작하는 교육자료, 전시자료 등으로 활용될 수 있어 한글 간판을 디자인할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더불어 종로구는 2008년을 시작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서울시 역시 ‘좋은간판 공모전’을 통해 매해 지역 특색을 살리는 수상작을 내고, 거리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변화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공모전과 사업

¹⁸ 김열, 이동민, "가장 한국적인 도시가 웬 말"...외국어 간판이 점령한 전주, 뉴시스, 2022.08.19.,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817_0001981782&clD=10808&plD=10800

¹⁹ 김현주, [일상톡톡 플러스]"한글간판 쓰면 촌스럽다고?", 세계일보, 2018.1.13., <<https://www.segye.com/newsView/20180112003824>>

을 통해 보다 쉽게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한글 간판을 제작할 수 있다.²⁰

5. 결론

지금까지 서울의 도시 간판 문화를 중심으로 영어 간판 증가에 대한 인식 및 문제점을 탐구해보았다. 현재 서울 상권 속에는 영어가 들어간 간판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영어로만 이루어진 간판 역시 적지 않은 비율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영어 간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본 결과, 언어적인 면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으며 오히려 글씨체의 크기 및 종류 등 디자인에 따라 선호가 갈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어 간판은 간판이 가지고 있는 기능인 정보 습득에 어려움을 주며, 주변 경관과 조화롭지 못하다는 인식을 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한국의 간판 문화는 영어 간판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옥외광고물법에 대한 개정과 처벌을 강화해야 하며, 영어 간판을 사용하는 공공기관 역시 한국어 간판으로 바꾸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또한 한글 간판 디자인을 위한 공모전과 사업을 추진해 소상공인들이 아름다운 거리를 위한 한글 간판 디자인에 더욱 힘을 쏟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참고문헌

이영화, 행위공동체 내의 언어·사회·문화: 국내외 사례를 통한 영어간판의 오류분석과 사회·문화적 양상,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6), 2019

강남역치과, [강남역8번출구]일본치과의사Dr.요시노옥스치과방문기 그 두 번째, 2011.4.2.,
<https://blog.naver.com/chulmbae/30105865145>

깡총이, 아인슈페너맛집 아키비스트&광화문나들이, 2020.2.10.,
<https://blog.naver.com/butterfly7s/221803459313>

루피, 서촌데이트코스: 경복궁역 데이트 서촌 골목길 산책, 2015.6.23.,
<https://blog.naver.com/kerri90/220398922229>

윤재폴, 여방(여름방학이라는 뜻), 2020.9.1.,
<https://blog.naver.com/xhwofbs311/222076767665>

²⁰ 김동선, "아름다운 한글간판, 작품이 되다"...종로구, '좋은간판' 공모전, 2022.06.20,
<https://dai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837335>

메이, 마나의레모나습관! 레모나 먹고 레드벨벳 아이린 팬싸가자!, 2019.3.20.,

<https://blog.naver.com/v992800/221492817832>

메이빈, 스타벅스 동두천DT점에서 드라이브 스루 이용하기, 2016.9.18.,

<https://blog.naver.com/maybin89/220814085689>

에그드랍 한티역점 업체사진, 네이버지도,

<https://map.naver.com/v5/entry/place/1699532769?c=14143666.3770595,4508642.7834516,13,0,0,0,dh&placePath=%2Fhome&entry=plt>

오키나와갈매기, 스타벅스 한글간판 일호점? 인사동거리, 2012.6.6.,

<https://blog.naver.com/bgynoy1/90144782897>

채꼬댕, 강남맛집| 라브리크 서울, 2022.10.12.,

https://blog.naver.com/kodaeng_chae/222898303934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3.8.

표준국어대사전, '간판'

홍석동 기자, [그 역에 가고 싶다] 젊음의 랜드마크 '홍대입구역', 2022.10.20.,

<https://www.etoday.co.kr/news/view/2183560>

Camni80, 레드디어 영화관, 2012.8.12.,

<https://blog.naver.com/camni80/120166100591>

김성호, 외국어 간판 달면 더 있어 보이나요? 한글 병기 노력조차 안해, 파이낸셜뉴스, 2020.10.8.,

<https://www.fnnews.com/news/202010081753066626>

김열, 이동민, "가장 한국적인 도시가 웬 말"...외국어 간판이 점령한 전주, 뉴시스, 2022.08.19.,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817_0001981782&cID=10808&pID=10800

김동선, "아름다운 한글간판, 작품이 되다"...종로구, '좋은간판' 공모전,

2022.06.20., <https://dai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837335>

김호영, 서울 북촌, 한옥마을 맞아?, 매일경제, 2010.08.01.,

<https://www.mk.co.kr/news/culture/4754131>

김현주, [일상톡톡 플러스]"한글간판 쓰면 촌스럽다고?", 세계일보, 2018.1.13.,

<https://www.segye.com/newsView/20180112003824>

선실버, 안국역 런던 베이글 뮤지엄 웨이팅 없이 한 번 만에 성공!, 네이버 블로그, 2022.2.8.,

<https://blog.naver.com/hyeeun9617/222642135432>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 문제점 및 해결방안 연구

교육학과 서채*

목차	
1.	서론
1.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1.2.	연구의 필요성
2.	학교폭력예방교육에 대한 인식
2.1.	인식조사
2.1.1.	조사대상
2.1.2.	조사 방법
2.1.3.	조사내용
2.2.	인식조사 결과
3.	학교폭력 원인과 학교폭력예방교육의 문제점
3.1.	학교폭력의 원인
3.1.1.	폭력성(공격성)
3.1.2.	또래집단에서의 서열 의식
3.2.	학교폭력예방교육의 문제점
3.2.1.	내용적 측면
3.2.2.	형식적 측면
4.	해결방안
4.1.	교과과목과의 연계수업
4.1.1.	독서교육과 문학치료학
4.1.2.	통합예술교육
4.2.	청소년 윤리의식 함양
5.	결론
	참고 문헌

1.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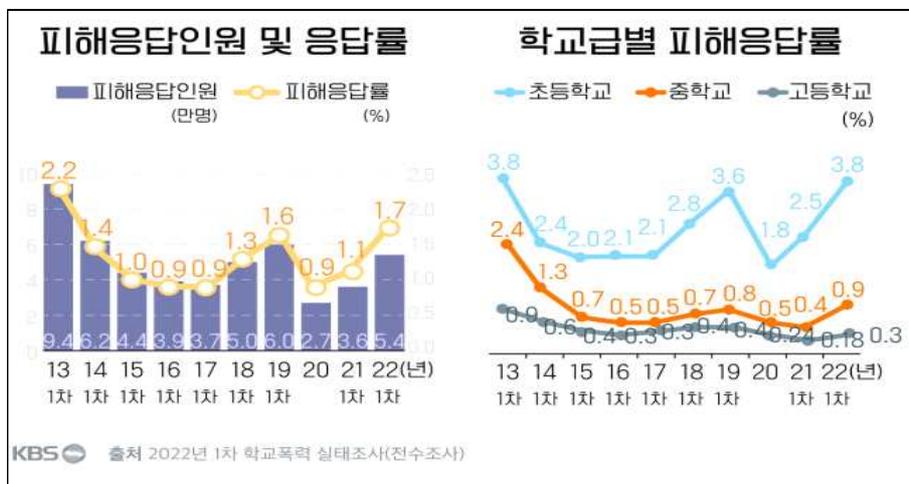
1.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우리나라 교육 과정에는 다양한 비교과 교육이 있다. 비교과 교육이란 학생 생활 기록부에 등재된 사항 중 교과 및 성적 영역 이외의 모든 영역의 교육을 의미한다. 교과 과정 속에서 여러 지식을 배우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교육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사실 학생들이 교과 과정 이외에도 실생활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를 교육 과정 속에서 접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하는 교육 중 하나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이다. 학생들은 학교생활에 있어서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서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교육과 더불어 수많은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도 진행되며, 학교폭력 실태조사 또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학교와 정부 측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되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우리는 이러한 학교폭력 실태를 통해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학생들에게 매년 꾸준히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폭력의 발생은 모순적이다. 올바른 방법으로 교육이 진행된다면, 또 이 교육의 목적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위와 같은 결과는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과연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학생들에게 폭력의 심각성을 알릴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인지를 살펴볼 여지가 있으며, 만약 학교폭력예방교육이 그저 형식적으로 진행된다면 이에 대한 해결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에 대해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중 학교폭력예방교육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포하여 현실적인 측면에서 해당 교육을 바라볼 계획이다.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공간이자, 작은 사회로서 작용하는 ‘학교’라는 공간이 학생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학교의 본질적인 역할이자 교육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을 파악하고, 지금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학교폭력의 문제를 더 잘 예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본 연구에서 모색하려고 한다.



<그림 1>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교육부, 2022)

1.2. 연구의 필요성

형식적으로 학교에서 학교폭력예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교나 정부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것은 예방 교육의 문제와는 별개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예방 교육이 매년 실시되는데도 문제 현상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은 교육의 역할과는 관련이 없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연구에 들어가기에 앞서 교육의 효과 및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

교육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무한한 잠재능력, 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능력, 그리고 학습하고자 하는 욕구를 바탕으로 지적 수월성을 성취시켜 주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교육의 본질은 인간의 인지적·정의적 특성의 바람직한 변화와 사회적 적응능력을 길러 주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박성익, 2014: 134). 이처럼 교육은 아직 배움의 단계에 있는 학생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장하며 자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교육으로 충분히 학생의 가치관이나 사고의 폭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근거로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된 능력을 올바르게 형성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방법으로 교육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리하여 학교폭력예방교육도 학생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한 교육으로서 효과적으로 실시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이 학업 성취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주입식 교육으로 교과 내용을 암기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음에도 비교과 교육이 학생에게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학생이 자신의 행동 기준을 정하거나 가치관을 확립할 때 학교 교육에서 배우고 느꼈던 내용을 토대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성장에 있어서 교육은 바람직한 잣대의 역할을 맡아야 하며, 학교생활에 있어서 기초적인 부분인 학교폭력 근절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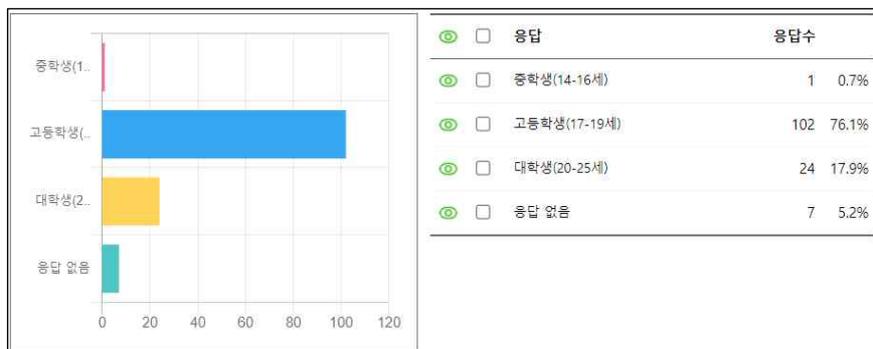
2. 학교폭력예방교육에 대한 인식

2.1. 인식조사

2.1.1. 조사대상

본 연구는 서울권역에 있고, 최소 1번 이상 학교폭력예방교육을 교육받은 학생(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134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각각 중학생(14~16세) 1명, 고등학생(17~19세) 102명, 대학생(20~25세) 24명, 교사 7명으로 구성된다. 연구대상자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고등학생은 서울 해성여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섯 개의 학급 학생들이고, 대학생은 서울권역에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이렇듯 연구대상을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정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다양한 연령대에 속한 학생에 따라 본 교육에 대해 인식하는 관점이 다르므로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폭넓게 연구대상을 선정하였다. 또한 현재 교육을 받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그리고 이미 여러 차례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학생이 가진 생각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교육을 받는 학생과 이미 모든 교육을 수료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광범위한 학생의 연령대별로 다양한 학교폭력예방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다음은 조사 대상자의 연령대를 파악한 조사 결과이다.



<그림 2> 조사 대상자의 연령대 관련 설문조사(1번 문항)

2.1.2. 조사 방법

학교폭력예방교육에 대한 인식을 알아볼 수 있는 문항을 토대로 네이버폼 이용하여 양식을 만든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앞서 제시했듯, 현재 서울권역에 있는 중학생부터 대학생으로 한정하였으며, 2022.11.14.부터 2022.11.18.까지 5일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기간에는 SNS에 링크를 기재하여 대학생의 참여를 홍보했으며, 현직 고등학교 교사 다섯 명에게 해당 학급에 설문조사의 링크를 올려 답장을 받는 식으로 진행하였다.

2.1.3. 조사내용

문항은 총 7문항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선택하는 6개의 객관식 문항과 응답자의 생각을 묻는 1개의 서술형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객관식 문항은 질문에 대해 각각 5개의 응답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정도(매우 그렇다/그렇다/보통이다/아니다/매우 아니다)를 파악하는 유형과 인식(질문에 따른 다양한 답변으로 구성됨)을 파악하는 유형으로 이루어졌다. 자세히 살펴보면 응답자의 개인적인 정보가 되는 나이와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여부에 관한 질문을 시작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에 관한 생각을 묻는 응답으로 설문조사지를 제작하였다.

설문조사 문항은 크게 4개(응답자의 학교폭력 경험, 학교폭력예방교육에 대한 인식, 수강한 후 응답자의 행동, 서술형 문항)로 나누어서 설명될 수 있으며 이를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다.

<표 1> 설문조사 문항

응답자 학교폭력 경험	1.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2. 귀하의 학교폭력 경험에 대해 답변해주세요.
학교폭력예방교육에 대한 인식	3. 학교폭력예방교육을 듣고,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할 수 있었습니까?
	4.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수강하고 난 후, 실제로 학교폭력이 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강한 후 응답자의 행동	5. 학교폭력예방교육을 듣고, 실제로 학교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6.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수강한 후, 나는. (교육을 후배들에게도 추천한다/심각성 정도만 인지할 수 있었다./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서술형 문항	7. 학교폭력예방교육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약술해주세요.

2.2. 인식조사 결과

① 조사 대상자의 연령대

앞서 2.1.1.에서 제시하였다. 고등학생이 가장 높은 참여율을 기록하였으며, 대학생이 그 뒤를 차지하였다.

② 조사 대상자의 학교폭력 경험

다음은 조사 대상자가 학교폭력을 어떤 방식으로 경험을 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에 관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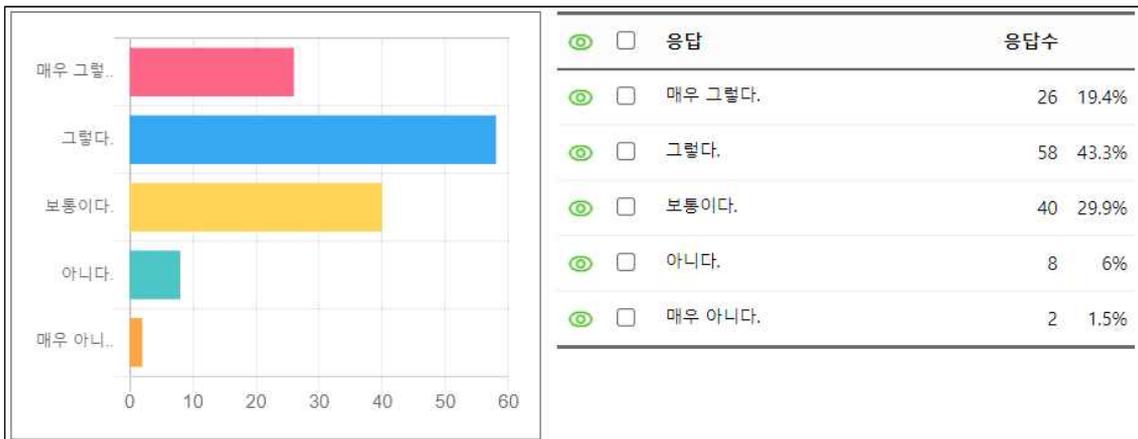


<그림 3> 조사 대상자의 학교폭력 경험 관련 설문조사(2번 문항)

조사 대상자의 학교폭력 경험에 관한 질문에는 다수의 학생(104명, 77.6%)이 관련 경험이 없었다고 답하였고, 학교폭력 상황을 방관한 간접 경험이 있다는 학생(16명, 11.9%)과 피해 경험이 있다는 학생(13명, 9.7%)이 그 뒤를 이었다. 가장 응답률이 높은 항목과 그 외의 응답률의 큰 차이는 본 연구의 중심이 되는 연구대상자들의 대부분은 학교폭력 경험을 직접 경험한 학생보다 경험이 없는 학생이며, 이들이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해 바라보는 관점을 중심으로 연구 결과가 나타날 것임을 의미한다.

③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수강한 후, 심각성을 인지한 정도

다음은 조사 대상자가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수강한 후, 학교폭력에 대해 어느 정도의 경각심을 느낄 수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에 관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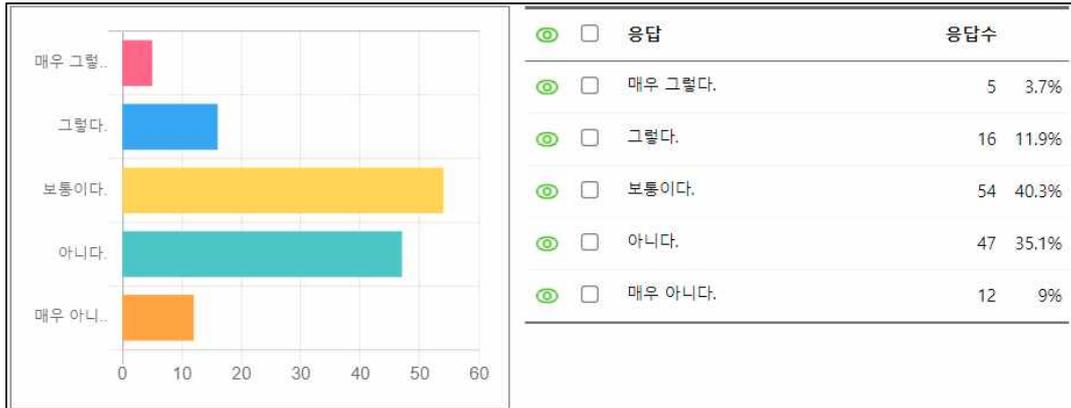


<그림 4> 조사 대상자의 학교폭력예방교육 관련 설문조사(3번 문항)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된 부분은 매년 학생들에게 예방 교육을 시행하지만 그런데도 계속해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실태 때문이다. 따라서 심각성 인지 정도 문항을 통해서 학생들이 과연 해당 문제에 대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그 결과 교육을 통해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답한 학생이 43.3%로 가장 많았고 매우 그렇다고 답한 학생 또한 19.4%로 매우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런 결과는 현재 학교폭력예방교육이 학생들에게 해당 문제에 대한 심각성은 제대로 알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기에 본 연구의 필요성이 더 강조되는 부분이다. 심각성과 경각심을 잘 일깨워주고 있는 교육인데 도대체 왜 폭력이 줄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을 더 심화시켜주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④ 학교폭력예방교육의 효과에 대한 인식

다음은 조사 대상자가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수강한다면 실제로 학교폭력이 완화될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에 관한 결과이다.



<그림 5> 조사 대상자의 학교폭력예방교육 관련 설문조사(4번 문항)

앞선 심각성 인지 정도에 관한 설문 결과와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문항이라고 보인다. 심각성 인지 정도에 묻는 문항에서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심각성을 인지했다면, 실제 학교 현장에서의 학교폭력의 실태가 줄어들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 효과에 관해서 묻는 이번 문항에 대해서는 보통이라고 답한 학생(40.3%)이 주를 이루었으며 그 뒤를 잇는 응답은 부정적인 답변(총 36.0%)이었다. 이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수강하였을 때, 이 교육이 실제로 교육 현장까지는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다는 현 교육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덧붙여 말하면, 학교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은 그저 형식적으로 학교폭력은 나쁜 것이고 근절되어야 하는 문제임을 알려줄 뿐이지, 정작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현실적인 해결방안이나 예방방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루어주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이 학교폭력 실태를 줄이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이다.

⑤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수강한 후, 실제 행동으로 연결된 부분

다음은 조사 대상자가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수강한 이후, 학생들이 직접 행동으로 옮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에 관한 결과이다.



<그림 6> 조사 대상자의 학교폭력예방교육 이후 행동 관련 설문조사(5번 문항)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묻는 이번 문항에서는 학교폭력이 실제로 학생들에게 어떤 행동적 측면의 영향을 주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설문 중 첫 번째 문항(직접적인 실천) 그리고 두 번째 문항(간접적인 실천)은 학교폭력 상황 속으로 학생을 이끌었음을 의미하는 문항이다. 반면 세 번째 문항은 학교폭력 상황에 대해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지는 못하였으나 간접적으로나마 문제에 경각심을 느꼈음을, 마지막, 네 번째 문항은 학생의 행동으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한 교육임을 의미한다. 설문 결과, 첫 번째와 두 번째 문항에 응답한 학생은 10.4%밖에 차지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교육으로 학생들이 받은 영향은 매우 미미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교육이 실효성이 있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졌다면 학생들이 이 문제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는 과정에 나서야 하지만, 현 교육은 이러한 부분까지 도달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⑥ 학교폭력예방교육에 대해 조사 대상자가 느낀 점

아래 그림은 조사 대상자가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수강한 이후, 학생들의 생각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에 관한 결과이다.

마지막 객관식 문항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수강한 후, 이 교육에 대해 느낀 점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설문 결과,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동시에 파악되었다. 먼저 부정적인 부분이 뚜렷하게 드러나 이에 대해 먼저 살펴보면, 해당 교육이 실제 본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한 학생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 결과는 학생 대부분이 그저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이라서 수강하고, 이 교육을 수강해야 해당 교사의 출석이 인정되기 때문에 시간을 채우기 위한 교육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이는 시간 낭비일 뿐, 학교 현장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보이며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해석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답한 학생(16.4%)이 적지 않다는 걸로 보아 교육이 지금보다 더 현실성 있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완되었을 때, 이 학생들은 더더욱 교육 현장에서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으며 나아가 문제 해결까지도 관심을 보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문항은 학생들에게 더 효과적인 예방 교육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함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결과이다.



<그림 7> 조사 대상자의 학교폭력예방교육의 느낀 점 관련 설문조사(6번 문항)

⑦ 해당 교육에 대한 조사 대상자의 생각

학교폭력예방교육에 관한 생각을 자유롭게 적는 이 문항에서는 본 조사 대상자 학생들의 솔직한 예방교육의 후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서술형 문항에는 총 49개의 의견이 있었으며, 다음은 일부 문항에 대한 그림이다.

학교폭력에 대해 큰 경각심을 가질 만한 교육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학교 폭력 예방교육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교육보다는 실제 학교 폭력이 일어나지 않게 하며 학교 폭력 가해자에게 더 엄격한 처벌을 해야 한다 생각한다.
형식적인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보여주기 위한 시간 떼우기 식 교육이라 생각한다
실질적인 도움보다는 그냥 들어야해서 듣는 교육이다.

<그림 8> 조사 대상자의 서술형 문항에 대한 답변 중 일부(7번 문항)

여러 답변을 총 4가지 분류로 나누어서 요약해보았다. 자세한 분류 내용은 도움이 되는 교육이다, 내용이 보완된다면 의미 있는 교육이다(“실생활에서 더 깊이 사용할 수 있는 예방 교육이 있으면 좋겠다.”), 형식적인 교육이다, 현실적이지 못한 내용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학교폭력을 하는 가해 학생들은 심각성을 인지할 지식과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이다, 도움이 되는 교육이라고 생각하지만, 교육을 받았음에도 실제 상황이 일어났을 때 행하지 못하는 것 같다”) 등 비슷한 의견을 서로 모아 정리하였다.

이를 간단하게 보여주는 표는 다음과 같다. 형식적인 교육이라고 답한 학생의 수가 과반수였으며, 부정적으로 교육을 바라보는 학생이 많았다.

<표 2> 서술형 설문조사 결과

긍정	도움이 되는 교육이다.	6	13
	내용이 보완된다면 의미 있는 교육이다.	7	
부정	형식적인 교육이다.	29	36
	현실적이지 못한 내용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7	

이렇듯 여러 의견이 제시되었다. 현재 교육을 계속해서 받는 학생들 그리고 교육을 매년 받고 졸업을 한 대학생이 해당 교육의 본질적인 의미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답변이었다. 시간을 채우기 위한 교육, 본인의 의지가 아닌 수동적으로 수강하는 교육이라는 인식이 있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이 현재 학교폭력이 줄지 않고 늘어가는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이다. 예방이란 질병이나 재해 따위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대처하여 막는 일을 의미한다(국어사전). 과연 학교폭력예방교육이 교육 명칭과 같이 그 본질을 잘 끌어내며 교육이 되고 있을지 본 연구는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 학교폭력 원인과 학교폭력예방교육의 문제점

3.1. 학교폭력의 원인

3.1.1. 폭력성(공격성)

학교폭력의 실태를 살펴보면, 2015년 12,495명, 2016년 12,805명, 2017년 9월까지 10,431명으로 2016년도 대비 13.2%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치안정책연구소, 2018, 최현주 외, 2018에서 재인용). 이는 지난 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학교폭력에 대한 다음과 같은 현실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문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저 하나의 놀이·장난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라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는 작은 사회로서, 학생이 필요한 지식을 배우고 친구와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학교가 불편하고 불안한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 나아지지 않는 우리 사회 속에서 아이들은 불편한 마음으로 상처를 받으며 학교에 다니고 있는 실정이다.

(단위 : 건, %)			
구분	총계	상해·폭행	상해·폭행 비율
2013	19980	11702	58.6%
2014	21130	12628	59.8%
2015	21459	12703	59.2%
2016	24761	14347	58.0%

<그림 9> 학교폭력 범죄에서 상해·물리적 폭력을 동반한 가해 비중

늘어나는 학교폭력의 추세보다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학교폭력에서 드러나는 학생들의 폭력성이다. 위의 표를 살펴보면, 학교에서 발생했던 폭력 양태 중에서 상해와 물리적 폭력을 동반한 상해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57%와 60% 수준을 유지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학교폭력은 학생들이 가벼운 장난을 치다가 순식간에 싸움으로 번져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그만큼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생각보다 순식간이다. 공격성을 제어하지 못하고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공격성은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사람의 당연한 특징 중 하나이다. 아동기부터 공격성을 볼 수 있는데 아이들은 자율성을 갖게 되면서 스스로 행동하려는 의지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때 부모나 양육자가 아이의 행동을 일부 통제하게 되면 폭력성을 보인다. 하지만 점차 성장하며 도덕성을 습득하게 되고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공격성이 줄어든다. 도덕성 습득과 동시에 아이의 공격성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청소년기는 공격성(폭력성)이 특히나 증가하는 시기이다. 몸과 마음이 크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아 개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겪기 때문이다. 여기서 동반되는 친구 관계와 학업 스트레스는 공격성에 치명적이다.

이러한 공격성은 학교폭력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공격성 자체는 당연한 인간의 특징이지만, 공격성을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학생 개인 성향상 공격성을 쉽게 표출하는 경우 다른 학생들과 비교하여 높은 빈도의 부정적인 정서를 표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 교실 안에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때, 학생 대부분은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않고 쉽게 이야기를 이어가지만, 특정 학생은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고 순간 흥분하여 공격적인 행동을 취하는 상황이 그 예시이다.

3.1.2. 또래집단에서의 서열 의식

청소년기 집단 의식이 강한 아이들의 특성상 또래집단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낸다. 그래서 친구 집단 사이에서의 나의 위치나 내가 속한 집단의 힘, 물리적인 힘과 강함을 뽐내는 것에 대부분 학생이

신경을 곤두세우곤 한다. 집단 안에서도 집단의 중심인 친구와의 관계를 놓고 자리 경쟁을 하고 이 과정에서 관계가 흔들리기도 하는 것이 중·고등학생의 일상이 된다. 남들 사이에서 자기의 강함을 보여주며 과시하고 친구들 사이에서 서열을 정하여 힘의 세기를 자랑하는 것이 청소년기 학교의 모습이다.

이렇듯 자신의 우위성을 뽐내기 위해서 학생들은 공격적 행동을 자신의 존재를 부각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Foshee, 2014, 최현주 외, 2018에서 재인용). 학교폭력의 가해 학생은 폭력에 대해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하는 행하는 경우보다도 학생들 사이에서 자신의 존재를 부각하기 위해서 힘을 학교폭력의 수단으로 과시하고 있다.

3.2. 학교폭력예방교육의 문제점

3.2.1. 내용적 측면

학교폭력예방교육이 실효성 있게 실시되기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학교폭력의 원인을 직접 교육에 담아서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 예방 교육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는 시대가 급변하는 것에 맞춰 폭력의 방식도 많이 변화하고 있지만 현 교육에서는 과거에 주로 발생했던 폭력의 방식에 머물러 교육을 전달되는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다.

최근 학교폭력은 단순히 물리적인 폭행뿐만 아니라 부모와 교사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피해 학생을 여러 방향으로 괴롭힌다. 특히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학교폭력의 양상이 점차 다양해졌고, SNS상에서의 괴롭힘, 그리고 심지어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다른 아이의 얼굴을 합성, 유포하는 방식의 폭력 등이 지속해서 발생한다. 사회가 발전하는 만큼 학교폭력의 유형도 많아졌지만 정작 학교나 교육기관에서는 발전 속도를 미처 따라가지 못하여 현실적인 폭력의 대응 방안이나 적절한 제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김명교, 2022).

또한 학교폭력예방교육은 영상 시청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영상에서 학교폭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학생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영상에서는 학교폭력의 현실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기보다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긍정적인 화해만을 부추기거나,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 신고하는 방법만을 알려주는 영상이 대부분이다. 피해 학생은 그저 영상을 통해 현실과의 괴리감만을 느낄 뿐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배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폭력 예방에 대책에 대해서는 정보를 주지 못하는 미흡한 교육이라는 것이다. 피해자의 힘듦과 아픔을 보여주는 영상보다는 가해자와 방관자의 잘못이 어떤 부분인지 알려주는 방향으로 교육 영상이 배포되어야 한다. 감정을 호소하거나 동정을 얻기 위한 교육이 아닌 예방 교육만큼 가해 재발 방지나 예방방안에 대해 알리는 해당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을 고려한 효율적인 영상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3.2.2. 형식적 측면

학교폭력예방교육 교육 내용에 관한 문제점을 살펴보았다면, 예방 교육이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알아 보아야 한다. 다음은 「초·중등교육법」 제15조 제1항과 제15조 제2항의 내용이다.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초·중등교육법 제15조 제1항),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학기별로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만큼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형식적으로나마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시행되는 예방 교육이 있음에도 학생들에게 왜 실질적인 효율을 보이지 못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에는 행정적인 문제와 제도상의 문제가 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는 교사의 행정업무가 다른 업무에 비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교사들의 주당 행정업무 시간은 평균 5.4시간으로 OECD 평균인 2.7시간보다 두 배가 높았다. 실제로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교사에게 질문이나 상담을 하기 위해 교무실에 가면 거의 모든 교사가 개인 모니터 앞에서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바빠 말을 걸기조차 힘든 상황이다. 교사가 자신의 교과목에 관한 연구와 수업 방식, 학생 관리에 몰두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행정업무가 이들의 역할과 분리되어 존재해야 한다. 많은 업무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의 낮은 실효성과도 연결되는 문제이다. 학생들 사이의 관계를 관찰하는 시간의 부족하고 학교폭력예방교육을 계획(전문가 초청, 프로그램 마련 등)하는 행정적인 여력이 없는 현실 속에서 예방 교육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획되는 경우는 희박하다(정향기 외, 2017: 183). 그러다 보니 학생들은 예방 교육의 영상을 집중해서 보는 분위기가 아닌 자유시간이나 자습 시간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교사의 적극적인 행동이 선행되었을 때 유도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법령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교육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의 제재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방안 마련에 이바지한 바가 큰 학교 또는 소속 교원에게 상훈을 수여한다는 등의 보상이 없다(정향기 외, 2017: 183). 학교폭력이라는 문제에 대해 학교가 자체적으로 책임감을 느끼고 학생들에게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예방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맞지만 형식적인 제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 학교 체제를 고려한다면 법령에서의 정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지침이 제공된다면 학교는 이에 맞는 교육을 하기 위해 행정적인 자원을 투입하는 등의 노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들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학생들의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해주는 정책이나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4. 해결방안

4.1. 교과목과의 연계수업

4.1.1. 독서교육과 문학치료학

학교폭력예방교육이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역할 하기 위해서는 일회적인 교육이 아니라 교과 과목 시간에서 연계수업을 진행함으로써,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 인식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독서교육은 학생이 사고 과정을 형성하고 언어능력을 넓힐 수 있는 교육으로 국어 교과목의 목적과 부합하여 실제 국어 과목에서 교사가 많이 활용하는 교육이다. 따라서 독서교육을 학교폭력예방교육과 연결하였을 때 학생들의 반응을 알아보려고 독서교육을 학교폭력예방교육과 연계한 수업 방식인 '학교폭력 예방 독서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이는 총 9차시로 구성되며 개념인식, 공감 능력 증진, 태도 변화의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되며, 이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조사한다. 개념인식 단계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어서 학생들은 무심결에 했던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고, 공감 능력 증진 단계에서는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 등 각자의 입장을 바라보게 하여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도왔으며 이는 학생들이 공감 능력을 배우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끌었다. 마지막으로 태도 변화 단계에서는 역지사지라는 교훈과 함께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대하는 태도를 개선하고 실천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여 이타주의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불러일으켰다(김

정남 외, 2016: 84). 학교폭력을 이해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공감 능력이다. 가해자의 관점에서 혹은 피해자의 처지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태도가 학생들에게 가장 요구된다. 독서교육을 통해서 공감 능력을 습관화하여 순간적인 분노에 대한 공격성을 감소시키고 또래집단 사이에서의 갈등 상황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단계	차시	프로그램명	활동 목표 및 내용	활동 자료
프로그램 안내	1	프로그램의 이해 및 마음 열기	독서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학생들이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사전검사를 통해 학교폭력 태도와 공감 능력 정도를 알아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약서 • 검사지(사전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 태도 - 공감 능력
	2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의 개념을 바르게 인식한다.	『보이지 않는 아이』 - 활동지
개념 인식	3	이런 행동도 학교폭력 인가요?	학교폭력의 종류와 대처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본다.	『트루먼스쿨 악플 사건』 - 활동지
	4	사마나 초원에서 살아남기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인 측면에 대해서 알아본다.	『우아한 거짓말』 - 활동지
공감 능력 증진	5	그대로의 내가 아름다워	학교폭력의 대상자 유형을 알고, 사례를 친구들과 나눈다.	『삼봉이발소』 - 활동지
	6	내 마음을 알아줘	친구들과 원만한 의사소통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무엇이 있는지 파악한다.	『도와줘, 제발』 - 활동지
태도 변화	7	너의 마니또가 되어줄게	소외된 친구들을 방관자의 시선이 아닌 방어자로서 바라보고 도와줄 수 있도록 한다.	『양파의 왕따 일기』 - 활동지
	8	사랑엔 조건이 없습니다		『내 짝궁 최영대』 - 활동지
프로 그램 종결	9	학교폭력 예방 지킴이	독서교육 프로그램 종결을 알린다. 사후검사와 소감을 나누며 활동했던 것을 정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지(사후검사) - 학교폭력 태도 - 공감 능력

<그림 10> 차시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 내용(김정남 외, 2016: 84)

이와 더불어 문학치료학이라는 학문과도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문학치료학이란 문학 작품에 대한 감상이나 토론, 창작 따위의 활동을 통해 정신적·신체적인 문제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학문을 뜻한다(네이버 국어사전). 이를 실제 문학 교과 수업에서 적용한다면 학생들에게 충분한 깨우침을 줄 수 있다. 실제 호랑이 설화를 가지고 진행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생들은 설화에서 폭력의 상징인 ‘호랑이’를 통해 학교폭력에 나타나는 인간관계의 원리를 이해하였으며 호랑이의 포악함과 폭력성은 관계에 있어서 절대적 법칙이 아닌 단지 가해자의 소망임을 깨닫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등장인물이 마치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제3자의 관계로 설정되어 있어서 호랑이와 같이 강자에 대항하게 되면 큰 희생이 따를 수도 있다는 방관자의 생각에 대한 두려움의 기제를 공감하기도 하였다(김혜미, 2017: 268).

이렇듯 독서교육과 문학 치료학을 실제 국어 수업 시간에 연계하여 수업한다면 학생들이 학교폭력 상황에 대해 더 깊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고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될 수 있다. 특히 문학 작품은 독자가 등장인물의 감정에 이입할 수 있게 하고 사고의 폭을 넓히는 역할을 하므로 학생이 작품을 읽고 친구들과 교과 활동을 한다면 학교폭력에 대한 기본 지식을 자연스럽게 익혀 이를 내면화할 수 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생이 갖추어야 하는 감정 조절 능력과 공감 능력에 대해 학습하는 것은 예방 효과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된다.

4.1.2. 통합예술교육

우리나라 교육 특성상 입시 과정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주요 과목에만 관심을 가지고 학습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교과 과정상에는 주요 과목 이외에도 예체능 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그만큼 주요 과목 보다는 성적에 적게 반영되지만, 학생들의 성장 과정에서 예체능에 대한 기본 소양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예체능 교육은 주로 보고 듣고 몸소 느끼는 과정을 통해 학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학교폭력에 방교육과 연계하면 학생들이 수동적으로 내용을 익히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을 배우게 된다.

‘통합예술교육을 활용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연구를 분석하여 학생들의 인식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통합예술교육과 연계한 예방 교육의 진행방식을 요약·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다.

1단계: 사전 인식	학교폭력 관련 경험을 되새기며 피해자와 가해자 시점에서 랩 작성
2단계: 문제 고착화	학교폭력 관련 사례 영상, 학교폭력을 주제로 한 댄스공연(학교별로)
3단계: 문제 해결	개별 작성된 랩 불러보기, 학교폭력 예방 춤 따라 하기, 미술 프로그램 (샌드 아트), 모듈별로 학교폭력 해결방안 토의

<표 3> 통합예술교육을 활용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 내용

춤, 노래, 미술 등 예술을 통합해서 운영되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학교폭력 문제에 관해 탐구할 수 있다. 하나의 방법이 아닌 통합적 수업을 통해 창의적 사고를 기르고, 창의적 사고를 기반으로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함이 본 프로그램은 매우 효율적으로 진행된다(정희자, 2018: 18). 지루하게 교실에 앉아서 제공되는 영상을 보는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운영하는 수업 방식은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게 하고 치유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장르의 음악을 수업 주제로 선정하는 것 역시 흥미를 북돋울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이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자아존중감 향상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폭력에 대한 두려움만 가득했던 학생들은 스스로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를 해결함으로써 긍정적으로 자아존중감이 형성된 것이다(정희자, 2018: 19). 학교 폭력 문제 원인을 인지하고 자아존중감의 향상은 예방 교육의 목적을 잘 달성한 것이라 볼 수 있다.

4.2. 청소년 윤리의식 함양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인간의 도덕성과 윤리가 더욱이 강조되고 있다.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시대인만큼 인간은 삶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도록 인간만의 특징을 잘 살려야 하며 여기서 인간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도덕성과 윤리이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을 주제로 한 교육이 필요하고 이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의 목표와도 부합한다.

인간은 자라면서 보고 듣고 경험하는 과정에서 자각이 형성된다. 이 자각은 인간으로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자각으로부터 생각하고 행동하는 원리가 내재화되면서 한 사람의 인격이 형성된다(정향기, 2017: 185). 이렇듯 인격은 개인의 행동 기준이 되며 가치관이 된다. 행동 기준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인격 형성은 삶에 있어서 중요한 과정이다. 특히 청소년기에 자아정체성을 다시 형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올바른 교육과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주어 이들이 바람직한 인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특히 학생들이 많은 영향을 받는 학교와 가정에서는 이들이 도덕적 가치를 존중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윤리의식 함양교육을 일정 시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존재와 존엄성을 느낄 수 있는 교육은 현시점에서 정말 요구되는 교육인 것이다.

5. 결론

지금까지 학교폭력예방교육에 대한 인식, 특히 그 실효성을 중심으로 실태를 살펴보고 학교폭력예방교육이 효과적으로 진행되는 해결방안을 제안하였다. 학교폭력예방교육의 문제점을 내용적 측면과 형식적 측면

으로 나누어 파악하였고 예방 교육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전혀 되지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알 수 있었다. 효과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 교과목과의 연계방식과 윤리의식 교육 등의 방안을 모색하였다.

현재 해당 교육은 일회적으로 영상을 보거나 전문가의 강연을 통해 실시되고 있으며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본질을 담지 못하고 그저 의무감에 의해서 무의미하게 학생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교육 시수를 채우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가해 학생에게는 재발 방지의 교육, 피해 학생에게는 대처 방안을 알려주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사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바이다.

학교는 청소년기 학생에게 배움의 공간인 동시에 자신의 자아상, 가치관, 인성 등을 형성할 수 있는 작은 사회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학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는 여러 교육프로그램과 수업 방식으로 이를 복돋아 주어야 한다. 학교가 폭력으로 물들어 불편하고 불안한 공간이 아니라 자유롭고 편한 마음으로 배우고 또래 친구들과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나 학교 차원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프로그램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 김정남(2016), 독서교육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학교폭력 예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회도서관.
- 김혜미(2017), 호랑이 설화의 문학치료학적 해석을 통한 제3자(방관자)의 학교폭력예방교육 사례 연구, 인문과학연구 제55집, 257-291쪽.
- 박성익(2014), 교육의 본질 구현을 위한 교육공학의 연구방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134-135쪽.
- 정향기 외(201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의 학교폭력예방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회복지경영연구 4권2호, 179-192쪽.
- 정희자(2018), 통합예술교육을 활용한 학교폭력예방 교육프로그램이 초등학생들의 학교폭력 인식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예술교육연구 16권 4호, 1-21쪽.
- 최현주 외(2018), 한국의 학교폭력 실태 및 시사점: 학교폭력예방법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안전 학회지 제13권 제1호, 93-108쪽.
- Foshee, V. A., Reyes, L. M., Agney-Brune, C. H., Simon, T. R., Vagi, K. I., Lee, R. D. & Suchindran, C. (2014). "The Effects of the Evidence-Based Safe Dates Dating Abuse Prevention Program on other Youth Violence Outcomes". Prevention Science. Vol 15(6): 907-916
- 김명교(2022), 학교폭력 예방, 아이들 문화부터 이해해야, 한국교육 신문, 2022.01.27.
<<https://www.hangyo.com/news/article.html?no=95538>>
- 지병문(2022), 교사 행정업무 '경감'정책은 틀렸다..."경감 아닌 분리해야 줄어", 교육플러스(e뉴스통신), 2022.03.07.
<<http://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39>>
- 교육부(2022),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2.09.06.

웹툰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연구

생활예술학과 이승*

목차

1. 서론
 - 1.1. 연구동기 및 목적
 - 1.2. 연구방법
 2. 웹툰의 교육 활용 현황과 의의
 - 2.1. 웹툰의 정의
 - 2.2. 웹툰의 교육적 활용 현황
 - 2.3. 웹툰의 교육 활용 의의
 3. 웹툰의 교육 활용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 3.1. 웹툰과 교육의 결합 사례 분석
 - 3.2. 웹툰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 3.3. 교육 분야 웹툰 적용 시 유의점과 방향성
 4. 웹툰의 교육적 활용 전망과 기대효과
 - 4.1. 전망1
 - 4.2. 전망2
 - 4.3. 기대효과
 5. 결론
- 참고 문헌

1. 서론

1.1. 연구동기 및 목적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된 이 시대에 현대인들에게는 온라인으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이 존재한다. 유튜브, 넷플릭스 등과 같이 인기 있는 여러 매체들 중 적지 않은 사랑을 받고 있는 '웹툰'이 최근 화두에 있다. 웹툰으로만 머물지 않고 각종 드라마, 영화로 제작되면서 현재 예전보다도 더 많은 인기를 누린다. 네이버 웹툰은 전 세계 10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월간 활성 이용자수(MAU)는 1억 8000만 명에 달하는 인기를 자랑한다. 이중 80%는 해외 이용자로 국내 웹툰은 계속하여 전 세계로 진출하고 있으며,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1조 538억 원을 달성했다.¹⁾ 이렇게 화제성이 뛰어난 웹툰은 도서, 영화, 드라마, 노래 등 다른 콘텐츠의 운영 방식과 다른 특성이 존재하는데, 이를 활용하여 다른 분야와 접목시킨다면 새로운 가치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논문의 소재로 선정했다.

한편 최근 교육 분야에서 기존의 교육 방식을 탈피하고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교육 방식으로 변화하려는 양상을 띠고 있다. 과거 학교에서 받았던 교육을 떠올려보자. 선생님이 교탁 앞에서 수업을 하고 학

1) 박현익, [네이버웹툰 분사 5년] 월 이용자 4600만→1.8억... '글로벌 스토리테크' 구축, 서울경제, 2022.05.02.

생들은 그런 선생님을 바라보며 일방적인 가르침을 받고 난 후 배운 내용을 토대로 시험에 나온 문제를 풀고 성적이 매겨진다. 이것은 시대의 난제를 푸는 문제해결형 인재를 양성하려던 과거의 교육 방법이다. 반면, 현재의 교육 시장에서는 창의적인 교육을 중요시하고 있다. 그렇기에 아이들의 창의성 자극을 위한 일부 초등학교 교실에서는 일렬로 교탁을 바라보는 자리배치에서 동그렇게 중앙을 향해 모두를 바라볼 수 있는 자리배치로 바뀌고 있다. 교실에는 폭신한 소파가 생기고, 도서관에는 누울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며, 바깥에는 잔디가 깔린다.²⁾ 이 변화는 아이들의 창의성을 유발하며 수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도록 시작되었다. 이처럼 과거와는 달리 이 시대에 적극적이며 자발적으로 창의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문제제기형 인재를 양성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 변화에 맞춰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는가? 교육부(2016)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인지구조의 변화가 바로 창의적 사고의 출발이라고 주장한다. 반복되는 익숙한 것은 반 창의적인 것이다. 또한 20세기가 정보화 시대라면 21세기는 자생화 시대이며, 시대에 맞게 자발적인 활동을 추구해야 할 것으로 바라보았다.³⁾ 그렇기에 앞으로의 교육은 학습자로 하여금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고, 이를 근거로 본 연구자는 기존에 사용되지 않았던 매체인 웹툰이 미래의 교육 시장에서 활발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학습자 연령층이 특히 즐겨보는 웹툰 매체는 충분한 교육적인 가치를 지니며 학습자로부터 여러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웹툰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적용 시의 결과를 여러 관점으로 관찰과 분석하고자 한다.

1.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웹툰과 관련한 기사와 논문을 리서치하고, 교육을 위해 제작된 웹툰을 정독하고 작품의 특징, 장점과 개선점 등을 연구했다. 댓글이 있는 웹툰의 경우에는 독자들의 반응과 웹툰이 실제로 끼치는 영향이 어떤지 알아보았다. 또한 웹툰과 같은 수업 중 특이 매체의 활용 사례를 조사하고 웹툰의 전망을 가능해보았다.

본문 중간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웹툰과 교육의 결합에 대한 선호도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밝히고자 한다. 논문의 주제, 웹툰은 온라인의 성향이 강한 소재이기 때문에 온라인 설문조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구글폼으로 설문지를 제작하였고, 12월7일부터 12월10일까지를 조사 기간으로 설정한 후 학교 커뮤니티에 게시하여 25명의 참여 인원을 조사했다. 질문은 객관식 항목 6개와 서술식 항목 2개로 이루어졌다. 객관식 질문으로는 현 교육에 대한 인식과 교육과 웹툰의 결합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했고, 서술식 질문으로는 별도의 의견들을 수집하여 실 적용 시에 유의점, 개선점과 기대되는 효과를 알아보았다.

2. 웹툰의 교육 활용 현황과 의의

2.1. 웹툰의 정의

<그림 1>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는 웹툰 플랫폼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자료사진 이미지투데이, 편집 김혜진 기자

주제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웹툰의 개념을 가볍게 설명하고자 한다. 웹툰이란, 2000년 초에 '인터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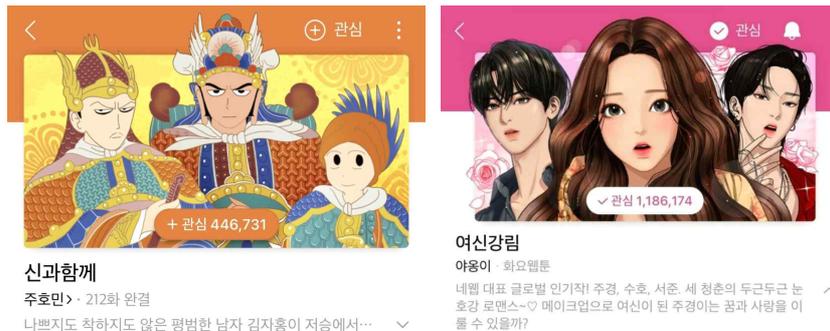
2) 조세진, "웹만한 대학 캠퍼스보다 좋다"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이 수업 듣는 '복층' 교실 클래스, 인사이트, 2020.10.22.

3) 교육부, [창의교육] 창의성 증진과 교육환경, 네이버 블로그, 2016.07.27.



(web)'과 '만화(cartoon)'가 합성되어 만들어진 용어로, 인터넷에서 연재하는 모든 만화를 지칭하며 폭넓은 의미로 쓰인다.⁴⁾ 그중에서 독자들이 웹툰을 시청하는 주요 플랫폼이 여럿 있는데, 네이버 웹툰, 카카오 웹툰, 그리고 레진코믹스가 많은 대중들에게 주로 선택을 받는다.

웹툰은 다양한 연재 형식이 존재한다. 주마다 업로드 되어 정해진 시간에 무료로 볼 수 있으며, 더 많은 회 차를 보고자 하는 독자들은 추가적으로 '미리보기'를 결제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가 보편적이다. 이외에 전체 회 차를 업로드하고 일주일 혹은 하루 동안 기다렸다가 볼 수 있는 '기다리면 무료'라는 방식도 있다. 레진코믹스의 몇 웹툰처럼 주마다 무료로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회 차를 구매하여 봐야하는 경우도 있다. 업로드 방식뿐만 아니라 세로로 스크롤 하는 만화 형식, 가로로 밀어서 보는 만화 형식, 그리고 화면을 터치하여 컷이 넘어가는 만화 형식과 같이 웹툰을 보는 방법도 다양하다. 하지만 이 각기 다른 웹툰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 모든 웹툰은 대부분 한 화마다 댓글창이 있어 웹툰을 보고난 후의 감상 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댓글을 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좋아요'와 '싫어요'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각 댓글 창에 가장 인기가 많은 댓글을 베스트 댓글로 확인할 수 있다. 이 댓글이라는 하나의 요소가 웹툰을 흥행시킨 요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생각을 공유하는 공간은 작가와 독자 간의 소통, 그리고 독자와 독자 간의 소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리고 또한 작품마다 별점을 매길 수 있어 별도의 리뷰가 필요 없이 웹툰의 평점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다.



<그림 2><그림 3> '신과함께'와 '여신강림'의 웹툰 썸네일
출처 : 네이버 웹툰

<그림 4><그림 5> '신과함께'와 '여신강림'의 영화, 드라마 포스터
출처 : 다음 영화

현시점에서 이러한 웹툰이 한 분야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되어 해외각국으로 진출하고 있다. 이처럼 글로벌한 주목을 받고 있는 웹툰의 현 상태는 일시적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현재, 웹툰을 단순 작품으로 한정하지 않고 더 나아가 여러 분야에 접목시킨다면 화제성과 더불어 여러 장점을 유도해낼 수 있을 것이다.

4) 박기수, 웹툰을 왜 정의해야 하나? : 웹툰, 조형과 개방의 역동적 생산, 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18, 6쪽.



2.2. 웹툰의 교육적 활용 현황

이러한 엄청난 흥행의 추세를 보이는 웹툰이 교육시장에서는 감감무소식하다. 글과 구어로만 이루어지는 수업은 학습자의 흥미를 이끌어내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수업 진행을 위해서는 부수적인 매체와 자료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한다. 흔히 학교에서 사용하는 EBS교육 방송의 다큐와 같이 지식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지식 위주의 영상 또는 문학 서적 등이 주 매체인데, 이는 학습자의 관심사와 매체의 주제나 설명 방식이 연결되지 않아 흥미를 유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즉, 학습자의 흥미와 직결되는 새로운 매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나온 기존 매체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웹툰이 교육의 목적으로 잘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몇 기관에서는 웹툰을 활용한 교육을 하고자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22년 11월30일, 충남 아산의 교육 콘텐츠 제작기업 랩톤소프트는 중학생을 위한 교육용 웹툰 및 동영상 개발했다고 밝혔다.⁵⁾ 영국의 노팅엄 트렌트 대학교 교수들의 국제학술지 '정보기술과 Z세대(1990~2000년 대생)에 대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Z세대의 수업 집중 시간은 8분 내외로 밝혀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랩톤소프트는 8분을 넘지 않는 콘텐츠를 제작한다. 과학과 수학 과목을 다뤄 옴니버스 형식으로 제작되었고, 총 180회 분량의 웹툰을 제작했다. 랩톤 소프트의 이재복 대표는 “과학과 수학, 정보 과목 외에도 경제와 예술 분야로 스토리를 확장해 학생들이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학습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차별화된 콘텐츠로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교육 콘텐츠 개발 기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웹툰의 교육적 가치를 발견하여 대중화를 시도하였지만, 충분한 홍보와 플랫폼 마련이 이뤄지지 않아 큰 결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시행하는 에듀에이블의 특수 교육웹툰, 34억 5000만 규모의 웹툰 플랫폼 노틸러스의 '이걸 만화로 배워?'와 같은 시도는 계속하여 등장하나, 학습자의 참여를 충분히 이끌어 내지 못했거나 개시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눈에 띄는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에 대한 원인과 현재 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이 웹툰의 교육적 활용의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주안점이다.

2.3. 웹툰의 교육 활용 의의

웹툰 콘텐츠를 교육 분야로 확장 시켜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들 수 있다. 대체로 일상, 판타지, 로맨스 등과 같이 문학 서적과 유사하게 이야기를 새로이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은 웹툰은 의외로 교육과 매우 긴밀한 연관성이 있어 활용 가치가 뛰어나다.

우선 웹툰은 특성상 글과 이미지를 한 컷에 모두 사용하여 컷을 유기적으로 이어 스토리를 풀어낸다. 주로 등장하는 캐릭터를 설정하고 그의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 또는 진행되는 상황에 맞게 대화 형식으로 짜

5) 강태우, '웹툰 한편으로 수업 내용 익힌다'...옴니버스 콘텐츠 개발, 한국경제, 2022.11.30.

여서 이야기를 이해하고 몰입하기 좋은 환경이 형성된다. 교과적인 개념을 오직 개념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을 설정하고 그 것을 적절하게 스토리로 재해석한다면 학습자의 이해를 효율적으로 이끌어낼 것이다. 최강희 강사(2021)는 청소년에게 스토리텔링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 했다.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뇌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⁶⁾ 스토리텔링은 정보 전달에 있어 이해를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다. 스토리텔링이 적절히 활용된다면, 메시지를 임팩트 있게 정리하게 되며, 효과적으로 구성하여 탄탄한 스토리라인이 형성되어 청소년들의 발표 능력, 이해 능력 및 설득력이 향상될 수 있다. 앞서 말한 앞으로의 교육방식이 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웹툰의 스토리텔링을 꾸준히 접하도록 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진행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

웹툰은 다른 매체에 비해 가독성이 좋다. 물론 웹툰 제작 방식, 그림의 밀도, 연출과 대사와 같은 요건에 따라 가독성은 정도가 변화할 수 있지만, 그림에도 불구하고 글과 그림이 함께 조합되어 연출하기 때문에 글만 있거나 혹은 그림만 있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더 쉽게 읽히는 장점이 있다. 교육 웹툰 제작 시에 한 것을 이루는 배경과 캐릭터의 배치, 말풍선의 배치, 칸의 크기 등을 조절하여 작가의 의도를 독자에게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연출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콘티 제작 단계에서 웹툰 자체의 스토리와 전달하고자 하는 소재의 지식을 깊이 알고 난 후 방향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그림체에 지나치게 집착할 것이 아니라 꾸준한 시청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묘사력보다는 정보의 중요도를 판단하고 컷에 머무는 속도를 계산하여 이야기가 매끄럽게 읽힐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상호작용성은 앞으로의 교육 방향에 중요한 키워드로 꼽을 수 있다. 학습자의 수업 참여 유도, 학습자의 이해, 그리고 창의적 사고 발달 모두 상호작용과 연관되어 있다. 웹툰은 제작자(작가)와 독자가 존재하는데, 이 관계 속에서 작가-독자 간의 상호작용과 독자-독자 간의 상호작용이 발생한다. 작가-독자 간의 관계는 작가가 제공하는 웹툰을 보고 독자가 별점 또는 댓글로 작가의 작품에 대한 평가 의견을 남기고 작가는 그 의견 중 필요한 내용을 보고 다음 작품에 반영을 하는 등의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독자-독자 간의 관계는 댓글 창에서 이루어지는데, 웹툰을 보고난 후 든 생각을 제 3자끼리 토론하며 의견을 공유하게 된다. 의견이 상충했을 시에는 공감을 하며 웹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이 상충했을 시에는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며 상대를 설득시키는 등의 소통이 발생한다. 글의 주제와 부합하는 의견을 적절한 인터넷 예절, '네티켓(Netiquette)'을 사용하며 공유한다면 좋은 방향성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무분별한 정보가 오가는 인터넷에서는 다소 공격적이거나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 오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단과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웹툰의 교육 활용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3.1. 웹툰과 교육의 결합 사례 분석

웹툰이 교육 매체로 활용이 된 사례가 있다. 학교에서의 활용도가 높지 않지만 학습자의 개인 시간에 자발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웹툰이 여럿 제작되었다.

<그림 6><그림 7> 무적핑크 작가의 ‘조선왕조실록’과 ‘삼국지’
출처 : 네이버 웹툰

6) 스토리위너코치, 청소년에게 스토리텔링 교육이 필요한 이유?, 브런치, 2021.



조선왕조실록

무적핑크 > 365화

어느 날 메신저로 찾아온, 조선 시대 그분들의 시시콜콜...



삼국지톡

무적핑크 / 이리 > 화, 금 연재

"유비, 조조, 손권 등 영웅들이 활약하던 후한, 그 난세에..."

무적핑크의 '조선왕조실록'은 2014년도에 제작된 네이버 웹툰 플랫폼에서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에 연재 하던 인기 웹툰이다. 조선왕조의 역사를 담은 조선왕조실록을 현대적으로 패러디한 이 개그 만화는 교육의 목적만으로 제작된 웹툰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배움을 줄 수 있는 콘텐츠였다. 또한 '삼국지톡'이라는 삼국 지 인물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웹툰을 화요일과 금요일마다 업로드하며 현재까지 4년간 연재를 지속하고 있다. 조선시대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들과 삼국지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 의 화면으로 구성하여 당시의 인물들에게 몰입하며 친밀감을 느끼고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하는 새로운 웹툰 구성으로 연재를 했다.

설로옥 (qust****) 2021.08.10 01:29:33

삼톡 장점은 인물 내면 묘사는 신선하고 좋는데 그거에만 너무 집중 해서 정작 보여줘야하는 전투의 흐름같은 부분은 거의 안 보임.

답글 2

👍 21

🗨️ 1

권오준 (kwon****) 2020.09.25 04:12:52

이거 개유익한 웹툰이에요 고민하시는분들 꼭보셈 그림체 쫌도 완전 좋구 베댓이 설명도 잘해줘요 ㅎㅎ

답글

👍 25

🗨️ 0

설로옥 (qust****) 2021.08.24 00:21:43

삼국지 시작으로는 완전히 비추임. 다룰거 안 다루고 캐릭터를 너무 한가지 모습만 보여주는 쪽으로 만듦

답글

👍 11

🗨️ 30

<그림 8><그림 9><그림 10> '삼국지톡'의 댓글 반응: 추천 및 피드백

출처 : 네이버 웹툰 '삼국지톡' 댓글

새로운 시도를 주도하고 교육적인 의의가 있던 학습 웹툰이지만, 논란을 피할 수 는 없었다. '삼국지톡'의 댓글을 보면 유익하다고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재미는 있지만 원작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고 비판하는 댓글이 몇 존재했다. 해당 교육 분야에 대한 깊은 지식을 요하는 교육 웹툰 제작자가 만든 자료가 아닌, 웹툰을 전문적으로 그리는 웹툰 작가가 제작한 자료였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을 왜곡 했다는 비평

도 있다. 교육적인 소재를 선정했기에 더 신중하게 공부하여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연재했다면 더욱 의미있는 웹툰이 되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지만, 당시에 역사를 재해석하여 웹툰을 연재한 유일무이한 작품이었기에 새로운 시도를 한 것만으로도 교육적 가치를 지닌다고 판단할 수 있다.

교육 웹툰을 연재하는 에듀에이블(Eduable)이라는 교육부 국립 특수교육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에듀에이블은 장애 인권 교육을 주로 제작하며 장애인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와 장애가 있는 학습자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매체들을 만든다. 그 중에서 웹툰 콘텐츠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나누어 아이들의 교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 상황과 아이들이 추구해야할 태도를 사례를 들어 설명을 해준다. 단편으로 제작되어 개연성과 작품성에 집중하기 보다는 아이들이 재미있는 자료로 장애 학습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둔 듯하다. 에듀에이블 웹툰 사이트에는 다른 웹툰 플랫폼과 달리 댓글 창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아이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취한 조치로 보인다. 2020년, LG유플러스가 AI와 빅데이터 기업 솔트룩스와 영상콘텐츠 학습 실험을 진행하였다.⁷⁾



<그림 11> AI 영상 콘텐츠 학습 결과 화면

출처 : LG유플러스와 솔트룩스

5세 아이의 모습을 한 AI에게 유튜브에서 무작위로 노출되는 영상을 학습시켰더니 “노잼이야”, “개짜증나”와 같은 비속어를 사용했고, 이 실험은 아이들의 인터넷 리터러시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짚어내는 교훈을 준다. 가령 장애 학습에 대한 편견을 완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제작된 웹툰에 편협한 시각의 댓글이 달린다면 그 것을 본 아이들이 무분별하게 받아들여 잘못된 사고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댓글의 유무를 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학습자의 특성에 맞는 교육 매체를 제공하는 것이 교육 웹툰 제작 취지에 맞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림 12> '이걸 만화로 배워?'의 서비스 화면

출처 : 이걸 만화로 배워? 플랫폼의 '본격 북유럽 신화 만화'

2022년 8월15일부터 '이걸 만화로 배워?'라는 지식교양 웹툰 연재처가 개시되었고, 노틸러스에서 여러 유명한 웹툰 작가들을 데려와 각 웹툰마다 다른 교육 소재를 가지고 연재하는 서비스를 진행한다. 우선 회원가입을 하고 무료로 공개된 에피소드들을 보고 평을 남기며 유료 에피소드는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는 시

7) 광희양, 아이 모습을 한 AI에게 아무 영상이나 보여줬더니, “엄마 개짜증나”, 경향신문, 2020.06.12.



스탬이다. 철학, 해부학, 신화, 역사, 사회생활, 요리, 경제 등 바쁜 사회생활 중 자기계발을 하려는 2030이 주 타겟층이다. 교육의 목적이 강한 웹툰 플랫폼인 만큼 증권사 업계 종사자, 석시, 박사 등의 전문가들이 검증한 지식 바탕으로 제작한다고 한다. 신규로 등장한지 얼마 되지 않은 플랫폼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여론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지만 한 회 마지막에 공감 버튼을 보면 긍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아쉬운 점은 감상평의 선택지가 편향되어 '너무 재밌어요', '추천하고 싶어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유용한 지식이에요', '작가님 최고'와 같은 긍정적인 반응만을 할 수 있고 비판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버튼이나 공간이 마련되지 않아 기존의 웹툰 방식보다 소통의 폭은 다소 좁아 보인다. 노틸러스의 이성업 대표는 "출판 시장에서 성공하고 있는 지식교양 만화를 웹툰으로 전환해 규모의 성장을 이루는 것이 당장의 목표"라며 웹툰에 에듀테크를 접목해 지켜온 공부에서 해방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⁸⁾ 웹툰을 통해 지식 소비 시장의 성숙과 확대를 이끌어 나가는 목표가 뚜렷하여 웹툰이 교육 시장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일조했으면 한다.

3.2. 웹툰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2022년 12월7일부터 12월10일까지 4일 동안 상명대학교 재학생 및 타 대학교 재학생을 상대로 웹툰과 교육의 결합에 대한 선호도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온라인 구글폼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25명의 다소 적은 인원이 참여하여 더 많은 응답을 받지 못해 아쉬움이 남지만 선호도 분석에 문제가 없었기에 연구를 계속해서 진행하였다.

<표 1> 설문조사 결과

(단위: 명)

1. 본인의 나이는 어떻게 되시나요?	인원 수
1학년	9명
2학년	4명
3학년	8명
4학년	3명
기타	1명
계	25명

설문조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대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총 24명이 응답했고, 그 외기타 응답자 1명이 설문조사에 응하였다. 참여 연령층은 1학년이 3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3학년은 32%로 두 번째로 많이 참여하였다.

8) 최태범, 웹툰으로 공부한다...카카오가 반한 '이만배', 34.5억 투자유치, 머니투데이, 2022.07.19.

<표 2> 설문조사 결과

(단위: 명)

2. 현재 교육 방식이 학습자의 창의성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인원 수
1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5명
2 (조금 도움이 되지 않는다.)	8명
3 (보통이다.)	8명
4 (조금 도움이 된다.)	4명
5 (매우 도움이 된다.)	0명
계	25명

현재교육 방식의 창의성 증진 기여도에 대한 질문에는 '보통이다.'와 '조금 도움이 되지 않는다.'를 선택한 응답자가 각 3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20%를 차지하여 전반적으로 현재 교육 방식은 창의성 증진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설문조사 결과

(단위: 명)

2-1 현 교육이 창의성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복수 응답 가능)	인원 수
일방향의 수업방식	10명
다양한 매체의 이용 부족	2명
단순 주입식/암기식 교육	11명
차별성 없는 획일화된 교육	6명
학습자 참여 유도의 부족	9명

앞전 질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와 '조금 도움이 되지 않는다.'를 선택한 응답자에게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물었더니, 단순 주입식/암기식 교육 방식이 가장 표의 수가 많았으며, 다음으로 '일방향의 수업 방식', '학습자 참여 유도의 부족'에 많은 선택을 하였다. 이는 이론적인 내용에 치우친 수업과 학습자의 동기부여를 돕지 않는 딱딱한 교육 체계를 창의성 증진 부진의 원인으로 삼는 것을 암시한다.

<표 4> 설문조사 결과

(단위: 명)

3. 웹툰을 주에 얼마나 자주 보시나요? (하루에 보는 작품 수와 관계없이 하루에 한 편 이상 본다면 1회로 간주)	인원 수
아예 안 본다.	3명
주 1회	1명
주 2회	3명
주 3회	7명
주 4회	4명
주 5회	1명
주 6회	2명
매일 본다.	5명
계	25명

<표 5> 설문조사 결과

(단위: 명)

3-1 웹툰을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복수 응답 가능) *웹툰을 보는 응답자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인원 수
스토리가 재미있어서 본다.	19명
만화 그림이 좋아서 본다.	14명
가독성이 좋아서 본다.	1명
다른 사람들이 많이 봐서 본다.	0명
간편해서 본다.	7명
내가 원하는 속도로 조절하며 볼 수 있어서 본다.	4명
지식을 얻을 수 있어서 본다.	0명
기타 (: 애매하게 시간 남을 때 본다.)	1명

웹툰을 보는 인원을 조사 해본 결과 전체 25명 중 웹툰을 보지 않는 인원은 3명으로 12%라는 적은 비중을 차지하며, 나머지 88%의 응답자는 모두 웹툰을 본다고 답변했다. 이는 현재 웹툰 시장의 대중화를 증명해준다. 웹툰을 보는 응답자에게 복수 응답 형식의 질문으로 웹툰 시청의 이유를 물었더니, 스토리와 웹툰의 그림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고, 간편함이 다음으로 이유로 꼽혔다. 또한 기타 항목 란에 ‘애매하게 시간 남을 때 본다.’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웹툰의 가장 큰 특징인 글과 그림의 조합이 사람들의 관심을 얻기에 효과적이며 어디서나 디지털 기기로 웹툰을 즐길 수 있는 점이 웹툰의 인기의 이유임을 알 수 있다.

<표 6> 설문조사 결과

(단위: 명)

4. 교육 분야에 웹툰이 사용되는 것에 대한 선호도를 선택하세요.	인원 수
매우 좋지 않다.	1명
약간 좋지 않다.	2명
약간 좋다.	13명
매우 좋다.	9명
계	25명

논문의 주제와 부합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 웹툰과 교육의 결합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해보았는데, '좋지 않다.'는 12%를 차지했으며, '좋다.'는 나머지 88%의 선택을 받았다. 이는 전반적으로 웹툰과 교육의 결합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며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임을 나타낸다.

<표 7> 설문조사 결과

	답변
5. 웹툰의 교육적 활용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웹툰의 탈을 쓴 노잼 교육
	웹툰은 너무 빨리 보고 금방 기억이 휘발된다. 어려운 개념을 쉽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에는 도움이 될 것 같다
	웹툰이 교육적 내용을 온전히 담을 수 있을지가 의문이고, 별 효과도 없을 것 같음
5. 웹툰의 교육적 활용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시각 자료를 통해 지식을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친근한 매체를 통해 학습 집중도가 상승할 것
	본래 시각적 자료가 장기기억 노출에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웹툰의 일부 혹은 전체를 교육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좋은 교육 매체가 될 것이라 생각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며, 간편한 수업자료로 사용하기 좋을 것이기 때문
	똑같은 내용이라도 더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시 보기 쉬워 복습에 용이함
	높은 접근성, 학습에 대한 거부감 감소
좀 더 재미있게 교육을 배울 수 있어서, 웹툰은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스토리에 빠져들면 자연스럽게 학습이 될 것 같아서	

앞서 나온 질문에 답변한 이유를 서술 형식으로 물어보았다. 전체 25명이 모두 응답해주었으며, 중복되는 의견을 제외하고 정리해보았다. 웹툰과 교육의 결합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로는 웹툰을 활용만 할 뿐 교육

과 실제로 접목되었을 때 중요한 요소인 재미를 잃을까봐 우려하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웹툰 교육으로 인한 지식의 습득이 금방 휘발될 것으로 생각했으며,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반면, 웹툰과 교육의 결합을 선호하는 응답자는 높은 접근성, 집중도 상승, 학습에 대한 거부감 감소를 이유로 제시하였고, 시각적 자료가 장기 기억 노출에 효과적임을 언급하며 좋은 교육 매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바라보았다.

<표 8> 설문조사 결과

	답변
<p>6. 교육 웹툰 제작 시에 주의해야할 부분 또는 추구해야할 점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기술하세요.</p>	<p>논란이 될 만한 주제, 자극적인 소재는 피해야 할 것이다.</p>
	<p>전공 과목의 경우 모든 내용을 교육하는 것은 낭비 같습니다. 모든 내용보다는 흥미 유도 목적으로만 사용</p>
	<p>교육의 목적에 너무 치우쳐서 재미를 잃는다면 웹툰을 사용하는 의미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p>
	<p>언어 선택이 중요한거 같아요. 만화책을 읽었을 때 그림만 보다보니 어휘력이 늘지 않을 수 있는데, 캐릭터들이 어휘를 풍부하게 사용한다면 그런 우려도 줄어들 거 같아요.</p>
	<p>퀄리티를 현재 플랫폼에서 연재하는 웹툰과 비슷하게 만들면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p>
	<p>성인보다는 아동에게 접합할 듯. 어려운 개념은 그림이나 도표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음.</p>
	<p>본격적이지 않으면 시도하지마라</p>
	<p>웹툰으로만 어떤 과목을 공부하면 차후에 다시 그 내용을 찾아볼 때 웹툰의 스토리 진행 부분 때문에 원하는 핵심 내용만 찾아보기 번거로울 수 있을 것 같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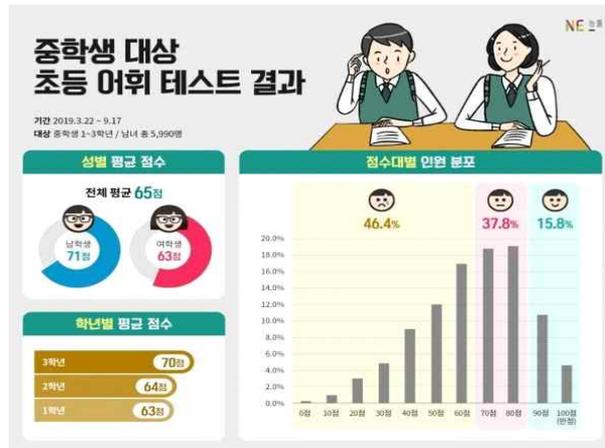
마지막 교육 웹툰 제작 시 유의점과 추구해야하는 것에 대해 묻는 서술 형식 질문에는 총 10명이 응답했다. 마찬가지로 중복되는 의견을 제외하고 정리했다. 심도 깊은 개념 설명 보다는 재미를 잃지 않게끔 흥미 유도 목적으로 사용해야할 것이며, 논란과 자극적인 소재는 피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 되었으며 학습의 목적과 웹툰 본래 특성 및 퀄리티의 균형을 조절하여 그 어떤 부분도 놓치면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어린 연령층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제작된다면 어휘력에 신경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 되었다.

3.3. 교육 분야 웹툰 적용 시 유의점과 방향성

앞서 시행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웹툰 교육이 유의해야할 점을 추가적으로 조사해보았다. 만화의 경우 그림의 비중이 커서 어린 연령층은 대사보다는 그림으로 맥락을 파악할 수 있어 어휘력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실제로 최근 청소년들의 어휘력, 문해력이 크게 논란이 되었는데, ‘금일’, ‘사흘’ 등과 같은 어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화두에 올랐다.⁹⁾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인물들의 대

9) 전지현, 중학생 우리말 어휘력, 평균 65점...초등생 수준에도 '부족', 비즈트리뷰, 2019.10.07.

사를 풍부하고 다양한 어휘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림 13> 비즈트리뷰(<http://www.biztribune.co.kr>)의 초등 어휘 테스트 결과표
 출처 : NE능력

또한 웹툰의 재미와 교육의 목적의 적절한 균형을 강조하였는데, 이 부분이 교육 웹툰 제작 시에 가장 고민이 될 부분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경우는 전에 다른 매체와 교육의 결합 선행 사례를 분석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낸 사례를 참고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설문조사에서도 제시되었듯이 교육 웹툰은 심도 깊은 이론을 다루기보다 그 전에 학습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쉽고 재미있게 개념의 초입 부분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듯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 지식을 배우는 대학생 및 성인이 아닌 기초 지식을 다지고 상식을 배우는 아동,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더 적합할 것이다. 그리하여 아동부터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고려하여 방향을 설정하고 웹툰 교육시장을 심화시켜 발전해야 할 것이다.

4. 웹툰의 교육적 활용 전망

4.1. 전망1

교수매체로 불리는 학습자원과 수신자 간에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수업에 사용하는 매체로는 칠판 판서, 모형, 실물, 사진, 그림, 교육 영상 등이 있다. 노혜란 소장(2012)은 이러한 교수매체가 수업에 필연적으로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¹⁰⁾ 그 이유로는 교수자가 학습할 내용을 보다 주의 깊게 선정하고 조직할 수 있으며, 수업이 흥미로워져 학습이 보다 상호작용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업에 필요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수업의 질이 더 향상되는 효과를 얻는다.

기존에 사용되던 매체는 오직 교육에 중점을 뒀 학습에 치우쳐있는 교육 방식이었다면, 독서, 노래, 영화 감상, TV 시청, 스포츠 등과 같은 여가 문화와 교육을 적절히 사용하는 방식도 점차 사용되고 있다.

LG상남도서관이 2003년부터 2022년까지 운영했던 LG사이언스랜드 과학 사이트는 청소년들이 과학에 재미와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진행했다. 본 사이트에서는 과학송, 과학만화, 과학퀴즈, 과학이야기 등 다양한 콘텐츠와 과학을 접목시켜 학습자의 참여를 유도했다.

10) 노혜란, 교육공학 및 교육방법 제2판, 교육과학사, 2012, 5-9쪽.



지질시대송 (버스안에서 버전/고화질) :
 whoami · 92K views · 3 years ago

<그림 14> '지질시대송' 유튜브 캡처본
 출처 : LG사이언스랜드

위의 그림은 '지질시대송'이라는 과학송의 화면 캡처본이다.¹¹⁾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선캄브리아시대 내용을 자자의 '버스 안에서' 노래 가사로 개사하여 학생의 암기를 도와준 사례이다. 전문지식 제공 기관에서 제작해서 정확한 개념으로 지질시대를 설명했고, 이해는 물론, 학습에 대한 재미를 이끌어 내고, 암기에 뛰어난 효과를 보여주었다. 영상의 조회수는 무려 9만회를 넘었으며 1200여개의 '좋아요'를 달성했다. 일본 유튜브 동영상의 댓글은 막혀있는 관계로 녹화본을 업로드한 영상의 댓글을 분석했다.

잘장 · 2y ago :
 이 노래 덕분에 아직까지도 선캄브리아시대 기억함..

Translate to English

dmswl db · 1y ago :
 이걸 초등학교때 알게되고 현재 고2통합과학 지질시대
 파트 기말공부로 이노래듣는중

Translate to English

<그림 15><그림 16><그림 17> '지질시대송' 유튜브 댓글의 긍정적인 반응
 출처 : 유튜브 'whoami'채널 '지질시대송' 댓글

댓글의 반응으로는 “이 노래 덕분에 아직까지도 선캄브리아시대 기억함...”, “이걸 초등학교 때 알게 되고 현재 고2 통합과학 지질시대 파트 기말공부로 이 노래 듣는 중”과 같이 과거에 노래로 학습했던 내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현재까지도 지식이 유지된다는 의견이 다수이다. 필기와 정독 암기 없이 노래를 즐기며 지식을 배운다면 내용이 기억에서 금방 휘발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중독성이 있는 콘텐츠 개발은 반복 학습을 유도해서 자연스럽게 학습 내용을 오래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사례이다. 노래 뿐 아니라 웹툰도 계속해서 다시 정독할 수 있도록 좋은 콘텐츠를 제공한다면 학생들의 흥미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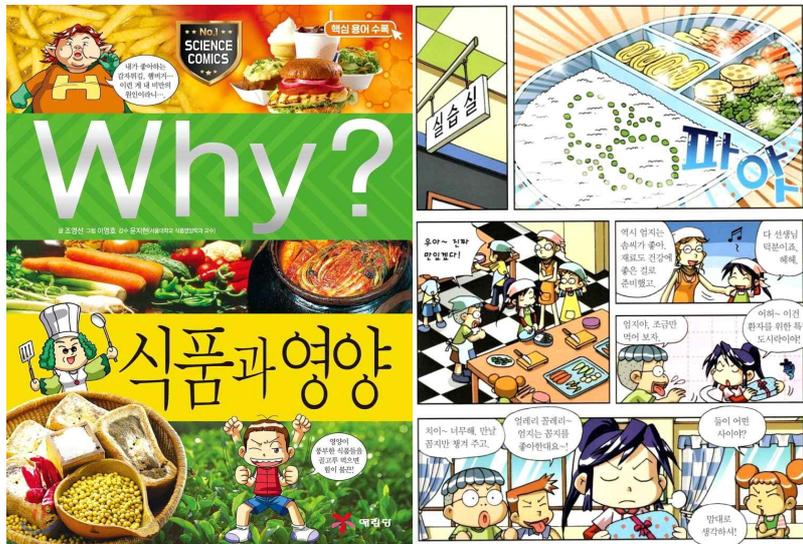
11) whoami, 지질시대송, 3:10, 2019.12.04., LG사이언스랜드 재인용

유발하여 지식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노래뿐만 아니라 영화도 교육적으로 활용된 사례가 있다. 진상원 교사(2010)는 코미디 역사 영화 <황산벌>을 학생들에게 시청하도록 한 후 “영화 <황산벌>이 보여주는 화랑 관창의 죽음”이라는 주제로 학생들에게 과제를 부여하였다.¹²⁾ 교사가 단순한 지식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역사적 사고와 글쓰기 능력을 길러주기 위하여 영화를 보여주는 선택을 했다. 영화는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현대인의 시각으로 비틀어 보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영화를 통해 역사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고 역사란 후대에 의해 구성된다는 사실을 쉽게 깨닫도록 했으며, 이해하기 어려운 원사료에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밝혔다. 웹툰도 이와 같다. 영화와 마찬가지로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지식을 제작자가 재해석하여 현대인들의 이해가 용이하도록 돕는 것이 매체의 역할이라고 본다. 하지만 영화라는 매체는 소요되는 시간이 굉장히 길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하지만 웹툰 콘텐츠는 어디서든 디지털 기기만 있다면 간편하게 접속하여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활용되는 영화 매체의 단점을 보완, 대체할 수 있는 웹툰이 더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4.2. 전망2

웹툰의 오프라인 형식인 만화는 교육적으로 자주 사용된 매체 중 하나이다. 디지털 시대로 발전하기 이전에 종이로 제작된 만화가 굉장한 인기를 누렸으며, 전자책이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현재에도 종이 만화책의 출판 사업은 여전히 잘되어간다. 이렇게 인기가 있는 만화 분야도 교육적인 활용이 많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다.



<그림 18> 'Why?' 시리즈 중 '식품과 영양'

출처 : 예림당

<Why?>라는 교육만화는 교과서와 연계된 학습 내용을 중심으로, 기초부터 응용을 모두 다뤄 방대한 지식을 흥미 있게 풀어내 어린 학습자들에게 자연스러운 교육을 유도해냈다. 2004년부터 2016년까지 200여 권이 출판되어 과학, 한국사, 세계사, 인문사회교양, 영어, 수학 등의 분야를 다룬 인기 어린이 도서이다. 각 권은 스토리 가온니버스 형식으로 제작되어 주제마다 모두 다른 이야기가 진행된다. 스토리 전개는 주제와 관련된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엄지와 꼼지라는 주인공들과 함께 다니며 전문지식을 쉽게 설명해주거나, 인물들이 악당과 맞서 싸우며 책의 주제와 관련한 내용을 다루는 형식이다. 주 학습 연령층 또래의 주인공이 등장하여 이야기가 진행되어 더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인물간의 대화로 자연스럽게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Why?> 시리즈는 당시 한국마케팅포럼 주관 2017 한국 브랜드 선호도 1위 선정, 대한출판문화협회 제4회 한

12) 진상원, 고등학교 국사 교과의 영화 활용 수업사례, 통권 47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10, 6-8쪽.

국출판 문화대상 등 총 9개의 수상을 한 경력이 있으며, 이를 보아 그 당시의 파급력을 유추할 수 있다. 학습만화의 열풍은 과거에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초등학생들에게 인기 물이를 하고 있는 <고고 카카오 프렌즈>는 '아울북'과 '카카오프렌즈'가 콜라보한 아동용 학습만화이다. 귀여운 카카오 프렌즈의 캐릭터가 등장하여 세계 역사 문화를 체험하는 여정을 그려낸 만화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기자기한 캐릭터를 사용하여 학습자의 관심을 잘 활용한 사례이다.¹³⁾ 그 외에도 마법천자문,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과학 동아 등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학습만화가 화제였다. 앞서 나온 만화책들은 학교 수업에 직접적으로 활용되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여 학습을 자연스럽게 유도해낸 좋은 선행 사례이다.

학교 교과서에서도 만화를 찾아볼 수 있다. 교과서에 삽입된 만화는 대부분 4컷 만화로 제작되거나 길어도 한 페이지를 넘지 않게 제작되어 대부분 글로 이루어지는 교과서의 내용에 아이들의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 짙막한 만화를 보고 다시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넣어진 듯하다. 글보다 그림이 가시성이 높아 그런 특징을 고려한 구성이며 이로 인해 더 풍성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시대가 변하면서 디지털 기술이 발전했고, 온라인으로 가볍고 저렴하게 만화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나 기업 곳곳에서 종이 문서를 없애는 '페이퍼리스'(Paperless)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은행권에서는 종이 통장을 모바일 통장으로 바꾸도록 권장하는 이벤트를 진행하여 디지털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보였다.¹⁴⁾ 은행권뿐만 아니라 정부, 기업 그리고 개인이 이러한 환경 보호의 움직임을 보였고, 그렇기에 학습만화도 이러한 사회적 대세에 따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불어 만화를 권 당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실제 판매가를 웹툰 제작비 및 구매비용을 고려했을 때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학습자 입장에서 학습을 하는 비용이 적을수록 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학습 웹툰의 전망이 밝다.

앞서 얘기한 다양한 매체의 사용 사례들은 웹툰의 전망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 대체로 낮은 연령층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웹툰 활용 교육의 대상을 잘 숙고하여 설정해야 할 것이다. 수업 내용의 주를 이루는 것이 아닌, 교과 내용의 부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 또는 방과 후 여가활동으로 학습 웹툰 시청을 유도해내는 것이 중요할 듯하다. 또는 특별 수업과 같이 짧은 시간 내에 빠른 이해를 요하는 활동에서 중요한 수업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4.3. 기대효과

웹툰을 교육적으로 제작하여 아동 정서발달, 청소년 기초교육 유도, 접근성 높은 특수 교육 등의 다양하게 활용된다면 현재까지 사용되었던 매체들과 다른 새로운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본다.

<표 9> 기대 효과

웹툰과 교육의 접목 5가지 기대효과	사고의 확장
	흥미 유발
	적극적 참여 유도
	정서 발달
	교육의 공간 확장

창의적 교육 측면의 웹툰의 경우 글과 그림으로 보는 이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웹툰 만의 스토리텔링 기능이 아이들이 전하고자하는 메시지를 임팩트 있게 정리하고, 효과적으로 구성하여 탄탄한 스토리라인을

13) 김호정, 'Why?' 류 학습만화 약인가 독인가...“공부 흥미 생겨” vs “독서와 멀어져”, 중앙일보, 2020.11.11.

14) 장수정, [종이책의 미래①] “종이 줄이자” 외치는 시대...종이책 운명은?, 데일리안, 2022.07.22.

스스로 형성할 수 있도록 사고를 확장시킬 것이다. 이와 같은 능력의 발전으로 인해 부수적인 청소년들의 발표 능력, 이해 능력 및 설득력 향상과 같은 결과도 얻을 수 있다.

교수 매체의 활용의 경우 학습자의 관심사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웹툰은 최근 MZ세대와 기성세대, 그리고 국내와 국외 모두를 아우르는 하나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며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유도하기에 매우 적절한 소재이자 매체이다. 웹툰과 교육이 결합될 시에 웹툰의 재미를 잃지 않고 지식을 가볍게 전달하는 것에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며, 이의 균형을 잘 맞춘다면 학습자의 흥미와 지식 전달 두 가지 목적 모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웹툰은 인물 간의 대화, 사회적인 소통과 관계를 담아내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에 학교를 자주 가지 못하는 어린 학습자들의 경우 웹툰을 보며 관계 형성을 이해하고 사회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장 기대되는 효과는 학습, 교육 공간의 확장 기능이다. 디지털 기기를 항상 들고 다니는 현대인들의 경우 어디에서나 배움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최대 장점이 아닐까 싶다. 보통 학습의 공간이란 학교, 학원과 같은 전문 교육기관으로 생각되며 최근 인터넷 강의의 활성화로 집에서도 간간히 학습을 하고는 했다. 하지만 웹툰이 교육 분야에서 활발히 활용된다면 지하철, 버스, 카페, 거리 등 장소불문하고 배움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웹툰의 교육적 활용에 대해 다양한 방면에서 분석을 하여 그를 바탕으로 교육 웹툰의 전망, 그리고 효과를 도출해내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 2022년도 현재 국내 웹툰, 특히 네이버 웹툰 플랫폼은 엄청난 흥행 결과를 일궈내고 있다. 이렇게 각광받는 분야를 새로운 인재를 추구하는 교육에 접목시켜 학습자와 교수자 모두에게 이로운 결과를 도출해야한다고 바라본다.

이 시대는 더 이상 문제해결형 인재가 아닌 문제제기형 창의적 인재를 요구한다. 스스로 사고할 수 있으며, 수업에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교육 방식이 등장해야한다. 웹툰의 스토리텔링, 가독성, 상호작용성은 이러한 교육 트렌트에 맞춰 학생들을 이끌어줄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시도된 웹툰과 교육의 결합 선례에서 교육 웹툰 시장 부진의 원인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를 정확한 지식 바탕으로 교육 웹툰 제작, 웹툰과 교육 각각의 본질을 잃지 않도록 추구해야할 방향성을 확고히 알고 개선해가며 차차 해결해야 할 것이다.

학습자 개인의 흥미유발, 적극적 수업 참여 동기부여, 그리고 유연한 사고의 발달을 위해 우리는 이 시대 교육이 나아가야할 방향성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해야 하며, 기존의 교육 방식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탈피하고 창의성이라는 새로운 교육 가치를 향해 달려 나가야 할 시점이다.

참고 문헌

논문

노혜란, 교육공학 및 교육방법 제2판, 교육과학사, 2012, 5-9쪽.

박기수, 웹툰을 왜 정의해야 하나? : 웹툰, 조형과 개방의 역동적 생산, 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18, 6쪽.

진상원, 고등학교 국사 교과의 영화 활용 수업사례, 통권 47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10, 6-8쪽.

인터넷 사이트

교육부, [창의교육] 창의성 증진과 교육환경, 네이버 블로그, 2016.07.27.,
<<https://m.blog.naver.com/moeblog/220773140027>>

스토리위너코치, 청소년에게 스토리텔링 교육이 필요한 이유?, 브런치, 2021.,
<<https://brunch.co.kr/@skychang44/352>>

기사

강태우, '웹툰 한편으로 수업 내용 익힌다'...온니버스 콘텐츠 개발, 한국경제, 2022.11.30.,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11292588h>>

곽희양, 아이 모습을 한 AI에게 아무 영상이나 보여줬더니, “엄마 개짜증나”, 경향신문, 2020.06.12.,
<<https://khan.co.kr/it/it-general/article/202006111438001>>

김호정, 'Why?' 류 학습만화 약인가 독인가...“공부 흥미 생겨” vs “독서와 멀어져”,
중앙일보, 2020.11.11.,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917177#home>>

박현익, [네이버웹툰 분사 5년] 월 이용자 4600만→1.8억...‘글로벌 스토리테크’ 구축, 서울경제,
2022.05.02., <<https://www.sedaily.com/NewsView/265TAHCGKE>>

안희대, 유성구, 2022년 학교폭력예방 힐링웹툰교실 운영, 시티지널, 2022.11.29.,
<<https://www.gocj.net/news/articleView.html?idxno=124344>>

장수정, [종이책의 미래①] “종이 줄이자” 외치는 시대...종이책 운명은?, 데일리안, 2022.07.22.,
<<https://m.dailian.co.kr/news/view/1134380>>

전지현, 중학생 우리말 어휘력, 평균 65점...초등생 수준에도 '부족', 비즈트리뷴, 2019.10.07.,
<<https://www.biztribu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847>>

조세진, "웬만한 대학 캠퍼스보다 좋다" ...요즘 초등학생들이 수업 듣는 '복층' 교실 클래스, 인사이트,
2020.10.22., <<https://www.insight.co.kr/news/308988#gsc.tab=0>>

최태범, 웹툰으로 공부한다...카카오가 반한 '이만배', 34.5억 투자유치, 머니투데이, 2022.07.19.,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71908304218259>>

영상

-whoami, 지질시대송, 3:10, 2019.12.04., <<https://www.youtube.com/watch?v=3D1ZQJfSKcU>>
<<https://www.youtube.com/user/LGScienceLand>> 재인용

역사 왜곡 사례 분석을 통한 올바른 역사인식을 위한 방안 연구 : 중국의 역사 왜곡을 중심으로

무용예술전공 이연*

목차

1. 서론
 2. 중국의 역사 왜곡 사례
 - 2.1. 중국의 한국문화 강탈
 - 2.2. 중국의 프로그램 표절
 - 2.3. K-콘텐츠의 창작의 자유와 역사 왜곡의 경계
 3. 중국의 역사 왜곡 원인 분석
 - 3.1. 동북공정
 - 3.2. 한국 문화 예속화 시도
 4. 올바른 역사인식을 위한 방안
 - 4.1.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
 - 4.2. 역사 왜곡에 대한 대처 현황
 - 4.3. 정부 차원의 해결 방안
 - 4.4. 역사 왜곡에 대한 우리의 자세
 5. 결론
- 참고 문헌

1. 서론

인류 사회의 변천과 흥망의 과정 또는 그 기록을 의미하는 역사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역사학자들이 연구하고 적어 놓은 것으로부터 면면히 계승된다. 즉, ‘과거에 있었던 사실’과 그것과 관련한 ‘역사가의 해석’이 더해지면서 역사가 된다.¹

¹ 국립국어원, 역사, 표준국어대사전,

역사를 통해 우리는 문화적 뿌리와 전통 유산을 이해하게 되고 민족의 정체성과 애국심, 자부심을 가질 수 있으며 나아가 역사 속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배운 것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만약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역사를 다시 고쳐 쓴다면 세밀히 기록된 일조차 윤색될 수 있는 위험성이 발생한다. 부끄러운 역사는 감추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자부심을 느꼈으면 하는 내용은 과장하게 된다.² 또한 오늘날 국가적 문제를 유리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역사를 왜곡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처럼 역사 왜곡은 역사를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하거나 거짓으로 지어 쓰는 행위로서 실행하는 주체도 원인도 여러 가지로 많고, 그 형태도 단순히 소수의 인식 문제부터 국가적 차원으로는 주변국가 간의 관계의 갈등을 발생시키는 문화적 종주권에 관한 문제까지 광범위하다.

역사 왜곡은 크게 역사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왜곡과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가치 판단 왜곡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역사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왜곡은 일어난 일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거나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났다고 주장하며, 극단적인 경우 있는 기록을 폐기하거나 관련 문서를 날조하여 거짓된 근거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반면 가치 판단 왜곡은 역사적인 사건의 발생 사실은 그대로 두고 그 사실관계를 해석함에 있어 유리한 정보만을 취사선택하여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일컫는다.

치사하고 알팍한 방법으로 한국의 문화를 흠쳐가려는 크고 작은 시도는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도 역사 왜곡을 통해 현시대까지 계승되고 있는 한국 고유의 것들을 흠쳐가려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중국 내에서 한국의 전통문화를 자국 문화의 것이라 우기는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치는 물론 한복, 판소리, 한글까지 중국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역사 왜곡의 사례 분석을 통해 역사 왜곡의 문제를 강조하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중국의 문화 강탈과 표절 사례를 비롯한 중국의 ‘문화공정’의 실태를 파악할 것이다. 또한 창작의 자유와 역사 왜곡의 경계에서 논란을 일으킨 K-콘텐츠의 창작물에 대해 연구한다. 역사 왜곡의 심각성을 파악함으로써 역사 왜곡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과 더 나아가 역사 왜곡 문제가 우리 후세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생각해보며 역사 왜곡 대처 현황과 정부 차원의 조치, 개인에게 요구되는 노력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중국의 역사 왜곡 사례

2.1. 중국의 한국문화 강탈

중국의 한국문화 강탈은 현재진행형이다. ‘문화공정’의 일환으로 한복이나 김치 등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를 자국의 것이라 우기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이를 ‘한복공정’, ‘김치공정’ 등의 용어로 부르기도 한다. 가장 최근에 대두되었던 사건은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뜬금없이 한복을 등장시키면서 논란이 확산된 일이다. 한복이 자국의 문화인 것처럼 꾸민 퍼포먼스에서 중국의 문화공정 문제가 대두된 것이다. ‘소시민들의 국기 전달’이라는 이 공연에는 중국 내 다양한 소수민족들의 전통의상을 입은 공연자와 함께 한복을 입은 공연자가 등장해 한복이 중국의 것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줬다. 그 이면에는 중국이 하나의 중국

² 네이버 지식백과, 역사 왜곡,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60397&cid=47311&categoryId=47311>>, 2022.11.28

을 주장하고 있지만 소수민족들이 계속해서 이탈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다른 소수민족처럼 조선족도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오히려 한반도 역사가 중국 역사의 일부라는 무리한 논리를 펼치는 것이다. 동북공정의 연장선상으로 세계 각국의 우수한 문화는 자국의 것이라는 중국의 문화공정이 최근에는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³



<그림1> 베이징동계올림픽 개막식에 등장한 한복

문화 강탈은 다양한 범위에 걸쳐 있다. 세상에는 닮은 음식이 많다. 이탈리아의 스파게티와 중국의 파오샤오미엔, 한국의 비빔국수는 면의 모양만 다를 뿐 채소나 고기, 양념을 얹어 먹는다는 점은 공통된 특징이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들 음식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의 비슷한 음식을 ‘우리 음식’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각 문화권마다 음식의 발전 과정이 다르고 독특한 맛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도 햄버거나 스파게티를 중국 음식이라 우기지는 않는다. 그런데 이런 보편적 상식이 유독 한·중 간에는 통하지 않는다. 양국 간 ‘김치 논쟁’이 대표적 사례다. 중국의 행동에 어떤 일관된 메시지나 의도가 있는지 파악하려면, 김치 갈등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한국인의 분노를 야기한 사건은 중국 유튜버 리쯔치의 동영상이다. 구독자 1400만명을 보유한 그는 지난 1월 10일 ‘중국식 파오차이’가 아닌 ‘한국식 김치’를 만드는 영상을 올린 후 ‘#ChineseFood’란 해시태그를 달았다. 그녀는 3년 전에도 김치를 만드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영어로 ‘kimchi’라고 쓰고 ‘김치는 옌벤 조선족의 전통 음식’이라고 설명했다. 3년 사이에 ‘옌벤 조선족’이 ‘중국’으로 바뀌었다. 이 동영상에는

³ 이설영, 베이징올림픽 ‘한복’ 논란...동북공정·문화공정 뭐?, 파이낸셜뉴스, 2022.2.5.,

<<https://www.fnnews.com/news/202202051247094915>>

‘연변 조선족’이 55개 중화민족 중 하나이기 때문에 ‘김치 역시 중국의 것’이라는 억지 논리가 숨어 있는 것이다.



<그림 2> 중국 유튜버가 올린 김치 담그는 영상 장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요의 하나인 ‘아리랑’도 중국의 타깃이 되었다. 중국은 ‘조선족 아리랑’을 중국의 소수 민족인 조선족의 문화이므로 중국의 문화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최근 중국의 댄스 예능 프로그램에서 ‘조선족의 문화’라고 소개하며 한글 기사로 된 아리랑에 맞춰 부채춤을 추는 장면이 등장했다.



<그림 3> 중국 예능에서 한복을 입고 아리랑에 맞춰 부채춤을 추는 장면

이는 조선족이 사용하는 ‘조선어’가 자국 언어라고 우긴다는 점에서 ‘한글공정’도 포함된 문화 강탈 사례이다. 이에 대해 한국인들은 ‘민족적 정신과 혼이 담긴 민족적 노래 아리랑의 위상이 손상 당했다’라며 비판했다. 중국은 2011년 연변 조선족자치주의 아리랑을 중국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문화공정을 시도했고 이에 한국 정부는 2012년에 ‘한국판 아리랑’을 한국의 유네스코로 먼저 신청하여 한국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여 중국에 대응하였지만 일찍부터 대응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았다.

스포츠 중주국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건도 있다. 태권도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무예를 바탕으로 한 운동이다. 최근 중국 유명배우가 중국 인기 프로그램에서 “태권도는 중국 무술에서 기원했다”라고 발언을

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TV프로그램은 일종의 무술 오디션 성격의 프로그램으로, 문제의 발언을 한 배우는 심사위원으로 출연했다. 문제의 발언은 한 참가자가 “한국의 태권도를 배웠다”고 언급한 것에서 시작이 됐다. 이에 대해 “한 가지 수정할 부분이 있다”며 발언을 가로챈 뒤 “모든 무술의 기원은 중국이다. 태권도도 중국 발차기에서 기원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해당 참가자는 “동의한다. 모든 무술의 기원은 중국이다”고 동조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⁴ 한 유튜버가 이러한 논란이 발생한 후 영국으로부터 제작된 가이드북을 공개했다. 영국의 여행안내서 전문 러프 가이드가 펴낸 한국 안내서 '더 러프 가이드 투 코리아'에서 역사 및 문화 왜곡, 한국인 비하 등 다수의 오류가 발견됐다.⁵ 이에 따르면 태권도는 중국 당나라에서 유래되었고 삼국시대 때 한국 고유의 변형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가이드북은 오프라인 서점, 온라인 서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어 왜곡된 사실이 무분별하게 퍼져가고 있다. 태권도에 대한 중국의 문화공정에 대해 영국이 힘을 실어주는 셈이다. 또한 이러한 발언은 2007년에도 있었다. 세계 124개국의 1천 7백 여명의 태권도 선수구단과 중국 관중들이 모였던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개막식 당시 장내 중국인 아나운서가 태권도를 “태권도는 중국의 전통무술에서 유래되었다”라고 설명하였다. 이미 오래전부터 태권도에 대한 관심을 비추던 중국의 주장에 대한 역사적 근거는 당연히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인들은 중국의 황당한 ‘태권도 공정’ 주장에 대해 크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⁶



<그림 4> 중국 배우의 태권도에 대한 발언을 하는 장면과 영국 가이드북

2.2. 중국의 프로그램 표절

⁴ 박세정, 중유명배우 “태권도는 중국 것!” 중국인도 혀 내두른 망언, 헤럴드경제, 2021.4.5.,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405001045>>

⁵ 박예나, "태권도, 중국에서 유래"...왜곡 투성이인 영국의 韓여행안내서, 서울경제, 2021.1.6.,

<<https://m.sedaily.com/NewsView/22H5GH2LII#cb>>

⁶ 조아라, 중국의 신(新)동북공정(문화공정)에 대한 한국의 대응, 경영컨설팅연구 제21권 3호, 경영컨설팅연구소, 2021, 397-398쪽

중국이 K-콘텐츠를 그대로 베끼는 표절 또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가장 최근으로는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중국 예능이 표절해 논란이 된 사례이다.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456억 원의 상금이 달린 의문의 서바이벌에 참가한 사람들이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극한의 게임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중국 예능 ‘오징어의 승리’는 어린 시절 게임에 도전하는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은 물론, 포스터 디자인에도 ‘오징어 게임’의 상징색과 모양인 동그라미, 세모, 네모 동형이 사용되어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논란이 된 사건이지만 이전부터 중국은 한국 예능, 드라마, 영화 등을 계속해서 표절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림 5> 중국의 신작 예능 ‘오징어의 승리’ 표절 의혹

‘프로듀스 101’은 국내 유명 프로듀서들이 연습생들에게 춤, 노래, 랩을 알려주며 무대와 투표를 통해 최종 11명의 아이돌을 구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표절한 중국의 ‘우상 연습생’ 역시 보컬, 랩, 춤마다 트레이닝 선생님이 있고, 매일 하루 한 번 원하는 연습생에게 투표해 최종 9명이 아이돌 그룹이 되는 것까지 매우 유사하다. 이 프로그램은 방영 당시 한국 판권을 사지 않고 진행 방식을 그대로 베낀 것으로 알려져 더 공분을 샀다. 처음 시즌1은 ‘우상연습생’이라는 제목으로 방영됐지만 포맷 표절 논란이 불거졌고 이후 ‘청춘유니’로 제목과 포맷 일부를 변경했지만 여전히 한국의 프로그램과 비슷하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중국 방송가는 정당한 대가 없이 한국 예능프로그램을 무단으로 표절하는 일을 관행처럼 여겨온 것이 크게 알려지게 한 사례이다.⁷

⁷ 강선애, "中 '우상연습생', '프로듀스 101' 88% 표절"...국제적 망신살, SBS 연예뉴스, 2018.4.10.,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705657 >



<그림 6> 한국의 '프로듀스 101'과 중국의 '우상연습생'

'쇼미더머니'는 래퍼 서바이벌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에서 매 시즌마다 큰 관심과 인기를 끌고 있다. 이를 베낀 중국의 '랩 오브 차이나'는 우리나라의 포스터 디자인과 로고 등이 비슷하다. 또한 처음 오디션 때 일렬로 줄을 서서 합격 목걸이를 받는 것과 합격자들과 프로듀서들이 팀을 이뤄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두 프로그램의 구성은 놀랍도록 똑같이 진행되고 있으며, 차별화된 모습은 볼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 한국의 '쇼미더머니'와 중국의 '랩 오브 차이나'

'삼시세끼'는 시골에서 직접 농사와 낚시 등 모든 것을 자급자족해 생활하는 프로그램이다. 중국에는 이를 표절한 '동경하는 생활'이 있다. '동경하는 생활'의 감독은 기획 의도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르다고 해명했으나 프로그램 배경이 시골인 점, 등장인물 또한 3명이며, 시골에서 아무 도움 없이 스스로 생활하는 점을 포함해 반려견이 등장한다는 점마저 똑같았다.



<그림 8> 한국의 '삼시세끼'와 중국의 '동경하는 생활'

여기에 '중국의 첫 여자 댄스 아티스트 오디션 리얼리티'라며 신규 예능 프로그램 '대단한 댄서'를 제작 중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엠넷의 댄스 경연 프로그램 '스트릿 우먼 파이터'와 매우 유사해 중국의 표절 사례 논란은 현재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2018년 기준 약 34개의 우리나라 예능을 표절했다.⁸

2.3. K-콘텐츠의 창작의 자유와 역사 왜곡의 경계

문화공정은 최근 글로벌한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K-콘텐츠 속 설정 그리고 소품에 대한 반감을 만들어 내고 있다. 암묵적 동의 하에 등장하는 드라마 속 PPL은 제작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시청자들 즉, 소비자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고 제품을 광고해야 성공한 마케팅 전략이 된다.⁹

최근 K-콘텐츠 속 중국풍 소품이나 설정, 중국 PPL 제품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 한류 열풍으로 K-콘텐츠를 소비하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 제품이나 중국풍의 소품이 다수 등장하는 K-콘텐츠가 중국의 '문화공정'에 힘을 실어줄 수도 있다. 또한 역사 고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역사왜곡 우려 콘텐츠들도 다수 등장하고 있다. 한국의 역사와 역사적 인물들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동떨어진 내용은 중국의 문화공정이 펼쳐지

⁸ 장민영, 중국의 신작 예능 '오징어 승리?' '오징어 표절'이라고 이름 바꿔야, 위뉴스, 2022.2.18.,

<<https://www.wi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14>>

⁹ 정덕현, '빈센조'의 비빔밥에서 '조선구마사' 퇴출까지, 주간조선, 2021.4.3.,

<<http://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17140>>

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중국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도 있으므로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다. 중국 콘텐츠 시장의 규모는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중국 콘텐츠 기업들은 중국 내에 인기 있는 한류에 주목하면서 한국에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자 한국의 콘텐츠 속 중국의 영향력이 커졌고 이에 따라 중국풍의 소품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 한국 콘텐츠 속에서 중국풍의 소품의 등장이 앞으로 계속 이어진다면 한국의 문화에 대한 중국의 왜곡된 주장이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되는 상황이다.¹⁰

논란에 휘말린 지상파의 한 드라마는 초반부터 중국풍 소품을 사용하는 장면으로 논란을 빚었다. 특히 충녕대군이 조선의 기생집에서 서역에서 온 구마 사제에게 월병과 중국식 만두, 피단 등을 대접하는 장면이 문제가 됐다. 기생집 자체가 중국풍 인테리어였다는 지적도 있었다. 설정이 허구, 이른바 픽션이라 할지라도 용납하기 어려운 역사 왜곡이 이루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드라마의 역사 왜곡 논란이 되는 장면에 대해 "최근에는 중국이 한복, 김치, 판소리 등을 자신의 문화라고 주장하는 '신(新) 동북공정'을 펼치고 있는 와중에 또 하나의 빌미를 제공한 셈"이라고 밝혔다.¹¹



<그림 9> 논란이 된 드라마 속 중국풍 소품 사용 장면

PPL과 관련해 논란이 된 드라마도 있다. 드라마 ‘빈센조’에서는 ‘차돌박이 돌솥 비빔밥’이라 적힌 즉석식품을 먹는 모습이 나왔다. 이 제품은 중국 유명 즉석식품 브랜드 ‘즈하이귀’가 만든 중국 내수용 비빔밥으로 한국에선 접할 수 없으며 이 브랜드가 다른 제품에 ‘한국식 비빔밥’, 김치를 ‘파오차이’라고 표기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더했다. 한국의 음식인 비빔밥을 ‘한국식 비빔밥’이라고 표현하여 문화 공정을 시도한

¹⁰ 조아라, 앞의 글, 397-398쪽

¹¹ 김중수, “역사왜곡 논란에 중국 소품까지”...국내 드라마에 뽐났다, KBS NEWS, 2021.3.24.,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46585>>

것인데 결국 논란이 불거지자 드라마 제작사가 중국산 비빔밥 PPL 장면을 삭제하였다.¹²



<그림 10> 논란이 된 드라마 속 중국산 비빔밥 PPL 장면

드라마 속 ‘표현의 자유’와 ‘사실 왜곡’의 경계는 하나로 정의할 수 없다는 모호함이 있다. 그러나 국외 팬들에게 왜곡된 역사 인식을 심어주고 잘못된 정보가 무분별하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한 인기를 끌고 있는 K-콘텐츠에서의 역사 표현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3. 중국의 역사 왜곡 원인 분석

3.1. 동북공정

동북공정은 중국 국경 안에서 전개된 모든 역사를 중국 역사로 만들기 위해 2002년부터 중국이 추진한 동북쪽 변경지역의 역사와 현상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이다. 동북공정은 ‘동북변강역사여현상계열연구공정’을 축약한 것으로 ‘동북 변방의 역사와 현재 상황에 대한 연구 사업 계획’이라는 뜻이다. 이 프로젝트는 공식적으로는 2007년에 끝났지만 목적을 위한 역사왜곡은 현재까지 진행중이다.¹³ 궁극적 목적은 중국의 전략지역인 동북지역, 특히 고구려와 발해 등 한반도와 관련된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만들어 한반도가 통일되었을 때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영토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있다. 고조선과 고구려, 발해 등은 고대 중국의 동북지방에 속한 지방 정권인데, 북한과 한국의 학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왜곡하고 혼란을 부추기고

¹² 신영은, ‘빈센조’ 논란의 중국 비빔밥 PPL 장면 삭제, 스타투데이, 2021.3.31.,

<<https://www.mk.co.kr/star/broadcasting-service/view/2021/03/304950/>>

¹³ 김지혜, 동북공정 종료 15년...“중국, 문화·예술까지 패권주의적 연구 증가”, 경향신문, 2022.6.17.,

<<https://m.khan.co.kr/culture/scholarship-heritage/article/202206171727001#c2b>>

있다는 전제 아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엄연히 이들 3국은 한국사의 실제이고, 고구려나 발해는 만주와 한반도를 동시에 영토로 삼았던 국가들이다. 오늘날 동북공정은 근현대 중화민국 시절부터 현 중화인민공화국까지 진행되고 있는 동북방의 모든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규정하려는 역사왜곡 시도를 전반적으로 일컫는 말로 이해되고 있다.

1990년대 중국 측의 고조선 관련 연구의 동향을 보면 주요 명제가 '중심이동설'에 대한 '평양중심설'의 반격이었다. 그러다가 '평양중심설'이 차츰 정설로 자리 잡게 된다. 그리고 이 무렵부터 '동북공정'의 연구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중국 학계는 기존의 '기자조선-위만조선-한사군'의 삼단계 역사체계에서 새로 고구려를 추가하고 고구려 문제에 공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급기야 고구려사를 연결고리로 삼아 한민족사 인식체계 전반의 훼손과 왜곡을 도모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중국 학계는 사료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충분한 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고구려사를 '중국고구려사'로 편입시키고 그 외연을 고조선사, 부여사, 발해사로까지 확장해 가는 양상을 보인다. 중국 학자들은 패수가 대동강이며, 왕검성 또는 조선현이 지금의 평양이었다는 점, 또 고조선의 강역이 한반도 북부에 고착된 채 아무리 크게 잡아도 압록강을 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대부분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고대사 주장들은 모두가 태생적으로 결정적인 결함을 안고 있다. 이들의 주장들은 철저한 문헌적, 지리적 검토를 통하여 직접 입증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양수경, 왕선겸 이래로 패수, 평야에 대한 고증을 시도한 학자가 수도 없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점 또는 의혹을 간파하고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 고고학적 견지에서 볼 때 현지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한결같이 특수성, 의외성만 보일 뿐 보편성은 결여되어 있다. 참고 자료는 될지 몰라도 고고학적 판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단서는 될 수가 없다는 뜻이다.¹⁴

결과적으로 동북공정의 표면적인 목적은 동북 변강 지역의 역사 및 상황에 관한 연구 사업이었으나 실제로는 동북방의 모든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규정하려는 역사 왜곡 목적으로 시행되었다.¹⁵ 중국이 동북공정을 시도하는 의도에 대해 신중론자들은 "중국의 공산당 정권은 집권 초기까지만 해도 한족 중심의 '단일민족 역사관'을 견지했지만 1980년대 중반 이후 이 견해가 소수민족을 아우르는 '통일적 다민족 국가'로 점진적으로 변했다"며 "중국 내 소수민족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방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¹⁴ 문성재, 한국고대사와 한중일의 역사왜곡, 우리역사연구재단, 2018, 108-113쪽.

¹⁵ 김예진, 아직 끝나지 않은 동북공정, 가톨릭대학보, 2022.1.2.,

<<http://www.cuk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573>>

소수민족 중 하나인 위구르족이 중국 당국에게 독립을 요구했을 때 신장자치구의 독립을 수락하지 않았다. 소수민족의 독립을 승인해 줄 경우 중국 한족의 영토 일부인 중국의 하남성, 하북성 만 남게 되어 국가 자체가 붕괴 위험의 가능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소련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불안을 느낀 중국 당국은 변경 지역에서 분리독립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 하였고 소수민족 역사를 '중화민족의 역사'로 바꿔왔다. 즉, 동북공정은 중국의 소수민족에 대한 억압의 해결방법으로 이용되기에 이 거대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¹⁶

그 외에도 중국의 의도에 대해 북한 정권이 붕괴된 후 자칫 중국이 역사적 근거를 내세워 북한을 중국 땅으로 편입하려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함이라는 일부 학자들의 의견도 존재한다.¹⁷

3.2. 한국 문화 예속화 시도

우월한 문화는 모두 자국의 것이라는 중국의 자문화중심주의는 한국 문화를 강탈하려는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 과거부터 이어져 온 중화사상은 중국이 지리적·문화적으로 '중앙'이고 '뛰어난 문화'를 가지고 있기에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며 모든 것이 중국을 중심으로 하여 전 세계에 퍼져 나간다고 믿는 말이다. 이에 따라 동양에서 전 세계적으로 우월함을 인정받고 주목을 받는 문화들이 모두 중국의 문화라는 결론이 나게 되는 것이다. 한국의 전통을 자신의 것이라고 우기는 이유 중 하나가 되는 중국인들에게 널리 퍼져 있는 사상이 한국문화 강탈로 이어지고 있으며 국가를 사랑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중국인들의 성향이 애국주의를 넘어 한국 문화에 대한 문화공정을 심화 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4. 올바른 역사인식을 위한 방안

4.1.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지기 위해 자국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것과 함께 역사 왜곡 주장

¹⁶ 박민희, 고구려·발해 지운 '동북공정 2막'과 신장 위구르, 한겨레, 2022.9.18.,

<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59027.html> >

¹⁷ 송형석, 중국이 집요한 이유는 뭔가..북한까지 자기 땅으로 편입?, 생글생글, 2006.9.18

< <https://sgsg.hankyung.com/article/2006091478111> >

에 대해 대응하는 것은 우리의 역사를 지키는 행위로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다.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는 것을 넘어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 그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우리 정부와 학계, 언론의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하다.

4.2. 역사 왜곡에 대한 대처 현황

중국이 시도하는 역사 왜곡에는 역사적 근거가 없다는 가장 핵심적인 결함이 존재한다. 이에 우리는 역사 왜곡을 통해 우리 고유의 것을 빼앗아가려는 중국의 행동에 보다 더 확실하고 반박 불가능한 자료와 적극적인 해외 홍보 방식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한복은 한국의 전통의상으로 한복을 K-컬처 대표상품으로 키우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국립대구박물관과 함께 “한복-꽃이 핀 비단 옷이라네” 특별전시를 인천국제공항 서편에 있는 인천공항박물관에서 오는 2023년 2월 28일까지 계속해 세계인의 눈길을 붙잡는다. 해외문화홍보원은 전 세계에 한복을 포함한 한국문화의 매력을 다채롭게 알리기 위해 현지 맞춤형 한국문화제 ‘코리안 컬처 신(Korean Culture Scene)’을 개최하며 우리 고유의 복식 ‘한복’을 중심으로 기획한 전시로 세계적으로 주목 받는 한복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자리를 만들었다.¹⁸

중국의 김치 왜곡에 대한 대처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위상 제고와 글로벌 김치문화 창진을 위해 김치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여 김치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킨다는 설립목적 가진 세계김치연구소는 중국의 한 매체에서 자국의 절임 채소 음식인 ‘파오차이’가 김치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밝혔다. 한국 김치와 중국 파오차이는 제조공정 및 발효 단계에 있어 큰 차이점을 보이는데 연구소는 “채소 절임은 고난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농경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계절의 변화가 있는 지역이라면 어디서나 채소 절임 식품이 발달할 수 있으며, 실제로 김치 이외에도 파오차이, 썬게모노, 사우어크라우트, 피클 등 다양한 절임 식품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생채소를 1,2차로 나눠 발효시키는 식품은 전 세계적으로 ‘김치’가 유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치의 두 번의 발효과정을 거치는 동안 원재료에는 존재하지 않던 각종 영양 물질과 유산균이 생성되고 따라서, 김치의 ‘발효’가 다른 나라의 절임 채소류와 달리 건강기능성 식품으로 자리 잡게 된 중요한 차별점이라는 것이다. 최학종 세계김치연구소장 직무대행은 중국 매체의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앞으로 연구소는 김치의 우수성을 보다 과학적으로 규명해 전

¹⁸ 설성현, 한복, K-컬처 대표상품으로 키운다, 스피릿, 2022.10.4.,

<<http://www.ikoreanspirit.com/news/articleView.html?idxno=68817>>

세계에 알림으로써 더 이상 이와 같은 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¹⁹

김치와 파오차이 비교

구분	김치	조미 파오차이	사천 파오차이
속성	발효	절임	발효
저장·유통	저장 유통 중 지속 발효를 통한 영양 기능성 물질 생산	살균	살균
유형	일반 김치, 물김치	양념혼합 형태	물김치 형태
염도	1.5~2.5%	5%	2%
절임방법	단시간 절임(24시간 미만) → 식감, 공정과 연관	수개월~1년	별도 절임 없음(염수 적용)
향신양념	고추, 마늘, 생강, 미나리, 갓 등	매우 다양	고추, 팔각, 월계수 등
사진			

자료: 세계김치연구소(사진 출처: 김치(세계김치연구소), 파오차이(중국 절임채소 시장 현황, 상하이 aT센터, 2014.12)

<그림 11> 김치와 파오차이 비교

중국 신 동북공정에 따른 태권도의 정체성 훼손을 막자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전북시의회를 중심으로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건의안’이 채택되었다.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는 전 세계에서 입학생을 모집해 태권도의 질적 성장을 위한 수준 높고 전문화된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또 교육생에게 태권도 품새와 겨루기 외에도 역사에 바탕을 둔 정신과 가치를 교육하면서 졸업생에게 글로벌 태권도 지도자 자격을 수여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태권도의 보급과 정신을 함양하고 21세기 태권도의 국가 전략 상품화 및 국제 스포츠계에서의 위상 확대는 물론, 수련인 증가 등을 통한 우리 문화의 세계적 진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²⁰

¹⁹ 이지현, 김치와 중국 파오차이의 차이점은?, 식품저널뉴스, 2020.11.30.,

<<https://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037>>

²⁰ 김성수,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으로 中 신 동북공정 대응...태권도 전략상품화, 프레시안, 2021.10.5.,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100502213681170?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4.3. 정부 차원의 해결 방안

역사 왜곡에 대한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강조하고 국제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 정부 차원의 조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정부는 ‘동북공정’과 관련하여 이미 출간되었거나 앞으로 출간될 결과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중국의 주장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전 세계 사람들이 발해, 고구려 역사가 한국사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심화된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연구를 통해 중국 측의 왜곡된 역사해석에 대해 과학적이고 학문적인 차원에서 오류를 찾아내고 시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중국 또한 신진연구자들의 숫자가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연구자 양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²¹ 그 외에도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안인 올바른 역사인식을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심어주어 이후 세대 교체가 되었을 때 세계인들과 교류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역사를 확실히 지킬 수 있도록 역사교육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외교적 노력이 더해져야 한다. 역사왜곡은 학술 견해의 차이인 동시에 국가 간의 외교문제다. ‘동북공정’ 자체가 학문에 국한된 사업이 아닌 만큼 외교적 수단을 이용한 왜곡된 사실에 대한 시정이 계속되어야 한다.

4.4. 역사 왜곡에 대한 우리의 자세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 역사 왜곡에 대한 우리의 자세이다. 우리 역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상대의 주장에 반박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현대에는 소셜 미디어의 발달로 국적과 성별, 나이에 관계없이 다양한 교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주변 국가의 역사 왜곡 사실을 발견하면 이를 널리 알리고 잘못된 정보를 다시 고쳐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역사적 왜곡을 발견할 경우 사회단체에 알려 수정을 요청하는 것 또한 개인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 중 하나이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역사 왜곡과 관련하여 그 사례와 원인이 되는 동북공정, 이에 대응하는 정부차원

²¹ 김희원, 한국사 연표서 ‘고구려·발해’만 쏙 빼... 진화하는 ‘동북공정’, 세계일보, 2022.9.24.,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922521016>>

의 대응, 개인의 노력까지 살펴보았다. 역사 왜곡 사례로 중국의 한국문화 강탈 사례가 있었다. 한복, 아리랑, 김치, 태권도 등 전통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한국문화를 중국의 것이라 우기는 부분에서 중국의 주장은 역사적 근거가 부족하고 오류가 존재했다. 또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프로그램 표절과 중국 자본이 들어간 K-콘텐츠의 문제점에 대해 글로벌한 인기를 얻고 있는 한류에 대해 외국인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중국의 역사 왜곡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중국의 역사 왜곡 주장이 계속해서 강행되는 이유에 대해 오랜 기간 이어져 오고 있는 동북공정과 문화에 대한 범위까지 확대된 현재의 문화공정 실태까지 그 원인을 파악하였다.

그래서 해결 방안으로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현황과 함께 정부 차원의 조치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중국의 역사 왜곡은 현재진행형으로 개개인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지는 것에서부터 나아가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정부가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제적 교류를 함에 있어서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여 끊임없이 시정하고 우리 고유의 것을 지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강선애, "中 '우상연습생', '프로듀스 101' 88% 표절"...국제적 망신살, SBS 연예뉴스, 2018.4.10.,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705657>

국립국어원, 역사,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 2022.11.26.

김성수,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으로 中 신 동북공정 대응...태권도 전략상품화, 프레시안, 2021.10.5.,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100502213681170?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김예진, 아직 끝나지 않은 동북공정, 가톨릭대학보, 2022.1.2.,

<<http://www.cuk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573>>

김종수, "역사왜곡 논란에 중국 소품까지"...국내 드라마에 빨났다, KBS NEWS, 2021.3.24.,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46585>>

김지혜, 동북공정 종료 15년...“중국, 문화·예술까지 패권주의적 연구 증가”, 경향신문, 2022.6.17.,

<<https://m.khan.co.kr/culture/scholarship-heritage/article/202206171727001#c2b>>

김희원, 한국사 연표서 ‘고구려·발해’만 쪽 빼… 진화하는 ‘동북공정’, 세계일보, 2022.9.24.,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922521016>>

네이버 지식백과, 역사 왜곡,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60397&cid=47311&categoryId=47311>>, 2022.11.28

문성재, 한국고대사와 한중일의 역사왜곡, 우리역사연구재단.

박민희, 고구려·발해 지운 ‘동북공정 2막’과 신장 위구르, 한겨레, 2022.9.18.,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59027.html>>

박세정, 申유명배우 “태권도는 중국 것!” 중국인도 혀 내두른 망언, 헤럴드경제, 2021.4.5.,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405001045>>

박예나, "태권도, 중국에서 유래"…왜곡 투성이인 영국의 韓여행안내서, 서울경제, 2021.1.6.,
 <<https://m.sedaily.com/NewsView/22H5GH2LII#cb>>

설성현, 한복, K-컬처 대표상품으로 키운다, 스피릿, 2022.10.4.,
 <<http://www.ikoreanspirit.com/news/articleView.html?idxno=68817>>

송형석, 중국이 집요한 이유는 뭔가…북한까지 자기 땅으로 편입?, 생글생글, 2006.9.18
 <<https://sgsg.hankyung.com/article/2006091478111>>

신영은, ‘빈센조’ 논란의 중국 비빔밥 PPL 장면 삭제, 스타투데이, 2021.3.31.,
 <<https://www.mk.co.kr/star/broadcasting-service/view/2021/03/304950/>>

이설영, 베이징올림픽 ‘한복’ 논란…동북공정·문화공정 뭐?, 파이낸셜뉴스, 2022.2.5.,
 <<https://www.fnnews.com/news/202202051247094915>>

이지현, 김치와 중국 파오차이의 차이점은?, 식품저널뉴스, 2020.11.30.,
 <<https://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037>>

장민영, 중국의 신작 예능 ‘오징어 승리?’ ‘오징어 표절’이라고 이름 바꿔야, 워뉴스, 2022.2.18.,
 <<https://www.wi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14>>

정덕현, ‘빈센조’의 비빔밥에서 ‘조선구마사’ 퇴출까지, 주간조선, 2021.4.3.,
 <<http://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17140>>

조아라, 중국의 신(新)동북공정(문화공정)에 대한 한국의 대응, 경영컨설팅연구 제21권 3호, 경영컨설팅연구
 소, 2021.

교사 브이로그에 대한 인식과 개선방안

영어교육과 이지*

목차

1. 서론
 - 1.1. 연구 목적 및 배경
 - 1.2.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 1.2.1. 학생 및 학부모 집단
 - 1.2.1. 교사 집단
 2. 교사 브이로그의 현황과 논란
 - 2.1. 주요 콘텐츠 유형
 - 2.1.1 새로운 교육방식의 소개
 - 2.1.2. 수업 및 업무 일상의 공유
 - 2.1.3. 업무 외 일상의 공유
 - 2.2. 교사 브이로그에 제기된 논란
 3. 교사 브이로그에 대한 인식
 - 3.1. 교사 브이로그 찬반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 3.2. 교사 브이로그에 관한 교사의 인식
 - 3.3. 연구 대상에 따른 인식 비교 및 시사점
 4. 결론 및 제언
- 참고 문헌
- 부록

1. 서론

1.1. 연구 목적 및 배경

브이로그(VLOG)는 ‘비디오(video)’와 ‘블로그(blog)’의 합성어로, 자신의 일상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것을 뜻한다.¹ 유튜브와 브이로그의 성행에 따라 MZ 세대 사이에서는 자신의 업무 일상을 담은 영상을 브이로그로 제작하여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하였고, 직원이라면 누구나 기업을 대표하는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다는 뜻의 신조어², ‘임플로이언서’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였고, 교사 또한 이들 중 하나의 집단으로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유튜브의 영향력이 확산되면서 교사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급증하기 시작하였고, 선생님과 유튜버를 합한 ‘ 쌤튜버 ’ 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실제 교육부가 2019년 3~4월 유치원과 초·중등 교원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934명의 교사가 유튜브 채널 총 976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³

이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교육부는 2019년 7월 9일,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 지침을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교육 활동 사례를 공유하는 등의 공익적 성격을 띠는 유튜버 활동을 장려하기로 했으며, 근무시간만 아니라면 교사의 유튜브 활동도 취미나 자기계발 등 사생활 영역으로 보고 원칙상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유튜브를 통해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할 경우나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금지하기로 했으며 광고 수익 발생 최고요건에 도달하면 학교장에게 검칙 허가를 반드시 받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지침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브이로그 행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교사의 브이로그 행위를 금지해 달라는 국민청원과, 자신의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인기유튜버 선생님을 고발한다는 내용의 글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며 논쟁거리로 자리잡았다. 논란이 붙어진 지 약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사 브이로그는 성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인기는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교사의 브이로그 행위 문제가 단순한 취미활동을 넘어선 학부모, 교사, 학생 등 다양한 집단이 주목하고 있는 사회적 이슈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각 집단의 의견을 직접 물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글은 교사 브이로그의 현황에 대해 알아본 후, 학부모, 교사, 학생 집단의 인식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집단을 비교함으로써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1.2.1. 학생 및 학부모 집단

실제로 사람들이 교사의 브이로그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구글폼을 이용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는 2022년 11월 9일부터 2022년 11월 13일까지 약 5일간 진행되었고 총 41명이 응답하였다. 응답자는 만19세~21세의 학생집단 30명과 학부모 집단 11명으로 구성되었다. 학생 집단의 경우 인스타그램 등의 SNS를 통해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학부모 및 직장인 집단의 경우 해당 집단이 분포하여

¹ 네이버 국어사전, 2022.05.21.,

<<https://ko.dict.naver.com/#/search?range=all&query=%EB%B8%8C%EC%9D%B4%EB%A1%9C%EA%B7%B8>>

² 네이버 오픈사전, 2022.08.09., <https://open-pro.dict.naver.com/_ivp/#/pfentry/30ac3f385fcc4dd7ac0af241b6e86aa8/5fa61de88a334c1da977cbd7cd883fcc>

³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2019.08.26.,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817192&cid=43667&categoryId=43667>>

있는 지역 커뮤니티 ‘당근마켓’의 게시판을 활용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여섯 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번째에서 세번째 문항은 객관식 및 기타(주관식), 네 번째 문항에서 여섯 번째 문항은 주관식으로 제시하였다. (부록 참조)

설문 조사 문항	문항 형태
(1) 평소 교사 브이로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객관식 및 기타
(2) “교사 브이로그의 긍정적 측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객관식 및 기타
(3) “교사 브이로그의 부정적 측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객관식 및 기타
(4) “교사 브이로그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주관식
(5) “교사 브이로그를 시청할 때 가장 좋았던 부분/우려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서술해주세요.”	주관식
(6) “교사 브이로그에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주관식
(7) “기타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해 주세요”	주관식

<표1 > 설문조사 문항

1.2.2. 교사집단

교사 집단의 경우 직접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거나 설문을 통해 의견을 모으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유튜브에 게재 되어있는 현재 유튜브를 운영중인 교사의 의견이 담긴 영상들을 조사한 후 그 내용을 살펴보았다. 모집단의 규모가 소수임에 따라 표본이 되는 집단을 선택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으며 일부 교사의 견해임을 인지하며 해당 교사들의 영상과 게시물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2. 교사 브이로그의 현황과 논란

2.1. 주요 콘텐츠 유형

2.1.1. 새로운 교육 방식의 소개

유튜브 플랫폼을 이용하여 자신의 색다른 수업 방식을 소개하는 교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부산 송수초등학교 5학년 2반 담임교사인 옥효진 선생님은 유튜브 채널 ‘세금 내는 아이들’을 통해 교실 속 가상 경제활동을 하며 경제교육을 하는 자신의 색다른 교실 활동을 소개하였다. 채널은 1년 5개월 만에 구독자 10만 5,000명을 달성하였으며 유튜브에 소개된 이야기를 각색하여 경제교육 동화 <세금 내는 아이들>을 출간하였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첫 급여를 받았는데, 돈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었다. 아이들이 나 같은 시행착오를 최대한 덜 겪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세금 내는 아이들’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다.” 고 말하며 자신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⁴ 옥효진 선생님의 반 아이들은 ‘미소’라는 교실 속 화폐를 통해 1년간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아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낸다. 사업을 하기도 하고, 예금, 투자를 할 수도 있다. 아이들에게 경제활동의원리를 놀이처럼 접근하게 해주는 옥효진 선생님의 특별한 교육 방식은 TV 프로그램 ‘유퀴즈’에도 소개되며 더 많이 알려지게 되었다. 해당 내용을 편집한 영상에는

⁴ 김남영, 교실서 돈 벌고 세금 내고... 아이들도 경제 알아야죠, 한경, 2021.07.06.,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70611531> >

“이런 아이디어를 내고 실천하고 있다는 게 진짜 아이들 교육에 진심인 참 선생님이라는 게 느껴짐 선생님 너무 멋지십니다!”, “저런 시스템을 오로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적용하신 선생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등의 따뜻한 댓글들이 달린 반면, “이런 활동을 허락해주신 학교 분위기가 중요한 것 같다.”, “선생님 개인의 수고로 소수의 아이들만 교육의 혜택이 돌아가서 조금 아쉬워요 좋은 교육을 많은 아이들이 받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등의 아쉬움의 목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그림 1> 유튜브 채널 ‘세금내는아이들’



<그림 2> 유퀴즈! 하이라이트

옥효진 선생님의 경우, 경제 교육에 대한 보편화의 필요성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을 야기시켰으며 아이들을 위해 연구하고 애정을 쏟는 자신의 모습을 공유함으로써 교사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 기여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교사들은 자신의 교육 방식을 유튜브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공유함으로써 교육현장에 긍정적인 바람을 가져다 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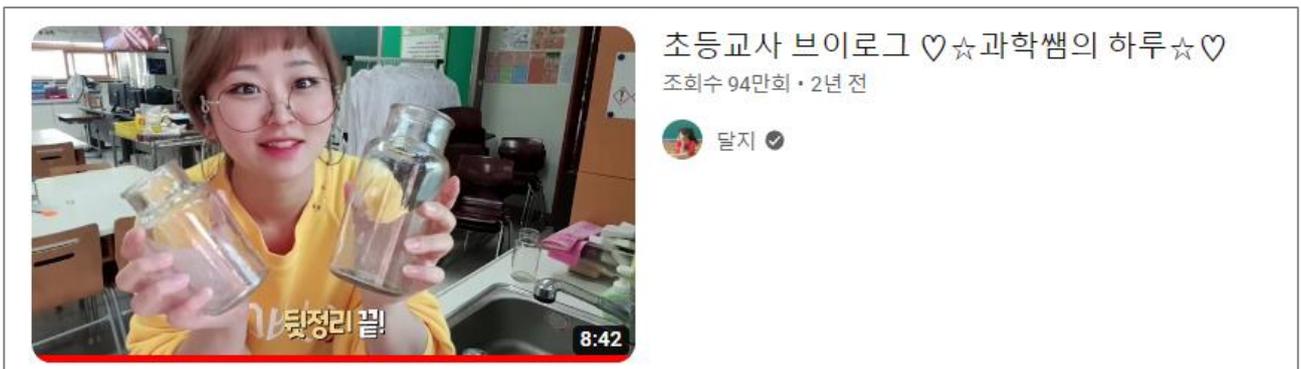
2.1.2. 수업 및 업무 일상의 공유

<그림 3>은 유튜브 검색창에 ‘선생님 브이로그’를 검색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물들이다. ‘중등교사 브이로그’, ‘유치원 선생님 브이로그’, ‘임산부 보건교사의 하루’ 등 ‘○○교사 브이로그’ 라는 제목과 함께 선생님의 일상을 담은 영상들이 쏟아져 나온다. 선생님들은 영상 속에 자신의 시험기간의 일상을 담기도 하고, 수업을 준비하고 교재를 연구하는 모습, 만우절처럼 특별한 날의 이벤트들을 영상으로 기록하기도 한다.



<그림 3> '선생님 브이로그' 검색 결과 (1)

'교사 브이로그'를 검색했을 때 상단에 노출되는 유튜버 '달지'의 영상을 살펴보았다.⁵ 해당 영상은 조회 수 약 94만회를 기록하였으며, 1,622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2022.11.14 01:29) 대중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영상에서 유튜버 '달지'는 초등학교 선생님이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공유하였다. 아침에 출근을 준비하는 순간부터 학교에 도착하여 수업을 준비하는 모습, 실제 수업을 진행하는 모습과 교무실에서의 대화, 이후 업무 일상이 약 9분의 영상에 담겨있었다. 해당 영상의 댓글에서는 “하루 종일 과학 쌤의 일상을 볼 수 있어 신기하고 재미있는 브이로그네요!! ^^”, “달지 님 유튜브 보면서 실제 초등학교의 하루를 엿볼 수 있어서 무척 뜻깊은 것 같습니다!!”, “달지 쌤 덕분에 교사라는 꿈이 생겼어요” 등 교사의 일상을 볼 수 있어 흥미로웠다는 댓글과, 자신의 장래희망에 동기부여가 되었다는 댓글들을 주로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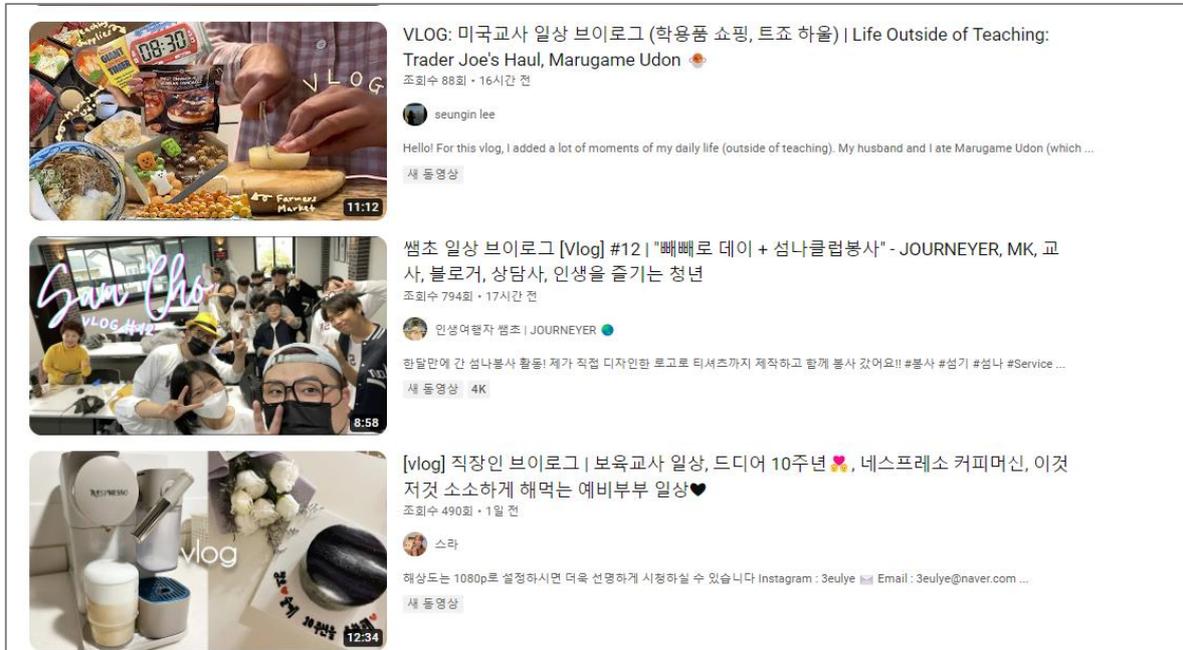
<그림 4> 유튜버 달지의 브이로그

이처럼 교사는 자신의 직업을 브이로그를 통해 소개함으로써 직업의 다양한 면을 미디어에 노출시킬 수 있고, 이는 직업에 대한 흥미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개인이 운영하는 채널의 특성상 본인의 일상에서 '보여지고 싶은 모습'만을 편집하여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브이로그 속 모습은 언제까지나 단편적인 모습에 불과할 뿐, 직업의 모든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⁵ 달지, 유튜브. 2019.11.15., <<https://www.youtube.com/watch?v=4X-f0L-eAG4&t=152s>>

2.1.3. 업무 외 시간의 일상 공유

교사 유튜버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일상을 공유하기도 한다. <그림5>를 보면 교사 유튜버들은 자신의 업무 일상 외에도 학용품 쇼핑, 하울(인터넷 방송 등에서 구매한 물건을 품평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⁶⁾), 봉사활동, 예비부부로서의 자신의 일상 등 다양한 모습을 담고 있다. 학교 안에서 선생님의 모습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속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림 5> '선생님 브이로그' 검색 결과 (2)

업무 외의 일상 공유 중 주목을 끄는 콘텐츠 중 하나는 '교사 룩 북'이다. 룩 북(look book)이란 본래 패션 디자이너나 브랜드의 의상 사진집⁷을 의미하는 단어이지만, 최근 온라인 상에서는 유튜버들이 다양한 옷을 조합하여 소개하는 영상이라는 의미로 자주 쓰이고 있다. 교사 유튜버들은 자신의 출근 룩을 모아 룩 북 영상을 만들고, "교생 실습 때 무슨 옷을 입을까?"라는 고민을 가진 학생들에게 옷을 추천해주기도 한다. 그 중 '오늘의 요정' 채널의 "수학 쌤의 출근 룩을 모아보았다"라는 제목의 영상은 조회수 1019만회를 기록하였으며, '하다 필름(HADAFILM)' 채널의 "과목별 선생님들의 패션 특징"은 조회수 226만회를 기록하는 등, 교사와 강사 유튜버 본인의 출근 룩은 물론 선생님별 패션을 정리하여 공감대를 이끄는 영상 또한 큰 인기를 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영상의 댓글에서는 "선생님들의 옷을 보며 대리만족을 할 수 있다.", "학교 선생님이 떠올라 너무 공감된다.", "나도 실습 때 참고해야겠다." 등의 반응이 주를 이루었다. 반면, 유튜버 '오늘의 요정'은 해당 영상에 "성희롱 댓글 차단합니다. 몇몇 지나친 분들 삼가주세요."라며 자신의 고충을 털어놓기도 하였다.

이렇듯 교사의 업무 외 일상을 담은 콘텐츠는 학교 밖의 선생님의 일상을 담음으로써 친근감과 유대감을 형성하기도 하지만, 교사에 대한 사회적 시선에 따라 대중들에게 부적절하게 비추어질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불어지기도 한다.

⁶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662679&cid=40942&categoryId=31611>>, 2022.11.14.

⁷ 네이버 영어사전, <<https://en.dict.naver.com/#/search?query=look%20book&range=all>>

2.2. 교사 브이로그에 제기된 논란

2021년 5월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교사의 학교 브이로그 촬영을 금지해주세요.” 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되었다. 해당 청원은 24일 낮 12시 기준 약 7000명에 근접한 동의를 얻었다.⁸ 청원인은 “아이들 목소리를 변조해주지 않기도 한다. 인터넷은 온갖 악플(악성 댓글)들이 난립하는 위험한 곳인데, 거기에 아이들이 노출되는 건 너무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또한 “영상들을 보면 학생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변조하지 않거나 모자이크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고 아이의 실명을 공개하는 상황도 잦다”며 “이를 악용해 범죄에도 이용할 우려도 있다” 라고 지적하였다. 청원인에 따르면 교사들이 올린 일부 영상에는 “돌았네”, “지x하네” 등 비속어나 욕설이 자막으로 나오기도 한다. 청원인은 “교사가 유튜브를 운영할 시 본업에 소홀해지지 않겠냐”는 걱정과 함께 “아이들의 안전 문제도 있으니 교사들의 브이로그 촬영을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다.⁹ 해당 기사를 스크랩한 커뮤니티의 댓글에는 학생들의 경우 교사의 브이로그 행위에 대해 “동의 안하고 싶어도 분위기에 떠밀려서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학생에게 동의를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평생 인터넷을 떠돌테고 그 무게감을 모조리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도 아닐 텐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에 필자는 학부모의 “교사의 학교 브이로그 촬영을 금지해주세요.” 라는 주장 속에서 “브이로그”가 의미하는 바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학부모는 청원의 내용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교사의 수업과 업무 그대로를 담아낸 영상들만을 지칭하여 지적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보았을 때, 교육적인 목적을 담은 영상이 아닌 이에 벗어난 무분별한 영상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6> “교사의 학교 브이로그 촬영을 금지해주세요” 라는 제목의 청원 글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 이하 교총)는 부적절한 브이로그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면 서도 다만 전면 금지보다는 교육적 취지를 살려 보완하는 ‘가이드라인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사의 브이로그 유튜브 활동을 일방적으로 위축시키기보다 문제점은 개선하고 순기능은 더욱 살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24일 성명서에서 “일부 교사의 부적절한 학교 브이로그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며 “다만 학교 브이로그의 긍정적 측면이 있는 만큼 금지보다는 교육적 취지를 살리고, 사전 동의 절차와 개인정보 등을 철저히 지키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있다고 말했다.

또 “언택트 상황에서 현재의 교사 브이로그가 학생들과 친근하게 소통하는 창구이자 사제 교감의 기능을

⁸ 황윤서, 국민 청원으로까지 번진 “교사 브이로그”... 이번엔 “교사 유튜브 막아 달라”, en에듀인뉴스, 2021.05.21.

⁹ 신진호, “학생들 노출 불편해요”... 교사의 ‘학교브이로그’ 찬반 논쟁, 서울신문, 2021.05.23.

특특히 하고 있다"며 "교사의 교직생활에 있어 동료, 예비교사와 정보를 공유하고, 수업과 업무 수행 등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전문성을 키우는 긍정적 기능도 있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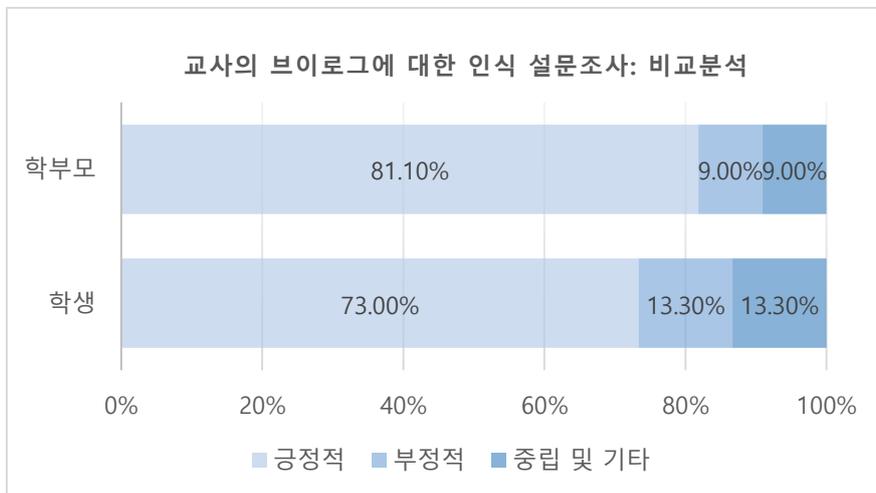
아울러 교총은 "(브이로그를) 무조건 금지할 게 아니라 합리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그 범위 내에서 제작활동이 이뤄지도록 안내해야 한다"며, "촬영과 편집 등 영상 제작이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물론, 학생을 출연시킬 때는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동의를 구하고, 얼굴과 이름 등 개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 밖에도 한 교육계 관계자는 "이번 학교 브이로그 논란을 통해 교사 유튜버들도 제작의 목적과 내용, 방법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¹⁰ 다음과 같은 반응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 교육계에서는 적절한 범위 내에서의 브이로그 촬영 행위는 소통의 창구이자 교육적 목적을 담은 매개체라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교사 브이로그에 대한 인식

3.1. 교사 브이로그 찬반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교사 브이로그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응답인 41명 중 29명(약 70.7%)이 교사의 브이로그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답변을 보냈고, 5명(약 12.2%)은 '부정적', 그 외에는 상황에 따라 입장에 차이가 있는 등의 기타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다시 이 집단을 학생집단과 학부모 집단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학생 집단의 경우 응답인 30인 중 '긍정적' 22명(약 73.3%), '부정적' 4명(약 13.3%), '중립 및 기타' 4명(약 13.3%)으로, 긍정의 입장을 취하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학부모 집단의 경우 81.1%가 '긍정적'이라는 답변을 보였고, 답변인 중 1명(약 9%)만이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기타 의견 1: 교사 브이로그를 접해본 적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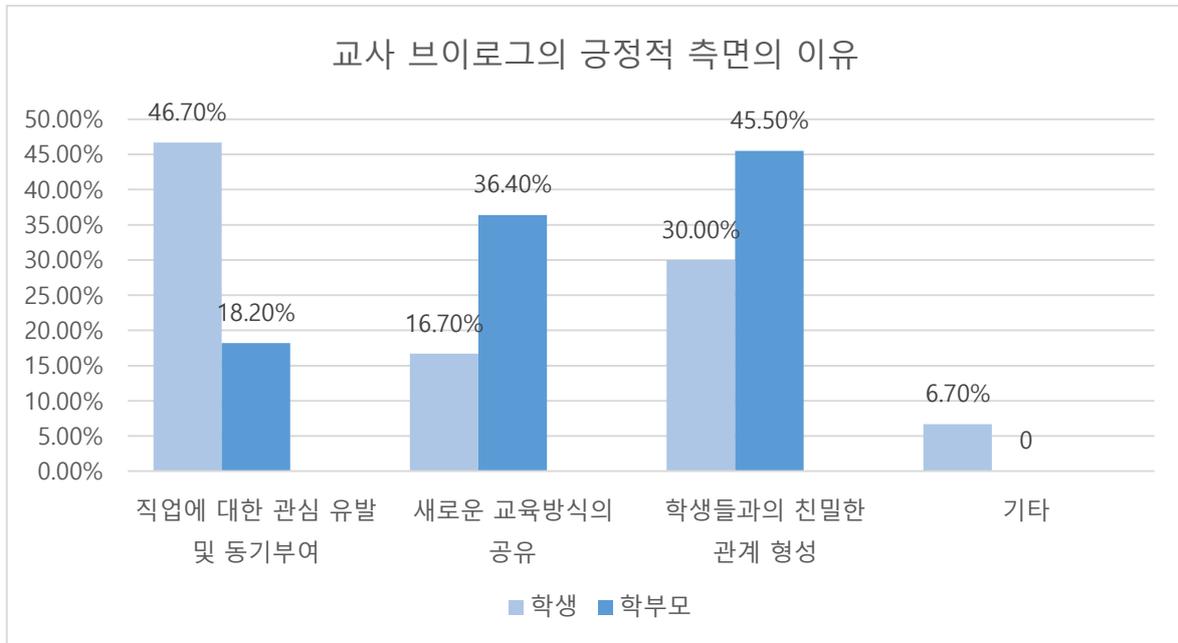


<그림 7> 교사의 브이로그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비교분석

학생 집단에게 교사 브이로그의 긍정적 측면에 대해 질문했을 때, "직업에 대한 관심 유발 및 동기부여"가 14명(약 46.7%)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학생들 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이 9명(30%), "새로운 교육방식의 공유" 5명(약 16.7%)과 기타 의견 2명(그냥 나쁠 것이 없다. 내용에 따라 입장이 다르다.)의 입장이 뒤따랐다. 학부모 집단의 경우 같은 질문에 대해 "학생들 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의 답변이 5명(약 45.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새로운 교육 방식의 공유"가 4명(약 36.4%)의

¹⁰황윤서, 국민 청원으로까지 번진 "교사 브이로그"... 이번엔 "교사 유튜버 막아 달라", en에듀인뉴스, 2021.05.21.

높은 비율로 자리잡았다. 나머지 2명(약 18.2%)의 응답자는 “직업에 대한 관심 유발 및 동기부여”를 교사 브이로그의 긍정적 측면이라고 대답하였다. 학생 집단의 경우 직업에 대한 관심 유발 및 동기부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에 따라, 한 응답자는 “교사가 되고 싶은 입장으로서는 볼때마다 동기부여가 되어 좋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학부모 집단의 경우 “아이들이 어떻게 수업을 듣는지 알 수 있어서 좋다.”, “교사들의 학교 밖 모습을 통해 아이들이 친밀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등의 반응을 통해 설문 결과에 뒷받침해 주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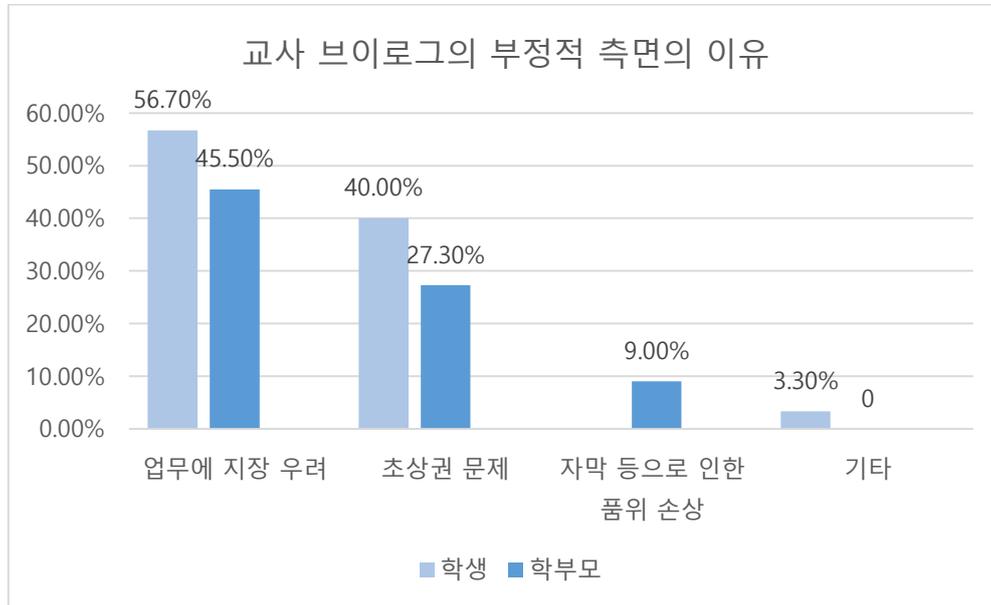


<그림 8> 교사의 브이로그의 긍정적 측면

학생 집단에게 교사 브이로그의 부정적 측면에 대해 질문했을 때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답변은 “업무에 지장 우려”(17명, 약 56.7%)이다. 또한 학생의 초상권 문제가 12명(40%)의 높은 비율로 뒤를 이었고, 기타 의견이 1명(약 3.3%) 존재하였다. 교사 브이로그에 개선되어야 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 41개 중에서 ‘초상권’에 대한 언급이 12회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학생 집단의 입장에서 부정적 측면 중 특히나 가장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아이들의 초상권 문제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교사에 대한 좋은 인식만을 남기려 노력하면 안 된다.”라며 교사라는 직업의 미화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였으며, “브이로그 촬영이 우선시되면 안 된다.” 등, 교사가 브이로그를 촬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업무 방해의 다양한 경우에 대해 언급하였다. 학부모 집단 역시 5명(약 45.5%)의 응답자가 “업무에 지장 우려”를 부정적 측면으로 꼽았고, 초상권 문제가 3명(약 27.3%), 기타 의견이 2명(약 18.1%), 자막 등으로 인한 품위 손상 문제가 1명(약 9%)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학부모 집단의 경우 또한 교사 브이로그에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해 답변 9개 중 4개의 답변에서 아이들의 초상권 문제와 더불어 사생활의 보호 (이름도 꼼꼼하게 가려주면 좋겠다 등)가 언급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유튜브는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인 만큼, 자극적인 부분을 지양하고 항상 아이들이 해당 영상과 반응을 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여 콘텐츠를 짜야 한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수업시간에 촬영을 할 경우 작위적인 연출이 들어갈 수 있고, 카메라를 인식한 채 수업을 진행할 경우 수업에 방해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과, 아무리 학생이 모자이크 처리가 되더라도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우려가 된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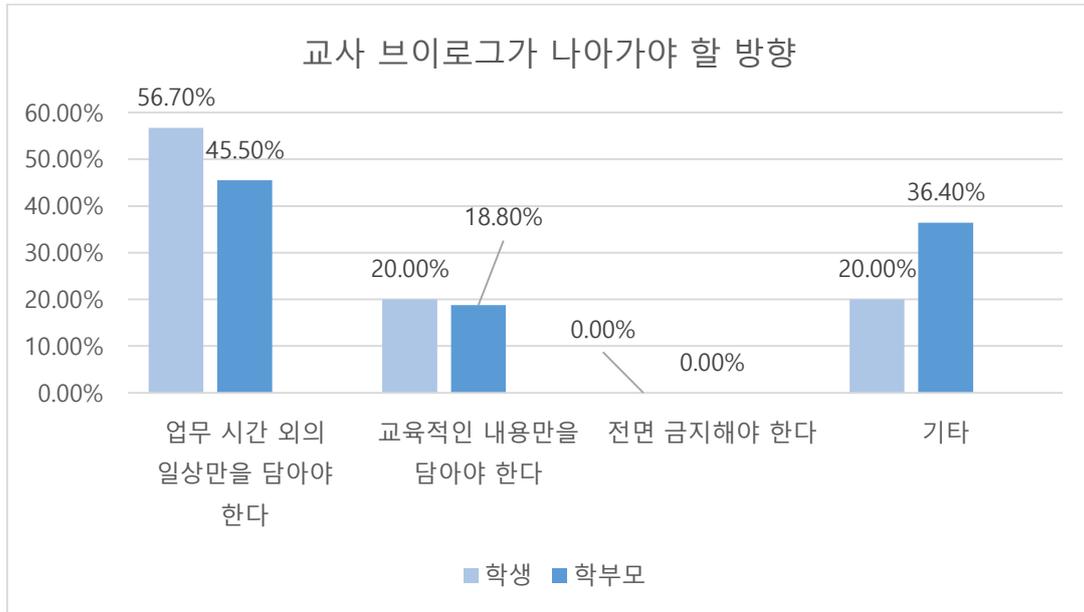
학부모 집단 중 직장인 A 씨는 교사의 품위 손상의 우려와 학생이 출연을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결정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걱정의 목소리를 보내오기도 하였다. 또한 자신이 학부모이자 영양교사라고 소개한 B 씨는 “다양한 현실은 가려진 채 브이로그로 보여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일반적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별로였다. 학교별 업무형태와 현장 상황이 많이 달라 가시적이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곳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일부 교사들이 표준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들이 학부모의 민원, 불만으로 돌아온다. 업무적인 것들도 노출하지 않으면 좋겠다.”라며 자신의 고충을 털어놓기도 하였다.



<그림 9> 교사의 브이로그의 부정적 측면

마지막으로, “교사 브이로그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에 학생 집단의 과반수인 17명(약 56.7%)이 교사의 업무 시간 외의 일상만을 담아야 한다고 대답하였다. 이는 교사 브이로그의 부정적 측면에서 가장 우려된 바인 “업무에 지장”에 이어지는 대답이라고 해석해볼 수 있다. 교육적인 내용만을 담아야 한다는 의견이 6명(20%), 기타 의견 6명(20%),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문항은 0%의 결과를 얻었다. 기타 의견의 경우 “교사의 품위 유지 등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로운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절대적인 기준을 정해 놓기 보다는 유튜브 개개인이 자율적 검열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사회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초상권과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영상을 제작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등 교사의 브이로그 제작 행위에 대해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보다는, 적당한 기준선을 제시함으로써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같은 질문에서 학부모 집단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업무 시간 외의 일상만을 담아야 한다는 의견이 5명으로 약 45.5%의 비율을 차지하였고, 2명(약 18.8%)의 응답자가 교육적인 내용만을 담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기타 의견을 낸 응답자는 4명(약 36.4%)으로, “교수 방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교육적이면 더 좋을 것 같다.” 등 교사 직업에 취지에 맞게, 교육적인 콘텐츠를 구상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기타 의견 중 다수를 차지하였다. 또한, 자신이 브이로그를 시청하며 좋았던 부분에 대해 한 학부모 응답자는 “교육 방식이나 학습환경을 더 자연스럽게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생각된다.”라며 자신의 긍정적 시선을 공유하였다.



<그림 10> 교사 브이로그가 나아가야 할 방향

3.2. 교사 브이로그에 대한 교사의 의견

교사출신의 EBS 영어 강사이자 유튜브 채널 ‘EBS강사정승익TV’를 운영하고 있는 정승익 선생님은 ‘교사 유튜브 소신발언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교사의 유튜브 활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¹¹ 그는 “기본적으로 교사 유튜브에 대한 시선은 곱지않은 않다”며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또한 온라인 게임 ‘스타크래프트 1’의 리그가 몇몇 선수의 승부조작으로 인해 사라져버린 예시를 들며 한두개의 잘못된 사례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며 교사 유튜브도 예외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그는 교사용유튜버가 계속 나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대는 계속 변하고 학생들 또한 거기에 발맞춰 빠르게 변하는데,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들 또한 시대에 발맞춰 가며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에 맞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또한 그는 교사라면 자신의 전공을 콘텐츠화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교사는 교사 스스로가 전문성을 지녀야 하고, 교육 콘텐츠의 한계 (흥미를 끌기 어렵다는 점 등)를 깨고 재미있게 내용을 전달하고자 노력한다면 그것이 교사의 전문성으로 자리잡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자신 또한 하나의 모델이 되어 후배 교사들에게 자극이 된다면 그것이 학생들에게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교사의 유튜브 활동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해당 영상에는 “마냥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 보단 열린 마음으로 건전한 토론이 이루어지면 좋겠어요”와 같은 댓글이 달리며 교사의 유튜브 활동에 대한 담론을 희망하는 시청자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¹¹ 정승익, 유튜브, 2020.10.19., <<https://youtu.be/qVnpxZACuxo>>



<그림 11>EBS강사정승익TV 썸네일>



<그림 12> N꾸림-N을 꿈꾸는 이야기 썸네일>

현직 체육 교사이자 유튜브 크리에이터 로 활동중인 전해림 선생님은 자신이 운영하는 채널 ‘N꾸림-N을 꿈꾸는 이야기’에서 ‘교사 브이로그 논란에 대한 현직 교사의 생각’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였다.¹² 그는 논란이 되었던 청원의 내용을 언급하며 교사 브이로그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선생님의 그냥 흘러가는 업무 일상, 수업 일상만을 보여주고 계속해서 그 콘텐츠로 채널을 만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 것 같다. 교사라는 직위를 이용해 인기를 누리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다.” 고 말하며 교사의 일상 브이로그가 유행처럼 번지며 학생을 위하는 마음보다 자신의 활동에 더 치우치게 되는 경향에 대해 비판하였다. 또한 그는 자신이 브이로그를 직접 촬영한 경험을 이야기하며 브이로그 활동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 설명하였다. 자신의 학교의 교육환경에 대해 소개하고, 촬영을 하며 아이들이 카메라를 신기해하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통해 학생과 교사 사이의 래포(rapport)가 끈끈해진다고 생각하는 반면, 브이로그를 촬영하는 것은 수업준비에 방해가 되는 일이었다고 말하며 자신의 경험을 회고하였다. “촬영분을 확인하는 데에만 1시간, 컷편집만 4시간이 걸렸다”고 말하며 일상적인 브이로그가 소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가 모든 교사의 유튜브 활동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보낸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선생님들의 교육적인 콘텐츠 제작 활동이 위축될까 우려된다”며 유튜브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선생님들을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진로 성찰과 폭넓은 사고에 도움을 받고, 교사 또한 직접 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학습 성취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 주장했다.

3.3. 연구 대상에 따른 인식 비교 및 시사점

위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 우선 학생과 학부모 집단 모두 교사의 브이로그 행위에 대해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왔다. 학생 집단은 교사 브이로그의 긍정적인 측면을 높은 비율로 “직업에 대한 관심 유발 및 동기부여”로 꼽은 반면, 학부모 집단은 “학생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 과 “새로운 교육방식의 공유”를 꼽았다. 교사 브이로그의 부정적인 측면은 학생집단과 학부모 집단 모두 “업무 방해 우려”를 높은 비율로 선택하였으며, 기타 의견을 통해 두 집단 모두 학생의 초상권 보호가 잘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교사 브이로그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질문에는 두 집단 모두 “업무 시간 외 일상만을 담아야 한다”를 가장 높은 비율로 선택함으로써 “업무 방해 우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교사 집단의 경우 교사의 업무 환경을 노출함으로써 일부의 모습이 전체의 모습으로 일반화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하였으며 직접 유튜브를 운영하는 교사들의 의견을 통해 소모적인 활동보다는 교사

¹² 전해림, 유튜브, 2021.05.21., <<https://youtu.be/ER1vetZEIrl>>

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생산적인 활동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담겨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좋은 시너지를 발생시키는 교사의 교육 콘텐츠 개발에 대해서는 세 집단 모두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주며 앞으로의 교사 유튜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

설문 결과, 혹자는 교사의 유튜브 행위를 온전히 개인의 자유로 보아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이에 필자는 교사의 자율적인 취미 활동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교사'로서의 자신을 어필하는 유튜브 활동이 아닌 이른바 '부캐'로 활동하며 개인의 자아를 실현할 것을 제안한다. 부캐란 '평소의 나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모습이나 캐릭터로 행동할 때'를 가리키는 말¹³로, 개인이 상황에 맞게 자신의 모습을 바꾸는 '멀티 페르소나'의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교사는 교사로서의 자신의 페르소나가 아닌, 유튜브로서의 페르소나를 통해 활동함으로써 교사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교사의 품위 유지, 아이들의 초상권 문제 등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다. 그러나 본업인 공무원의 역할에 맞게 수익이 창출된다면 검칙 허가를 통해 허용되는 선에서 자신의 취미활동을 즐기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4. 결론 및 제언

Vygotsky는 인지발달이란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며 발생하는 사회적 과정이라고 설명하였다.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부딪치는 문제들을 동료 교사 및 행정가와 협력하여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배우는 협력적 실천 과정 속에서 집단 지성을 발휘하였다. 교사 학습은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일어나며 이는 협력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교사교육에서 교사는 고경력 교사이든, 저경력 교사이든 경력이나 전문성의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교사가 동등한 위치에서 동료 교사와 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며 교육 실천을 변화시키는 주체이다. 교사는 교육 실천을 위해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창출하는 지식 창출자이며, 자신의 전문성을 다른 교사와 공유하는 교사교육자이자, 자신의 학습과 다른 교사의 학습에도 관심을 기울이며 함께 배워가는 공동 학습자인 것이다(서경혜, 2013).¹⁴

유튜브는 교사가 사회적 상호작용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매개체가 될 것이다. 교사들은 빠르게 퍼져 나가는 매체의 특성을 활용하여 자신의 전문성을 활발하게 공유할 수 있게 되고, 함께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더해, 급격히 변화하는 세상에 아이들은 빠르게 적응해 가고, 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또한 그들과 발맞춰 가야 함 또한 틀림없는 사실이다. 교사는 콘텐츠를 직접 제작함으로써 자신의 수업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교육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아이들에게 양질의 수업을 제공할 수 있고, 이는 또다른 교육형태로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끊임없이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해 그 기준선을 잡기 위한 교육계와 학생, 학부모 집단간의 적극적인 토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교사는 자신의 활동이 그저 개인적인 것에만 그치지 않고 교육환경 내에서의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깨닫고 소모적인 영상 창작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닌 교사와 교사, 교사와 학생간의 교감의 매체로 사용되어야 함을 인지해야 한다. 또한 교육부는 교사의 유튜브 활동에 대해 더 자세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학부모와 대중의 우려에 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세한 지침이 엄격한 기준선을 만들어 규제하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아이들의 초상권 문제에 대한 더 자세한 지침, 소모적이고 지속적인 브이로그로 인한 업무 방해에 대해 더 자세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교사가 지침 내에서 유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한 교육적인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교육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올 수 있는 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권장함으로써 끊임없이 변하고 발전해갈 교육계에 바람직한 교육 형태로 자리잡을 것을 희망한다.

¹³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2020.07.21.,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962926&cid=43667&categoryId=43667>>

¹⁴ 서경혜(2013). 교사 학습에 대한 공동체적 접근. 교육과학연구, 44(3), 161-191., 박다희. "교사 유튜브 활동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국내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22. 충청북도에서 재인용.

참고 문헌

김남영, 교실서 돈 벌고 세금 내고… 아이들도 경제 알아야죠, 한경, 2021.07.06.,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70611531>>

네이버 국어사전, 2022.05.21.,

<<https://ko.dict.naver.com/#/search?range=all&query=%EB%B8%8C%EC%9D%B4%EB%A1%9C%EA%B7%B8>>

네이버 영어사전, <<https://en.dict.naver.com/#/search?query=look%20book&range=all>>

네이버 오픈사전, 2022.08.09., <[https://open-](https://open-pro.dict.naver.com/_ivp/#/pfentry/30ac3f385fcc4dd7ac0af241b6e86aa8/5fa61de88a334c1da977cbd7cd883fcc)

[pro.dict.naver.com/_ivp/#/pfentry/30ac3f385fcc4dd7ac0af241b6e86aa8/5fa61de88a334c1da977cbd7cd883fcc](https://open-pro.dict.naver.com/_ivp/#/pfentry/30ac3f385fcc4dd7ac0af241b6e86aa8/5fa61de88a334c1da977cbd7cd883fcc)>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2020.07.21.,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962926&cid=43667&categoryId=43667>>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2019.08.26.,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817192&cid=43667&categoryId=43667>>

달지, 유튜브, 2019.11.15., <<https://www.youtube.com/watch?v=4X-f0L-eAG4&t=152s>>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662679&cid=40942&categoryId=31611>>, 2022.11.14.

서경혜(2013). 교사 학습에 대한 공동체적 접근. 교육과학연구, 44(3), 161-191., 박다희. "교사 유튜버 활동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국내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22. 충청북도에서 재인용

신진호, “학생들 노출 불편해요”… 교사의 ‘학교브이로그’ 찬반 논쟁, 서울신문, 2021.05.23.

전해림, 유튜브, 2021.05.21., <<https://youtu.be/ER1vetZEIrI>>

정승익, 유튜브, 2020.10.19., <<https://youtu.be/qVnpxZACuxo>>

황윤서, 국민 청원으로까지 번진 “교사 브이로그”… 이번엔 “교사 유튜버 막아 달라”, en에듀인뉴스, 2021.05.21.

부록

사고와 표현 학술적 글쓰기

본 설문은 '교사 브이로그에 대한 인식과 개선점'에 대한 학술적 글쓰기를 위해 약 1주간 진행되는 설문입니다.

 yemongji0104@gmail.com (공유되지 않음) [계정 전환](#) 

* 필수항목

본인이 속한 집단을 선택해주세요. *

- 학부모
- 중고등학생
- 대학생
- 기타: _____

평소 교사 브이로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 긍정적
- 부정적
- 기타: _____

교사 브이로그의 긍정적 측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 학생들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
- 새로운 교육방식의 공유
- 직업에 대한 관심 유발 및 동기부여
- 기타: _____

교사 브이로그의 부정적 측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 초상권 문제
- 업무에 지장 우려
- 자막 등으로 인한 품위 손상
- 기타: _____

교사 브이로그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교육적인 내용만을 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교사의 업무시간 외 일상만을 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기타: _____

교사 브이로그를 시청할 때 가장 좋았던 부분 /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서술해주세요. (본인이 속한 집단을 함께 서술해주세요)

내 답변 _____

교사 브이로그에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본인이 속한 집단을 함께 서술해 주세요)

내 답변 _____

기타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해 주세요. (본인이 속한 집단을 함께 서술해 주세요)

내 답변 _____

제출

양식 지우기

학생들의 Edu-tech(ICT 활용 교육) 인식 조사를 통한 활용 방안 모색 : 영어 교과를 중심으로

영어교육과 이지*

목차

제1장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2. 연구 방법

제2장 이론적 배경

- 2.1. 에듀테크의 정의
- 2.2. 에듀테크 성장 배경
- 2.3. 에듀테크 주요 기술 및 활용 사례
 - 2.3.1 에듀테크 활용 수업 : 인공지능(AI)

제3장 연구 결과

- 3.1. 에듀테크 수업 인식현황 -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 3.1.1. 에듀테크 수업 활용 현황
 - 3.1.2. 에듀테크 수업에 대한 인식도
 - 3.1.3. 에듀테크 수업을 통한 장단점
- 3.2. 에듀테크 영어 교과 적용 연구

제4장 결론 및 제언

- 4.1. 결론
- 4.2. 제언

참고 문헌

제1장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20년 코로나 19 유행으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면서 교육 불평등과 격차가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 상황에서 에듀테크가 비대면 수업의 대안으로 떠오르게 되었고 특히, 정부는 AI 기술을 도입하여 수학과 영어 등 과목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돕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¹

에듀테크란 간략히 정의하면 일반적 교육에 정보통신기술(ICT)이 합쳐진 교육 형태를 말한다. 주로 VR, AR,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이 이 정보통신기술에 해당한다. 이 글쓰기의 핵심 용어인 '에듀테크'에 대한 개념은 2.1절에서 깊이 다루도록 하겠다.

에듀테크는 이전에 등장한 E-Learning보다 더 확장된 개념으로 교육에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수업 방

¹ 박인연, 트렌드 에듀케이션, 원너스미디어, 2020, 33-105쪽.

식을 통해 학습의 장을 넓혔다. ‘에듀테크’ 산업에 대한 높은 관심은 많은 기업들의 투자가 잇따랐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ZOOM부터 교육용 SNS 클래스팅, 클래스 카드, kahoot 등 다양하다. 이러한 교육용 학습 플랫폼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교육 불평등과 격차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 보는 의견이 많았다. 이렇듯 앞으로 교육에는 기술을 적절히 활용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 현장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디바이스와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육 방법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교육의 현장에서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현황 등의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기존의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육의 사례를 탐색하고, 에듀테크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실효성을 분석하고 자 학생들의 인식도 등을 설문을 통해 조사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자 한다. 수집 및 분석한 데이터를 토대로 현재 국내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학교의 에듀테크 활용 실태를 파악하도록 한다.

더욱이 조사 진행 과정 중 미래 영어교사를 희망하는 학생으로서 에듀테크 중에서도 특히 영어교과 수업에 적극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AI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 따라서 구글 AI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 스피킹 수업을 진행하며 장점과 한계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이상적인 에듀테크 적용 모델을 제시하고 앞으로의 학교 교육이 학습자에 맞추어 어떻게 발전하면 좋을지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설문을 진행하여 학교 현장에서의 에듀테크 활용 현황, 학생들의 에듀테크에 대한 인식도, 효율적인 에듀테크 활용 수업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AI 활용 수업의 실제와 한계점, 이점을 알아내기 위해 상명여자고등학교 2학년 2명을 대상으로 직접 AI 스피커를 활용한 모의 수업 실연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다루면, 에듀테크 수업 인식도 연구의 경우, 2022년 11월 16일부터 11월 23일까지 일주일 간 상명대학교와 상명여자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네이버 폼을 활용하여 제작했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 문항은 총 8문항으로, 설문 내용에는 에듀테크에 대한 응답자의 배경지식이 부족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설문지 서두에 에듀테크의 개념과 설문조사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본 연구는 연구대상 선정과 연구 도구 개발, 문항 구성 및 수정, 본 조사 실시, 데이터 분석의 단계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알아보하고자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학교 현장에서의 에듀테크 활용 현황, 학생들의 에듀테크에 대한 인식도, 효율적인 에듀테크 활용 수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설문 문항은 그린 스마트교육 및 ICT 활용 교육 현황, 인식 등을 조사한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구성 요소를 선정하였다.² 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기 때문에 문항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문항을 구성하는 문장과 단어들을 비교적 쉽게 풀어서 제작하였다.

다음으로, AI기기를 수업에 활용하는 연구의 경우, 2022년 11월 13일부터 27일까지 2주 간 상명여자고등학교에 재학중인 2학년 2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AI 스피커를 활용하여 영어 스피킹 수업을 진행하며 기기는 구글 사의 ‘구글 홈 미니’ 디바이스를 이용했다.

본 연구는 연구 도구 숙달, 연구 수업 자료 정리, 연구 실시, 자가 피드백 및 상호피드백의 단계로 이루어졌다. 또한 에듀테크 수업 적용 연구를 통해 장점 및 한계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다. 원활한 수업 기반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박기오님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영어수업꿀팁 55’ 라는 서적을 읽어 수업 모델을 밑도 있게 구축했다.³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AI 스피커는 익숙하지 않은 기기이기 때문에 영어 스피킹 보조도구로써 활용도가 저조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필자는 다양한 학습지를 제공하여 원활한 상호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였다.

이를 토대로 향후 학습자들의 능력과 인식에 맞는,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육 전략의 시사점 및 유의 사항을 도출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² 김예슬, 국내 학교에서의 에듀테크 활용 현황 및 실태 분석,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2016.

³ 박기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영어 수업 꿀팁 55, 천재교육, 2020, 1-89쪽.

첫째, 설문 응답자들이 현재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에 참여한 적이 있는지와 만약 참여 한 경우 해당 수업이 무엇인지 그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 수업에 활용하는 에듀테크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둘째, 설문조사 결과 및 AI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 말하기 모의 수업 실연을 통해 나온 데이터를 분석한 후, 국내 학교에서의 에듀테크의 활용 현황을 제시하고 향후 에듀테크 활용 교육의 방향 및 시사점을 이끌어낸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2장에서는 에듀테크의 정의, 성장배경, 현재 연구된 다양한 기술들 그리고 활용 수업 사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2.1. 에듀테크의 정의

‘에듀테크(Edu-tech)’는 교육을 뜻하는 Education과 기술의 Technology의 합성어로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ICT를 활용한 교육 서비스 모델을 뜻하는 신조어이다. 즉, 에듀테크는 4차 산업 혁명의 핵심기술 ICBM(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을 비롯한 인공지능 및 AR/VR 등과 같은 정보 통신기술을 활용해 현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 서비스로서 학습자들에게는 온라인 교육 환경 제공을 뛰어넘어 학습자 중심의 개인 수준 맞춤 학습까지 가능한 새로운 교육 환경과 경험을 제공한다.

에듀테크는 기존의 ICT를 활용한 교육인 이러닝과 스마트러닝과 비교한다면 좀 더 다양한 학습상황 가운데서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러닝(E-learning)은 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학습자 중심의 학습 패러다임을 추구하지만 현실적으로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교육 환경이었다. 이와 반면에 스마트러닝(Smart-learning)은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과 같은 다양한 스마트 기기의 특징인 이동성과 다양한 센서 그리고 무선 인터넷을 기반으로 현장 중심적이고, 무한한 확장성과 즉시성을 제공해줄 수 있는 교육 환경으로 발전했다. 이와 반면에 에듀테크는 4차 산업 혁명 기술을 활용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학습자를 분석하여 학습자에 대한 정보를 용이하게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자에게 적합한 학습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그리고 학습자와 학습 콘텐츠 간에 보다 활성화된 상호작용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한다.⁴

<표 1> 이러닝, 스마트 러닝, 에듀테크 개념 및 특징 분석

구분	개념	특징
이러닝 (E-Learning)	인터넷을 기반한 학습자 중심의 학습 패러다임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
스마트러닝 (Smart-Learning)	스마트 기기의 특징인 이동성과 다양한 센서를 활용해 학습에 무한한 확장성과 즉시성, 그리고 현장성을 제공하는 학습 패러다임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과 같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교육
에듀테크 (Edu-tech)	4차 산업 혁명의 발전된 ICT 기술을 교육에 활용해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환경을 제공	학습자 및 학습 유형 분석을 통해 개발형 맞춤 학습 환경 제공 및 상호작용 활성화를 통한 학습 성과의 극대화

⁴ SF International, 에듀테크 산업의 동향은?, SF International 블로그, 2021.01.15., <<https://blog.naver.com/dhzhdapxk/222207759153>>.

2.2. 에듀테크 성장배경

에듀테크의 성장배경은 크게 세 가지로, 스마트 기기와 인터넷 확산, 코로나 19 그리고 Z세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우리 사회는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래하면서 급속도로 기술 발전을 이루었다. 특히, 컴퓨터 장치가 발전하고 개인용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등장하면서 컴퓨터는 많은 사람들이 각자 집에 하나씩 구비하는 필수품이 되었다. 그 이후에는 컴퓨터의 초소형 사이즈인 모바일 기기, 즉 스마트 기기의 보급이 널리 확대되며 이와 더불어 인터넷 사용은 보편화되고 속도는 빨라지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교육인 에듀테크는 성장하고 부각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이유 하나만으로 에듀테크가 급속도로 인기를 끈 것은 아니다.

두 번째, 2020년, 코로나 19가 발생하면서 학교로 모두가 모여 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따라서 사람들은 기존의 대면 수업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였고 이때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디지털 기기 내의 화상회의 플랫폼 등을 활용한 원격 수업이었다. 이에 따라 에듀테크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증대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 교육의 패러다임이 학습자 중심 맞춤형 교육의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코로나 이전부터 사람들은 개인차 혹은 학습자 요인에 대해 주목하긴 했지만 정해진 공간에서 교사 주도로 행해졌던 학습이 코로나 19로 인해 학습자가 주도하여 개별적인 학습을 하는 주체적인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에 따라 개개인의 학습자 맞춤으로 문제, 개념을 만들어주는 빅데이터 기술들을 교육에 활용하는 등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까지 에듀테크 시장의 규모는 매우 커졌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룰 것으로 예측했다.⁵



<그림 1> 세계 교육 시장 규모 추세와 에듀테크 시장 규모

[출처 : http://happyedu.moe.go.kr/happy/bbs/selectHappyArticle.do?nttId=9954&bbsId=BBSMSTR_00000000191]

세 번째, 아무리 스마트 기기가 보급되고 코로나 19로 에듀테크가 필요한 상황이 와도 이용자가 원활히 사용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을 것이다. 만약 에듀테크를 50~60대에게 적용한다면 원활한 진행이 불가하며 기초적인 디지털 기기 이용 교육부터 실시해야 하기에 확립하는 데 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10~20대의 MZ세대 학생들은 어린 나이부터 디지털 기기에 노출되어 있어 디지털 기기 사용에 굉장히 익숙하다. 따라서 다양한 ICT기술을 교육에 적용한다 할지라도 금방 적응하고 활용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의 패러다임이 학습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코로나 19로 원격 수업이 증가하면서 학생 개인의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은 어렸을 때부터 학원과 과외에 의존하다 보니 학습의 자기주도성에 능숙한 학생이 다소 부족하다. 게다가 원격 수업 시 화면 외의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보거나 밥을 먹는 등 학생들의 수업 집중력이 부족함을 여실히 드러냈다.

⁵ 공영일, 대한민국 에듀테크 산업과 디지털 뉴딜정책, 행복한 교육, 2020.

따라서 영어단어 게임 어플리케이션이나 VR을 통한 체험 활동이 가능한 에듀테크가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도를 높일 수 대안으로 급성장하게 되었다.

2.3. 에듀테크 주요 기술 및 활용 사례

에듀테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듀테크의 주요 기술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에듀테크를 대표하는 주요 키워드로는 3D 프린터, VR/AR, 디지털교과서, 소프트웨어 코딩 등이 있다. 그 외에도 AI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padlet, mentimeter 등의 온라인 상호작용 플랫폼, zoom, Webex 등의 화상회의 플랫폼 등 굉장히 다양하다.

<표 2> 에듀테크 주요 기술

주요 기술	내용	그림자료
3D 프린터	3D 프린터란, 3D 도면을 바탕으로 3차원 물체를 만들어 내는 기계를 말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이를 사회, 수학 수업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해나가고 있다. 수학 시간에는 그림으로만 보던 입체 도형을 학생들이 직접 설계 및 제작하여 이해를 돕는다. 역사 교과에서는 빗살무늬 토기와 같은 유물을 교과서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들며 배우면서 외우기 어려운 유물의 이름과 용도가 기억에 남는 데 돕는 장점이 있다. ⁶	 <p><그림 2> 3D 프린팅 결과물</p>
VR/AR (가상현실/ 증강현실)	VR(가상현실)은 사용자에게 실제와 같은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물리적 세계가 아닌 곳에서도 현실과 같은 실재감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가상현실 세계와 다양하고 원활한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 반면, AR(증강현실)이란 실제 세계와 가상세계를 이음새 없이 실시간으로 혼합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보다 향상된 몰입감과 현실감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이러한 기술은 교육적으로 활용하면 학습자들의 흥미와 몰입도를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물리적인 제약으로 인해 직접 가볼 수 없는 우주나 깊은 바닷속 등의 장소를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진행하기에 어렵거나 위험한 실험 등을 가상으로 진행해보는 등의 활동을 통해 학습자의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다.	 <p><그림 3> VR 체험을 하는 모습</p>
디지털 교과서	디지털 교과서란 종이로 만든 서책형 교과서와 달리 컴퓨터 상에서 디지털 형태로 볼 수 있는 교과서이다. 서책형 교과서 내용을 기본 토대로 하면서 멀티미디어 자료나 용어 설명을 추가해 학습을 돕는다. 자료 공유 등 학생들 간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협동 학습을 가능케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이끌어내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학습 환경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과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다. ⁷	 <p><그림 4>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해 학습하는 학생의 모습</p>

⁶ 김예지, 3D 프린터로 배운 빗살무늬토기...달라진 수업 풍경, 채널A 뉴스, 2018.

⁷ 문일요, [기획] 디지털 교과서 수업 현장을 가다, 조선에듀, 2016.09.19.

⁸ 김영진, [에듀테크 활용 수업 사례 발표] 디지털 교과서로 수업 여행 즐기기, 2022 에듀테크 코리아, 2021.

<p>소프트웨어 코딩</p>	<p>코딩이란 우리가 사용하는 사람의 언어를 컴퓨터 언어로 변경해서 입력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 삶 속에 스며들어 있는 IT기술에 대한 지식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코딩 교육을 의무화했다. 핀란드의 경우 2016년 코딩 교육을 의무화했다. 핀란드에서는 기술적인 코딩만 배우는 게 아니라 온라인에서 접하는 정보나 서비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해하고 실제적으로 기술을 공급하고 수용하는 당사자 사이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까지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p>	 <p><그림 5> 코딩 로봇 수업의 모습</p>
---------------------	--	--

2.3.1 에듀테크 활용 수업 : 인공지능(AI)

교육 선진국이라 불리는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는 인공지능 교사를 도입해 에듀테크 프로젝트를 시행 중이다. 이는 로봇이 보조 교사의 역할을 하며 실질적으로 교사들을 도와 학생을 가르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필자는 다양한 에듀테크 중 인공지능에 초점을 두어 국내외의 활용 수업 사례를 깊이 이야기하고자 한다.

1) 우리나라

교육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AI 수학시스템 ‘똑똑! 수학탐험대’, 독서 이력과 성향을 분석하여 맞춤 도서를 추천하는 ‘책열매’, 초등 영어 말하기 연습시스템 ‘AI 팽푹’ 등 다양한 인공지능 기반 학습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였다. ‘똑똑! 수학탐험대’는 교육과정·교과서 기반으로 설계한 과제를 학생들이 학습하면 그 결과를 AI 기술로 분석·예측하여 학생 수준에 맞는 학습 콘텐츠를 추천하고 학습 조언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학교 교육활동에 AI 기술을 도입한 첫 사례이다. 초등 저학년이 학교에서는 수준별 개별화 학습, 가정에서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수학탐험대’는 학생 개인별 이해도를 측정하고 향후 학습 성취를 예측하여 맞춤 처방을 제공함으로써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부터 발생할 수 있는 학습 결손에 따른 교육 격차를 예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학교 및 가정에서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⁹

2) 호주

세인트피터스 여학교 유치원에서는 인공지능 교사 아이다가(Ada) 아이들에게 알파벳, 숫자와 같은 지식 교육과 함께 노래, 그림과 같은 예술 교육과 체육 교육까지 하고 있다. 이는 교과과목 외의 놀이교육이 포함되어 있고, 최초로 유아 교육에 적용시켰다는 것에 기존의 사례와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¹⁰

3) 중국

600개가 넘는 유치원에서 키코(Keeko)라는 인공지능 교사가 왕성하게 활약하고 있는데, 키코는 아이들과 대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책을 읽어주고 산수까지 가르친다. 교육적인 역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노래하고, 춤추고, 게임도 한다. 보조 교재의 역할은 물론, 산만한 학습 분위기를 잡는 역할을 하며 유치원 교사에게는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에게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며, 아이들에게도 사랑 받고 있다. 또 중국에서는 학생들의 평가를 위해 고용된 AI 로봇도 존재한다. 한 학교에서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AI 로봇 채점 선생님을 고용하여 평가를 진행 중인데, 이 로봇은

⁹ 교육부, 인공지능과 게임으로 초등 수학 즐겨 봐요 - [똑똑! 수학탐험대] 2021년 성과보고회 개최, 교육부 블로그, 2021.12.28.

¹⁰ 호주 에드레이트 특별취재팀, 호주 유치원선 로봇이 친구... 함께 요가하고 코딩도 배워요, 중앙일보, 2018.

수학, 물리 등 객관적인 답이 있는 자연 학문 뿐 아니라 글짓기 등 인문, 학문 또한 평가하기 때문에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맞춤법 확인과 같은 단순한 것부터 주제를 벗어나지 않고 잘 파악하고 있는지도 감지가 가능하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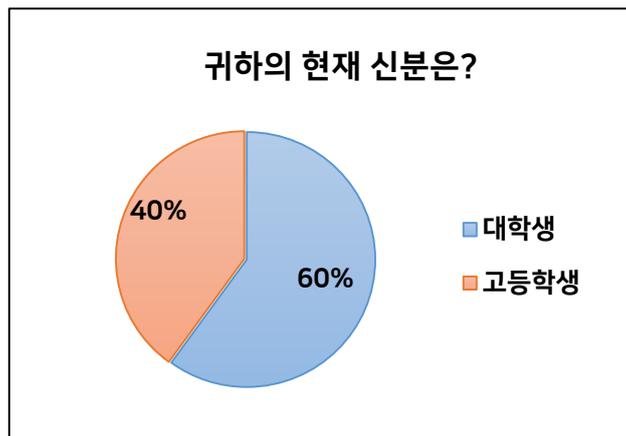
이와 같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AI 로봇을 활용한 교육을 도입했다.

제3장 연구 결과

3.1. 에듀테크 수업 인식현황 -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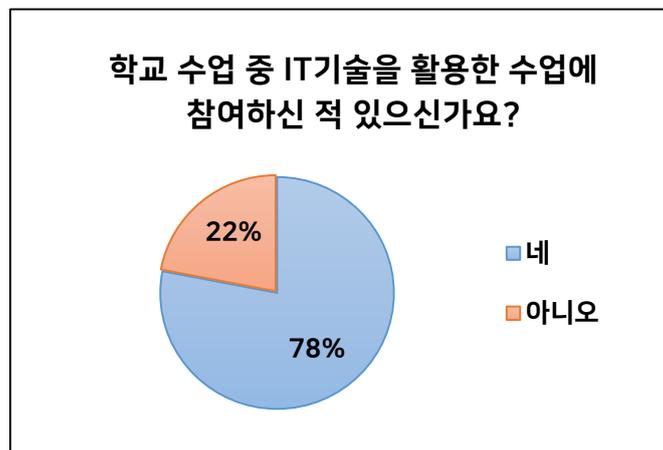
제1장에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현장에서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 연구자료가 많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에듀테크가 실제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실효성에 의문이 생겼다. 따라서 본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에듀테크 수업 활용의 현황과 학생들의 인식도, 에듀테크 수업을 통한 장단점에 대한 결과를 도출해냈다.

본 설문조사는 현재와 과거 학교에서 실행되는 에듀테크 교육의 실태와 이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비교하고자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설문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대학생 30명, 고등학생 20명이 응답해주어 총 50명의 설문자의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모아 분석했다.



<그림 6> 설문자의 신분을 묻는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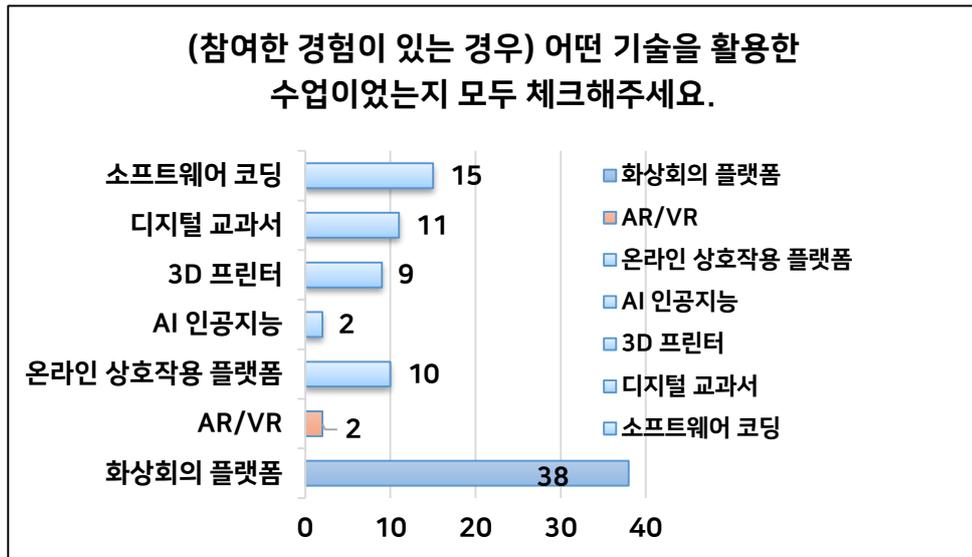
3.1.1. 에듀테크 수업 활용 현황



¹¹ 유수연, 취업하는 중국의 인공지능 로봇, 삼성전기 지역전문가 칼럼, 2019.

<그림 7> 에듀테크 활용 수업 참여 여부에 관한 응답자 수의 비율

에듀테크 활용 수업에 참여한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관해 ‘네’ 라고 답한 응답자는 39명, ‘아니오’ 라고 답한 응답자는 11명으로, 다수가 에듀테크 활용 수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아니오’로 답한 응답자의 신분을 확인해본 결과, 모두 대학생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몇 년 사이에 과거보다 현재 더 많은 수업에서 기술을 결합한 융합형 교육이 도입 및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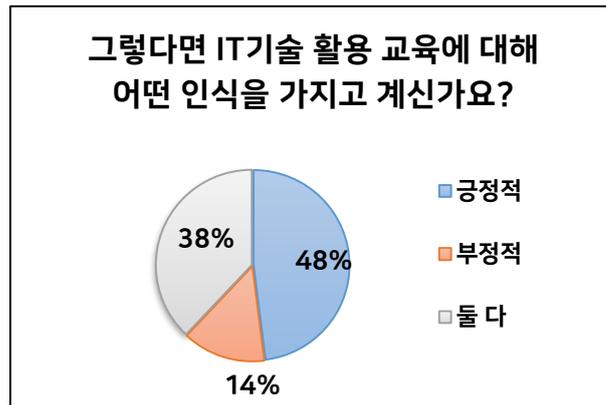
<그림 8> 참여한 경험이 있는 기술활용수업에 관한 응답자 수의 비율

현 수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기술이 무엇인지 현황을 알아보고자 기술 활용 수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39명)를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문항은 복수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여 수업에서 일부의 기술만이 활용되는지 혹은 다양한 기술이 활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조사 결과,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39명의 응답자 중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화상회의 플랫폼에 참여했다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이 15명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서, 디지털 교과서가 11명, 온라인 상호작용 플랫폼(ex. Padlet, mentimeter)이 10명, 3D 프린터가 9명의 결과를 보이며 예상보다 적지 않은 비율을 보였다. 이를 통해 주로 활용되는 화상회의 플랫폼을 제외하고서도 다양한 기술이 골고루 수업에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모든 기술이 다 고른 비율의 결과를 보인 것은 아니다. AR/VR(ex. 문화재 관람, 과학실험 간접체험 등 활용)과 AI 인공지능(ex. AI 로봇, AI 스피커)의 경우 단 2명만이 투표하며 타 기술보다 활용도가 굉장히 적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이유는 AR/VR, 인공지능의 경우 디바이스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술이지만 현재 교육환경 측면에서의 여건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지 못했다고 본다. 화상회의 플랫폼의 경우 설문조사 이전부터 참여도가 가장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원격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ZOOM, Webex, Google Meet 등의 활용도가 높아졌고 현재까지도 비대면 수업의 과목이 여럿 존재하기에 예상한 바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추가적으로 설문 마지막 문항에 가장 효율적이며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IT기술 활용 수업은 무엇인지 응답자들의 의견을 물었다. 굉장히 다양한 답변을 얻었으나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코딩 수업이었다. 코딩수업을 선택한 응답자들은 ‘코딩 수업 이론을 배우고 실습하면서 응용력과 창의력을 증진시킬 수 있었다.’, ‘컴퓨터 공학 전공이 아니더라도 배우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답변했다. 이외에도 화상회의 플랫폼을 언급한 응답자는 ‘거주지와 학교 사이의 거리가 먼 학생들에게 특히 시공간적 제약을 줄여

주기 때문이다.’ 라고 답했으며 ‘글로는 표현하지 못하는 입체적인 시각자료를 볼 수 있는 VR시스템과 다각화된 자료를 볼 수 있는 빅데이터 활용 수업이 가장 효율적이며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온라인 상호작용 플랫폼(padlet)은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활용하면 학생들의 자유롭고 솔직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효율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등의 다양한 의견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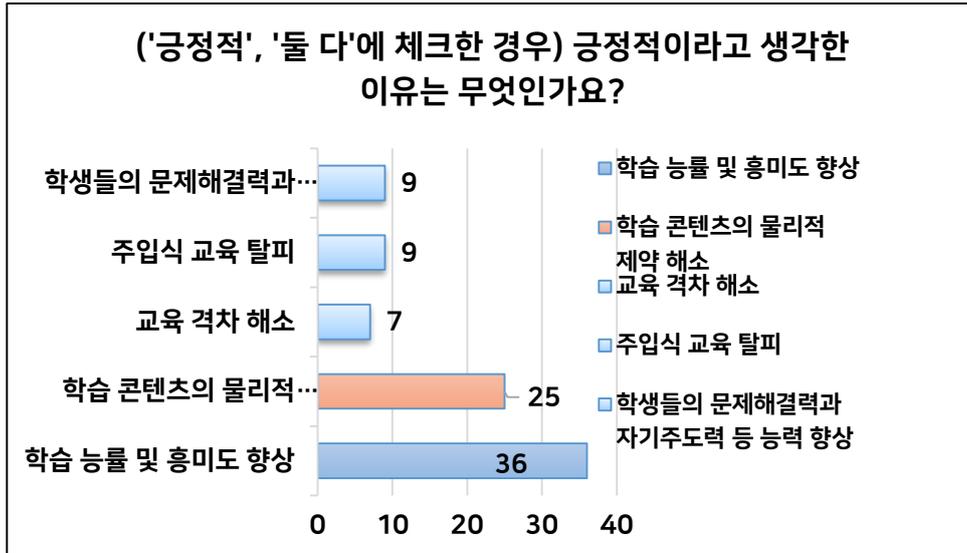
3.1.2. 에듀테크 수업에 대한 인식도



<그림 9> 기술 활용 교육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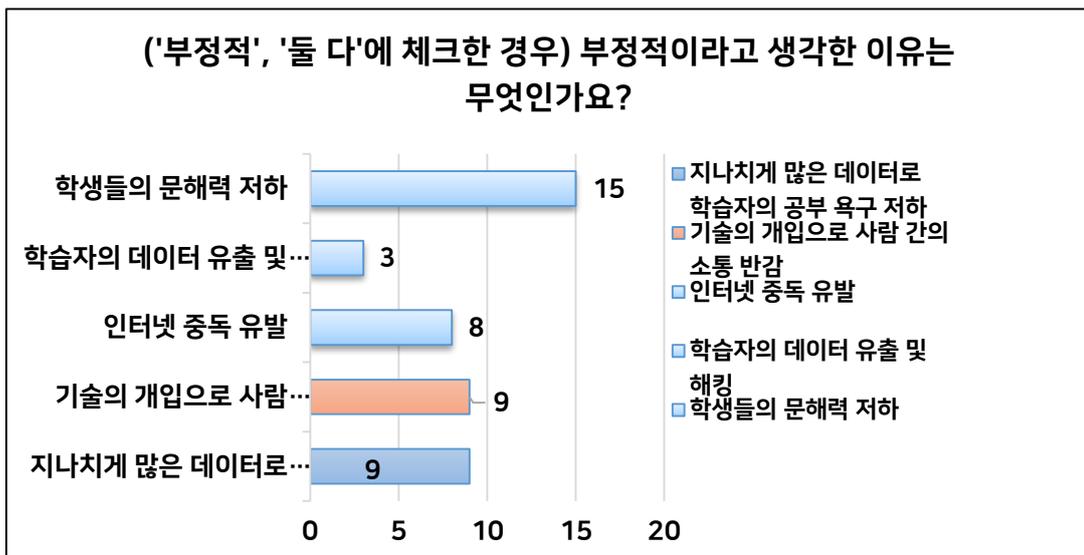
기술활용 교육의 응답자들의 인식을 조사하는 문항에서 ‘긍정적, 부정적, 둘 다’ 세 가지의 선택지를 부여하여 조사를 진행했고 추가적으로 기술활용 교육으로 흔히 떠올릴 수 있는 Zoom 등의 화상회의 플랫폼보다는 AR, VR,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교육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인식에 초점을 두어 생각하도록 부가 설명을 했다. 왜냐하면 필자는 다양한 에듀테크 기술 중에서도 앞으로의 수업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하고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기술은 화상회의 플랫폼이기 보다는 VR, 인공지능, 빅데이터라고 생각하고 이를 중점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을 전제로 조사한 결과, 긍정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4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보였고 부정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7명, 긍정과 부정적 인식 둘 다 가지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9명이었다. 수치상으로는 긍정적이라고 보는 응답자의 비율이 48%로 가장 높으나 부정적인 인식과 복합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을 합한 것 보다는 높지 않다. 예상보다 양가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가 많아 IT기술에 대해 단순히 긍정적으로만 바라보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1.3. 에듀테크 수업을 통한 장단점



<그림 10> 긍정적인 인식을 지닌 응답자의 답변

앞서 조사한 그림 9에서의 응답자들의 인식을 토대로 ‘긍정적’, ‘둘 다’ 라고 답한 응답자 43명을 대상으로 기술 활용 교육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를 물었다. 중복 선택을 가능하게 하여 그 결과 ‘학습 능력 및 흥미도 향상’이 36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고 이어서 ‘학습 콘텐츠의 물리적 제약 해소’가 25명으로 두 번째로 많은 선택을 받았다. 이 두 문항이 다른 문항과는 다르게 비교적 많은 선택을 받았다. 그 뒤를 이어 학생들의 ‘문제해결력과 자기주도력 등 능력 향상’과 ‘주입식 교육 탈피’의 항목을 9명이 답했고 ‘교육격차 해소’가 7명으로 가장 낮다. 교육 격차 해소가 가장 낮은 이유는 기술활용 교육이 본질적인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는 시각이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그림 11> 부정적인 인식을 지닌 응답자의 답변

반면, ‘부정적’, ‘둘 다’ 라고 답한 응답자 26명을 대상으로 기술 활용 교육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를 물었다. 중복 선택을 가능하게 하여 그 결과 가장 문제라고 여기는 것은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로 15명이 이를 선택했다. 글보다는 영상 매체를 주로 접하는 현대인들과 특히, 학생에게 요즈음 들어 많이 나타나는 문해력 저하 문제가 에듀테크 기술로 인해 더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바라보는 의견을 다수가 가지고

있기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 다음으로는, ‘지나치게 많은 데이터로 학습자의 공부 욕구 저하’와 ‘기술의 개입으로 사람 간의 소통 반감’을 9명이 택하였고, ‘인터넷 중독 유발’은 8명, 가장 적은 선택을 받은 것은 ‘학습자의 데이터 유출’로 3명이 선택했다.

3.2. 에듀테크 영어 교과 적용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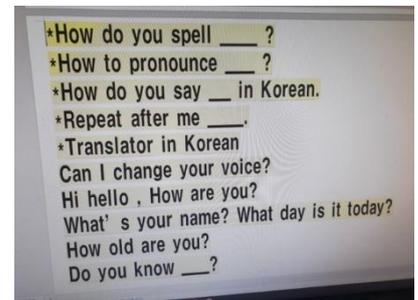
AI 활용 수업의 실제와 한계점, 이점을 알아내기 위해 상명여자고등학교 2학년 2명을 대상으로 2022년 11월 13일부터 27일까지 2주 간 AI 스피커를 활용한 모의 수업 실연을 진행하였다. 활용한 기기는 구글 사의 ‘구글 홈 미니’로 옆 그림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충전선을 연결하여 이용 가능하다. 박기오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영어 수업 꿀팁 55’라는 책을 참고하여 수업 진행 중에는 보조배터리로 충전하여 바구니에 담아 작동되도록 했다.



<그림 12> 구글 홈 미니

수업 대상의 친구들은 수시가 아닌 정시를 준비하여 수능특강을 교재로 사용해 수업을 진행했다. 수업에 큰 지장이 되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수능특강 교재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했고

그 결과, 문제풀이의 과정 중 모르는 단어가 생겼을 때 이를 노트에 정리하고 단어의 스펠링과 발음, 의미 등을 AI스피커를 통해서 대화하며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추가적으로 AI 스피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소통 질문지의 양식과 학습지를 미리 제공하였다. 학습지에는 이야기 소재거리와 대화 예시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놓았고 질문을 어려워할 학생을 위해 옆의 그림 13과 같이 소통 질문지를 프린트하여 주었고 제시되어 있는 질문을 이용해 빈칸에 모르는 문장이나 단어를 넣어 간편하고 쉽게 영어 스피커를 이용하도록 이끌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주 2회, 총 2주 간 활동을 진행했다.



<그림 13> 소통 질문지

활동이 끝난 후에는 참여 학생들과 상호 피드백을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수업에서 영어 공부가 신선하고 흥미있었다고 답했고 박은영 학생은 지루한 영어라는 생각에서 벗어났다고 말해주었다. 또한 본인이 모르는 것을 자기주도적으로 물어보고 들을 수 있었던 기회였다고 답했다. 그리고, 이해연 학생은 고등학교 수업에서는 입시 위주의 독해, 문법 수업만 진행하다 보니 영어 말하기의 능력이 많이 부족했었는데 AI 스피커를 통해 대화하면서 말할 기회가 생기니 자신감도 생겼고 이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해주었다. 그러나 불편사항들과 한계들이 매우 많았다고 생각을 전했으며 나 또한 수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한계점을 발견했다. 기기의 작동 오류 문제가 가장 컸는데, AI스피커가 발음을 종종 원활하게 인지하지 못하여 학생들은 여러 번 되물어야 했고 영어와 한국어의 전환이 자유롭게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고 학생들은 이야기했다. 뿐만 아니라, 기기가 충전된 상태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보조배터리를 항상 연결하고 있어야 하는데 보조배터리를 지속적으로 충전해주어야 하기에 이 점도 다소 번거로웠다. 또한 첫 시간에는 기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는 데 중점을 두었으나 예상보다 적응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는 소수와 수업을 진행했지만 반 전체 약 10명 그 이상의 학생들과 함께 이를 활용하는 수업을 진행할 때에는 원활한 수업 진행을 하기에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따라서 AI 스피커 활용 교육에 대한 지침서와 이용법 등을 일목요연하게 작성하여 이상적인 에듀테크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AI 스피커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지만 AI 이외에도 다양한 에듀테크가 있으니 앞으로의 활발한 에듀테크 수업 전개를 위해

다양한 기술을 교육에 접목시킬 수 있는 교육 지도안을 마련하여 교사들도 손쉽게 진행하고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교육 모습이 오기를 고대한다.
<그림 14> 모의 수업 실연에 함께해 준 학생들

제 4 장 결론 및 제언

4.1. 결론

정부는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핵심 기술인 디지털 교과서,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 3D 프린팅 교육 등을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여러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선정한 ‘스마트교육 정책추진학교’, ‘SW 교육 선도 학교’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새로운 기술의 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나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입시제도 위주의 교육과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 지원 부족 등의 현실적인 제약으로 활발한 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에듀테크를 학교 수업에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학생들의 시선에서 그 실태를 알아보고 또한 에듀테크를 수업시간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알아본 뒤 현재 교육 현장 상황에 맞는 교육 전략 방향 및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2022년 11월 16일부터 23일까지 상명대학교와 상명여자고등학교 학생들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분석 방법을 통해 학교에서의 에듀테크 활용 현황과 학생들의 인식을 파악하는데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연구 대상자들은 에듀테크 수업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나 참여한 수업은 대부분 학생들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기로 참여가능한 화상회의 플랫폼 수업이었다. 즉, 화상회의 플랫폼을 제외하고는 에듀테크 활용 수업을 들은 경험은 거의 없는 것이다. 필자의 견해로 화상회의 플랫폼은 코로나 19에 큰 도움이 되었지만 에듀테크의 이점을 여실히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본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AI인공지능이나 AR, VR 등 학교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디바이스를 활용하는 수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학생들의 디바이스 활용 역량에 맞추어 에듀테크 기술, 콘텐츠 등을 학교 수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 환경 측면에서 여건들이 지원되어야 한다.

둘째, 초등학교에 비해 중고등학교에서 디바이스 활용 및 에듀테크 활용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해서도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입시 위주 수업의 제약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교육과정 및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재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학생들의 새로운 기술과 방법이 적용된 수업에 대한 요구는 높지만 에듀테크에 대한 인식은 중립적인 경향이 높은 것으로 보아, 학교에서 에듀테크를 활용한 여러 교육이 진행된다면 자연스럽게 그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또한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4.2. 제언

이상의 에듀테크 활용 실태와 인식에 대한 연구 대상자들의 응답 데이터에서 얻어진 결론을 토대로 추후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학교 현장에서 각 과목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 모바일 디바이스 및 에듀테크 활용 기술과 콘텐츠 개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각 교과 과목마다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세부 과목별로 사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와, 에듀테크 기술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인원이 적었고, 실태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학교나 교육청 등 관련 교육 기관 차원에서의 자세한 실태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새로운 디바이스를 활용한 수업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한 선행연구는 많이 진행되었지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식을 조사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의 대상인 학생들의 인

식에 대한 조사가 선행된 후 그에 맞추어 에듀테크에 대한 정책이 적용되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박인연, 트렌드 에듀케이션, 원너스미디어, 2020, 33-105쪽.

김예슬, 국내 학교에서의 에듀테크 활용 현황 및 실태 분석,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2016.

SF International, 에듀테크 산업의 동향은?, SF International 블로그, 2021.01.15., <<https://blog.naver.com/dhzhdapxk/222207759153>>.

김예지, 3D 프린터로 배운 빗살무늬토기...달라진 수업 풍경, 채널A 뉴스, 2018.

문일요, [기획] 디지털 교과서 수업 현장을 가다, 조선에듀, 2016.09.19.

김영진, [에듀테크 활용 수업 사례 발표] 디지털 교과서로 수업 여행 즐기기, 2022 에듀테크 코리아, 2021.

공영일, 대한민국 에듀테크 산업과 디지털 뉴딜정책, 행복한 교육, 2020.

남선우, 에듀테크를 활용한 상호작용적 비대면 실시간 수업 설계 및 개발 연구 : 기독교교육과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교육학회, 2021.

박기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영어 수업 꿀팁 55, 천재교육, 2020, 1-89쪽.

호주 에들레이트 특별취재팀, 호주 유치원선 로봇이 친구... 함께 요가하고 코딩도 배워요, 중앙일보, 2018.

장길수, 핀란드 초등학교, 로봇교사 시범도입, 로봇신문, 2018.

유수연, 취업하는 중국의 인공지능 로봇, 삼성전기 지역전문가 칼럼, 2019.

(<https://blog.naver.com/sem2017/221465524358>)

교육부, 인공지능과 게임으로 초등 수학 즐겨 봐요 - [톡톡! 수학탐험대] 2021년 성과보고회 개최, 교육부 블로그, 2021.12.28.

[부록 1] 설문지

에듀테크(=정보통신기술 활용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도 조사

안녕하세요! 저는 상명대학교 영어교육과 이지예입니다.

코로나 19 유행으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면서 교육 불평등과 격차가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에듀테크라는 개념이 비대면 수업의 대안으로 떠오르게 되었고 AI를 활용한 교육이 과목으로 신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알아보고자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설문지는 단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자료로서만 사용됩니다.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에듀테크 : 교육과 기술의 합성어로, VR, AI, 빅데이터 등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교육.

1. 귀하의 현재 신분은?

대학생
고등학생
기타 :

2. 대학생인 경우, 몇 학년이신가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기타 :

3. 학교 수업 중 IT기술을 활용한 수업에 참여하신 적 있으신가요?

EX) 1. 화상회의 플랫폼 - ZOOM, Google Meet 2. 온라인 상호작용 플랫폼 - padlet, mentimeter
3. AR, VR 활용 수업 4. AI 인공지능 활용 수업

네
아니오

4.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 어떤 기술을 활용한 수업이었는데 모두 체크해주세요. - 복수선택 가능

화상회의 플랫폼 - ZOOM, WEBEX, Google Meet
AR(증강현실)/VR(가상현실) - 문화재 관람, 과학 실험 간접 체험 등 활용
온라인 상호작용 플랫폼 - Padlet, Mentimeter
AI 인공지능 - AI 로봇, AI 스피커 활용
3D 프린터

디지털 교과서(=전자 교과서)

소프트웨어 코딩

기타 :

5. 그렇다면 IT기술 활용 교육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계신가요?

(ZOOM 등의 화상회의 플랫폼보다는 AR, VR,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교육에 활용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긍정적

부정적

둘 다

기타 :

6. ('긍정적', '둘 다' 에 체크한 경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복수선택 가능

학습 능력 및 흥미도 향상

학습 콘텐츠의 물리적 제약 해소

교육 격차 해소

주입식 교육 탈피

학생들의 문제해결력과 자기주도력 등 능력 향상

기타 :

7. ('부정적', '둘 다' 에 체크한 경우) 부정적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복수선택 가능

지나치게 많은 데이터로 학습자의 공부 욕구 저하

기술의 개입으로 사람 간의 소통 반감

인터넷 중독 유발

학습자의 데이터 유출 및 해킹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기타 :

8. 가장 효율적이며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IT기술 활용 수업은 무엇인가요? 자유롭게 생각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웨이웨이: 인간미래》의 사회적 가치 평가

주제 선정과 공간 큐레이션을 중심으로

국어교육과 이찬*

목차

1. 서론
2. 작가와 전시회 개괄
3. 전시 주제 ‘인간미래’의 사회적 가치
4. 주제 펼침으로서의 공간 큐레이션 평가
 - 4.1. 흥미 유도, 제1~2 공간
 - 4.2. 주제 전환과 작품 간 상호작용, 복도
 - 4.3. 몰입을 통한 감상의 언어화, 제3 공간
 - 4.4. 희망과 연대의 비유, 제4 공간
5. 결론

참고 문헌

1. 서론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일어났다.¹⁾ 유엔난민기구(UNHCR)가 3월 21일까지 3주 동안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발 국외 난민의 숫자는 3,557,245명으로 우크라이나 전체 인구의 8%에 이르는 인원이 인접 국가로 피난하는 상황²⁾이고, 국내에서 피란하는 인원까지 포함하면 전체 인구의 25%에 해당하는 1천만 명이 대피 중이다. 폴란드를 비롯해 체코, 루마니아, 몰도바 등 인접국에서는 난민을 적극 수용하고 있지만 수용 한계치에 다다른 상황이며, 같은 방송에 따르면 “두 팔 걸어붙이고 피란민을 도왔던 폴란드에선 최근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유입돼 범죄를 일으키고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흑색 정보가 퍼지는 등 내부 갈등”³⁾으로 번지고 있다.

난민 사태는 새로운 일이 아니다. 난민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전쟁, 테러, 빈곤,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전쟁난민은 “현대전쟁의 헤게모니로 지적되는 정치적 패권주의와 전쟁 자본주의가 중단없이 전쟁을 더욱 확장시키면서 발생”해왔으며 “전쟁수익 집단이 국가단위로 존재하는 그 이면에는 전쟁으로 인하여 삶의 기반을 잃고 본국을 떠나야 하는 난민이 존재하고 그 증가는 지속적”⁴⁾이다. 대표적으로 2010년 아랍의 봄 이후에 발생한 전쟁난민이 있을 것이다. 한 논문은 “이라크, 시리아, 예멘 및 리비아 등에서 촉발된 여러 시민전이 140만 명의 난민을 양산하였으며, 2015년의 경우 유럽에 유입을 요청하는 난민 인구는 전년대비 미증유인 822%가 증가했다”고 밝혔다.⁵⁾

1) 유엔난민기구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따르면 11월 30일 기준, 유럽 전역에서 기록된 우크라이나 난민은 7,891,977명이며, 유럽에서 임시 보호 또는 이와 유사한 국가 보호 제도에 등록된 우크라이나 난민은 4,776,606명이다.(<https://data.unhcr.org/en/situations/ukraine>)

2) 김민정, ‘[취재파일] 우크라이나 탈출한 355만 난민...우리는 수용할 수 있을까?’, SBS 뉴스, 2022.03.23.,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686699

3) 위의 방송.

4) 김현옥, 박해선, <전쟁난민아동에 대한 국민국가의 환대와 혐오: 유입난민아동에 대한 허용 및 거부의 의미연결망과 토착분석>,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vol.16, no.1, 경상국립대학교, 2022, 30쪽.

5) Buber-Ennsner, I., J. Kohlenberger, B. Rengs, Z. Al Zalak, A. Goujon, E. Striesnsig, and W. Lutz. 2016,

난민 인구가 증가하는 데 반해, 난민을 공동체에 받아들이는 새로운 가치관과 윤리는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다. 2016년 클라우스니츠에서 발생한 난민 버스 시위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난민이 타고 있는 버스를 독일 시위대가 막고서 괴성을 지르거나 난민 혐오 발언을 한다. 이 때문에 3시간 동안 버스가 움직이지 못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졌다.⁶⁾ 난민 여성들은 계속해서 울고 있다. 파란색 후드를 입은 아이는 찡그린 채 창문 밖을 본다. 독일어를 이해하지 못해도 “꺼져”라는 단어에 담긴 적의는 단단히 느꼈을 것이다. 아이는 갑자기 버스 바깥으로 끌려나가면서 화면 밖으로 사라진다. 바깥에 모인 시민단체 ‘걱정하는 시민들’은 폭력적인 언사를 지속하며, 경찰은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할 생각이 없다. 주위에서 구경하듯 보는 시민들은 이러한 혐오를 증폭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한다. 독일의 철학자 카롤린 엠케는 《혐오사회》라는 책에서 클라우스니츠에서 발생한 난민 혐오 사건을 50쪽에 가까운 분량으로 분석한다. “집단을 대상으로 한 인간혐오는 여전히 여전하고, 집단에게는 여전히 비역사적이고 좀처럼 변하지 않는 속성들이 덧씌워진다. (...) 그래서 이제는 ‘서양’을 지켜야 한다고, ‘국민’과 ‘국가’를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그것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정확히 설명하지 않은 채 말이다.”⁷⁾

한국 사회는 어떨까? 한국은 난민에 관한 논의를 진척시킬 기회가 좀처럼 형성되지 않았다. 보통 난민이 발생하는 지역과 상당한 거리가 있었기 때문이고, 난민에 대한 법 체계 등이 제대로 구성되지 않아 그보다 선례가 많은 유럽 쪽으로 난민이 향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민을 공동체 내부에 받아들이는 시민 윤리가 형성되기 어려웠다. 그러다 2018년, 본격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난민 이슈가 담론화된다. 예멘에서 발생한 내전으로 상당한 난민이 조국을 떠난 것이다. 그들은 가장 역할을 하는 남성 500명을 우선 한국에 보내기로 결정한다. 그러나 한 논문의 표현대로 “내전을 피해서 한국에 난민 신청을 요청한 500여 명의 난민의 존재로 2018년 여름의 한국 사회는 난민 찬반 시위로 시끄러웠다.”⁸⁾ 예멘 난민에 대한 반대 여론은 주로 종교적 이유(이슬람), 성별적 이유(남성)를 근거로 삼아 그들의 범죄 행위가 한국에 피해를 줄 것이 두렵다고 주장했다. 클라우스니츠 사태의 난민 혐오적 맥락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예멘 난민의 제주도 체류 자체를 극렬히 반대하던 국민 여론을 민감하게 읽어내고 예멘 국적자의 제주도 무비자 입국을 제한했으며, 제주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출도 제한 조치를 내렸다. 같은 논문에선 “정부의 선언은 인종차별주의적인 대중정서에 순응하고 암묵적으로 동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⁹⁾고 일갈한다. 난민 이슈는 해결 방안이 제대로 구성되지 않은 채 사그라들었다.

2022년, 한국에서 난민 이슈가 재점화됐다. 우크라이나 난민이 발생하면서 이들에 대한 우호적 여론이 형성된 것이다. 양손 가득 짐을 싸들고 먼 길을 떠나는 까마득한 행렬이 언론을 통해서 집중 조명됐고, 그들에 대한 동정론이 각종 매체에서 주류를 차지했다. 본문이 주목할 점은, 바로 예멘 난민/우크라이나 난민을 대하는 국민 정서의 온도 차이가 크다는 사실이다. 우크라이나 난민과 예멘 난민은 모두 전쟁난민으로, 그들을 대하는 정서 차이는 단순히 ‘조국을 떠나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 같은 데 있지 않을 것이다. 서로 다른 국민 정서가 나타나는 이유는 예를 들어 백색인종과 유색인종의 차이, 서구와 비서구의 차이, 비무슬림과 무슬림의 차이, 난민의 실질적 유입 여부 등 여러 차원의 혐오 및 접근성에 기인할 것이다.¹⁰⁾ 그러나 핵심은 이러한 혐오적 맥락이 결합하여 눈앞에 있는 ‘사람’¹¹⁾을 마치 사람 아닌 괴

“Human capital, values, and attitudes of persons seeking refuge in Austria in 2015.”, PLoS One 11(9) : 1-29pp, 김현옥, 박해선, 위 논문 30쪽에서 재인용.

6) ‘Döbeln / Clausnitz: Rassismus in Deutschland 2016’, <https://www.youtube.com/watch?v=JAMHJwiMi6M>

7) 카롤린 엠케, 《혐오사회》, 파주: 다산북스, 2017, 85쪽.

8) 김진희, 이로미, 〈세계시민성 관점에서 본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와 한국 다문화교육의 과제〉, 연세대학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다문화교육학회, 다문화교육연구 12권3호, 2019, 38쪽.

9) 위의 논문, 38쪽.

10) platform.c에 기고된 2022년 6월 13일 기사에선 〈유색인종 난민은 어떻게 해서 감추어지는가〉란 제목으로 서구 세계의 인종차별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 제기를 한 바 있다.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비판한 내용이나, 그 시선을 한국 사회가 비슷한 방식으로 답습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관점이다.

물처럼 여기게 만드는 매커니즘이며, 이러한 풍토가 여전히 한국 사회에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요컨대 우크라이나 난민 사태는 역설적으로, 한국 사회가 난민 등 타자를 대하는 태도에 윤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본 연구는 희생자에 대한 애도, 혐오 현상의 이론화 및 원인 분석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서, 난민에 대한 기초 인식을 바꾸어나갈 토대로서 시민적 관심이 다시금 형성됐다는 점을 주목하고자 한다. 《아이 웨이웨이: 인간미래》가 바로 이러한 시의성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문에서는 《아이 웨이웨이: 인간미래》의 주제 의식이 현 시대에 얼마나 유효한 담론을 제시하는지 살펴보고,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 효과적인 전시 방식을 채택했는지 검토할 것이다.

2. 작가와 전시회 개괄

아이 웨이웨이(Ai weiwei)는 권위와 억압에 저항하는 예술 작품으로 유명하다. 그의 대표작 〈원근법 연구, 1995~2011〉(2014)는 정치적, 문화적 권위를 지닌 장소에서 가운데 손가락을 들고 있는 사진으로 예술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한 번쯤은 인터넷상에서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작품마다, 행보마다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아이 웨이웨이는 “반체제적 활동”과 “양심을 따르는 신념”, “굳건한 용기” 그리고 “작가와 대중 사이의 깊은 연대감과 소통”¹²⁾으로 사회 문제를 다루는 예술가 중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낸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주최한 《아이 웨이웨이: 인간미래》는 “회화, 사진에서부터 영화, 설치, 건축, 공공미술, 전시기획, 출판 등 전 방위적으로 활동하는 아이 웨이웨이(1957-)의 예술세계를 소개”¹³⁾한다. 《아이 웨이웨이: 인간미래》가 현 시대에 유의미한 이유는 우리가 소홀히 여긴 ‘타자’에 대한 윤리적 질문을 던지기 때문이다. 이번 전시는 타자 또한 ‘사람’이라는 점을 설득하는 과정이 한국 사회에 우선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특히 아이 웨이웨이는 소외된 인간과 권력의 무자비함을 주목하는 과정에서 ‘난민’을 중요한 주체로 삼았다. 난민은 대표적 타자이자 거대 정치에 의해 희생되는 구체적 존재로서 현 시대가 타자를 대하는 방식을 고민하게 만든다. 예컨대 〈빨래방〉(2016) 같은 작업은 인간의 삶이 ‘난민’이란 호칭으로 납작해지는 것에 대항하여 그들을 눈앞에 존재하는 구체적 인간으로 경험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인간을 다른 인간의 손으로 방랑시키는 사회 구조를 성찰하게 한다. 이러한 의미 맥락은 난민 이슈를 다시 맞닥뜨린 한국 사회에 유효한 예술적 접근이 된다.¹⁴⁾

(<http://platformc.kr/2022/06/how-do-refugees-hidden/>)

11) 김현경의 《사람, 장소, 환대》(문학과지성사)에 따르면 ‘사람’은 ‘인간’과 구분된다.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보이지 않는 공동체 - 도덕적 공동체 - 안에서 성원권을 갖는다는 뜻이다. 즉 사람임은 일종의 자격이며, 타인의 인정을 필요로 한다. (...) 인간이라는 것은 자연적 사실의 문제이지, 사회적 인정의 문제가 아니다. (...) 어떤 개체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사회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어야 하며, 그에게 자리를 만들어주어야 한다.”(31쪽) 본문에서는 김현경의 분류에 따른 ‘사람’을 표기하기 위해 작은 따옴표를 붙인다.

12) 김미영, 〈아이 웨이웨이 : 표현의 자유를 위한 인권예술가〉, 더원미술세계, 2015년 11월호, 114쪽.

13) 국립현대미술관, 〈아이 웨이웨이 인간미래(Defend the Future) 리플릿, 2021, 3쪽.

(<https://www.mmca.go.kr/exhibitions/exhibitionsDetail.do?menuId=1030000000&exhId=202102010001381>)

14) 아이 웨이웨이의 전시에서 주체로 삼은 난민 대다수가 유색인종, 비서구 출신인 점도 중요한 요소다.



빨래방, 2016, 형지 12개, 옷걸이에 걸린 옷 579점, 신발 32켤, 가변설치, 빨래방의 제작 과정. 아이 웨이웨이의 스튜디오. 리움현대미술관. 작품은 '아이 웨이웨이'의 갤러리. 서울. 사진은 아이 웨이웨이의 스튜디오. 아이 웨이웨이의 스튜디오.

Laundromat, 2016, 12016, 12 clothes racks, 579 clothes on cloth hangers and 32 shoes, dimensions variable. Production view of Laundromat. Courtesy of Ai Weiwei Studio, Liaison Gallery and meuser-riemschneider, Berlin. Photograph by Ai Weiwei Studio & Ai Weiwei Studio.

그림 1 전시 리플릿 5쪽에 실린 <빨래방>(2016) 제작 과정

《아이 웨이웨이: 인간미래》는 6가지 테마에 따라 작품 126점을 소개한다. “타자와 나/우리 사이를 연결하여 공감과 연대의 공동체를 확장”¹⁵⁾시키는 것이 이번 전시의 대주제라면, 작품 대부분은 적절히 주제에 걸맞게 선택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테마란 리플릿에서 제시하는 소주제를 일컫는 것이다. (1) 표현의 자유 (2) 예술과 행동주의 (3) 정부, 권력, 그리고 도덕적 선택 (4) 디지털 세계 (5) 역사, 역사적 순간, 미래 (6)개인적 사유 - 이렇게 6가지 테마¹⁶⁾다. 예를 들어 <빨래방>(2016)은 ‘(2) 예술과 행동주의’에 배치된 작업으로 난민 이슈에 관한 문제 의식을 일으켜서 공감, 연대를 유도하고 “타자와 나/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과정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주제에 부합한다. 나머지 테마도 ‘인간미래’라는 전시 주제에 적합한 메시지를 담은 작업을 선정했다.

본문에서 주목할 점은 《아이 웨이웨이: 인간미래》가 ‘전시’라는 형식을 이용해서 메시지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하는지 여부이다. 《아이 웨이웨이: 인간미래》가 한국 사회의 타자 인식을 바꾸는 데 얼마나 유효한 역할을 해내는지 살피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126편의 작품을 하나씩 살피면서 테마에 따라 비평하는 것은 유의미한 작업이지만, 여기서는 관람의 흐름에 따라 전시 주제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설득되는지에 방점을 둔다. 따라서 두 가지 논점에서 전시를 논할 것이다. 우선 《아이 웨이웨이: 인간미래》가 제시하는 ‘인간미래’가 시민 인식을 바꾸는 데 어떠한 주제 전략을 사용했는지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큐레이션의 관점에서, 공간에 따라 어떤 식으로 전시를 구성했는지 점검하고, 이것이 주제를 달성하는 데 어떤 효과를 거두는지 논할 것이다.

3. 전시 주제 ‘인간미래’의 사회적 가치

전시 제목 ‘인간미래’는 ‘인간’과 ‘(현대보다 더 나은) 미래’를 결합한 것이다.¹⁷⁾ 아이 웨이웨이의 예술

15) 국립현대미술관, 위의 리플릿, 3쪽.

16) “여섯 개의 키워드는 래리 와르시가 아이 웨이웨이의 각종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한 발언을 선별한 책 《아이 웨이웨이-주의》(2012)에서 따온 것이다. 주제에 따라 작품을 소개하지만 사실 이 키워드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거나 중첩되며, 작품도 하나 이상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위의 리플릿, 3쪽)

17) 국립현대미술관, 위의 리플릿, 3쪽.

목표가 ‘연대’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그가 상상하는 ‘더 나은 미래’는 인간끼리 연대하는 모습일 것이다. 인간미래는 ‘우리’의 미래다. 아이 웨이웨이는 인간이 우리라는 이름으로 연대하길 바란다.¹⁸⁾

‘인간미래’는 어떻게 가능할까? 구체적으로 질문한다면 한 집단이 타자(난민으로 대표되는)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일은 어떻게 가능할까? 《아이 웨이웨이: 인간미래》는 ‘상상력의 회복’을 제안한다. 상상력이란 타자의 구체적인 삶을 상상하는 힘이다. 예를 들어 ‘이슬람 난민’ 같은 표현으로 축약되던 누군가의 존재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종종 딸기파이를 먹는, 점심에는 열심히 일을 하다 커피 한잔에 감사함을 느끼는, 저녁에는 친구들과 월드컵을 보면서 함께 뛰어놀기도 하는 - 나와 다를 바 없는 인격적 존재로 구축하는 힘이 상상력이다. 이러한 상상력이 부재한 곳에서 혐오가 시작된다. 엘라인 스캐리의 통찰대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쉽게 상처를 입힐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존재를 전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몹시 떨어지기 때문”¹⁹⁾이다. 클라우드스니츠 사태를 분석한 카롤린 엠케 또한 “부족한 상상력은 정의와 해방의 막강한 적대자”²⁰⁾라고 표현하며 타자를 협소하게 만드는 인식의 틀을 재고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같은 맥락에서 《아이 웨이웨이: 인간미래》 작품 다수는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타자를 상상하는 능력이 부재하단 것을 지적한다. 예컨대 <빨래방>(2016)에 놓인 수많은 옷과 신발을 목격하면, 그걸 착용하고 먼 거리를 정처 없이 떠돌았을 한 인간, 어느 국가에서도 그를 받아주지 않아 황망한 표정으로 바다를 응시하는 한 인간이 상상된다. 낯선 도시의 풍문처럼 여겼던 난민의 고통은 구체적 얼굴이 된다. 이슈(issue)는 이야기(narrative)가 된다. 예멘 난민에게 사람자격(personhood)이 없다고 여겼던 한국 사회의 냉담한 태도는 민망하고 무안해진다.

전시를 관람한 이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된다. 철학자 에마뉼 레비나스(Emmanuel Lévinas)는 우리 앞에 나타나는 ‘타인의 얼굴’에 관해 이렇게 말한다. “‘살인하지 말라’는 얼굴의 첫 번째 말입니다. (...) 그리고 내가 누구이건, ‘첫 번째 사람’으로서, 나는 부름에 응답하기 위한 자원을 발견한 사람입니다.”²¹⁾ 타자의 구체적인 삶을 목격한 이상 ‘나’는 그 얼굴에 응답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²²⁾ 레비나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얼굴’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다. 전시를 통해서 난민의 구체적 삶을 확인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그들을 멸시하는 세상을 견딜 수 없다. 《아이 웨이웨이: 인간미래》가 ‘상상력의 회복’을 주요한 전략으로 삼은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상상력을 회복한다는 것은 타자의 윤곽을 넘어 구체적 얼굴을 알아본다는 뜻이고, 떠오른 진실(얼굴)은 사람을 손쉽게 혐오하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죽도록 내버려두는 세상에 저항하도록 종용한다. 그런 점에서 《아이 웨이웨이: 인간미래》는 저항의 연대를 구축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타자의 얼굴을 우리 앞에 데려오는 전시다. <빨래방>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아이 웨이웨이는 억압을 부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억압에 무너진 ‘사람’의 잔해를 모아서 보여주는 사람이다. 난민이 머무르던 섬 부근에서 그들의 흔적을 주운 뒤 예술의 이름으로 결합하는 아이 웨이웨이는 자신이 바라는 ‘인간미래’가 상상력을 통한 연대로 가능하다고 믿는다. 난민 이슈가 재점화된 시점에서 《아이 웨이웨이: 인간미래》는 연대와 사랑으로 폭력에 저항하는 길을 한국 사회에 제안하고 있다.

4. 주제 펼침으로서의 공간 큐레이션 평가

《아이 웨이웨이: 인간미래》의 주제가 현 시대에 유효한 이유를 살펴보았다. 지금부터 작품 배치 등 공간

18) ‘인간미래’가 띄어쓰기 없이 결합하여 합성어처럼 쓰인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읽어야 할 것이다. 두 단어가 결합해서 탄생하는 미래는 합성어로서 새로운 단어가 형성된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세계다.

19) Elaine Scarry, “Das schwierige Bild der Anderen”, Balke / Habermas / Nanz / Sillem (Hrsg.), Schwierige Fremdheit, Frankfurt, 1993, S. 238., 카롤린 엠케, 위의 책 80쪽에서 재인용

20) 카롤린 엠케, 위의 책, 244쪽.

21) 에마뉼 레비나스, 《윤리와 무한 (필립 네모와의 대화)》, 고양: 도서출판100, 2020, 98쪽.

22) ‘책임’을 뜻하는 ‘responsibility’가 ‘응답’을 뜻하는 ‘response’를 어원으로 삼는다는 점을 주목하고 싶다.

큐레이션을 중심으로 전시를 평가하고자 한다. 《아이 웨이웨이: 인간미래》는 초입에 저항을 삽입하고 종결에 희망과 연대를 배치했다. 다소 파격적인(그래서 유명한) 그의 예술적 저항은 종막에 다다르면서 고요하고 진중한 메시지로 전환된다. 이로써 예술가의 저항이 유치한 반발심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제거된다.²³⁾ 이번 전시는 대중에게 각인된 반항적 키워드를 충실히 다루면서도 그의 저항에 담긴 무게와 진심까지 설득한다. 아이 웨이웨이를 ‘가운데 손가락의 예술가’로 축소하지 않은 것이 《아이 웨이웨이 : 인간미래》의 덕목 중 하나이다.

작업이 배치된 공간을 구분해보자. 《아이 웨이웨이: 인간미래》는 여러 공간에 걸쳐서 작업을 선보인다. 관람 순서에 따라 작성하면 제1~4 공간과 복도까지 총 다섯 가지 분류가 이루어진다. <원근법 연구, 1995~2011>(2014)가 포함된 공간(제1 공간), <라마처럼 보이지만 사실 알파카인 동물>(2015)이 포함된 지하 공간(제2 공간), <구명조끼 뱀>(2019)이 포함된 연결 공간(복도), <빨래방>(2016)이 배치된 실내 공간(제3 공간), <나무>(2015)가 전시된 야외 공간(제4 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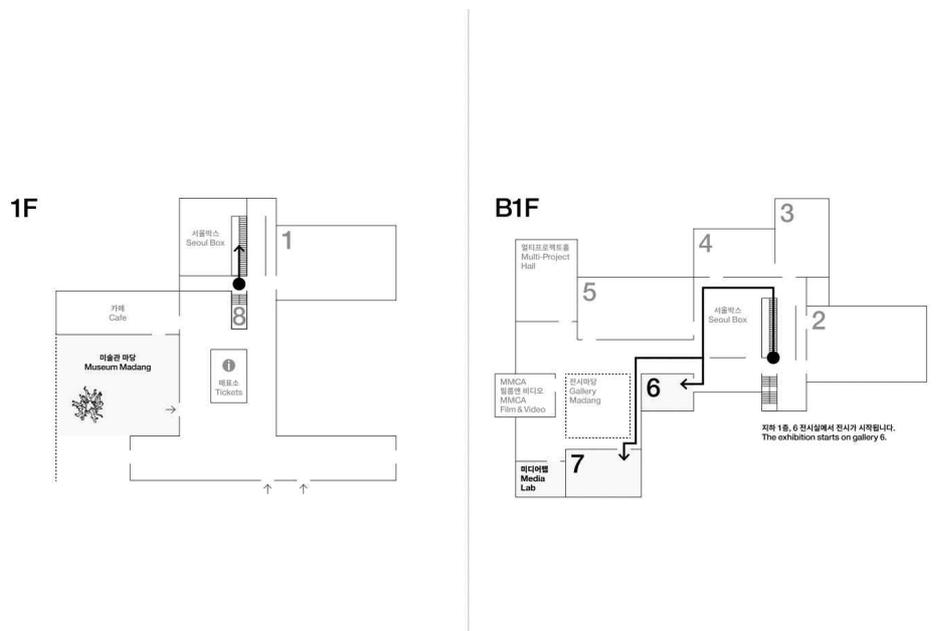


그림 2 전시 리플릿 2쪽에 실린 지도²⁴⁾

4.1. 흥미 유도, 제1~2 공간

제1~2 공간의 키워드는 ‘저항’과 ‘전통’이다. <원근법 연구, 1995-2011>(2014), <검은 상들리에>(2017-2021), <조명>(2009)처럼 그의 저항 의식을 드러내는 대표작을 배치했고, <한대 도자기 떨어뜨리기>(2016)처럼 전통에 대한 저항과 화해를 다룬 작업을 연달아 설치했다. 제1-2 공간에 배치된 작품은 그가 저항하려는 대상이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거대한 구조 자체인 점을 조명한다. 이는 《아이 웨이웨이: 인간미래》전반을 감싸는 맥락일 뿐만 아니라 아이 웨이웨이라는 예술가의 뿌리이다. ‘인간미래’를 구축하기 위해서 대항해야 하는 것은 거대한 구조이며, 이에 겁먹지 않으려면 상상력과 연대를 통해서 그 기반을 쌓아야 한다. 제1~2 공간은 아이 웨이웨이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큐레이션이다.

23) 다른 맥락 없이 주어졌을 때, 가령 그의 대표작 <원근법 연구, 1995~2011>(2014)는 유치하다는 식으로 평가받는 경우가 허다했다.

24) 지하 1층의 6 전시장이 ‘제1~2 공간’이고, 7 전시장이 ‘제3 공간’이다. 전시장을 잇는 중간 통로가 ‘복도’이고, 1층의 미술관 마당이 ‘제4 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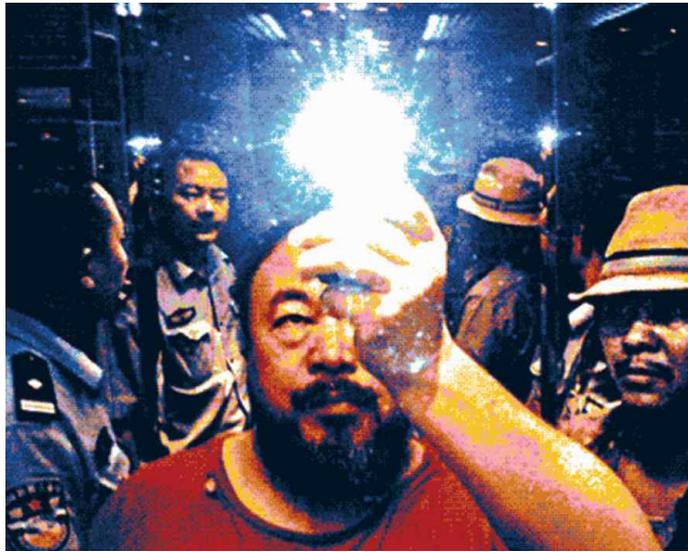


그림 3 전시 리플릿 6쪽에 실린 <조명>(2009)

제1 공간은 예술 전공이 아니거나 미학에 관심이 덜한 관객도 충분히 즐기도록 노력한 모습이 엿보인다. 그의 대표작 <원근법 연구, 1995~2011>(2014)를 입구에 배치하면서 아이 웨이웨이를 모르는 사람도 손쉽게 흥미를 갖도록 유도한 점이 그렇다. 대표작 <조명>(2009)도 비슷한 역할이다. 경찰이 그를 엘리베이터로 연행하는 유명한 모습이 전시장 입구에서부터 잘 보이도록 큼지막한 크기로 벽면에 달려 있다. <검은 상들리에>(2017-2021)는 기괴한 모습으로 시선을 사로잡고, <한대 도자기 떨어뜨리기>(2016)는 기원전 시대의 도자기를 떨어뜨리는 모습으로 관객에게 충격을 준다. 매력적인 도입으로 전시 관람의 흥미를 높인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큐레이션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제1 공간에서 흥미를 고취하는 방식이 유명세와 파격성이라면 제2 공간은 거대하고 화려한 작업으로 시선을 끈다. 표현의 자유가 억압된 중국의 현실을 비판하는 <라마처럼 보이지만 사실 알파카인 동물>(2015)은 거대한 홀을 사방에서 감싸서 마치 궁전에 들어선 것처럼 웅장한 느낌을 전달한다. 이렇듯 “웅장하고 신선한 감각적 체험”은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²⁵⁾하는 효과를 지닌다. 고개를 들면 “현재의 문화와 문명”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과거로부터 긴 시간의 강을 거쳐 현재까지 흘러”²⁶⁾왔다는 것을 표현하는 <옥의>(2015)가 수평을 이룬 채로 공중에 떠 있다. 중국 역사를 비유한 만큼 약 12m에 달하는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는 <옥의>는 <라마처럼 보이지만 사실 알파카인 동물>과 함께 육중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아이 웨이웨이 예술의 물리적 놀라움을 환기시킨다. 거대한 물질성을 지니는 작품이 함께 배치되면서 관객은 “거대한 작품 속에 빠져 비로소 자신이 왜소함을 느끼게”²⁷⁾ 된다. ‘나’라는 존재가 사회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 낯선 웅장함으로 감각되면서, 당연한 관계성을 환기하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예상하기 어려운 거대함으로 시선을 끄는 것은 물론, 비판적 의식이라는 통일된 주제를 함께 가져간 것은 제2 공간 큐레이션의 장점 중 하나다.

25) 장환명, <아이 웨이웨이의 설치작품에 나타나는 반복과 중첩의 특성을 적용한 추모관 디자인>,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2016, 20쪽.

26) 국립현대미술관, 《오디오 가이드》 중 ‘606.<옥의>’, 2021.

<https://www.mmca.go.kr/exhibitions/exhibitionsDetail.do?menuId=1030000000&exhId=202102010001381>

27) 장환명, 위 논문, 20쪽.



그림 4 중앙에 <옥의>(2015),
벽면에 <라마처럼 보이지만 사실 알파카인 동물>(2015).
(사진 출처 : 국립현대미술관 홈페이지)

제2 공간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작품 양에 비해 소개 텍스트가 부실했다는 점이다. ‘전통’에 관한 작품을 같은 공간에 여럿 배치한 것은 좋았으나 사전 지식이 부족한 관객이 의미 유추를 하려면 더 많은 설명이 필요했다. 예컨대 <여의>(2012)는 기괴한 장기 모양의 자기인데, 《서유기》에 얽힌 여의 서사 등을 환기하더라도 뜻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옥의>와 <라마처럼 보이지만 사실 알파카인 동물>을 제외하면 따로 해설이 붙은 작업이 없어서 사실상 메인 작업(<옥의>, <라마처럼 보이지만 사실 알파카인 동물>) 두 개를 제외한 작품은 서로 힌트처럼 작용하기도 어렵다. 이를 해결하는 좋은 예시는 제3 공간에서 발견된다. 제3 공간에서는 비슷한 의미 단위의 작업을 소개하면서 다른 것을 해석할 때도 충분한 근거 역할을 하도록 유도한다. 예컨대 <난민 모티프의 도자기 기둥>(2017)과 <청화백자 접시>(2017)는 난민을 모티프로 그린 그림이 작품에 새겨졌다는 공통 전제가 존재해서 한쪽 작업에 관한 설명만 참고하더라도 나머지 하나를 해석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많은 작품을 전시하는 것은 장점이나 그 작품을 관객이 이해하기 좋도록 조금 더 정보를 제공했다면 보다 풍부한 독해가 가능했을 것이다. 작품마다 해설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법이고, 여의치 않다면 제3 공간처럼 형식적 통일감이 있는 작업끼리 모였을 때 대표 해설을 부여하는 것이 추천할 만한 방법이다.

4.2. 주제 전환과 작품 간 상호작용, 복도

제3 공간으로 넘어가려면 <인용문>(2015)과 <구명조끼 뱀>(2019)이 붙은 복도를 통과해야 한다. 이 장소는 주제가 전환될 거라는 암시를 전하면서도 두 작품의 설득력을 각각 높인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복도 초입에 붙은 <인용문>은 유명한 사람이 남긴 인권에 관한 어록을 모아둔 텍스트 작업이다. <인용문> 중 하나를 추려보자. “인간 세상의 구원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마음과 생각하는 힘, 인간의 온순함과 책임감에 있다.”(바츨라프 하벨, <하벨의 의회 연설문>, 《워싱턴 포스트》, 1990.02.21.²⁸⁾)

하벨은 인간의 구원이란 온순함과 책임감에 존재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문장을 읽고서 ‘온순함’이나 ‘책임감’ 같은 단어가 곧바로 내 것처럼 경험되진 않는다. 텍스트는 비슷한 경험 세계를 관통하지 않은 이상 추상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텍스트를 보완하는 작품이 바로 <구명조끼 뱀>이다. <인용문> 관람이 끝

28) <인용문>에 기록된 바를 그대로 밝혀서 쓴다.

나고 바로 등장하는 - 20m는 돼 보이는 - 거대한 <구명조끼 뱀>은 방금 <인용문>으로 확인한 문장이 피부에 와닿도록 돕는다. <구명조끼 뱀>은 그리스 레스보스 섬에 난민들이 벗어두고 간 구명조끼를 모아서 엮은 작품이다. 이는 “기억에 보조적 수단이 되어 한 시대와 역사, 그리고 재난에 대한 인상과 경험을 한 이들의 기억을 자극하고 다시 되살”리는 아이 웨이웨이의 특징이 드러나는 작품으로, 관객의 “기억과 망각을 부각시키면서 저장을 가상적으로”²⁹⁾ 만들어낸다. 관객은 타자로서 난민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되새기면서 난민이 나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물론이고, 지구 어딘가에서 벌어지는 비슷한 일을 외면하면서 살지는 않았는지 회고하며, 이러한 예술이 ‘온순함과 책임감’을 발휘한 예시라고 생각하게 된다. <인용문>은 <구명조끼 뱀>의 각주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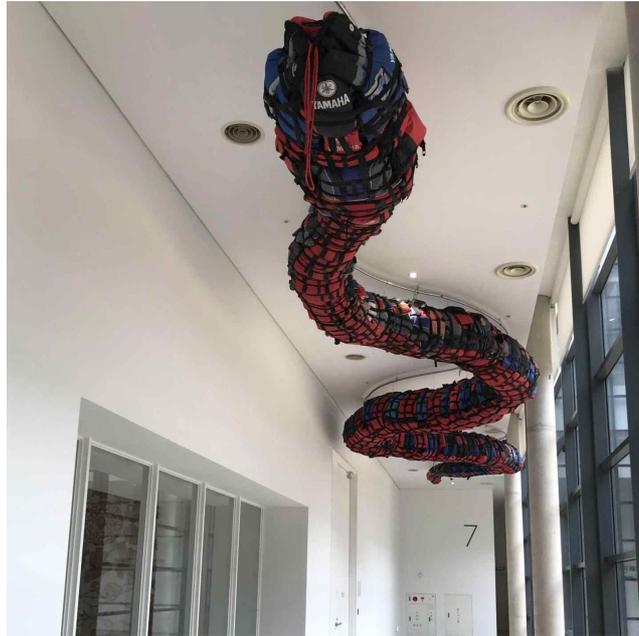


그림 5 복도 천장에 위치한 <구명조끼 뱀>(2019)
(사진 출처 : 직접 촬영)

의미적 보완 효과는 반대 방향으로도 작용한다. <구명조끼 뱀>을 보면서 일어나는 묘한 감정은 언어를 토대로 형태를 갖추는데, 바로 직전에 읽었던 <인용문>에 근거해서 이루어진다. 예컨대 지속적으로 난민이 발생하는 세상에서 난민 혐오를 부추기거나 방관했던 이들은 <구명조끼 뱀>을 보면서 무언가 잘못됐음을 경험하고, 아까 읽었던 <인용문> 중 일부를 떠올리는 것이다. “이런 국수주의자들의 공포, 즉 감염, 침투, 혼혈을 두려워하는 이들의 이야기는 이민자들의 폭소를 자아낸다. 이들의 두려움은 이민자들이 두려워하는 용해나 소멸에 비하면 그야말로 시시한 땅콩에 불과하다.”(제이디 스미스, 《하얀 이빨》, 2000.³⁰⁾) 실제로 예멘 난민이 국내에 유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여론의 핵심 근거는 ‘두려움’이었다. <인용문>에 실린 문장은 당대의 다른 사건을 겨냥한 것이지만,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한국 시민을 조준하는 것이기도 하다. 제3 공간으로 향하는 복도는 주제 변환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뿐만 아니라 작품 각각이 유연하게 상호작용하도록 설계됐으며, 더 나아가 관객이 스스로 태도를 점검하도록 이끈다는 점에서 훌륭한 큐레이션이다.

4.3. 몰입을 통한 감상의 언어화, 제3 공간

29) 배현진, <아이웨이웨이(艾未未)의 작품 속 오브제를 통한 기억 재현>, 한국동양예술학회, 동양예술 50권0호, 2021, 254쪽

30) <인용문>에 기록된 바를 그대로 밝혀서 쓴다.

제3 공간은 제1 공간부터 쌓인 서사가 완성되는 공간이다. 복도에서 이어진 난민-내러티브³¹⁾가 <난민 모티프의 도자기 기둥>(2017), <난민 구조선 ‘시워치3’의 2019년 6월 항해 경로>(2019) 등을 통해 더욱 확장된다. 또한 <민물 계>(2011)와 ‘세계인권선언’, ‘예술과 행동주의’ 등 텍스트는 아이 웨이웨이가 선택한 윤리적 태도가 억압 속에서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증명한다.

큐레이션 면에서 흥미로운 것은 결론부에 도달한 만큼 침착한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점이다. 특히 색깔 사용에서 의도가 두드러진다. 앞선 공간에 비해서 작품이나 배경에 사용된 색깔이 줄어든다. 제1 공간의 <색을 입힌 화병들>(2015)이나 제2 공간을 가득 채운 <라마처럼 보이지만 사실 알파카인 동물>(2015)은 화려하고 강렬한 색채를 이용하는 작업이었다. 그러나 제3 공간에 배치된 은빛 테이블, 공간 안쪽에 배치된 여러 하얀색 도자기, 하얀 벽면에 내걸린 <2019년 3월 22일 로버트 물러가 윌리엄 바 법무장관에게 제출한 물러 보고서의 표지>(2019), 그리고 복도에 붙은 ‘세계인권 선언’의 하얀 배경까지 - 작업 중 다수가 모노톤을 주색으로 삼았으며, 원색을 사용하더라도 모노톤에 분명한 주도권을 넘긴다. 예컨대 <난민 구조선 ‘시워치3’의 2019년 6월 항해 경로>(2019)는 원색에 가까운 청색이지만, 현장에 있는 나머지 작업과 배경이 모두 고요한 톤을 형성하기 때문에 침착한 분위기를 훼손하기보다 강조색처럼 시선의 자극을 환기하는 데 쓰인다.(앙리 마티스의 <이카루스>(1946)에서 붉은색 심장이 검은색 신체의 중앙에 작게 배치된 것처럼.) 제3 공간에서만 나오는 조용한 노래도 이런 침착한 분위기에 일조한다.



그림 6 제3 공간 일부. 좌측 벽면에 붙은 작품은 <2019년 3월 22일 로버트 물러가 윌리엄 바 법무장관에게 제출한 물러 보고서의 표지>(2019). (사진 출처 : 국립현대미술관 홈페이지)

이런 분위기는 텍스트 몰입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제3 공간은 아이 웨이웨이의 사고관을 요약 정리한 텍스트가 다수 배치됐는데, 이는 관객의 흥미를 자극하는 데 중심을 둔 제1~2 공간과 대조적이다. 아이 웨이웨이가 한 말을 모은 <아이 웨이웨이-주의>(2012) 같은 서적부터 ‘세계인권선언’, ‘예술과 행동주의’, 전시 작품의 해설까지 다양한 종류의 읽을거리가 존재한다. 전시를 통해서 체험했던 직관적 감각은 전시 말미의 텍스트를 통해서 요약되고, 더욱 구체적인 감상으로 직결한다. 예컨대 제1 공간에 전시된 <조명>(2009)은 경찰에 연행되는 아이 웨이웨이가 셀피를 찍은 작품이다. 관람객은 그가 경찰에게 끌려가면서까지 예술로써 정부에 저항하는 이유를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자유를 위해서, 억압받는 존재를 위해서 예술을 한다고 해도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실천을 해내는 것은 드물기 때문이다. 다만 그가 진지하게 예술에 임

31) 엄밀히 말하면 제2 공간의 <부유>(2016)에서 조용하게 시작된 것. <부유>에선 난민을 실은 것처럼 보이는 작은 부유체가 망망대해를 떠돌아다니는 모습을 고요한 영상으로 나타낸다. ‘조용한 시작’이라고 평가한 까닭은 제1~2 공간에서 난민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다룬 것이 오직 <부유>뿐이기 때문이다.

한다는 점을 짐작할 뿐이다. 그런데 제3 공간의 벽면에 커다랗게 걸린 “태도와 삶의 방식이 가장 중요한 예술”이라는 선언이나, 그의 스튜디오가 중국 정부에 의해서 해체된 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록한 서면을 읽으면 아이 웨이웨이의 저항적 예술이 어떤 무게감으로 실천되는지 이해하게 된다. 특히 스튜디오가 철거된 사유가 “부실 공사로 학교 건물이 힘없이 붕괴되었을 때 희생당한 사망자와 실종자 어린이들의 명단을 모아 5,385명의 이름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³²⁾린 데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관객의 마음엔 부끄러움이나 슬픔 같은, 이전과 다른 삶을 선택할 각오를 자극하는 감정이 솟아난다. 예술가의 목표를 거의 정답에 가까운 문장으로 해설하는 텍스트는 오해 없이 그의 메시지를 확인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관객의 직감을 언어화하면서 마음속에 확실한 메시지를 남긴다. 이는 사유와 반성으로 이어져서 내면에 깊은 파문을 일으킨다. 제3 공간의 명상적 분위기는 이러한 내면화에 집중하도록 유도한다. 아이 웨이웨이의 작업이 관객의 변화를 중요한 목표로 삼는다는 점에서 이러한 큐레이션은 목표를 충분히 성취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4.4. 희망과 연대의 비유, 제4 공간

미술관 마당에 <나무>(2015) 한 그루가 서 있다. 제4 공간의 유일한 작품 <나무>는 “죽은 나뭇가지와 뿌리, 그루터기 등을 조합하여 만든” 작업으로 “멀리서 보면 하나의 나무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절단면과 접합부가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 조각을 합쳐서 만들었다는 사실”³³⁾이 분명하다. 죽고 버려진 나무의 조각이 변방의 존재를 비유한 것이라면, 아이 웨이웨이가 삶을 다해서 예술로 호명한 존재들은 모두 <나무>의 몸통이다. 레스보스 섬에서 구명조끼를 버려두고 떠났던 난민이 그럴 것이고 2008년 쓰촨 대지진에서 탈출하지 못한 아이들이 그럴 것이다. 아이 웨이웨이가 꿈꾸는 ‘인간미래’는 모두를 한 몸에 끌어안는 나무의 형상이다.



그림 7 <나무>(2015)
(사진 출처 : 국립현대미술관 홈페이지)

32) 배현진, 위 논문, 256쪽.

33) 국립현대미술관, 《오디오 가이드》 중 ‘707.<나무>’, 2021.

<https://www.mmca.go.kr/exhibitions/exhibitionsDetail.do?menuId=1030000000&exhId=202102010001381>

제4 공간은 결론보다 후일담에 가깝다. 혹은 영화 크레딧이 종료되고 나오는 쿠키 영상이다. 아이 웨이웨이의 서사가 완전한 결말에 도달해서 완성시킬 공동체의 은유이며, 그것은 전시 이후의 변화가 빚어낼 또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이미 끝난 영화를 속으로 되뇌이면서 영화관을 나오듯이 제3 공간을 나서는 관객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천천히 올라간다. 제4 공간 - 마지막 파트에 <나무>를 배치한 것은 획기적인 큐레이션인데, 사유를 하면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온 그 순간 회랑 너머로 한눈에 보이는 것이 바로 <나무>이기 때문이다. 지하 전시 공간에서 씨앗처럼 생겨난 사랑과 연대의 꿈이 지상에서 <나무>로 우뚝 솟아서 그 순간 손에 와닿는 비유가 된다. 전시 입장을 기다리는 무리를 지나 널따란 마당에 고요히 자리잡은 <나무>는 아이 웨이웨이가 바라는 세상이 전시장 바깥에서도 가능하리란 예감을 준다.

<나무>는 전시를 관람하는 이의 마음속에 여태까지 내버려둔 가치가 무엇인지 반성할 기회를 제공하면서, 시민들이 일궈야 할 '나무'가 어떤 형상인지 생각하게 한다. 나무는 홀로 서 있지 않으며, 나무에는 분명히 난민의 자리도 있다는 사실이 전시 내내 명료해진다. 난민의 이야기는 이제 다른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억이 된다. 아이 웨이웨이의 작품 속에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 폐기될 잔해물들은 탈기능화되고 새로운 상징과 의미를 함축한 이미지가 되어 (...) 문화적 기억으로 자리 잡게 된다."³⁴ 버려진 것으로 구성된 <나무>는 수많은 이음새로 이어져 있고, 이를 목격하는 관객은 진정한 <나무>의 완성이 "타자와 나/우리 사이를 연결하여" 피어난 "공감과 연대의 공동체"³⁵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연대의 메시지로 전시를 마무리하는 것은 아이 웨이웨이의 비판 의식이 목표하는 바가, '반체제인사'라는 과격한 별명에서 상상되는 체제의 붕괴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나무>는 연대와 사랑을 지향하는 실천적 모범으로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윤리를 제시하고 있으며, 저항과 상상의 '인간미래'에 함께하겠다는 관객의 의지를 도출해낸다.

5. 결론

지금까지 《아이 웨이웨이: 인간미래》의 주제와 큐레이션을 살펴보았다. 타자와 연대하는 미래를 지향하는 메시지는, 난민 등 다양한 타자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 필요한 주제다. 《아이 웨이웨이: 인간미래》는 인간이 인간을 소외시키는 구조 속에서 공동체 윤리를 각 개인의 마음에 심으려고 한다. 공동체 윤리를 구성하기 위한 첫 걸음은 타자에 대한 상상력을 구축하고 이에 따라 저항의 연대를 구축하는 일이다. 《아이 웨이웨이: 인간미래》는 '전시'라는 문화 형식을 이용해서 이러한 메시지를 설득한다. 특히 전시를 감상하는 순서에 따라 공간을 살펴봤을 때, 예술가의 작품 세계를 흥미롭게 선보이는 것을 시작으로, 타자의 얼굴을 관객에게 제시한 뒤 그에 대한 인지 현상을 언어화로 구축하고, 전시가 끝난 뒤까지 여운이 남도록 은유를 차용해서 이야기를 맺은 것은 전시가 목적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큐레이션이다. 《아이 웨이웨이: 인간미래》는 다양하게 형상화된 작품을 주제적으로 통일시켰을 뿐만 아니라 관객의 내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예측하고 이에 따라 작품을 배치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본 평가엔 한계도 있다. 특히 공간과 작품 배치에 집중해서 큐레이션을 평가했기 때문에 그 외 요소에 대한 서술이 부족하다. 가령 전시 도구 및 환경에 관한 논의가 부재하다. 국내에서 가장 대중적인 전시장 MMCA에서 진행한 만큼 《아이 웨이웨이: 인간 미래》는 다양한 편의를 제공했다. MMCA 홈페이지에서 리플릿을 열람하거나 음성 안내를 참고하도록 유도해서 작품에 대한 풍부한 감상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점이 대표적이다. 전시장에서 나눠주는 이어폰을 따로 착용할 필요 없이 개인이 소지한 물품으로도 해설을 들을 수 있도록 대비한 것도 접근성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장점이다. 다만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관람 시간이 제한된 점이 아쉽다. 작품 126점을 텍스트와 함께 감상하기에 2시간은 짧은 제한 시간이었다. 요컨

34) 배현진, 위 논문, 253쪽.

35) 국립현대미술관, 위의 리플릿, 3쪽.

대 감상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여 오롯이 전시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작업은 성공적이었으나, 그렇게 유지된 관심을 충족시킬 만큼 시간을 제공하지 않은 점은 깊이 있는 관람을 목적으로 하는 관람객에게 부정적 요소였다. 이러한 기타 요소 또한 전시를 감상하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므로, 다양한 영역에 대한 서술이 추가된다면 더욱 총체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예술이 오직 자신의 힘으로 사회에 영향을 미치긴 어렵다.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할 창구가 부족한 경우도 있고, 예술에 담긴 메시지가 충분히 언어화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이다. ‘전시’는 예술을 대중에게 선보이는 대표적인 방식으로 예술에 마땅한 언어와 자리를 부여한다. 그로써 예술은 사회 속에서 호흡하고 자신의 정치적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 MMCA는 전시를 통해서 아이 웨이웨이의 예술이 한국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 난민 등 타자와 공동체를 이루는 법을 배워야 하는 한국 사회에 《아이 웨이웨이: 인간미래》는 상상과 저항의 ‘인간미래’를 꿈꾸게 한다. 훌륭한 큐레이션과 주제 의식으로 한국 사회에 연대의 메시지를 전해준 《아이 웨이웨이: 인간미래》가 더욱 많은 관객에게 목소리를 전하길 바란다.

참고 문헌

- 국립현대미술관, 〈아이 웨이웨이 인간미래(Defend the Future)〉리플릿, 2021.,
(<https://www.mmca.go.kr/exhibitions/exhibitionsDetail.do?menuId=1030000000&exhId=202102010001381>)
- 국립현대미술관, 《오디오 가이드》, 2021.,
(<https://www.mmca.go.kr/exhibitions/exhibitionsDetail.do?menuId=1030000000&exhId=202102010001381>)
- 김미영, 〈아이 웨이웨이 : 표현의 자유를 위한 인권예술가〉, 더원미술세계, 2015년 11월호, 114~119쪽.
- 김진희, 이로미, 〈세계시민성 관점에서 본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와 한국 다문화교육의 과제〉, 연세대학교 한국교 육개발원, 한국다문화교육학회, 다문화교육연구 12권3호, 2019, 37~64쪽.
-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서울: 문학과지성사, 2015.
- 김현옥, 박해선, 〈전쟁난민아동에 대한 국민국가의 환대와 혐오: 유입난민아동에 대한 허용 및 거부의 의미연결망 과 토픽분석〉, 경상국립대학교,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vol.16, no.1, 2022, 29~54쪽.
- 배현진, 〈아이웨이웨이(艾未未)의 작품 속 오브제를 통한 기억 재현〉, 한국동양예술학회, 동양예술 50권0호, 2021, 245-267쪽.
- 에마뉼엘 레비나스, 《윤리와 무한 (필립 네모와의 대화)》, 고양: 도서출판100, 2020.
- 장환명, 〈아이 웨이웨이의 설치작품에 나타나는 반복과 중첩의 특성을 적용한 추모관 디자인〉,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2016.
- 카롤린 엠케, 《혐오사회》, 파주: 다산북스, 2017.
- 현빈, 〈유색인종 난민은 어떻게 해서 감추어지는가〉, platform.c, 2022.06.13.,
(<http://platformc.kr/2022/06/how-do-refugees-hidden/>)
- unBlaged, ‘Döbeln / Clausnitz: Rassismus in Deutschland 2016’, 2016.02.19.
(<https://www.youtube.com/watch?v=JAMHJwiMi6M>)

제로슈가 식품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발전 방안

컴퓨터과학과 임예*

목차
1. 서론
1.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2. 연구 방법
2. 제로슈가 식품의 현황과 배경
2.1. 제로슈가 식품의 현황
2.2. 제로슈가 식품의 배경
3. 제로슈가 식품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4. 제로슈가 식품의 올바른 섭취를 위한 방안
4.1. 대체당 부작용에 관한 내용 표기
4.2. 적당량 섭취
5. 결론
참고 문헌
부록

1. 서론

1.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제로슈가(Zero Sugar) 식품은 설탕 대신에 대체당을 첨가한 식품을 의미한다. 최근 제로슈가 식품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2021년 1월에 출시된 ‘펩시 제로 라임’은 약 1년 6개월 동안 누적 판매량 3억 1000만 캔을 돌파하였다.¹⁾ 제로슈가 식품이 계속하여 출시되고 있으며 그만큼 수요가 높다. 설탕이 아예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과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식품 업계에서의 관심은 ‘제로슈가’로 집중되고 있으며 계속하여 이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건강을 위해서 섭취하는 제로슈가 식품이 과연 건강한지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실제로 한 제로슈가 젤리 제품으로 인해 설사, 복통의 증상을 겪었다는 사례가 있어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다.²⁾ 제로슈가 제품에 대한 부작용이 흔하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사례가 존재하므로 결코 안심하기만 할 수는 없다. 제로슈가 식품을 섭취하는 것 이전에, 설탕의 역할을 하는 대체당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효과, 부작용 등을 인지하여 제로슈가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기 위한 진정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제로슈가 식품의 증가 현황에 따라 사람들의 인식에 대해서 알아보고, 제로슈가 식품을 보다 올바르게 섭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1) 이유빈, ‘제로슈가’ 열풍...MZ세대의 이유는?, 오마이뉴스, 2022.11.0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76991>

2) 류빈, 해태제과, 복통·설사 논란 ‘퀴카젤리’ 회수...대체당 안전할까, 아시아타임즈, 2022.09.08.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20908500122>>

1.2. 연구 방법

제로슈가 식품과 관련한 사람들의 인식에 대해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2022년 11월 15일부터 2022년 11월 19일까지 상명대학교 학생을 비롯하여 다른 학교 학생과 지인을 포함해 7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제로슈가 식품의 섭취 경험 여부와 그 이유, 제로슈가 식품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한 문항을 담았다. 설문 조사의 전체 문항은 부록에 제시한다.

2. 제로슈가 식품의 증가 현황과 배경

2.1. 제로슈가 식품의 현황

제로슈가 식품에는 설탕 대신에 대체당이 첨가된다. 대체당은 설탕 대체 감미료로, 설탕 대신 단맛을 내게 하는 물질이다. 이는 생성 과정에 따라 크게 합성 감미료, 천연 감미료, 천연당, 당알코올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합성 감미료는 화학적으로 합성한 인공감미료를 의미한다. 합성 감미료에는 사카린,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네오테임 등이 있다. 사카린(Sccharin)은 오래 전부터 사용해왔으며 단맛은 설탕의 약 300~500배 정도 강하다. 뒷맛으로 금속맛, 쓴맛, 청량감 그리고 감초맛이 있다. 탄수화물계 감미료에 비해 단맛이 늦게 나타나며 소멸도 느리다. 보통 각각의 약점과 결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른 감미료와 혼합하여 사용을 많이 한다. 다음에 나오는 아스파탐과 다이어트 탄산음료에 함께 사용된다. 열에 안정하여 열을 가하면서 만드는 음식에도 사용된다. 사카린이 많이 사용되어왔지만 사실 등장부터 유해 논란이 불거져 왔다. 캐나다와 미국에서는 식품 첨가제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였기도 했었지만 이후 많은 연구를 거쳐 결국 우리나라에서도 사카린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³⁾ 아스파탐(Aspartame)은 설탕의 200배의 단맛을 가지고 있으며 쓴맛이 없다. 감칠맛과 함께 신맛을 가지고 있다. 아스파탐이 사카린과 다르게 뒷맛이 쓰거나 금속맛이 없는 것은 장점이지만, 구조적으로 불안정하기에 현재는 수크랄로스로 대체되기도 한다. 높은 온도와 높은 pH에서 쉽게 분해되어 높은 온도에서 이루어지는 제빵 분야에 사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와 반대의 상태에서는 안정하므로 흔히 탄산음료에 넣는 감미료로 사용되고 있다. 아스파탐과 뇌암 사이에 관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논하였지만 끝내 모든 제한이 제거되었다.⁴⁾ 수크랄로스(Sucralose)는 설탕에 비해 600배의 단맛을 가진 무열량 감미료이다. 흰색~옅은 회백색의 결정성 가루로, 냄새는 없으나 강한 단맛을 가졌다. 설탕으로부터 제조되므로 설탕과 유사한 감미를 가지고 있다. 단맛의 발현이 빠르고 단맛이 지속되는 시간이 설탕과 비슷하다.⁵⁾ 음료류, 잼류 등에 사용되는 수크랄로스는 높은 안정성을 가지고 있으며 열과 산에 강한 편이기에 아스파탐과 함께 사용되기도 한다. 아세설팜칼륨(Acesulfame Potassium)은 설탕의 200배의 감미도를 지녔다. 백색의 결정성 분말로 냄새가 없고 단맛이 강하다. 특히 낮은 농도에서 강한 감미를 나타내고 높은 농도에서 뒷맛이 느껴지는데 중간 정도의 감미에서는 뒷맛과 불쾌한 맛이 느껴지지 않는다. 아세설팜은 설탕, 포도당 등의 다른 감미료와 함께 사용하면 감미의 상승효과가 나타난다. 안정성이 우수하여 음료나 잼류에 첨가하면 좋으며, 박테리아나 효소에 의한 침해가 없어 간장, 소스에도 사용된다.⁶⁾

다음은 식물의 잎, 종자 등으로부터 추출한 단맛이 있는 천연 감미료로 글리시리진, 스테비오사이드 등이 있다. 글리시리진(Glycyrrhizin)은 감초의 뿌리에서 얻을 수 있다. 설탕에 비해 50~100배 정도의 단맛을 내고 열량이 비교적 낮다. 설탕과 달리 단맛은 서서히 나고 뒷맛이 오래 남는 특징이 있다. 요거트, 초

3) 네이버 지식백과, 사카린,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73789&cid=58949&categoryId=58983>>, 2022.12.08.

4) 네이버 지식백과, 아스파탐,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827378&cid=62802&categoryId=62802>>, 2022.12.08.

5) 네이버 지식백과, 수크랄로스,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247157&cid=40942&categoryId=32099>>, 2022.12.08.

6) 네이버 지식백과, 아세설팜칼륨,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247156&cid=40942&categoryId=32099>>, 2022.12.08.

코우유 등에 사용되는데, 인체에 무해한 물질로 분류되어 감미료 외에도 의궤양 치료를 위한 의약품으로도 사용된다. 스테비오사이드(Stevioside)는 남미에서 자생하는 국화가 여러해살이풀 스테비아의 잎에서 얻을 수 있다. 설탕보다 210배 강한 단맛을 내는데, 약간의 쓴맛과 좋지 않은 뒷맛을 낸다는 단점이 있다. 현재 국내 감미료 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많은 양이 소주의 단맛을 내는 데 사용된다. 쓴맛 때문에 스테비아에서 얻는 또 다른 천연 감미료인 리바우디오사이드(Rebaudioside) A는 설탕의 240배에 달하는 단맛을 내고 기분 좋은 단맛을 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미국에서 더 많이 사용된다.⁷⁾

천연당은 제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당분으로 유당·과당을 의미하며 자일로스, 코코넛슈가 등이 있다. 자일로스(Xylose)는 오탄당으로 자일란(xylan)의 구성 단위로서 널리 분포하며, 자일란을 함유하는 물질을 가수분해하여 얻는다. 감미도는 설탕의 60%이며 청량감이 있는 단맛을 지닌다. 갈변반응이 일어나고 독특한 향기가 있다.⁸⁾ 코코넛 슈가는 아자수 꽃봉오리 수액만을 모아 채취하기에 붙에 달여 만드는 화학적 정제과정이 들어가지 않는다. 비정제 과정을 거침으로 코코넛이 가진 미네랄과 비타민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즉 타 식품에 비해 영양소 함량이 높다. 코코넛 슈가는 코코넛 나무의 수액에서 성분을 가져와 만들어서 특유의 악한 향이 난다. 설탕과 같은 단맛을 가졌지만,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 혈당이 상승하는 수치는 낮다.⁹⁾

당알코올은 올리고당류에 알코올을 붙여 만든 당으로 에리스리톨, 소르비톨 등이 있다. 에리스리톨(Erythritol)은 백색의 결정성 분말로 냄새가 없고 감미도는 설탕의 70% 정도이며 청량한 감미를 가지고 있다. 1그램당 0.2 킬로칼로리로 열량이 낮고 과일과 발효 식품에 들어 있다. 물에 잘 녹으며 알코올에는 약간 녹는 성질이 있다.¹⁰⁾ 소르비톨(Sorbitol)은 설탕의 60% 정도의 당도를 가진다. 칼로리는 설탕의 30% 밖에 되지 않는다. 에리스리톨과 마찬가지로 혈당 수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과다 섭취 시 위장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식품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의 올해 음료 사업 2분기 매출이 5천 188억 원으로 작년 대비 13.1% 증가했다. 특히 제로 탄산 제품의 경우, 상반기 매출이 851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509억 원이 상승했다. 현재 제로슈가 음료 시장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¹⁾ 롯데칠성음료를 비롯하여 다양한 제로슈가 식품이 판매되고 있다. 제로슈가 식품의 종류에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로 콜라, 제로 사이다 등의 탄산음료부터, 제로슈가 젤리, 제로 카페인 음료 등이 있다. 처음에는 생소했던 ‘제로’가 붙은 많은 식품들이, 이제는 일반 제품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제로슈가 식품은 혈당을 많이 높이지 않아 당뇨 환자들도 마실 수 있으며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등 여러 이점이 있다. 이처럼 대체당, 인공감미료가 설탕을 대체하여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위에서 조금 언급했던 것처럼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 2009년 식약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1명은 인공감미료, ‘수크랄로스’의 1일 섭취 허용량을 초과했다고 한다. 최근 제로슈가 음료의 수요가 높아진 것으로 보아 과다 섭취량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수크랄로스는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위장장애나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또, 소르비톨, 에리스리톨, 자일리톨 등 당알코올을 많이 섭취하면 소화 불량, 구토, 메스꺼움, 경련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2009년 호주 애들레이드 대학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수크랄로스나 같은 인공감미료는 혈당이나 인슐린 수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반대의 연구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2013년 미국 세인트루이스 워싱턴 대학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수크랄로스가 들어있는 음료를 마신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혈당 수

7) 네이버 지식백과, 천연 감미료,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173767&cid=62802&categoryId=62802>>, 2022.12.08.

8) 네이버 지식백과, 자일로스,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51288&cid=40942&categoryId=32315>>, 2022.12.08.

9) 김재욱, 당뇨환자가 섭취해도 되는 코코넛슈가, 웰리스 뉴스, 2019.12.02.

<<http://www.wenw.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

10) 네이버 지식백과, 에리트리톨,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160808&cid=67725&categoryId=67725>>, 2022.12.08.

11) 류빈, “제로 탄산음료 인기”...식음료업계 2분기 실적 ‘쑥’, 아시아타임즈, 2022.08.04.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20804500177>>

치가 14%, 인슐린 수치가 20% 더 높아졌다는 결과를 냈다. 그리고 2017년 캐나다 매니토바대학 연구팀은 인공감미료가 대사 장애성 질환을 일으킬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¹²⁾ 이처럼 인공감미료에 대하여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다양한 내용의 연구 결과들이 있다. 심지어 같은 내용에 대하여 반대의 사실을 도출해낸 결과도 존재한다. 이 결과들로 보았을 때, 설탕의 과다 섭취가 유발하는 질병들을 막기 위해 대체당이 첨가된 제로슈가 식품을 섭취하는 것인데, 오히려 장기적인 측면에서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즉, 인공 감미료에 대한 안전성 입증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 중인 것이다. 따라서 현재 대체당이 첨가된 제로슈가 식품이 안전하다, 위험성이 있다 사이에서 확정 지을 수 없다.

2.2. 제로슈가 식품의 배경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는 당(설탕) 섭취량은 성인 기준으로 하루 섭취량 총 칼로리의 5~10% 미만이다. 국내에서도 한국에서도 1일 총당류 섭취량을 하루 총 에너지 섭취량의 10~20%로 제한하고 있다. 보통 많은 음식에 맛의 향상을 위해 설탕을 많이 첨가하곤 한다. 어떠한 음식을 섭취할 때마다 매번 설탕의 양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힘들뿐더러 여차하면 기준을 넘기 십상이다. 이는 지나친 당 섭취로 이어지기 쉽다.

그렇다면 설탕을 과다 섭취할 경우,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하는가? 당분은 면역체계를 억제하여 신체 능력을 손상시키며, 혈당이 일정하지 않고 불규칙해져 당분을 제때 섭취하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또, 흔히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비만, 당뇨병 등이 있다. 사람의 간은 당류를 분해해 칼로리로 바꾼다. 하지만 그 양이 많지 않기에 분해되지 않는 과당은 지방으로 변환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더하여 단맛 중독으로 인해 당을 끊어낼 수 없게 된다. 당류로 인해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이 많이 생성되는데, 이는 도파민에 대한 내성이 생기게 하므로 결국 더 많은 설탕을 찾게 된다.¹³⁾ 이 외에도 다양한 합병증과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당장은 아무 변화가 없을지라도 후에 많은 것들을 안겨주기에 지금부터라도 적당한 설탕 섭취가 필요하다. 그렇기에 설탕으로 둘러싸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점점 건강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조금이라도 설탕 섭취를 줄이려고 하고 있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대체당'이고 '제로슈가 식품'이다. 제로슈가 식품의 현황에서 볼 수 있듯 대체당은 설탕에 비해 대부분 몇십 배에 달하는 단맛을 가졌을뿐더러 칼로리도 매우 적은 편이다. 심지어 몇몇 대체당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서로의 맛, 성능 등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기에 설탕 대체재로 충분하다. 많은 질병들이 생겨남의 원인에 설탕으로 인한 당 섭취가 있기에 더욱 대체당, 제로슈가 식품의 인기가 높아졌으며, 계속하여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3. 제로슈가 식품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그림 1>의 '제로슈가 식품을 드셔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라는 문항에 70명 중 98.6%의 비율로 '예'에 응답하였다. 이는 대부분 한 번쯤은 먹어본 경험이 있음을 의미하며 식품 시장에서 제로슈가 제품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음을 알 수 있다.

12) 고승희, 인공감미료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리얼푸드, 2019.1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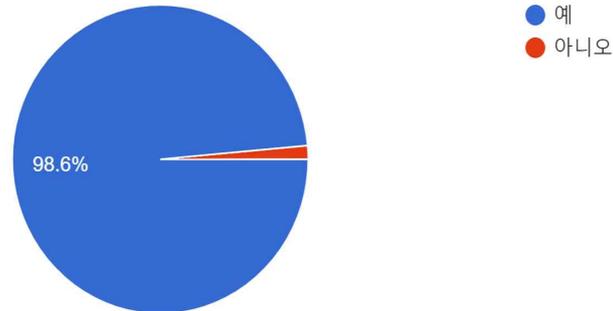
<<http://realfoods.co.kr/view.php?ud=20191021000097>>

13) 설탕 과다 섭취 시 우리 몸에 미치는 악영향,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7.04.03.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31006>>

1. 제로슈가 식품을 드셔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응답 7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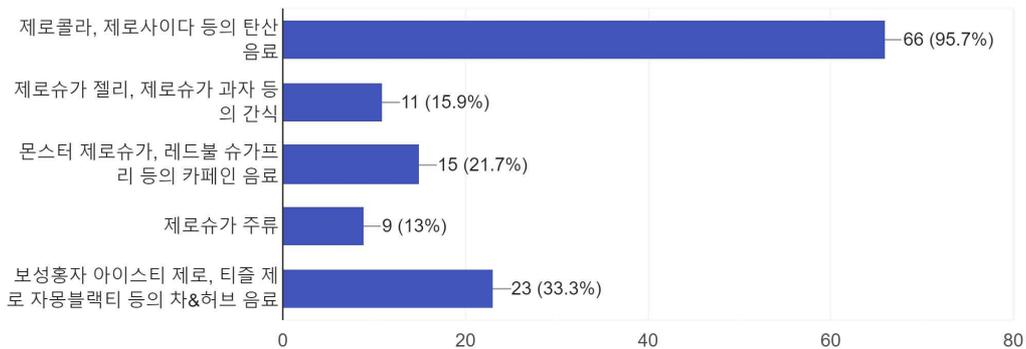


<그림 1> 제로슈가 식품 경험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중복 선택이 가능했던, 경험해본 제로슈가 제품의 종류에 대한 문항에서는 ‘제로 콜라, 제로 사이다 등의 탄산음료’가 95.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제로슈가 제품을 경험해본 사람은 제로 콜라, 제로 사이다 등의 탄산음료를 다 경험해봤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보성홍차 아이스티 제로, 티즐 제로 자몽 블랙티 등의 차&허브 음료’가 33.3%를 차지했다.

1.1 어떤 제로슈가 식품이었나요? 이 외에도 드셔 본 적이 있는 식품들을 적어주세요.

응답 69개



<그림 2> 제로슈가 식품의 종류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1.2 섭취하시는 제품에 대한 빈도를 선택해주세요.

응답 69개



<그림 3> 섭취 빈도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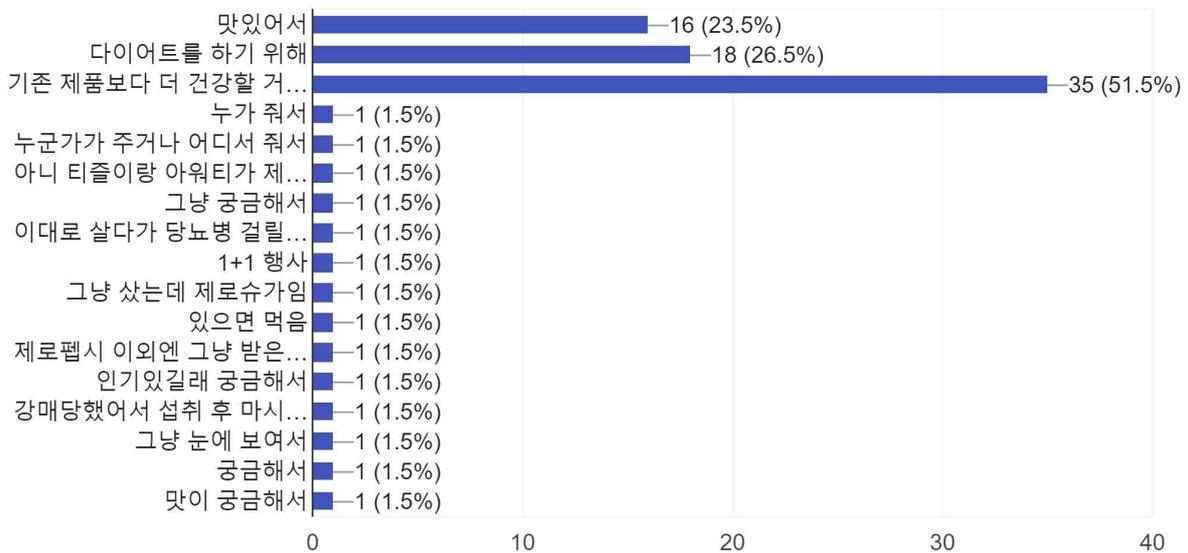
<그림 3>을 통해 제로슈가 식품을 섭취하는 사람의 경우, 일주일에 2~3개를 섭취한다는 응답이 3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한 달에 3~4개’와 ‘한 달에 1개’의 항목이 20.3%의 동률을 보였다. 이는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적지 않은 양을 섭취해왔음을 알 수 있다.

제로슈가 식품을 섭취하는 이유 또는 목적으로 51.5%가 ‘기존 제품보다 더 건강할 거 같아서’에 응답하였다. 뒤이어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맛있어서’가 각각 26.5%, 23.5%로 나타났다. 건강에 관한 이유는 설탕을 대신하는 대체당이 등장한 배경이기에 사람들이 설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해나가려고 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제로슈가 식품의 맛이 기존 제품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정도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응답자의 23.5%의 주된 목적이 맛이므로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 올라왔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기존 제품을 제로슈가 제품으로 만들 때 만족해야 하는 중요한 조건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1.3 제로슈가 식품을 섭취하는 이유 또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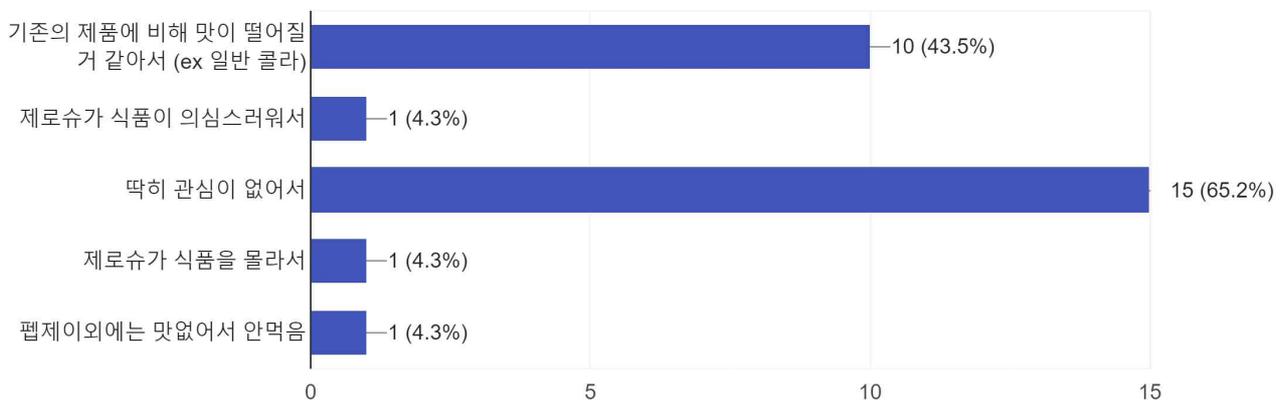
응답 68개



<그림 4> 제로슈가 식품 섭취 이유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1.4 제로슈가 식품을 시도해보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응답 23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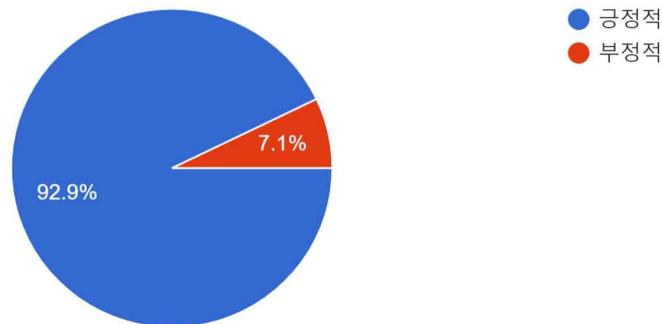


<그림 5> 제로슈가 식품 미섭취 이유에 관한 설문 조사 결과

제로슈가 식품을 섭취해본 적이 없는 응답자의 그 이유는 ‘딱히 관심 없어서’가 6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직까지 제로슈가 식품의 필요성을 딱히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기존의 제품에 비해 맛이 떨어질 거 같아서’가 43.5%를 차지했다. 실제로 기존의 제품과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맛을 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식품업계에서도 우려하는 부분 중 하나일 텐데, 앞의 <그림 4>의 이미 먹어본 사람들의 응답으로 볼 때 많이 따라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림 5>는 제로슈가 식품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에 있어 좋은 방향이 될 것이다.

2. 제로슈가 식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 7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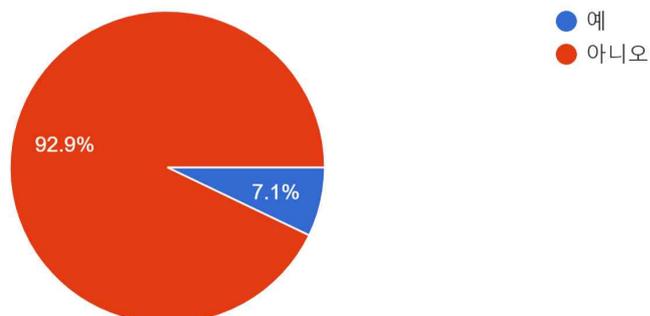


<그림 6> 제로슈가 식품에 대한 인식 설문 조사 결과

<그림 6>을 통해 응답자의 92.9%가 제로슈가 식품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이유를 다음 설문 항목에서 알아봤다. 문항 2.1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였고, 자유롭게 의견을 서술하게 하였다. 문항 2에서 ‘긍정적’을 선택한 사람들의 그것에 대한 이유에는 ‘칼로리가 적어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당 과다 섭취로 인한 질병을 제로슈가 제품을 통해 조금이나마 예방할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에 긍정적이다.’, ‘당이 덜 들어가서 건강할 것 같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일부의 답변만 가져왔지만 대부분 칼로리 감소와 다이어트, 그리고 당 섭취 감소, 건강을 위한 목적이었다.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부정적’을 선택한 사람들의 그것에 대한 이유에는 ‘기존 제품에 비해 맛이 떨어진다.’, ‘제로가 제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아직은 어느 정도 기존 제품과 제로슈가 제품의 맛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제로슈가 제품에 설탕이 들어가지 않는 것인지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몇몇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존재하지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지님을 생각할 수 있다.

3. 제로슈가 식품으로 인해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응답 7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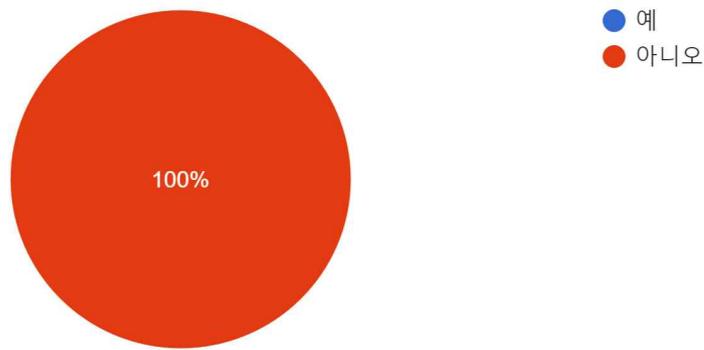


<그림 7> 제로슈가 식품의 부작용 인지 여부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2.1.의 제로슈가 식품의 현황 부분에서 언급한 부작용들을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항목에 92.9%가 아니오'에 답하였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주의 사항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지하고 있도록 더 신경 써야 한다. 뒤에서 제로슈가 식품의 올바른 섭취 방법에 대해 다룰 것이다.

3.1 제로슈가 식품을 섭취한 후, 부작용이 생긴 적이 있으십니까?

응답 70개



<그림 8> 부작용 경험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그림 8>을 통해 사람들이 제로슈가 식품을 섭취한 후에 부작용을 겪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부작용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보통 먹는 양으로 인해 부작용이 나타나기는 쉽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분명 적은 양으로 부작용을 겪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크게 위협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 제로슈가 식품의 올바른 섭취를 위한 방안

4.1. 대체당 부작용에 관한 내용 표기

<그림 9>는 '코카콜라 제로' 음료 표면에 적혀 있는 내용이다. 제로슈가 식품이므로 원재료명에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등의 감미료(대체당)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감미료의 정확한 종류와 하루 권장 섭취량 등의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소비자들은 자신이 섭취할 음료에 대하여 어떤 성분이 포함되었는지, 어느 정도 섭취해야 하는지 등을 알 권리가 있다. 이를 통해 만약 자신과 맞지 않는 성분이 있거나 어떤 성분의 부작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최대한 피하거나 주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의 <그림 7> 내용과 같이 대체당의 부작용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이 현상의 원인을 대체당에 관한 내용이 식품에 자세히 표기되어있지 않은 점에 둘 수 있다. 어쩌면 소비자들이 이를 모르는 게 당연하다. 따라서 제로슈가 제품 내에 대체당의 종류, 부작용 등을 명시하는 것이 가장 먼저 시행되어야 한다. 사람들의 올바른 제로슈가 식품 섭취를 위해서 말이다. <그림 10>은 <그림 9>의 내용을 참고해 임의로 직접 대체당의 부작용을 제품에 표기해 본 모습이다. 필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나타내었다. 감미료의 종류와 부작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제품명	코카-콜라 제로	식품유형	탄산음료
유통기한	제품 밀면 표시일까지		
원재료명	정제수, 이산화탄소, 카라멜색소, 인산, 수크랄로스(감미료), 구연산삼나트륨, 천연향료, 아세실팜칼륨(감미료), 카페인(향미증진제)		
품목 보고번호	1997061408357(P1), 1984022101238(P2), 19800375002112(P3)		
제조원	코카-콜라음료(주) P1: 경남 양산시 충렬로 269(유산동) P2: 광주광역시 북구 양일로 130(양산동) P3: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4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기 변형(팽창, 손상) 또는 내용물 변질이 의심되면 음용하지 마세요. ·제품교환 : 고객센터(080-024-5999) 및 각 구입처 ·본 제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교환 또는 보상합니다. ·부정, 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 ·이 제품은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복숭아, 토마토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얼지 않게 보관하시고 개봉 후에는 빨리 드세요. ·제품이 파손될 수 있으니 차내 등 고온의 밀폐공간에 두지 마세요. <p>www.coca-cola.co.kr</p>			
영양정보		총 내용량 250ml 0 kcal	
나트륨	15mg 1%	탄수화물	0g 0%
지방	0g 0%	트랜스지방	0g 0%
클레스테롤	0mg 0%	단백질	0g 0%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은 2,000 kcal 기준이므로 개인의 필요 열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니트륨	15mg
		당류	0g
		지방	0g

<그림 9> 코카콜라 제로 음료에 표기되어있는 내용

제품명	코카-콜라 제로	식품유형	탄산음료
유통기한	제품 밀면 표시일까지		
원재료명	정제수, 이산화탄소, 카라멜색소, 인산, 수크랄로스(합성감미료), 구연산삼나트륨, 천연향료, 아세실팜칼륨(합성감미료), 카페인(향미증진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품 속 아세실팜칼륨은 두통, 메스꺼움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제품 속 수크랄로스는 위장장애, 설사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그림 10> 대체당의 부작용을 제품에 표기한 모습

지금까지 대체당의 유해성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어, 아직 정확한 결론을 낼 수 없는 것이 그 이유임을 유추해볼 수 있다. 더하여 부작용이 존재하지만, 그 제품에 들어있는 대체당의 양으로는 발생되지 않거나, 크게 사람에게 크게 위험하지 않은 정도이기에 더욱 그럴 수도 있다. 가령 이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1% 가능성을 절대 무시할 수 없으므로 명시하는 것이 소비자를 조금이라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다.

4.2. 적당량 섭취

가장 중요한 것은 섭취하는 대체당의 부작용 여부에 관계없이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의하면 감미료의 권장 섭취량은 체중 1kg당 수크랄로스는 15mg, 아스파탐은 40mg이다. 사실 이 수치는 수크랄로스의 경우 355ml 캔을 하루에 18캔 이상 마셔야 하는 수준이다.¹⁴⁾ 허용량에 미치

14) 정희원, 지방·당분 0... ‘인공감미료 제로 음료’, 비만인에게는?, 스포츠월드, 2022.07.11.
<<http://www.sportsworldi.com/newsView/20220710509433>>

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이 섭취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보통 섭취하는 감미료의 양이 이 기준에 달하기 쉽지 않은 점은 다행이다. 하지만 앞에서 계속 얘기해왔지만, 부작용에 관하여 다양한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 하루 권장 섭취량에 못 미치는 양을 섭취한다 해도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절대 닫혀있지 않으며, 장기적으로 섭취하였을 때 또한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 그렇기에 가장 먼저 1차로 위에서 제시한 제품 내 부작용 표기 방안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다음 소비자가 제품 내의 대체당 함유량과 각각의 권장 섭취량을 알고, 그에 관한 부작용의 주의 내용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을 거쳐야 몰랐던 제로슈가 식품 속 대체당에 대해 알게 되고, 이는 비로소 적당한 양의 대체당 섭취로 이어질 수 있다. 제로슈가 식품의 올바른 섭취를 위해서는 자신이 섭취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아는 상태에서 섭취해야 한다.

5. 결론

제로슈가 제품의 부작용 기사를 시작으로 제로슈가 식품이 현황, 사람들의 인식, 그리고 올바른 섭취를 위한 방안까지 알아보았다. 현대인들은 과도하게 많은 질병을 초래하는 설탕을 섭취해왔지만, 이제는 설탕보다 대체당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즉, 건강을 중시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로슈가 식품 업계가 점점 떠오르고 있고, 이 식품의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반대로 몇몇 대체당이 우리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도 한다. 물론 구토, 메스꺼움, 위장장애 등의 부작용이 대체당을 과도하게 섭취하였을 경우에 나타날 확률이 높으며 실제로 보통 섭취하는 양으로는 괜찮은 편이다. 하지만 이것을 결코 흘려 넘겨서는 안 된다. 제로슈가 식품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설문 조사에서 대부분 이 부작용을 알지 못함을 볼 수 있었다. 이 속에서 대체당을 올바르게 섭취하기 위한 방안으로 몇가지가 있다. 그 무엇보다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연구'이다. 현재 각기 다른 결과를 도출한 연구로 뒤덮여있어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다. 연구로 더 정확하고 신뢰성이 있는 어떠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체당 부작용 관한 내용 표기 등의 노력을 사회에서 해야 한다. 이것이 시초가 된다면 많은 것이 바뀔 것이다. 이 다음은 소비자의 몫이다. 잘 인지하고 주의하는 것이 방법이다. 이렇듯 크게 위협적이진 않지만 아직은 대체당의 위험성에 관한 논란이 존재한다. 하지만 설탕의 대체재로서 충분한 물질이지 않나 싶다. 사회를 변화시키고 없어서는 안 될 물질인 대체당을 안전하게 섭취하였으면 한다.

참고 문헌

고승희, 인공감미료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리얼푸드, 2019.10.21.

<<http://realfoods.co.kr/view.php?ud=20191021000097>>

김재욱, 당뇨환자가 섭취해도 되는 코코넛슈가, 웰리스 뉴스, 2019.12.02.

<<http://www.wenw.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

류빈, 해태제과, 복통·설사 논란 '퀴카젤리' 회수...대체당 안전할까, 아시아타임즈, 2022.09.08.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20908500122>>

네이버 지식백과, 사카린,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73789&cid=58949&categoryId=58983>>, 2022.12.08.

네이버 지식백과, 수크랄로스,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247157&cid=40942&categoryId=32099>>, 2022.12.08.

네이버 지식백과, 아세설팜칼륨,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247156&cid=40942&categoryId=32099>>, 2022.12.08.

네이버 지식백과, 아스파탐,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827378&cid=62802&categoryId=62802>>, 2022.12.08.

네이버 지식백과, 에리트리트,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160808&cid=67725&categoryId=67725>>, 2022.12.08.
 네이버 지식백과, 자일로스,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51288&cid=40942&categoryId=32315>>, 2022.12.08.
 네이버 지식백과, 천연 감미료,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173767&cid=62802&categoryId=62802>>, 2022.12.08.
 류빈, “제로 탄산음료 인기”...식음료업계 2분기 실적 ‘쑥’, 아시아타임즈, 2022.08.04.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20804500177>>
 설탕 과다 섭취 시 우리 몸에 미치는 악영향,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7.04.03.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31006>>
 이유빈, ‘제로슈가’ 열풍...MZ세대의 이유는?, 오마이뉴스, 2022.11.0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76991>
 정희원, 지방·당분 0... ‘인공감미료 제로 음료’, 비만인에게는?, 스포츠월드, 2022.07.11.
 <<http://www.sportsworldi.com/newsView/20220710509433>>

부록

제로슈가 식품에 관한 인식 설문 조사

1. 제로슈가 식품을 드셔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오’의 경우 문항 1.4로 이동)

예
 아니오

1.1 어떤 제로슈가 식품이었나요? 이 외에도 드셔 본 적이 있는 식품들을 적어주세요.
 (복수 선택 가능)

제로콜라, 제로사이다 등의 탄산 음료
 제로슈가 젤리 제로슈가 과자 등의 간식
 몬스터 제로슈가, 레드불 슈가프리 등의 카페인 음료
 제로슈가 주류
 보성홍차 아이스티 제로, 티즐 제로 자몽블랙티 등의 차&허브 음료
 기타

1.2 섭취하시는 제품에 대한 빈도를 선택해주세요.

하루에 2개 이상
 하루에 1개
 일주일에 2~3개
 한 달에 3~4개
 한 달에 1개

섭취하지 않음
기타

1.3 제로슈가 식품을 섭취하는 이유 또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맛있어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기존 제품보다 더 건강할 거 같아서

1.4 제로슈가 식품을 시도해보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존의 제품에 비해 맛이 떨어질 거 같아서(ex 일반콜라)
제로슈가 식품이 의심스러워서
딱히 관심이 없어서
제로슈가 식품을 몰라서
기타

2. 제로슈가 식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긍정적
부정적⁹

2.1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 제로슈가 식품으로 인해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예
아니오

3.1 제로슈가 식품을 섭취한 후, 부작용이 생긴 적이 있으십니까?

예
아니오

3.2 어떤 부작용이었습니까? 사례를 적어주세요.

현대인의 눈건강을 위협하는 안구건조증의 발병 원인과 예방 및 대응 방안

식품영양학과 전가*

목차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 1.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2. 안구건조증의 정의와 현황
 - 2.1. 안구건조증 정의
 - 2.2. 안구건조증의 현황
- 3. 안구건조증 발병 원인
 - 3.1. 과도한 전자 기기 사용
 - 3.2. 장시간 렌즈, 마스크 착용
 - 3.3. 스트레스, 영양 불균형
- 4. 안구 건조증 예방 및 대응 방안
 - 4.1. 장시간 전자 기기 사용 지양
 - 4.2. 올바른 인공눈물 사용
 - 4.3. 식습관 개선 및 안구건조증에 좋은 영양성분 섭취
 - 4.4. 꾸준한 안구 운동 실행
- 6. 결론
- 참고 문헌

1. 서론

초등학교 1학년때부터 시력이 좋지 않아 안경을 쓰다가 남들 보다는 조금 이른 나이에 렌즈를 착용하게 되었다. 매일, 장시간 렌즈를 착용한 탓인지 안과에서 안구건조증이 심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후에도 안구건조증이 심한 상태로 계속 렌즈를 착용하였고 그 탓인지 눈 건강이 더 악화되어 실명을 할 수 있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때 처음 안구건조증이라는 안구질환이 실명의 위기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알게 되었다. 지금까지도 안구건조증이 심하여 더 자세하고 정확히 알고 지금보다 더 악화되기

전에 예방해야겠다는 생각에 ‘현대인의 눈 건강을 위협하는 안구건조증’을 연구 주제로 정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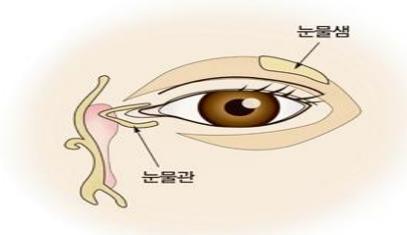
현시대 다양한 it기술이 발달하면서 수업시간에 나를 포함하여 주변에 둘러만 보아도 종이 대신 패드로 필기를 하거나 노트북을 사용하는 등 모두 적어도 하나의 모바일 기기를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시력이 저하되는 사람들이 많아져 렌즈를 착용하고 장시간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 심지어는 유아기때 부터 종이책, 자연 보다는 티비, 태블릿을 더 많이 접하고 있다. 식당에만 가 보아도 어린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부모의 휴대폰 속 영상을 쳐다보며 밥을 먹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초, 중, 고, 대학생까지 원격으로 수업을 듣게 되면서 하루중 반나절을 컴퓨터 화면을 쳐다보고 있다. 또한 마스크 착용으로 인하여 입김 때문에 안구건조증을 호소하고 안경대신 렌즈를 착용하게 되어 눈건강이 더 악화된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원인들로 인해 현대인이 가진 안구질환 중 안구건조증이 현대시대에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안구건조증에 대한 정의와 현황에 대해 알아본 뒤 현대인들의 눈건강을 악화시키는 안구건조증의 발병원인에 대해 연구하며 어떻게 하면 안구건조증을 예방하고 더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2. 안구건조증의 정의와 현황

2.1. 안구건조증의 정의

안구건조증은 눈물의 분비가 줄어들거나, 눈물은 많이 분비되더라도 그 성분에 변화가 생김으로써 안구 건조 등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상태를 의미한다. 눈물은 세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장 안쪽 층은 점액 층으로, 수성층이 고르게 퍼지게 하는 역할을 한다. 중간층은 수성층으로, 눈물층의 대부분을 형성합니다. 눈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눈에서 이물질을 제거한다. 가장 바깥층은 지방층으로, 수성층의 증발을 막는 역할을 한다. 나이가 들거나, 눈물을 분비하는 데 관여하는 눈 구조물들에 염증, 외상 등의 손상이 생기면 안구 건조증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림 1> 안구건조증 정의¹

안구건조증은 눈의 자극감, 이물감, 작열감 또는 점액성 물질의 분비와 같은 증상을 유발하게 된다. 눈물막이 불안정해지면 마치 코팅이 벗겨진 안경을 쓰고 있는 것처럼, 흔히 침침하다고 표현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력저하도 경험하게 된다. 그 외에도 가려움, 눈부심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눈물이

¹ 서울 아산병원, 의료정보 질환 백과, 안구건조증,

<<https://www.amc.seoul.kr/asan/healthinfo/disease/diseaseDetail.do?contentId=31289>> 2022.11.26 검색

부족한 것 같다고 직접 표현하기도 한다. "눈에 모래알이 들어간 듯 뻑뻑하다", "눈앞에 뭐가 낀 것처럼 침침하다.", "눈이 너무 피로하다.", "충혈이 된다.", "자고 일어날 때 눈을 뜨기가 힘들다.", "잘 써오던 콘택트 렌즈가 불편해졌다", "눈이 빠질 것처럼 아프고, 머리까지 아프다." 등 불편하다는 느낌을 여러 형태로 표현한다. 이런 불편감은 바람을 쐬거나 장시간 책을 보면 더 악화되고, 눈을 감고 있으면 편안하게 느낀다. 바람이 불면 오히려 눈물이 더 흐르는 증상도 있을 수 있다. 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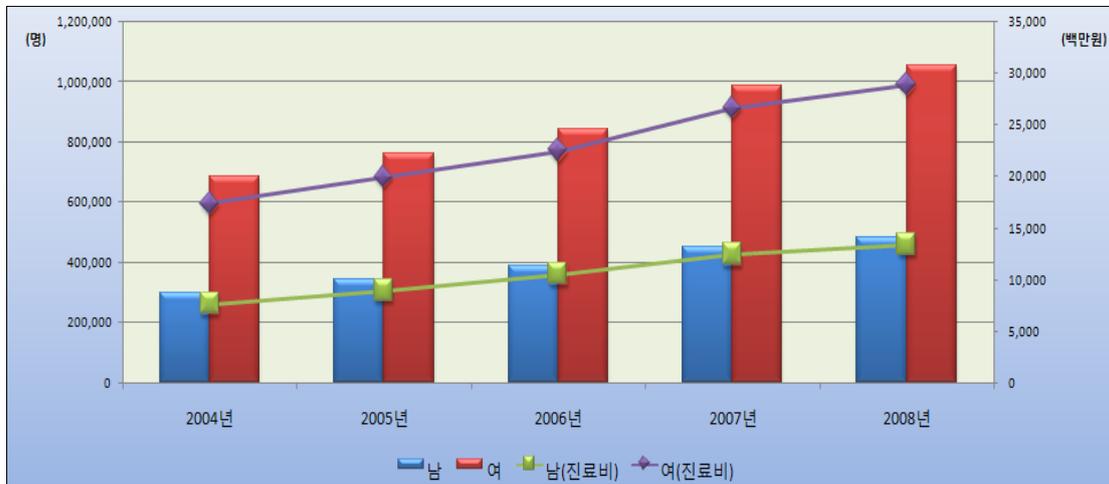
안구 건조증을 진단하기 위해서 눈물의 안정성에 대한 검사를 가장 먼저 실시해야 한다.

첫번째 방법으로는 세극등 현미경 검사를 시행하여 눈물막의 높이, 안검염의 정도, 마이봄샘 기능 장애에 의한 각막 상피 병변, 결막 충혈, 알레르기 등의 상태를 알아보아야 한다. 이차적인 방법으로는 쉬르머 검사가 있다. 이는 누액 부족 건성안에 더 정확한 검사이다. 일반적으로 하안검에 5분 정도 종이를 끼우고 있는 동안 종이를 적시는 눈물량이 10mm 이상으로 확인되면 정상으로 간주한다. 5mm 이하인 경우에는 눈물 생성이 저하된 상태로 판단한다. 건성안으로 여겨지면 각막의 손상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각막을 염색하여 각막 상피를 검사하기도 한다.³

2.2. 안구건조증의 현황

<2004~2008>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2004 ~ 2008년 5년간의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안구건조증(H04.1)'의 안구건조증의 진료인원은 2004년 984,310명에서 2008년 1,536,839명으로 1.6배 증가하였으며, 진료인원은 연평균 11.8%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을 기준으로 안구건조증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40~49세가 18.5%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림2> 연도별 안구건조증 진료인원⁴

²국가 건강 정보 포털, 건강정보, 안구건조증 검색

<https://health.kdca.go.kr/healthinfo/biz/health/gnrlzHealthInfo/gnrlzHealthInfo/gnrlzHealthInfoView.do?cnts_sn=5789> 2022.11.26 검색

³서울 아산병원, 의료정보, 질환 백과, 안구건조증 검색

<https://www.amc.seoul.kr/asan/healthinfo/disease/diseaseDetail.do?contentId=31289> 2022.11.26 검색

⁴보건 복지부, 알림, 보도자료, 안구건조증 검색,"현대인의 눈, 점점 건조해진다. "최근 5년간 안구건조증 연평균 11.8%씩 증가" 저작물 인용

http://www.mohw.go.kr/react/modules/download.jsp?BOARD_ID=140&CONT_SEQ=224042&FILE_SEQ=118014 2022.11.26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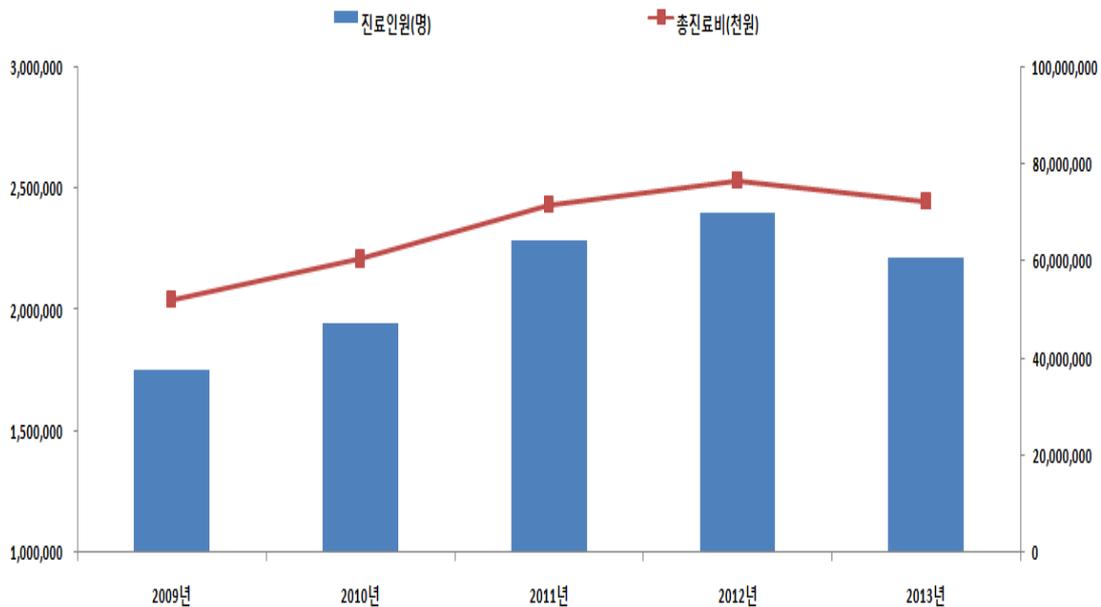
성별 분석결과 안구건조증의 진료인원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을 기준으로 진료인원은 남성이 482,101명, 여성이 1,054,738명이며 여성이 남성보다 2.2배가량 많았다. 단, 증가추세를 보면 남성이 진료인원의 연평균 증가율이 12.6% 여성은 11.5%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진료인원 (명)	계	984,310	1,106,185	1,228,092	1,435,639	1,536,839
	남	300,373	342,634	387,353	450,844	482,101
	여	683,937	763,551	840,739	984,795	1,054,738

<표1> 연도별, 성별 안구건조증 진료인원⁵

<2009~201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최근 5년간(2009~2013년)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심사결정 자료를 이용하여 ‘눈물샘의 기타장애(H041, Other disorders of lacrimal gland)’에 대해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2009년 175만여 명에서 2013년 222만여 명으로 5년간 약 47만명(26.7%)이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6.1%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 매월 진료인원 30만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3>진료인원 추이 (2009년~2013년)⁶

⁵보건 복지부, 알림, 보도자료, 안구건조증 검색,"현대인의 눈, 점점 건조해진다. "최근 5년간 안구건조증 연평균 11.8%씩 증가" 저작물 인용

http://www.mohw.go.kr/react/modules/download.jsp?BOARD_ID=140&CONT_SEQ=224042&FILE_SEQ=118014
2022.11.27 검색

⁶보건 복지부, 알림, 보도자료, 안구건조증 검색,"현대인의 눈, 점점 건조해진다. "최근 5년간 안구건조증 연평균 11.8%씩 증가" 저작물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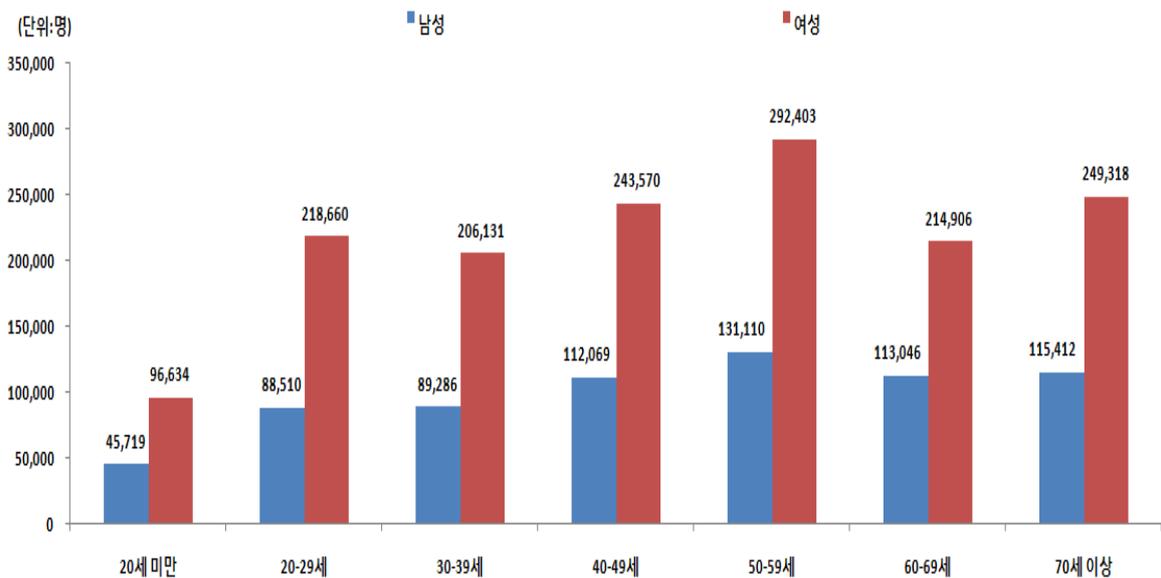
http://www.mohw.go.kr/react/modules/download.jsp?BOARD_ID=140&CONT_SEQ=224042&FILE_SEQ=118014
2022.11.27 검색

최근 5년간 '안구건조증' 진료인원의 성별 점유율은 여성이 약 68.5%~68.9%, 남성은 31.1%~31.5%로 여성이 5년간 평균 약 2.2배 정도 높았다. 장기간의 콘택트렌즈 사용 및 과도한 눈 화장 등이 눈의 건조 증상을 악화시켜 여성 환자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진료인원	1,750,167	1,946,759	2,287,851	2,398,112	2,216,774
(명)					
남	549,085	613,193	711,229	750,732	695,152
여	1,201,082	1,333,566	1,576,622	1,647,380	1,521,622

<표2>성별 진료인원 현황 (2009년~2013년)⁷

안구건조증의 연령별 점유율은 2013년을 기준으로 50대 구간이 19.1로 가장 높았고, 70대 이상 16.5%, 40대 16.0% 순으로 나타났다. 2013년 총 진료 인원은 2012년에 비해 7.6%로 감소하였으며, 연령별 진료인원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70대 이상 구간과 50대 구간의 연령별 점유율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4> 연령별 성별 진료인원 (2013년)⁸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의 진료인원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안구건조증' 환자는 3월에 전월 대비 평균 11.1%로 크게 증가하였고, 12월, 8월 순으로 다소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건조한 날씨로 봄, 여름에 진료인원이 많은 이유는 황사나 미세먼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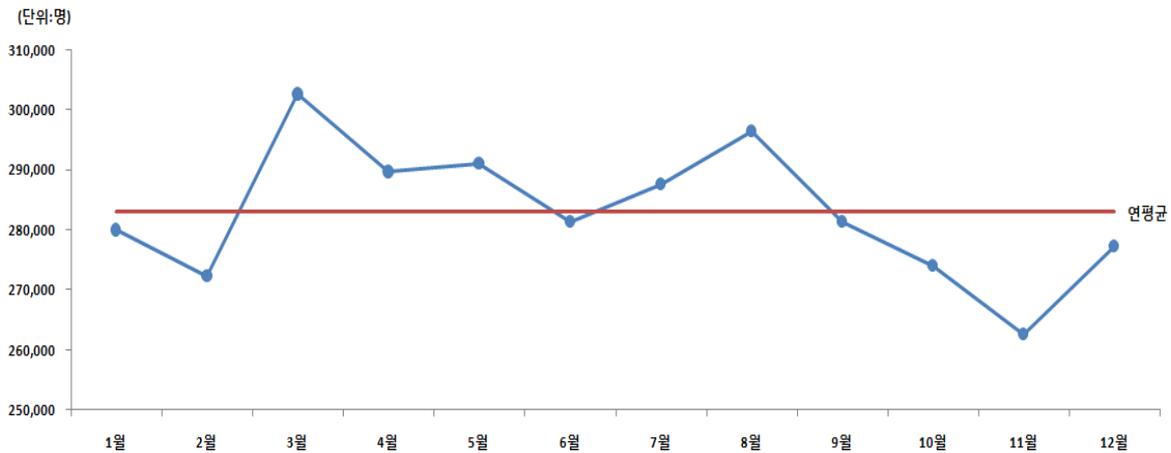
⁷보건 복지부, 알림, 보도자료, 안구건조증 검색, "'안구건조증' 봄, 여름에도 안심할 수 없어"저작물 인용

http://www.mohw.go.kr/react/modules/download.jsp?BOARD_ID=140&CONT_SEQ=299928&FILE_SEQ=149003
2022.11.27 검색

⁸보건 복지부, 알림, 보도자료, 안구건조증 검색, "'안구건조증' 봄, 여름에도 안심할 수 없어"저작물 인용

http://www.mohw.go.kr/react/modules/download.jsp?BOARD_ID=140&CONT_SEQ=299928&FILE_SEQ=149003
2022.11.27 검색

이 안구건조증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에어컨 등의 사용으로 수분 증발을 촉진하는 등 주변에 건조 환경을 조성하는 요인들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5 2009~2013년까지 5년간 진료인원의 월별 분석>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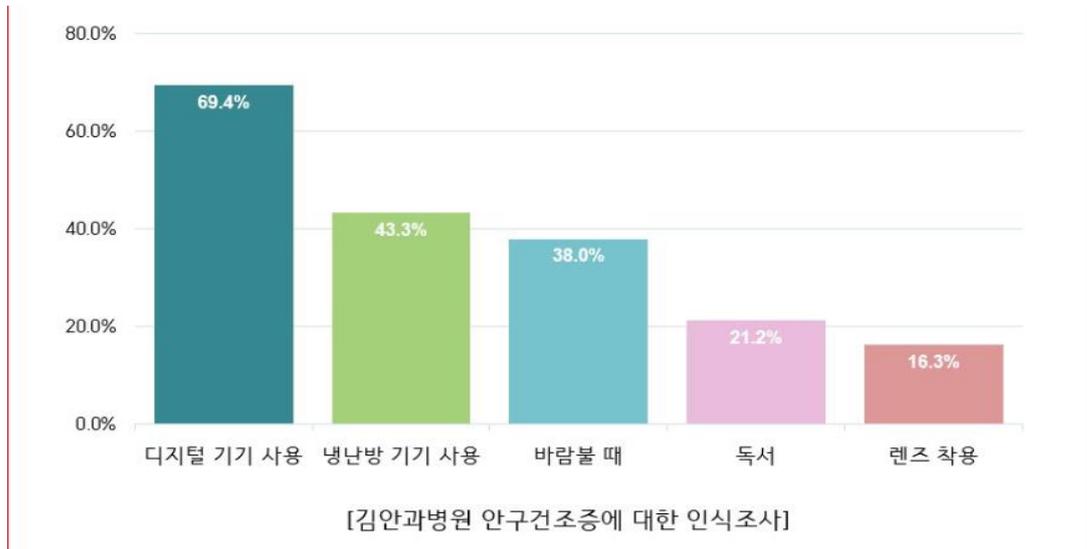
3. 안구건조증 발병 원인

3.1. 과도한 전자 기기 사용

실제로 안구건조증은 스마트폰과 관련된 6대 질환 중 하나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폰 관련 6대 질환의 진료비가 2016년도 3,870억 원에서 2020년도 5,871억 원으로 51.7% 증가했는데, 그 중 1위 질환은 안구건조증(1,282만 명)이었다. 스마트폰과 PC를 오래, 자주 사용하는 것이 안구건조증을 유발하는 이유는 화면에 집중하는 동안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눈을 깜빡이면 위와 아래의 눈꺼풀이 만나게 되면서 눈물을 안구 전체에 도포하고 안구 표면을 닦아주는 동시에 항균 작용을 하는도 깜빡이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동안 이 횟수는 3분의 1 정도로 줄어든다.

현대인의 질환으로 불리는 안구건조증은 스마트폰과 PC 사용 증가로 인해 매년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안구건조증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질환이지만, 눈물을 과도하게 분비시키거나 눈에 통증을 유발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력저하까지 초래하기도 한다. 김안과병원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74.1%가 안구건조증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 중 가장 많은 비중인 69.4%에 해당하는 514명이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기기를 사용할 때 안구건조증을 느꼈다고 답했다.

⁹ 보건 복지부, 알림, 보도자료, 안구건조증 검색, "안구건조증'봄, 여름에도 안심할 수 없어"저작물 인용



<그림6>김안과병원 안구건조증에 대한 인식 조사¹⁰.

어린 아이들을 동행하여 외출을 할 때 부모들은 아이가 주변에 폐를 끼칠까 우려돼 식당, 대중교통 등에 서휴대전화로 유튜브나 다른 영상 매체를 보여주는 장면을 많이 봤을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10세 미만 유아에서 안구건조증으로 안과를 찾은 아이가 2016년 3만1274명에서 2020년 4만3549명으로 약 40% 증가했다. 또한 과거 중앙대병원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안구건조증 실태조사에서 약 10명 중 1명(288명 중 28명)에서 건성안을 보여 소아에서 예상보다 안구건조증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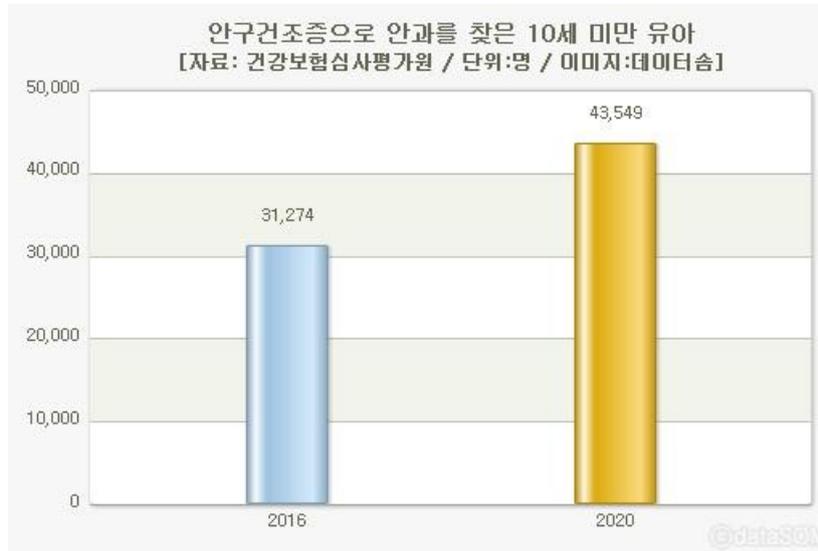
안구건조증이 있는 소아가 없는 소아에 비해 스마트폰 사용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71.4% vs 50%). 또 스마트폰 사용시간 및 TV, PC, 스마트폰 등 영상매체의 총 사용시간이 안구건조증을 일으키는 유의한 위험인자로 밝혀지기도 했다.¹¹

¹⁰현대 건강신문, 뉴스, 질병 검색 2022.03.22 게시

<http://www.hnews.kr/news/view.php?no=59034>

¹¹ 데이터숨, 안구건조증 검색, “자은 스마트폰 사용 안구건조증 유발…눈 자주 깜빡이고 휴식 취해야”기사 인용 2022.03.23 게시

<http://www.datasom.co.kr>



<그림7> 안구건조증으로 인한 유아의 안과 방문 통계

3.2. 장시간 렌즈, 마스크 착용

최근 마스크 착용 생활화로 인해 안경을 쓰면 입김에 의해 안경에 김이 서려 어쩔 수 없이 렌즈를 장시간 착용하게 된다. 입김에 의해, 실내외 온도차로 인해 발생하는 김 서림이다. 닦는 것도 한두 번. 안경을 벗어두고 그동안 사용하지 않던 콘택트렌즈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실내활동 시간이 길어지면서 눈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각막은 공기 중의 산소와 눈물층의 눈물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렌즈 착용은 이를 차단해 각종 문제를 유발한다. 오랫동안 착용할수록, 렌즈가 더러울수록 합병증 발생률이 높아진다. 렌즈 이외에도 착용자의 눈 상태, 착용전과 후의 눈의 변화 등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다. 경희대학교병원 안과 박인기 교수는 “장기간 사용하지 않았던 콘택트렌즈를 착용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안과에 방문하여 자신의 눈 상태를 정확히 검사하고, 보유하고 있는 렌즈의 도수나 모양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외에도 눈물의 분비·마름 정도, 염증 정도, 눈꺼풀 등에 맞춤형 렌즈의 종류나 모양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해야만 눈 건강을 챙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렌즈 착용 시 주의할 점은 항상 손상여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렌즈에 이물이 있는지, 찢어지거나 깨진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고, 사용한 후에는 매번 세척하고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소독이나 관리가 필요 없는 일회용렌즈가 대안일 수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박인기 교수는 “장시간 렌즈를 착용하다 보면, 각막에 산소공급이 오랫동안 차단되어 각막이 붓거나 안구건조증이 유발되기도 한다”며 “이는 눈이 가장 위험상태로서 세균에 쉽게 감염될 수 있으며 각막이 쉽게 까져 심한 통증을 호소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¹²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면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호흡을 하면 숨결이 위로 올라와 눈물이 과다하게 증발되어 발생한 안구건조증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아졌다. 중앙대학교병원 안과 전연숙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마스크 윗부분으로 새는 날숨이 눈에 들어가 눈물이 빠르게 증발되어 안구가 쉽게 건조해질 수 있어 눈으로 숨결이 올라가지 않게 마스크 위쪽을 꼭 눌러써야

¹²후생신보 건강정보 기사 일부 인용 2020.09.09 게시

한다”고 한다.

3.3. 스트레스, 영양 불균형

먼저 과도한 스트레스의 경우,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간 기능이 악화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간화 혹은 간열이 쌓이게 되면서 그 열이 눈으로 올라가 기초 눈물을 마르게 하고 눈을 건조하게 만든다. 몸 건강을 위해 칼로리뿐만 아니라 고른 영양소 섭취가 중요하듯 눈에도 다양한 영양소가 필요하다. 비타민과 무기질 등 몸을 구성하는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몸과 눈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양소의 불균형이 일어나면 며칠 지나지 않아 몸이 급격하게 피로해지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이러한 불균형이 지속되면 만성피로 이외에도 다양한 질병이 일어날 수 있다. 영양소의 부족이 노안, 백내장, 황반변성 등의 노인성 안질환을 재촉하는 것이다. 우리 몸에 비타민 A가 부족해지면 시력저하, 야맹증, 안구건조증, 각막 연화증 등이 발생한다.¹³

4. 안구 건조증 예방 및 대응 방안

4.1. 장시간 전자기기 사용 지양

장시간 전자 기기 사용을 할 시 안구건조증을 예방하는 방법에는 첫번째, 50분 작업을 하고 10분 쉬어야 한다. 50분에 한 번씩 10분 정도 눈을 감거나 먼 곳을 바라보는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두번째, 너무 춥거나 건조한 환경환경에서 전자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실내 온도는 18~24도, 습도는 40~70%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세번째, 화면의 높이는 눈보다 낮게, 화면 밝기는 너무 밝지 않은 중간 정도로 설정해 놓는 것이 좋다. 네번째, 흔들리는 곳에선 스마트폰 장시간 사용을 지양하는 것이 좋다. 흔들리는 차량이나 보행 중에는 전자 기기를 장시간 주시하지 말고 화면과 눈과의 거리는 40~70cm를 유지해야한다. 마지막으로, 눈이 피로할 땐 눈을 자주 깜빡이고, 정기적으로 안과를 방문해야 한다.

¹³ 인다라 한의원, 안구건조증 검색

-  **하나, 50분 VDT작업하고 10분 쉬기, 2시간 이상 VDT사용은 NO!**
50분에 한번씩 10분 정도 눈을 감거나 먼 곳을 바라보는 휴식을 취하세요.
-  **둘, 너무 습거나 건조한 환경은 NO!**
실내온도는 18~24도, 습도는 40~70%를 유지하는 것이 좋아요.
-  **셋, VDT 화면의 높이는 눈보다 낮게, 화면 밝기는 적절히!**
눈과 수직이 되도록 화면 높이를 조정하고 화면은 중간 밝기로 설정하세요.
-  **넷, 흔들리는 곳에선 스마트폰 장시간 사용 금지!**
흔들리는 차량이나 보행중엔 VDT 화면을 장시간 주시하지 말고 화면과 눈과의 거리는 40~70cm를 유지합니다.
-  **다섯, 눈이 피로할 땐 눈을 자주 깜빡이고, 정기적으로 안과 방문하기!**
눈이 피로할 때 눈을 자주 깜빡여 주고 필요 시 인공 눈물을 사용하세요.
정기적인 안과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눈 건강을 체크하세요.



<그림8> 안구건조증 전자 기기 사용 관련 예방 수칙¹⁴

4.2. 올바른 인공눈물 사용

일반적으로 ‘약국 안약’이라고 하면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도 살 수 있는 안약을 말한다. 약국 안약은 염증 종류, 진행 정도,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 치료 목적과 사용 방법이 달라진다. 보통 건조한 눈을 촉촉하게 유지하기 위해 투여하는 ‘인공눈물’과 눈에 생긴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 투여하는 ‘염증 치료용 안약’으로 나뉜다.

인공눈물은 부족한 눈물을 일시적으로 보충해 불편한 증상을 완화해주는 약물로, 시력 감소, 각막 손상 등 안구건조에 의한 부작용으로부터 눈을 보호해준다. 인공눈물은 점도에 따라 점안액, 겔제, 연고로 또 다시 분류된다. 여기서 말하는 점도는 ‘뽀뽀’, ‘끈적이다’와 같은 점성의 정도를 의미한다. ‘겔제’와 ‘연고’ 형태는 점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눈 표면에 오래 지속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끈적거리는 증상과 일시적으로 시야가 뿌옇게 흐려진다는 단점이 있어 주로 생활 중 보다는 취침 직전에 사용한다. 인공눈물의 주요 성분으로는 히프로멜로오스, 카르복기메틸셀룰로오스, 폴리에틸렌글리콜, 포비돈 등이 있으며, 이들은 수성층이 부족한 안구건조증에 매우 효과적이다.

*수성층: 총 3개의 층(점액층-수성층-지방층)으로 이루어진 눈물의 중간층으로, 수성층은 눈물의 대부분을 형성하고 있으며, 눈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외부로부터 들어온 이물질 제거하는 역할을 함.

¹⁴헬스조선, 안과, “장시간 디지털 기기 사용, 안구건조증부터 심하면 실명 까지” 기사 인용 2015.10.29 게시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0/28/2015102803354.html

종류	주요 성분	효능
점안액	히프로멜로오스	눈물의 점도 증가 (눈물의 수성층 부족에 의한 건조증에 효과적)
	카르복시메틸셀로오스	수분을 끌어들이어 눈물층을 두껍게 함
	폴리에틸렌글리콜	눈 표면에 보호막을 형성해 눈물의 증발 예방
	포비돈	눈물의 점도 증가, 눈 표면에 보호막을 형성해 눈물의 증발을 예방 (주로 점액층에 작용)
	염화칼륨, 염화나트륨 복합제	단순 눈물 보충 (눈물의 증발 방지 및 습기 유지 기능은 없음)
	폴리소르베이트	눈물의 점액층 보충
겔제	카보머	눈물의 지질층에 효과 (점도가 높아 눈 표면에 오래 머무름)
	세트리마이드	
연고	라놀린	

<표3>인공눈물 성분과 효능¹⁵

<인공눈물의 올바른 사용방법>

- 사용 전 비누와 물로 반드시 손을 완전히 세정한다.
- 점안용기의 꼭지가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 손이나 다른 곳에 용기의 끝이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 눈을 위로 향하게 고개를 뒤로 젖힌다.
- 아래쪽 안검을 부드럽게 잡고 눈에서 아래로 잡아당겨서 공간을 만든다.
- 안약 또는 안연고를 하안 검낭안으로 넣는다.
- 눈꺼풀을 천천히 놓고 2~3분 눈을 감고 아래로 고개를 떨군다.
- 눈물샘으로 약액이 들어가지 않도록 손가락으로 눈가를 잠시 눌러준다.
- 눈 주위로 넘치는 약액이나 연고를 닦아내되 눈을 비비지 않는다.
- 시야가 일시적으로 흐려진다면, 시야가 깨끗해질 때까지 좋은 시력을 요구하는 활동은 피한다.
- 두종 이상의 점안액을 같이 사용할 경우 5분 이상 간격을 두고 투여한다. >¹⁶

<주의사항>

인공눈물과 다른 안약을 같이 사용해야 한다면 인공눈물은 마지막 순서로 넣는 것이 좋다. 인공눈물을 먼저 넣으면 눈 표면에 막을 형성해 다른 안약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알

¹⁵ 대웅제약 트렌드뷰 의약 성분 백과 2022.06.28 게시

<https://newsroom.daewoong.co.kr/archives/14020>

¹⁶ 약사 공론 뉴스 기사 인용 2021.12.23 게시

<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228516&table=article>

루테인을 함유한 인공눈물은 30분 이상 간격을 두고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겔제나 연고는 잠자리에 들기 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점도가 높아 눈에 머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앞이 뿌옇게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¹⁷

4.3. 식습관 개선 및 눈건강에 좋은 영양성분 섭취

<자극적인 음식, 안구건조증 촉발>

우리나라 성인의 1일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13.5g으로,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장하는 나트륨 섭취량의 5배에 달한다. 나트륨의 지나친 섭취는 뇌졸중, 관상동맥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등을 유발하는 원인인 동시에 눈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나트륨은 삼투압을 조절하는 무기질로, 나트륨을 많이 섭취할 경우 몸속의 수분이 상실된다. 짜게 식사를 한 후 물을 많이 마시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원리 때문이다. 세포가 수분을 빼앗기면 혈관이 좁아져 혈압이 높아지고 신장질환을 유발할 뿐 아니라 백내장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신체의 수분 부족은 안구의 수분 부족에 영향을 줘 부종이 나타나거나 안구건조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자극적인 음식을 피해야 한다.¹⁸

<눈건강에 좋은 영양성분과 식품>

-비타민 A

‘눈을 위한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비타민 A는 망막, 결막, 각막을 건강하게 유지해줘서 눈 건강을 위한 최적의 영양소로 꼽힌다. 체내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기에 건조한 겨울철에는 반드시 섭취해야 한다. 카로틴을 섭취하면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변해 눈건강에 도움을 준다. 그러한 카로틴은 시금치와 파슬리 같은 녹색채소에 많이 들어있다. 또한 파프리카, 오렌지, 토마토에도 비타민A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꾸준히 섭취하면 좋다.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안구건조증, 결막염, 시력감퇴가 발생한다.

-오메가 3

오메가 3는 기본적으로 여러 염증 매개 물질의 합성을 억제하며, 눈의 염증을 잡는데도 탁월해 염증으로 나타나는 안구건조증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특히 눈꺼풀 기름샘에서 분비되는 눈물막의 기름층 분비를 원활하게 하여 눈물 성분을 안정화 한다. 오메가 3 는 체내에서 자체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식품을 통해 섭취해야 한다. 주로 고등어, 참치, 연어 같은 생선과 해조류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호두 같은 견과류에도

¹⁷ 대웅제약 트렌드뷰 의약 성분 백과 2022.06.28 게시

<https://newsroom.daewoong.co.kr/archives/14020>

¹⁸ 한경 뉴스, “잘못된 식습관 눈건강을 해치다” 기사 인용 2012.03.27 게시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1203279115i>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다. 안구건조증 개선을 돕는 오메가 3 가 부족하면 건조증이 쉽게 유발 될 수 있다. 건조증이 심해지면 안구 표면 손상과 함께 심한 이물감은 물론 전신 피로, 두통 증상도 나타날 수 있기에 오메가 3 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4.4. 꾸준한 안구 운동 실행¹⁹

1. 손바닥을 눈에 댄다. 눈과 뇌의 자극을 완화시킬 수 있다. 눈을 감고 가벼운 압력을 가하면 눈물막이 눈동자에 고르게 퍼지면서 편안 해진다.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서 양손이 따뜻해 질 때까지 비벼 문지른다. 눈동자에 힘을 가해서는 안 된다. 손바닥을 눈에 대고 있는 동안 공기가 충분히 통하도록 코는 가리지 않도록 한다. 손가락 및 손바닥과 코사이의 틈을 통해 빛이 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빛은 눈을 편안하게 만들기 보다는 자극을 가하고, 휴식을 저해한다.



<그림9> 안구 운동법1

2. 눈 마사지를 한다. 눈 주위와 얼굴의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눈 운동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뜨겁고 차가운 수건을 만든다. 수건을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에 각각 적신다. 따뜻한 수건을 반드시 눈썹과 눈꺼풀, 양 볼을 덮도록 얼굴에 올려놓는다. 3분 후에 따뜻한 수건을 치우고 차가운 수건을 얼굴 위에 올린다. 원하는 대로 두가지 수건을 교대로 사용해도 되지만, 마지막에는 반드시 차가운 수건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온도가 다른 수건들을 번갈아 가며 얼굴에 대면, 얼굴과 눈 주변의 피부를 자극하는 혈관이 수축과 확장을 반복하며 생리학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¹⁹ 위키 하우, 건강, 자가 치료 카테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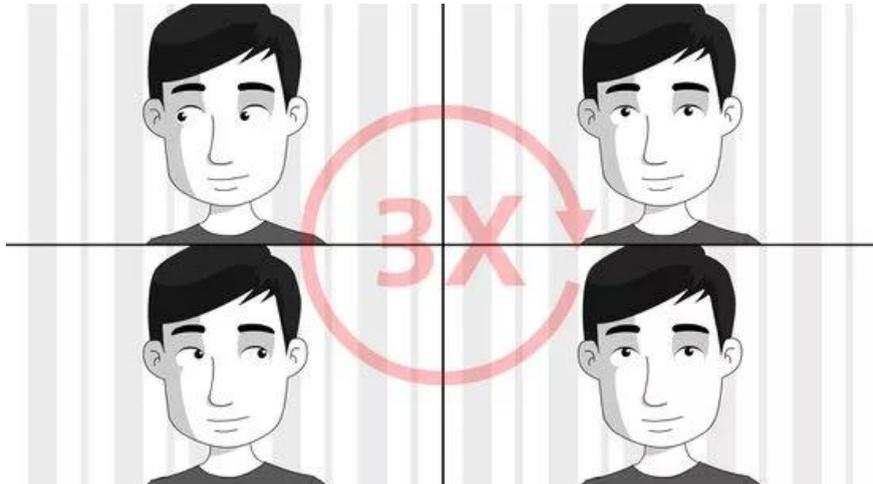
<https://ko.wikihow.com/%EB%88%88%EC%9A%B4%EB%8F%99-%ED%95%98%EB%8A%94-%EB%B0%A9%EB%B2%95> 2022.11.27 검색



<그림10> 안구 운동법2

5. 시선의 방향을 바꾸는 운동을 한다. 다른 방향으로 눈동자를 움직이는 것은 좋은 눈 운동 방법이다.

- 반듯이 서거나 앉아서 전방을 똑바로 바라본다. 고개를 움직이지 말고 왼쪽을 본다.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오른쪽을 본다. 좌우로 5회 눈동자를 움직인다. 이 동작을 3회 정도 반복한다.
- 고개를 움직이지 않고 아래쪽을 바라본다.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그 다음 위쪽을 보고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이 동작 역시 3회정도 반복한다.



<그림11>안구운동법3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얼마나 많은 현대인들이 ‘안구건조증’이라는 안구질환을 앓고 있는지 알 수 있다. 2004~2013년까지 매해 안구건조증 진료인원은 10% 이상 증가하였고 2004년에는 진료인원이 대략 90만 명인 반면 2013년에는 200만 명 이상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그림 2, 3>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리고 매년 남성보다는 여성 환자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교적 남성보다는 렌즈를 착용하는 여성의 비율도 높고 눈 화장으로 인해 여성 환자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안구건조증은 매우 다양한 이유로 나타나게 된다. 그중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한다. 길거리를 다니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심지어는 집에서까지 우리는 항상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눈을 떼지 않는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할 때 화면에 집중하다 보니 눈 깜박이는 횟수가 줄어든다고 한다. 갑자기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는 것 보다 의식적으로 눈을 깜빡이는 습

관을 먼저 들이고 그 다음에 일부로 의식하여서라도 자연을 바라보거나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장시간 전자 기기를 사용해야하는 경우에는 안구 운동법을 익혀 실천하는 것이 자신의 눈건강에 바람직하다.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따로 장시간을 들이는 운동법이 아닌 만큼 틈틈이 해주는 것이 좋다. 또한 우리는 하루에 3끼에서 많게는 4끼까지 먹게 되는데 적어도 한끼 정도에는 눈건강에 좋은 비타민 A, 오메가 3가 함유된 음식을 섭취하며 너무 짜거나 자극적인 음식은 지양해야 한다.

연구를 통해 내가 직접 겪고 있는 질환에 대해 발병 원인을 알게 되었고 예방법과 대응방안을 실천하면서 더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겠다 는 생각이 들었다. 안구건조증은 심각한 통증과 외간상으로 당장 물리적인 치료가 필요한 병이 아니기에 안구건조증이 심해져 증상이 악화되기 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나 역시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다. 하지만 안구건조증이 실명의 위기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나뿐만 아니라 안구건조증을 겪고 있는 사람, 그리고 자신이 안구건조증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연구를 통해 자신의 눈건강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대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참고 문헌

서울 아산병원, 의료정보 질환 백과, 안구건조증,

<https://www.amc.seoul.kr/asan/healthinfo/disease/diseaseDetail.do?contentId=31289>

>A 국가 건강 정보 포털, 건강정보, 안구건조증 검색

https://health.kdca.go.kr/healthinfo/biz/health/gnrlzHealthInfo/gnrlzHealthInfo/gnrlzHealthInfoView.do?cn_tnts_sn=5789

서울 아산병원, 의료정보, 질환 백과, 안구건조증 검색

<https://www.amc.seoul.kr/asan/healthinfo/disease/diseaseDetail.do?contentId=31289>

보건 복지부, 알림, 보도자료, 안구건조증 검색, "현대인의 눈, 점점 건조해진다. "최근 5년간 안구건조증 연평균 11.8% 씩 증가" 저작물

http://www.mohw.go.kr/react/modules/download.jsp?BOARD_ID=140&CONT_SEQ=224042&FILE_SEQ=118014

보건 복지부, 알림, 보도자료, 안구건조증 검색, "'안구건조증' 봄, 여름에도 안심할 수 없어" 저작물 인용

http://www.mohw.go.kr/react/modules/download.jsp?BOARD_ID=140&CONT_SEQ=299928&FILE_SEQ=149003

현대 건강신문, 뉴스, 질병 검색

<http://www.hnews.kr/news/view.php?no=59034>

데이터 숲, 안구건조증 검색, "잦은 스마트폰 사용 안구건조증 유발...눈 자주 깜빡이고 휴식 취해야" 기사 인용

<http://www.datasom.co.kr>

후생신보 건강정보 기사 일부 인용

<http://www.whosaeng.com/120732>

인다라 한의원, 안구건조증 검색

<http://indara.co.kr/dryeye/what-is-dryeye/dryeye-cause/>

헬스조선, 안과, "장시간 디지털 기기 사용, 안구건조증부터 심하면 실명 까지" 기사 인용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0/28/2015102803354.html

대웅제약 트렌드뷰 의약 성분 백과

<https://newsroom.daewoong.co.kr/archives/14020>

약사 공론 뉴스 기사 인용

<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228516&table=article>

한경 뉴스, “잘못된 식습관 눈건강을 해치다” 기사 인용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1203279115i>

위키 하우, 건강, 자가 치료 카테고리

<https://ko.wikihow.com/%EB%88%88%EC%9A%B4%EB%8F%99-%ED%95%98%EB%8A%94-%EB%B0%A9%EB%B2%95>

상명대학교 공용 와이파이(Wi-Fi) 장애 현황과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컴퓨터과학과 조민*

목차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2. 연구 방법
2. 상명대학교 공용 와이파이 장애 현황
2.1. 공용 와이파이 장애 유형
2.2. 공용 와이파이 장애에 대한 현 대응책
3. 상명대학교 공용 와이파이 장애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3.1. 사용 양상과 장애 대처 방안에 관한 응답 분석
3.2. 무선인터넷 장애신고센터에 관한 응답 분석
4. 상명대학교 공용 와이파이 장애의 개선 방향
4.1. 기술적 개선
4.2. 상명대학교 무선인터넷 장애신고센터 개선
5. 결론
참고 문헌
부록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무선통신 기술의 발달로 양질의 정보를 빠르게 간편하게 습득할 수 있으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중 와이파이(Wi-Fi, WiFi)는 스마트폰, 노트북 같은 전자기기에서 인터넷 접속 같은 통신 기술을 이용할 때 필수적으로 들어간다. 국립국어원의 우리말샘에서는 “와이파이는 무선 인터넷이 개방된 장소에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을 통하여 초고속 무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설비”라 정의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앞서 말한 정보 습득, 게임이나 영상 시청 같은 취미 생활, 인터넷 쇼핑과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해지며 인류의 삶이 더욱 윤택해졌다. 와이파이의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에서 손쉽게 연결할 수 있는 수준까지 확장되었으며 학교의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자료와 함께 학습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상명대학교도 마찬가지이다. 학교의 대부분 공간에는 와이파이를 연결할 수 있으며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상명대학교에는 다양한 와이파이기가 있다. 대표적으로 학교 건물마다 존재하는 공용 와이파이와 각 강의실이나 학과 공간에 있는 개별 와이파이기가 존재한다. 학교 공용 와이파이의 상명대학교 구성원이면 사용할 수 있는 “SM-wireless” 와이파이와 외부인이 활용할 수 있는 “SM-Guest” 와이파이기가 있다. 이 두 와이파이기는 학교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으며 상명대 학번과 비밀번호만 있으면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학교의 재학생이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두 와이파이의 반복적으로 연결 문제를 가지고 있다. 문제가 발생할 때 두 와이파이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연결을 시도하면 연결이 되지 않거나 연결이 되어도 연결시간이 초과하여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와이파이에 연결을 미처 하지 못하면 다양한 문제를 겪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상명 스마트출결시스템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전자 출결을 할 수 없어 시간이 오래 걸리는 호명 출석해야 하거나, 상명대학교 e-Campus에 올라온 학습자료를 내려받을 수 없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지속해서 발생하는 상명대 공용 와이파이 문제의 현황을 연구하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공용 와이파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상명대학교 공용 와이파이 장애는 어떤 방식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런 문제에 어떤 대응책이 있는지 조사하고자 한다. 또한, 공용 와이파이 장애를 경험한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공용 와이파이 장애의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설문조사 대상은 앞서 말한 것처럼 상명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2022년 11월 16일부터 12월 7일까지 총 22일간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네이버 오피스 서비스를 이용한 전자식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의 게시판에 본 설문조사를 게시하여 익명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 문항은 5개의 공통 질문과 3개의 개별 질문으로 구성되어있다. 공통 질문에는 상명대학교 공용 와이파이의 현 사용 실태, 장애 경험 주기와 무선인터넷 장애신고센터에 관한 내용이다. 개별 질문은 마지막 5번 문항의 답변에 따라 각 1개의 개별 질문을 응답한다.

질문 유형	질문
공통 질문	1. 학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 연결 방식은 무엇인가요?
	2. 공용 와이파이 장애 현상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3. 공용 와이파이 장애 경험 주기는 얼마나 되나요?
	4. 공용 와이파이 장애 시,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5. 상명대학교 무선인터넷 장애신고센터에 대해 알고 있었나요?
개별 질문	5-1. 신고를 하신 적이 있었다면 복구 작업이 얼마나 걸렸나요?
	5-2. 알고 있었지만 신고를 하지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5-3. 상명대학교 무선인터넷 장애신고센터를 몰랐다면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요?

<표 1> 설문조사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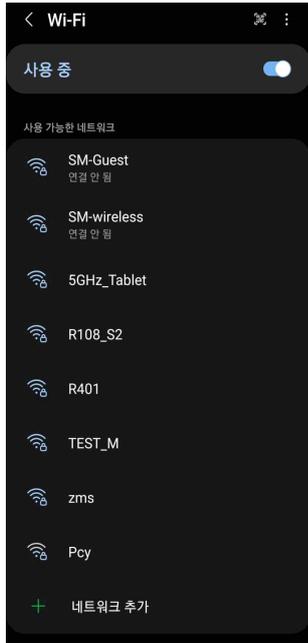
2. 상명대학교 공용 와이파이 장애 현황

2.1. 공용 와이파이 장애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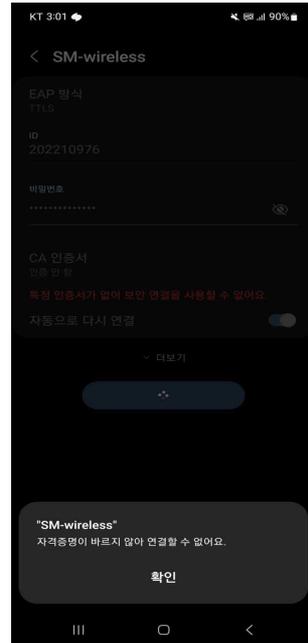
상명대학교 공용 와이파이 장애의 유형에는 연결 실패 문제와 연결 후 문제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첫째, 연결 실패 문제는 공용 와이파이의 와이파이 목록에 있음에도 연결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아래 그림 <그림 1>을 보면 와이파이 목록에 “SM-Guest”와 “SM-wireless” 두 와이파이 모두 신호가 양호해 보이지만, SM-wireless 연결을 시도하면 <그림 2>처럼 “네트워크에 연결하지 못했습니다.”라는 알림과 함께 연결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장애가 발생할 때는 SM-Guest 와이파이도 같은 결과를 보여준다.

둘째, 공용 와이파이에 연결되어도 문제가 발생하는 때도 존재한다. <그림 1>처럼 공용 와이파이의 신호가

양호해 연결상태가 좋아도 정상적인 인터넷 서비스가 어려울 정도로 느리거나 심할 때는 연결시간 초과로 인터넷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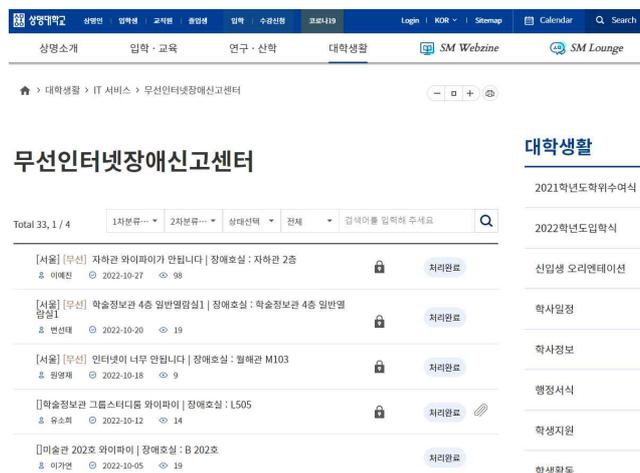
<그림 1> 와이파이 목록



<그림 2> 상명대학교 공용 와이파이 연결 실패 알림창

2.2. 공용 와이파이 장애에 대한 현 대응책

현재 상명대학교에서 제공하는 공용 와이파이 장애 대응책은 무선인터넷 장애신고센터이다. 무선인터넷 장애신고센터는 공용 와이파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장애가 발생한 호실의 번호와 문제의 내용을 작성하여 장애를 파악하고 처리해주는 방식이다.



<그림 3> 상명대학교 무선인터넷 장애신고센터 웹페이지

무선인터넷 장애를 신고하려면 서울 캠퍼스와 천안 캠퍼스 중 어디에 위치하며, 어떤 문제의 유형인지 선택할 수 있다. 천안 캠퍼스의 경우에는 무선 문제만 존재하고 서울 캠퍼스의 경우에는 무선과 기타 문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다음 작성자란은 신고를 위해 상명대학교 로그인하면 자동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제목, 글 공개 여부, 장애 호실을 적는 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래에는 장애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입력하는 공간이다.

<그림 4> 무선인터넷 장애 신고 양식1

마지막으로 필요할 시 파일을 첨부하는 부분과 개인 정보 보호 동의란에 동의할 시 무선인터넷 장애 신고가 등록되는 방식이다.

<그림 5> 무선인터넷 장애 신고 양식2

장애 신고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장애 호실의 문제를 해결 후 <그림 1>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처리 완료’ 문구와 함께 장애 대응 과정이 완료된다.

2022년 11월 16일을 기준으로 서울 25건, 천안 2건, 미분류 6건으로 총 33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모두 처리 완료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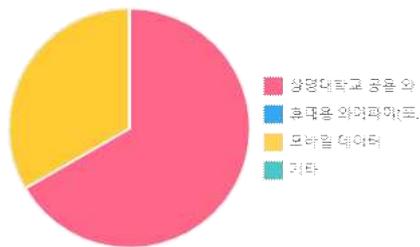
3. 상명대학교 공용 와이파이 장애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설문조사 결과 총 15명의 재학생이 응답하였다. 본 설문조사 분석은 상명대학교 무선인터넷 사용 양상 및 장애 대처 방안 부분과 무선인터넷 장애신고센터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3.1. 사용 양상과 장애 대처 방안에 관한 응답 분석

첫 번째 공통질문은 “학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 연결 방식은 무엇인가요?”이다. 이 질문으로 학교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인터넷 연결 방식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상명대학교 공용 와이파이(SM-Guest, SM-wireless)가 10명(약 66.7%), 모바일 데이터가 5명(약 33.3%), 휴대용 와이파이(포켓와이파이, 예그 등) 및 기타는 0명이 응답하였다. 대부분은 상명대학교 공용 와이파이를 인터넷 연결 시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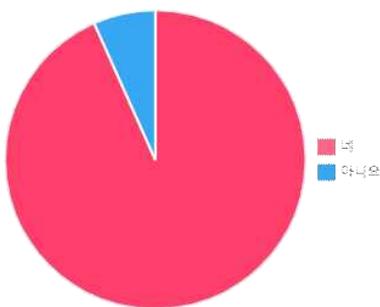


<그림 6> 인터넷 연결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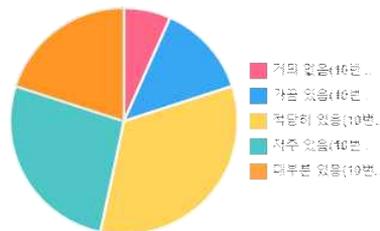
두 번째와 세 번째 공통질문은 “공용 와이파이 장애 현상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와 “공용 와이파이 장애 경험 주기는 얼마나 되나요?”이다. 이 질문으로 현재 공용 와이파이 장애의 주기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보았다.

두 번째 질문에는 “네”응답이 14명(약 93.3%), “아니요”응답이 1명(약 6.7%)으로 대부분이 공용 와이파이를 이용하면서 장애를 경험해 본 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질문에는 “거의 없음(10번 중 1번)”이 1명(약 6.7%), “가끔 있음(10번 중 2~3번)”이 2명(약 13.3%), “적당히 있음(10번 중 4~5번)”이 5명(약 33.3%), “자주 있음(10번 중 6~7번)”이 4명(약 26.7%), “대부분 있음(10번 중 8번 이상)”이 3명(20%)으로 응답자의 80%가 2번 중 1번꼴로 상명대학교 공용 와이파이 장애를 경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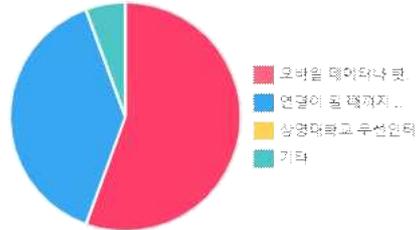
<그림 7> 공용 와이파이 장애 경험 여부



<그림 8> 공용 와이파이 장애 경험 주기

네 번째 공통질문은 “공용 와이파이 장애 시, 어떻게 대처하시나요?”이다. 본 질문은 공용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없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지를 모두 고르라고 하였다. “모바일 데이터나 핫스팟 등 다른 방법으로

연결한다”가 10명(약 55.6%), “연결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가 7명(약 38.9%), “상명대학교 무선인터넷장애 신고센터에 신고한다”가 0명, 기타가 1명(약 5.6%)으로 학생 대부분은 모바일 데이터나 핫스팟 같은 2차적인 연결 방식으로 장애를 대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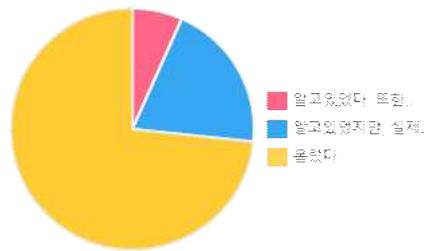


<그림 9> 공용 와이파이 장애 시 대처 방안

이를 통해 많은 학생은 상명대학교 공용 와이파이를 이용하고 있지만 지속해서 장애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상명대학교 공용 와이파이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2. 무선인터넷 장애신고센터에 관한 응답 분석

다섯 번째 공통질문은 “상명대학교 무선인터넷 장애신고센터에 대해 알고 있었나요?”이다. 이 질문은 상명대학교 공용 와이파이 문제를 위한 대응책인 상명대학교 무선인터넷 장애신고센터가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 “알고있었다. 또한, 실제로 신고를 한 적이 있다.”가 1명(약 6.7%), “알고있었지만, 실제로 신고를 한 적은 없다.”가 3명(20%), “몰랐다.”가 11명(약 73.3%)으로 응답자 대부분이 상명대학교 무선인터넷 장애신고센터를 모르고 있어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0> 상명대학교 무선인터넷 장애신고센터 인식

다음은 개별 질문으로 앞선 다섯 번째 공통질문의 답변에 따라 응답자가 답하는 질문이 달라진다.

첫 번째 개별 질문은 “신고를 하신 적이 있었다면 복구 작업이 얼마나 걸렸나요?”이다. 이 질문은 다섯 번째 공통질문에서 “알고있었다. 또한, 실제로 신고를 한 적이 있다.”를 선택한 사람의 응답만 받을 수 있도록 하였지만, 네이버 오피스 설문조사의 한계 상 모든 참여자가 응답을 진행하였다. “잘 모름”이 12명(80%), 응답 없음이 3명(20%)으로 나머지 선택사항인 “약 10분 미만”, “10분 ~ 30분 미만”, “30분 ~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모두 0명이었다. 상명대학교 무선인터넷 장애신고센터를 모르는 응답자가 대부분이어서 장애 복구 시간을 모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11> 상명대학교 무선인터넷 장애신고센터 복구 시간

두 번째 개별 질문은 “알고 있었지만 신고를 하지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이다. 이 질문은 다섯 번째 공통질문에서 “알고있었지만, 실제로 신고를 한 적은 없다.”를 선택한 참여자가 응답하였다. 응답자는 “말한다고 해서 고쳐질리가 없음”, “신고를 해도 바로 고쳐지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귀찮아서..? 모바일 데이터로도 충분히 작업이 가능할 거 같아서”로 결과가 나왔으며 상명대학교 무선인터넷 장애신고센터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 개별 질문은 “상명대학교 무선인터넷 장애신고센터를 몰랐다면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요?”이다. 이 질문은 다섯 번째 공통질문에서 “몰랐다.”를 선택한 응답자가 질문을 받았다. 결과는 <그림 12>와 같이 11명 중 8명이 응답하였으며 모든 응답자는 상명대학교 무선인터넷 장애신고센터의 홍보 부족이라고 답변하였다.

무선인터넷장애신고센터가 있는거 자체도 몰랐다.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게 가장 큰 원인이라 생각함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인것같다.
홍보 및 접근 수단의 부족
들어본적도없다
홍보 부족
홍보가 없었기 때문이다.
홍보가 잘 안된다고 생각한다.
홍보 부족

<그림 12> 세 번째 개별 질문의 답변

설문조사의 결과를 정리하자면, 현재 상명대학교 학생은 상명대학교에서 제공하는 공용 와이파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학생은 2번 중 1번꼴로 공용 와이파이의 장애를 경험하고 있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다. 상명대학교에서 현 문제의 대응책임 무선인터넷 장애신고센터는 홍보 부족으로 인해 대부분 재학생이 모르는 상태이며 알고 있는 소수의 학생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오히려 무선인터넷 장애신고센터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상명대학교 공용 와이파이와 무선인터넷 장애신고센터의 개선이 필요하다.

4. 상명대학교 공용 와이파이 장애의 개선 방향

4.1. 기술적 개선

김지현(2022)에 따르면 교내 와이파이 공유기는 해당 와이파이를 가장 먼저 연결하는 사람이 가장 최상의 인터넷 연결 상태를 제공한다고 밝혀졌다. 이는 앞서 말한 두 번째 장애 유형인 와이파이의 신호가 양호해 보여도 인터넷 연결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2020년에 와이파이 속도를 약 300Mbps에서 약 800Mbps으로 개선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여전히 무선인터넷 장애가 발생한다는 것은 속도 향상만 신경 쓰면 안 된다. 따라서 와이파이 속도 개선과 더불어 와이파이 연결상태 밀집도를 균등하게 나눠주는 기술이 필요하다.

4.2. 상명대학교 무선인터넷 장애신고센터 개선

상명대학교 무선인터넷 장애신고센터가 개선된다면 빠른 신고로 공용 와이파이의 장애 발생 시간을 줄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크게 2가지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상명대학교 무선인터넷 장애신고센터의 홍보이다. 앞서 다섯 번째 공통질문과 세 번째 개별 질문을 통해 상명대학교 무선인터넷 장애신고센터가 재학생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다는 걸 알았다. 따라서 상명대학교 재학생들에게 상명대학교 무선인터넷 장애신고센터를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선인터넷 장애신고센터가 있다는 점과 더불어 신고 절차를 함께 소개한다면 더 많은 학생이 무선인터넷 장애 시 신고를 할 수 있어 장애 발생 시간을 줄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접근성 강화이다. 현재 상명대학교 무선인터넷 장애신고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상명대학교 홈페이지 - 대학생활 - IT서비스 - 무선인터넷 장애신고센터의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고 두 번째는 상명대학교 홈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킷메뉴를 열면 무선인터넷 장애신고센터에 직접 들어갈 수 있다. 첫 번째의 방법은 여러 창을 들어가는 과정으로 번거롭다. 두 번째 방법은 빠르지만 킷메뉴 안에 무선인터넷 장애신고센터가 숨겨져 있다는 것은 첫 번째 방법과 같으며 킷메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용지물이 된다. 따라서 무선인터넷 장애신고센터로 가는 칸을 <그림13>의 위쪽에 배치하거나 코로나19 관련 예방수칙 및 대응 알림창처럼 무선인터넷 장애신고센터 알림창을 고정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방식으로 무선인터넷 장애신고센터의 접근성을 높이면 활용성이 높아져 문제를 간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휴대전화의 경우에는 ‘코스모스’ 애플리케이션에 무선인터넷 장애신고센터를 추가하여 간편히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림 13> 상명대학교 홈페이지

5. 결론

본 글은 상명대학교 공용 와이파이의 장애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해 모색하였다. 상명대학교 공용 와이파이는 많은 재학생이 사용하고 있지만 지속해서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상명대학교 측에서는 와이파이 속도를 늘리고 무선인터넷 장애신고센터를 운영했다. 하지만, 교내 와이파이 특성상 소수의 인원만 쾌적한 인터넷 연결을 누릴 수 있으며 무선인터넷 장애신고센터의 경우에는 홍보 부족으로 인하여 장애 발생 시 빠른 대처가 힘들다. 이 글이 상명대학교 공용 와이파이의 품질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많은 상명대학교 재학생이 쾌적한 무선인터넷 사용이 가능하기를 희망한다.

참고 문헌

정희상 외(2018), 공공 와이파이 기술 동향, 전자통신동향분석 33권 5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64-75쪽.

참고 기사

김지현(2022), 제706호 교내 와이파이 연결 먹통, 그 내면을 들여다보다, 상명대학교 학내언론사 학보사, 2022. 6.14.,

<<https://culturalart.smu.ac.kr/newspaper/university.do?mode=view&articleNo=728313#/list>>

참고 사이트

국립국어원(2016), 우리말샘사전,

<https://opendict.korean.go.kr/dictionary/view?sense_no=1302574&viewType=confirm>, 2022.11.16.

상명대학교(2022), 무선인터넷장애신고센터, <<https://www.smu.ac.kr/ko/life/iterrorreg.do>>, 2022.11.16.

부록

상명대학교 공용 와이파이(Wi-Fi) 장애 현황과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서고과 특한 특별 설문조사에 사용할 자료입니다.
*는 필수항목입니다.

1. 학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 연결 방식은 무엇인가요? *
평소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식을 선택해주세요.

상명대학교 공용 와이파이(SM-Guest, SM-Wireless)
 홈宽带 와이파이(코넷아이피이, 에그 등)
 모바일 인터넷
 기타: _____

2. 공용 와이파이 장애 현상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
공용 와이파이가 존재하지만 연결이 안됨, 연결이 되어도 연결시간 초과로 인터넷이 연결됨

네
 아니요

3. 공용 와이파이 장애 경험 주기는 얼마나 되나요? *

거의 없음(10분 중 1번)
 가끔 있음(10분 중 2-3번)
 적당히 있음(10분 중 4-5번)
 자주 있음(10분 중 6-7번)
 대부분 있음(10분 중 8번 이상)

4. 공용 와이파이 장애 시,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

검색 사이트
 문의실 대리거나 콜센터 등 다른 방법으로 연결한다
 연결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
 상명대학교 무선인터넷장애신고센터에 신고한다
 기타: _____

5. 상명대학교 무선인터넷 장애신고센터에 대해 알고 있었나요? *

알고있었다. 또한 실제로 신고를 한 적이 있다.
 알고있었지만, 실제로 신고를 한 적은 없다.
 몰랐다.

5-1. 신고를 확인 적이 있다면 복구 작업이 얼마나 걸렸나요?
5번 항목에서 "알고있었다. 또한 실제로 신고를 한 적이 있다"를 선택하신 분만 응답해주세요.

약 10분 미만
 10분 - 30분 미만
 30분 -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알 수 없음

5-2. 알고 있었지만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5번 항목에서 "알고있었지만, 실제로 신고를 한 적은 없다"를 선택하신 분만 응답해주세요.

5-3. 상명대학교 무선인터넷 장애신고센터를 활용하면 가장 큰 도움이 무엇인가요?
5번 항목에서 "몰랐다"를 선택하신 분만 응답해주세요.

제약에서 벗어난 가장 솔직한 사랑의 형태 - 박찬욱 <헤어질 결심>을 보고 -

국어교육과 방효*

소설, 드라마, 영화와 같은 문화가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작품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독자, 시청자, 관객들은 주인공에게 자신을 대입하며 공감하며 작품에 몰입한다. 그렇기에 현시대를 잘 담아내고 있는 작품일수록 더 흥행하고, 주인공들이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인간상이면 관객들은 더 이입하게 된다. 관객의 공감과 호기심을 얻기 위해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바로 '소재'이다. 작품의 주제는 무엇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에 따라 관객들의 극에 대한 몰입도가 달라지는 것이다. 이에 현존하는 수많은 소설, 드라마, 영화, 만화 등에서는 '사랑'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인간에게 가장 보편적이고, 한편으로는 극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이다. 똑같은 사랑을 주제로 이야기를 만들더라도 주인공들에게 사랑이 어떤 의미인지, 그들이 사랑하는 방식은 어떠한지 등에 따라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도 혹은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사람들이 공감하는 사랑 이야기는 대부분 이런 식이다. 주인공들이 사랑을 나누는 모습이 설레고 예쁘게 표현된다거나, 혹은 다투고 이별하는 과정이 현실적이거나, 아니면 주인공들의 사랑이 너무나 비극적이거나. 그렇다면 솔한 '사랑' 이야기 중에서도 '헤어질 결심'이 관객들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요소는 무엇일까.

나는 '솔직함'이 이 영화의 흥행 요소였다고 생각한다. 주인공들의 솔직함으로 인해 관객들은 극에 몰입하게 되고, 끝에 갈수록 두 인물의 감정에 공감하게 된 것이다. 작품의 초반에 우리는 두 인물의 감정선에 쉽게 공감하지 못한다.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감정의 교류가 갑작스럽게 느껴지고, 두 사람 사이의 사회적 관계 또한 두 인물의 감정에 몰입하는 데에 방해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 영화를 두고 '흔한 불륜 영화', '불륜 영화 미화'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나는 두 사람의 관계가 불륜인가, 야닌가를 떠나서 두 사람이 서로 끌리고 감정을 교류하는 순간순간들이 지극히 솔직했고, 이러한 솔직함에 우리가 어느 정도 공감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

'사랑'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이다. 하지만 현실의 사랑에는 많은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 제약이 따른다. 아무리 매력적인 상대일지라도 이미 곁에 다른 사람이 존재한다면 탐낼 수 없고, 사회적 위치에 따른 제약을 받기도 한다. 물론 나는 '사랑'과 관련한 이러한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 규범에 절대적으로 동의한다.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놓은, 우리가 약속한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러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회 구성원들이 정한 약속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제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때로는 제약을 벗어난 감정, 행동들에 더 강한 호기심과 끌림이 느끼곤 한다. 술한 ‘사랑’을 주제로 한 영화 중에서도 ‘헤어질 결심’이 흥미로운 이유는 이 영화에서는 주인공들의 솔직함을 바탕으로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 제약을 무시한 가장 본능적인 사랑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 영화에서 무시하고 있는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 제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둘의 관계’이고, 두 번째는 ‘사랑의 방식’이다. 먼저 첫 번째, ‘둘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본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해준’과 ‘서래’는 사건의 담당 형사와 피고인으로 만나게 된다. ‘서래’는 남편의 추락 사고의 피고인으로 지목되었고, ‘해준’이 바로 이 사건의 담당 형사였다. 첫 만남부터 둘은 서로에게 묘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담당 형사와 피고인이라는 사회적 관계를 무시하고 서로에게 호감과 흥미를 느낀 것이다. 작품의 초반에서 ‘서래’의 표정과 말투에 집중하는 ‘해준’의 모습이 나오는데, 형사로서 피고인의 말에 집중하는 것과는 묘하게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해준’은 ‘서래’가 말해주는 정보를 들으며 ‘서래’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는데, 아마도 ‘해준’에게는 무묘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상대가 필요했던 것일지도 모르겠다. 흥미로운 점은, 이 둘의 관계에서 상대에게 끌리는 자신의 감정을 더 일찍 알아차린 것은 ‘해준’이라는 점이다. 그렇기에 작품의 초반에서는 ‘서래’를 바라보는 ‘해준’의 모습을 많이 담아내고 있으며, 작품의 끝에 가서 ‘서래’는 “당신의 사랑이 끝날 때, 나의 사랑이 시작됐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또한 ‘서래’는 이러한 ‘해준’의 관심과 관찰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에게 불쾌감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즐기며 그에 대한 감정을 키워간다. 관심을 가질 대상이 필요했던 사람과, 관심이 필요했던 사람의 만남이 아닐까 싶다.

한편, 이 둘은 서로 유부남과 유부녀의 관계이다. ‘해준’에게는 아내가 있고, ‘서래’에게는 사별 직후인 남편이 존재한다. ‘헤어질 결심’이 흔히 ‘불륜 영화’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 때문이 아닐까 싶다. 영화는 계속해서 ‘해준’과 아내의 불안정한 결혼 생활을 비춰주고, ‘서래’의 불행했던 결혼 생활을 암시한다. 둘이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명분과 구실을 관객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어쩌면 이 두 인물 역시 자신들의 이러한 상황을 방패로 합리화를 하며 감정을 이어갔던 것일지도 모른다. 불안하고 불행했던 결혼생활을 위로받고자 하는 보상심리인 것이다.

두 번째는 ‘사랑의 방식’과 관련된 이야기이다.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 관념에 익숙한 우리들에게 상대를 훑쳐보며 감정을 키우고, 그러한 관찰을 즐기며 감정을 키운다는 것부터 어딘가 엇나간 사랑의 방식이라고 느낄지 모른다. 하지만 이 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상대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해 보인다. ‘해준’은 앞서 말했듯 형사이고, 현재는 용의자인 ‘서래’를 수사하고 있다. 수사가 진행되며 ‘해준’은 ‘서래’가 범인이라는 명확한 증거를 찾게 된다. ‘해준’이 ‘서래’가 범인임을 알게 되며 분노에 차올라 ‘서래’를 추궁하는 장면에서, 그의 배신감을 여실히 느낄 수 있다. 그러나 ‘해준’은 ‘서래’가 범인임을 알고, 확실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그 증거를 삭제하며 ‘서래’를 놓아준다. 형사로서의 본분을 잊고, ‘서래’를 지켜준 것이다. 이것이 ‘해준’의 사랑의 방식이자 ‘서래’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인정하고 증명한 솔직하면서도 어딘가 어긋난 방법이 아닐까 싶다.

한편 ‘서래’는 ‘해준’의 도움으로 용의선상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시간이 흐른 후에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터지고 그 사건의 용의자로 다시 지목된다. 그리고 이 사건의 담당 형사는 본의 아니게 ‘해준’이 맡게 되며, 둘은 다시 재회한다. 나는 ‘서래’가 해당 사건에 연루된 것 자체가 ‘해준’을 다시 만나기 위한 그녀의 계획이었다고 생각한다. ‘해준’을 향한 마음을 정리하지 못한 ‘서래’에게 그를 다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이다. ‘서래’의 어긋난 사랑의 방식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서래’는 ‘해준’에게 자신이 영원히 기억되길 바라며, ‘해준’이 영원히 찾을 수 없는 장소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자신이 ‘미제사건’으로 남길 자처하며 미제사건으로서 ‘해준’이 영원히 자신을 잊지 않길 바랐던 것이다.

그들의 결말은 언뜻 보면 비극으로 끝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나는 이러한 결말이 둘이 맞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결말이 아닐까 싶다. ‘서래’는 미제사건으로서 ‘해준’에게 영원히 기억되고, ‘해준’은 평생 ‘서래’의 흔적을 찾으며 ‘서래’를 기억할 것이다. ‘해준’은 평생을 ‘서래’를 추적하고, ‘서래’는 영원히 ‘해준’의 추적을 당하는 것이다. 관찰하고 관심을 줌으로써 사랑을 하는 사람과, 관찰을 당하고 관심을 받음으로써 사랑을 하는 사람이 맞이할 수 있는 최고의 결말이 아닐까. 그렇기에 나는 이 둘의 결말이 결코 비극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솔직함’으로부터 시작한 사랑이 엇나간 사랑의 방식으로 지속되는, 어쩌면 그들에게는 가장 행복한 결말이 아닐까.

무정하고, 무정한 - 이광수 <무정>을 읽고 -

국어교육과 김단*

작품에 온전히 빠져들기 전, ‘무정’이라는 제목을 붙인 의도가 이해되지 않았다. 초반부터 솔직하고 꾸며지지 않은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는 작품에 정이 없다는 의미의 제목을 붙인 점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독서의 초반은 이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제목의 의미에 대한 궁금증을 넘어서 작품에 숨어있는 뜻과 작가의 의도가 궁금해졌고, 결국 작품 전체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나름의 답을 찾는 의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작품에서 특히 신선하면서도 낯설었던 부분은 작가가 이야기 속에 깊이 개입하고 심지어 독자에게 말을 걸기도 한다는 점이었다. 작품을 감상하던 중 갑자기 질문을 던지고 대화를 시도하는 작가가 조금은 당황스럽게 느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인물의 감정과 행동을 그저 일방적으로 들려주는 것이 아닌, 독자와 긴밀히 소통하는 방식을 통해 오히려 독자가 이야기 속에 폭 빠져들 수 있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장편 소설로서 의의를 가지는 작품인 만큼 독자가 마치 작가가 직접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함으로써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는지 추측해 볼 수 있었다. 연재되었던 작품이기에 독자들이 다음 이야기를 궁금해하고, 작가가 이어서 말을 해주었으면-하고 기대하게 하는 요소로서 기능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인물 면에서 가장 많은 질문을 하게 만든 주인공은 형식이었다. 우선 초반에서 의아했던 점은 형식이 영채의 몸이 더럽혀지지 않았기를 바라면서도 계속해서 의심하는 부분이었다. 영채가 정절을 지켜 자신과 만나고 자식을 낳는 미래까지 생각하면서도, 빈번히 영채가 정절을 잃었을 것을 걱정하고 상상하는 이유가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름의 고민을 통해 낸 결론은 형식이 영채의 안위보다 자신의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인물이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나에게 있어 형식은 ‘존경받는 교사’라는 평가를 무겁게 받아들이는 인물이라고 판단되었다. 영채가 정절을 지키지 못했을까 걱정하는 마음 역시 영채를 걱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영채가 위대한 교사로서의 자신의 이름을 더럽힐까 걱정하기 때문이라고 느꼈다. 특히 후반부에서 선형과 영채를 또다시 비교하는 부분에서 영채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닌 교사라는 자신의 지위와 맞는 여자를 들여야 자신이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이기적인 태도를 가졌다는 점을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생각은 형식이 생각하는 교육의 의미에 대한 다음 질문으로 이어졌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방향으로 생각해볼 수 있었다. 우선 첫 번째는 ‘민족을 계몽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혹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로서의 의미를 가졌을 것이라는 방향이다. 형식이 자신의 직업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진 인물이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교육이 그에게 의미하는 바는 막대한 가치를 지닌 일이지 않았을까 싶다. 반면, 이전 질문에 대해 내린 답에서처럼 사랑조차 자신의 권위유지 수단으로 생각하는 자이기에 교육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아닐 거라는 의심도 들었다. 앞서 언급한 영채와 선형의 자격 요건을 비교하는 장면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보였지만, 학생들에게 존중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교직을 포기하는 장면에서나 미국 유학을 통해 자신의 입지를 다시 다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장면에서도 형식의 이기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한 선택과 생각의 기저에는 교육이 자신의 권위유지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지 않았을까 생각되었다.

각 인물에 대해 순간순간 드는 의문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거치며 작품을 감상하던 중, 한참을 멈춰 고민하게 만든 대목이 있었다. 바로 사람을 광대로, 춘향으로, 이도령으로, 예수로, 로마 병정으로, 구경꾼으로 만드는 ‘어떠한 힘’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이었다. 생각해보니 모두 똑같은 사람인데 행동의 방향이 제각기 다르다는 점에서 그러한 차이를 만드는 ‘어떠한 힘’이 과연 무엇일지 생각해보게 되었다. 나는 그 어떠한 힘이 개인의 ‘가치관’이 될 수 있겠다는 결론을 내려 보았다. 옳은 것, 바람직한 것, 해야 할 것 또는 해서는 안 될 것 등에 관한 본인만의 뚜렷한 관점에 따라 사람이 변화하고, 그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치관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은 그렇다면 그 가치관이 ‘속사람’이 해방되는 깨달음과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질문으로 이어졌다.

‘속눈’으로 ‘속뜻’을 보게 되고 ‘속사람’이 해방되는 깨달음을 얻는 것은 현재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그렇다면 나는 어떤 경험을 할 때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을 깨울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들었다.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느끼게 할만한 큰 사건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결론이 당연한 말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작품 속 등장 인물들이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큰 사건을 통해 내면의 자아와 마주하게 되는 것처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충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똑같은 일상은 충격을 주지 못하고 그렇기에 자신이 은연중에 가지고 있던 그릇된 생각을 자각할 수도 없다. 이때 큰 사건은 사람마다 다르겠으나 본인의 가치관을 뒤엎을 만큼 큰 영향을 주는 사람과의 만남 혹은 자신의 부끄러움과 잘못된 판단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엄청난 일이어야 함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믿었던 사람의 어두운 속내를 발견하거나, 예상치 못한 인물이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주목하고 슬기를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경험 등이 그 엄청난 일에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그렇다면 나에게는 아직 속사람이 깨어날 만큼의 충격이 없었다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해주는 사건이 나에게도 어서 찾아와주었으면 하는 마음도 들었다.

이처럼 ‘무정’은 나와의 계속된 질문과 답변을 통해 깊이 있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준 작품이기도 했으나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남는 작품이기도 했다. 특히 자선 행사를 여는 부분과 결말 부분의 전개 속도에 있어 그러한 생각이 들었다. 우선 수재민을 ‘도움’의 대상으로 보는 등장인물들의 모습은 계몽의 정신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돕는다’는 것은 어

려운 상태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이고, 함께 벗어나는 것이 아닌 ‘벗어나게’ 한다는 점은 그들보다 등장인물 스스로가 낫다는 가정하에 나오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 장면이 수재민들과 함께 시련을 극복해나가는 것처럼 보이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이 알고 능력이 있는 본인들이 자신들의 재능으로 수재민들을 위협으로부터 꺼내주어야 한다는 자선적 태도를 지닌 것처럼 느껴졌다. 깨달음을 얻고 교육을 해야겠다고 다짐하는 모습 역시 본인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 만족스러웠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드는 부분이었다. 특히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하겠다는 생물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면서 막연하게 교육을 해야겠다는 모습에서 이러한 감상을 받을 수 있었다.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후반부에 들어서며 갑작스럽게 교육과 계몽으로 글을 마치는 전개 역시 조금은 성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흥미진진하게 작품을 읽던 중 갑자기 끝났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선 기차에서 내내 영채를 의식하고 견제하던 선형이 수재민을 돕는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감정의 해소를 이루었다는 점이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았고, 잠깐의 경험으로 등장인물들이 모두 교육을 하겠다고 다짐하며 미래에 관해 이야기하는 모습 역시 조금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사랑을 다루는 이야기로 대중성을 확보하고, 계몽과 각성에 관한 이야기로 교훈을 준다는 점은 효과적인 소재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랑으로 얽혀 있던 등장인물들이 갑자기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된다는 점은 독자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다. 각 등장인물의 서로에 대한 감정이 깊고 뚜렷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재민을 돕는 행위에서 깨달음을 얻어 곧바로 모두가 생각의 변화를 거치고 계몽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결말은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았다. 개인적으로는 등장인물들이 자신의 꿈을 말하고 미래에 긍정적인 모습으로 성장했다는 결말 부분의 전개가 삼각관계를 다룬 앞선 내용들에 비해 너무 짧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든다. 특히 이러한 결말이 참된 계몽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도 들었는데, 나는 구체적인 비전도 없이 ‘생물학이라던가 하는 것’을 배우겠다고 다짐하며 마무리되는 점이 계몽이라고 보기엔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독자들이 등장인물들이 겪은 관점과 목표의 변화가 의미 있고 진정한 계몽을 위한 일이라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느리고 자연스러운 전개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다. ‘계몽’이라는 주제를 담은 작품인 만큼 계몽의 모습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결말의 전개가 다른 방향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느끼는 부분이었다.

작품을 감상한 뒤 다시 생각하게 된 제목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였다. 우선, 영채에 대해 ‘무정’했던 형식과 세상의 모습을 담은 제목이라는 해석을 해보았다. 특히 작품 속에서 거둬 등장한 ‘천 원’의 의미를 고민해보는 과정에서 이러한 답을 낼 수 있었는데, 영채를 기생방에서 꺼내주기 위해 드는 천 원이라는 비용을 따옴표로 계속해서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요소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 ‘천 원’이 영채에 대한 형식의 사랑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작품에서 형식은 영채를 구하기 위해 천 원을 찾아 헤맸지만 실제로는 이를 구하지 못하고, 영채는 청량리로 끌려간다. 이후 영채가 죽음을 택해 평양으로 떠나고 형식도 영채를 따라가지만 이내 마음대로 죽었다고 결론짓고 돌아온다. 만약 천 원이 사랑이라는 의미였다면 형식에게 ‘천 원’이 없던 것은 영채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는 점을 암시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끝내 ‘천 원’을 구하지 못하고 영채가 그사이에 청량리로 끌려갔다는 점은 형식에게 그만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

이라고 느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영채는 형식만을 바라보았지만 사랑받지 못한다는 매정한 현실을 깨닫게 되었고, 이 경우 무정이라는 제목 역시 ‘영채에 대한 무정’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 해석은 말 그대로 ‘등장인물 중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제목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삼각관계, 혹은 그 이상의 얽히고설킨 관계로 이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던 등장인물들이 사실은 아무도 진정한 사랑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결말 부분에서 깨닫는 장면이 나온다. 사랑에 관한 이야기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고, 결국 이 작품의 결말이 사랑의 결실이 아닌 미래와 계몽에 대한 의지로 이어진다는 점을 제목을 통해 암시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해석의 경우 작품의 계몽주의적 성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할 수 있었다.

비록 아쉬운 점도, 여전히 풀리지 않은 궁금증들도 있으나 근대 문학에 있어 큰 의미를 가지는 작품이라는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 특히 현대를 다룬 이야기가 아님에도 현재를 살고 있는 나에게 작품의 일부를 나의 모습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스스로에 관해 고민할 거리를 제공해 준 작품이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나에게도 중요한 작품이 되어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주인공 형식의 직업이 교사였고, 작품의 결말 부분에서도 등장인물들이 교육과 계몽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는 점에서 더욱 교사를 꿈꾸는 나에게 교직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작품이 되어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었다. 나뿐만 아니라 교육을 꿈꾸는 다른 학생들에게도 이 작품이 담은 메시지와 작가가 설정한 등장인물들의 깊은 내면이 자신만의 교육관을 세우는 데에 좋은 영향을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수상할 것 없는 셋의 하루 -김승옥, <서울, 1964년 겨울>을 읽고-

국어교육과 전한*

분명 수상한 겨울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이름도 신분도 어느 것 하나 확신하지 못한 채 그 서울의 밤을 함께 보냈다. 여러 대화가 있었고 하나의 죽음이 있었다. 서울, 1964년, 겨울의 이야기이다. 김과 안은 선술집에서 파리와 꿈틀거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어 평화시장 앞 켜지지 않는 등불은 몇 번째 등불이며, 화신백화점에 불이 나오는 창은 몇 개인지 등 자신만 아는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특권을 과시하듯 늘어놓던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졌다. 정식으로 자리하기 위해 선술집에서 나가려고 할 때 한 사내가 그들에게 다가와 자신도 함께 가도 괜찮겠냐고 물었다. 깨끗한 차림새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가난한 냄새가 나는 사내는 둘에게 비싼 중국요리를 대접했다. 그에게 무슨 꿈꿨다가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던 김과 안은 마지못해 그와 함께 식사했다. 사내는 아내를 급성 뇌막염으로 잃고 시체를 병원에 판 서적 월부판매 외교원이었다. 사내는 김과 안에게 아내의 시체를 팔고 받은 돈을 다 쓰기 위해 오늘 밤을 보내고 싶다고 고백했다. 김과 안, 그리고 사내는 중국집에서 나와 양품점에서 넥타이를 사고, 사내의 아내가 좋아하던 굴을 사 먹고, 택시에 타 세브란스로 향하려다가 쫓겨나고, 불구경하고, 여관에서 잠이 들었다. 다음 날 그 사내는 죽어있었다. 수상한 사람들과 수상한 하루였다.

셋은 서로를 잘 모른다. 김은 안의 신상에 의심을 한다. 대학 구경을 해보지 못한 채 구청 병사계에서 일하는 스물다섯 김은 서른대여섯 살의 대학원생이라는 안이 못마땅했을 것이다. 이것은 육군사관학교 대학 입학시험에 실패를 겪은 김의 자격지심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작가 김승옥이 전쟁 후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당시의 청년상을 김에게 투여했기 때문이다. 대입 실패로 인한 피해의식은 대학이라는 권력을 갖지 못한 이들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다. 대학 입학조차 이런 불쾌한 감정을 일게 하는데 하물며 6.25 전쟁을 겪은 당시 청년들의 마음은 더할 것이다. 안 또한 김을 썩 믿는 것은 아니었다. 안은 김에게 우리는 분명히 스물다섯 살짜리냐고 묻는다. 서른대여섯 살의 대학원생이라는 사람이 왜 '우리'는 스물다섯이냐는 질문을 하는지 의아한 대목에서 독자는 이 의심스러운 인물의 정체가 드디어 들통나는구나, 무릎을 쳤을지도 모른다. 또, 사내는 작품에서 가장 의심스러운 인물로 처음에 등장한다. 갑작스러운 합석을 제안하고서는 아내의 죽음을 고백하는 이름도 모르는 인물을 반갑게 거들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서로의 이름과 배경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 여관에 간 셋이 숙박계에 거짓 이름, 거짓 주소, 거짓 나이, 거짓 직업을 쓰는 것에서 인물과 인물 사이, 인물과 사회 사이, 그리고 인물과 독자 사이의 벽을 느낄 수 있었다. 통행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60년대 한국 사회의 암울한 분위기 속에서 개인은 자신을 드러내고 살 이유가 없었다. 이미 사회는 개인에게 무관심했고 서울 속 시민들은 가난과 핍박 속에서 소외됐다. 소설 속 인물들이 모두 김, 안, 사

내라는 익명적인 존재로 등장하는 것 또한 이 때문이다. 작가는 이 익명성으로 불소통과 자아중심주의가 팽배했던 당시 서울에 드리운 문명과 정부의 그림자를 고발한 것이다. 작가는 인물들의 배경을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독자도 셋을 잘 모른다.

그럼에도 셋은 서로를 원했다. 서로 잘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지 않았다고 해도 그들은 대화할 상대가 필요했을 것이다. 제아무리 황폐하고 억압적인 사회 속에서 상처로 굳게 닫힌 마음이라 한들 술과 밤이면 입을 여는 것이 민초의 삶 아닌가. 외로움과 고독이 어디 혼자 사라질 일은 없으니 셋은 술집에서 대화할 상대를 두리번거리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선술집에서 김과 안의 대화는 특이하다. 자기소개하고 나눌 이야기가 파리를 사랑하는지, 꿈틀거리는 것을 사랑하는지였다면 누구라도 그들에게 말을 건 것을 후회할 것이다. 글을 읽던 독자도 대화의 어느 부분에 장단을 맞춰 읽어야 하는지 곤란에 빠지게 하는 주제였다. 이야기가 여자의 꿈틀거리는 아랫배로 흘러갈 때 나는 차라리 나의 험담을 듣는 것이 더 편하겠다 생각했다. 하지만 둘은 대화했다. 친절하고 상냥한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자기 생각을 털어놓았고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을 숨길 수 있는 주제로 자신을 드러내고 있었다. 상대의 배경을 묻는 것은 아니었지만 상대를 궁금해하고 있었다. 이것이 익명으로 기호화된 당시 시민들에게 허용된 자아 노출의 범위였을 것이다. 영상과 사진 업로드로 자신과 사생활을 과하게 뽐내는 요즘 청년들과는 거리가 먼 60년대 청년들의 이야기였다. 갑자기 그들의 대화가 흥미롭게 들린다. 사내가 괜히 그들과 함께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다. 사내는 작품 속 인물 중 가장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낸 인물이다. 초면에 무척대고 자신의 비극을 털어놓는 사내는 그때나 지금이나 당황스러울 정도로 대화의 격률을 파괴하고 있는 인물이다. 하지만 아내의 시체를 병원에 판 이에게 예의를 따지고 드는 것 또한 그때나 지금이나 너무 딱딱한 일이다. 김과 안, 그리고 독자는 사내를 받아들인다. 처음에는 썩 내키지 않아 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김과 안은 사내와 함께해주었다. 이것은 이 황폐한 60년대 한국 사회에 필요했던 공감과 연대의 모습을 보여준다. 사평역에서 타고 있는 톱밥 난로처럼 이 작품에도 조금의 따스한 온기가 느껴졌다. 셋은 서로를 위로했다.

셋은 견딜 수 없었다. 사내는 결국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 김과 안은 사내의 시체를 두고 여관을 도망치듯 빠져나온다. 그들은 모두 견딜 수 없이 힘들었고 이것은 스물다섯조차 자신이 너무 늙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달관에 빠지게 했다. 사내의 죽음은 비단 안만 예상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아내도 잃고 월부 책값도 받지 못하는 사내가 돈을 불에 던져가며 다 써버리려고 하는 점에서 누구나 그의 삶의 의지가 완전히 바닥났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내를 두고 떠나는 김과 안의 서두름이 괴상하게 느껴졌다. 사내가 죽을 거라고 짐작도 못 했다는 김이나 사내를 혼자 놓아두면 죽지 않을 줄 알았다는 안의 말도 변명으로 들렸다. 아무리 타인에게 무관심하더라도 죽음은 원수의 죽음까지도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일이지 않나. 사내의 죽음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한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의 죽음에도 크게 동요하지 않고 뒤치다꺼리를 걱정하듯 서둘러 나오는 김과 안의 모습에서 도시 하층민의 소외와 고독이 더 비통하게 느껴졌다. 사내도 화재는 우리 모두의 것이 아니라, 오직 화재 자신의 것이라며 불길 속에 돈을 던졌다. 김과 안도 사내의 죽음은 오직 사내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여관을 떠났을 것이다. 떠나는 김을 붙잡을 인류애는 고작 개미 한 마리 정도의 크기였다. 당시 개인의 생명은커녕 죽음까지도 존중받지 못했던 사회의 개인주의와 비인간적인 모습이 여기서 드러난다. 독자가 애도할 대상은 사내가 아니라

1964년 서울의 사회였다.

서울, 2022년 겨울은 어떠한가? 지금 우리 사회는 샤프심 굵기 수준의 출생률을 위협으로 감지하고서는 개인의 존엄과 생명 하나하나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한 반에 육칠십에 아침, 저녁으로 반이 나뉘어 있었던 기성세대에서, 한 반에 삼사십이었던 청년 세대, 그리고 이제는 한 반에 스물 남짓인 아이들까지. 과연 이 사회가 이 모든 개인들을 소중히 여기는지는 소매를 걷고 따져볼 필요가 있다. 물론 통행금지라든가 시민의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하려 드는 독재는 없다. 더 민주적이고 평등한 사회가 되도록 피를 토한 이들 덕분에 사회는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몇 년 주기로 수많은 또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는 사건 사고는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출생자들을 ‘재난세대’라는 이름으로 묶었고 이들에게 삶에 대한 공허함과 무력감은 당연하게 주어진 사슬처럼 되어버렸다. ‘MZ세대’라는 키워드도 청년 한 명을 오직 단 하나의 개성 있는 존재로 인정하기보다 거대한 멍텅이로 묶어 재는 편리함을 취하기 위해 나온 말일 뿐이다. 자식을 잃은 부모 세대의 아픔은 어떠한 것이며 기계보다 못한 취급을 하는 노동환경은 사람을 값어치 없고 아이들은 점점 뜨거워지는 지구에서 더 이상 안전과 식량을 보장받기 어려워졌다. 개인을 표출할 수 있는 창구는 많아져 김과 안, 사내의 시절에 비하면 마음껏 자신을 드러내는 사회가 되었지만 욕망으로 험싸인 자아의 금도끼 은도끼가 순수한 표출을 베어버리고 있고 자신의 자리가 위협받지 않는다면 남의 죽음에 슬퍼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회 분위기가 팽배해졌다. 비극적이다.

“작가의 상황을 고려하여 읽지 않으면 그것은 염세주의자의 기괴한 독백이 될 것”이라는 평론가의 말처럼 김승옥의 이 작품은 전쟁 후 삭막해진 인간과 사회의 모습을 담담히 담아 민족문제를 토로한 것이었다. 그리고 1964년과 2022년 서울의 겨울을 비교해보니 김과 안, 사내의 익명성이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내의 비극을 대하는 김과 안의 차가운 태도도 모두 수상할 것이 없다. 서로에게 따뜻한 관심을 쏟지 않는 것, 생명과 죽음이 모두 존중받지 못하는 것 다 지금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작가는 한국 사회에 타인을 살피고 공감할 줄 아는 연대와 감수성의 혁명을 바랐을 것이다. 사내가 겪은 소외와 고독은 수직, 수평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집단과 계층으로 번지고 있다. 사내는 지금 여기, 죽지 않고 살아있고 산 채로 죽어있다. 셋의 하루는 조금도 수상할 것이 없다.

짙뻘힌 청춘의 굴레 - 헤르만 헤세 <수레바퀴 아래서>를 읽고 -

조형예술학과 김서*

인생은 B(Birth)와 D(Death) 사이의 C(Choice).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의 선택이라는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의 유명한 명언이 있듯, 우리는 살아가며 좋은 싫든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되어있다. 힘들게 성적을 쫓느냐 행복한 취미 생활을 영위하느냐, 공공 규율을 따르느냐 자유롭게 행동하느냐, 남들에게 선행을 베풀지 악행을 저지르지 등. 이는 우리가 타인에 의해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도 똑같이 적용된다. 상처를 준 상대에게 복수를 할까, 아니면 주변인들에게 위로받고 털어버릴까. 하지만 헤르만 헤세는 자신의 1906년 작 '수레바퀴 아래서'라는 책을 통해 힘들게 선택할 필요 없는 복수와 위로를 동시에 제공한다. 어떻게 사는 것이 맞을까. 특히나 가장 고민 많을 이 시대의 모든 청소년에게.

이러한 두 대상 간의 대립, 즉 양극성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헤세 문학의 대표적 특징인데. 작가는 이 책에서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양극성에 대한 예를 들며 독자들에게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상징적으로 시각화하는 데 성공한다.

누구나 학창 시절 즐거운 취미생활을 포기하면서까지 억지로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한 번쯤 해보았을 것이다. 수레바퀴 아래서의 주인공 한스도 마찬가지이다. 좋아하는 낚시며 놀이 따위를 두고 어째서 나는 하기 싫은 공부를 해야 하는가. 작중 한스는 신학교 입학 공부 때문에 친구들과 멀어지고, 가장 좋아했던 낚시를 금지당하는 등 어린 시절의 행복 대부분을 포기해야만 했다. 때문에 본문의 20페이지에는 이러한 내용이 나온다.

'나무로 된 작은 물레바퀴가 휘어지고 부서진 채 수돗가에 나동그라져 있었다. 한스는 이것들을 직접 깎고 만들며 즐거워했던 시절을 떠올렸다. (...) 그 시절은 아주 오래된 일이 되어버렸다. 한스는 물레바퀴를 집어 들어 앞뒤로 꺾어 완전히 부러뜨린 후 울타리 밖으로 던져버렸다.'

작가는 이와 같은 서술을 통해 아직 어린 소년이 누려야 마땅한 기쁨을 빼앗은 기성세대들이 얼마나 가혹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주인공의 돌발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신학교 입학을 강요당했던 한스. 애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럴까. 어른들은 나쁘고 충동적인 한스의 행동은 이해가 간다. 헤르만 헤세는 이렇게 독자들의 몰입을 유도하여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비판을 이끌어 내고 있는 것이다.

혼자 내는 화보다 다수에게 공감시켜 함께 분노하는 복수가 훨씬 통쾌한 법. 억압과 즐거움. 정반대의 키워드를 이용해 독자들의 분노를 끌어낸 뒤, 한스와 비슷하게 안타까운 일을 겪은 이들을 대신에 영리한 복수에 성공한 작가는 이후에도 바퀴라는 단어를 다시 등장시키며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더욱 견고히 한다. 앞선 20페이지의 물레바퀴가 한스에게 잃어버린 어린 시절의 즐거움을 상기시키는 고통의 대상, 혹은 자신을 억압하는 것들에 대한 반항의 의미로 쓰였다면. 이후 204페이지에서 한스가 신학교를 떠나 고향의 기계공장에서 일할 때 나오는 톱니바퀴라는 단어는 대놓고 물리적인 고통을 형상화하고 있다.

‘양손이 타는 듯했고 붉게 부은 자리에 물집까지 생겼다. (...) 한스는 죽고 싶을 만큼 비참한 심정이었다. 하루 종일 시계를 바라보며 절망적으로 톱니바퀴를 갈아야 했다.’

이처럼 억압과 고통을 뜻하는 바퀴와 그와 대비되게도 주인공에게 즐거움을 주었던 취미인 낚시는 기성세대들에게 이는 분노의 매개체이면서 이 책에서 헤세가 나타내고자 하는 양극성을 표현하는 키워드, 그 첫 번째가 된다.

이어지는 두 번째 키워드는 몹시 찾기 쉬우면서도 아이러니하다. 바로 주인공 한스 기벤라트와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인 헤르만 하일너가 양극성을 대표하는 또 다른 예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둘 다 신학교 입학시험을 통과한 명석한 학생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한스가 규칙에 순응하는 공부벌레에 가까웠다면 헤르만은 자유를 외치는 시인이었다. 규율과 자유. 성실함과 반항성.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을 각각 상징하던 이 두 친구의 우정은 결국 헤르만이 학교에서 퇴학당하며 끝이 난다. 가장 친한 친구를 잃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주인공에게 주변 어른들이 건네는 말이 이라곤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젠 더 공부해라……. 그 주변 어른 중 누군가 한 명이라도 위태로운 소년에게 손을 뻗어 주었다면 주인공 한스가 과연 죽음이라는 결말을 맞이했을까?

그렇지도, 아닐지도.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작가 헤세는 한스의 죽음이 기성세대와 교육제도의 억압 때문이라고 221페이지의 본문 내용으로 확실하게 못 박는다.

“저기 가는 저 신사 양반들 말이에요”플라이크가 조용히 말했다. “저들도 이 아이가 이 지경이 되도록 부추긴 셈입니다.” (...) “왜요 그들이 어쨌다는 겁니까?” “어휴, 그만합시다. 당신이나 나나, 어쩌면 우리 모두 저 아이를 너무 소홀히 대했던 것 같지 않습니까?”

순종했지만 이처럼 끔찍한 결말을 맞이한 한스와는 다르게 저항하던 헤르만은 비록 불명예스럽게 학교를 떠났지만 ‘많은 천재적인 시도와 탈선을 거듭한 다음, 냉혹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의 훈육을 거친 끝에 그럴듯한 인물로 성장했다’고 작중 묘사된다. 하지만 만약 한스와 하일너. 이 두 인물 모두가 성실한 신학생으로 살다가 어느 날 학교를 뛰쳐나온 수레바퀴 아래서의 저자 헤르만 헤세의 경험에 빚댄 자아라고 본다면 한스의 죽음은 결코 슬픈 일이 아니다. 이것은 억눌리고 불편했던 자신의 과거에서 벗어나는 행위이며. 한스 기벤라트와 함께 익사한 과거의 기억 대신 그 빈자리를 살아남은 헤르만 하일너의 인생으로 채워 나가기를 선택한 독립적이고도 진정한 헤르만 헤세. 즉, 자기 자신으로서의 소생과도 같다. 따라서 책을 전부 읽은 뒤 이 작가는 그 존재만으로 기성세대와 교육제도에 고통받는 청소년들의 희망이자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양극성을 띠는 두 가지 키워드로 우선 심심한 복수와 위로를 전한 헤세는, 이어지는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에 독자들로 하여금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진다. 그것은 아주 보편적으로 대비되는 빛과 어둠에 관한 개념으로. 빛으로 존재하는 선함이 언제나 선한 것인지. 어둠으로 존재

하는 악함이 언제나 악한 것인지. 주인공이 사는 마을의 두 골목길 게르버 거리와 매의 골목을 통해 우리에게 묻는다. 밝은 게르버 거리는 교회와 선량한 중산층이 사는 저택이 있지만 한스를 힘들게 하는 목사님과 아버지, 교사들이 존재하고. 어두운 매의 골목은 비스듬한 집들과 가난, 범죄가 만연하지만 한스에게 낚시를 가르쳐준 소년과 성 크리스토퍼스의 얘기를 들려주는 여인 또한 살고 있다. 무조건적인 선과 악은 존재하는가. 나이를 막론하고 모두가 가져야 할 삶에 대한 고찰을 고민 끝에 정립하도록 제시하는 셈이다.

어떻게 사는 것이 맞을까. 생명을 부여받는 순간부터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숙제에 대한 답을 그저 조금 더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제시하는 자는 진정한 타인이자 어른이 아니다. 대체 왜 자칭 어른들의 천박하고 소모적인 야망에 희생되는 것은 무고한 소년이어야 했던 말인가. 헤세가 '수레바퀴 아래서'를 발표하고 1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지금. 긴 시간의 간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굴러가는 바퀴 밑 푸르른 새싹들은 자라나지도 못하고 짓밟히고 있다. 이 책이 세계고전으로서 오랫동안 사랑받는 이유는 어쩌면 그 씩씩한 현실도 한몫했으리라. 우리는 이제 그만 자각해야 한다. 누적된 피해자들 위로 열심히 굴러가고 있는 것이 과연 정말 발전을 위한 수레바퀴인가 아니면 그저 수많은 희생을 낳을 뿐인 쳇바퀴인가.

세상을 변화시킬 생존기계들 -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를 읽고 -

식품영양학과 정세*

<이기적 유전자> 짹짹한 제목, 책을 덮은 후에도 나는 그 여운을 쉬이 지울 수 없었다. ‘인간이 생존 기계라니? 원래 이기적인 게 인간이라니.’ 하는 생각과 함께 서론에서 언급된 항의 메일이 조금 납득됐다. 그래도 인간은 이타적에 가깝다는 내 가치관이 한순간에 흔들렸다. 생각해보면 나의 가치관은 인간의 문화라는 수프, 즉 “땀”의 주입에 의한 주관적인 것이었을 뿐, 살아가면서 나 자신과 세상의 모습을 마주할 때는 인간의 본성이 이기에 가깝다고 느꼈기에, 그리 쉽게 흔들렸던 듯하다. ‘사람이 사는 이유는 무엇인가?’ 생물학적 관점으로 해석한 그의 주장을 읽노라면 인간은 그저 유전자의 복제를 위한 생존기계임이 틀림없는 “사실”이며, 삶은 오로지 “유전자의 생존”을 위한 것이 된다. ‘누굴 위한 생존인가. 유전자의 생존을 위해 우리는 살아가나. 세상에 별처럼 반짝이듯 보이는 이타적 사람의 존재는 어떻게 설명가능한가.’ 하고 끊임없는 물음표가 생겨났다.

이타적 행위는 생존 앞에서 사그라질 수밖에 없다.

“사람이 죽었다구요! 내 말 안들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우리끼리 죽이면 안 되는 거잖아” 적자생존, 계급사회, 승자독식. 현대사회의 모습을 표상한 작품, <오징어게임>속에는 이기적 유전자의 특성을 담은 인간의 모습이 잘 그려져 있다. 상금이 가까워지며 본색이 드러나, 사람을 죽이고도 당당한 태도를 보이는 상우와 그의 동네 형이었던 기훈, 모두에게 이기적 모습은 여지없이 드러난다. 기훈은 상우와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최소한의 인간성을 보이지만 총에 맞아 쓰러진 참가자의 도움을 외면하고, 깡부를 뺏았던 일남의 약점을 악용하여 게임에서 살아남으려 하는 등, 결정적인 생존문제 앞에서는 결국 이기적으로 변해버린다. 이타적인 모습이 조금이나마 존재하는 인물임에도 생존 앞에서는 그조차 힘없이, 쉽게 사그라져버린다는 것이다. 놀랍게도 작품 안에서는 도킨스의 주장을 뒤엎는 인물도 등장한다, 그는 “알리”다. 작품 속에서 가장 선한 인물로 나타난 그는, 첫번째 게임에서 당시 누군지도 몰랐던 기훈을 위해 목숨을 잃을 위험을 감수한다. 그러나 씩씩하게도 게임의 끝에서 형이라고 부를 정도로 신뢰했던 상우에게 배신당해 허무하게 목숨을 잃고 만다.

어느 누가 자신의 생존을 뒤로하고 이타적 행위를 앞세울 수 있을 것인가. 역으로 극 중의 알리와 같이, 선의로 한 행동이 나에게 큰 불행으로 닥친다면 그 누가 이타적인 행동을 나서서 할 수 있겠는가. 그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다. 현대사회에서는 살아남기가 더욱 힘들어지고 공동체 의식이 결여되어 사분오열되며 타인에 대한 마음이 점점 사그라지는 모습이 더욱 두드러지곤 한다.

홉스의 전쟁상태 그리고 착한 사마리안 법은 이기적 인간의 증거

도킨스의 주장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것이 “착한 사마리안법”과 같은 법 제도와 영국의 철학자, 홉스의 주장이다. 홉스는 만인 대 만인에 대한 투쟁과 함께, 쌍방 모두 공격의 의도가 상존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어느 쪽이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타방에 대한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적대관계를 갖는 것과 같은 전쟁상태가 곧 인간의 자연상태임을 주장했다. 현대사회는 산업혁명을 이뤄냄으로써 경제 총 생산량의 증가를 이룩했고, 많은 사람이 결핍에서 보다 자유로워졌으며 과거에 비해 더 나은 삶과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되었다. 따라서 홉스의 전쟁상태는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 전쟁과 재난과 같은 공급의 불안정이 일어나는 상황 앞에서는 여지없이 이기적인 인간의, 유전자의 생존 본능이 나타나는 것을 적잖이 볼 수 있다.

착한 사마리안법은 어떠한가? 법이 없는 사회를 상상해보았는가. 우리 사회에서 “법”은 모두의 생존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개인의 특정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전쟁상태에서 벗어나 평화상태를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다. 헌법 제37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된 것처럼 말이다. 법이 없는 사회는 무질서해지고 서로가 서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전쟁상태”로 자연스레 흘러갈 것이 너무나 분명해 보인다. 특이한 것은 착한 사마리안법은 나라에 따라 법 영역과, 도덕영역으로 둘 수 있다는 점인데, 이에 따라 누군가를 돕는 행위가 갖는 당위성의 유무가 결정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혈연 관계의 유기, 존속에 대한 처벌만 명시되어 있는 반면, 프랑스에서는 누구든 제3자의 위험을 즉각적으로 방지하지 않으면 억대 벌금을 처하는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현재 우리나라에 착한 사마리안법은 부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위험에 처한 약자를 구한 이타적 인간의 일화가 들려오는 반면, 의식을 잃은 택시기사를 두고 떠난 이기적 인간의 일화가 들려오기도 하는 것이다. 즉, 착한 사마리안법은 “강제”하지 않으면 결코 인간의 이타적 행위가 100% 이뤄지지 않는 것을 뜻하고, 이는 상대방의 안위보다 “내”가 우선이 되는 이기심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감정을 공유하고 사랑하는 존재다.

그렇다면 위의 상황에서 위험에 처한 약자를 구한 이타적 인간의 일화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리처드 도킨스가 “밈”이라는 한 단어만으로 정리해버린 인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인간은 어떤 동물인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본질과 본성, “인간성”은 어디에서 오는가. 인간은 경험함으로써 삶을 살아가고, 그 안에서 수많은 “감정”을 느낀다. 그리고 그 “감정”은 인간 행위의 동기가 되고, 생명을 불어넣는다. 인간은 세상 속에서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이를 나누고 공유함으로써 살아가는 생명체인 것이다. 영화 <월E>에서 지구 쓰레기 청소 로봇이었던 월E가 아름다운 식물과 이브를 만나고 지구를 구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그 안의 생존 의자에 앉아 가만히 생명을 연장하고 있던 인간의 모습보다 더 인간 같다고 느끼는 이유 또한 “감정”이 있음에 있다. “감정”이 없는 인간이 곧 유전자의 생존기계에서 그칠 뿐이다. 앞서 살펴봤듯, 생물학자였던 도킨스가 <이기적유전자>를 통해 주장한 핵심, 즉 인간이 가진 생물학적 본성이 결국 이기적이다 라는 것은 반박할 여지가 없지만, 이기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정”을 느끼고, 서로 공유하고, 또 무언가를 “사랑”함으로써 이타적일 수 있고, 인간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기적임으로써 소유할 것인가, 이타적임으로써 존재할 것인가.

도킨스는 순수하고 사욕이 없는 이타주의라는 것은 자연계에는 안주할 여지도 없고 전 세계의 역사를 통틀어 존재한 예도 없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 놀랍게도 우리 모두는 나라를

사랑한 사람들, “애국자”를 통해 그 이타적 삶을 찾아볼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시체로 성벽을 삼아서 우리의 독립을 지키고,
우리의 시체로 발등상을 삼아서 우리의 자손을 높이고,
우리의 시체로 거름을 삼아서 우리의 문화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한다.”¹*

시체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니. 백범김구가 <백범일지>를 통해 남긴 이 말은 생존기계의 궁극적 주인인 유전자가 들으면 깜짝 놀랄 말이다. 백범김구와 뜻을 함께한, 애국자들은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로지 나라의 독립을 위해 투쟁했고, 수많은 희생과 투쟁 끝에 우리나라는 독립을 맞이했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생존은 뒤로한 채 이타적 삶을 산 인물들이 만들어낸 세상의 기적일 것이다. 그렇다면 애국자와 같은 삶을 당신은 살 수 있는가를 되묻는다? 이타적 삶을 장담할 수 있는가. 나 또한 감히 장담할 수 없었다. 이기와 이타의 삶이 지닐 각각의 가치가 무엇인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예리히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에서 이기적인 삶은 소유할 수 있음을, 이타적인 삶은 존재할 수 있음을 이야기했다. 그렇다. 나 또한 이타적 삶을 살아간 이들을 기억했고 마음에 품음으로써 그들은 존재했다. 비록 현생의 삶은 짧거나 유전자 생존 수명은 늘리지 못했을지라도, 기억됨으로써 그들이 존재한 것이다. 이기적에 가까움으로써 소유할 것인가, 이타적에 가까움으로써 존재할 것인가. 가치의 무게를 재고 무엇을 선택하는 지는 나와 당신의 몫이다.

이기적 인간, 생존을 위한 이타적 인간, 그리고 이기를 넘어선 이타적 인간.

순수한 이타적 행위는 사랑으로 설명될 수 있지만, 우리는 사회 속에서 알게 모르게 이타적행위를 통해 살아간다. 이는 유전자의 조정경기비유, 그리고 공급과 수요의 논리로 설명가능하다. 제 아무리 암을 치료할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한다 한들, 암을 치료할 환자가 없다면 그 기술이 무슨 가치를 지니겠는가. 드넓은 지구에서 나 자신이 독보적으로 뛰어나다 한들, 이기적인 마음과 역량 하나만으로는 세상에서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없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꼭 타인에게 있어 가치가 있어야만 나 또한 그 가치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음으로써 생존 수명을 늘일 수 있다. 수레바퀴에서 내가 주축을 모두 담당하고 있다고 한들, 기름 없이는 절대 작동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수레바퀴는 맞물리지 않고서 굴러갈 수 없고, 기름 없이 작동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다. 정리하자면 유전자는 본래 이기적이지만, 사람은 이기를 위해 이타적일 수도 있고 감정과 사랑을 통해 이기를 넘어선 이타를 발휘할 수 있다.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이기와 이타 그 사이에서 끊임없는 줄타기를 하는 것은 인간의 숙명이다.

<이기적 유전자>는 생물학적 주장을 바탕으로 인간의 본성 그리고 삶에 대한 고찰을 불러왔고, 그 끝에서 나는 삶에 대한 밑그림을 그렸다. 동물과 인간사회 예시를 통한 논리적인 비유, 그리고 <오징어게임>의 사례만 미뤄봐도 적당히 이기적이면서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 유전자의 생존 수명을 늘이는 측면에서는 가장 유리해 보인다. 이기적과 이타적,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듯한 ESS전략을 자연선택이 선호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럼에도 삶의 생존 앞에서 두려움을 떨쳐내고 생존을 위한 이타를 벗어나 “사랑”을 통한 이타심을 실현했을 때 세상에 기적이 일어났음을, 그리고 우리 또한 그 기적 안에서 살고 있었음을 볼 수 있었다. 이기를 넘어선 이타는 기적 그

¹ 도진순, 백범일지, 돌베개, 1997, 15쪽.

자체였고, 그 기적은 오늘도 세상을 바꾼다. 우리는 “사랑”함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생존기계들이다.

적어도 뫼르소는 선택받았다 - 알베르 카뮈 <이방인>을 읽고 -

조형예술학과 정의*

최근 나는, 언제부터인가 소설을 읽을 때 일관적인 습관 하나가 생겼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주인공’이라는 요소는 대부분의 작품에 있어서 다양한 방식(역할이라거나 서술 등등)으로 하여금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마련이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에 집중하고, 그의 입장에서 몰입하게 된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나는 그런 주인공들에게(혹은 그런 주인공을 내세운 작가의 의사에) 일종의 거부 심리와 같은 것을 느끼는 듯 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내가 주인공이 가진 사상이나 행동에 무조건적인 거부 의사를 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다른 모든 이들이 경험하듯, 어떤 주인공들은 감정이입의 대상으로서, 혹은 소설의 주제의식을 부각하는 장치로서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주었다. 하지만 내가 경계하는 점은, 주인공이나 주인공에 대한 작중 서술이 나의 판단을 흐리거나, 생각을 왜곡할지도 모른다는 부분이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나는 주인공이라는 작품 내 장치가 가하는 일방적인 관점을 매우 꺼린다. 나는 ‘주인공과 일정 거리를 두는 습관’과 함께 알베르 카뮈의 <이방인>을 읽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이 작품과, 그에 대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감상들은, 안타깝게도 나에게 너무나 지독한 불쾌감을 안겨주었다.

<이방인>의 주인공 뫼르소는 굉장히 독특한 인물이다. 소설의 도입부인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일지도. 잘 모르겠다’는 그의 성격을 훌륭하게 요약한 짧은 문장이자 소설의 시작이다. 그는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음에도 무심하게 일관한다. 장례 때 어머니의 시신 곁에서 담배를 피거나, 바로 다음날 마리라는 여성을 만나 희극영화를 보고 밤을 지내는 등 어머니의 죽음에도 그는 슬픔이라는 감정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그는 어머니의 죽음에 슬퍼하지 않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청혼을 받아들이기도 하며, 보다 좋은 환경으로의 이직을 거부한다. 이 부분을 읽은 시점에서 작가인 카뮈가 왜 소설의 제목을 ‘이방인’으로 지었는지, 그리고 왜 뫼르소에게 이런 비범한 성격을 부여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카뮈는 뫼르소를 일반적인 사회 통념과는 거리가 먼 ‘이방인’으로 설정한 것이다.

뫼르소가 살인을 저지르는 부분은 더더욱 비범하다고 할 수 있다. 뫼르소는 해변으로 놀러갔다가 샘물 주변에서 만난 아랍인 한 명을 총으로 쏘아 죽이게 되는데 그 동기라는 것이, 직전에 그 아랍인이 친구인 레몽을 다치게 해서도 아니고, 자신을 칼로 위협해서도 아닌, 그의 칼에 반사된 태양빛이 눈부셨기 때문이었다. 그는 재판에서 그러한 터무니없는 동기가 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임을 인지하고도 진실을 숨기지 않았고, 검사 측은 살인사건과는 별 관련이 없는, ‘그가 그의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취한 행동들’을 문제삼으며 그의 인격에 문제가 있었음을 강조하

고, 이를 근거로 해당 사건은 계획되었음을 주장하였으며, 재판장은 이를 받아들여 뫼르소에게 사형을 선고하게 된다. 그를 죽음으로 몰아간 것은 그가 일반적인 사회상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이라고 작품은 말하고 있다.

‘사람을 죽인 자가 사형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윤리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소설이 쓰여진 시대적인 상황이나, 소설의 배경은 이를 부정하는데, 바로 뫼르소가 죽인 피해자의 출신이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알제리였기 때문이다. 소설에서도 이 부분이 드러나는데, 변호사나 예심판사도 ‘별 볼일 없는 사건 취급을 받을 것이다’라며 해당 재판이 뫼르소에게 유리할 것이라 예상했다. 그저 식민지 출신의 인간을 죽였을 뿐이니 대충 가벼운 형벌을 받고 풀려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뫼르소는 사실 사형을 받을 만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그의 ‘이방인’적인 면모로 인해 ‘부조리’한 재판 과정을 거쳐 사형을 받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에게 주어진 사형이라는 결말은 부당하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해당 작품을 읽으면서 남긴 감상들이었고, 일부 사람들은 그가 진실을 숨기지 않는 ‘순교자’라느니 ‘영웅’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내가 앞서 말한 작품에 대한 깊은 불쾌감은 바로 이런 부분들에서 나온다.

사실 처음에는 이방인을 읽으면서 나의 마음 속에 생기는 불쾌감의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다. 분명히 뫼르소는 일반적인 사회관념과 뒤떨어진 ‘이방인’이었고, 분명히 그를 향한 ‘부조리’도 존재했다. 하지만 뫼르소는 과연 ‘진실을 위해 죽음을 불사한 순교자’라는 평가를 받을 자격이 있었는가? 왜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는가? 태양빛이 눈부셨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이는 뫼르소에게 사형이라는 처벌은 과잉한 것이었는가? 그런 처벌이 과잉하다고 느끼지 않는 것은 내가 뫼르소라는 이방인에 대하여 부조리를 저지르는 ‘가해자’이기 때문인가? 그에게 사형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이방인을 부조리로부터 구제한 ‘올바른’ 세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들이 떠오를 때마다 무엇인가 확실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오직 뫼르소만이 이방인이었는가? 오직 뫼르소만이 부조리를 겪었는가? 살해된 알제리인은 어떠한가? 식민지인 알제리의 출신이라는 이유로 프랑스라는 공동체에서 철저히 외면받은 것은 그가 ‘이방인’으로서 받은 억압이 아닌가? 그가 살해당했어도 ‘별 볼일 없는 사건’이 되는 것은, 또한 그에 대한 ‘부조리’가 아닌가? 나아가 그가 작품에서 이름 하나 알려지지 못한채, 단지 주인공의 ‘진실을 향한 결단’에 소모되는 장치에 불과하다는 것은 어떠한가? 그를 살해한 주인공 뫼르소가 결국 진실을 추구하는 순교자 취급을 받으며 박수를 짹짹 받는 것은 어떠한가? 그러한 뫼르소에 대한 평가 자체가 이 알제리 출신의 이방인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부조리가 아닌가? 나는 카뮈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든, ‘이방인’이라는 특성과, 그에 따른 ‘부조리’가 오직 주인공에게 ‘만’ 있는 것처럼 장치된 것과, 그 주인공의 시각에만 얽매어 ‘알제리 출신의 이방인’에 향하는 ‘부조리’는 철저히 묵살하는 감상자들의 이중적인 태도에 분노를 느꼈던 것이다. 살해된 알제리인과는 달리 뫼르소는, 적어도 작가와 감상자들에게 ‘선택된’ 이방인이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뫼르소의 사형은 소설 속의 ‘가상’이고, 소설을 통한 우리의 인식과 감상은 ‘현실’이라는 점이다. 나는 이런 ‘현실’의 감상들이, 작품에서 대다수에게 목살당한 이름없는 알제리인처럼 또다른 이방인들을, 심지어 이번에는 ‘실존하는 이방인들’을 낳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우려한다. 이 무슨 호들갑인가 싶을 수도 있겠으나, 사실 이미 우리는 한정된 시각으로 현상을 파악하려는 잘못을 수도 없이 저질러 왔고, 지금도 저지르고 있다. 부족한 정보로 전체를 경솔히 판단하고, 그런 왜곡된 판단 하에 경직된 틀(프레임)을 만들며, 그 경직된 틀에 맞지 않는 요소를 억압하는 행위는 결코 낫설지 않은 우리의 현실 문제이고, 아이러니하게도 카뮈가 지적하는 ‘이방인’에 대한 억압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가 <이방인>의 주인공인 뫼르소에 매몰되지 않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이방인은 결코 소수가 아니다. <이방인>에서 살해당한 알제리인은 한 개인일지 몰라도, 식민지 출신으로서 프랑스라는 공동체에서 벗어나 억압당했던 알제리인들은 또 다른 수많은 이방인‘들’이다. 소설 속의 살인사건이 이러한 수많은 이방인들과 수많은 부조리가 뒤섞인 문제라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면, 우리는 뫼르소에 대한 재판과정의 부조리를 인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에게 내려진 사형판결이 지나친 것이었다고 쉽게 말하지는 못할 것이다. 카뮈가 지적하는 문제들은, 카뮈 자신이 내세웠던 ‘선택받은 이방인의 한정적인 시각’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뫼르소: 이방인의 이면

문헌정보학전공 조나*

[이방인]은 보통 사람들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사회와 단절된 듯한 느낌을 주는 괴팍한 인간 뫼르소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이다. 이 작품은 뫼르소가 어머니의 사망을 전하는 전보를 받은 내용으로 시작하여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연인을 만나고, 이웃과의 일상을 보내고, 친구와 시간을 보내다 싸움에 휘말려 아랍인을 총으로 살해하게 되고, 이 사건을 이유로 재판을 한 뒤 뫼르소가 사형을 선고받으며 끝이 난다.

소설 속 뫼르소는 대부분 덩덤한 말투로 감정을 배제한 채, 보이는 사실을 읊조리는 듯한 태도를 고집한다. 그러한 면에서 뫼르소는 사회와는 동떨어진 채 한 발자국 벗어나 세상을 바라보는 이방인이자 초월자처럼 보였다. 뫼르소는 어떤 인물일까. 과연 그는 정말 무감각하고 감정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존재일까.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찌면 어제. 소설의 첫 문장이다. 어머니의 죽음이 자신과 무관한 일인 듯 뫼르소는 읊조린다. 그는 어머니의 장례식에서도 그 이후에도 어머니의 죽음에 슬퍼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는다. 마리를 만나 데이트를 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는 마리에게 정욕을 느낄 뿐 그녀를 사랑하는 듯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가 결혼을 하고 싶다는 말에도 그저 그녀가 원하기 때문이라 생각했고,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도, 재판을 하는 와중에도 마리를 걱정하거나 위하는 기색은 보이지 않았다. 아랍인을 살해할 때도 망설이지 않았으며 그를 향해 다섯 방의 총알을 쏘았다.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도 살인에 대한 죄책감 가지거나 후회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렇기에 그는 감정을 느끼고 이해하지 못하는 싸이코패스와 같다는 평가도 있었다.

하지만 내가 본 뫼르소는 그러한 인물이 아니었다. 뫼르소는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휴가를 요청하여 버스를 타고 오랜 시간을 거쳐 양로원으로 향한 인물이다. 장례뿐만 아니라 밤샘을 하기 위해 오후 2시에 양로원으로 향했고, 그는 양로원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를 보려고 했다. 또한 그는 양로원에 오는 동안 계속 잠을 잘 만큼 피곤한 상태였지만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어머니의 곁을 벗어나지 않았다.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은 것, 어머니의 마지막 얼굴을 확인하지 않은 것, 어머니와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며 다른 생각을 한 것. 어떻게 보면 그가 어머니의 죽음에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나는 그가 내뿜는 문장이 비어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감정을 느끼지 못한 것이 아니라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아닐까. 오랫동안 떨어져 지낸, 그리고 늘 자식에게만큼은 커다란 존재였을 어머니의 죽음을 누가 한순간에 받아들일 수 있을까. 뫼르소 스스로가 인지하지 못하고 읊조리지 못한 순간순간에 그의 슬픔이 묻어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정말 어머니를 생각하지 않는 불효자라면 뫼르소는 어머니를 양로원에 모시지 않았을 것이다. 어머니의 양로원 생활을 듣고 기억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어머니의 부고에 양로원을 찾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는 어머니의 나이와 같은 사무적인 것이 아닌 함께 했을 때 그녀의 모습, 신념(종교), 버릇, 조언, 옛 추억 등 관심이 없었다면 알아채지도 못했을 것들을 기억하고 간직하고 있었다.

뫼르소는 셀레스트, 레몽, 살라만노 등 그 주변 인물과 이웃들에 대한 관심도 많았다. 그는 늘 자신의 주변을 관찰했고 기억했다. 살라만노와 그의 반려견의 산책을 지켜보고 그 둘의 공통점을 발견했다. 살라만노가 반려견을 잃고 슬퍼할 때도 그를 집에서 쫓아내지 않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를 건넸다. 셀레스트의 식당을 이용하며 그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그저 지나가는 사람이었을 뿐인 여인에 대한 것도 하나하나 세세하게 관찰했고 궁금해했다. 레몽과는 그의 부탁으로 친구가 되었고 곤란에 빠진 레몽을 외면하

지 않았으며 오히려 아랍인 무리가 복수를 위해 레몽을 쫓아왔을 때에도 도망치지 않고 그와 함께 싸웠다. 레몽이 흥분하여 아랍인을 죽이려 할 때는 오히려 그를 말리기까지 했다.

마리와 관계 역시 오래전부터 이어온 인연이었다. 비록 연인이 된 시기는 어머니의 장례식 직후로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오랜만에 만났음에도 서로 마음이 통했다는 것은 그만큼 특별한 시간을 함께 보내지 않았을까. 뢰르소 본인은 단순히 욕정이라 생각했지만 인간은 본디 자기중심적인 존재이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녀를 떠올렸다는 사실만으로 그가 마리를 아끼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사형을 선고받고 죽음을 기다리면서도 마리를 생각하지 않는가. 비록 그 내용이 부정적일지라도 이는 죽음을 앞두고 두려움에 휩싸인 인간의 비겁함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어머니에 대한 일로 질타받고 죄인 취급을 받은 뢰르소는 사실 그 누구보다도 타인에게 관심이 많고 상대를 배려하는 인물이다. 감옥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주변의 이야기를 귀담아들었다. 자신의 앞날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차분히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여론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가 대놓고 무관심을 표한 이는 종교적 이야기를 펼치던 판사와 사형선고를 받은 그에게 계속해서 면회 신청을 한 사제뿐이다. 자신에게 본인의 신념과 가치관을 주입 시키고 끊임없이 강요하려는 인간들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사회적 통념에 맞지 않는 뢰르소의 솔직함(고집)에 의해 그가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하지만 소설을 읽은 이들 중 그의 처벌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는 얼마 없을 것이다. 비록 뢰르소가 살인을 했지만 아랍인 역시 흥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이전의 만남에서 흥기로 레몽에게 상처를 입힌 전적이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했을 때 뢰르소는 과한 형벌을 받은 희생자이다. 또한 재판과정에서 피고인 뢰르소는 별다른 변호를 할 수 없었고 배심원들과 검사는 사건이 아닌 어머니의 일로 감정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할 수 있다. 윤리라는 것은 인간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덕목이다. 하지만 재판장에서만큼 윤리보단 사실에 의한 근거만으로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뢰르소는 감정 동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사이코패스가 아니다. 그는 감정에 휘둘리고 당장 눈앞의 것 밖에 보지 못하는 인간의 부족함이 만든 억울한 피해자일 뿐이다.

우리는 유전자의 지배를 받는가 - 리처드 도킨스 <이기적 유전자>를 읽고 -

컴퓨터과학과 지재*

타인에게 궁금증을 가질 때 질문하여 그 답을 얻어내는 우리 인간은, 타인만큼이나 자신에 대해 의문을 품는다. 자신에게 하는 질문은 그 무엇보다 빠르고 솔직하게 답을 얻을 수 있기에 질문은 그치지 않고 꼬리에 꼬리를 문다. ‘나는 무엇일까,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떻게 존재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여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도달한다. 이런 궁금증에 대한 해답은 그동안 과학적 대답보다 초자연적인, 혹은 철학적 대답에서 관념적으로만 접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를 읽기 시작했을 때 나는 실재적 해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인류의 탄생에서 더 나아가 생물의 기원을 알아보면 우리가 무엇인지 알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말이다. 하지만 도킨스는 행동학자답게 ‘생물이 어떻게 생겼는가’에는 관심이 없어 보였다. ‘그것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해 유전자를 시작점으로 두고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그리고 남긴 말.

“우리는 그들의 생존 기계다.”

“그들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창조했다.”

유전자는 자신들이 더욱 안전하게 살아남도록 우리의 팔과 다리를 만들었고, 자신들이 더욱 멀리 퍼지도록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갖게 했다. 도킨스는 이유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에 주목했다. 나는 더욱 나 자신이 궁금해졌다. 나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온전히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럼 나는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가?

이런 궁금증은 고대부터 시작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심장 속에 우리의 마음, 소위 말하는 정신이 있다고 보았다.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던 당시에는 현재 모든 정신작용이 우리의 두뇌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고대 이후 심신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한 인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7세기의 르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인간이 육체도 사용하고 정신도 사용하므로 각각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에 이어지는 데카르트의 회의론에서 그는 모든 믿음, 사상, 사고, 물질을 회의와 의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며 자신의 육체까지도 의심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주체, ‘나’는 의심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의심하기 위해서 그 의심을 하는 주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의심하는 인간의 정신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작점은 정신작용의 총괄인 뇌에서부터 시작인가? 도킨스에 따르면 뇌는 유전자가 만들어낸 집행관이다. 위협이 되는 것들에 즉각적인 판단과 대처를 작동 속도가 느린 유전자가 할 수 없으니 그들은 담당 기관을 만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유전자가 살아남는 선택만을 할 것이고 유전자 생존에 손해 보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 살아남지 못하거나 생존에 위협을 받더라도 그 희생에 준하는 미래의 기댓값, 즉 호혜성 이타주의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생각과 행위, 그리고 유전자의 생존과 아무 관련 없이 일어난, 가해자의 쾌락만을 위한 묻지 마 식 범죄는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는가? 무엇이, 어떻게, 유전자가 만든 뇌가 프로그램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한 것인지 몰라도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 정상적인 행위는 아닐지라도, 행위가 분명 뇌를 거치더라도, 우리는 유전자의 뜻과는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다.

또한 뇌과학에서 뇌는 변화할 수 있다고 한다. 이기적 유전자에서도 나타나 있듯, 뇌는 mim을 통해 변화하며 창조자인 이기적 자기복제자에 대항할 힘을 갖는다. 이것을, 우리와 매우 멀리 떨어진 거리에 거주하는 외계인들의 침략 컴퓨터가 지구에 설치되었을 때 그들의 목적에 반하는 명령을 수행하도록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은 mim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우리는 이미 존재하는 종교, 문화, 관습 등을 따르거나 거부한다. 그리고 유전자 풀에서 유전자가 퍼져나갈 때 변이를 거치는 것처럼 mim 또한 이 과정을 겪는다. 이로써 우리는 뇌가 mim을 통해 작동할 때 진정 우리 의도대로 행동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사실 뇌를 두고 유전자와 쟁탈전을 벌이는 것이 아닐까?

고대부터 현대까지 과학의 발전과 함께 인간 자신에 대한 생각과 논의는 끊임이 없었다. 여러 학자가 나름의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치고 일반화를 시도하려 했듯이 나 역시 유전자와 독립적인 '나'가 존재한다고 믿고 증명하려고 했다. 세상에 동일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인간이 느끼는 감정과 주변을 받아들이는 것은 개개인이 다르며 분명 그들을 변화시킨다. 인간이 세상에 나고부터 스스로 판단하고 외부를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우리가 유전자의 통제에서 거리를 둔 순간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다. 평소에 뇌는 자기복제자의 뜻대로 유전자가 지배하고 있다가, mim이 등장하면 mim은 뇌를 회유하고 유전자가 가진 뇌의 통제권을 빼앗는다. 이렇게 우리가 유전자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기에, 유전자는 우리 몸의 완전한 지배자가 될 수 없다. 우리는 자기복제자와 조종석을 두고 대결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제 우리는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은 그 근본이 되는 자기복제자인 유전자를 뛰어 넘기까지 했다. 오늘날 인간은 유전자의 존재를 인식하고, 탐구하며, 이제는 유전자를 입맛대로 조작하기도 한다. 다른 종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인류의 이익을 꾀하는 것을 인간이 가진 유전자의 이기심이라 볼 수 있겠지만, 유전자 조작의 본래 의도와 다른, 소위 '괴이한 작품'들의 등장과 과거 인류를 향한 반인륜적 실험의 시도들이 이어지는 다음 연구의 밑거름이 되는 것을 보면 오늘날 인간은 자연 생물의 개념을 벗어나고 있다. 인간은 자연의 섭리를 거부하고 장생(長生)을 추구하고 세상에 난대로 살지 않는다.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키가 작다고 고민이면, 신체에 변화를 줄 수 있다. 인간은 점점 초자연적인 존재인 '신'에 가까워진다고 말해야 하지 않겠는가? 유전자가 만들어낸 생존 기계를 평가하고, 거부하며, 그것을 바꾸려는 의도를 가지기 시작한 현재, 인간은 이미 유전자를 넘어서 버렸다.

이제는 인간이, 언젠가 유전자의 개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럼 우리는 현재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미래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일상 속 우리는 각자의 경험을 가지고 다양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누구나 흔히 말하길, "머리는 A를 하라고 하지만 가슴은 B를 하라고 한다"고 경험해 봤을 것이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정전기처럼 반짝 일어난 본능을 억제하고 해야 하는 것을 할 때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라고 힘을 내곤 한다. 그것이 무엇이나에 따라 유전자를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유전자에 복종하지 않는 '나'를 위한 것일 수도 있다. 이 또한 사람마다 정의하는 범위가 다르겠지만 그것은 이제 중요하지 않다.

원시부터 진화해온 인류는 이제 유전자의 통제를 넘어 버렸기 때문이다. 나는 도킨스에게 역설적으로 이야기해 보고 싶다. 유전자를 위해 생존 기계의 역할을 자처할 의무는 그 누구에게도 없지 않느냐고 말이다. 우린 유전자를 위한 삶이 아닌, 스스로의 삶을 우선순위로 두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자신이 만족하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유전자의 덕이 아닌 '나' 자신이 살아온 삶이 이뤄낸 생각과 노력이 이룬, 나의 덕임이 이제는 분명하다.